국통 73－6－102

共産主義 本質批判

「밴더빌트」 대학
「공산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연구소」 편찬

國 土 統 一 院

The Nature of Communism

—— A Guide for Use in Studying Communis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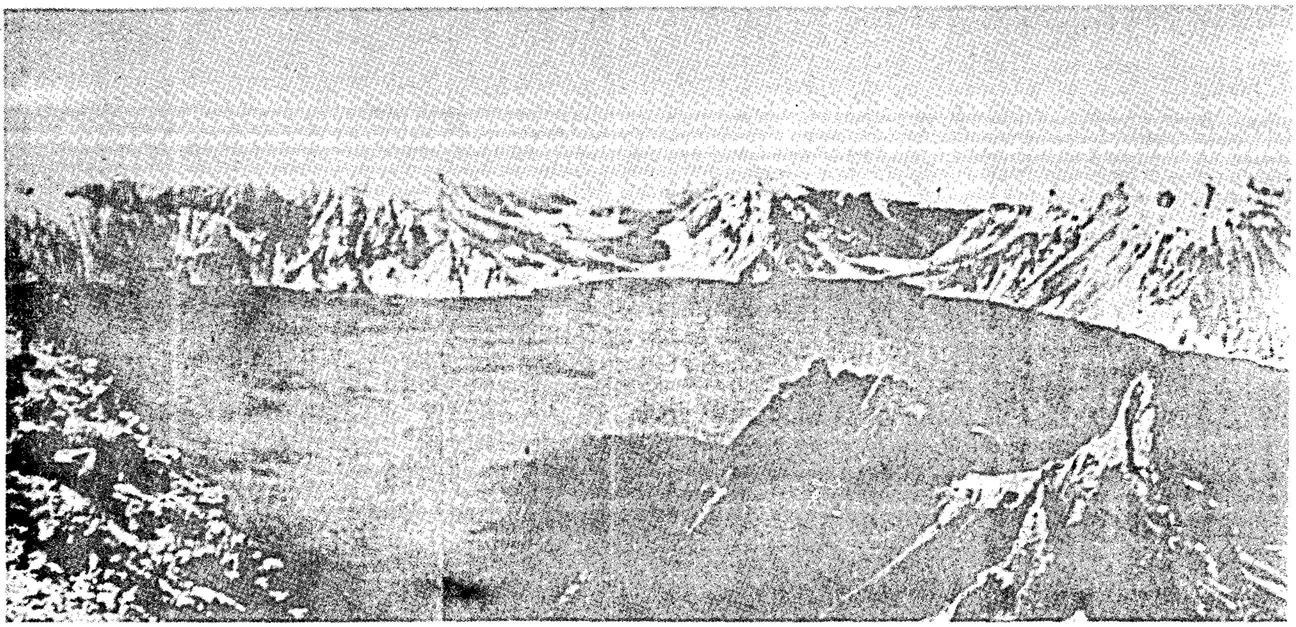
Institute on Communism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Vanderbilt University.

국토통일

1970년 3월 1일

대통령 박정희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 년 12 월 5 일

발　간　사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 대화의 시작으로 정치사상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새로운 차원에서의 비판방법론 개발과 방향제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대화가 곧 통일은 아닌 것이며, 대화에 어떤 전략적인 요소를 가미할려는 북한측의 태도로 말미암아 대화가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공산주의의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온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민주신념과 승공통일 의식이 뿌리깊게 스며들게 하며 민주통일을 위한 주체역량을 배양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자료가 부족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러한 정치사상 교육자료 개발을 위하여 당원에서는 "공산주의와민주주의",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등의 교육자료를 발간한 바가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자료 개발계획의 하나로 최근 발간한 본서의 요약 해설판인 "공산주의 본질비판" (요약판)에 이어 이번에 본서를 채택 번역 발간하게된 것은 일선반공교육 담당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공산주의비판 방법론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본서는 "밴더빌트"대학의 미국 고등학교 반공교사 교육을 위한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유명한 "공산주의비판 강습회"에서의 실험교육을 거쳐 세계적 전문가들이 각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일선반공 교육 담당자 및 전문가 여러분의 정치 사상교육 방법론 개발과 교수 지침작성에 충분히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끝으로 전문가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과 비판이 계시기를 바라마지않는다.

1973년　10월　일

국토통일원 장관　김　영　선

머 리 말

1950年代末 부터 美国 国民들은 그 동안의 無関心에서 벗어나 共産主義에 対한 진지한 関心을 보이게 되었다.

이 結果로 高等学校에서 共産主義를 定規科目의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는 運動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의 結果로 새로운 責任을 맡게된 여러教師들을 도와주기 為해서 「밴더빌트」大学校의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研究所』는 1962年以来 그동안 高等学校 教師들을 위한 7週課程, 6学点의 『共産主義研究夏季講座』를 実施해 왔다.

이 夏季講座는 「노틀담」大学의 政治学教授 「게르하르트·니마이어」博士, 「하바드」大学의 歴史 및 政治学 명예教授인 「윌리암·엘리오트」博士, 「아메리칸」大学의 「르로이·윌리암스」教授, 「밴더빌트」大学의 経済学教授 「이윙·셔한」博士等의 主導下에 이끌어져 온 것이다.

이 講座는 共産主義 研究와 직접 関係가 있는 노련한 社会科教師로서 学士資格을 가졌거나 歴史, 政治, 経済등의 科目을 包含한 最近의 学校工夫에서 B学点以上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研究実蹟書와 推薦書 2通을 提出한 사람에 限하여 選抜된다.

講座의 内容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理念, 「레닌」의 理念과 政策, 「레닌」以後의 共産主義思想과 현재까지의 論争, 소련과 기타 모든 国家들에 있어서의 共産党 組織과 目的과 方法, 国際共産主義運動, 共産主義下의 소련의 政治, 経済 및 社会制度, 中共, 東欧 및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共産主義와 立憲民主主義의 理論, 共産世界와 西方世界의 政治, 経済, 宗教, 倫理等 諸観点에 対한 比較研究等이 포함되고 있다.

매일매일의 教授는 한時間짜리 講義가 두개, 한시간 동안의 집단토의시간, 그리고 각 참가자에게 마련된 풍부한 장서를 갖춘 書斎속에서의 책임량 독서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高等学校 教師들 以外에도 大学의 教授 및 事務職員, 新聞, 「라디오」 「텔레비젼」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社会지도자들로서 共産主義에 깊은 関心을 가지고 있으며, 하는 事業이 共産主義를 더 理解함으로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講座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夏季講座에서 얻은 経験을 土台로 本研究所는 이 課題를 研究하는 여러 一線教師들에게 광범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目的下에 1964年 『共産主義本質』이라는 「텔레비젼」「프로그램」을 製作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3学期用으로 使用할 수 있게 構成되어 있고, 그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이미 앞서의 夏季講座에서 시험해 본 接近方法을 採択하였으며, 그 内容과 講師面에 있어서도 夏季講座의 것을 거의 그대로 同一하게 活用하였다.

共産主義에 대한 너무 広範한 研究는 혹시 危険하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西方世界의 国民들은 過去 共産主義에 関한 서적을 읽기를 꺼려 왔으며 오늘날 어떤 国家들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경향은 여전한 실정이다.

本研究所는 共産主義, 特히 「마르크스」思想이 社会의 결점을 指摘해 내고 있는 것은 事実이지만 共産主義自体는 아무런 真理도 아니며 오늘날 個人이나 社会의 諸問題를 解決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確信下에서 本「프로그램」을 製作하게 된 것이다.

비록 共産主義가 오늘날 많은 国家들을 그들의 支配圏内에 흡수하고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것 처럼 보이나, 共産主義는 그들이 主張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人類歴史 発展단계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인 다음 期間을 支配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共産主義에 対해서 철저한 研究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結論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本研究所는 西方世界의 国民들이 널리 共産主義에 関해서 理解하고 있지 못하다면 西方国家는 共産主義에 対한 現実的이고 훌륭한 政策을 樹

立할 수 없을것이라는 것을 確信하면서 이러한 共產主義研究에 勇気를 북돋아 준다는 意味에서 本「프로그램」을 선 보이는 바이다.

「이윙 P. 서헌」

「밴더빌트」大学校

『共產主義 및 立憲民主主義研究所』所長

目　　　次

발 간 사

머 리 말

第一章　序　論 …… 1

1. 教科課程 紹介 …… 3

第二章　共産主義 基本教義 批判 …… 17

第一節 「마르크스」와 「엥겔스」 …… 19

1. 「마르크스」의 著書와 背景 …… 19
2. 「마르크스」의 人間改造 …… 30
3. 「마르크스」의 歴史의 法則 …… 42
4.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革命 (I) …… 53
5.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革命 (II) …… 63
6. 「마르크스」의 資本論 (I) …… 74
7. 「마르크스」의 資本論 (II) …… 85
8. 「마르크스」의 資本論 (III) …… 96

第二節 「레닌」主義 …… 109

1. 「마르크스」로부터 「레닌」까지 …… 109
2. 「레닌」의 党 概念 …… 119
3. 権力掌握을 위한 戦略 …… 130
4. 未来의 共産政権 …… 140
5. 世界 政治 …… 152
6. 戦　術 …… 165

第三節 「레닌」以後의 教義 …… 176

1. 「스탈린」의 理念的 공헌 …… 176

2. 「후르시쵸프」와 「스탈린」格下 運動……187
3、党의 新綱領 (I)……199
4. 党의 新綱領 (II)……212
5. 毛沢東의 理念的 공헌……222
第四節 共産主義教義에 対한 反応……232
1. 共産主義에 있어서의 理念의 역할……232

第三章 共産政権……247
第一節 蘇聯共産党史……249
1. 1917年 以前의 「러시아」革命……249
2. 1917年 以前의 「러시아」共産党史……258
3. 1917年의 「러시아」革命……268
4. 革命後의 党의 支配(1917～1932)……276
5. 蘇聯共産党의 支配(1932～1961)……285
第二節 蘇聯의 政治, 経済, 社会実態……297
1. 蘇聯의 国家権力 構造……297
2. 蘇聯経済의 背景……306
3. 蘇聯의 経済構造……317
4. 農業과 農民……328
5. 蘇聯経済의 実績……336
6. 蘇聯의 法과 犯罪 및 処罰……347
7. 蘇聯의 文化……356
8. 蘇聯의 宗教……367
第三節 蘇聯以外 地域에서의 共産主義……385
1. 共産主義者들의 執権方式 (I)……385
2. 共産主義者들의 執権方式 (II)……395
3. 中国에서의 共産主義 (I): 権力闘争……405

4. 中国에서의 共産主義 (II) : 中共政権 …………………………… 413
5. 東欧衛星国家에서의 共産主義 …………………………… 422
6. 「유고슬라비아」의 共産主義 …………………………… 432
7. 蘇聯의 外交政策 (I) …………………………… 443
8. 蘇聯의 外交政策 (II) …………………………… 454

第四章 共産党 …………………………… 471
1. 世界共産主義 …………………………… 473
2. 共産主義者의 養成方式 …………………………… 483
3. 党의 内部訓練의 管理 …………………………… 492
4. 党의 外部紛争의 管理 …………………………… 501
5. 共産主義의 呼訴力 …………………………… 510
6. 「라틴・아메리카」의 共産主義 …………………………… 517

第五章 共産主義 批判 …………………………… 529
1. 共産主義와 科学的 方法 …………………………… 531
2. 経済秩序 …………………………… 540
3. 共産主義와 宗教 …………………………… 551
4. 政治秩序 …………………………… 562
5. 共産主義의 一般的인 前提 …………………………… 571

第一章　序　　　　論

1. 教科課程紹介(「프로그람」 No.1)

* 「서 한」 博 士

이 冊子는 共産主義의 理論, 組織 및 그 実際를 取扱하고 있다.

「벤더빌트」大学校의 経済学 및 経営学 教授인 「서 한」博士의 說明으로 本「씨리즈」를 始作하고져 한다. 「서 한」博士는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研究所』의 所長이며 「벤더빌트」大学校의 前任 単科大学長이고 経済問題 専門家이며 哲学博士이다.

첫번째 講議는 「서한」博士의 本「코스」에 대한 紹介로 부터 始作하기로 한다.

『共産主義 本質』에 関한 本「코스」에 대한 紹介를 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本「코스」는 特히 各 中等学校의 社会科 教師들을 위하여 만들어 졌다.

그러나 현금 전 自由世界에서 나날이 増加하고 있는 共産主義에 대한 適切한 說明의 要求에도 부응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만약 어쩌다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成人들도 이로써 조금이라도 利得을 얻게 된다면 기쁘게 생각하겠다.

그러나 本「코스」는 누구보다도 社会科 教師들을 為하여 만들어진 만큼, 전편을 통하여 그들의 要求에 최우선적으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本「프로그램」에 대한 一般論과 그 特殊한 背景에 대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共産主義란 그의 침략성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성공적인 운동이 되어 왔고, 이는 또한 우리들에게 적대적으로

---

* Ewing P. Shahan ; 「벤더빌트」大学 経済学教授
「콜럼비아」大学 Ph.D.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研究所』所長

대해 왔다. 그러나 自由世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러한 共産主義를 잘못 파악하고 이를 함축성있게 成功的으로 다루지 못하는 失敗의 歷史를 거듭해 왔다.

그 中의 重要한 국면을 상기해 보기로 하자.

共産主義가 처음 나타났을때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傾向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껏 믿어왔던 모든 것과 너무 상이한 教義로서 기만적이고 무자비하고 전체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現代社会에서 이런 것이 오래 持続할 수는 없으리라고만 생각했다.

1930年代와 2次大戰의 위기를 통하여 共産主義가 계속 維持되어 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우리는 그들과 협동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共産主義者들에게 公正하게 임한다면 그들도 正当하게 나오리라는 생각으로 試図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成功하지 못했음을 発見하였을 때는 이미 蘇聯이 방대한 勢力을 構築하고난 뒤였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自由世界의 全体 분위기는 『거의 반신불수의 마비나 과도한 염려로』인하여 공포 비슷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즉 우리는 거의 모든 分野에 대한 共産主義의 침투를 発見하게 된것이다.

이로 因하여 우리는 이의 取扱에 있어서의 失策을 非難하는 傾向이 싹트기 始作하였으며 (特히 中国에서의 失策) 우리의 매우 重要한 国家 指導者들 중 몇 사람이 양성적인 共産主義者는 아니지만 最少限 그 運動의 強力한 협조자로서 소환되었다. 우리는 共産主義의 理論, 즉 「마르크스」와 「레닌」의 저술들을 직시하기를 매우 꺼렸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 理論으로 改造되어 질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 社会의 분위기는 많이 변했으며 이러한 変化는 1950年代 後半에 始作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한 좀더 現実的인 態度와 나아가서 共産主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주시가 必要하며, 종국적으로는 그것의 正体를 明確하게 규명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美国에서는 学校에서 共産主義

理論을 美合衆国 歴史科目 中에 定規教科目으로 包含시키고 『民主主義 諸問題』같은 4年 「코스」에도 包含시키려는 広範囲한 国家的 運動이 일어났다. 이 「프로그램」도 이러한 運動의 一部分이며, 이 運動은 長期間에 걸쳐 国家的인 運動으로 持続될 것이다. 이것은 実質的이며 確固한 根拠를 갖고 있는, 또 相当히 오래 持続될 것으로서 国家予算의 뒷받침을 받으며 많은 重要한 国家機関, 立法機関, 教育機関과 同時에 地方의 学校 및 教育団体에 의해서 保護育成되어 왔다. 이 運動은 20万으로 推算되는 美国内의 完全 무방비상태인 中等学校의 社会科目 教師들을 包含시켰다.

그들은 大学 在学時에 거의 모두가 共産主義를 工夫할 機会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当時에는 大学에서 그런 科目이 許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学校에서 共産主義 理論을 講議시키려고 하자 教師들은 그 任務에 対한 充分한 準備가 없었음으로 相当히 계속적인 反対를 벌였다. 만약 우리가 共産主義에 대한 이번 研究에서 어떤 利得을 얻으려면 반드시 公正하고 客観的인 相当한 水準에서 이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즉 잘 訓練된 教師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우리는 또한 巨視的인 面에서 共産主義의 背景을 教師들에게 詳細하게 알려 줄 수 있는 비상「프로그램」의 必要性을 느꼈다. 이러한 国家的인 要求에 도움이 되어 볼려는 뜻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1962年以来 「벤더빌트」大学이 主導해 온 共産主義의 本質에 대한 夏季講座에서 제창된 것으로 「노트르담」大学의 政治学 教授이신 「게르하르트・니마이어」博士와 나 自身이 主管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선두는 「하바드」大学의 前任 教授이며 現「아메리칸」大学 教授이신 「윌리암・Y・엘리어트」教授로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顧問으로 계신다. 夏季講座 「코스」는 6週間「코스」로 集中的인 것이다. 共産主義에 대한 6学期分의 時間인 셈이다. 1964年 우리는 서로 相反되는 理論에 対해서 간결하게 자기의 見解를 피력하게금 하는 一週日을 더 加算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실지로 우리 優秀講座에서 實施한 講義의 半에 該当하는 分量으로 대개 같은 윤곽과 같은 演士陣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이 分野에서의 教師 訓練을 위한 하나의 実驗的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프로그램」은 共産主義에 대한 것이 全部이다. 特別 演士들의 부수적인 것 이외에는 우리들 自身의 時点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노트르담」대학 「매스콤」学科의 協助로써 「노트르담」大学의 「W. N. D. U.」放送局에서 製作된 것이다. 製作者는 「노트르담」大学의 「제랄드•벌리」助教授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디아나폴리스」의 「릴리 인도어맨트」協会, 「앤•아버」의 「렐럼」財団과 「피츠버그」의 「알란•M•스캐이프」여사와 그의 家族, 또 「나슈빌」에 계신 個人들로 부터 받은 많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졌음을 밝혀 둔다. 「시카코」의 『美国戦略研究所』의 支持와 価値있는 충고, 「플로리다」의 『大学教育 継続委員会』등의 支援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지금부터 이 序論의 나머지 部分을 세 가지의 一般的인 主題로써 分類하겠다.

첫째로 共産主義를 研究하는 가장 主된 理由를 強調하고 여기에 같이 包含된 諸問題를 討議하고 最終的으로 특히 우리 「프로그램」의 윤곽과 演士를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왜 共産主義를 学校에서 教育하여야 하는가?

왜냐하면 共産主義는 우리에게 深刻하고도 継続的인 威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共産主義는 그들의 勢力을 把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상스럽고도 왜곡된 主義인 것이다. 얼마나 그 問題가 深刻한가를 아주 간결하게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는 共産主義 思想이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年 <共産主義 宣言>을 썼을때 論理的으로 成立됐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125年 동안 그 運動은 全 世界 人口의 3分의 1을 支配해 왔다. 歴史上 그렇게 짧은 期間에 그렇게 顕著한 膨脹을 한 例는 軍事的, 宗教的, 政治的으로 없었다. 더구나 共産主義者들은 이것은 단지 始作에 不過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史観이나 体制나 理

念이 온 世界를 支配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레닌」은 "資本主義와 社会主義가 共存하는 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없다"고 말했다. 終局에 가서는 그 중 하나만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후르시쵸프」는 좀 겸양해서 부드럽게 말하였지만 더욱 세련되게 그 궁극적인 意味에는 변함없이 "우리는 平和로운 交易의 世界에 戰爭을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冷酷하게 이를 断行할 것이며 우리 体制의 우위성을 証明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이 어떤 형태로 그것을 說明하든 歷史는 자기들 편에 있다고 굳게 確信하고 있다. 「후르시쵸프」가 간단하게 闡明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필경 우리들을 埋葬해 버릴려고 하고 있다. 共産主義가 成功할 수 있었던 한 가지 理由는 目的達成을 為해서 그들이 教育을 重視해 왔다는 点이다. 「레닌」은 "우리에게 어린애를 8年 동안만 맡겨라, 그러면 그 애는 영원한 열성 共産党員이 될 것이다. 젊음을 가진 者 만이 未来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多幸하게도 이런 体制는 正当하지 않음이 証明되었다. 그러함에도 이의 維持를 위하여 蘇聯의 教師訓練機構에서는 学科時間의 40%를 共産主義 教育에 割当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理念, 制度를 共産主義者의 観点에서 치밀하게 研究 分析하며 철저한 共産主義의 正当化에 대한 教育을 시키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들의 教育制度에는 이와 비슷한 制度가 없다. 共産主義에 対한 関心깊은 研究의 重要한 두번째 理由는 세계 人口의 3分의 1이 그들의 支配下에 있다는 事実이다. 만일 이에 대하여 우리가 教育도 받지 못하고, 그 世界를 把握할 수도 없고, 그들의 教義도 理解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다루는 方法을 안다는 것은 전혀 不可能한 일일 것이다.

세번째 理由는 우리가 教室에서 共産主義를 가르치면서 얻은 経験인데 놀랍게도 共産主義 思想에 대한 研究는 때로 마음속에 궁극적인 問題意識을 심어 준다는 点이다. 学生들이 지금까지 経験한 바 어떠한 것보다도 더 根本的인 課題로서 우리들은 평소 우리自身의 理念에는 너무 친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 側 思想을 항상 명료하고 함축성있게 지닌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共産主義를 公正하게 工夫할 수 있고, 同時에 우리들 自身의 理念의 원천도 깊이 파고 研究할 수 있다면 그것은 学生들에게 무척 建設的인 経験이 될 것이다. 共産主義란 아주 약랄하고 또한 論理가 正然한 理念이지만 지난 한 世紀間의 経験으로 살펴 본다면 지독한 誤謬의 투성이인 것이다. 이것을 工夫하는 学生은 저절로 이것에 대한 反論을 갖도록 자극을 받으며 前에 経験하지 못했던 좀 더 깊은 自己自身의 根本에 대한 思考를 유도해 낸다. 그리하여 自己가 行한 행위에 대해서 価値를 부여하여야 할 理由를 思考하게 만들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確信을 주고, 다시 이를 새로히 認識하고 鼓舞를 받는다. 確実히 共産主義를 研究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自身의 理念만을 工夫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며 또한 이는 成功을 거두고 있다. 적어도 最近의 講議에서 나는 이것을 느꼈다. 現在로서 우리들 学生들이 共産主義에 대해 지대한 関心을 갖고 있음이 또한 이의 一部 原因이기도 하다. 그들은 굉장히 알고져 하며 지금까지 相当한 期間 이것은 드물게 보는 도발적인 課題였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理念을 継続的으로 改革하기 위해 努力하여야 한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항상 우리들의 根源을 主視하고 그 根源으로 帰結한다. 우리들은 共産主義 理論에 대한 反論을 세우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들 制度의 開発을 継続시켜 나아가는 데에 우리들의 目標가 있다. 우리 社会가 真実로 正当하고 共産社会가 不当하다면 우리들에게는 終局에는 우리들의 見解가 그들의 것보다 더 참되고 収穫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共産主義의 正体를 把握하기 위한 이 国家的인 運動이 包含하고 있는 諸問題에 대해서 討議해 보겠다.

첫번째 問題点은 教師가 이 問題에 대하여 잘 訓練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点이다. 経験한 바에 의하면 教室内에서 경솔하게 또는 非専門的인 方法으로 授業을 시키면 学生들이 이거 혹시 살짝 속이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심지어 무슨 伏線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낀다는 것이다. 뭣보다도 共産主義에 대한 경솔한 선전투의 態度는 持揚되어야 할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学生들은 "그런데 어째서 그 運動이 그렇게도 빨리 퍼졌읍니까?" 하고 質問할 것이다.

우리가 共産主義를 철저하게 把握하고져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勢力을 철저히 把握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不当性을 指摘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根本的인 段階에서 철저히 研究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研究를 遂行하는 우리들의 目的을 이룰 수가 없다. 이 問題에 대해서 必要한 必須的인 準備가 되어 있지 않은 教師는 教室에서 섣불리 共産主義 思想을 講議하기 위한 어떠한 義務도 担当해서는 안될 것이다.

教師의 資質에 대한 準備에 関하여 한번 더 強調하기 위하여 共産主義에 대해서 予備的인 方法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 하고져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심오하고 탐구적인 主義이며 그것은 그 特性과 結論에 있어서는 원시적이요, 그 細部에 있어서는 면밀한 것이다. 現代에 형성된 一般的인 主義가 대개 그러하듯이 이것도 아주 完全하고 철저하다. 이것은 깊은 철학에 그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매우 難解하다. 우리는 그것을 全体的인 하나의 主義로써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궁극적인 真理인 것처럼 나타났으며 추종자들의 철저한 献身을 要求한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問題의 解答이요 그들 行動의 根本이다. 共産主義란 宗教와 같은 것이다. 고로 우리는 그 勢力을 똑바로 理解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自然과 人間의 運命을 分析하는 것도 包含하며 善과 悪, 正義와 不義를 区別지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意味에서 하나의 道德律도 갖고 있다. 共産主義만이 真理의 本質을 알며 真理를 発見할 수 있는 方法같은 것에 대한 確実한 基準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勢力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해 본다면 도대체 美国人 중 몇 사람이나 中共의 毛沢東이 共産主義者의 闘争의 궁극적 目標로서 『相互의 経験과 사랑의 精神만이 온 人類에 만연하는 未来』를 들고 있다는 事実을 알고 있는가?

도대체 몇 사람이나 共産主義者들이 実際 行動에 있어서는 그 反対이면서도 모든 人類의 平和와 우정을 그들이 굳게 믿고 있다고 말하는 理由를 알고 있는가? 또한 共産主義者들이 人類 個個人의 가장 충실한 自我発展과 自我 表現을 믿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그들은 人間 個体는 個体自体에 帰結되지, 他人에 대한 再現의 道具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共産主義者들은 모든 人間이 追求하는 바, 完璧한 自我完成과 最高의 潜在 可能性의 再現을 이룩하는 人間을 追求하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人類 歴史上 가장 훌륭한 理想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다가 또한 그것은 강인한 精神力과 現実性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觀点에서 본다면 그것은 얄팍하고도 좁은 소견에 不過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排判하기 前에 먼저 그것을 理解해야 한다.

共産主義란 外部에서 흘러들어온 이방의 流入物이 아니라는 事実도 깨달아야 한다 共産主義란 西洋의 것이지 東洋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러시아」에서 発想되었고 따라서 亜細亜 勢力圏을 갖게 되었지만 事実은 英国, 仏蘭西, 独逸등 西欧에서도 마찬가지로 우후죽순같이 생겨났었다. 強力하고 고착되어 있는 西方 文明에다 우리가 믿고 있는 科学的인 方法으로 그들은 共産主義의 精髄를 잘 엮어 놓음으로써 대단한 勢力을 이룩했다. 우리는 단순히 共産主義를 하나의 悪으로서 경솔하게 방치하거나 現状態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수는 없다. 真正한 悪이란 真実로 根本的인 問題인 것이다. 우리는 「사탄」自体가 没落한 天使였다는 事実을 記憶해야 한다. 故로 共産主義를 効果的으로 가르치려면 教師들 自身이 그들의 弱点과 強点을 서로의 意識交換을 통하여 잘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共産主義 教授에 있어서 두번째 問題는 그것이 論議의 余地가 많고 感情이 개재되기 쉬운 主題라는 것이다. 이 点에 대해서는 달리 어떻게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정착하여 共存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論議의 余地가 많고 感情이 개재되기 쉬운 共産主義의 特質에 関한 두가지 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뭣보다도 共産主義는 誓約을 要求하는 하나의 教理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研究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中立的 態度를 取할 수 있을지는 자못 疑心스럽다.

共産主義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해서 根本的으로 反対를 하게 된다는 事実을 教師들은 깨달아야 한다. 반드시 反対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教室内에서 까지도 그런 態度를 감출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들 힘, 特히 反共에의 힘의 원천인 自由主義 理念과 客観的인 科学精神이 이를 許容치 않는 것이다. 自由스러운 質議와 客観的 行動은 우리 学校制度의 가장 強烈한 理想 중의 하나이고 그것에 準해서 行動해 왔다.

여기에 明確한 두 種類의 主題가 있음을 認識해야 한다. 첫번째 유형은 아무리 우리가 徹底하고 完璧한 客観的 研究를 하더라도 우리들은 순수한 中立的 立場에 서게 되고 直接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마치 태양계를 研究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은 共産主義는 宗教와 같은 아주 고답적인 位置에서 우리들의 精神만이 아닌 神의 応答을 要求하는 種類의 일이라는 점이다. 아주 自由로운 質議形式과 探究精神으로 客観的으로 完全하게 共産主義를 工夫한다는 것은 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이 研究 以後에 그것에 대해서 中立的인 態度를 取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方法論과 같은 説明하는 이론이 아니라 옳고 그른 判断이 내려져야 할 価値観 問題이기 때문이다. 共産主義란 部分的으로는 教育論이다. 그러나 그것이 最終的인 것은 아니다. 終局에는 共産主義는 우리들의 生命이나 全生涯를 다 바쳐 이에 忠誠하라고 威脅한다. 우리에게 이런 種類의 提議를 해오는 教理앞에 우리는 그저 中立的인 態度만을 取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두번째는 다음과 같은 難題가 있다. 우리들의 対共産主義 政策自体가 論議될 余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해야 할 理由는 없다. 우리는 이 問題와 数年間 直面해 왔기 때문이다. 経済学, 政治学등 모든 科目들이 論争의 余地가 있을 수 있는 政策問題까지에다 그 限界를 두고 学校에서 教授되어 왔으며 그 解答은 간단하다. 論争에 入門하는 資格을 부여받기에 앞서 急先務는 그 主題에 대해서 徹底하고도 客観的인 바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教師가 共產主義에 대한 어떤 論難의 余地가 있는 政策問題에 대해서 自己의 意見을 피력해야 할 경우에 그는 平時와 다름없이 行動하면 된다. 즉 그는 그저 그것은 教師自身의 意見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가 工夫한 그 問題에 대한 여러 学説들을 指摘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세번째 問題는 自由世界에서 共產主義를 徹底히 研究한다면 이 思想으로 転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問題이다. 経験으로 미루어 보아 그런 事態発生의 可能性은 全혀 없다. 共產主義에 대한 完全한 把握은 그것으로의 転向을 거의 不可能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명약관화한 事実이다.

共產主義에 빠진 사람들은 그 理想 중의 하나에 매혹당했기 때문이다. 그 全体중의 一部인 매력적인 部分에 매료되는 것이다. 이런 方式으로 그들의 理念을 発展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들을 미리 내 놓는다. 農民들에게 土地를 줄 것을 약속하고 権力을 장악하자 마자 도로 몰수해 버리는 것과 같이 기만적이다.

共產主義에 대한 가장 좋은 防腐剤는 모든 理想과 모든 運動의 完全한 전면적인 把握이다. 全体를 다 알고 난 뒤에 転向의 冒険을 敢行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本「프로그램」의 윤곽을 여러분께 소개하겠다. 먼저 共產主義理念 및 組織의 発展에 대한 歷史的인 接近方法을 取할 計劃이다. 이를 為하여 지금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思想에 이어서 「레닌」의 思想에 대한 研究를 始作하겠다. 이것을 所謂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라고 하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가 뭣보다도 重要하다는 事実을 指摘하는 바이다. 모든 共產主義 活動을 理解하기 為해서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理解하는 것이 必要하다. 共產主義 研究를 為해서 단순한 機構 比較 研究의 接近 方法을 択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의 経済的인 数字를 우리의 것과 比較하는 따위) 이것은 마치 教会 建物을 보는 것만으로 宗教를 研究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宗教의 核心은 믿음과 實際인 것과 같이 共產主義 硏究도 마찬가지이다. 그 核心은 所謂 「이데올로기」라는 속에 包含되어 있다. 「마르크스」, 「레닌」論에 이어 「스탈린」과 「후르시쵸프」에 의하여 体系化된 共産主義 思想의 展開도 硏究하기로 하겠다. 우리는 1961年 党大会에서의 毛沢東 思想에 대해서도 工夫할 것이다. 다음은 共産主義 政權의 体制에 대한 硏究가 될 것이다. 이 硏究는 「러시아」의 政党史 硏究부터 始作해서 다음엔 蘇聯의 政治, 経済, 社会에 대한 硏究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実質的으로 蘇聯의 制度가 指向하는 目標에 関한 硏究가 될 것이다. 最終的으로 蘇聯 以外의 共産主義에 대한 硏究가 될 것이며 이는 蘇聯의 対外征服 「패턴」과 蘇聯의 外交政策에 대한 資料도 包含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南美와 美国内에서의 共産党 戦略을 包含한 共産党 硏究項目도 세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共産党에 대한 批判을 하도록 하겠다.

〈参 考 文 献〉

1. The Teachings of Karl Marx
Len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2.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Marx and Engels.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3.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Engels.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4. What Is To Be Done?
Len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5. Foundations of Leninism
Stal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6. Communism in Perspective
Andrew Gyorgy.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64

7. The Realities of World Communism
William Petersen,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3

8. Masters of Deceit.
J. Edgar Hoover. New York: Pocket Books, Inc., 1959

9. The God That Failed.
Richard Crossman, ed. New York: Bantam Books, 1952

10. The New Class.
Milovan Djilas. New York: Praeger, 1957

11. Facts on Communism, vol. I. The Communist Ideology
Gerhart Niemeyer.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12. Reader in Marxist Philosophy
Howard Selsam and Harry Martel, ed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3

13. Marx on Economics
Robert Freedman, e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61

14.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Len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5. The State and Revolution
Len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6. Left-Wing Communism
Len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7. The New Communist Manifesto and Related Documents
Dan N. Jacobs, ed.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2

18. Facts on Communism, Vol. II. The Soviet Regime from Lenin to Khrushchev
David J. Dallin.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19. The Soviet Regime: Communism in Practice
W. W. Kulski.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3

20. Soviet Economic Power
Robert W. Campbell. Cambridge: Houghton Mifflin Co., 1960

21.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Hugh Seton-Watson. New York: F. A. Praeger, 1956

22. Modern China: A Brief History
David N. Rowe. Princeton: Van Nostrand, 1961

23. Russia and the West under Lenin and Stalin
George F. Kennan.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1

24. Peaceful Coexistence, A Communist Blue Print for Victory
American Bar Association. Prepared by Richard L. Allen. Chicago: American Bar Center, 1964

25. The Moulding of Communists
Frank S. Meyer.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61

26. Communism and Christ
Charles W. Lowry. New York: Collier, 1962

27. Handbook on Communism
Joseph M. Bochenski and Gerhart Niemeyer, eds. New York: Praeger, 1962

28. Communism, 2nd ed.
Alfred G. Meyer. New York: Random House, 1960

29. Bolshevism: An Introduction to Soviet Communism
Waldemar Gurian. Notre Dame: University Press, 1952;

30. Communism in Perspective
Andrew Gyorgy. Boston: Allyn and Bacon, 1964

31. Contemporary Communism: Theory and Practice
Howard R. Swearer and Richard P. Longaker, eds. Belment, Calif.: Wadsworth, 1964

32. Marxism in the Modern World
Milorad M. Drachkovitch,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33. World Communism: Key Documentary Material
Sidney Hook, ed. Princeton: Van Nostrand, 1962

34. The Profile of Communism: A Fact-by-Fact Primer
Moshe Decter, ed. New York: Anti-Defamation League of B'nai B'rith, 1961

35. Education and Freedom in a World of Conflict: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Communism
Clarence P. Oakes, ed. Chicago: Regnery, 1963

36. Education for Survival in the Struggle Against World Communism: A Symposium
U. S. Congress, Senate, 87th Cong., 2nd sess., Committee on the Judiciary.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37. Education for Freedom and World Understanding
U. 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第二章 共産主義 基本教義 批判

第一節 「마르크스」와 「엥겔스」

第二節 「레닌」主義

第三節 「레닌」以後의 教義

第四節 共産主義 教義에 対한 反応

第一節 「마르크스」와 「엥겔스」

1. 「마르크스」의 著書와 背景(「프로그람」No. 2)

* 「니 마 이 어」博 士

모든 共産主義者들은 곧잘 「칼·마르크스」(Karl Marx)가 없었더라면 共産主義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共産主義者들은 아마도 「프리드리히·엥겔스」(Friedrich Engels)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事実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름은 흔히 同時에 言及되기 때문에 명석하지 못한 어느 共産主義者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生日이 언제냐는 質問을 받고 "그것이 두 사람의 이름이냐?"고 反問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름은 함께 붙어 다닌다. 따라서 共産主義研究는 「마르크스」主義 研究, 아니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理念에 대한 研究로 부터 始作되는 것은 当然하다. 우리는 이 「마르크스·엥겔스」理念이 새로운 하나의 世界観과 社会観을 創造했고 実践的인 共産主義는 다만 이 理念을 応用한데 不過하다는 事実을 発見하게 된다.

本章에서는 다만 「마르크스」의 理念을 그의 理念과 똑같이 革命的이고 社会主義的인 다른 理念 및 運動과 比較함으로써 이를 간단히 考察하고져 한다. 「마르크스」主義는 여러가지 形態의 社会主義 中의 하나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면 一般的으로 社会主義란 무엇인가? 大部分의 사람들은 社会主義를 經済的인 生産의 集団化 体制의 一種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다만 주먹 구구식인 解釈에 不過하다. 万一 社会主義라는 이름으로 通用되고 있는 모든 理念이나 運動을 考察해 보면 우리는 그러한 解釈 或은 定義가 適合하지 못하다는 것을 発見하게 된다. 事実 모든 形態의 社会主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 政治学教授
独逸태생, 「마드리드」「프린스톤」
「예일」大学教授歴任

義에 適用할 수 있는 共通된 定義란 不可能하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最初의 或은 唯一한 社会主義 思想家는 아니었다. 社会主義는 「마르크스」보다 훨씬 以前부터 存在했다. 그러면 社会主義는 얼마나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을까? 이 点에 関해서도 意見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 진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플라톤」이나 初期 基督教 信者들 까지를 이에 包含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見解는 그릇된 것이라고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

「플라톤」이 公有財産制를 提唱한 것은 事実이지만 그의 公有財産制는 共同의 富를 위해 専念하는 少数의 支配者 或은 管理人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들 支配者나 管理人들은 그들의 任務上 私有財産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理論이지 決코 集団的인 生産体制나 計劃, 経済体制 또는 生産手段의 国有化를 提唱한 것은 아니었다. 初期 基督教 信者들도 그들의 모든 所有物을 共同으로 使用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自身들의 富를 個人企業의 手段을 通해 마련했었고 또한 市場 経済体制를 通해서 마련했던 것이다.

歷史的인 継続性으로 考察할 때 現代 社会主義는 啓蒙時代 即 17世紀末과 18世紀에 그 始発点을 発見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1818年에서 부터 1883年에 걸쳐서 살았고 그는 17世紀末 내지 18世紀의 時代的 影響을 받았다. 우리는 오늘날 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그 影響의 몇가지 줄기를 検討하는 한편, 「마르크스」를 거쳐서 「마르크스」主義 以外의 運動으로 끝난 줄거리들도 検討해 볼 것이다. 18世紀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形態의 社会主義가 合理主義 学者들 사이에서 重要 思潮가 되어 있었다.

그 当時 많은 사람들은 基督教式의 悪에 対한 説明에서 脱皮하여 다른 어떤 形態로 悪을 説明할려고 하였으며 人間의 모든 悪을 『모든 社会与件과 制度』에 돌리는 것이 그 한가지 方法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私有財産制度가 모든 人間悪의 源泉으로 看做되었다. 이런 式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탐욕』을 悪의 根源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제 손으로 일하지 않는 자는 搾取者요, 財産에 根拠를 둔 政府는 一種의 暴政体制로 看做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私有財産制度를 廃止하고 모든 市民에 의한 大衆 雇傭

및 大衆 経営을 提唱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人類는 善과 徳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18 世紀 「프랑스」의 政治思想家 가운데 이런 式의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그들의 社会主義의 主張은 人類의 道徳的인 向上을 바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式의 社会主義 理論의 대두와 때를 같이 해서 歴史에 관한 여러 가지 理論이 나타났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歴史란 더 높은 次元으로 発展하려는 모든 人間의 自動的인 運動이라고 規定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歴史를 段階的으로 分類했다. 다른 사람은 人類를 한 段階에서 다른 段階로 転換시키는 것이 社会行動이라고 主張했다. 이것이 바로 社会科学의 始初라고 볼 수 있다. 人間의 歴史는 과거, 現在 및 未来의 発展이 必要하다고 提唱됐다. 20 世紀 初葉에 歴史의 여러가지 段階 또는 局面 가운데 産業時代가 특히 解放의 効果를 지녔다는 思想이 대두했다. 그 後 自然科学時代에 관해서도 그런 思想이 대두했다. 이 모든 主張들은 하나의 주관을 여러 가지로 表現한 것에 不過했다. 즉 歴史는 人間을 窮極的으로 完成시키는 하나의 過程으로 看做되었다. 이러한 思想은 모두 人間의 運命이 完成되는 未来를 내다 보고 있었다. 즉 그들은 그러한 未来가 到来하면 모든 不足과 不条理는 사라지고 또한 悪도 살아질 것이며 따라서 完全한 幸福이 実現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러한 歴史観을 提唱한 最後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思想家는 独逸의 哲学家인 「헤겔」(Hegel)이였다. 「마르크스」自身도 「베를린」大学에서 工夫할 시절 「헤겔」의 思想에 心酔했었다.

「마르크스」의 思想에 至大한 影響을 끼친 18 世紀의 세번째 유산은 1789年에 일어난 「프랑스」革命이였다. 이 革命이 恐怖의 時代를 거쳐 그 「테러」指導者들이 처형됨으로서 幕을 내리자 「바베프」(Babeuf)라는 사람은 「프랑스」革命은 充分하지 못했으며 또 하나의 大 革命이 뒤따라야 하고 그것은 바로 共産 革命이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바베프」는 이 共産 革命이 私有 財産制를 廃止하고 集団 労動体制를 導入하여 「프

랑스」 国民뿐만 아니라 모든 人類를 解放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陰謀団体를 組織했다. 하지만 그는 挙事하기 前에 발각되어 拘束된 後 裁判을 거쳐 처형됐다. 그의 追従者의 한 사람이었고 共謀者의 한 사람인 「보노로티」(Bonorotti)는 이 陰謀의 전모를 밝힌 冊을 썼는데 이 冊은 19 世紀의 30年 代에 「프랑스」革命家들에게 聖書의 구실을 했다. 「바베프」의 陰謀는 思想最初의 組織的인 共産 陰謀였다. 人間을 『共産天国』으로 強制 誘導하기 為해 暴力的인 革命을 처음 構想한 것이 곧 「바베프」였다. 「레닌」은 일찌기 「마르크스」主義는 独逸의 哲学과 英国의 政治, 経済学 그리고 「프랑스」의 社会主義의 合作品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一面의 真理가 있는 表現이다. 하지만 나는 「마르크스」主義를 洞察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더 좋은 見解가 있다고 믿고 있다. 즉 나는 「마르크스」主義는 啓蒙時代의 倫理的인 社会主義와 19 世紀 初期의 歴史主義 그리고 「바베프」와 「보노로티」의 暴力的인 革命理論의 合作品이라고 보고 있다.

어쨌든 「마르크스」가 1841年 工夫를 끝마치고 社会에 進出했을 때 이미 여러 갈래의 革命潮流와 社会主義 潮流로 얽힌 大海가 있음을 発見했음이 分明했고 그는 곧 그 大海속에 스스로 뛰어 들어 스스로의 뚜렷한 지류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사실 「마르크스」主義 以外의 社会主義 지류도 있었다. 「마르크스」는 그의 生涯의 大部分을 다른 社会主義 지류들과 싸워 自身의 社会主義를 다른 지류들과 分離시키고 다른 지류들을 규탄 말살시키는데 消費했다. 19 世紀 前半 50年 동안에 수많은 理念과 運動이 나타났는데 이것들은 모두 人間의 政治的 및 社会的 与件에 根本的인 変化를 일으킴으로서 人間의 解放을 構想하고 있었다. 이 모든 理念과 運動들을 지금 이 곳에 일일히 열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우리의 研究 指針을 為해서 代表的인 것 네가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마르크스」는 自身의 선구자로 3명의 이른바 理想主義者를 꼽고 있는데 그 3명의 理想主義者는 「포리에르」(Fourier), 「상시몽」(Saint-

Simon) 그리고 「오웬」(Owen)이다. 이 3名 가운데 「포리에르」와 「오웬」은 새로운 人間의 삶을 위한 그들의 理想은 社会的인 実験을 通해서 이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즉 그들은 世界가 일단 社会的인 調和와 経済的인 풍요, 그리고 平和와 正義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生活様式이 可能하다는 것을 보게만 되면, 全 世界는 이 示範에 따라 改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마르크스」時代에 큰 勢力을 発展시킨 또 하나의 潮流는 「바베프」및 「보노로티」에서 비롯되어 「프랑스」의 社会主義者인 「루이 오구스트 브랑키」(Louis August Blanqui)에 의해서 発展된 것으로서 그는 「바베프」의 教訓에 따라 高度로 規律化된 少数集団을 母体로 하여 革命을 完遂하고 大衆으로 하여금 이 革命의 선도를 따르도록 하는 革命의 科学을 마련했다. 「브랑키」는 1871年까지 「프랑스」에서 많은 追従者를 갖고 있었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다같이 언제나 自身들이 「브랑키」의 影響을 받았다는 것을 強力히 否認하고 있지만 実際로 「브랑키」로 부터 많은 影響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840年代에 「프랑스」革命勢力 가운데서 가장 強力한 発言権을 갖고 있던 것은 「피에르 조세프 프루동」(Pierre Joseph Prudhomme)으로서 "財産은 도둑"이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그다. 또한 各者의 能力과 必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未来의 共産主義의 形態를 創造해낸 것도 바로 그였다. 「프루동」은 貧困을 追放할 것을 願했다. 하지만 그는 国家를 廃止하지 않고 다만 貧困만을 除去함으로서 人間이 自由로와 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모든 人間을 小規模의 財産所有者로 만들어 平等을 이룩하기 위해 財産을 国有化할 것을 提唱한 社会主義者들 및 「마르크스」의 思想을 배격했다. 「프루동」의 出現과 때를 같이해서 無政府主義運動의 창시자인 「러시아」인 「미카엘바쿠닌」(Michael Bakunin)이 登場했다.

이 無政府主義運動은 特히 「이탈리아」, 「스페인」 및 「프랑스」등에

強力한 追従者를 갖고 있었다. 無政府主義者들은 政治的인 独裁를 提唱한 「마르크스」의 理論에 強力히 反対했다. 여러 社会主義団体들은 1864年 「런던」에서 国際労動者聯盟 (The International Working Man's Association) 을 創設했다. 이것이 이른바 第1次 「인터내쇼날」이었다.

불과 数年後 「바쿠닌」과 無政府主義者들의 勢力이 強力해져 이 第1次 「인터내쇼날」의 主導権을 「마르크스」로 부터 탈취하려고 試図했다.

19世紀의 이 두 革命的인 社会主義運動勢力間의 闘争으로 第1次 「인터내쇼날」은 1873年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은 곧 「마르크스」가 19世紀의 社会主義運動을 独占하는 存在는 결코 아니였다는 것을 実証해 준다. 한편 「브랑키」追従派와 無政府主義者들의 두 勢力만이 革命的인 社会主義潮流속에서 唯一하게 「마르크스」에 도전한 勢力은 결코 아니였다. 간단한 説明으로 19世紀 社会主義運動의 전모를 소개한다는 것은 不可能하지만 重要한 것은 「유럽」이 当時에 여러形態의 革命団体로 들끓고 있었다는 것을 認識하는 일이다. 이 革命団体들은 모두 제각기 既存経済 및 政治体制를 타도하는 革命封起를 통해 人間生活의 革新을 이룩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또 한가지 重要한 것은 이 모든 革命団体들이 다 같이 「메시아」적인 所望을 지니고 있었고 大部分이 스스로를 어떤形態이던 社会主義者라고 불렀지만 一括的으로 社会主義라고 規定할 수 있는 確固한 思想体系를 세우지는 못했다는 것을 認識하는 일이다. 一部는 私有財産制를 廃止하기를 主張했지만 또 다른 社会主義者들은 그렇지 않았다.

어떤 者는 労動階級에 希望을 거는가 하면, 또 다른者들은 一種의 『救世主』에 希望을 걸었다. 어떤 者는 集団化된 工業生産을 構想했으나 다른 者들은 集団化된 農業生産을 構想했었다. 어떤者는 国家権力을 残存시키기를 願했으나 다른者들은 이를 廃止하기를 願했다. 어떤者는 集団主義者인 反面 다른者는 個人主義者들 이였다. 하지만 그들에 관해서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人間生活을 悪과 強圧 및 戦争으로 부터 解放시켜줄 革命이란 것은 政治体制는 勿論 経済体制도 包含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또한 모두 이러한 生活의 完全한 改革이 可能하며 이 改革은 새로운 社会制度의 導入만으로 이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의 이렇한 사고의 밑바닥에는 一種의 宗教的인 教理, 或은 宗教的인 所望이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類似宗教 或은 邪教라고 말한다. 따라서 「메시아」的 이라는 表現이 더 適切할것 같다. 그것은 超自然的인 것, 하느님이나 어떤 믿음을 鼓吹하는 宗教가 아니라 스스로의 本質을 変質시키고 또 適切한 社会的 或은 政治的인 行動을 通해 自身을 再評価할 수 있는 『人間의힘』에 대한 믿음을 鼓吹하는 宗教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만 革命運動에 관해서만 検討했다. 19 世紀中葉에 「마르크스」主義以外에 存在한 思想들 가운데는 적어도 하나의 非革命的인 社会主義思想이 있었음을 留意해야 한다. 이 思想은 「마르크스」로 부터 받은 影響은 전혀 없었지만 社会主義的経済에 관한 一般理論에 있어서는 影響을 받았다. 이 非革命的인 社会主義思想의 主流는 「마르크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이하게도 自由主義 思想家에서부터 비롯 되었다.

偉大한 自由主義哲学家인 「존・스튜어트・밀」(John Stuart Mill)은 만년에 社会主義思想을 発展시켰다. 美国인 「헨리・조지」(Henry George) 도 이 社会主義思想에 寄与했다. 「밀」과 「조지」의 影響을 받은 이 非暴力的인 社会主義信奉者들은 英国에서 「페비안」社会主義 (Fabian Socialism) 運動을 発展시켰다. 그들은 革命理論을 배격하고 国家를 支配하는 知識層에 침투하면 立法 및 行政手段만을 통해서 漸進的으로 社会主義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主張은 漸進性이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시드니」(Sidney) 와 「베아트리스・웨브」(Beatrice Webb) 및 「조지・버나드・쇼」(George Bernard Shaw) 등이 有名한 指導者들이었다. 앞으로 우리는 「마르크스」思想의 根源을 따지겠지만 그 根源을 따지면 비로소 「마르크스」가 提唱한 社会主義 正体가 分明해 질 것이다.

「마르크스」自身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解明하고 있다. "現代

社会에는 階級이 存在하며 그 階級 사이에 闘争이 있음을 発見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오래전에 「부르조아」歴史家들이 이 階級闘争의 歴史的인 発展을 記述했고 「부르조아」経済学者들이 階級에 対한 経済的인 分析을 했다. 내가 한일은 첫째로 階級의 存在는 오직 生産의 発展過程에서 特定한 歴史的인 階級에 存在하는 必然的인 소산임을 実証하고, 둘째로 階級闘争은 必然的으로 「프롤레타리아」独裁를 초래하게되며, 이 無産階級의 独裁 自体는 다만 階級의 廃止 및 階級없는 社会로 転換하는 過度期에 不過하다는것을 설파한 일이다.″ 이 말은 「마르크스」가 1852年 3月 5日 「바이데마이어」(Weidemeyer)에게 보낸 편지속에 包含되어 있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마르크스」는 社会主義的인 社会 즉 集団的인 経済生産의 公共秩序의 基本인 社会를 믿고 있었음을 뜻 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社会主義의 社会는 모든 与件이 성숙된 歴史의 特定한 時期에 나타나게될 社会主義運動의 結果로서 초래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마르크스」가 생각한 이 社会主義運動은 独裁権力을 이룩하게 되고 이 独裁権力으로부터 階級없는 社会가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마르크스」가 배격했던 要所들을 検討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는 무엇보다도 모든 与件이 具備되는 歴史上의 時期를 기다리지 않고 理想的인 社会를 이룩하기를 願하는 社会主義者들을 배격했다. 社会主義者들 가운데 어떤者는 労動者를 自体의 革命運動과는 別途로 새로운 社会를 願했고 또 다른者는 革命的인 独裁権力의 樹立없이 革命을 이룩하기를 願했다.

「마르크스」는 이 모든 社会主義者들의 主張과 区別하여 自身의 社会主義를 『科学的인 社会主義』라고 主張했다. 「마르크스」는 그 理由로서 自身이 앞으로 이루어질 窮極的인 革命을 위해 展進하는 歴史의 発展法則을 科学的으로 発見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르크스」는 自身이 反対하는 社会主義를 『空想的 社会主義』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18世紀부터 「마르크스」時代에 이르는 時期에 나타난 社会主義 運動의 広範한 潮流를 살펴 보았다. 하지만 「마르크스」以後의 事態를

알기 위해서 좀더 検討할 必要가 있을것 같다. 「마르크스」思想에 立脚한 政党이 1860年代의 「유럽」의 여러곳에서 나타나기 始作했다. 그중에서 가장 強力한 勢力을 갖고 있던 것이 『独逸社会民主党』(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과 「바벨」(Babel)党, 「리브크넥트」(Liebknect)党,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社会民主党이였다. 大部分의 나라에서는 여러形態의 社会主義 思想으로 말미암아 方法論과 戰略에 관해서 또 심지어는 社会主義政党의 目的自体에 대해서 相当한 異見이 露出되었다. 두개의 独逸 社会主義政党이 하나로 統合됐는데 「마르크스」는 1975年以来 이 統合社会主義政党에 대한 指導的인 影響力을 行使했고 이 統合社会党은 世界第1次大戰까지 「마르크스」主義者의 政治活動의 中心舞台로서 活動했다. 「마르크스」思想이 1889年 「파리」에서 組織된 第2次「인터내쇼날」의 指導理念이 된 것은 바로 이 政治「센터」의 힘의 支援때문이였다. 第2次「인터내쇼날」에서 단결한 社会主義政党은 選挙때마다 그 政治力量을 增強시키게 되었다. 「인터내쇼날」자체로 1914年에 世界1次大戰의 시련속에서 再起不能이 될때까지 国際問題에 있어 하나의 勢力으로 看做되었었다. 戰後에 「인터내쇼날」이 다시 再建되었으나 共産主義 運動이 여러나라의 社会民主党으로 부터 이탈하게 되었으며 1919年에는 独自的인 理論과 第3「인터내쇼날」을 組織하게 되었다. 社会民主党内部에서는 階級闘争과 革命의 速度를 緩和시키려는 傾向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의 領導者는 「에드워드·번스타인」(Edward Bernstein)이였다. 그는 19世紀 末葉에 発刊한 著書에서 資本主義에 대한 「마르크스」의 予言을 修正하고 社会民主党党員들에게 労動者들의 生活与件을 向上시키기 為해 集権階級들과 協力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이 곧 修正主義로 알려지게 되었다. 「번스타인」의 이 修正主義는 独逸社会民主党의 最高理論家였던 「칼·카우츠키」(Karl Kautsky)로부터 盟烈한 非難을 받았다. 하지만 「번스타인」이 公式的으로 견책받음으로써 独逸社会民主党은 分裂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実際的으로는 「번스타인」의 修正主義는 独逸社会民主党은 물론 当時 「유럽」에 있던

거의 모든 社会民主党들의 政策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기 始作했다. 한편 19世紀 中葉의 無政府主義運動은 쇠퇴했으나 그 後継는 남아서 主로 中南美 国家들에 継承되었다. 이 運動은 「프랑스」語의 「상디칼」(Syndicale)에서 由来된 「상디칼리즘」(Syndicalism)으로 불리웠는데 労動組合運動을 뜻한다. 「상디칼리즘」의 信奉者들은 原則的으로 政治的인 行動 代身에 組織된 労動者들의 直接的인 行動을 支持했으며 公式的인 立法活動에의 協力도 배격했다. 20世紀初 「상디칼리즘」에 관한 一級理論家 「조지・소렐」(George Sorel)이 나타났다. 그는 특히 総罷業이 効果的인 大衆行動手段이라고 主張했다. 英国의 「페비안」社会主義도 勢力이 매우 강해졌고 오늘날 까지도 強勢를 보이고 있다. 많은 「페비안」社会主義者들이 議会에서나 政府에서 또 知識層에서 指導的인 地位를 確保했다. 「런던」経済大学은 実質的으로 「페비안」社会主義者들이 設立한 것으로 「뉴・리더・스테이츠맨」(New Leader Statesman)이 그 母体였다. 「페비안」社会主義는 立法過程에서도 相当한 影響力을 行使하기에 이르렀다. 英国의 戰後 福祉計劃의 根拠가 되고 있는 이른바 「버벌리지계획」(Beveridge Plan)도 「페비안」社会主義의 所産이다. 社会民主主義, 無政府主義, 「상디칼리즘」 그리고 「페비안」社会主義등이 「마르크스」以後의 社会主義의 3대지류였다. 世界1次大戰以後 「레닌」主義的인 共産主義가 제4지류로 등장했으며 1920年代에 共産主義運動이 分裂되어 제5지류인 「트로츠키」주의가 나타났다. 이 「트로츠키」주의 역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한편 無政府主義와 「상디칼리즘」은 実際로 完全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大部分의 社会民主主義는 「마르크스」主義를 抛棄했다. 英国労動党은 絶大로 「마르크스」主義가 아니었다.

2次大戰直後 한때 「마르크스」主義的인 色彩를 띤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完全히 사라진 것으로 보여진다. 약간 說明이 지루해 졌지만 以上의 背景説明은 必要한 것이다. 지금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에서 始作되어 「레닌」으로 継承되고 또 「레닌」으로 부터 世界各地域의 共産主義運動으로 번진 共産主義의 基本思想을 重点的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누구

나 일단 이 厳格한 理念世界에 빠져서 組織과 党 및 교조주의와 戰略에 현혹되면 이 世上에는 共産主義와 그 創始者인 「마르크스」와 「엥겔스」以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는 형제와 조카 또는 그 先祖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앞서 나는 여러가지 形態의 社会主義에 다같이 適用할 수 있는 公約数를 発見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라고 指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여러形態의 社会主義를 相互比較해보면 우리는 差異点과 함께 그것들이 모두 世界와 社会 그리고 特히 人間을 改造할 수 있고 또 改造되어야 할 対象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人間改造의 方法論에 있어서는 相当한 異見을 露程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서 이들 각종 社会主義는 寄蹟을 이룩하는 一種의 社会主義的 行動을 構想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르크스」思想의 正体를 벗겨 볼려면 우리는 이 基本的인 問題부터 始作해야 한다. 「마르크스」主義의 모든 理論은 우리가 以前의 経験과 歴史의 記録을 通해 알고 있는 「人間」보다 나은 그 「어떤것」은 다만 現 世界와 그 体制가 過激한 革命을 통해서 完全히 破壊될때 비로소 創造될 수 있다는 基本思想에 根拠를 두고 있다.

2. 「마르크스」의 人間改造(「프로그람」 No.3)

*「니 마 이 어」博 士

大部分의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무엇을 원했는가를 알고 있다. 그는 社会主義 社会를 이룩하기 위해서 革命을 원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왜 그러한 것을 원하게 되었는가를 大部分의 사람들은 亦是 알고 있다고 生覚한다. 一般的으로 믿어지고 있기는 「마르크스」는 人間의 비참한 状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時代의 구라파에 있어서의 労動階級의 비참상과 自己 自身의 빈곤에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主義는 불타는 분노의 感情에서 탄생하였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事実이겠는가? 「마르크스」는 진정 빈민굴을 돌아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불타는 정의감에서 그의 붓을 들곤 했던가? 「마르크스」가 創設한 共産主義 理念의 核心 속에는 실상 어떠한 意図가 숨어 있는가? 이에 대한 解答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初期의 著作들, 即 그의 世界観을 形成한 著書들을 살펴 볼 必要가 있다.

初期의 著作들이란 말은 <共産党 宣言>(The Communist Manifesto)이 発表된 해인 1848年 以前에 쓰여진 「마르크스」의 著作들을 의미한다.

그 中에서 가장 有名한 것이 <「헤겔」의 法哲学 批判>(The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s 1843), <経済学, 哲学原稿>(The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1844), <聖스러운 家族>(The Holy Family 1845), <独逸 観念論>(The German Ideolo-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 政治学教授
独逸태생, 「마드리드」「프린스톤」「예일」大学
教授 歴任

gy 1846) 그리고 <哲学의 빈곤>(The Poverty of Philosophy1847) 등이다. 이 모두가 제때에 発刊되지는 않았지만 그 모두가 각기 <共産党 宣言>(1848)에서 처음으로 理論 整然하게 제시된 「마르크스」의 思想들을 면밀히 추고하는데 重要한 貢献을 하였다.

이 著作들 中에서 <独逸 観念論>(1846)은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本章에서는 1846年 까지의 思想에 대한 집중적인 研究를 해보기로 한다. 「마르크스」의 強力한 精神에서 나온 이 初期 著作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問題, 即 「마르크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진실로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解答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問題가 순전히 학구적인 취미에만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問題가 現代의 共産主義의 本質에 관하여 무엇인가 가르쳐 주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著作들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注意하여야 할 것은 여기서 「마르크스」는 매우 根本的인 問題들에 関心을 가졌었다는 점이다. 그는 人間의 本性이나 人生論, 그리고 人間과 自然 및 우주와의 関係 등에 관하여 論하면서 現実의 人間社会에 대한 批判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얼마동안 우리는 이런 思想을 살펴 봄으로써 그를 研究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우리는 「마르크스」가 宗教를 배척할 것을 主張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841年의 그의 論文에서 그는 「희랍」시인이 「프로메튜스」(Prometheus)의 입을 통하여 말한 "나는 神들의 무리를 미워한다"를 인용하면서 이를 시인하고 있다. <「헤겔」의 法哲学 批判> (1843)에서 그는 말하기를 "宗教에 대한 批判은 모든 批判의 根本이다. 反宗教的인 批判의 基底는 人間이 宗教를 만든다는 事実이며, 宗教가 人間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事実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宗教는 "타락된 世界의 意識"이며 "환상적인 人間 本質의 現実化"라고 하였다.

来世, 神, 神学, 宗教的 人生観 등에 대한 闘争은 「마르크스」가 처음부

터 前提한 모든 鬪争의 出発点이었다. 이러한 鬪争은 그 自体만으로서는 充分치 않다고 「마르크스」는 느꼈다. 宗教는 単純히 "타락된 意識"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 배후에는 宗教가 가리워 줄 必要가 있는 "타락된 世界"가 있다. "人間의 착각된 행복인 宗教의 廃止는 人間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必要하다. 그 状態에 대한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即 착각을 必要로 하고 있는 그 状態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마르크스」는 1843年에 쓰고 있다. 이리하여 宗教에 대한 鬪争은 타락되고 거짓투성이고, 부당하고, 非人間的인 現実社会에 대한 鬪争으로 되는 것이다. 이 世界의 타락된 性格에 대하여 우리의 注意를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 世界는 破壊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初期 著作들의 全般을 흐르고 있는 큰줄기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生覚을 하게 되었을까? 現実世界를 타락된 世界라고 불렀으니 그는 어떤 世界를 표준으로 하여 現実世界를 측정했는가?

이에 대한 解答은 1844年에 쓴 <経済学 哲学 原稿>속에 包含되어 있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그의 人間에 대한 概念을 정의했다. 그가 生覚하는 人間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렸을 때에 그는 또한 人間이 그러한 人間이 될 수 있는 社会 秩序는 이러한 것이라는 윤곽에 대해서도 説明을 하였다. 이 思想은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 실제적 結果는 굉장한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마르크스」는 무엇보다도 人間은, 即 労動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모든 살아있는 生物들 中에서 人間은 自己의 労動을 통하여 必要한 手段을 生産함으로써 自身의 生活을 創造하는 유일한 存在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動物과는 달라서 人間은 그의 먹을 것을 発見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다. 住宅, 衣類, 其他 모든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人間은 自己가 必要한 것을

만든다. 人間은 自己가 만드는 物件으로 살아가며 또 그것을 만들므로써 生存한다. 「마르크스」는 人間의 本質을 物質들과 동일시 하는데 까지 나아갔다.

労動을 人間의 生活을 위한 活動으로 보는 것이다. 労動은 天然資源을 유용한 物件으로 변하게 한다. 労動은 人間과 自然과의 本質的 関係이며 人間 生存의 基本이 된다. 労動 속에서 또 労動을 통하여 人間은 自己 自身과 自己의 生活과 그의 存在의 条件을 創造한다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人間이란 다른말로 하면 自己 自身을 創造하는 存在이다. 人間은 労動을 통하여 自己 自身을 創造한다. 이 점을 注意하기 바란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마르크스」가 労動에 대해서 뭐라고 하였든 누가 그것을 상관 하겠는가? 그런 추상적인 말은 우리의 関係할 바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야 맞는 말이 아닌가? 人間은 自己의 生活에 必要한 것을 生産하는 것이 事実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問題는 「마르크스」가 한 말이 옳으냐 그르냐이며 또 옳다면 그 말이 重要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잠시 「마르크스」가 人間은 어떠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것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그가 언급하지 아니한 것, 또는 人間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그가 정의한데 대해서 生覚해 보기로 하자. 「희랍」의 哲学者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보다 人間은 바로 理性이고, 또한 理性은 곧 人間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世上 모든 動物이나 다른 모든 創造物과 人間을 区別해 주는 것은 人間이 生覚하는 能力을 가졌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人間은 自己의 本質이나 自己 自身을 반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밖에서 自己 自身과 自身의 行動을 객관적으로 観察할 수 있다. 그는 남을 判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自己 自身까지도 判断할 수 있다.

그리고 生覚하는 能力은 그로 하여금 自己의 人生의 意味가 무엇인가, 即 自己의 目的地를 짐작해 낼수도 있게 한다.

万一 이것이 事実이라면, 即 理性이 곧 人間이라면, 重大한 結果가 나타날 것이다. 即 人間은 自己의 이성의 소리에 따라 살지 않을 때에는 幸福해 질 수 없다는 結論이 나온다. 또 幸福한 生活은 곧 道德的인 生活이다.

왜냐하면 道德이란 各者의 判断에 立脚하여 行動하려는 傾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道德的인 生活을 하기 위해서는 人間은 法이나 宗教라는 秩序를 通해서, 또는 새로운 精神의 創造를 통하여, 또는 政治나 政府, 法이나 哲学 그리고 宗教制度 또는 宗教 秩序등의 여러가지를 통해서 他人들과 제휴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人間의 幸福을 위해서 必要한 条件들로 強造하였던 事実들이다.

이제 人間에 대한 「마르크스」의 가정 (Assumptions) 을 바탕으로 위와 마찬가지의 理論을 세워보기로 한다. 「마르크스」는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러한 全体的인 面, 即 人間生活에 있어서의 人間의 理性面을 人間과 自然과의 関係만을 強造함으로서 제외하였다. 「마르크스」는 人間의 本質을 自己 自身을 알고 自身의 行動을 判断할 수 있는 能力에서 본 것이 아니라 自然을 変化시키고 自己가 必要한 物件을 만들어 낼 수 있는 能力에서 発見하였다. 人間의 理性이나 意識은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2차적인 것에 不過하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마르크스」의 人間에 대한 概念은 단편적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亦是 人間의 労動面을 고찰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마르크스」는 人間을 다만 『労動하는 動物』로만 보았다. 동시에 그는 人間을 集団的인 存在로서 보았다. 따라서 人間은 労動過程에서 떼어서 生覚할 수 없고, 이러한 人間의 労動過程에의 터득은 集団的으로 即, 여러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만이 획득되어질 수 있다는 理論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理論에 의하면 人間生活의 秩序는 集団的 労動

의 훈련(공동의 秩序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人間 生活의 目的을 위해서 自然을 改革시키는 共同作業을 하는)에서만 期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国家, 法律, 正義, 教会 또는 道德, 宗教등은 必要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私有財産制度만을 철폐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이 「마르크스」가 세운 人間에 대한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人間에 대한 概念은 「마르크스」 혼자만의 思想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選択과 決定의 作業에 不過했다. 「마르크스」는 精神面과의 関係는 제외하고 自然과의 関係에서만 人間을 볼려고 했다.

그는 精神面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精神, 思想, 原則, 美德 그리고 精神面의 모든 秩序 따위는 「마르크스」로서는 그가 가장 重要視하는 人間生活의 物質面을 生産하는 데 있어서의 부수적인 部分 即 生覚하는 部分만 担当하는 하나의 準備過程에 不過한 것이다.

그는 또한 人間은 創造主에 의존되어 있다는 生覚을 부정했다. 그 부정이 얼마나 의식적인가는 <経済学·哲学 原稿>를 한번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人間은 自己 自身의 발로 서있을 때 만이 自身의 独立을 意識하게 된다. 그리고 人間은 그의 存在를 自身에게만 귀속시킬 때 自身의 발로 서 있게 된다"고 그 著書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主張, 即 "人間은 自身에게만 自己 自身의 存在를 귀속시켜야 한다"는 主張은 실지 生活에 있어서 具体的인 모든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나와 自然은 누가 創造 하였는가?"라는 質問은 人間이 항상 묻게 되는 根本的인 問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러한 質問을 禁한다. 그는 그 대답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質問 자체를 거부한다. "社会主義를 하는 사람에게는 世界歴史 全体가 人間의 労動을 통한 人間의 誕生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

自然과 人間을 초월한 어떠한 存在에 관한 質問은 실제에 있어서 불가

능하게 되었다 " 고 主張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마르크스」의 人間 槪念은 神과 宗教와 哲学의 부정뿐만 아니라 法과 정의에 立脚한 政治 秩序의 부정을 包含하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마르크스」가 왜 그러한 思想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보려고 하였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동경이나 분노였는지 아닌지를 밝혀 볼려고 했다. 그의 初期 論文들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에 宗教의 배척을 発見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 타락된 意識 " 이라고 비난한 宗教의 배후에는 또한 " 타락된 世界 " 라는 現実이 있다는 「마르크스」의 主張을 또한 発見하였다. 그리고 그 世界는 부당하며 그가 믿고 있는 人間本性에 적합한 世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根本的인 그의 思想은 그의 人間 槪念이다. 이렇게 되면 人間은 創造物의 一部라기 보다는 自己 自身의 生活을 創造하는 ~~存在라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면 또한 労動過程의 안배만이 모든 人間의 生活로 간주되며, 따라서 「마르크스」는 法이나 政治의 秩序 그리고 정의에 대한 関心 및 哲学이나 宗教의 秩序등을 무시하였다. 人間은 集団的인 労動의 秩序 속에서만이 人間다워 질 수 있다. 이 集団 労動만이 人間으로 하여금 自然을 支配할 수 있게 하고 진정한 自由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抽象的인 말이다. 「마르크스」가 이 地球上의 모든 『비참함』에 대한 고려를 했다는 証拠도 없다. 더욱이 「마르크스」는 " 타락된 世界 " 라는 그의 槪念을 『비참』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労動의 分業에서 도출하였다. 그가 거짓이요, 非人間的이요, 그러므로 非現実的이라고 生覚한 이 現世에 대한 그의 分析을 좀 더 살펴 보자. 여기에 있어서 그의 가장 重要한 槪念은 『소외』(Alienation) 라는 槪念이다.

이것은 " 소외하게 하다 " (to Alienate) 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말은 사전에 의할 것 같으면 " 所有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 는 뜻과 또 " 소원하게 하다 " 는 두가지 뜻이 있다. 「마르크스」는 이 두가

지 뜻을 다 結合시켰다.

「마르크스」가 生覚하는 充実한 生活이란 人間이 自然과 自身과의 関係에 있어서 主人이 되는 生活을 말한다. 무엇보다 人間은 労動過程과 自身이 生産하는 生産品을 完全히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万一 労動이 分業이 되어서 한 사람이 한가지 物件을 生産할 때 다른 사람은 다른 物件을 生産하게 된다면 그들은 自己 自身을 위해서 生産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交換하기 위해서 生産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므로서 人間과 自己 自身의 生産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制度로서의 私有財産制度가 대두하게 된다. 그리고 私有財産制度란 人間이 自己 自身의 労動過程 뿐만 아니라 그 生産品에 대한 통솔권을 상실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는 다른 사람의 必要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関係가 그의 労動에 影響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그는 自己로서는 어쩔 수 없는 勢力에 예속되게 되며 이러한 勢力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피할 수 없는 外的인 힘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여러 사람에게 労動을 분담시키고, 또 그들의 関係를 통솔하는 手段으로서의 하나의 所有権을 確立하는 形態로 나타난다. 「마르크스」는 人間은 그의 일상생활의 必要를 위하여 生産하는 物件들 속에서, 또 그 物件들을 통하여 存在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万一 이제 그가 그의 労動에 의한 生産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면 그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그 자신의 本質로 부터 分離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万一 그의 労動 과정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이바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人間 自身이 예속물이 될 것이다. 그는 自由가 없고 따라서 人間이 아니다. 그는 自己 自身으로 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그는 또한 그의 労動과 그 生産品으로 부터도 소외된다.

그는 또 市場経済下의 私有財産制度라는 강제하에서 부딪히게 될 다른 사람들로 부터도 소외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족으로 부터도 소외될 것

이다. 왜냐하면 그는 個人들과 그들의 요구만을 取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条件下에서는 人間은 労動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정한 人間生活은 実現될 길이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社会의 条件全体를 『소외』라고 명명한다. 『소외된 社会』…『소외된 生産』…『소외속에 사는 人間』… 이러한 用語들이 그가 使用한 用語들이다. 우리는 이제 "타락한 世界"라는 말로 그가 무엇을 意味하는 가를 알 수 있다.

"人間은 自己 自身이 낯설고 非人間的인 것이 되었다. 주위의 世界는 그에게는 소외된 실체이며, 모든것이 부당하고 非人間的이다. 그 속에서 発見되는 모든 思想은 왜곡되어 있고, 모든 制度들은 生活에 역행하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人間以下이다"라고 「마르크스」는 主張했다.

「마르크스」는 人間이 自己 自身의 生活과 情에 대하여 主人이 못되고 그 従이 되어 있다는 意味에서 人間은 動物的인 存在라고 말한다.

정당한 世界가 그대신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는 가정 없이는 이 世界가 完全히 잘못되어 있다고 主張할 수는 없다. 이것은 存在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論理에서 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労動하는 存在로서의 人間이란 概念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이러한 根拠 위에서 그는 歷史的인 새로운 世界가 타락하고 非人間的인 世界 대신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亦是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마르크스」는 現実 世界에 대한 単純한 知的인 批判으로 부터 그가 말하는 批判의 実践 段階로 옮겨 갔다.

実践的인 批判이란 "革命"을 말한다. 革命의 任務는 그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 世界의 진리를 確立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世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것은 장래에 革命의 結果로서만 実現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은 것은 어떤 種類의 革命도 아니었다. 더 확실히 말하면 그는 物質的인 힘으로써 政府를 타도하는 폭력봉기를 말하고 있다. 自己의 理論이 破壞的이라는 것

을 意識하고 그는 그것이 大衆의 마음을 사로잡음과 동시에 物質的인 힘이 되리라고 自信하였다. 大衆은 힘을 제공하고 그의 理論은 이를 指導하여 「마르크스」가 그린 特殊한 種類의 革命 即, "急進的" 革命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정열과 열성으로써 하는 革命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또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急進的 革命"은 単純히 政治的인 "部分的 革命"과는 区分된다. 部分的 革命은 "집의 기둥들은 아직도 서있는 채로"둔다. 반면 급진적인 革命은 집 全体를 무너뜨린다. 오직 이런 種類의 革命만이 人類를 解放 시킬 수 있다고 그는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런 種類의 革命을 위하여 物質的 힘을 提供할 大衆은 어디에 있는가? 「마르크스」는 그 大衆이 무엇과 비슷하다는 것을 一般的인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들은 急激한 変革을 主張하는 階級이요, 또한 市民社会의 한 階級이며,… 공통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공통의 階級이며, 또 어떤 특정의 不正이 아니라 一般的인 不正이 그것에 대하여 감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특정한 権利를 主張할 수 없는 階級이며, 또 完全한 人間 상실을 당하고 있으므로 人間을 完全히 다시 찾음으로써만 그 자신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階級이다."

<「헤겔」의 法哲学 批判>속에 있는 이 귀절은 대단히 興味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世界와는 전혀 다른 世界를 원하였다. 이 世界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는 急進的인 革命, 다시 말하면 바로 "집의 기둥들"을 包含한 現在의 世界를 철저히 破壞할 것을 원하였다.

이것을 그는 "人間의 解放"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와 같은 革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種類의 社会的 勢力이 必要한가를 一般論的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重要하지 않으나 重要해져야 할 階級"을 必要로 한다. 이 階級은 一般的으로 부당과 고통을 代表하여야 한다. 그것은 一般的으로 圧迫을 代表하는 다른 하나의 階級과 대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윤곽을 그려 놓고보면 그 人間的으로는 부재하고 있는 신비한 階級의 革命 運動이 전 人類에게 보편적인 解放을 가져 오도록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마르크스」의 머리 속에서 만들어진 한 状況이었다는 것은 알기가 어렵지 않다. 이것이 그가 새로운 種類의 世界가 탄생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이유이다. 이 말들은 科学者의 말이 아니라 몽상가의 말인 것이다. 이제 代表的인 「마르크스」의 用語가 나온다. 폭동으로써 모든 現世의 不正을 바로잡는 人間의 힘을 신비롭게 그리고 있던 환상의 世界에서, 그는 갑자기 現実 世界로 돌아와 実在하는 것으로 注意를 환기 시킨다. "이러한 特定한 状態로서의 社会의 分裂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그는 외친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마르크스」의 思想속에 나타난다.

「마르크스」는 自己가 찾던 것을 드디어 発見하였다. 그는 革命을 할 수 있는 大衆의 하부구조를 찾았다. 그가 말하는 革命이란 革命이라기보다는 現在의 世界를 完全히 종식 시키고 그것을 새로운 真実한 世界로 변형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는 바로 그의 思想에 있어서의 物質的인 武器인 것이다. 「마르크스」의 마음이 「프롤레타리아」로 向한 것은 貧者에 대한 동정에서가 아니라 그가 매력을 느끼고 있는 어떤 환상에 現実性을 부여하려는 慾心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던진 問題에 대한 解答을 찾게 되었다. 即 「마르크스」를 움직인 것은 정의감이나 분격, 또는 비참한 者를 도우겠다는 慾望이었는가?

우리는 人間에 대한 그의 特殊하고 단편적인 概念이 그로 하여금 存在하지도 않고 存在한 적도 없는 社会秩序에 대한 概念을 形成케 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또 그로 하여금 이 世界를 타락된 것으로 보게

하였고 따라서 다른 새로운 하나의 世界를 現実化 시킬 것을 바라게 하였다. 그 새로운 世界를 누가 実現하느냐고 자문하였을 때 그는 어느 한 社会階級을 発見하였으며 그 階級에다가 이 人間解放의 사명을 맡겼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現実을 변경시키려는 「마르크스」의 計劃에 있어서 하나의 物質的인 武器였던 것이다.

3. 「마르크스」의 歷史의 法則(「프로그람」 No.4)

* 「니마이어」 博 士

「칼·마르크스」가 신봉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마르크스」는 그의 신봉자들을 위해 어떤 信念을 창조해 내었는가?

이러한 問題를 規明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르크스」가 1841年부터 1848年 사이에 쓴 이른바 그의 初期著書들을 한번 살펴 볼 必要가 있다. 우리는 「마르크스」가 우선 現存 社会를 全面的으로 부정하고 나섰음을 알 수가 있다. 「마르크스」가 그의 批判의 根拠로 삼은것은 人間은 단지 労動과 労動의 生産物을 통해서 만이 살아간다는 主張에 있다.

人間이 他人을 위해 労動을 해야 한다면 그는 이미 自由가 없다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人間이 全般的으로 누군가 다른사람을 위해 労動을 하는 社会는 비뚤어진 社会이다. 그 社会는 人間에게 이상하고도 調和되지않는 힘을 強要하며 그 힘이란 労動과 市場을 갈라놓는 힘이다.

人間이란 모든 労動力이 集団組織化되고 労動力이나 財産의 분열이 없는 社会에서만이 自由로울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結論지었다. 이 모든것은 相当히 추상적이다. 全体問題의 要点은 요컨데 「마르크스」는 現実社会의 全面不正에 탐익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現実的인 生存은 虛像이며, 외곡된 것이고, 人間以下의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르크스」는 人間의 生存이 自由로울 수 있는 社会로서 集団労動에 바탕을 둔 社会를 구상하였다. 이러한 主張들은 初期의 것들로 「마르크스」主義의 根幹이며, 1841年에서 1845年 사이에 形成된 것이다. 그러나 1846年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独逸観念論>이라는 長文의 論文을 著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 政治学教授
독逸태생, 「마드리드」「프린스톤」「예일」大学
教授 歷任

述했는데 그 論文의 出版은 훨씬 뒤에 가서야 이루어 졌다. 이속에는 나중에 「마르크스」思想의 중추가되는 새로운 思想이 담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歷史란 하나의 前進運動이며 모종의 推進力에 의해 생겨나는 社会의 前進運動이란 概念이다. 그 前進運動은 科学的인 正確性으로써만 알 수 있는 모종의 法則에 따라 進行된다. 이러한 概念의 채택을 거쳐 이른바 오늘날의 「마르크스」主義 및 共産主義가 생겨난 것이다.

이 思想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마르크스」主義 政策에 어떻게 影響을 미치는가 하는 점은 극히 명백하며, 또한 마땅히 명백히 밝혀져야 할 問題이다.

「마르크스」의 허다한 다른 主張들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그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마르크스」가 1846年 <独逸觀念論>을 著述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歷史的 事件의 連続을 說明해 줄만한 社会的 힘의 有無에 관해서 구구한 추측들을 하고 있었다. 特히 各種形態의 社会가 継続 이어져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했다. 따라서 이 概念은 社会主義的인 것은 아니다. 이 概念을 発展시킨 「헤겔」은 社会主義者가 아니었고, 歷史란 3段階를 거치는 인류의 運動이라고 가르친 「아우구스트·꽁트」(August Conte) 또한 社会主義者는 아니었다. 「마르크스」와 이들 歷史에 관한 제반이론을 展開시킨 사람들과의 差異点은 그들이 歷史의 推進力을 人間의 마음속에서 찾는것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마르크스」가 主張하는데 있었다. 「마르크스」는 각개로 分離된 各 個人의 마음 따위는 없다고 主張한다. 人間은 労動을 통해서 그의 生活手段을 창조하는 過程에서 그리고 自然과의 関係 속에서만 진정한 人間일 수가 있다. 이 속에서만 人間은 効率的이 될 수 있으며, 그의 効率性이 人生의 実体가 될 수 있다.

"도덕, 종교, 형이상학과 공학의 모든 思想이나 그에 상응하는 意識의 제형태는 더 以上 독자성을 지니지 못한다. 그들은 歷史도 없고 発展도 없다. 그러나 物質生活과 物質交流를 進展시키는 人間은 이와 병행해서

그들의 참된 存在, 그들의 思考 및 思考의 産物을 変化시킨다. 人生이 意識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意識이 人生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独逸観念論>에서 以上과 같이 이야기했다.

歴史는 労動力의 여러 分業段階로 構成된다고 「마르크스」는 선언한다. 이 段階들이란 그 허다한 서로 相異한 形態의 소유권을 말하며, 즉 労動力의 分業이라는 現 段階는 物質과 労動의 生産物과의 関聯 및 個人間의 相互関係를 決定 짓는다. 환언하면 하나의 소유권 및 生産形態가 또 다른 形態로 移行하는 한에 있어서 歴史는 存在한다. 그 뒤를 잇는 経済体制 또한 社会的, 政治的, 体制이다. 人間精神의 発展이 아닌 이들 体制의 発展이야말로 歴史의 展進運動을 説明해 주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史的唯物論』이다.

万一 이것이 全部라면 歴史란 必要한 社会組織과 함께 経済的인 技術方法의 漸進的이고 発展的인 진화속에 있다는 結論을 내릴 수가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発展을 技術発展에서 비롯되는 発展으로 表現하고 있다. 事実은 누구나 自己自身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나머지 일은 事物의 진화에 맡길 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이 全部는 아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곧 이어 새로운 特徴을 紹介 함으로써 歴史란 生産的 形態, 経済的인 技術 및 労動関係의 진화속에 있다는 인상을 던져주고 있으며, "革命이야 말로 歴史의 推進力"이라는 것을 누누히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革命은 진화의 「안티테제」이며 진화는 自然発生的인 것이다. 革命은 치밀한 大衆行動을 必要로 하며 権力의 独占과 政治体制의 顚覆을 뜻한다. 「마르크스」는 한 政治体制로 부터 다음体制로 또한 한 財産 形態에서 다음形態로 転換되는데는 革命的 行動이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이들 가운데 한 形態가 終末을 고하고 새로운 形態가 歴史에 登場하게되는 革命과 여러形態의 経済生産의 連続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마르크스」는 自己自身은 그러한 事実을

아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思想을 展開 시켰던 것이다.

진화란 뭔가 超人間的이며, 非人格的인 自然의 힘같은 것이며 人間이 行하는 모든것을 人間이 그 事實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方向으로 이끌어가는 부드러운 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思想의 妥当性, 즉 이 進化思想의 妥当性을 論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르크스」의 두가지 主張사이의 差異点을 論하고 있는 것이다.

歷史의 核心役割을 "革命"으로 돌리는 「마르크스」의 두번째 主張은 反役者의 政治的 의지에다가 歷史의 「핸들」을 맡겨 놓고 있는 것이다. 反乱은 歷史에 貢献하는 것이며, 反乱者의 힘은 進歩의 힘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폭력은 歷史의 산파이다"라는 有明한 글귀를 남겼다. 歷史란 앞으로 밀려나가는 그 무엇이라고 늘 가정하면서 歷史를 前進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마르크스」의 두가지 見解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들 두 見解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万一 歷史의 前進運動이 経済発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진화의 性格을 띤것 이라고 推論할 수 있다.

生産의 変化는 自動的으로 새로운 形態의 社会를 이끌어 들일 것이며, 그럴 境遇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기다리며 관망하는것 뿐이다. 「마르크스」는 革命을 強調함으로서 経済発展이 그 自体로서는 어떤 한 形態의 社会로 부터 다른形態의 社会로의 変化를 가져오기에는 무기력하다는 点을 시사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変化가 외당 찾아와서 바람직한 政治的 行動이 그 変化를 武力으로 実現시켜야만 하는 때도 있다. 환언하여 우리가 수수방관 하면서 経済発展이 歷史를 展進시켜 주기만을 기다린다면 歷史는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形態의 社会에 종지부를 찍고 다른形態의 社会를 탄생케 하는 決定的인 変化는 未完成인채로 남게될 것이다. 이러한 変化들은 政治에 의해서 左右된다. 実際에 있어 「마르크스」는 이들 두개의 思想을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努力했다. 異質的인 이들 두要素의 결합은 「마르크

스」思想이 사람을 도취케하는 힘을 갖고 있음을 說明해 준다. 그러나 이들 두要素는 事実에 있어서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正反対의 方向으로 각각의 勢力을 行使하려 들고 있으며, 이 点에 対해서는 뒤의 「레닌」의 境遇에서 그 두드러진 예를 보게된다.

먼저 「마르크스」가 試図한 두가지 概念의 推定的 결합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들 두 概念의 結合은 이른바 『階級闘争』의 理論이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一切의 既存社会는 소수파들에 의해 통치되어 왔으며 이들 支配層인 소수파는 生産手段을 독점한 階級을 形成했다.

古代 「그리스」 및 「로마」時代에는 支配階級이란 바로 生産手段인 노예를 소유한 階級이었고 封建時代에서는 主要生産手段을 形成하는 土地를 소유한 階級이었다.

「마르크스」가 「부르조아」社会라고 부르는 現代社会에서는 工場所有者가 勢力을 갖는다. 어떤 社会에서든지 支配階級의 힘은 生産手段을 갖지 못한 피지배계급의 복종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노예가 없었더라면 노예소유자라는 것이 存在할 수 없었을 것이고, 農奴가 없었더라면 封建的인 地主階級이란 없었을 것이다. 賃金労動者가 없었더라면 資本家들이란 存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主張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 사이에는 必然的으로 永久的인 理解関係의 充突이 있으며, 이 갈등은 歳月이 흐름에 따라 表面化하고 露骨化한다는 것이 이른바 「마르크스」의 『階級闘争論』인 것이다.

被支配階級과 支配階級사이의 関係는 変하기 마련이다. 이 変化는 처음 그들의 政治的 및 法律的 関係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経済的인 生産分野에서 부터 일어난다. 経済生産을 통해 새로운 技術이 모습을 나타내며 새로운 種類의 財産이 使用됨은 勿論, 지금까지 써오던 財産의 효용성을 減少 시킨다. 「마르크스」도 모든 権力은 財産을 통해서 나온다고 믿었다. 各支配階級의 힘은 그가 所有하는 특정의 財産에 그 바탕을 두

고 있다. 그 主要財産이 経済発展으로 압도당하게되면 다른 種類의 財産을 지닌 또 다른 階級이 歴史의 場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時点에서 바로 現存하는 法的 政治的 構造라는 것은 前進運動을 可能케 하기 위해서 타파되어 버려야할 하나의 껍질로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政治的인 힘, 다시말해서 革命에 의해서만이 완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위대한 革命은 歴史에 있어서의 進化的 変化와 暫在的 階級闘争의 両面에서의 기나긴 過程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経済的 技術의 変化와 支配者와 被支配者사이의 闘争이라는 両面에 의해서 決定的 時期가 到来한다는 것이다. 結局 経済的 変化와 階級闘争이 支配階級의 立場을 極度로 약화시킨 나머지 새로운 階級, 신흥계급이 権力을 인수할 수 있는 절정의 時期가 到来한다는 것이다. 그때가 오면 새로운 形態의 社会가 出現하게 된다. 이 社会는 새로운 種類의 経済生活에 바탕을 두게 되며, 이러한 社会속에서는 権力의 法的 및 政治的 構造가 経済生産과 부합하도록 된다. 이와 같은 過程을 反復하는 하나의 주기가 또다시 始作되는 것이다.

이 原理를 통해 「마르크스」는 이른바 歴史의 法則을 発見했다고 主張했다. 그래서 1859年에 発刊된 <政治, 経済学 批判 叙説>속에서의 有明한 文章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그가 主張하는 『歴史의 法則』을 要約하고 있으니 그 骨子는 다음과 같다.

社会의 物質生産力은 그 힘의 発展過程에서 現存하는 生産関係, 即 法的 表現을 빌리자면 이 物質生産力이 그때까지 機能을 発揮해온 財産関係와 상충하게 된다. 生産力이 発展함에 따라 이들 関係는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이렇게해서 社会革命의 時代가 펼쳐진다. 経済的基盤의 変化와 함께 全体的인 상부구조도 急進的으로 変革을 겪게된다. 그러한 変革을 考慮함에 있어서 우리는 経済的 生産条件의 物質的 変革과 法的, 政治的, 宗教的, 美学的 또는 哲学的인, 即 간단히 말해서 人間이 이 갈등을 認識하고 이와 闘争하는 思想的 形態를 언제고 明確히 区別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要点은 歷史의 위대한 変化가 어떤 方式으로든 와야만 한다는 것을 「마르크스」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主張하고 있다는 事実이다. 歷史의 法則은 運命을 강철과 같은 必要性에 따라 다스린다. 現在와 未来의 우리들의 運命은 그것에 의해서 決定되어진다. 継続的으로 이어지는 各社会는 그전 社会의 뒤를 잇는 것이며, 이는 経済의 発展이 革命의 힘을 그때까지의 被圧迫階級의 손으로 넘겨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社会形態의 連続的인 変化는 거의 一定한 時間表와도 같이 到来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歷史의 時間表를 잊어버리는 境遇가 얼마나 빈번한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 人間全体의 思考에 対한 「마르크스」의 遺産이 아니겠는가?

「마르크스」自身은 어떤 形態의 社会에 이어 어떤 社会가 올 것이며, 통털어 얼마나 많은 社会가 存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모호하였다.

그는 때때로 여러가지 相異한 社会形態에 관해 言級하는가 하면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社会를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르크스」 신봉자들은 꼭 다섯가지 社会만이 있을 수 있다고 結論을 내리고 있다.

우선 初期의 原始的 社会에 있어서는 奴隷所有社会가 있었고, 다음에는 封建社会와 우리가 오늘날 살고있는 「부르조아」社会가 있다. 여기에서 그의 全体理論은 예언으로 変한다. 即 産業労動者인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들의 상전인 資本家의 勢力을 전복시켰을때 다음 네째번 形態의 社会가 나타나며 그 革命은 다시 다섯번째 形態인 社会主義 社会로 인도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自体의 財産이 없음으로 그 새로운 社会는 生産手段으로써 사유재산에 基盤을 두지않을 것이다.

社会共同化된 財産과 労動의 集団的 組織이 풍미하게 되며 結局은 支配階級도 被支配階級도 없게되는 것이다. 万一 이것이 真実이라면 歷史는 「에스컬레이터」와 유사한 것이다. 人間은 変化와 革命을 통해서 한걸음 한걸음 윗쪽으로 올라가게 되며 目的地에 到達하기 위해서는 다만 가장 낮은 밑바닥의 階段에 들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窮極的인 최상부의

目的地는 社会主義인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 階級闘争 理論은 허다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그럴듯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批判的으로 検討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理論은 極度로 허약한 基盤위에 서있는 것이다.

權力은 財産에서 연유한다고 「마르크스」가 믿는것이 勿論 이 理論의 核心이다.

特히 生産手段으로서의 財産은 이를 所有하는 者에게 相当한 힘이 된다는 것은 勿論 事実이다. 그러나 財産으로부터 나오는 權力이란 權力의 다만 한 種類에 불과하며, 다른 形態의 權力이 또한 存在하는 것이다. 政治的인 權力을 가진자들은 政權을 行使함은 勿論 財産家들에 대해서도 權力을 行使한다. 最近에 와서는 労組의 힘이 매우 強力해져서 労組는 生産手段의 所有者들을 強要할 수 있게금 되었다. 또한 宗教団体의 힘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社会의 權力構造를 財産所有者들의 權力으로만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것은 真実이 못되며 財産의 所有權을 둘러싸고 人間이 相互間에 階級闘争을 벌인다고 하는 것도 진실이 못된다. 「마르크스」의 結論은 特히 그가 내세우고 있는 連続되는 各種形態의 社会들을 고찰해 볼때 더욱 의심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인용하는 몇몇 예증은 모두가 「유럽」에서 그예를 채택한 것으로 人類 全体의 歷史에 관한 説明은 되지 못한다. 「마르크스」는 「유럽」을 무대로한 例外的인 이러한 証拠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마져 없었더라면 그가 내세우는 다섯가지 유형의 社会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連続的인 社会』의 理論마져도 維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광막한 「아시아」大陸에서는 「마르크스」가 내세우는 것과는 전혀 相異한 社会가 생겨 그곳에서 数千年을 두고 安定된 状態를 持続하고 있었다. 이 「아시아」的 社会속에서는 財産所有者가 權力을 휘두른것이 아니라 오히려 中央政府의 관료체제가 權力을 行使하였다. 中央政府는 政治的 手

段에 의해 통치를 했으며 財産所有者가 強力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비록 허다한 왕조의 浮沈은 거듭되었으나 革命으로써 그 体制를 무너뜨릴수는 없었다.

그러면 「마르크스」의 歷史観과 그 意義에 관한 考察로 되돌아 가기로 한다. 첫머리에서 「마르크스」는 人間이 타락된 世界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人間은 労動과 私有財産의 分離가 제거되고 労動이 集団組織化되었을 境遇에만 진정한 人間일 수 있다. 이른바 歷史의 法則의 発見은 「마르크스」로 하여금 그가 주창한 一連의 階級闘争, 歷史의 各段階, 革命 및 제반 形態의 社会를 거쳐서 結果的으로는 完全한 人間的인 存在가 実現되고야 말것이라는 것을 확신케 했다. 이러한 歷史의 過程은 서두를 수도 없으며 주문에 따라 形成될 수도 없는 것이다. 特히 무엇보다도 새로운 社会는 사전에 상세한 計劃을 세울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主義를 理想的 社会의 청사진이라고 입심좋게 말하는 사람 조차도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설정한 것은 階級, 弾圧, 불의 또는 빈곤이 없는 完全히 人間的인 社会가 歷史的 変遷이 거듭함에 따라 必然的 結果로서 나타나리라는 推定的 확신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있어서의 方法은 闘争뿐이며 時期가 되면 오고야말 変遷이라고 主張했다. 人間은 認定할 수 밖에 없는 変遷하는 힘의 一部를 스스로 発見하고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가운데 自身의 머리속에서 構想한 社会를 向해 곧바로 前進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主義는 그 自身을 이른바 『空想的 社会主義』와 区分했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単純히 理想社会를 꿈꾸고 그것을 現実에서 예측하려 드는것은 「유토피아」的 이라고 말했다. 現存하는 社会나 이를 잇는 다음 社会는 歷史的 変遷의 움직일 수 없는 必然性에 의해서 支配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連続은 平等한 社会에도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歷史가 우리를 황금시대의 문턱으로 인도하기에 앞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고 있는 一連의 闘争을 連続的으로 継続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우리는 오직 한가지 科学, 即 歷史를 알 따름이다"라고 끈덕지게 主張하였다.

歷史와 그 法則만이 우리가 처해있는 位置와 우리가 가야할 진로를 우리에게 提示해 줄수 있다고 그들은 生覚했다. 換言하면 歷史의 法則에 관한 知識만이 우리가 하여야할 일을 提示해 준다.

이와 함께 『歷史의 法則』에 따라 수행되는 것은 무엇이던간에 希望을 안겨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歷史의 運動은 비단 前進的일뿐 아니라 상향적이라고 主張했다. 그리고 각기 새로운 것은 必然的으로 고차원의 것이다. 闘争과 革命과 社会変遷의 全過程은 終末에 오는 것에 의해 정당화된다. 모든 善은 未来의 善을 위해 存在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善이 「마르크스」가 아는 唯一한 善인 것이다. 그 窮極的 善이 達成되기 以前의 現在에 있어서는 혼돈, 不義, 비정 및 闘争만이 存在할 수 있으며 闘争만이 唯一한 希望이다.

初期의 「마르크스」는 人道主義的 이었다고 전해진다. 「마르크스」는 그의 初期作品에서는 人間과 人間의 実存 및 人間이 처해있는 悪条件등에 関心을 보이고 있다. 이는 意問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人間을 単純한 労動 機能으로 単純化 시키는 「마르크스」의 論理가 事実上 全人, 即 人間経験에 젖은 人間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는가의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独逸観念論』을 始発点으로 이런 種類의 人間問題에는 더이상 개의치 않고 오히려 歷史의 힘쪽에 더 全念했다. 人間은 『歷史의 法則』에 따라가는 存在이다. 그들 法則은 앞으로 올 무수한 世代로 하여금 未来의 完全한 世界를 향한 犠牲的 도약대의 役割을 하게끔 만든다. 歷史의 法則에 대한 信念은 共産主義 구축을 위한 文字그대로의 礎石이라는 것을 認識하는 것은 매우 重要한 일이다. 「후르시초프」전 소련수상이 "우리는 너희들을 매장시키겠다"고 호언했을때 그는 単純

히 하나의 意図를 表明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확신을 말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科学的 확신을 첨가한 것이다.

그는 우리의 現実社会가 必然的으로 崩壊하고 이러한 破壊에서 새로운 社会가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科学的 正確性으로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새로운 社会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 自身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社会는 社会主義 社会이어야하며 그래서 共産主義는 이러한 展望에 비추어 必然的으로 未来에 닥쳐올 理念인 것이다. 이러한 信念은 「마르크스」의 歴史에 관한 理念에 바탕을 둔 독단인 것이다.

″歴史의 法則″이 存在한다는 全体的 推論은 勿論 非科学的일뿐만 아니라 非合理的이다.

「네델란드」의 哲学者 「키엘케골」이 ″무엇인가 存在하는것, 例를들어 人間이 그 自身의 存在를 未来의 終点이라는 有利한 立場에서 観察하려고 매달릴 수는 없다″고 主張한 것은 옳은 일이다. 存在한다는 것은 개방되어있는 未来에 直面하여 불확실한 것들 가운데서 決定을 내린다는 것을 뜻한다.

未来는 勿論 過去의 歴史도 全体를 마치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이기나 한것처럼 조망하는 것은 人間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직 時間과 공간을 초월한 存在에게만 可能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확신을 갖고 未来의 社会主義社会의 到来를 예언할 수 있다고 主張할때, 또한 未来의 革命과 未来의 発展을 예언하고 나아가서 이 社会主義時代가 人間運命의 最終的完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을때, 그는 스스로를 神의 位置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마르크스」가 歴史를 未来에서 遡及하여 観察하려는 方法論에 집착하는 것은 極度로 非合理的인 推論위에서의 行為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共産主義者들은 스스로를 人間으로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경지를 흉내내려고 들고있다. 따라서 共産主義者들을 根本的으로 다른 人間과 遊離시키고 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臆測인 것이다.

4.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革命 (I) (「프로그람」 No.5)

* 「니마이어」 博 士

지금부터 <共産党宣言> (Communist Manifesto) 에 관해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이 宣言에 관해서는 약간의 說明이 必要하다. 1847年 小規模이기는 하나 広範하게 組織된 革命集団이었던 「共産主義聯盟」 (the Communist League) 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그들의 政治綱領을 作成해 줄것을 위촉했다. 1848年初 이 政綱으로서 明文化된 <共産党宣言>이 나타났다. 이 <共産党宣言>은 처음 「프랑스」에서 그리고 전「유럽」에서 旧体制와 王政을 타도한 革命이 일어나기 不過 3, 4週前에 発表되었다. 이 宣言은 큰 関心을 불러일으켰고 즉각 번역되어 全 「유럽」의 많은 革命集団들의 깃발이 되었다.

<共産党宣言>은 分明히 하나의 重要한 歴史的인 文献이었다. 그러나 <共産党宣言>의 内容가운데는 現在 더 以上 適用될 수 없는 部分이 包含되어 있는 것은 事実이다. 特히 「마르크스」가 19世紀 共産主義者들을 위해 作成한 具体的인 政綱이 그러하다. 뿐만아니라 共産主義者 自身들도 <共産党宣言>에 관해 자주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이 宣言을 또는 그 思想을 廃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反対로 이것을 完全한 既定事実로 認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共産党宣言>은 우리가 이른바 「마르크스」의 견해를 즉 「마르크스」의 世界観을 다른 어느 文献에서 보다 잘 代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共産主義者들의 見解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世界와 人間社会, 그리고 歴史를 正確하게 통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共産主義者들은 「마르크스」의 이 世界観에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 政治学教授
独逸태생, 「마드리드」「프린스톤」
「예일」大学教授歴任

서 비롯된 戰略 및 政治行動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事実이 곧 <共産党宣言>에 明示된 事物의 綜合的인 見解가 망각 혹은 배격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共産主義者들에게 있어서의 〈共産党宣言〉은 아직도 美国에 있어서의 「独立宣言」과 같이 重要한 것이다. 〈共産党宣言〉은 序文과 4部의 本文으로 構成되어 있다. 第1部는 歷史와 階級闘争에 関한 「마르크스」의 見解를 간단히 要約하고 있고 第2部는 現 社会, 즉 「부르죠아」社会를 규탄한 「마르크스」의 主張을 収録하고 있다. 第3部는 오늘날 별로 重要한 것이 못되며 第4部는 모든 革命分子들에게 共産主義的 行動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全体 4部中 第1部와 第2部가 共産主義者들의 核心的인 신조를 包含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第1部의 첫 구절은 共産主義의 展望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모든 既存社会의 歷史는 階級闘争의 歷史다"이것은 有名한 귀절인데 그 主張의 一括性을 留意해야 한다.

이것은 社会의 많은 局面을 研究한 結果 얻은 結論이 아니라 다만 過去 社会의 한 局面을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 主張은 면밀한 証拠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잘 알려졌거나 덜 알려진 혹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社会에 관한 추상론이요, 先入見에 불과하다. 즉 先入見이기 때문에 「도그마」(Dogma) 即 独断論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 이 独断論에 의하면 人間이 経験하고 있는 모든 社会는 하나의 厳然한 特徵, 即 治者와 被治者間의 闘争으로 特徵지워 진다고 主張한다. 「마르크스」는 圧制者와 被圧制者는 때로는 암암리에 또 때로는 露骨的으로 부단한 闘争을 展開해 왔다고 主張하고 이 闘争은 社会全般의 革命的인 改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闘争하는 두 階級의 共同滅亡으로 끝난다고 말한다.

万一 社会를 説明하고 있는 다른 여러 方法論을 考察해 본다면 이 主張이 独断論이라는 것이 明白해 진다. 大部分의 사람들은 社会를 하나의 統一体로 생각한다. 美国의 銅銭에는 「많은것 중의 하나」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社会는 많은 相衝되는 理解와 見解속에서도 하나의 政府와 하나

의 法体制 그리고 단일충성을 創造할 수 있는 하나의 統一体라고 말할 수 있다. 한 社会가 自身을 防禦하기 위해 戰争을 할때 그 統一性이 明白해 진다. 「마르크스」는 社会의 対外的인 統一性, 内部的인 平和, 共同法体制, 社会 各分野間의 경합성등을 完全히 도외시했다. 事実 「마르크스」는 社会의 統一性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統一性이라고 부르는 것을 싸움터라고 불렀다. 그에게 重要한 것은 그가 말하는 이른바 부단한 闘争이다. 階級間의 闘争, 즉 共同滅亡 아니면 成功的인 革命이라는 두개의 可能한 結果에서 하나만을 選択할 수 있는 그러한 闘争만이 그에게는 重要했던 것이다.

앞에서 階級闘争論은 아무런 証拠도 없는 抽象論에 不過하다고 指摘한 바 있다. 좀더 正直하게 말하자면 充分한 証拠가 없는 抽象論이란 뜻이다. 「마르크스」도 약간의 証拠는 提示하고 있지만 그 証拠는 主로 「유럽」의 事例이기 때문에 部分的인 것에 不過하다. 「마르크스」는 다만 古代 「로마」의 階級闘争을 論한 다음에 自身보다 4世紀 내지 5世紀 앞에 있었던 「부르조아」의 대두를 論하고 있다. 그는 주석에서 「부르조아」란 현대 資本主義 階級, 즉 社会의 生産手段의 所有者이며 賃金労動者의 雇傭主를 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다음에 그는 通商의 拡大, 製造工学의 대두와 資本主義의 発展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充分한 記録에 立脚하여 면밀히 検討된 歴史가 아니라 다만 몇가지 事実에 立脚해서 変化의 「템포」를 비약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의 主張은 다음과 같은 変化를 기술하고 있다. 즉 都市변두리는 都市支配下에 있었고 사람과 経済的 生産力은 점점 小数의 中心点으로 集中됐다. 交易과 生産의 単一体制가 世界全域으로 拡大되었고 生産力은 엄청나게 増加되었다. 따라서 自由競争은 모든 社会, 経済 및 政治形態를 革命化 하기에 이르렀고 結局 「부르조아」는 그것이 이룩된 時期와 場所에서 언제나 쉬지않는 運動과 急速한 変化를 招来했다. 이 主張에서 우리는 歴史의 움직임은 매우 빠른 速度로 展開되었고 이 빠른 速度는 「부르조아」

의 影響力으로 加速化됐다는 印象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어느곳으로 끌고 가는 것일까? 또 그것은 어떤 것이 될까? 歷史의 加速性은 즉 모든 것이 하나의 頂点으로 到達하게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이 分明하다.

「마르크스」는 이점에 대해서 "同一한 內容이 우리 눈 앞에 展開되고 있다"고 主張하고 "封建的인 그들의 상전들을 타도한 「부르조아」는 또한 스스로도 自滅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부르조아」들이 封建主義를 타도하는데 使用한 武器는 이제 「부르조아」自身들에게로 돌려질 것이며 또한 이 武器를 휘두르게 될 人間의 存在가 指摘되는데 그것이 곧 現代勤労階級, 즉 無產階級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無產階級의 発展史가 展開된다. 「마르크스」는 이것도 「부르조아」運動과 同一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르크스」는 通商의 增大 및 새로운 市場이나 다른 経済的인 勢力의 発展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反面에 無產者들의 모순된 辨証法은 全的으로 闘争만으로 説明되고 있다. 첫째 労動階級은 機械에 반기를 들고 「부르조아」의 敵에 対抗한다.

그들 階級의 団結이 굳어짐에 따라 그들은 「부르조아」自身과 正面으로 対決한다. 그들은 経済的인 闘争으로 부터 政治的인 闘争으로 転換하고 마지막으로 이 闘争은 公開的인 백열전으로 転換된다. 「부르조아」의 一部는 떨어져 나가고 「부르조아」를 전복시킬 暴力이 드디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면 「부르조아」에 대하여 考察해 왔으며 또 다른 일면으로는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도 考察해 왔다. 모든 歷史는 階級闘争의 歷史라는 主張, 곧 闘争은 人間의 記憶이 存在하는 限, 継続된다는 主張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世界도 特殊한 形態로 分類되고 있다. 即 많은 階級이 複雜한 関係를 갖게 되는 그러한 時代는 지났다. 오늘날 社会는 両大 対立勢力 即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더욱 分裂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過去의 모든 階級闘争은 이제 両大 勢力間의 闘争으로 集

約된다. 그렇지만 이 두 敵対勢力들도 特別한 뜻을 갖게 된다.「부르죠아」는 特別한 存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社会的인 굴레를 解体시키고 革命蜂起를 위한 무대를 設置하고 또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를 創造하기 때문이다.「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자면 「프롤레타리아」는 特殊한 存在이다. 왜냐하면 過去의 모든 歷史的인 運動은 少数派의 運動 혹은 少数의 利益을 위한 運動이었다. 그러나 無產者運動은 莫大한 多数의 自覚運動으로 스스로의 利益을 위해 또 다른 階級支配를 이룩할 수는 없으며 다만 私有財產을 廃棄시킬 수 있고 또 私有財產을 土台로 한 階級支配와 圧制를 廃棄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부르죠아」社会는 마지막 階級社会이며 無產者 革命은 歷史上 마지막 革命이라는 것이다.

이 主張은 매우 극적이며 함축성이 있고 숨을 죽이게 하는 理論이다. 마치 西部活劇의 숨막히는 순간 즉 많은 悪党들이 主人公을 둘러 싸고 스스로의 죽음의 무대로 이끌어 가서 마침내 그들의 시체로 무대를 装飾하는 그런 식의 「서스펜스」를 提起한다. 단지 差異가 있다면 「마르크스」는 이야기군이 아니라는 점이다.「마르크스」는 그가 생각하는 이른바 「歷史의 法則」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 法則에 科学性을 부여할려고 試図했고 또 그렇게 했다.「마르크스」는 現代工学의 発展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이며 「부르죠아」의 생산근저는 뒤흔들리게 된다고 主張하고 따라서 「부르죠아」의 没落과 「프롤레타리아」의 勝利는 必然的인 것이라고 말했다. 즉 <共產党宣言>의 第1部의 主題는 「부르죠아」의 타도, 그리고 革命적인 「프롤레타리아」의 勝利다.

우리가 前에 検討한 共產主義者들의 世界観의 核心은 바로 이러한 일대 変革에의 信念, 即 「프롤레타리아」革命이다. 圧制없는 社会는 이 大変革을 通해서 이룩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大変革의 実現은 歷史의 必然性에 의한것 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기본 「메세지」이다. <共產党宣言>에는 이 「메세지」가 最初로 集大成되고 있다. 이 「메세지」에는 다른 思想이 첨가되거나 부연되지 않았다.「마르크스」의 다른

모든 著書들은 다만 이 基本 「메세지」를 뒷받침하고 부연하고 強化하는데 不過했다. 共産主義者들의 活動은 이 세개의 敎理에 立脚한 그 組織과 実践에 不過하다. 「레닌」主義는 特히 「마르크스」의 世界觀에서 비롯된 戦略 및 組織에 관한 原則에 不過하다. 따라서 <共産党宣言>은 発表된지가 오래지만 그것의 精神과 용어를 検討하는 것은 決코 皮相的인 일만은 아니다.

<共産党宣言>은 以上에서 指摘한 重要 敎理 외에 몇가지 思想과 概念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도 検討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共産主義者들이 直面하고 있는 問題点을 考察할 수 있다. 例를 들어 階級에 관한 概念인데 윈괄을 使用하는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의 분류를 사용한 셈이다. 이러한 階級区分은 붉은 머리털을 가진 사람, 또는 智能指数가 높은 사람, 外向的인 사람등을 말할 때도 適用된다. 富者, 貧者도 역시 階級概念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각각 同一性에 따라 같은 階級으로 分類되어 한 덩어리로 통칭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工場을 使用하거나 所有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賃金을 받고 雇傭된 사람들로 集団分類한다. 이는 지극히 当然한 分類이지만 「마르크스」는 한 걸음 더 前進하고 있다. 그는 自己가 観察한 階級들은 共同目的을 갖고 共同으로 行動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고 主張한다. 「마르크스」는 그들에게 一種의 共同意思와 共同意識을 부여한다. 이것은 바로 人間에 관한 그의 概念과 人間심령의 배격 그리고 物質的 与件에서 人間을 解放시키려는 「마르크스」의 態度에 그 基礎를 두고 있다. 그는 物質的인 基礎가 生活을 決定하고 따라서 인간의 意識을 決定한다고 指摘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人間의 階級意識은 마음 속에 階級状態를 투영시키고 또 階級의식을 심어준다고 結論짓고 있다.

同時에 「마르크스」는 적어도 当分間 無産者들은 그러한 階級意識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階級의식이 없으면 無産者革命은 있을 수 없다. 왜냐 하면 革命은 政治行動이며 例示된 政治思想과 目的에

立脚하여 實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無産者들의 마음 속에 階級意識이 発展될 것이라고 予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두가지 점에서 이를 予言했는데 하나는 「부르죠아」支配下의 経済与件은 더욱 変化되기 마련인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그의 말을 引用하면 즉 "現代労動者들은 工業의 発展과 더불어 地位가 向上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階級存立条件 以下로 더욱 더 깊이 떨어지게 된다. 그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貧困状態는 人口나 富보다 더 急速하게 拡大된다" 이것은 바로 「마르크스」가 「부르죠아」의 存在는 마침내 社会와 더 이상 병존할 수 없다고 暴言하게 된 根拠이다.

그리고 「마르크스」予言의 둘째 根拠는 바로 「階級闘争論」이다. 「마르크스」는 階級闘争을 意図的인 所産物이 아니라 事態의 必然的인 所産物로 理解했다. 따라서 그는 無産者는 태어날때 부터 「부르죠아」와의 闘争을 始作한다고 主張했다. 그의 말을 引用하면 個別的인 労動者와 個別的인 「부르죠아」間의 衝突은 두 階級間의 衝突의 性格을 점점 짙게 할 것이며 이 衝突에서 労動者들이 勝利할 것이다. 하지만 이 衝突의 真正한 열매는 즉각적인 結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가는 労動者들의 결속에 있으며 결국 無産者의 組織은 階級으로 発展하고 窮極的으로는 政党으로 発展한다. 다시 말하면 "闘争目的의 辨証法은 革命을 할려는 共同意識과 의지로 한덩어리가 된 無産階級의 形成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予言한 이 두가지 条件은 実現되지 않았다. 労動者들은 貧困者가 되지 않았고 全体的인 労動階級은 継続的인 闘争過程에서 政治的인 単一体로 発展하지 않았다. 革命의 主人公 즉 階級을 意識한 無産者가 出現하지 않았다면 「마르크스」가 予言한 革命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 問題를 「레닌」에게 맡기기로 하자.

<共産党宣言> 은 또한 未来의 革命指針에 관한 「마르크스」의 主張도 包含하고 있다. 이 主張은 第2部에 記録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検討가 必要하다.

첫째로, 「마르크스」는 無産者들 스스로가 支配階級이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無産者가 權力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權力을 잡은 無産者들은 그 權力을 「부르조아」로 부터 모든 資本을 탈취하고 모든 生產手段을 国家所有로 集中시키고 全体生產力을 可能한 한 急速히 增加시키는데 使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財產의 没収, 国有化 및 이의 施設投資, 이 모든 것은 政治權力과 関聯된다. 다음에 引用될 구절은 이 措置의 性格에 疑問의 余地를 남기지 않았다.

"물론 当初부터 이것은 財產權에 대한 独裁的인 没収方法外에는 「부르조아」社会与件下에서는 実現될 수 없다. 따라서 이 方法은 經済的인 面만으로는 不充分하고 또 持続할 수 없다."이 点과 관련해서 「마르크스」는 暫定的인 이 措置에 이어서 좀 더 安定된 措置를 提示할법도 하다. 하지만 그는 "이 措置의 過程은 스스로 더 経済的인 措置를 必要로 하게 되고 社会秩序에 대한 独裁的인 잠식을 必要로 하게 만들며 結果的으로 生產方法을 全面的으로 革命化하는 方法이 不可避해진다"고 主張한다. 다시 말하면 独裁的인 잠식은 独裁權의 強化를 招来하게 된다는 뜻이다. <共產党宣言>은 10個 措置를 提示하고 있는데 이것의 大部分은 徹底한 時代的 반영물이다. 「마르크스」時代에 있어서 이 10個 措置는 모두 過激한 것들이었다. 그것의 大部分은 進步政党에 의해 고취됐고 進步派들에 의해 実践됐다. 그중의 몇가지는 典型的인 「마르크스」主義的인 性格을 띄고 있다. 그중 가장 극적인 것은 產業軍, 特히 農業을 위한 役軍의 創設 要求였다. 다음은 都市와 農村間의 区別에 대한 漸進的인 폐지의 要求이다. 이러한 要求들은 「마르크스」의 人間觀과 労動의 分業을 歴史過程에서의 悪으로 보는 主張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그후 蘇聯政策에 広範하고도 重大한 影響을 미쳤다. 하지만 이 要求 가운데는 그것이 人間의 利益을 위해 具体的으로 어떻게 보탬이 된다는 分析은 한 구절도 없다. "諸階級과 階級間의 対立을 内包하고 있는 「부르조아」社会 代身에 「존·스튜아트·밀」이 말한 個人의 自由開発을 保障하는 結社를 갖게 될 것이다"이 구절에

서 「마르크스」는 個人의 自由는 全体自由와 完全히 調和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自由가 産業軍이나 独裁的인 没収 및 独裁를 위한 政治権力의 使用으로 生産力을 増加시키는 것과 어떻게 両立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解明도 하지 않았다.

끝으로 <共産党宣言>은 共産主義者들과 無産階級 全体의 関係에 관해 言及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共産主義者들이 다른 労動階級 政党에 反対되는 別途의 政党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 「마르크스」는 그의 수제자인 「레닌」에 의해서 完全히 背信 당했다. 「레닌」의 理論에 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検討하기로 하겠지만 「레닌」이 発展시킨 이른바 「前衛党 概念」은 이 <共産党宣言>에서도 어느 정도 그 根拠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共産主義를 "모든 나라의 労動階級政党 가운데 가장 進歩되고 결단력이 있는 部分이며 이 部分은 다른 모든 分子를 이끌고 前進한다"고 定義 내지는 説明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또하나의 先験的인 定義 즉 経験이나 観察에 의한 것이 아닌 구름을 잡는 式의 定義이다. 이와 同一한 手法으로 「마르크스」는 無産者들을 唯一無二하고도 真正한 革命階級이라고 宣言했다. (이것은 매우 重要한 定義이다) 그는 또한 "無産者들은 本質的으로 革命課業에 従事해야 하며 無産者는 広大한 多数를 代弁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이어 "共産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대중보다 「프롤레타리아」運動의 与件과 一般的이고도 窮極的인 結果를 明確하게 理解할 수 있는 利点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르크스」는 自身의 予言이 事実로 実現되었는지의 여부를 確認할 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가 革命「무드」속에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階級意識과 共同目的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檢討하지 않았다. 同時에 그는 共産主義者들이 眞正으로 가장 進步的인 社会集団에 속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석한 理解力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眞実로 다른 勤労階級政党에 反対하지 않는지의 与否를 検討해 보지 않았다. 그는 다만 그렇게 된다고 主張했을 뿐이다. <共産党宣言>은 그 主張을 마치 証拠와 分析에 根拠한 것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実際的으로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主張에 不過하다. 問題는 共産主義者들이 그後 그 主張을 마치 하나의 現実인 것처럼 取扱하기 始作한 데에 있다. 共産主義者들이 <共産党宣言>을 既定事実로 認定하고 더 以上 検討하지 않는다는 事実은 그들 自身들 뿐만 아니라 全世界에 悲劇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共産主義者들이 歪曲되고 先入見的인 世界観을 既定事実로 認定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歪曲된 世界観을 徹底히 再検討하기만 하더라도 <共産党宣言>이 그리고 있는 世界観이 한날 추악한 꿈에 不過하다는 것이 露出될 것이다. 하지만 共産党이 禁止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再検討인 것이다.

5.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革命(II)(「프로그람」 No. 6)

* 「니마이어」 博 士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年 <共產党 宣言>을 썼을 때 그들은 앞으로 数個月 內에 革命이 일어날 것으로 期待하고 있었으며 事実 그후 수주일 내에 革命이 일어났었다. 革命은 「프랑스」에서 부터 始作되어 「유럽」全域에 번져 왕정을 몰아내고 旧体制를 타도했다. 하지만 1850年 경에는 革命은 모든 곳에서 敗北하였고 基本的인 変化는 초래되지 않았다. 그 革命의 性格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은 「마르크스」가 부여한 任務, 即 「부르조아」 타도라는 任務를 完遂하지 못한 것은 分明하였다.

왜 1848年의 革命은 黄金時代를 가져오지 못하였는가? 또 다른 하나의 革命은 과연 일어날 것인가? 그 当時 「마르크스」는 共產主義聯盟의 中央本部에 있었고 그는 이 共產主義聯盟을 위해서 <共產党 宣言>을 집필중에 있었다.

特히 그는 1850年에 共產主義聯盟 中央本部를 위한 演說文을 作成하였는데 그것은 共產革命의 다음 段階에서 革命当局이 취할 行動指針이었다. 그는 이 행동지침에서 共產主義者들은 「부르조아」들이 양보하기만 하면 즉시 行動을 일으켜야 한다고 強造하였다. 共產主義者들은 언제나 「부르조아」에 앞서 前進해야 하며, 「부르조아」가 양보했다고 해서 既存体制를 完全히 말살하기 위한 前進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항구적인 革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口号는 共產主義歷史에서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하게되었다.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政治学教授
독逸태생, 「마드리드」「프린스톤」
「예일」大学教授歷任

共産主義聯盟은 1852年에 解体되었으며 그때까지, 아마도 그보다 좀 前인 으로 생각되는데 「마르크스」는 第2의 革命이 긴박하지 않다는 結論을 내렸다.

共産主義聯盟의 「마르크스」의 동료들은 좀 더 다혈질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아직도 15年, 20年 혹은 50年 동안의 内乱과 市民戦争의 段階를 거쳐야 하며, 政治的인 支配権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漸進的으로 그리고 서서히 그들 自身을 準備해야 한다고 強調했다. 그의 몇몇 친구들은 또하나의 革命을 즉각 단행함으로써 自由主義 段階, 即 「부르죠아」와 資本主義의 樹立過程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生覚하였다. 「마르크스」自身도 1848年의 革命은 農民과 小市民 등을 無産階級 주변에 결속시켜 大規模 무산대중계급의 出現을 可能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보다 45年後 「엥겔스」는 1850年을 회고하면서 "歴史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生覚이 틀렸다는 것을 実証해 주었고 歴史는 또한 당시 「유럽」의 経済的인 発展이 資本主義 生産体制를 除去할 수 있는 段階가 아니었음을 分明히 해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当時의 「마르크스」나 「마르크스」主義者들의 見解에 立脚해서 当時를 回想해 보기로 하자. 「마르크스」는 歴史의 法則에 따라 一連의 革命은 社会를 封建社会로부터 「부르죠아」社会를 거쳐 다시 社会主義 社会로 이끌어 간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無産階級을 최종 革命의 主人公, 即 「부르죠아」社会를 타도하고 楽園을 実現시킬 主人公으로 간주했다. 歴史의 意義와 方向은 自明하다.

이러한 前提속에 明白한 것은 革命運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모든 進歩的인 人間의 義務라는 것이다. 그러나 革命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아니라는 것이 判明된 이상, 「프롤레타리아」革命은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세기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은 歴史는 하나의 時間表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時間表를 正確하게 읽을 自

信이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歷史의 時間表에 모두를 맞추기 위해 行動할 方法에도 自信이 없었다.

이것이 唯物論的 歷史觀을 갖고 있고, 또 唯物論에 의한 社会 進化를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었다는 것과, 한 社会로 부터 다른 社会로 進化하는 根拠를 提供하는 것이 바로 階級闘争의 理論이라는 것을 認識하는 것이 重要하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自身들이 살고있는 時代, 即 自身들의 歷史上의 位置를 알아야 하며, 또 다음에 닥아올 時代, 또한 現時代에서 그들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革命의 問題, 時期, 準備, 実践 및 窮極的인 効果등은 共産主義者들의 不断한 관심사였다.

「마르크스」는 한 때 1848年의 革命은 時期尚早였으며 「부르죠아」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長期間의 闘争이 必要하다는 것을 認定했고 前보다 더 歷史에 관한 그의 唯物論的인 解析을 強調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物質的인 여건이 성숙하지 않는한 政治的인 봉기는 成功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마르크스」는 또한 그가 著述한 1859年의 <政治経済学 批判>에서 어떠한 社会秩序도 그 속에 남아 있는 모든 物質的 条件이 開発되기 前에는 망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여기에서 人間은 언제나 自身이 解決할 수 있는 物質的인 与件이 存在할 때 오직 그 物質的인 与件으로 부터 提起된다는 것을 発見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当時 지극히 일관성있게 物質的인 与件과 그것의 장래 発展의 潜在力을 研究하는데 専念했다. 이 研究의 결실이 곧 그가 著述한 3巻의 大作 <資本論>(the Capital)이다. 이 <資本論>의 第1巻은 1867年에 発刊되었다.

<資本論>에 대한 論争들을 検討하기 前에 이 <資本論>이 著述되기 前後에 나타난 「마르크스」의 革命理論을 주로 検討해 보기로 한다. 이 革命理論은 政治論文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에는 1850年代의 <「프랑스」의 階級闘争>, 1852年의 <「루이·보나파르트」(Louis Bonaparte)

의 「부르메르 18세 (Brumaire 18世) >, 1871年의 <「프랑스」内乱>, 1875年의 <「고다」計劃의 批判> (The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 등이 包含되며 그밖에 「마르크스」의 친구인 「프리드리히·엥겔스」의 著書인 1878年의 소위 <反「듀링」論> (Anti-Dühring)을 첨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르크스」는 이 諸論文 가운데 첫 두개의 論文에서 1848年 부터 1852年 사이의 事件들을 면밀하게 検討하였다. 그는 이 事件들을 検討하면서 革命에 관한 그의 主張에 고상한 性格을 부여해준 세가지 理念을 提示했으니, 即 첫째, 無産階級은 다수가 아니며 소수 이다. 둘째, 人民의 대다수는 農民들로 構成되어 있다. 세째, 都市 住民의 대다수는 革命的인 行動을 지지하나 곧 다시 秩序 維持를 希望하게 된다는 것 등 이다. 「마르크스」는 이 第3의 集团, 即 都市人의 대다수를 소시민, 職工, 船主 등으로 分類했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分析을 살펴 볼때 상식이 있는 觀察者라면 成功的인 「프롤레타리아」 革命이란 있을 수 없다는 結論을 얻게될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未来의 「프롤레타리아」革命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可能性을 절대로 疑問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再検討조차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이 問題를 다음과 같이 提起하고 있다.

即 「프롤레타리아」는 現在의 立場, 即 1850年의 立場에서 부터 革命的인 先導 役割을 마친후, 窮極的으로는 大衆을 支配하게될 立場으로 前進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革命이 成功할려면 長期間의 歲月이 흐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結論을 내린 事実을 상기할 必要가 있다.

이 장구한 期間 동안 革命은 長期的인 전략상의 勢力 구축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그 동안 「프롤레타리아」의 승리가 実現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勝利의 意義는 最後의 결전을 위한 漸進的인 戦略상의 準備

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숫적인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聯合勢力을 糾合해야 한다. 그들은 이 聯合勢力을 国民의 대다수를 構成하고 있는 農民과 都市 人口의 대다수를 構成하고 있는 小市民들 속에서 発見해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主張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 聯合勢力 속에 包含한 階級들을 「프롤레타리아」의 信頼할 수 있는 勢力으로는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聯合勢力은 다만 이용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의 窮極的이고도 全面的인 勝利를 위해서 農民들과 小市民들을 설득해서 「프롤레타리아」의 目的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初期 論文에서는 「프롤레타리아」 革命은 労動者들의 빈곤과 불만이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인 下限点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폭음과 함께 爆発한다는 식의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제 이 革命爆発論에 새로운 国家概念을 가미 시켰으니, 即 革命은 長久한 歳月 동안의 忍耐와 賢明한 戦略的인 準備의 집대성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 主張에 따르면 첫째로 「프롤레타리아」는 自体의 힘을 強化하며, 勢力, 構造上의 그의 位置를 拡大하고, 스스로를 組織化하여 聯合勢力을 糾合하고 수 많은 大衆들을 革命的인 行動에 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戦略은 窮極的으로 「프롤레타리아」의 勢力을 더욱 더 增強시키는 반면, 支配階級들을 더욱 더 약화시키게 된다. 이것은 不満으로 부터 革命이 発生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여기서는 革命은 長期間의 戦略的인 課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生覚은 「레닌」에 대해 상당한 影響을 끼쳤다. 우리는 이곳에서 問題의 초점이 되고 있는 革命, 即 長期的인 戦略課業으로 構想된 革命이 実現될 可能性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또한 革命的인 変化는 経済的인 与件이 성숙했을 때 비로소 可能하며 주문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마르크스」의 主張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마르크스」는 아마도 革命에 관한 이 두가지 概念의 모순을 깨닫지 못했을런지도 모른다.

어쨌던 그는 그의 追從者들에게 새로운 思想을 収録한 그의 著書를 遺産으로 남겨 주었다. 그의 著書의 基本的인 効果는 革命을 爆発的인 単純한 事件으로 부터 長期的인 爆発的인 事件으로 延長시킨 데 있다. 이러한 進前은 革命 完遂後의 事態, 即 「프롤레타리아」가 政權을 掌握한 後의 事態에도 가해졌다.

<共産党 宣言>에서 「마르크스」는 勝利한 「프롤레타리아」는 그 革命的인 權力을 資本主義者들을 除去하는데 使用할 것이라고 闡明하였다.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者들로 부터 工場들을 接受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共産党 宣言>은 또한 自由의 나라도 約束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들의 여러 論文에서 国家는 支配階級의 손에 있는 압제의 도구 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主張했다. 그들의 主張에 따르면 社会는 階級으로 分裂되어 있고 支配階級은 그들의 지위를 維持하기 위해서 国家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일단 階級分裂이 사라지면 国家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示唆했다.

「마르크스」는 国家의 存在를 労動의 集団化를 주선하는 機関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그들이 <共産党 宣言>에서 約束한 自由의 나라는 国家도 政府도 法도 없는 社会가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革命을 成功시킨 政權이 国家權力의 힘을 얻어 階級없는 社会를 建設하기 위한 独裁政權으로 넘어간다는 그 過程은 어떠한 것일까? 「엥겔스」는 그의 著書 <反「듀링」論>에서 国家는 急速히 소멸할 것이라고 대담한 예언을 하고 있다.

「엥겔스」의 말에 의하면 "国家가 社会 全体의 代表로서 취하는 첫 措置는 社会의 이름으로 生産手段을 接受하는 일인데, 이것이 또한 国家로서 独自的으로 취하는 마지막 措置가 된다. 即 社会関係에 있어서의 国家權力의 影響力은 가속적으로 去勢되고 마침내 그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는 主張한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政府는 事物의 行政機構, 即 生産過程의 指示手段으

로 代替될 것이며, 国家는 廃止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고 主張했다.

「엥겔스」의 이 主張을 들으면 마치 그러한 状態가 몇주일 내에 혹은 몇달 내에 일어날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結局 政治権力은 事務的인 経営機構로 代替되고 또 社会가 必要로 하는 組織体 亦是 그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러한 楽観論에 동조하지는 않았다. 그는 変化에의 方向을 爆発的인 한 순간에서 부터 全期間으로 延長시켰다. 그는 "共産主義 社会에서의 資本主義者들의 去勢는 結局 하나의 社会에서 다른 하나의 社会로의 革命的인 改革期間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期間동안 우리는 共産主義 社会가 그 自体의 基盤위에서 発展된 것이 아니라 経済, 倫理 및 知的인 면에서 아직도 남은 社会의 旧殼을 脱皮치 못하고 있는 資本主義에서 막 탄생한 社会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라고 強調했다.

따라서 世界는 単純히 私有財産制를 廃止함으로써 일조일석에 새로운 것이 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世界의 創造는 長久한 歳月을 要하는 課業으로 「부르조아」 타도는 다만 그 始発点에 不過하다. 그렇다면 이 과도기에 있어서의 国家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問題에 대한 「마르크스」의 解答은 国家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한 「엥겔스」의 楽観論과는 相当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社会와 共産主義 社会사이에는 変化過程을 위한 과도기가 있으며 이것과 병행해서 国家가 「프롤레타리아」의 革命的인 独裁手段이 되는 政治 과도기가 있다"고 主張했다. 이러한 主張은 1875年의 <「고타」計劃(Gotha Program)의 批判>에 包含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두가지 重要한 概念과 直面하게 된다. 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의 独裁論이다. 이 理論은 当初 「프랑스」社会主義者였던 「루이・오구스트・블랑키(Louis Auqust Blanqui)가 1837年에 처음으로 개진했다. 勿論 그 보다 앞서 「프랑스」革命 때 革命政府의 권한을 그렇게 집약한 바도 있었으니, 即 革命政府는 反対勢力을 除去하기 위해 어떠

한 法的 考慮, 節次 혹은 憲法상의 禁止規定에 제한을 받지 않고 權力과 暴力을 自由로히 行使할 수 있다는 理論이다. 「마르크스」는 한 社会로부터 다른 社会로 改造되는 革命的인 과도기에 있어서 政治權力이 革命的이고 独裁的인 것이 될 수 있다고 生覚한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国家가 사라질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며, 事実 国家権力을 무자비하고도 独裁的인 段階로 까지 增大시킨 政権에서 그러한 傾向을 発見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두번째 概念은 変遷過程을 위한 『過渡期的 概念』이다. 「엥겔스」는 그의 著書 <反「듀링」論>에서 "私有財産制度가 철폐되는 즉시 모든 것이 向上될 것이며 階級없는 社会의 기쁨을 즉각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가 權力을 잡은후의 国家에 관한 「마르크스」의 說明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새로운 체제는 생겼지만 그러나 社会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의 主張에 의하면 私有財産의 完全한 廃止 自体만으로는 저절로 새로운 社会의 創造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이다. 即 새로운 社会가 創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權力을 잡은 후의 独裁政權의 課業을 說明함에 있어 『革命的 過渡期』라는 용어를 使用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社会가 타도되더라도 새로운 社会主義 社会는 未来에 存在하는 것이고 現在, 即 「프롤레타리아」가 政權을 잡은 순간부터 그 直後의 期間은 過渡期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生覚했다.

다시말하면, 革命은 資本主義가 종식된 직후에 더 많은 課業을 遂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한 混乱期가 될 이 『過渡期』에 대한 概念은 매우 重要한 検討의 대상이 된다. 即 만사가 混乱状態에 있는 이 過渡期에 있어서는 政府는 独裁化하고, 生産은 不充分하며, 闘争은 継続될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이 過渡期를 自身들의 一生동안의 課業으로 간주하고 있다. 即 共産主義者들의 共産楽園은 언제나

未来에 있고 闘争만이 그들의 生時의 運命이라는 뜻이다.

「마르크스」는 이 過渡期 概念에 대해 좀 더 부연하고 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가 権力을 잡은 後의 状態를 두가지 段階로 区分하고 있다. 即 第1段階 혹은 初期段階는 모든 것이 不足한 時期가 되며, 이 時期에 가장 不足한 것은 経済的인 것으로서 社会의 構成員들은 재화를 서로 나누어 써야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経済財貨의 分配는 法的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것은 私有財産制를 前提로 한다. 따라서 法体制가 存在해야 하고, 이 法体制는 法을 執行하는 国家의 存在를 前提로 한다. 「마르크스」는 私有財産制가 廃止되면 모든 사람들이 自身이 社会에 寄与한 労動의 대가를 正確하게 支払받기 때문에 事態가 호전될 것이라고 生覚했다. 그러나 이 平等権은 労動의 不平等 때문에 不平等한 権利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共産主義가 고도화한 段階에 이르면 生産力이 고도로 増加되어 모든 사람들이 消費할 수 있는 이상의 生産이 可能하다고 生覚했다. 따라서 이러한 経済的인 풍요단계에서는 分配를 위한 法的 規制原則 뿐만 아니라 分配自体에 관한 모든 問題도 일소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다시말하면, 고도화된 共産社会의 第2段階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必要한 것이 있으면 그저 손과 발만을 놀리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때 人間은 그 革命의 깃발에 "모든 사람은 自己의 能力에 따라 그리고 自己의 必要性에 따라"라는 口号를 새겨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主張한다. 하지만 이 理論은 「프랑스」의 社会主義者 「프루동」(Prudhomme)에게서 빌린 것에 不過하다. 「마르크스」가 主張한 革命以後의 2段階論은 社会主義 및 共産主義로 불리운다.

「마르크스」의 著書들을 検討한 結果를 綜合해 보면 이른바 「프롤레타

리아」 革命概念은 크게 変質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일견 自然発生的인 것으로서, 社会에서 階級을 없애고 人類를 自由로운 영역에 引導하기 위해서 不可避한 爆発的인 事件이라고 説明하고 있지만, 이와는 전혀 판이한 立場인 것이다.

即 革命은 長期間 전략적으로 準備되어야 하며, 무산자가 아닌 聯合勢力의 도움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룩될 수 있고, 戦略的인 準備가 正確하고 또한 賢明하게 準備되었을 때 비로소 勝利할 수 있는 方向으로 発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革命은 다만 「프롤레타리아」들이 権力을 잡고, 「부르죠아」가 타도되고 또 私有財産制가 廃止됨으로서 完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다만 社会의 革命的 変革의 始発点에 不過하고, 社会의 革命的인 改造는 政権이 独裁権力으로 支配해야 하는 全体期間 동안 延長된다는 点이 分明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가 権力을 잡기 前後에 戦略的인 計劃과 술책과 조작이 存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곧 革命이 歴史的인 過程이 아니라 하나의 課業이라는 인상을 더욱 짙게하고 있다. 이것이 곧 「레닌」이 後에 提示한 「레닌」自身의 革命概念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革命을 하나의 社会階級에다 부과하면서 革命은 그 社会階級의 生存을 위한 不可避한 結果라고 主張했다. 다시말하면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革命을 하나의 社会的인 事実, 即 「프롤레타리아」들이 生存하기 위해 不可避하게 개입하게 되는 事件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階級은 아무런 決定的인 役割을 하지 않았으며 더욱 厳密히 말한다면 「프롤레타리아」革命같이 보이는 것도 存在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事件이 있었다면, 다만 1837年 부터 1848年 사이에 英

国에서 있었던 「챠티스트」(Chartist)運動과 1871年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파리·코뮨」(Paris Commune) 정도에 不過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 「파리·코뮨」을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最初의 본보기라고 찬양했다. 하지만 이것은 革命이 아니었으며, 설혹 그것을 革命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始発点이 아니었고 마지막의 것이었다.

「프롤레타리아」 革命을 우리 時代의 하나의 社会的인 事実이라고 生覚하는 主張은 하나의 신화에 不過한 것이다. 労動階級은 이상의 主張과는 反対로 資本主義 体制 속에서 自身들의 生活環境을 더욱 向上시키고 있다. 그들은 労動立法과 団体 交渉権 등을 통해 資本主義 体制 속에서 自身들의 地位를 더욱 굳혀가고 있는 것이 現実이다. 하지만 階級闘争에 관한 이 신화와 그리고 진정한 革命階級이라는 「프롤레타리아」階級에 관한 신화들은 아직도 共産主義 理念의 必須的인 根拠로 남아있는 것이다.

6. 「마르크스」의 資本論(I)(「프로그람」No.7)

* 「서　　한」博　士

<資本論>이 그 目的을 어리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資本論>이 「마르크스」의 生涯 후반기에 執筆되었다는 事実을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르크스」는 1849년 「런던」으로 亡命하여 1883年 死亡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資本論>은 그의 필생의 力作이다.

<資本論>을 執筆한 目的은 資本主義에 대한 一般的 態度를 確認하려고 当時 이미 形成되어지고 있던 主要見解들을 徹底히 分析하고, 資本主義라는 歴史発展 段階를 分析하며, 특히 資本主義가 왜, 언제 「프롤레타리아」革命에 依하여 전복될 것인가를 提示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資本論>은 물론 共産主義에 있어서는 대단히 重要한 著述이며, 역시 「마르크스」의 가장 광범위한 著作이다.

<資本論>은 共産主義者들에게 経済的分析에 관한 細密한 体系와 資本主義社会를 理解하는 方法을 提示해 주고 있으며, 共産主義国家의 一般経済政策을 뒷받침하는 理論을 提示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資本論>은 共産主義者들이 資本主義에 대하는 態度의 主要한 基礎이며, 資本主義社会를 批判할 때 原則으로 적용하는 理論的 基礎이며, 그들이 資本主義社会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原理로 기여하고 있다는 点이다.

그러면 <資本論>의 内容을 살펴보자.

<資本論>은 資本主義 経済制度의 機能을 科学的으로 分析했다고 自処하고 있다.

---

* Ewing P. Shahan : 「밴더빌트」大学 経済学教授
「콜럼비아」大学 Ph. D.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 研究所』所長

먼저 「마르크스」는 그의 先輩, 経済学者들의 著者들을 徹底히 研究한 깊이있고, 自信에 넘치는 経済学者라는 事実을 認定하여야 한다. 그는 事実上 独学을 한 훌륭한 経済学者였다. 그의 著作들은 現代 経済科学을 樹立하였고 最初로 自由主義 経済体制 理論을 確立한 「아담·스미스」(Adam Smith)로 부터 始作하여 「죤·스투어트·밀」(John Stuart Mill)에 이르는 英国 古典経済学派로 부터 많은 影響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資本論>은 전연 科学的인 著述이 못되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基本的인 見解는 그들이 <資本論>을 執筆하기 以前에 이미 밝혀진 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既定仮説이 客観的 바탕 위에서 現代科学的인 方法으로 試験해 보려고 試図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어쩌면 「마르크스」는 그의 <資本論>을 통하여 当代의 経済学을 反駁하려고 試図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事実 <資本論>은 어느모로 보나 資本主義 発達過程에 있어서는 何等의 影響을 미치지 못하였고 단지 資本主義를 풍자적으로 꼬집는 하나의 告発状에 지나지 않았다.

実際로 「마르크스」, 「엥겔스」의 다른 어느 著書에서 보다도 <資本論>에서는 共産主義를 特徵짓는 激烈한 非難과 激情的인 論調를 発見할 수 있다. <資本論>에서 使用된 어휘는 지금까지 使用된 어떠한 어휘보다도 가장 強烈하고 煽動的이며 저주에 가득차 있다. 特히 <資本論> 第1巻 第10章 "労動日"과 第15章 "機械와 現代産業"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資本論>은 全部 3巻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마르크스」의 生存時에 出版된 것은 1867年에 発刊된 第1巻 뿐이다.

「마르크스」는 <資本論>에 関한 많은 遺稿를 남겼는데 이는 훗날 「엥겔스」가 끈질긴 労力 끝에 두巻의 冊으로 出版하였던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의 열렬한 追從者이며, 独逸의 社会主義者인 「칼·카우츠키」(Karl Kautskey)가 이 2巻의 冊을 抜萃하여 英文版으로 出版하였는데 이를 <剰余価値論> (Theories of Surplus Value)이라고 한다.

<資本論>은 첫째, 資本의 蓄積, 資本의 支配에 関한 法則 및 資本의 社会的 流通過程과 그 結果에 関해서 研究한 것이다. 둘째는 商品의 流通에 関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를 商品이 交換을 目的으로 市場으로 流入되고 또 流出되는 巨大한 商品의 流通過程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商品이 市場으로 流入되고 또한 流出되는 過程을 商品의 流通이라고 불렀다.

「마르크스」가 商品이라고 하는 것은 人間이 必要로 하는 것이며, 正当한 代価나 最少限의 희생을 支払함으로써 求得할 수 있는 것으로서, 労動力에 依해서 生産된 財貨와 「서비스」를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商品의 流通, 即 市場에서의 全般的인 商品의 流通은 그가 C-M-C(商品-貨幣-商品)의 公式으로 表現하고 있는 個別的 流通으로 構成된다고 생각하였다.

資本主義 経済体制는 生産된 商品이 貨幣를 為하여 販売되고 그 貨幣는 다시 다른 商品을 購入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体制이다.

「마르크스」가 資本主義 経済体制를 説明함에 있어서 C-M-C라는 変形의 公式을 使用하였다는 事実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하나의 C-M-C의 流通은 항상 다른 두개의 C-M-C의 流通을 必要로 하고 있다. 即, 그 하나는 購買者를 위한 C-M-C이고 다른 하나는 販売者의 C-M-C이다.

「마르크스」는 첫번째 公式은 마치 물이 바다에서 陸地로 움직이는 것과 같고, 두번째의 公式은 물이 陸地에서 바다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서 説明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굳이 이러한 表現을 한 理由는 어디에 있을가? 우선 그러한 態度를 통해 비현실감을 주고 그것은 「마르크스」가 의도하는 目的의 일부이기도 하거니와 용어의 조작을 통해 社会가 성취시키기를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란 現実에 立脚한 것이 아니고 人間의 基本的인

必要에 따라서 주어진 制度라는 表現을 즐겨 使用함으로써 部分的으로는 그가 意図하고 있는 要点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생각하고 있던 制度는 非人格的인 制度로서 이미 商品은 알려진 需要에 依해서 生産되는 것도 아니며 市場을 相対로 生産되는 制度도 아닌 것이다.

더구나 生産者는 商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享有하는 者가 누리는 満足感은 갖지 못한다. 이러한 点에서 「마르크스」가 使用하고 있는 몇가지 用語에 留意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가 使用한 用語가 다른 사람보다 越等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만이 使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資本論 126「페이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이미 商品의 交換이 어떠한 方法으로 地域間에 또 個人間에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社会的 労動의 生産物의 流通을 発展시키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한편, 어떻게 해서 社会的 諸関係의 全体 組織網이 전혀 行為者의 統制가 미치지 않아도 成熟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資本主義란 것은 非人間的이고 間接的인 정교한 交換制度로서 그 制度에서의 分業은 우리가 실제로 기대했던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포되고 있음을 알았다.

「마르크스」도 分業의 専門化를 批判했으면서도 그렇다고 어떻게 높은 生活水準을 견지할 수 있는가의 問題에 대한 어떠한 解決策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두번째로 이러한 変質은 이 不変의 CMC 過程을 貫通해서 계속 存在하는 어떤 根本的인 그 무엇이 存在하고 있다는 생각을 낳게 했으니,

이것이 바로 나중에 論議코자 하는 商品의 価値인 것이다.

세째로 아마 이것이 가장 根本的인 要点일는지도 모른다. 「마르크스」自身은 그가 表現한 CMC 公式을 변경시킬 수 있고 그 진정한 特性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실제 우리들이 충분히 살펴본 바

와 같이 全体 貨幣란 것은 그 이외의 그 무엇이 거기에 作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商品流通(CMC)에는 貨幣가 包含되어 있으며, 人間社会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流通이 있기 때문에 労動을 한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했다. 즉 그들은 貨幣로써 交換되는 商品을 購入하기 위해 貨幣를 使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에게 貨幣의 流通이 資本이란 것을 말해 주며, 이것이 要点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포착하려고 애쓴 점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 社会란 것은 貨幣가 더 많은 貨幣를 획득하기 위해 流通되고 있는 社会이다. 그래도 貨幣는 여전히 貨幣이다. 万若에 둘째번의 M (貨幣)가 첫째번의 것보다 크지 않다면 이 流通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表現인 MCM을 「마르크스」가 여러분들에게 지적한 M의 증대로서, 즉 M보다 더큰 M′가 表示되는 MCM′로 읽을 수 있게 다시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MCM의 流通을 価値있게 하는 追加 貨幣이다. 勿論 결정적인 의문은 資本家들이 MCM의 流通作用에서 얻고 있는 이 M의 증대의 원천이 무엇인가이다. 이 回答은 資本家들이 떳떳하게 有用한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대단히 간단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상품이 지니고 있는 모든 価値가 이것들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더 많은 労力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을 살펴본 다음에 이 M의 원천 문제를 再検討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다음에는 두번째 주요 과제인 労動価値説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하자.

무엇이 商品에 価値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이 갖고 있

는 의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제이며 現代 経済学에 있어서도 가장 오래된 문제로서 아마 経済思想史上 単一 問題로서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많은 時間을 소비했던 問題이다. 「마르크스」는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이론전개를 使用価値와 交換価値의 区別에서 시작한다. 商品의 使用価値는 모든 財貨가 지니고 있는 物理的 特性의 帰結이며, 이 特性이 財貨를 人間에게 有用하게 해 준다. 例컨대 鉛筆을 들어보면 형태, 크기, 색갈, 무게, 쓰다 남는 토막, 쥐는 자세, 또는 어떤 特定한 면에서 연필을 有用하게 하는 다른 品質 問題들을 使用価値라고 할 때 交換価値란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即 交換価値란 것은 한 商品과 다른 商品과의 交換比率을 意味한다.

勿論 実際에 있어서는 交換価値를 表示하기 위해 貨幣를 使用한다. 모든 商品은 貨幣로 表示가 可能하다. 市場価格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交換価値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市場価格은 交換価値와 比較할 때 短期的인 性格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점을 CMC 과정에 있어서 가장 根本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交換価値를 결정하는 것인가? 이것이 基本的인 問題이다. 「마르크스」는 이번에도 그의 주장에 따라 이를 풀이 할려고 한다. 交換価値를 결정하는 것은 使用価値일 수도 있다. 例로서 물을 들어본다면 물은 極히 有用하고 必須不可欠한 것이지만 아주 값이 싸다. 한편 人間들이 욕심을 내어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는 아주 비싸기는 하지마는 인간에게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는 못하다. 결정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모든 특성들을 쉽게 다루어 볼때 모든 상품들의 사용가치와 交換価値간에는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런데 使用価値는 우리가 노리고 있는 要素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商品은 반드시 交換価値를 나타내는 어떤 共通点을 갖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이 공통점이란 무엇인가? 우선 어떠한 材料도 모든 商品에 共通的인 것은 찾아 볼 수 없으며 商品을 만드는 材料는 使用価値와는

關聯이 있어도 交換価値와는 關聯이 없다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共通点이란 商品이 지니고 있는 要素 즉 商品에 투여된 労動力이라고 結論을 내린다. 그것은 실제로 商品들이 共通으로 지니고 있는 유일한 要素란 것을 意味하며 이것이 労動価値説의 源泉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労動価値説에 대한 説明을 詳細히 検討하여 보자.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交換価値란 商品에 투하된 同種의 社会的 必要의 単純 労動時間의 量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同種』이란 労動의 量을 말하는 것이며 형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제화공이냐 제과공이냐 하는 것이 交換価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交換価値를 부여하는 것은 투하된 労力의 特性이 아니란 것이다.

『社会的 必要』란 労動時間에 주어진 費用이 아니고 商品에 주어진 労動의 価値를 말한다. 사실 「마르크스」는 商品에 부여한 労動時間은 一定한 技術的 条件에서 必要한 만큼의 정상적 労動量이어야 하며 技術과 熟練의 量이 適切한 均衡値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単純』이란 非熟練 労動을 意味하며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이 말을 쓸 때의 참 뜻이다.

「마르크스」는 숙련노동자는 비숙련 노동자의 몇배에 해당한다고 본다. 「마르크스」의 이 사고는 실제로 「러시아」에서 임금규모를 설정하는데 활용되었는데, 즉 숙련노동자의 임금은 비숙련 労動者의 몇배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마만한 労動時間이 투여되었느냐 하는 것이 問題이다.

우리가 흔히 「마르크스」의 労動価値説은 대단히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마르크스」는 어리석지 않았으며, 그는 정교하게 여러가지 입증을 했던 것이다.

첫째 그는 自然자원의 풍부성이란 要素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의 説明

에 의하면 자연 자원이 풍부할 境遇에는 자연자원이 적은 境遇보다 努力이 덜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通常 価値를 商品에 주는 것은 육체노동은 勿論이고 정신노동도 그러하다는 것을 「마르크스」도 인정하고 있음을 흔히 이해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이 더 많이 価値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마르크스」는 商品을 生産함에 있어서 資本은 별로 問題가 되지 않고 問題가 되는 것은 労動이란 것이다. 即 商品에 価値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認識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생각하기를 資本은 機械에 투여하는 労動力의 量으로서의 労動力을 作用케 한다는 것이다. 즉 機械自体가 그에 투여되는 労動力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機械의 価値란 것은 그에 투여되는 労動 時間의 量에 따라 決定되며, 이 労動 時間의 量이 機械에 의해 生産되는 商品에 価値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100弗짜리 機械와 100時間의 労動으로 生産된 商品은 그만한 価値가 있다는 것이다. 毎時間은 그 機械가 어떻게 作動하든간에 그에 해당한 価値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마지막 의문, 즉 本章에서 論議코자 하는 세째 主要 概念인 剰余価値論에 관해 検討해 보자. 労動이 商品에 모든 価値를 부여한다고 하면, 資本家들이 그 代価를 얻는 方法은 무엇인가? 「마르크스」의 剰余価値論은 이에 대한 説明이며, 資本家가 얻는 代価의 源泉에 관한 説明이 이 分析에서 가장 重要한 問題이다. 剰余価値論을 형성하고 있는 資本家가 얻는 代価의 源泉을 밝히는 이 問題의 接近方法에 있어서 「마르크스」는 첫째 수 많은 可能性을 깨트리고 있다. 첫째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原理를 가진 一般的 社会와 같은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原理는 어떤 一定한 環境에서 몇몇사람에게만 可能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財貨를 100불에 사서 110불에 팔고 있다. 이것은 一般 価格을 上昇시키는 要因分析은 되지만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剰余価値의 源泉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商人은 財貨를 50불에 사서

100불에 팔지마는 이것이 반드시 剩余価値는 아닌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商人이 심은 貨幣의 労動代価일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러한 形態의 分析에서 내린 「마르크스」의 結論은 資本主義社会에 있어서 모든 物件은 終局的으로 그 真正한 交換価値에 따라 팔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資本家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具体的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資本論> 2巻에는 同一한 MCM에 관한 보다 의미심장한 説明이 길게 나타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資本家가 商品을 購入하기 위해 貨幣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P로 상징되는 生産過程 (Production Process)을 通해 투여되는 M이며, 이 過程에서 그 自体가 貨幣量 보다 더큰, 즉 M′보다 더 큰 商品 C′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基本要点은 資本家가 真実로 購入하는 것은 労動力이란 것이다. 물론 우리는 資本家가 또한 原料 및 그의 사업計劃에 必要한 種類의 物件을 購入한다는 것을 認定하며, 이러한 것을 얼마나 많이 다루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論議하기로 하지만, 모든 資本家가 약간의 労動力을 산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모두 同意한다.

즉 「마르크스」가 지적한 점은 資本主義 社会에 있어서는 労動力이 市場에서 売買되는 商品으로써 購得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探究하고 있는 資本主義的 協力은 労動力을 사고 生産的 労動을 팔고 하는 것으로써 構成되고 있다. 다음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労動力의 代価로 資本家는 무엇을 支払하며 그가 판 生産的 労動의 代価로 무엇을 얻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의문, 즉 資本家가 労動力의 代価로 무엇을 支払하는가 하는 問題를 따져 보자. 資本家는 실제 그러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 制度에서 販売되고 있는 다른 모든 商品으로써 交換価値에 代身해서 支払한다는 것이다.

이 交換価値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労動이라는

商品을 生産하는 労動費用에 의해 결정되며, 그래서 労動力의 交換価値는 労動時間과 資本家代身에 계속 활동하고 作業을 지속할 수 있는 労動力을 生産해 내는 데 필요한 労力으로써 결정된다.

이 労動価値란 것은 住居의 保有와 労動者로서의 生存을 維持하고 한 階級으로서의 自身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労動費用의 問題이다. 그래서 우리는 労動力의 価値란 労動階級의 存続에 필요한 労動費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資本家에 의해 販売되는 生産品의 交換価値는 労動費用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은 生産에 投下된 労動量의 母体이다. 여기에서 剰余価値가 생긴다고 「마르크스」는 말했지만 現代的 産業条件下에서는 労動者는 自身의 存続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量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長期間에 걸친 分析 検討끝에 劇的으로 그러한 結論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의 結論이 真理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人間의 生存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量을 하루에 人間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模型에 따르면 하루의 労動時間은 6시간이란 것이다. 이 6시간만으로써도 人間은 病가에 대비해서 自身의 生存에 필요한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나머지 時間은 資本家를 위한 剰余価値를 産出하는데 소비한 時間이란 것이다. 그래서 어떤 資本主義 社会에 있어서도 労動者를 채찍질 하는 것은 資本家의 손에 떨어지는 剰余価値를 生産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경우와 같이 資本家들이 労動力을 살 때는 労動力이란 商品의 使用価値를 사는 것이며, 大部分의 資本家들이 剰余価値의 全部를 갖는 것은 아니다. 資本家는 利潤의 一部는

土地를 대여해 준 地主에게, 또 一部는 資本을 대여해 준 資本主에게, 나머지 一部는 特別書信, 職員, 顧問, 其他의 費用으로 支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剩余価値란 소위 利益金의 総計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資本主義란 것은 人間을 満足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資本의 集積을 위해 商品이 流通되고 있는 制度라고 「마르크스」가 말한 점을 우리는 검토했는데 이 점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해 보면 流通対象으로서의 商品이 갖는 모든 価値는 그것을 生産하는 労動力에 의해 創出되며, 이 労動力이 資本家에게 돌아 가는 剩余価値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었다.

7. 「마르크스」의 資本論(II) (「프로그람」 No.8)

* 「서　　한」博 士

여기에서는 「마르크스」의 <資本論>을 紹介하는 동시에 그의 基本的 理論概念 中의 세가지, 즉 商品流通論·労動価値論·剰余価値論을 說明하기로 한다.

주로 資本論의 第一巻을 中心으로 하되 그中에서도 特히 重要한 3~4個의 章을 重点的으로 検討하기로 한다.

먼저 資本主義 経済発展의 歷史的 過程에 対한 「마르크스」의 說明을検討해 보면 「마르크스」는 資本主義歷史를 說明하고 解釈하는 基本概念을 貨幣에서 찾고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資本主義의 歷史를 解釈하고 說明하는데 使用할수 있는 道具로서의 그 어떤 힘이 곧 貨幣라고 보고 이러한 分析의 道具를 利用하여 未来를 予測할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그 어떤 힘" 이란것은 資本主義者의 本質과 그들의 行動의 原動力을 理解함으로서 発見될수 있다고 믿었다. 資本家란것은 資本으로서의 貨幣를 流通시키는 者이며 M-C-M 公式의 表現에 따르면 둘째 M의 剰餘価値인 △M를 증대 또는 創出시켜 첫째의 M보다 增大시키는 者이다. 이제 「마르크스」의 이에 대한 態度와 그에 対한 몇가지 評価를 하기 위하여, 資本主義의 変形을 규명해보고 아울러 剰餘価値의 率과 量에 対한 分析概念도 検討해 보기로 하자.

本章에서는 「마르크스」의 6가지 理論 即, 첫째 資本가의 本質과 動機에対한 理解, 둘째 固定資本과 流動資本과의 区別, 세째 必要労動時間과 剰餘労動時

---

* Ewing P. Shahan : 「밴더빌트」大学 経済学教授
「콜럼비아」大学 Ph.D.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 研究所」所長

間의 区別 및 이에 따르는 剩餘価値의 比率, 끝으로 総体的인 剩餘価値와 絶対的 剩餘価値 및 相対的 剩餘価値間의 区別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그러면 먼저 資本家의 特徵과 原動力에 대하여 考察해 보기로 하자. 資本家란 「마르크스」의 見解로는 社会의 根本源泉인 것이다. 이 点에 있어서는 「마르크스」도 「아담·스미스」(Adam Smith)나 其他 고전경제학자들과 意見을 같이 하고있으나, 그 結果의 解釈에 있어서는 全혀 見解를 달리하고있다.

그러면 資本家란 무엇인가? 우리는 자본가란 반대給付로 利潤을 獲得하기 위하여 돈을 投資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르크스」도 역시 이 事実을 認定하고 있으나 그는 資本家의 真正한 정체에 대해서는 그 自身의 독특한 見解를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의 말에 의하면 資本家란 인간화한 資本이며 個性과 意志를 지닌 資本이다. 이러한 이상한 主張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마르크스」의 歷史의 経済的 解釈을 알수 있다. 歷史에 있어서의 資本主義段階는 技術的인 측면에서 본다면 資本이 生産의 主要道具가 되는 段階이다. 만일 우리들이 資本을 갖고있다면 우리들은 商品을 購入할수 있고 또한 労動을 提供할수 있는 사람들을 確保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러한 機能은 資本家에 의해 遂行되는 것이다. 個性과 意志를 가진 人間化된 資本은 人類歷史에 있어서 資本主義段階의 機能을 遂行할 것이다. 그러나 더우기 「마르크스」의 見解로는 資本家는 富를 더욱더 축적하려는 無限定의 慾望에 의해서 支配되며 이것이 資本家의 真正한 原動力이다. 「마르크스」는 資本家에 対한 理解에 있어서 現実과 떨어진 추상적 概念을 避하기 위하여 人間의 本性의 모든 複雑한 要素들을 이 단 하나의 支配的 衝動으로 縮少시키고 있다.

「마르크스」는 剩餘価値의 축적은 어느정도의 限界가 있는 商品의 消費에 의해서 획득조절되지는 않을것이라 말하고 오히려 資本은 자본축적의 目的을 위하여 무제한 축적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点에 対하여 「마르크스」自身의 説明을 分析해 보기로 하자. 우리

는 이 問題에 對한 「마르크스」의 表現은 그의 特有의 強力한 것임을볼 수 있다.

「모던 라이브러리」에서 出版된 <資本論>第一巻의 170「페이지」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M-C-M 순환공식의 主連続課程에 客観的 바탕을 두고있는 価値의 팽창은 하나의 主題名称이 되며, 理論的인 面에서, 専用(Appropriation)이 어느 때보다도 잘 되는限 그가 資本家로서의 機能을 하는 그의 作用의 動機가 되는 것이다. 즉, 그것이 바로 個性과 意志를 지닌 人間化된 그의 資本인 것이다. 그러므로 利用価値란 資本家의 真正한 目的으로 看做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利潤追求의 쉬지않고 끊임없는 과정이 곧 資本家가 目標로 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이러한 무한한 富의 創出, 즉 교환가치의 情熱的인 追求는 탐욕에 눈이 어두운 資本家들에게 共通的인 現状이다. 그러나 守銭奴는 탐욕에 눈이 어두운 광적 資本家임에 反하여 資本家는 좀 낳은 守銭奴이며, 守銭奴는 유통되고 있는 돈을 備蓄하는데 反하여 資本家는 流通過程에 継続的인 投資를 한다고 「마르크스」는 보았다.

그러나 競争価格制度에 立脚한 끝없는 営利追求는 資本主義社会의 主된 活力素임에는 틀림이 없다.

「마르크스」는 主張하기를 "資本家는 말을 하고있지만 補償을 받을 価値가 있는 일은 하지않는다"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資本家가 販売를目的으로 所有하고 있는 商品의 価値를 交換시키기 위해 그 自身의 努力으로 行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즉 모든 交換価値는 商品生産에 延長된 労動時間에 의해서 価値가 決定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見解에 의하면, 資本家는 그의 모든 時間을 그의 돈을 投資하는데에 消耗하며, 事業活動을 遂行한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마르크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資本家의 공헌을 認定하고있는 점이다. 이에関한 「마르크스」自身의 말을 引用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專問가를 갖게 되었으며, 어느 特定한 通商이나 紡織 또는 다른 種類에 適用된 一種의 労動 즉 하나의 生産手段을 選択하게 되었다. 다시말하면, 資本家는 生産手段에 있어서 적절한 様式으로 行하여지는 作業에 細心한 注意를 기울이고 있으며 専門知識을 活用한다. 그래서 모든 物質의 不必要한 浪費를 없애며 作業에 必要한 費用을 초과하여 遂行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의 어떠한 物質的 힘도 労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資本家에게 달려있다." 「마르크스」는 또한 労動者를 組織할 必要가 있고 訓練計劃을 確保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고있다. 이것은 모두우리가 認定하고있고 또한 明白히 補償을 받을 価値가 있는 企業家의 機能이나 그 사업활동을 지적하고있는 것 같다. 아마 「마르크스」는 資本家에 의해 遂行된다고 그가 意味하고있는 이런 必要機能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는 그의 풍자에 의해 主로 이 点을 제처놓고 있다. 한가지 例를들면 그는 工場 周囲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重要한 일들은 企業家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피고용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풍자적인 말의 例는 <資本論> 一巻의 212 ~ 215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資本家가 有用하든 안하든간에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 概念의 意味에 있어서의 労動力 소외와 착취에 対한 罪는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同時에 「마르크스」와 共他 共産主義者들은 「소외」가 現存하든 안하든 間에 社会의 이 管理나 企業機能을 우리들이 어떻게 除去시켰는가를 보여주었다. 管理人은 「러시아」에서도 存在하고 있으며 착취나 그 말의 通常的 意味에서의 継続的인 罪를 犯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일단 관리기능을 認定한다면, 管理人은 報償을 받을 資格이 있다는 見解는 「마르크스」의 労動価値説 하나만에서는 導出되지 않는다는 事実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도 商品이 가지는 모든 価値에는労動力이 附加되어 있다는 것은 認定한다. 또한 労動力 効能発揮의 適切性이 管理的, 行政的 機能에 依存함은 우리의 社会가 組織化 되어있는

그 事実 하나만으로도 認定되어야할 것이다. 真正한 問題는 疎外의 숨은 概念의 一部는 企業機能을 수행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제기하는 보수라는 것이며 「마르크스」나 其他 共産主義者들이 감각면에서 이 問題의 真正한検討를 위해서 기울였던 有用한 努力과 一致하느냐, 안하느냐의 問題인 것같다. 어떤 境遇에 있어서나 「마르크스」의 分析에 의하면, 축적을 갈망하는 情熱的인 資本家라는 것이 資本主義 社会의 源泉이다.

둘째問題는 축적을 支配하는 法則에 対한 「마르크스」의 見解는 어떤것이냐 하는 것이다. 不変資本이란 것은 資本家가 그 以外의 다른 사람의 工場에서 구입하는 財貨 例를들어 自身의 工場, 機械道具, 모든 原料, 附属品, 備品 等에 投資하는 資本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은 労動力이 商品의 生産에 이미 投下되어 버렸다는 意味에서 「죽은 労動」(dead labor)에 投下된 貨幣라고 말한다. 또한 資本의 다른 主要形態인 可変資本은資本家가 그 自身의 労動力을 고용하는데에 使用하는 資本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르크스」가 表現한 바에 따르면 「산 労動」(living labor)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区別은 우리들이 잘 알고있는 固定費用과 可変費用과의 区分과 同一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이 区分을 認定하고 이것을 労動量에 使用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区分이 아니다. 所謂 「마르크스」가 말하는 可変費用이란 것은 工場의 操業規模에 影響을 주는 費用, 즉 可変資本에 의해 구입되는 財貨들을 말하지마는, 우리들의区分에 의하면, 原料나 附属品같은 財貨를 可変費用이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의 通常的 用語로서는 모든 財貨가 可変費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不変資本과 可変資本이 資本의 全体를 構成한다고 前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대한 그의 전형적 等式을 볼 수가 있다.

$C = c + V$

C：全体資本

c：不変資本

V：可変資本

$C' = (c + V) + S$

S：剰余価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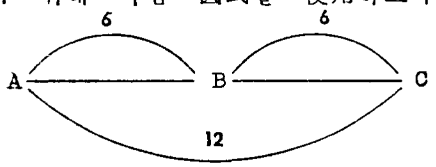
그리고 S가 剩餘価値이고 C' 는 이 과정의 終局에 가서 資本家가 가지게 되는 資本이면 C'=不変資本+可変資本+잉여가치(生産과정에 의해 資本家가 備蓄한 것)의 等式이 成立한다. 勿論 이 等式은 資本家가 모든 잉여가치를 投資目的으로 使用하고 그 自身의 消費目的을 為해서는 使用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不変資本과 可変資本의 区分이란 것은 잉여가치가 全的으로 可変資本에서 発生한다는 「마르크스」의 分析에 있어서는 重要한 原理이다. 그들에 의하면 剩餘가치는 商品으로서의 労動者를 雇傭한 데서 発生한다. 資本家는 労動者를 雇傭하고 最低生活 賃金을 支払하지만 労動이 生産한 商品의 全価値를 차지한다. 이 価値는 資本家가 賃金으로서 支払한 것보다 더 많은 部分을 차지한다. 그리고 資本家는 剩餘価値를 그 自身의 工場에 雇傭한 労動者를 위해서 남겨둔다. 어떤 資本家들은 다른 資本家들이 購入해간 物件을 生産하기 위한 労動者의 雇傭에서 생겨난 剩餘価値를 차지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다음의 重要한 公式은 RSV로 表現되는 剩余価値率에 対한 公式이다. 이 RSV는 「마르크스」가 종종 使用하듯이 착취율이라고 불리운다. 잉여가치율은 「마르크스」의 分析에 있어서의 可変資本에 対한 잉여가치와 같다. 「마르크스」의 말에 의하면, 착취율은 可変資本에 比한 잉여가치와 같으며, 万一 剩餘価値가 100「딸라」, 可変資本이 100「딸라」일 境遇 착취율은 100%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사람의 企業人은 그의 不変資本을 包含한 그의 全体 資本의 基礎 위에서 所謂 말하는 利潤率을 計算하게 될 것이다. 万一 不変資本 400「딸라」와 可変資本 100「딸라」를 使用한다면 그의 全体 資本은 500「딸라」이며, 通常 말하기를 그의 利潤率은 全体 資本에 比한 剩餘価値에 의해 주어지며 그것은 20%라고 한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例에서 진정한 착취의 정도는 100%라는 数値로 나타난다고 主張한다. 우리는 또한 必要 労動時間과 剩餘労動

時間과를 区分함으로써 剩餘価値率을 計算할 수 있다.

이것을 説明하기 위해 다음 図式을 使用하고자 한다.



이 図式에서 AC線은 全体 労動時間을 나타낸다. 즉, 말하자면 12 時間이다. B는 이 範囲를 均等하게 両分한 位置에 있다.

즉, 両便은 각기 6時間이다. 「마르크스」의 見解에 의하면, 처음의 6時間 동안에, 労動者는 그 自身의 最低生活을 為해 必要로 하는 것 만큼의 価値의 財貨를 生産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必要労動時間」이라 부른다. 그것은 한 사람의 労動者가 自身의 生活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労動時間이며 이 도표에서는 6時間이다. 처음의 6時間동안에 그가 生産한 것과 同等한 量을 生産한다고 생각되는 뒤의 6時間동안에 労動者는 資本者에게 돌아갈 剩餘価値를 生産하게 된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剩餘労動時間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剩餘価値率을 計算한다. 달리 表現하면 必要労動時間 6時間에 比한 剩餘労動時間 6時間은 100%로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달리 화폐에 의해 表現할 수 있다. 가령 처음의 6時間동안에 労動者가 100「딸라」의 価値에 該当하는 商品을 生産한다고 하면 뒤의 6時間동안에도 100「딸라」의 価値에 該当하는 商品을 또한 生産한다는 것이다. 労動者가 生産을 한 처음의 6時間은自身의 賃金을 支払한 화폐 即, 資本家의 가변자본이고, 100「딸라」를 생산한 뒤의 6時間은 資本家의 剩餘価値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착취율은 S
V 100「딸라」와 같으며 100「딸라」는 100%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SV = \$\,100 = 100\,\%$$

$$R\ SV = \frac{S}{V}$$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보는 図式과 같은 表現에 의해 달리 表現할 수

도 있다. 即 剩餘価値率 또는 착취율은 必要労動時間에 比한 剩餘労動時間과 同一한 $\frac{S}{V}$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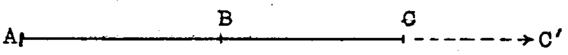
여기서 4가지 概念을 要約해 보고자 한다. 「마르크스」의 不変資本과 가변자본으로 区分되는 두가지 要素가 全体 資本을 形成한다. 가변자본은 労動者들의 賃金을 支払하는 데에 사용하는 資本이며, 不変資本은 다른 資本家들로 부터 財貨를 購入하는데 使用하는 資本인데 資本家들은 이 不変資本으로 부터 剩餘価値를 얻는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主張하기를, 모든 剩餘価値는 資本家의 가변자본의 投資로 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不変資本을 通한 剩餘価値의 発生에 対해서는 理解하지 못했다. 剩餘価値는 그 量의 比較로 規定된다. 가변자본의 投資量이 착취의 程度를 決定한다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이는 比較的 単純한 概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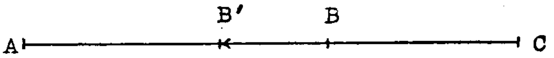
그러나 若干 複雑한 概念 한가지가 남아 있다. 이는 剩余価値의 양에 関한 概念인데 剩餘価値의 量은 剩餘価値의 総量을 말한다. 勿論 剩餘가치의 総量을 計算하기 為하여는 그 総量이 蓄積된 期間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마르크스」의 見解에 의하면, 資本家는 多少 不安定한 것이 事実이며 剩餘価値의 量과 率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絶対的 剩餘価値와 相対的 剩餘価値를 検討하기로 한다. 検討를 시작하기 위해 바로 앞에서 살펴 본 図式을 다시 살펴 보기로 하자. 記憶하다시피, 이 図式에서 AC는 우리들이 12時間이라 부르는 労動時間의 連結을 表示하는데 AB는 6時間의 必要労動時間이고 BC는 6時間의 剩餘労動時間이다. 資本家는 어떻게 剩餘価値를 増大시킬 수 있는가? 이 図式에 의하면 資本家는 BC線을 연장시킴으로서만 剩餘価値를 増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資本家는 C를 바른편이나 B를 왼편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의 発生을 表示해 주는 이 図式을 살펴 보자.



여기 AC線이 있으며, 資本家는 C를 C'의 方向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BC線의 길이를 延長시킬려고 努力한다. 이것이 絶対的 剰餘価値를 創出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即, (C − C')가 6時間에서 労動時間을 연장하는 量에 該当하며, 万一 資本家가 이것만큼 労動時間을 增大하여 2時間을 延長한다면 8時間의 剰餘労動時間을 갖게 된다. 資本家는 또한 여기 表示한 바와 같이 B로부터 B'로 움직임으로써도 剰餘価値를 增大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相対的剰餘価値의 創出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서는 資本家는 必要労動時間을 減少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것은 두가지 事実 中의 하나를 필수요건으로 한다. 즉 資本家는 賃金을 덜 支払하거나 生活水準을 縮小시켜서 労動者의 最低生活費를 낮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労動者로 하여금 그의 最低生活費를 벌기 위하여 짧은 時間 안에 더 많이 生産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르크스」는 最低生活費는 減小시킬 수는 있으나 決코 增大시킬 수는 없다고 假定하는 것이 特徵的이다. 그런데 実際的으로 相対的 剰餘가치를 創出하기 為하여서는資本家는 必然的으로投資를 增大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즉 더많은 機械와더 많은 技術者를 가져야 하며 操業活動의 增大와 一致시키기 為해 더 많은 재화를 구입함을 包含해서 여러 面에서 더 많은 可変資本을 使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르크스」의 歷史觀에 있어서의 要諦 中의 하나로서 資本家에 開放되어 있는 주반향은 相対的 剰餘価値의 增大이며, 資本家는 그의 不変資本을 增大시킴으로써만 이를 이룩할 수 있다.

이 概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다음의 歷史検討에서 使用할 수 있는 有用한 結論 몇가지를 導出해 낼 수가 있다. 資本家가 무엇보다도 関

心을 갖고 있는 剩餘価値의 量은 一部는 剩餘価値의 率에 의해 규제되기도 하고 一部는 資本家가 雇傭한 労動者의 数에 의해 규제되기도 한다. 이것은 勿論 資本家가 剩餘価値率에 影響을 주는 착취 정도를 增大시키는 것과 剩餘価値 発生의 源泉이 되는 労動者의 数를 增大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剩餘価値率을 增大시키기 為하여 資本家는 絶対的 剩餘価値를 增大시켜 주는 労動時間을 可能한 限 延長시키거나 相対的 剩餘価値를 創出해내는 労動者의 最低生活費를 될 수 있는 限度까지 縮小시켜야 한다.

끝으로 몇몇 관점에 따르면 축적될 수 있는 剩餘価値量의 最終限界는이러한 要素에 의하여 左右된다. 即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労動時間을 延長할 수 있는 絶対的 限界에 의해 決定된다. 둘째로는 生産性의 增大나 資本家가 労動者들에게 強要할 수 있는 채직의 強度에 의해 決定되기도 하고 労動者들이 당할 수 있는 最低生活費의 絶対的 저변한계에 의하여 決定된다. 끝으로 착취에 利用할 수 있는 전체사람 数에 対한 人口의 크기에 의하여 決定된다. 다음에는 이것들을 통한 「마르크스」의 歴史 解釈을糾明해 보기로 하자. 「마르크스」는 모든 社会의 大多数의 사람들이 착취나 疎外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貧困에 起因되는 것이라 한다. 歴史를 통해 본다면, 労動者들은 労動力의 結果인 음식물을 財産의 所有者에게 바쳐왔으며 또한 그 自身의 生産의 공제를 財産의 所有者가 行使하도록 포기해 버렸다는 意味에서 疎外되어 왔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体制라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게 되는, 착취가 最高絶頂에 達하는 歴史의 最後段階라 말하였다.

「마르크스」는 資本家는 집게의 쇠조각에 지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도하등의 寄与를 하지 못하나 歴史의 法則에는 寄与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의 見解에 의하면, 새로운 체제는 剩餘価値가 資本家에게 돌아

가지 않는 체제가 되며 아무도 그를 信用하지 않으며 그를 非難할 만한 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觀点에서 볼 때 資本의 形成에 의해서만 資本主義가 形成된다는 主張이 아니라는 것을 注意해야 한다. 이에 대한 共産主義者들의 態度의 硬度를 밝히려면 이 觀点을 理解 하지 않으면 안된다. 資本家에 대한 「마르크스」의 見解가 여하튼간에 共産主義者는 資本主義가 착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継続 剩餘価値는 資本家 편에 돌아간다고 主張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그러한 견해는 剩餘価値의 재분배만으로써는 満足될 수 없는 것이다. 歷史를 통해보면, 몇몇 사회주의政党들이 「마르크스」의 見解를 支持하여 왔으며 所得의 재분배에 의해 이를 実現하여 볼려고 했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는 어떤 戰略的目的을 위해 一時的으로 그들과 제휴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社会主義者를 反対하였다. 共産主義者들의 見解에 의하면 社会란 착취나 疎外의 事実에서 보는바와 같이 根本的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社会는 무제한하게 全般的 으로 改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章에서 이 概念을 資本主義 経済의 発展史에 関한 「마르크스」의 解釈에 利用하고자 한다.

8. 「마르크스」의 「資本論」 (Ⅲ) (「프로그람」 No. 9)

* 「서 한」 博 士

「마르크스」가 본 資本主義社会는 財産을 축적하려는 資本家의 보이지 않는 탐욕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그에 의하면무릇 資本家란 競争状態下에서 労動者들을 極度로 搾取하여 資本을 蓄積한다는 것이다. 万若 우리들도 資本主義를 이처럼 悪夢과 같은 것으로 理解하려고 든다면 마침내 「마르크스」처럼 그 終末을 予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처음 나타났던 初期에 있어서는 資本家가 되려면 最少限의 資本이 必要하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労動者 하나를 雇傭하는데 있어서도 可変資本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그가 可変資本에 対한 剰餘価値라고 부른 剰餘価値率에 対한 前章의 公式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万若 資本家가 한사람의 労動者를 雇傭할만한 資本을 축적할수 있고 剰餘価値를 搾取해 낼수 있다면 그는 그가 雇傭한 労動者와 함께 그가 축적한 剰餘価値로 그럴듯하게 生活을 해나갈 수 있다. 「마르크스」는 지적하기를 資本主義 初期에 있어서 資本家는 그의 搾取程度(労動者를 얼마만큼 부리는가)에 別 神経을 쓰지 않고 다만 労動者를 雇傭하고 부리며 資本家로서 生活을 하는데만 満足했을 뿐이 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이 初期 資本主義 時代를 批判하면서 歴史의 모든 새로운 段階는 언제나 그전 段階에 이루어진 法的制限을 받는다고 指摘했다. 그는 그 例로 中世의 「길드」規約을 들었다. 그것은 중세의 工人 한사람이 雇傭할 수 있는 技術者의 数를 制限하는 규약이었다. 「마르크스」

---

* Ewing P. Shahan : 「밴더빌트」大学 経済学教授
「콜럼비아」大学 Ph. D.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 研究所」所長

는 이것이 資本主義의 必然的인 成長을 制限하고 저해한다고 생각하였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은 技術条件이 새로운 生産手段을 구축할 必要를 造成함과 同時에 旧秩序는 무너지기 마련이며 中世의 境遇, 그러한 現状은 大規模的인 技術作業이 더 有利해지면서 技術的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한 붕괴가 일어나면 資本家들은 資本蓄積의 增大가 必要해지며 새로운技術을 有利하게 導入할 수 있도록 固定資本의 축적증대가 必要하게 된다는 것이다.

大量의 技術活動은 作業의 能率을 올릴 뿐더러 資本家로 하여금 労動者들로 부터 餘分의 剩餘価値를 生産케 할 수 있다는 事実에 着眼하도록만든다. 그에 그치지 않고 資本家는 可能한 限 作業時間을 延長하도록 努力하게 되어 絶対剩餘価値를 높이고 새로운 形態의 技術의 要請에 応할수 있도록 資本을 축적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工業革命이 発展할수록 길어지는 듯한 作業時間의 延長을 그런式으로 理解했었다. 労動者 多数가作業에 参加하게 되면 階級闘争이 격화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資本家가 큰 工場에서 労動者들에 対하여 行使하지 않을 수 없는 資本家의 支配力을 생각한다. 「마르크스」가 理解하는 바에 의하면 이 支配力은 어느 個人을 위해 有用한 価値를 生産하는데 쓰이지는 않으며 富의 축적을 위해 最大限의 剩餘価値를 빼내기 위해 動員된다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支配力을 労動의 搾取度를 높이는 専制的 権力의 内意的인 要素로 보았다.

다음 歴史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分業의 拡大다. 産業分野에서 近代的인 전문화의 原則은 巨大한 工場을 必要로 했으며 그것은 近代工場의 母胎가 되었다. 여기서도 資本家는 이 새로운 技術的인 発展에 対하여 支払할 資金을 蓄積해야만 했으며 競争에 몰린 그는 労動의 搾取度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크스」는 이 巨大한 工場에서 労動者는 単純한 工場의 附属品에 지나지 않는 存在가 된다고 指摘하곤했다. 「마르크스」自身의 사뭇 強硬한 語調로 된 説明(「모던 라이브러리」版 第1巻

396 「페이지」)을 引用하면 "個個의 農夫나 手工業 技術者들의 知識이나 判斷 또는 意志는 極少한 정도만이 作用하며, 이것은 마치 原始人들이 各者 個人의 熟練技術만에 의하여 전작업과정을 一貫하여 모든 것을 만들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 機能은 全般的으로 이제 工場에서만 必要한 것이다. 지능과 生産은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有利하기 때문에 한가지 方向으로만 拡張한다. 労動者가 잃은 것은 그를 雇傭하는 資本에 集中하게 된다. 労動의 分業때문에 労動者는 生産 過程에서 物質主義의 지적인 能力과 実際 接触하게된다. 「마르크스」가 여기서 말하고자한 것은 工場 労動者는 自己 自身의 労動力을 行使할 自由를 完全히 喪失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努力을 工場機械 自体에 바치며 資本家에게 바친다. 資本家는 이제 그에게 더 큰 疎外를 가져오고 搾取를 가져다 주는 낯선 勢力이다. 「마르크스」는 이 近代産業의 構造이기도 한 専門化라는 要素에 反対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가 그것을 反対하든 안하든 간에 近代的 技術条件에서의 이 問題에 対한 解決策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의 批判의 骨子는 다음의 짧은 글속에 잘 表現되어 있다. "資本主義는 労動의 生産性을 労動者보다는 資本家의 利潤을 위해 増大시키며, 그것은 個個 労動者들의 犠牲에서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이것이 生産過程에서 그가 誘導해낸 見解인 것이다.

「마르크스」의 見解와 比較해서 19世紀에 対해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 時期는 기계의 発達이 그 가장 主要한 発展 事項이다.

「마르크스」는 機械의 導入과 함께 資本主義의 成長은 急速度로 빨라지고 搾取는 極에 達했으며 機械化는 資本主義를 強化시켰다고 본다. 그러한 엄청난 結果를 가져오기 위해서 機械가 한일은 무엇일까?

첫째 機械는 労動力과 熟練工에서 짜내던 「에너지」를 減少시켰다. 그리하여 어린이들과 婦女子를 雇傭할 수 있게 만들었다. 児童과 婦女子는 熟練工보다 훨씬 싼 労賃으로 부릴수 있고 그들의 扶養負担이 적기때문에 成人男子보다 적은 補償金을 支払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들과의 契約은

이미 收入이 있는 男便이나 아버지가 代身하기 때문에 보상은 거의 問題도 되지 않았다. 児童과 婦女子를 雇傭한 機械化 生産은 相対的 剰餘価値를늘여주었고 그것은 자본 蓄積에 寄与하는 結果가 되었다. 적어도 「마르크스」는 19 世紀의 女性 및 未成年労動者의 雇傭実態를 그렇게 보았다.

둘째, 機械를 操作하는 生産과정은 機械를 쓰지않을 때보다 적은 努力이 들기때문에 作業時間을 延長할수 있게 한다. 바꿔말하면 絶対剰餘価値를增加하기 위해서 時間을 節約하는 움직임을 낳게한다. 一般的으로 말해서労動時間을 最大限으로 延長하고 労賃은 떨어뜨리고 機械는 또다른 生産工場의 機械化를 促進하기 때문에 労動者의 労賃契約条件은 그만큼 弱化 되고 資本家의 자비심에 기대는 도리밖에 없어지며 機械化로 搾取는 絶頂에 達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제부터 매우 독특한 「마르크스」의 見解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이 段階에 資本主義者는 어떻게 지낼것인가고 묻는다. 글쎄 그렇게 幸福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対答이다.

資本家들은 技術開発을 継続하기 為해 資本을 蓄積할 慾望과 必要性으로 머리가 무겁다. 또 한편으로는 그 自身의 生活水準을 높이는 自体消費를 為해서 쌓아 놓은 剰餘価値의 一部를 쓰고 싶어질 것이다. 「마르크스」는 통열한 익살을 섞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의 그런 「디렘마」를 다음과 같은 事実을 지적해 줌으로써 도울 수 있다. 剰餘労動 이나 그가 차지한 剰餘価値라는 것이 그가 그처럼 많은 노력을 했거나 먹을것을 안먹고 節約했기 때문에 생긴것은 아니며 労動의 搾取에서 생겼다는것이다. 그가 搾取를 拡大할 수 있는 한 그는 자본을 축적할 수도 있고 自身의 生活水準을 높이는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다. 양손에 떡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分析이 19世紀에 이뤄졌으며 그 時代에 存在했던 産業条件과 歴史的인 状況에 어떤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를 理解해야 한다. 「마르크스」가 完全히 틀린소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19世紀의 이러한 「마르크스」의 解釈이 当時 状況

을 어느 程度 成功的으로 説明했다고 본 사람도 적지않았다. 그것은 資本主義의 機械 導入과정에 대한 그의 考察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 우리는 本章의 마지막 課題인 未来의諸問題에 눈을 돌려보자. 「마르크스」는 未来問題의 分析에서 主로 分析的인 概念에서 추론하는 연역적인 方法을 쓰고 있다. 우리는 未来에 関한 그의 予言이 일괄처리하는 듯한 性格을 지닌것을 생각할 때 그처럼 작은 分析에서 그처럼 많은 事実을 処理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未来로 発展해 나가는데 있어 다섯가지 発展法則이 있다고 認識하고 있다. 다섯가지로 分類한 것은 그가 著書에서쓴 分類法은 아니고 다만 説明의 便宜上 提示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発展시킨 資本主義 体制에 関한 5大発展法則은 다음과 같다.

① 利潤減少의 法則, ② 資本集中의 原則, ③ 産業危機의 増大, ④ 産業予備軍의 増加, ⑤ 貧益貧의 原則으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労動力의 増大하는 비참」이라고 표현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러한 사태가 資本主義의 진전과 함께 未来에 必然的으로 일어나고 만다는 이야기다.

첫째, 利潤減少의 法則을 살펴보자.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発展함에 따라 利潤은 減少한다고 본다. 왜 그렇게 될까? 労動時間이 最大限으로 길어지고 노동자의 最終的인 努力까지 긁어내면 자본가가 할일은 그의 相対的인 剰餘価値를 늘리는 것 밖에는 없다. 剰餘価値를 늘린다는 것은 資本家에게 그의 固定資本을 늘릴 것을 要求한다. 労動者의 能率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固定資本의 増加는 全体資本의 크기에 比例하게 된다. 그런데 모든 剰餘価値는 可変資本에서 생산되므로 資本主義歴史가 発展 할수록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可変資本은 적어지고 全体資本의 極히 작은 一部가 됨으로써 事業家들은 당황하게 되고 나아가可変자본에서 発生한다는 収益率 즉 利潤은 低下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資本家는 増加하는 固定資本으로 말미암아 利潤이 低下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을 것이며 搾取를 좀더 甚하게 함으로써 이 利潤減少傾向을 抑制하는데 全力을 다하게 된다.

未来에 関한 第2의 原則은 「마르크스」가 指摘한대로 대자본의 集中이다. 近代産業이 発展함에 따라 資本은 勿論 매우 빠른 速度로 불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이것은 보다 많은 資本家들이 보다 많은 資本을 축적하는 形態가 되지만 머지않아 그것은 小数人에게 대자본이 集中하는 現状을 助長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의 集中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資本家가 剰餘価値를 増産한다는 모든 資本家에게 共通된 念願을 実現하는데는 다른 企業体를 接受하거나 破産시키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된다. 이것은 資本家에 의한 資本家의 搾取를 意味한다. 雇傭人 数를 늘이는 것과 技術条件의 変化로大型工場을 必要로하게 되는 境遇 資本의 集中은 必然的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財政機構와 投資, 金融機構의 発達은 産業分野의 独占傾向을 促進하게 되고 資本의 集中을 惹起한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発達하면 할 수록 資本家 数는 줄어드는 한편 大型化한다고 내다보았다.

세째, 그는 資本主義가 부단히 増大하는 産業危機에 露出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디프레이션」의 주기가 잦아지고 漸次 悪化一路를 걷게 된다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資本主義가 점점 더 甚한 「디프레」에 直面한다는 것은 現在에도 共産主義者들의 「도그마」가 되고 있다. 「마르크스」는 19世紀에 이미 「디프레이션」의 問題를 認識한 드문 経済思想家中의 한사람이었으며, 그것을 分析的으로 説明해보려고 했다. 「디프레이션」에 対한 「마르크스」의 説明은 한군데만이 아니라 그의 著書의 많은 곳에 드러나고 있다. 나는 여기서 그중 重要한 두가지만을 説明하겠다.. 첫째는 消費理論이라고 부를만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으로 「디프레이션」을 여러차례에 걸쳐 説明했다.

資本家는 労動者를 雇傭하고 그는 거기서 剰餘価値를 生産하기 때문에 賃

金을 労動者에게 支払하지만 그 賃金은 労動이 生産하는 価値의 折半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와 同時에 労動은 그 自体가 資本家가 生産에 利用하는 市場性을 갖게 된다. 万若 資本家가 그가 팔수 있는 価値의 些少한 一部만으로 労動에 対한 代価를 支払할 수 있고 労動力이 싸다면 労動市場의 労動力을 모두 살 購買力이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마르크스」는 그런 結果로서 주기的인 불만이 터지게 될 것이며 이는 漸次 더욱 甚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勿論 이러한 사고속에는 投資라는 事実이 完全히 無視되고 있다. 그러나 아뭏든 이것은 19世紀의 「비지니스 사이클」을 説明하는데 쓰인 典型的인 理論이다. 더 重要하고 基本的인 것은 資本主義 内部에 矛盾이 있다는 「마르크스」의 생각이다. 資本主義下에서 生産되는 商品은 実用価値보다는 資本蓄積의 手段으로 生産된다는 것이 그의 見解다. 商品生産의 動機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生産과 消費가 주기적으로 맞아가지 않는것은 不可避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資本主義自体가 지닌 矛盾이며 그 矛盾이 극복되지않는 한 「디프레이션」은 継続되고 悪化되리라고 「마르크스」는 내다보았다.

네째번 「마르크스」의 予言으로 産業予備軍이 継続해서 늘어난다는 主張을 들 수 있다. 「마르크스」의 관점을 답습한 오늘날의 共産主義者들亦是 資本主義는 보다 많은 실업자를 生産하고 있다고 強調한다. 特別한 必要를 充足시킬 때 予備労動力은 必要해진다. 그 理由는 몇가지가 있다 하나는 새로운 計劃事業이 継続 생긴다는 점이다. 19世紀의 鉄道網의 建設같은 일터를 그는 말했다. 鉄道를 建設하는 事業은 방대한 規模의 労動力을 必要로 하게 된다. 잠정적인 수요로 불어난 労動力은 鉄道工事가 끝나면, 遊休労動力이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번창기에는 労動力에 対한 需要가 높아지지만 경기가 後退하면 労動力에 対한 需要도 떨어진다. 結果的으로 우리는 어떤 時期에는 다른때 보다 더 많은 労動者를 必要로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마르크스」는 労動市場의 盛需에 맞춰 增加한 인력은 成熟期 以外에는 남아 돌아가게 되고 산업예비군은 늘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

다. 그에 덧붙여 그는 不変資本의 持続的인 増加, 機械의 継続的인 利用으로 실업인구는 必然的으로 불어나리라고 보았다. 그는 機械의 使用을 두려워했으며 継続 늘어나는 이른바 산업예비군은 資本主義의 発達과 表裏의 関係에 있다고 생각했다.

끝으로 우리는 「마르크스」가 使用한 第5의 原則 곧 貧益貧의 原則을 論하기로 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労動力의 増大하는 비참화 原則이라고도 부른다. 이 다섯번째이며 資本主義의 마지막 原則은 그밖의 모든 原理原則을 한데 묶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마르크스」自身이 이 問題에 対해 한 말을 直接 引用하기로 하겠다. 그의 資本論(「모던 라이브러리」版)第1巻 707「페이지」를 보면 이런 句節이있다. '社会의 富가 크면 클수록, 機能을 다하고 있는 資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経済成長의 規模와 「에너지」는 勿論 「프롤레타리아」의 絶対数와 그 労動의 生産性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업예비군은 増大하기 마련이다. 資本家의 비싼 힘을 発展시키는 바로 그것이 資本家가 부리는労動力 또한 発展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生産規模가 拡大됨에 따라 資本은 蓄積되어가고, 労動力은 이 새로운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해서 한층 많은 労動力을 부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目標를 超過하게 되고 資本主義가 発達할 수록 더많은 剰餘労動力을 낳게된다. 그래서 그는 산업예비군은 富의 잠재적인 「에너지」에 比例해서 늘어난다고 말했다. 現役労動力에 比해 産業予備軍이 많으면 많을수록 労動의 고통에 反比例해서 増大한 비참한 生活에 허덕이는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 剰餘人力도 大集団化하게 된다는 것이다. 労動者 階級과 산업예비군의 最終的인 層이 두꺼워지면 질수록 公式的인 極貧者의 数는 늘어나기 마련이며 이것이 資本蓄積에 随伴되는 絶対的인 一般原則이라는 것이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労動力의 부단한 貧益貧현상은 資本蓄積의 必然的인 一般法則이라는 것이다. 資本主義가 発達함에 따라서 労動者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漸次 더 비참해지며 그 가난은 悪化를 거듭한다는 主

張이다. 資本家는 利潤이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또 労動力의 機械에 의한 대체는 被雇傭者의 雇傭主와 흥정을 벌일수 있는 立場을 弱化시켜놓기 때문에,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그들은 더 貧困化 할 것이며 資本家는 資本家 나름으로 搾取를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는 모든方法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생각한 바로는 가난한 사람은 큰 労動集団보다 더 가난해지고 말것이기 때문에 事態는 더 悪化하리라는 것이다. 이 모든 原則을 한데 모아보면 우리가 하나의 図式으로 그려서 説明하려고 했던 歴史에 対한 윤곽을 理解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発達史의 初創期를 包含하여 過去의 모든 歴史는 疎外条件을 낳았으며 絶対多数의 대중에 対한 搾取를 보여줬고 그와함께 階級闘争을誘発시켰다는 것이다. 歴史가 発展하면서 이러한 疎外나 搾取는 우리가 본바와같이 점점 甚해지고 資本主義 末期에 이르러 그 극에 達한다는 主張이다.

지금까지 提示한 「마르크스」의 見解에 따르면 資本主義는 마침내 몇개의 큰 資本家밖에 남아나지 않는 段階까지 到達하게 되고 資本主義는 資本蓄積이 唯一한 目的이기 때문에 資本家의 数가 줄어도 継続 利潤을 追求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에 反하여 점점 더 生活形便이 悪化된 실업대중의 원한이 고개를 들게되고 事態는 매우 不運해지지 않을 수 없어진 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革命論이다. 이로써 資本主義는 終末을 告하고,모든 人間悪이 除去되며 貧困은 永遠히 없어져 革命도 疎外도 없는 새로운 未来가 始作한다는 것이다. 資本主義를 滅亡케하는 바로 이 革命은 資本主義 社会가 오직 資本家와 「프롤레타리아」의 두 階級만을 許容했기 때문에 그처럼 극렬하고 파괴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참밖에 참고 견딜것이 없는 「프롤레타리아」가 궐기하여 權力을 掌握하면 그들에게는 所有權意識이 없기 때문에 階級

이 없는 社会, 即 歷史의 새로운 章이 열린다는 主張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마르크스」의 이러한 予言은 지금까지로는 맞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分析으로 共産主義가 어떻게 그들 理論의 正当性을 主張할 수 있을지 매우 理解하기 어렵다. 우리는 19世紀末부터 이미 「마르크스」의 労動運動에 対한 影響力은 減退되기 始作했다는 事実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그의 予言이 거짓이었다는데 그 原因의 一部가 있었다. 그와 同時에 「레닌」이 共産主義의 立場을 그의 <帝国主義論>에서 正当化했다는 点이다. 「帝国主義」는 資本主義의 最後의 段階 라는 主張이다. 「레닌」의 著書에서의 分析은 「마르크스」가 予言한대로 労動者가 継続 비참해지지 않은 理由를 共産主義者들로 하여금 説明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共産主義의 全体運動에 寄与했다. 따라서 우리가 共産主義의 全部를 理解하려면 「마르크스」의 <資本論>에 「레닌」의 <帝国主義論>을 添加시킬 必要가 있는 것이다.

〈参　考　文　献〉

1. Facts on Communism, vol. I: The Communist Ideology
Gerhart Niemeyer. U. S. Congress, House, 86th Cong., 1st sess.,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2. The Dogmatic Principles of Soviet Philosophy (as of 1958)
Joseph M. Bochenski, ed. Dordrecht, Holland: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63.

3.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An Introduction, 5th ed.
Robert N. Carew Hunt. New York: Macmillan, 1963

4. Dialectical Materialism: A Historical and Systematic Survey of Philosophy in the Soviet Union
Gustav A. Wetter, S. J. New York: Praeger, 1958

5. Marxism and Communism: Essential Readings
Robert V. Daniels, ed. New York: Random House, 1964.

6. The Philosophy of Communism
Charles J. McFadden, O.S.A. New York: Benziger, 1963

7. From Karl Marx to Mao Tse-tung: A Systematic Survey of Marxism-Leninism
Henri Chambre, S. J. New York: Kenedy, 1963.

8. Marx and the Marxists: The Ambiguous Legacy
Sidney Hook. Princeton: Van Nostrand, 1955

9. What We Must Know About Communism
Harry and Bonaro Overstreet. New York: Norton, 1958

10. Marxism: The Unity of Theory and Practice
Alfred G. Meyer. Cambridge: Harvard, 1954

11. The Meaning of Marxism
G. D. H. Cole. London: Gollancz, 1948

12. The Ethical Foundations of Marxism
Eugene Kamenka. New York: Praeger, 1962.

13. MESW: Marx-Engels Selected Works,
Institute of Marxism-Leninism, ed.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5

14. MEBW: Marx and Engels: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Lewis S. Feuer, ed. New York: Doubleday, 1959

15. KMOW: Karl Marx, Capital, The Communist Manifesto, and Other Writings
Max Eastman, ed. New York: Random House (Modern Library), 1932

16. Karl Marx: His Life and Environment, 2nd ed.
Isaiah Berlin. New York: Oxford, 1948

17. The Three Sources and Three Component Parts of Marxism
Vladimir I. Lenin.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8. Karl Marx (1877)
Frederick Engels.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 Marx-Engels-Marxism: A Collection of Articles, 2d ed.
Vladimir I. Lenin.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1.

20. From Hegel to Marx: Studies in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Karl Marx
Sidney Hook. New York: Reynal and Hitchcock, 1936

21. Socialist Thought: A Documentary History
Albert Fried and Ronald Sanders, eds. Garden City: Doubleday, 1964

22.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5 vols.
G. D. H. Cole. New York: St. Martin's 1953-60.

23. Toward the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 (1844)

24.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Karl Marx.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1

25. The German Ideology (1846)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47

26.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1877),
Frederick Engles.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27.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1847)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28. Address of the Central Committee to the Communist League (1850)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29. The Civil War in France (1870-71)
Karl Marx.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30.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Karl Marx. Vol. I--The Process of Capitalist Production (1867). New York: Random House Vol. II--The Process of Circulation of Capital (1885). Chicago: Kerr, 1907. Vol. III--The Process of Capitalist Production as a Whole (1894). Chicago: Kerr, 1909.

31. Karl Marx, Capital, The Communist Manifesto, and Other Writings (KMOW)
Marx Eastman, ed. New York: Random House, 1932.

32. Marx on Economics
Robert Freedman, ed. New York: Harcourt, Brace, 1961

33. "Wages, Price and Profit"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34. "Wage Labour and Capital"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35. Theories of Surplus Value
Selection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52

36. Engel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class in England
Marx-Engels On Britain.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3

37. Karl Marx's Capital: An Introductory Essay, 2d ed.
A. D. Lindsay. London: Oxford, 1947

38. An Essay on Marxian Economics
Joan Robinson. London: Macmillian, 1947

39. The Economic Doctrines of Karl Marx
Karl Kautsky. London: Black, 1925.

40. Marx as an Economist--An Essay
Maurice Dobb.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45

第二節「레닌」主義

1.「마르크스」로부터「레닌」까지 (「프로그람」No. 10)

*「드라코비치」博 士

本章에서는 「유럽」의 두 重要国家인 独逸과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의 教義가 直面한 運命에 대하여 根本的이고도 歴史的인 差異를 強調해 보기로 한다. 이 現状을 簡単하면서도 有益하게 分析하기 위해서 다음의 3가지 問題를 集中的으로 検討하겠다. ① 19世紀末의 独逸에서의 「마르크스」社会主義의 発展과 当時 強力한 社会主義政党을 갖고있던 独逸에서의 「마르크스」社会主義의 主張 및 当時의 国際社会主義의 運動에서 認定받은 指導者, ② 같은 時期의 「러시아」에서의 「마르크스」社会主義의 대두, ③ 「레닌」이 自己를 「마르크스」主義의 가장 充実한 正統派라고 자처하면서 実際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主張하고 부연한 社会主義의 実際的인 意味를 修正한 方法 등이 本章의 重要内容이 되겠다.

「레닌」은 自身의 初創期 理念宣言에서 「마르크스」主義의 몇가지 基本教理를 至極히 抽象的으로 받아 들였다. 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思想을 자기 為主로 解釈하기 始作했는데 그 内容은 自身의 두 先生도 알아 볼 수 없을 程度로 修正됐다.

独逸과 「러시아」에서의 「마르크스」教理와 「마르크스」主義의 運動間에 存在하는 이 基本的인 差異를 理解하지 못한다면 共産主義의 後期 歴史全体를 理解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우선 첫째 問題, 즉 19世紀末 帝国主義 独逸에서의 社会主義의 発展課程을 検討해보기로 하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바와 같이 「칼·마르크스」는 1883年에 死亡하였고 그의 死後 6年이 지난 1889年에 이른바 第2次 社会主義 「인터내쇼날」」이 「프랑스」의 「파리」会談에서 創設되었다. 이 社会主義 「인터내쇼날」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창한

* Milorad Drachkovitch : 「스텐포드」大学『「후버」研究所』研究委員
「유고」胎生,「스위스」「제네바」大学 Ph.D
「하바드」大学『「러시아」研究所』研究委員歴任

一連의 革命思想을 그 理念과 政綱으로 採択한 各国의 社会主義政党의 聯合体였다. 各国 社会主義政党가운데 가장 認定받고 잘 組織됐던 것은 独逸社会主義政党이였고, 「마르크스」의 教義에 充実했던 「유럽」의 其他 모든 革命政党들도 조만간 独逸社会主義政党의 領導権을 認定하게 됐으며 独逸社会主義運動의 組織上의 優秀性을 讃揚하게 되었다.

生涯의 오랜時節을 英国에서 亡命生活로 보낸 「마르크스」와 「엥겔스」自身들도 그들의 祖国인 独逸에서 強力한 労動階級이 대두하고 있는 것을 큰 希望과 自身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事実 当初 非「마르크스」理念으로부터 始作한 独逸의 社会主義運動은 그후 가속적으로 「마르크스」思想을 採択했고 1880年代에 이르러 「마르크스」主義는 独逸社会主義運動의 理念으로 공인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国外 멀리서 独逸의 社会主義 運動이 強化되고 있는 것을 希望을 갖고 지켜보게된 理由는 몇가지가 있었다.

「마르크스」는 1870年 7月20日 그러니까 「프랑스」와 「프러시아」의 戦争이 勃発한지 14日後에 「엥겔스」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만일 「프러시아」가 이기게 되면 国家権力의 中央集中으로 労動者階級의 集中化가 維持될 것이다. 그러므로 独逸의 優勢는 結局 西「유럽」의 労動者運動의 「센터」를 「프랑스」에서부터 独逸로 移動시킬 것이다. 나는 独逸의 労動者階級이 理論的으로나 組織面에 있어 「프랑스」보다 優勢하다는 것을 알기위해서는 다만 独逸과 「프랑스」両国에서 있었던 1886年의 運動을 比較하면 된다고 본다. 国際舞台에서 独逸이 「프랑스」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理論이 「프랑스」의 「프르드숑」의 理論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뜻한다.……………………………" 「프르드숑」은 「마르크스」도 후에 言及하기도 했으나 「프랑스」의 影響力 있는 社会主義 作家이며 이른바 社会主義의 無政府学派의 始祖로 「마르크스」思想의 強力한 敵으로 알려진 人物이다.

「마르크스」의 所望은 「보·불戦争」의 結果에 의해서 文字 그대로 実現됐다. 「프러시아」의 勝利로 이루어진 独逸民族의 統一은 実質的으로 独逸의 急速한 経済発展을 促求했고 그 副産物로 都市

集中化가 独逸労動者階級의 労組機関의 成長을 可能하게 했다. 特히 労組機関의 成長은 強力한 独逸 社会主義運動이 가속적으로 強化되는 根源이 됐고 社会主義運動의 理論家 및 一線 指導者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理念指導에 따랐다.

当時의 独逸帝国主義体制, 特히 鉄血宰相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Bismark)가 独逸社会主義運動을 적대시 했고 1878年 부터 1890年까지 12年동안 이 社会主義運動의 成長을 막기 위한 法的制裁를 가했다는 것은 事実이다. 하지만 이 措置등은 成功하지 못했고 官權의 弾圧에도 不拘하고 社会主義政党은 継続 그 勢力을 拡張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특히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1883年에 死亡한 後 그의 見解와 予言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이는 이 光景을 至極히 満足스럽게 지켜볼 수 있었다.

独逸은 사실 工業的으로 急速히 発展하는 国家가 되어 「프랑스」를 凌駕하는 한편, 英国에 挑戰했고, 그 資本主義構造의 集中化는 独逸 「프롤레타리아」의 集中化와 비견 할만 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다이나믹」하고 社会的으로 수없이 分裂된 独逸帝国의 「프롤레타리아」로부터 期待한 것은 二重過程 即 知的인 成熟과 政治的인 組織化 및 行動이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은 資本主義가 그 잠재능력이 完全히 開発되고 또 無産者들이 数的으로 가장 많은 階級이 된 가장 発達된 工業社会에서 生産力이 最大限 発展된 소산으로서 나타난다는 뜻이다. 「엥겔스」는 1895年 그가 死亡한 해에 쓴 마지막 글의 하나인 「마르크스」著書의 서문에서 「프랑스」의 階級闘争을 개탄하고, 이 階級闘争으로 独逸社会主義의 勝利가 굳혀졌다고 하였다.

「엥겔스」는 첫째로 자기와 「마르크스」가 1848年 「프롤레타리아」革命은 後進社会에서 成就할 수 있으며 그것도 単純히 소수파의 革命的인 行動으로서 成就될 수 있다고 予言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 点을 다음과 같이 明白히 했다. 목적의식이 없는 大衆의 先頭에서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소수집단이 전개하는 전격적인 革命의 時期는 지났다. 即

階級闘争의 勝利는 방책구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무산자들의 손에 있는 새로운 武器, 即 普通選挙権의 行事로서 이루어 진다는 뜻이다. 「엥겔스」의 눈에는 独逸社会主義政党은 전「유럽」의 社会主義政党 가운데 가장 強力하고 規律이 厳格하며 가장 急速하게 増強된 政党으로 비쳤다. 그래서 「엥겔스」는 独逸社会主義政党을 가장 広範하고 탄탄한 組織体인 同時에 国際「프롤레타리아」 軍隊의 決定的인 勢力이라고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自信있게 予言했다. "19世紀 末까지 우리는 独逸에서 社会中産層의 大多数 即 小市民과 小農들을 정복하여 大陸에서 막강한 힘의 団体로 成長하게 될 것이고, 이 힘 앞에 다른 모든 権力団体들은 좋건 싫건 굴복해야할 것이다." 独逸 社会主義者들이 合法的이고 民主的인 議会政治的인 方法을 通해서 独逸의 主人公이 될 것이라는 이 「엥겔스」의 楽観的인 予言은 그後에 나타난 選挙結果로 実証된것 같다.

만일 여러분이 이 選挙結果를 検討해보면 1819年, 1903年 및 1912年에 実施된 여러 選挙에서 社会主義政党 支持票가 현저하게 継続 늘어나, 実質的으로 社会主義政党이 얻은 支持票의 比率은 社会主義政党의 党勢力拡張과 一致하는 同時에 議会에 進出한 社会主義政党候補들의 数와도 一致함을 알수 있을 것이다. 1912年 選挙 結果를 살펴보면 当時 独逸人口는 6千4百90万 이었고 그 中 有権者 가운데 実際 投票한 사람은 1千2百20万名이었는데, 選挙結果는 独逸社会党 하나만도 全体投票数의 3分의1의 支持票를 얻었고 議員総数 3百97名 가운데 4分의1 以上이 社会党 出身이였다. 뿐만아니라 1913年 独逸社会党의 党費를 내는 党員만도 1百万名에 達했고 社会党과 긴밀히 제휴하고 있는 労組団体의 組合員도 2百50万名에 達했는데 이것은 当時 다른 非社会主義労組団体의 組合員 全体를 합한것 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独逸社会党은 1895年에 「엥겔스」가 予想했던것 처럼 그렇게 急速히 発展하지는 못했다.

独逸社会党이 当時 独逸의 모든 政党가운데 가장 党員이 많고 잘 組織되었고 「유럽」의 다른 모든 社会主義政党 보다 가장 強力한 政党이었다는 것은 事実이다. 그러나 勝利에의 길에는 수많

은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重要하고 本章의 分析에 있어서 가장 核心을 이루는 根本要因은 独逸社会党이 大衆政党이 되었다는 事実이다. 大衆政党이란 合法的이고 民主的인 議会政治的 方法을 통해 政治権力을 잡을것을 目的으로 하는 政党인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主張에 따르면 社会主義의 勝利는 独逸의 工業과 資本主義가 完全히 成熟되고 또 独逸社会가 民主化 되어야 이룩될 수 있다. 그리고 党의 平 党員은 물론 党指導者들을 為해서도 勝利를 위한 지름길은 없었다. 거듭 말하지만 勝利를 할려면 独逸資本主義와 無産者階級이 完全히 成熟하는 課程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19世紀末 「러시아」에서의 「마르크스」 社会主義의 抬頭 問題에 対하여 検討해 보자. 우리는 우선 「러시아」의 与件도 独逸의 一般的인 与件과 어느정도 類似点이 있는 것을 発見하게 된다. 「러시아」도 独逸과 마찬가지로 絶対君主体制下에 強力하고도 수많은 官僚들이 帝国主義行政의 중추를 이루고 었다.

工業分野에서도 「러시아」는 역시 独逸과 類似하게 1890年代에 急速히 発展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境遇, 그 発展 速度가 独逸에 比해 어느 程度 不振 하고 不規則的 이었다. 그리고 一部의 境遇 例를 들면 鉄, 石炭, 原綿 및 織物등의 生産増加比率은 当時의 「러시아」의 工業化 速度가 美国까지 包含한 其他 모든 나라들을 앞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後進的인 「러시아」에 資本主義가 이처럼 침투 함으로써 其他 社会問題가 파생됐다. 例를들면 1896年 5月 지금의 「레닌그라드」 聖「피터스부르크」에서 시작된 工業労動者들의 파업은 「러시아」 全国에 파급됐다.

이보다 조금 앞서 「짜르」 政権에 対抗하는 「러시아」의 真正한 革命運動이 있었는데, 이 運動은 이른바 「인민당 운동」이라고 불리웠고 특히 1860年代와 1870年代에 활발했다. 이 人民党運動의 主動者들은 여러 파벌로 分裂되였고 同一 理念은 없었지만 다음의 두가지 点을 모두 신조로

하고 있었다. 즉 첫째로 平和的인 帝政은 革命으로 또는 主로 知識層으로 構成된 소수의 헌신적인 「엘리트」에 의한 「테러」行動으로라도 타도되어야한다. 둘째로 「러시아」의 経済発展 過程에서 資本主義 段階로 飛躍하여 旧「러시아」農民集団을 土台로 한 一種의 새로운 社会主義社会로 即刻 転換할 수 있다. 따라서 수적으로 「러시아」의 대다수를 차지 했던 農民은 社会主義 革命의 核心体가 되어야 한다.

1870年代는 1880年代에 展開된 이들 一部 人民運動 分子들에 의한 「테러」活動으로 帝政 「러시아」当局의 무자비한 弾圧을 받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러시아」무산계급의 出現에 이바지한 急速한 国家의 工業化는 이 人民運動의 方法과 信念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한편 「마르크스」思想이 国外에서 亡命中에 있거나 国内에서 「마르크스」의 著書를 읽고 「마르크스」主義集団을 構成하기시작한 「러시아」 知識層에 침투하기 始作했다.

1898年에 「민스크」(Minsk)에서 열린 소대회에서 정통파 「마르크스」思想을 基本路線으로한 이른바 「러시아」社会主義 民主労動党이 創党되었고 国際「마르크스」主義 運動의 「러시아」支部로 発足했다. 그리고 当時 「스위스」에 亡命中 이었던 「러시아」思想家 「조지·브레타노」(George Bretano)를 「러시아」 「마르크스」主義運動의 理念上의 指導者로 추대됐다. 「조지·브레타노」는 특히 「엥겔스」가 죽은 後 「유럽」 全体에서 가장 有能한 「마르크스」主義者의 한사람으로 간주 되었었다. 当時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 信奉集団이나 個人은 서로 相当히 다른 概念을 갖고 있어 一般的으로 통용되는 「마르크스」主義는 없었으나, 그들은 모두 「러시아」는 経済発展過程에서 資本主義段階를 飛躍할 수 없다는데 意見을 같이 했고, 따라서 「러시아」 「마르크스」主義者들의 任務는 西欧 특히 独逸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資本主義의 成長과 並行해서 成長하여 窮極的으로 歴史的으로 정해진 唯一한 後継者가 될 수 있는 広範하고도 強力한 社会主義 政党을 創設하는데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 지침으로는 모든 面에서 独逸社会主義者들이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었다. 「러시아」에서

最初의 「마르크스」主義政党이 創党됐을때 「레닌」은 28歲였고 이미 「마르크스」主義者였다. 그는 「시베리아」로 流配되어 生活하는 동안 집필해서 1899年 <「러시아」에서의 資本主義의 発達>이라는 題目으로 発刊한 著書에서 人民党 経済学者들의 主張에 反論을 提起하고, 「러시아」는 資本主義의 全面的인 影響을 받고 있으며 그 影響을 不可避하게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実証하려고 試図했었다. 「레닌」은 「러시아」経済에 競争的인 資本主義가 깊숙히 침투하기 때문에 農民層은 全面와해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資本主義를 為한 国内市場은 이미 하나의 厳然한 社会的 現実이라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資本主義는 두가지 국면을 内包하고 있으니 하나는 「레닌」이 말하는 이른바 「資本主義의 歷史的인 後裔」 即 進歩的인 局面이다.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의 発展으로 招来된 結果로서 生命力과 社会労動者 등이 急增하는 反面, 資本主義가 随伴하는 어둡고 부정적인 요소가 露出되는 것이다. 이 부정적인 要素는 資本主義의 特徴인 "深刻하고도 不可避한 全面的 社会的不安" 으로 이것은 결국 歷史的으로 규정된 이 経済体制의 과도기적인 特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레닌」은 主張했다.

「레닌」의 이 魔術師와같은 説明은 정통과 「마르크스」主義의 그야말로 正確한 複写版 이였다. 「레닌」은 <「러시아」>에서의 資本主義의 発達>이라는 책을 発刊한 直後 1902年에 또 다른 책을 著述 했는데 이 책의 題目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진정 이 책은 歷史的인 重要性을 지니고 있었다. 이 책에 대한 検討는 「레닌」의 「마르크스」主義에 対한 修正 理論에의 検討로 誘導한다. 普通 이 修正主義라는 用語는 独逸의 有名한 社会主義 理論家 「에드워드・번스타인」(Edward Bernstein)의 思想을 表現하는데 使用된다. 「번스타인」은 19世紀末 그의 有名한 著書에서 「마르크스」의 理論과 予言가운데 몇가지 基本問題를 批判하고 現代社会主義는 모든 革命的인 暴力을 排撃하고 根本的으로 合法的인 闘争方法을 通해서 歷史를 헤쳐 나아가야 하며, 革命대신 改革이 「유럽」社会主義의

基本指針이 되어야 한다고 力說했다.

「번스타인」의 著書 <진화론적 사회주의>가 1899年에 発刊된 以来 오늘날까지 「번스타인」은 온건파사상가 혹은 右翼的 解釈의 巨頭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레닌」의 「마르크스」主義에 対한 修正理論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것으로 「레닌」은 「러시아」社会의 점진적인 資本主義 成熟에 関한 「마르크스」의 論理를 받아 들였다. 이「마르크스」의 論理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앞서 「부르죠아」의 反帝政民主革命이 있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革命까지는 長期間의 歴史과정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이러한 歴史的인 전망에 内包된 危険을 감지했다. 그는 이 理論을 文字 그대로는 수락한다고 하더라도 정통파 「마르크스」主義의 経済的인 決定論은 무엇보다도 資本主義 진화라는 非人間的인 要素에 期待를 걸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무산자들의 대중화운동이 「러시아」의 暴力革命의 展望에 決定的인 타격이 될 수 있음을 認識했다.

「레닌」의 重要関心은 그가 理論面에 있어서는 열성적으로 信奉하고 있는 「마르크스」教理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혁명도구를 구축하는데 있었다. 「레닌」의 이 関心은 「엥겔스」의 主張과는 対照的 이다. 「엥겔스」는 1895年 独逸社会主義를 国際「프롤레타리아」革命軍의 決定的인 중추세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레닌」은 다른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의 著書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엥겔스」가 独逸 「프롤레타리아」에 부여한 役割을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에 부여했다. 「레닌」은 그의著書에서 "「러시아」 革命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를 革命的인 国際「프롤레타리아」의 前衛로 만들 것이다"라고 主張 했다. 그는 「러시아」「프롤레타리아」에게 革命的인 国際「프롤레타리아」의 前衛役割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마르크스」主義의 基本教理를 수정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教理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革命은 「프롤레타리아」가 숫적으로 다수인 사회계급을 차지하고 또 資本主義体制가 그 잠재력을 完全히 消尽

하게되는 工業的으로 더 発達된 나라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어있다. 이 「레닌」의 전위이론은 새로운 革命政党에 関한 그의 概念에서 비롯됐다.

그의 이 概念은 組織上의 見地에서 볼 때 공론은 아니지만 쩍제상 대중정당의 性格을 띄고 있던 独逸社会党보다는 「러시아」 人民党의 「엘리트」 路線에 더 가까웠다. 그렇다고 해서 「레닌」이 세계1차대전 以前의 独逸社会民主主義를 여러면에서 尊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다만, 独逸에서 可能한것이 「러시아」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社会的으로 複雑한 「유럽」의 대중정당과는 対照的인 「마르크스」主義的인 것 보다는 「러시아」人民党에 가까운 政党理論을 내세웠던 것이다. 앞으로 「레닌」의 정당이론을 具体的으로 説明하게 될 것이므로 本章에서는 생략하겠다. 「레닌」은 그의 모든 정력을 광범한 大衆的인 労動者社会党을 건설하는데 消費하지 않고 主로 「부르조아」出身의 知識層으로 構成된 職業的인 革命分子들의 小規模的인 이념정당을 創設하는데 消費했다. 「레닌」의 主張에 의하면 철통같이 組織된 이 小規模理念政党의 使命은 西欧의 경우처럼 자발적인 労動団体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大衆을 領導하는 訓練받은 소수혁명분자들을 中心으로 革命思想을 고취하고 또 이 革命的인 労動者들의 精神을 改造하는데 헌신함에 두었다.

「레닌」은 實質的으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마르크스」教理와 「러시아」 인민당의 組織実践路線을 綜合시켰다. 이것은 곧 「러시아」의 有名한 哲学家 「니콜라스. 베자이우스」(Nikolas Bejaius)의 主張, 即 「마르크스」 主義의 土着化 및 東洋化와 통한다. 이 党組織改革論의 主要性은 과장될 수 없다. 왜냐하면 相当히 長久한 期間동안 그리고 實質的으로는 1917年 「러시아」에서 「볼세비키」革命이 일어날때 까지 「레닌」의 이 思想은 「러시아」의 많은 著名한 「마르크스」主義者들, 그리고 심지어는,

西欧의 左派社会主義者들에 의해서 배척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레닌」의 이 理論은 革命的인 「러시아」社会主義者들을 分裂시켰고 「레닌」은 結局 여러해 동안의 流配時節과 불명예스러운 分派分子라는 낙인을 받았었다. 그러나 1917年 가을 「볼세비키」의 第2次革命前野에 「러시아」에 번진 予期치 못했던 当時의 状況은 오히려 「레닌」領導下의 「볼세비키」소수파로 하여금 政治権力을 잡게했고, 따라서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싹튼 立憲主義를. 무참하게 破壊해버렸다. 結論的으로 「러시아」에서의 「볼세비키」의 勝利는 「엥겔스」自信이 解釈하고 또 西欧社会主義政党의 代辯人格이였던 独逸社会党이 実践한 「마르크스」主義의 基本教理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이었다.

当時의 「러시아」에서의 状況은 오늘날 까지 세계도처에 다음과 같은 不条理를 남겨놓았다. 即, 工業的으로 未開하면 未開할수록 따라서 「마르크스」의 論理를 厳格히 適用한 社会主義가 덜 成熟할수록 小数派인 共産主義者들이 政治的인 権力을 잡을 可能性이 더 많다는 力説이 나오게 된다. 「레닌」은 이러한 力説을 간파하고 「마르크스」教理를 수정한 最初의 革命分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레닌」의 党 槪念(「프로그람」 No. 11)

* 「니 마 이 어」博 士

共産主義 理念은 公式的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適切한 호칭이다. 왜냐하면 共産主義 理念은 「마르크스」의 世界觀과 이 「마르크스」의 世界觀에 立脚한 「레닌」의 政治行動原則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레닌」이 「마르크스」主義者가 되어 「마르크스」가 絶対 真理를 이룩했다고 信奉한 1890年代 以来, 새롭고 完全 무결한 世界는 現世界 秩序를 타도하는 무산자혁명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 「레닌」의 「도구마」(dogma)였다. 即 그는 「마르크스」主義를 絶対 真理로 看做하고 그것을 再検討하거나 批判하지 않았던 것이다. 「레닌」은 한 때 「마르크스」의 教理는 그것이 真理이기 때문에 全能이라고 記述한 바 있는데 그는 이点에 關해서는 추호의 疑心도 품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의 全世界를 통한 모든 著書들의 基本 前提였다. 「레닌」은 基本的인 理論問題에 必要한 모든 것은 「마르크스」가 이미 言及을 마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自身은 実際的인 問題点에 전념하였다. 「레닌」의 著書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곧 「레닌」의 모든 著書의 内容을 단적으로 表現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레닌」은 社会哲学, 歴史 또는 階級闘争 理論에 関한 「마르크스」思想에 도전하거나 부연할려고 하지 않았다.

「레닌」은 人間의 本質이나 共産主義의 正当性을 더 以上 説明할 必要가 없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는 組織과 전략 및 전술에 関한 問題를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 政治学 教授
獨逸胎生, 「마드리드」 「프린스톤」 「예일」大学
教授 歴任

수 없이 제기하고 「마르크스」의 前提에 부합할 수 있는 問題 解決方案을 追求했다.

「레닌」主義는 「마르크스」主義의 實踐理論이다. 따라서 「레닌」으로부터 共產主義者들을 위한 政治行動綱領이 나왔다. 그러나 「레닌」은 이 政治行動綱領을 当時 「러시아」의 餘件을 背景으로 創案하였으며 우리가 記憶하기로는 当時 「러시아」는 전제적인 君主의 支配下에 있었다 強圧的인 警察이 광대한 제국의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지하의 음모나 国民의 行動을 監視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에서의 革命準備를 위한 行動綱領은 西方에서의 그것과는 판이했다. 政治的인 反対意思를 表明할수 있는 길은 全혀 없었다. 하지만 그후 「레닌」이 「러시아」의 여건에맞게 創案한 共產党의 組織原則은 그후 西方의 民主国家 안에 있는 共產党을 包含한 세계의 모든 共產党에 一律的으로 適用됐다. 西方의 特殊 与件은 「마르크스」 行動主義라는 特別 行動思想을 낳게했는데도 이러한 西方의 特殊 与件은 「레닌」主義가 全世界 共產主義 運動의 教理로서 確立된 뒤에도 勘案되지 않았다.

「레닌」의 重要한 思想 或은 概念을 代辯하고 있는 「레닌」의 5大 著書의 내용을 検討해 보는것은 매우 重要한 일이다. 그 5大 著書는 ①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② <두개의 전술>(Two tactics), ③ <国家와 革命>(State and Revolution), ④ <帝国主義論>(Imperialism), ⑤ <左派 共產主義>(Left Wing Communism) 등이다. 이들 各 著書의 題号는 実際로는 더 길며 以外에도 「레닌」의 思想이나 概念의 源泉이 될 수 있는 其他의 著書 들도 勿論 많이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著書는 「레닌」이 「이스크라」(Iskra)紙의 「제네바」(Geneva) 事務室에서 일할 때 집필한 것이다. 「이스크라」紙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의 秘密 지하신문으로 海外에서 印刷된 後 「러시아」国内로 밀수 됐었다. 「레닌」은 이 책을 1902年에 著述했다.

이 책은 「레닌」이 「이스크라」紙의 草創期에 쓴 몇몇 重要事実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마르크스」主義 政党의 本質과 組織에 関한 「레닌」의 思想을 理解하는데 좋은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레닌」은 「마르크스」主義 政党이 「러시아」의 전제군주제를 타도하고 무산자의 勝利를 위해 準備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当時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은 두가지 問題에 直面하고 있었다. 첫째로 「러시아」는 当時 아직도 歷史 発展段階에 있어서 資本主義 前段階에 있다는 것을 認識하였으므로 労動者들이 그들의 行動을 다만 雇傭主에 抗拒하기 위한 経済的인 活動에 局限할 것인지, 아니면 政府에 対抗하는 政治活動을 組織化할 것인가 하는 問題였고, 둘째로는 「러시아」「마르크스」主義 政党은 加入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開放되어 大衆의 意思를 反映하는 大衆政党으로 組織될 것인지, 아니면 高度의 規律로 統制된小数 정예집단으로 組織되어야 하느냐는 問題였다. 「레닌」은 政治行動과小数 幹部集団으로서의 政党을 支持했다. 「레닌」은 이 問題에 関한 論争에서 그의 追従者들에게 오늘날의 共産主義를 特徵짓는 党組織 概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理念에 卓越한 몇가지 点을 添付시켰다. 이들 理念中의 세가지를 重点的으로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레닌」은 첫째로 革命意識에 関한 問題, 둘째로 党과 大衆과의 関係, 그리고 세째로 전위정당 概念을 提示했다.

첫번째의 革命意識 問題는 바로 「마르크스」를 괴롭힌 바 있다. 「마르크스」는 하나의 社会階級으로써 「프롤레타리아」들이 그들의 資本主義상전들에 抗拒, 革命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무산자들과 같은 社会階級은 政治活動을 為해 恒久的으로 組織化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의 거사여부는 그들이 行動을 위한 共同意識을 開発하느냐의 与否에 달려있다. 그들은 同時에 똑같은 感情을 가져야 한다. 다시말하면, 共同革命 意識의 開発은 무산자들의 革命을 挑発시키는데 있어서 必須不可決의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共産党 宣言이 発表된지 半世紀가 지

난 19世紀 末까지 그러한 革命意識이 모든 무산자들을 結束시킨다는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事実에 留意한 「레닌」은 이 時点에서 「마르크스」主義 理念에 새로운 궤변을 첨가했다. 즉 그는 '모든 国家의 歴史는 勤労階級들이 독자적인 労力으로 労動組合 意識 만을 開発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민주적인 意識은外部의 作用으로 비로소 그들에게 覚醒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意識은 社会主義 理論과 결부되고 있기 때문에 労動階級이 아니라 知識層에 의해서開発된다.'고 主張했다. 그는 이어서 '革命理論 없이는 革命運動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가 記憶하기르는 「마르크스」理論은 基本的으로 歴史에 対한 予言이다. 「마르크스」主義의 信奉者들은 人類의 未来란 人間으로서는 어절 수 없는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人間 속의 革命意識이란 現在보다는 未来에 対한 忠成스러운 態度를 뜻한다. 그들은 共産主義的인 未来에 忠誠을 받치기로 맹서하고 現在와의 모든 感情的인 또는 지적인 유대로 부터 자신들을 分断시킨 자들이다. 즉 이러한 분자들 만이 革命意識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또한 「레닌」은 이러한 革命意識은 기껏해야 自身들의 生活을 向上시키고 賃金을 올리고 労動時間을 短縮하고 또 一般的으로 雇傭主로 부터 더 좋은 労動条件을 얻어내는 데만 関心이 있는 一般 労動者들로 부터는 期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레닌」은 「마르크스」主義的인 予言이 根拠 하고 있는 하나의 가설을 抛棄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들의 生活与件, 그리고 資本主義者들과의 치열한 闘争은 무산자들의 共同革命意識의 覚醒을 増加시킬 것으로 確信하고 있었다. 1900年頃 独逸의 社会主義가 「에드워드 번스타인」(Edward Bernstein)은 「마르크스」의 이러한 予言은 実現되지 않았고 또 実現될 可望性도 없다고 갈파하고 이러한 논거에 立脚하여 資本主義를 暴力으로 타도하려는 「마르크스」의 予言은 削除되어야 한다는 結論을 내렸다.

「레닌」도 이러한 事実을 유의했지만 그의 結論은 「번스타인」의 結論

과는 判異한 것이었다. 이 点에서 우리는 「레닌」이 어느 정도까지 「마르크스」教理에 심취하고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레닌」은 말하기를 革命은 일어나야하며 또 일어날 것이라고 고집하고, 革命은 「프롤레타리아」의 革命의식을 開発함으로서 成就된다고 期待해서는 안되며 未来에 対한 「마르크스」理論으로 教育을 받은 사람들의 意識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레닌」의 이 主張이 革命理念에 끼치는 決定的인 役割을 유의해야 한다. 이제 그의 主張에 따르면 革命의 実現 그리고人間을 모든 罪悪에서 解放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마르크스」思想을 正確하게 認識하고 있는 小数人에게 달려있게된다. 그의 主張을 집약하면 革命理論이 없으면 革命이 없고, 革命이 없으면 自由와 幸福의 未来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들은 「마르크스」의 教理를 正確하게 理解하고 있는 者들에 의해 지도되지않는 限, 革命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主張했다. 「레닌」은 이 主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가지 概念과 区分을 提示하였다. 이것에 関해 설명해 보기로 한다.

「레닌」은 歴史의 自然的인 発展의 힘을 信頼하고 革命을 大衆의 자발적인 感情 및 그들의 関心과 同一視하려는 者들을 猛烈히 非難했다. 그는 大衆의 자발성에 依存하는 것은 革命을 背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主張하고, 그 이유로 大衆의 자발적인 감정은 現 社会의 強力한 勢力과 그 가치관 및 制度의 支配를 받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大衆의 자발적인 의식에 의존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革命課業의 実践의 焦点을 「프롤레타리아」階級에서 부터 知識層의 지도력으로 돌렸다.

이러한 主張은 機会主義와 革命理論을 区別한 「레닌」의 理論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歴史의 発展은 궁극적으로 革命으로 展開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党을 大衆의 指導力에 맡겨버리려는 者는 実質的으로 現 社会勢力과 政治行動에 스스로를 適応시키는 것에 不過하며 이것이 곧 기회주의 라고 非難했다. 그는 革命理論은 이와는 反対로 곧 스스로를 現 社会로 부터 分離시켜 未来에 対한 「비젼(Vision)」에 의해서만 自身의 진로를 해

쳐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레닌」으로 부터 기회주의자라는 非難을 받은 者들도 亦是 「마르크스」主義者였다. 그들은 「러시아」社会民主党에 属해 있었다. 그들도 亦是 「프롤레타리아」階級의 革命과 自由의 未来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레닌」은 그들이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実際的으로 反対勢力 및 現 社会体制에 協力하고 있다고 非難했다. 즉 「레닌」은 주관적으로는 「마르크스」主義者이지만, 客觀的으로는「부르죠아」支持者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暗示했다. 「레닌」은 "운동과정에 있어서 勤労 大衆들이 開発한 独自的인 理念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르죠아」理念과 社会主義理念 中 両者択一 밖에 있을 수 없으며 人間은 제삼의 理念을 創案하지 못했기 때문에, 中間路線은 있을 수 없다"고 主張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社会主義理念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것은 곧 「부르죠아」理念을 強化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닌」의이 主張에 따른다면 「레닌」이 正義한 革命路線에서 離脱하는 者는 곧 階級의 적을 支持하는 反逆者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理念上의 正確性에 대한 고집은 成功的인 革命運動의 必須的인 전제요건이다. 이것은 또한 党内의 어떠한 批判의 自由도 排除한다. 「레닌」主義者들은 「레닌」이 기존사상과 新思想의 共存을 要求한 것이 아니라 既存思想을 新思想으로 代替할 것을 要求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레닌」은 「마르크스」主義가 정의 등에 関한 낡은 思想을 真正한 歴史의 知識으로 代替한 새로운 사조라고 굳게 信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旧思想을 絶対로 容納하지 않았다. 이것에서 共産党이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理念問題에 있어서의 획일성의 本質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레닌」이 제시한 정당개념은 正確한 思想을 가진 소수가 大衆을 予定된 運命으로 이끌고 가야한다는 仮定에 根拠하고 있다. 그의 主張에 따르면 "党은 방대해서는 안되며 加入할려는 모든 사람에게 開放되어서는 안된다. 즉 党은 小規模로組織되고 徹底한 訓練을 거쳐 軍隊처럼 組織되어야 한다. 党員은 저녁 餘暇나 한가한 午後에 党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生活을 바치

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生計를 위해 일해서는 안되며 職業的인 革命家라야 한다는 것이다. 「레닌」은 또한 党은 党員들을 統制하고 党員들은 革命技術의 職業的인 能力을 開発해야 하며, 党의 全体構造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組織되어야 하며, 党의 中心은 党員이 아니라党指導層이 되어야 하며, 「레닌」이 말하는 이른바 민주적인 중앙집권원칙에 의해서 統制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 原則은 곧 決定이 있기 前에는 討論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決定이 내리면, 즉 指導層에 의해 決定이 일단 내려지면 모든 討論이나 意見差異는 끝난다는 것을 뜻한다. 党은 또한 秘密組織이어야 하며, 음모형의 組織이어야 한다. 「레닌」은 党이 秘密組織이어야 하는 理由로 전제주의의 警察組織下에서의 活動이 어렵기때문이라고 合理化하고 있다. 「레닌」의 이러한 모든 主張이 19世紀「프랑스」에서 「율리악·브롱키」(Juliac Bronky)」가 発展시킨 음모운동의 幹部概念과 매우 恰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事実 「브롱키」는 「러시아」人 弟子 「카츠코프」(Katzchov)를 거느리고 있었다. 「레닌」의 理論은 이 「카츠코프」의 理論과 비슷하다.

그러나 「레닌」은 「카츠코프」와 「브롱키」와는 달리 革命은 小数 核心党員으로 이루어진 党組織 뿐만 아니라, 이 党組織이 大衆을 동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成功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레닌」의 理論에 따르면 党은 職業党員으로 構成되어야 하며 党員은 革命活動을 指揮할 수 있도록 訓練되어야 하지만, 이들 党員들이 일반대중을 自身들의 指揮下에 넣지 못하는 한 勝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레닌」은 職業的인 革命分子들로 구성된 党과 大衆間의 関係를 어떻게 구상했는가를 分析해 보기로 하자. 이것은 共産主義者들의 思考概念에서 매우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共産党의 運営方式과 密接한 関連性을 갖고 있다. 이것을 가장 잘 理解할려면 「레닌」思想의 3大 概念을 把握해야 한다. 즉 伝動帯(Transmission Belt)의 概念과 宣伝 및 煽動의 概念, 그리고 大衆에 関한 概念이다. 伝動帯란用

語는 후기에 생긴 것이지만 이에 関한 概念은 1902年에 形成되었다. 「레닌」은 여러가지 形態의 자체 目的을 위해 存立하고 있는 大衆을 会員으로 하고 있는 広範囲한 既存 組織体에 関心을 돌려 이 組織体의 要職에 소수 共産主義者들을 침투시킴으로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시말하면, 이 既存 組織体에 침투하는 소수 共産主義者들은 共産主義路線을 説得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組織体를 利用할 수 있는 具体的이고도 実質的인 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組織体로는 労動組合, 文化機構 教育者 団体 등등을 들 수 있다. 万一 共産主義者들이 이러한 団体를 実質的으로 조종할 수 있는 位置에 침투할 수 있다면 党은 党員을 거느리지 않고도 이 団体를 통해 그 会員들에게 共産主義 理念을 고취하여 党의 뜻을 伝達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그는 伝動帯라고 부르는 것이다. 「레닌」이 구상한 革命組織은 核心党員으로 구성된職業的이고 秘密組織인 党 以外에 党이 침투 조정할 수 있는 広範한 会員을 거느리고 있는 大衆団体도 包含하고 있다. 이러한 団体의 会員들은 이 団体를 実際로 누가 조종하며 또 그 目的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다음으로 宣伝과 선동이라는 두 가지 活動이다. 「레닌」은 이에 関한 概念을 그의 先生 「하노프」(Hanof)로 부터 이어받았으며 「하노프」는 「러시아」에서 「마르크스」主義者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레닌」은 宣伝과 선동을 다음과 같이 説明하고 있다. "宣伝員은 諸危機의 資本主義的인 本質을 説明하고 現代社会에서 危機가 不可避하다는 것을 説明해야 한다. 그는 우리의 現社会가 社会主義社会로 改造되어야 할 不可避性을 지적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그는 많은 사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의 이 思想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比較的 小数人들에게만 全体的으로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동원은 같은 문제를 言及하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또 聴衆 가운데 주력이 이해되고 있는 事実을 例挙해야 한다. 例를들면 失職한 労動者의 家族이 굶어 죽었다든가, 또는 増加一路에 있는 失職状態 등을 例証해야 한다. 선동원은 이러한 実例를 利

用하는 가운데 大衆에게 단 한가지 思想만을 注入시키는데 主力해야 한다. 선동원은 大衆 사이에 不平과 不滿을 불러 일으키도록 努力해야 한다. 이 선동은 党과 大衆을 연결하는 基本 要素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主義 理念의 全般的인 說明 그리고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主張을 理解할 수있는 것은 大衆 가운데 小數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고 말하고 「레닌」은 이어 党과 大衆間의 関係를 다음과 같이 具体的으로 說明하고 있다. ' 不滿의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리고 大部分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不滿의 씨를 갖고 있다. 선동가는 모든 人間의 不平을 하나의 一般的이고 커다란 不平으로 집약하는 方法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보편的으로 배격하는 것, 즉 우리는 大学이나 職場 또는 労動条件에만 不滿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全体的인 政治体制가 無価値하다는 思想을 고취시키는 것을 課業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우리 党의 領導下의 보편적인 政治闘争을 모든 社会 반대계층으로 하여금 闘争과 党의 힘을 支持하는 方向으로 組織化하는 方法을 통하여 우리의 課業으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党은 人民에게 호소하되 共産主義 理念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存在하고 있는 모든 不滿의 要素를 社会全体에 対한 하나의 큰 거부로써 집약하여 社会에 조금이라도 不滿을 갖고 있는 모든 集団들의 支持를 얻는 方向으로 호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동의 意味이다.

방금 引用한 「레닌」의 論文 句節에서도 「레닌」은 무산자 或은 労動者라는 말을 全혀 使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레닌」은 大衆이라는 用語를 使用했다. 무산자라는 말은 具体的인 正義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歷史的인 使命을 부여한 특별한 社会階級을 뜻한다. 그러나 「레닌」은 그 根源이야 어떤 것이던 間에 힘을 発生케 하는 大衆의 支持를 願했다. 「레닌」은 '社会民主要員들은 人民의 모든 階級속에

침투해야 하며, 軍隊를 모든 方向으로 派遣할 수 있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그는 또한 '社会民主要員의 이상형은 労組의 書記가 되는 것이아니라 場所나 社会階級에 상관없이 暴政과 圧制에 抗拒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主張했다.

「레닌」은 또한 党 自体가 무산자 만으로 構成되는지의 与否에 対해서는 큰 関心을 두지않았다. 일단 党에 忠誠을 約束하면 共産主義者는 그것으로 万事가 끝나는 것이다. 그는 다만 党의 領導下에 大衆을 革命軍으로 만들 수 있는 大衆의 支持에만 関心을 두었다. 그것이 바로 「레닌」이 構想한 革命軍이다.

小規模의 중앙집권적이며 職業的이고 음모적인 組織体인 党과 그 党 周辺에 共産主義 침투자들이 조종하는 広範한 大衆 衛星団体를 두는 것이 곧 「레닌」의 構想이다. 선동을 통해 大衆을 心理的으로 현혹 동원하고 「마르크스」 理論을 통해 党과 党指導者들이 의도하는 方向으로 모든 機関을 闘争속에 몰아넣는 것이 곧 「레닌」의 組織理論이다.

「레닌」은 党에 「전위정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위」라는 말은 軍隊가 移動할 때 前方에 位置한 分遣隊를 호칭하는 軍隊用語이다. 이 用語에 있어서의 軍隊式인 暗示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레닌」이 使用한 이 「전위」라는 用語는 単純한 暗示가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 보다 発展된 科学知識을 가진자를 지칭한 것이다. 「마르크스」主義 信奉者들은 過去의 歴史는 멀고도 희미한 未来目標에의 案内者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마르크스」主義를 아는 者만이 이 案内者의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며,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自身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 보다 앞선 位置에 있다는 환상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또한 '党은 전위이기 때문에 다시말하면, 歴史의 将来에 대한 方向意識에 있어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党員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볼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찰할 수 있으며, 人民과 階級 및 国家의 真正한 利益을 알 수 있고 人民들이 自身들의 것이라고 誤解하고 있는

환상적인 理解를 일깨워 줄 權利를 갖고있다.'고 主張하였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의 눈에 비치는 党은 単純한 權力機関 이상의 것인 것이다. 즉 党은 真理의 源泉이라고 한다. 「레닌」의 말을 빌리면, '真理는 언제나 具体的이고 完成品이며 모든 共産主義者들의 정신적인 故鄕이다. 党을 除外하면, 共產主義者는 暗黒과 反動, 부패와 絶望, 그리고 混乱 以外에 아무 것도 볼 수 없다'고 主張한다. 그들의 主張에 따르면 党은 命令体制이며, 党 만이 唯一한 命令權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党은 党에 가세하지 않는 者들을 運命의 무덤 속으로 끌고갈 使命을 歷史에依해 賦与 받았으며, 党이 없으면 共產主義者들은 自身들의 할 일을 모를 것이고, 自身들의 生涯에 의의가 없으며 行動에 秩序가 없을 것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思想은 곧 共産主義者들의 党 指導層에 対한 忠誠스러운 態度를 반영하는 同時에 共產主義者들에게는 党 만이 사령탑이요 政策일뿐만 아니라, 真理의 酷毒한 啓示로 통한다. 共產党을 이처럼 혹독한 形態로 만든 것이 바로 「레닌」이고 또 그의 党 概念인 것이다.

3. 權力장악을 위한 戰略(「프로그람」 No. 12)

* 「니마이어」 博 士

「마르크스」는 그의 教理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은 資本主義가 終末에 이르러 모든 不可能性이 소멸되었을 때 닥쳐올 것이라고 하였다.

「레닌」등 「러시아」 「마르크스」主義者들은 「러시아」君主体制를 対象으로하여 革命을 計劃하였다. 그러나 君主制度가 資本主義가 아닌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君主制度가 封建主義 였던가? 1900年경의 「러시아」는 어떤 것이였던가? 그것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歷史의 必然性의 어디에 該当하는 것이었던가?

1899年 「레닌」은 <「러시아」資本主義의 展望>이라는 尨大한 저서를 発刊, 그 저서에서 資本主義가 「러시아」에도 유입되어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러시아」를 준「아시아」国家로 간주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西方学者들이 본 19世紀 「아시아」社会는 西方社会의 「패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西方에서는 中央政府밖의 強力한 힘이 늘 中央政府의 힘을 牽制, 균형을 취해왔다. 封建主義 時代에도 그러했다. 領主들의 勢力이 強大하고 君主의 힘은 相対的으로 弱했다. 그후 私有財産이 個人과 個人集団에게 勢力을 부여 함으로써 中央政府로 부터 어느 程度 独立할 수 있게 됐다.

이와는 対照的으로 「아시아」에서는 힘을 가진 封建領主나 財産所有者를 発見할 수 없다. 모든 權力은 中央政府와 官僚가 장악했다. 「마르크스」가 「러시아」를 준「아시아」国家라고 부른 것은 權力이 中央政府에 集中되어 있고 財産을 가진 資本階級에는 힘이 없는 것이 「러시아」의 특징이었기 때문이다.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政治学教授
獨逸胎生, 「마드리드」「프리스톤」「예일」大学教授
歷任

이러한 나라에 革命政府가 들어서서 모든 生産을 国家에서 일원적으로 統制한다고 하면 어떤 事態가 벌어질 것인가? 분명히 기존체제로 부터의 革命이 전무할 것만은 事実이다. 기존체제가 노예화의 体制였다면 그것은 더욱 悪化된 노예화를 가져올 것이다.

今世紀初 「러시아」 「마르크스」主義者들은 「러시아」의 政体가 무엇이든 「러시아」는 아직 「부르조아」国家는 아니라는데 意見을 같이하고 있었다. 「마르크스」 理論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革命은 오직 「부르조아」社会에서만 일어나서 社会主義 社会가 建設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即 「부르조아」革命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르조아」政権이 確立된 연후에야 그 뒤의 社会主義 革命을 云謂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부르조아」革命은 1789年에 일어났는데 1百年이 지난 後日까지도 社会主義革命은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 「마르크스」主義者들은 그들의 社会主義革命을 위해 그토록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부르조아」革命과 社会主義革命을 단일과정으로 압축할 可能性을 検討하기 시작했다. 1904年 「포보스」(Povos)라는 「러시아」의 社会主義者가 그 可能性을 다룬 論文 몇편을 独逸에서 発刊했다. 「러시아」의 「트로츠키」도 「포보스」와 같은 意見이어서 1905年에 그와같은 要旨의 「팜프레트」 하나를 저술했다. 그 「팜프레트」는 1905年 「러시아」에서 革命이 일어났다는 「뉴스」, 특히 「피의 日曜日」(Bloody Sunday)로 불리우는 事件으로 말미암아 더욱 促進되었다. 그도 「포보스」와 마찬가지로 「부르조아」革命과 「프롤레타리아」革命을 하나로 묶어서 長期的인 봉기의 期間이 곧 革命方案이라 提示했다.

같은해 7月 「레닌」도 「트로츠키」의 思想을 많이 導入하여 <두전술>이란 저서를 発刊했다. 当時 「레닌」은 「볼세비키」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社会民主党의 한 분파의 指導者가 되어 있었다. 反対派인 「멘세

비키」派는 「러시아」歷史의 다음 과정인 「부르죠아」革命은 「부르죠아지」에 의해, 또한 「부르죠아지」를 위해 단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換言하면 資本家와 自由主義者들의 集權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政治活動의 原則論부터 내세웠다. 이는 自由民主政体가 들어서면 「프롤레타리아트」는 宣伝攻勢를 通해 大衆의 불만을 対政府圧力으로 誘導할 수 있고 自体의 力量도 키워 나감으로서 광범한 反対勢力을 규합할 수 있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멘세비키」의 「슬로건」은 '밑으로부터의 圧力'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理論에 대해 「레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 즉 「부르죠아」政権은 自由主義者들과 地主 및 資本家들의 支持를 받을 왕당파로 構成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政権이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決定的 우위를 確保하도록 방임할리는 없다. 「부르죠아」革命과 「부르죠아」政権이 社会主義革命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事実이나 社会主義革命의 후속을 확신할 수 있는 「부르죠아」革命의 바탕은 「프롤레타리아트」 即 共産主義者들에 의해 스스로 마련되고 다져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에는 이러한 많은 지적 곡예가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마련하고 다지는 革命을 어떻게 「부르죠아」革命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레닌」은 그 問題에 대한 答弁을 마련하고 있었다. 수적으로 적은 「프롤레타리아트」는 農民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러시아」에서도 農民이 革命階級이다. 全人口의 過半数를 차지하는 이들은 地主와 専制君主를 타도하는데 関心이 크다. 이들은 革命的 水準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農民과 손을 잡으면 「프롤레타리아트」는 무장봉기를 展開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닌」은 이러한 運動은 '불가피하게 軍事力과 大衆의 武装化 및 봉기에 依存하게 마련이지 合法的, 平和的 手段으로 樹立된 機構에 依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運動에는 独裁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独裁없이는 地主 대「부르조아지」專制君主의 抵抗을 타파하고 반革命 기도를 물리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론 이 独裁는 民主主義的 独裁이지 社会主義的 独裁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資本主義를 뿌리까지 뒤 흔들지는 못하고 고작해야 農民들을 위해 土地의 재분배나 実行하는데 그칠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共和制를 包含하여 民主主義가 安定되고 만개하면 「아시아」的 속박의 모든 抑圧的 要因들을 農村, 工場生活로부터 추방하고 労動者들의 労動条件을 개선하며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 끝으로 革命気運을 「유럽」으로까지 拡大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 期間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計劃이었다. 그는 「멘세비키」들에게 "우리는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및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 独裁라는 새로운 구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레닌」은 밑으로 부터의 圧力論에 대해 위로 부터의 行動, 即 反対党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独裁政府로서 위로부터 行動할 것을 대안으로 提示했다. 바꾸어 말하면 「레닌」은 「부르조아」革命과 「부르조아」社会理念이 선행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原則을 是認하면서도 이 「부르조아」革命과 「부르조아」 社会理念을 「부르조아」의 指導力에 一任해야 한다는 結論에는 反論을 제기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立場에서 볼 때 「부르조아지」는 믿을 수 없는 背反者 였다. 따라서 「레닌」은 歴史의 2段階에서 「부르조아」의 指導力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부르조아」革命과 「부르조아」社会理念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 即 共産主義者 스스로가 그것을 主導하고 料理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는 現実과 理想의 갈등에서 理念的 思考의 矛盾을 目擊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歴史의 明確한 段階를 設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段階를 순서대로 하나 하나 밟기에는 그 厳格한 「패턴」이 封建国家도 아닌 준「아시아」적인 「러시아」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포보스」(Povos)도 「부르죠아」革命이 「러시아」에서는 늦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로서는 「부르죠아」革命을 바랄 여력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떻든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은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에 充實할 결의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現實에 있어 그 「이데올로기」와 결별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마르크스」主義者 임에는 틀림 없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革命을 통해 人類를 解放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現實에 맞게 「이데올로기」를 뜯어 맞추고 이 새 「이데올로기」에 따라 그들의 政策과 戰略을 구사하고 있다. 그 結果가 과연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거기에는 두가지의 전제가 있다. 그 하나는 「부르죠아」革命이 社会主義 革命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 即 「부르죠아」民主主義가 社会主義 社会에 선행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트」는 共産主義者를 선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들은 革命을 일으키고, 社会主義段階를 능가할 수 있을 만큼 「부르죠아」 民主社会의 信念과 社会를 통활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여기서 「레닌」은 「부르죠아」라는 말을 새로 定義하였는바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수적으로 圧倒的인 農民을 근간으로 하여 君主制度를 뒤엎는다면 이것은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아니라 「부르죠아」革命이라고 主張했다. 우리는 여기서 「레닌」이 「부르죠아지」라는 딱지를 農民에게 전가시켰음을 유의해야 한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이같은 일은 없었다.

18世紀式의 概念을 갖고 「마르크스」는 農民들을 멸시조로 언급했으나 그들을 「부르죠아지」로 取扱한 일은 일찌기 없었다. 「마르크스」가 본 「부르죠아지」는 工場의 所有者나 雇傭人의 賃金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오늘날의 資本家인 것이다.

農民은 「프롤레타리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르죠아지」도 아닌 그 中間層의 存在이다. 그러나 「레닌」은 이러한 農民을 「부르죠아」로 分

類했다. 이 分類로 因해 後日 共産主義 政策에는 엄청난 蹉跌이 초래되었다. 「프롤레타리아」와 農民의 聯合勢力 결성을 仮定한다면 그 聯合勢力은 하나의 社会勢力이 되고 모든 社会勢力과 「부르죠아지」 및 「프롤레타리아트」를 結合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勢力에 의한 革命은 社会主義革命이 아니다. 그러한 定義에 따르면 一次的으로 「부르죠아」革命이 이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定義에 따른 「마르크스」의 厳格한 「패턴」에 따라 社会主義社会에 선행될 社会를 確立해 놓아야만 한다. 여기에서 民主主義的이란 하나의 節次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共産主義者들이 말하는 이른바 社会構成分者를 뜻하는데 쓰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 社会主義社会는 「프롤레타리아」階級을 그 構成分者로 한다. 「부르죠아」社会는 「부르죠아지」를 그 構成分者로 한다. 農民을 「부르죠아」로 分類한 이상, 이 農民 및 「프롤레타리아트」와의 提携를 바탕으로 한 政権은 社会的으로 말해 「부르죠아」民主社会이다. 「레닌」이 農民을 相対로 「프롤레타리아트」의 革命的 民主独裁体制라는 그 놀라운 공식을 짜낸 것도 바로 이와같은 사고 과정의 歪曲을 통해서만 可能했다. 그는 君主政治가 일단 전복되기만 하면 国会나 그 밖의 民主主義的 立法機構등을 構成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革命政府 即 独裁政権을 樹立해야만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도 「레닌」이 이같은 政権을 民主的 이라고 부른 理由는 무엇일까? 時期的으로 보아 아직 「프롤레타리아」独裁, 다시말하면 社会主義独裁가 될 수 없다는 단순한 理由에서 였다. 이 政権은 事実上 独裁政権이지만 定義上 「부르죠아」라고 命名된 歴史의 한 단면과도 関係가 되는 独裁이기 때문에 民主的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레닌」은 「러시아」実情에 맞게 「이데올로기」를 提示하고, 歪曲된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党戦略을 提示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일들은 어떤 実際的意義를 지니고 있었던가?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 공식을 案出함에 있어 「레닌」은 一般的 与件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解釈은 勿論 党이

추종할 새 戰略原則까지도 받아들였다. 이에는 다음 세가지의 原則이 包含되었다. (가) 農民과의 提携, (나) 위로부터의 行動 (다) 最少計劃과 最大計劃과의 区別等이다.

이를 하나 하나 検討한다면 農民과의 提携는 実際에 있어서 共産主義者들의 執権은 共産主義 理論 自体의 呼訴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農民들에게 먹혀들 구호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農民들을 動員하자면, 農民들의 要求부터 充足시켜 주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무엇보다 土地에 대한 農民들의 갈구부터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共産主義者들이 農民에의 土地分配를 해주건, 農民들 스스로 土地를 점유하게 하건 큰 問題가 아니다.

「레닌」은 "農民이 革命에 参与하는 것은 오직 革命의 完全成功으로 그들에게 土地改革을 통한 모든 利益과 그들의 수긍이 가는 모든 慾望을 充足시켜줄 수 있다고 確信할 때에 한 한다"고 말했다.

農民들이 갈망하고 要求하는 것과 그들이 首肯할 수 있는 것과는 正反対이므로 農民의 要求를 充足시켜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共産主義者들과 農民들간의 紛争의 소지를 안고 있다. 「레닌」은 이에 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農民과 손잡고 함께 敵을 처부시자, 農民은 원하는 것을 얻기가 무섭게 背反者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도 農民들에게 関心을 돌려, 그들의 抵抗을 분쇄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는 이 計劃을 위해 거의 数学 公式과도 같은 치밀한 公式을 짜 놓았던 것이다. 即 民主革命을 끝까지 完遂해야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이며, 「프롤레타리아」는 実力으로 専制君主의 抵抗과 「부르죠아」를 弱化 시키기 위하여 農民大衆과 結合하여야 한다. 또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죠아」를 不安定 속에 빠뜨리지 않으면 안된다. 「프롤레타리아」는 社会主義革命을 完遂해야 하며, 이에 있어 実力으로 「부르죠아」의 抵抗을 분쇄하고 農民 및 「小 부르죠아」의 不完全化

를 造成하기 위해 「準 프롤레타리아」階級인 大衆과 손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편 그는 <두가지 전술>이란 저서를 통해 '이것으로 부터 「부르조아지」와 聯合戰線을 펴면서도 同時에 우군을 敵처럼 감시한다는 우리전술의 臨時的性格이 파생되어 나온다'고 말했다.

여기서 共產主義 革命의 基本原則을 살필 수가 있다. 「프롤레타리아트」即 共產主義者들은 大衆과 野合, 政權을 잡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군을 同僚市民이나 親旧로 생각지 않고 敵으로 간주하여 쓸모가 없어질때는 그들에게서 언제든지 등을 돌린다는 것이다.

두번째의 原則은 종전까지는 「마르크스」가 革命的転換(Revolutionary Transformation)이라고 表現한 낡은 概念의 새 公式이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가 資本主義를 뒤엎고 난 직후의 政權이 取할 社会主義社会의 初期段階의 活動을 指称하기 위하여 이말을 使用하였다. 그는 이 같은 原則을 「프롤레타리아」 最終革命에 앞선 「부르죠아」 社会에까지 拡大시켰다. 「레닌」에 의하면 위로 부터의 行動이란 大衆에 의한 上向的 压力이 아니라 政府의 独裁的行動에 의하여 歷史上의 모든 必要한 変化를 초래하자는 主張에 不過하다. 「레닌」은 政府란 훌륭한 革命手段이며 社会를 철두철미 뒤집어 엎는데도 独裁에 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仮定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일단 党을 권좌에 올려 앉혀놓기만 하면, 歷史라는 배를 마음대로 조종 어떠한 난관에도 봉착함이 없이 「부르조아」民主段階를 거쳐 점차 社会主義 段階로 移行할 수 있다고 자신 했었다.

「레닌」의 이 「위로 부터의 行動」은 후일 「스탈린」에 의해 더욱 정교한 위로 부터의 革命公式이라는 더욱 가공할 公式으로 転換되었다.

第3의 原則인 最大計劃으로 부터 最少計劃의 区別原則은 共產党의 目標達成을 위한 단편적 접근방법으로 共產党에 採用되었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実用的인 分析을 통해 階級構造가 타파된 연후에도 社会는 상당기

간 在来의 慣習, 観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実際的인 結論을 내렸다. 따라서 人間과 社会의 完全改造를 目標로 하는 党이라 하여도 둘째번의 原則을 適用할 수는 없고 당장 앞으로 그 実現이 可能한 最少計劃인 第3의 原則에 따라 活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最少計劃은 그 어느것도 党의 最後目標에 관한 「이데올로기」의 면모를 지니지는 않을 것이다. 最少計劃의 하나 하나는 民主的이고 自由主義的인 計劃이거나 農民을 위한 計劃이거나 간에 약간 다른 인상을 보일 것이나 그들의 目的은 戦略的으로 党 立場을 強化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最少計劃의 目標는 共産主義者들의 시급한 要求를 充足시키는데 있고, 집적적이고 必要한 궁극적 要求나 期待를 充足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한낱 디딤돌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階級을 除去, 抵抗의 거점을 파괴하여 어떠한 힘의 위치를 確保하는 手段으로 活用될 뿐이다. 最終目標를 입으로 説明하는 것으로 党을 밀고 나가자는 共産主義者가 있다면 그는 「레닌」이 볼 때 共産主義者가 아니라 한낱 理想主義的 夢想家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共産主義者라면 <두가지 전술>이 説明한 「장기전술」 「지그재그 전술」의 法과 原則을 받아들이는 者라야 한다. <두개의 전술>은 1924年 「스탈린」이 쓴 <「레닌」主義의 基本>이라는 論稿에서 자주 引用된 「레닌」저작중의 하나인데 우리는 이 책이 直説한 말의 重要性을 検討해 왔다. 그러나 間接的인 暗示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레닌」의 計劃은 결국 少数의 「프롤레타리아트」와 尨大한 数의 農民을 가진 「러시아」를 対象으로 했다. 그의 戦略이란 農民大衆을 利用하여 共産主義者들이 政権을 잡고 그 뒤로는 이 独裁政権이 社会를 民主的 段階를 거쳐 점차 社会主義段階로 履行시킨다는 것이다.

이 구상이 人口의 大多数가 農民인 「러시아」에서 成功할 수 있다면 与件이나 発展段階에 関係없이 世界 도처에서 共産革命이 可能하다는 結論이 나온다. 即 이 革命은 資本主義 国家나 「프롤레타리아트」가 많은

国家에만 국한 될 것이 아니고 資本主義가 完熟하기를 기다릴 必要도 없다는 말이 된다. 共産革命에는 事実上 資本主義 자체마저 必要치 않을지 모른다. 農民大衆을 動員하여 共産主義者들을 独裁政権에 갖다 앉히기만 하면 곧 共産党이 支配権을 行使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레닌」 自身도 1920年 이 같은 結論을 내렸다. 中央「아시아」의 몇몇 나라에 언급, 그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적거나 전혀없는, 매우 原始的 発展段階에 있는 나라에서도 共産主義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도 1905年이나 아마 1920年에 西方 工業諸国에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革命이 일어나지 않는한, 「러시아」革命은 社会主義社会라는 궁극적목표는 達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老大한 数의 農民大衆과의 聯合으로 「프롤레타리아트」가 政権을 장악할 수 있다는 그의 변함없는 主張은 資本主義 및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마르크스」의 전제조건에 구애되지 않는 하나의 共産主義 전략으로 登場하여 그의 「독트린」은 自体의 지적향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農民問題에 관해 끝으로 한마디 하자면 한가지 명백한 것은 農民의 支持가 전제되고 있는 만큼 初期에는 農民의 要求가 充足되어야 한다는 事実이다. 다시말하면 土地를 農民에게 分配해 주어야 한다는 事実과 共産主義計劃을 구현할 후기에 가서는 이 土地를 農民들로 부터 다시 빼앗아야 한다는 事実이다. 이것이 蘇聯과 中共의 政策 「패턴」이었다. 또 한가지 明白한 것은 이 같은 政策 「패턴」은 農民들에 대한 共産主義者들의 聯合에 의한 엄청난 背反과 共産主義 戰略과 農民大衆間의 엄청난 敵対関係를 内包한다는 事実이다.

共産政権에 있어 農業이 늘 問題가 되는 것이 事実이라면, 우리는 이 問題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 「레닌」이 짜낸 戰略原則의 理念的 근원 및 독자적으로 革命을 감행하기에는 아직 약체였던 「러시아」「프롤레타리아트」에게서 이 問題의 原因을 구명할 수 있다.

4. 未来의 共産政權(「프로그람」 No.13)

* 「니마이어」 博 士

1917年 여름 民主主義 政府는 「짜르」政權 전복 후의 「러시아」 首都圈 질서회복을 위해 努力하였다. 바로 前인 7月에 반란과 폭동이 있었으나 政府는 이 혼란을 진압하였던 것이다. 이 폭동과 반란에 「레닌」의 共産党이 関係되었으며 「레닌」은 結局 체포되는 危機를 모면키 위해 「핀란드」로 도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곳에서 自己가 領導하는 共産党이 終局에는 独裁權力을 장악하게 하려는 「구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帰国할 機会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 機会는 그해 가을에 오고야 말았다.

「핀란드」에 체재하는 동안 그는 自己 党이 장차 執權하게 되었을 때에 그 共産体制가 採択하게 될 政治形態에 関한 著書를 한 권 써 놓고 있었다. <国家와 革命>이라는 題目의 이 책은 「볼세비키」가 무력수단에 호소하여 政權을 장악하고 헌정의회를 해산시킨 後인 1918年 初에 発刊되었다.

그런데 이 책은 그의 추종자들과 国民大衆이 그가 行할 「구데타」에 関하여 극히 조급하고 不安한 心情으로 궁금히 여기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説明하려고 하는 「레닌」 自身의 속셈의 表現이었음이 分明하다.

共産党이 政權을 장악하면 과연 어떤 성질의 政權을 樹立할 것인가? 그들은 単純히 政權만 접수하고 過去의 国家를 그대로 踏襲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政府를 創造할 것인가? 過去의 政府를 폐지할 것인가? 国民을 다스릴 때 民主的으로 할 것인가 独裁方式으로 할 것인가? 그들은

---

* Gerhart Niemeyer : 「노트르담」大学政治学教授
독逸胎生, 「마드리드」「프린스톤」「예일」大学教授
歷任

自由와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全体的인 調和를 과연 어떤 方法에 依해서 実現할 것인가? 그리고 権力行使 過程에서 과연 그들이 얼마 만큼의 権力을 어떤 比率로 労動者와 一般大衆에게 분배해 줄 것인가 하는 問題들에 答하려는 것이 그 책의 主된 内容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著書에는 이런 問題에 対한 해답이 全然 없거나 거의 없었던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런 問題들에 対한 해답은 반드시 내려져야만 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革命이 成就된 未来의 国家体制가 지닐 政治形態에 関해 구체적인 実際의 説明을 별로 한 바가 없고 다만 国家에 関한 약간의 概念的 説明만을 한 데 불과했으므로 国家의 概念은 「레닌」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教條的으로 説明되었다.

「레닌」이 国家에 関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見解를 発展시켜 創案해 낸 主要한 概念은 다음 세가지 이다.

첫째, 国家는 支配階級에 依해 専断되는 압박의 道具다. 国家는 항상 多数를 지배하는 소수의 이익을 代表해 왔다는 概念이다.

둘째 国家는 人間사회에 있어서 일시적 현상에 不過하다. 国家는 社会가 여러가지 種類의 階級으로 분화, 대립되어 있는 동안에만 存在할 뿐이다. 만일 社会内에 階級이 없어진다면 国家도 곧 소멸된다는 概念이다.

세째 1871年에 있었던 소위 「파리·콤뮨」은 人類思想 最初의 「프롤레타리아」政権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프롤레타리아」革命이 成功한 후에 人類 世界가 採択, 適用하게 될 가장 훌륭한 政治形態를 代表한다고 하였다. 「파리·콤뮨」의 構成員은 항시라도 소환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立法権 및 執行権을 行使하는 性格上의 特性을 지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리·콤뮨」을 일종의 순수한 直接 民主主義라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철저한 民主的 体制는 「엥겔스」에 依해 「프롤레타리아」独裁의 원형이라 宣言되었다.

이 세가지 概念이야말로 「레닌」이 研究, 도출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

던 「레닌」式 共産主義 理念의 要締였고 이를 위해 「레닌」은 自己를 그 속에 몰입시켰었다. 그러나 누구던지 이를 일견해 보면 「레닌」의 시도가 거의 実現性 없는 努力이라는 事実을 理解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르조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国家는 소멸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마르크스」主義者들의 主張에 따라 「프롤레타리아」들은 共産社会建設을 위해 国家를 必要로 하지만 未来의 共産社会에는 国家가 存在하지 않게 된다고 主張하는 등의 虚偽性을 고발할 수 있는 소추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마르크스」가 社会革命 過度期에서 国家는 「프롤레타리아」独裁形態를 취할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는 1871年에 있었던 「파리·콤뮨」을 最終的으로 発見된 궁극적인 「프롤레타리아」独裁 政治形態라고 극구 찬양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파리·콤뮨」은 급속도로 自由民主的인 形式과 절차를 採択해냈다. 「레닌」은 이 급속한 民主的 「파리·콤뮨」이 「프롤레타리아」独裁의 最初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레닌」은 政権을 장악하기 直前 「마르크스」의 『国家理論』을 개조하였다. 그렇게 하므로써 그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問題에 직면케 되었다. ① 革命을 위해 国家는 어떤 意味를 갖고 있는가? ② 未来의 共産革命政権속에서 民主主義와 独裁体制는 어떤 関係를 갖게 되는가? ③ 国家機構는 과연 소멸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후에 올 사태는 어떤 것인가?

「레닌」은 "国家는 상위하고 상반되는 여러 階級을 포괄하고 있는 社会에서 発生하는 歴史的 현상이며 国家의 本質은 権力으로 社会를 억압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権力은 특히 軍人, 警察, 관료등의 特権階層의 集団에 帰属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社会의 上層에 있다고 「레닌」은 말한다.

이것은 結局 『権力』이 本質的으로는 政府와 그 政府의 관료들 手中에

있다는 것을 「레닌」이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서 「레닌」은 權力이 근본적으로 国家와 政府官僚의 수중에 있음을 適用한 것이라 알 수 있다. 이는 国家가 支配階級의 道具라는 概念과 相反되는 것이다. 이 後者의 概念을 択하는 立場에서는 財産이 힘의 原泉이요, 本質이라고 크게 强調한 나머지 政治機構가 지니는 權力은 별로 중시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問題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는 事実을 부정할 수 없으리라는 논거로서 「소비에트」体制 그 自体를 例로 들고자 한다. 한마디로, 「소비에트」体制는 私有財産과 生産手段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除去해 버린 후, 비로소 革命 以前의 모든 權力의 원천과 要素를 除去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 「소비에트」共産党은 軍隊와 警察과 官僚制度를 의연히 유지했던 것이다.

「레닌」이 이처럼 權力의 本質에 関한 이율배반적인 分析態度를 견지함으로써 「소비에트」共産体制의 政策立案家들은 뚜렷한 指標를 가질 수가 없었다. 国家 權力問題에 関한 이 두가지 概念중에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評価는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国家가 存在하는 한 自由는 없다. 自由가 있을 때 国家는 存在하지 않는다. 장차 国家는 소멸될 것이다. 自由를 갖는 国家는 人民의 体質에 맞지 않는 權力을 行使하는 소수인 만의 自由로운 国家일 뿐이다. 더구나 압제를 자행하는 소수와 다수간의 분쟁상태는 完全히 조화된 共産社会의 性格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政治的 統治機構없이 어떻게 하면 「부르조아」社会와 그 압제적인 国家를 벗어나서 저 궁극의 共産社会秩序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하는 問題가 発生한다. 과도기에서 国家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런 問題될 것이 없다. 그러나 実際로는 「레닌」이 말했듯이 「프롤레타리아」階級은 国家를 必要로 했던 것이다. 물론 「레닌」은 国家가 必要하되 그것은 결코 「부르조아」国家는 아니라고 교묘한 단서를 첨가하였다. "우선적으로 「부르조아」国家는 타도되어야 한다. 「부르조아」国家의 멸망의 바탕위에

서 「프롤레타리아」階級은 새로운 政治的 構造 即 「프롤레타리아」国家를 수립해야 한다. 결국 타도되어야 할 国家는 「부르죠아」国家이다"라고 「레닌」은 말했다.

여기서 그는 「프롤레타리아」国家의 새로운 概念을 소개한다. 「마르크스」主義者들에 依하면 「부르죠아」社会는 国家의 存在를 요청하는 最後의 社会로서 理解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르죠아」国家는 人類歴史에 있어 国家의 마지막 모습이다. 「부르죠아」国家 다음에 오는 「프롤레타리아」 国家의 概念은 여기서 도출된다.

「플라톤」 이래 正当한 統治上의 질서에 関한 많은 重要한 의문점들이 人間의 마음을 점령해 왔다. 「레닌」은 이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国家와 社会革命에 対하여 「마르크스」의 原理를 適用할 때 階級闘争의 教育에는 権力이 누구에게도 분배될 수 없고, 오직 人民의 무력에 의지하는 「프롤레타리아」独裁의 政治規範에 対한 認識이 必然的으로 暗示되어야 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레닌」은 最初의 「프롤레타리아」国家를 階級闘争을 수행하기 위한 폭력조직이라고 規定한다. 이 原理는 「레닌」主義의 核心이며, 「레닌」自身이 이것을 「마르크스」思想의 一部라고 못 박고 있을 정도로 이것은 「레닌」主義의 核心인 것이다.

"오직 階級闘争만을 認定하는 者는 아직 「마르크스」主義者가 아니다. 그들은 「부르죠아」政治에서 볼 수 있는 「부르죠아」的 思考方式의 범주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者나 다름 없다."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階級闘争뿐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단결과 国家的 組織까지를 인정하는 者만이 「마르크스」主義者라는 것이다.

「레닌」은 그의 初期 共産主義運動時代에는 「프롤레타리아」階級의 性格을 질서의 組織이 아닌 戦争을 為한 組織이라고 規定한 바 있었다.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바꿔 말하면 未来의 「프롤레타리아」体制는 多目的用의 복합적 性格을 띈 組織이다. 必要에 따라서는 共産主義에

적대하는 勢力에 대해 政府権力의 手段을 동원해서 戰爭을 遂行하기도 한다. 政府機構를 사용하되 人民의 生活을 위한 질서수립의 目的을 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르조아」階級과의 오랜 싸움을 勝利로 이끌려는 目的에서인 것이다.

即 「프롤레타리아」政権은 歷史上 일찌기 없었던 가장 強力한 権力体制인 것이다.'

그런데 「레닌」의 이같은 「프롤레타리아」国家의 概念은 「프롤레타리아」의 政権 掌握과 더불어 階級闘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다 치열한 새로운 段階로 進入하는 것이라는 「레닌」自身의 또 하나의 命題에서 비롯된다. 끝없이 가열되는 階級闘爭이 全歷史 過程을 通해 継続된다는 主張이다.

'즉 階級없는 社会가 建設되어 資本主義가 滅亡할 때까지 継続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한 때 이러한 과도기에 봉착한 일이 있다. 그런데 問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많은 共產主義 思想家들이 그들의 目標 達成을 성급히 서둘면 서둘수록 時間이 점점 더 오래 걸리게 되는 방향으로 천연된다고 하는 바로 이 点에 있다. 「엥겔스」는 世界 共產主義運動이 数 週日 또는 数 個月의 짧은 期間内에 成功的으로 끝날 것이라고 까지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革命은 瞬間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相当한 期間이 걸리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레닌」은 「부르조아」社会가 무너지고 階級없는 共產社会가 創設되는 그 期間 사이에는 전 歷史過程의 오랜 歲月이 가로 놓여 있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날 모든 共產主義書籍의 저자들도 「레닌」의 이런 과도기 概念에 대해서만은 누구나 이의를 갖지 않는다. 그 과도기는 闘爭과 반란과 抑圧과 独裁로 뒤덮힐 것이며 그 期間은 누구도 안녕과 질서를 누릴 수 없고 계속 탐욕적이고 정욕에 차 있으며 야수와도 같은 것이다. 共產主義 闘爭期間이 짧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레닌」自身의 主張과 敎義에서 알 수 있다. 「레닌」

은 실지 共産革命体制의 性格을 規定하고 정당화할때, 그것을 長期間에 걸쳐 拡大되는 無法 乱動状況下에서의 独裁階級의 組織体制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民主主義는 무엇인가?

「마르크스」를 除外한 「엥겔스」와 「레닌」은 「부르죠아」国家의 滅亡後에 올 共産体制가 「파리·콤뮨」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意味의 民主主義的인 体制가 될것이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던가?

「레닌」은 自身이 이 約束을 했던 事実을 記憶하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자신의 独裁体制와 調和시키기 위해 努力을 하였지만 이를 実現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単純히 「프롤레타리아」独裁는 "民主的"이라고 宣言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첫째 그는 民主主義의 定義를 이렇게 規定한다.; "民主主義는 多数에 対한 소수의 복종을 승인하는 国家를 자칭한다. 그것은 結局 「프롤레타리아」階級이 「부르죠아」階級에 対해 체계적인 폭력을 行使할 수 있도록 保障하는 組織이다." 이것은 民主主義에 関한 전혀 새로운 観点이다.

다음 그는 「부르죠아」社会 政治体制와 「프롤레타리아」独裁体制를 有効적절하게 比較한다. 即 "우리가 살고 있는 資本主義社会는 오직 소수의 부유계급만을 為해 잔인한 民主主義의 힘을 과시한다. 共産主義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独裁는 소수 資本家 搾取階級에 対한 必要한 抑圧措置를 병행시키면서 多数 人民의 民主主義를 創造한 첫 시도이다. 따라서 오직 共産主義만이 完全한 民主主義를 보장해 줄 能力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国家와 民主主義에 대한 「레닌」의 主要한 定義와 概念設定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기로 한다.

앞서 主張한 것처럼 「프롤레타리아」들은 国家를 除去할 수도 없고 또 除去해서도 안되며 오히려 共産主義 過渡期에서는 国家体制를 그대로 이용한다. 동시에 「프롤레타리아」는 타도되어야 할 「부르죠아」를 간단히

전복시킬 수 만은 없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国家는 本質的으로 人民의, 人民을 為한 国家인 종래의 国家와는 구별되며, 共産主義 過渡期에 있어서의 国家는 法에 의해 무제한의 힘이 보장된 独裁体制에 不過하다.

그들의 이러한 独裁体制는 戦争을 目的으로 하는 組織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프롤레타리아」独裁는 大衆을 為한 真正한 民主主義이며 人類歴史上 가장 民主的인 体制라고 定義한다.

그러나 民主主義的이라고는 하나 그 새로운 政府는 議会制度를 通해서 運用되는 것이라기 보다 차라리 그것은 소수에 対抗하는 多数에 依해서 行使되는 준 組織的 폭력에 그 基盤을 두고 있다. 결국 그 새로운 国家란 本質的으로 조절된 힘을 行使하는 하나의 勢力인 것이다.

「레닌」은 権力이 革命前衛의 손아귀에 장악되고 있는 동안은 国家는 "強力한 権力과 中央集権体制에 全的으로 의존해야 한다." 고 하였다. 한편 그는 「프롤레타리아」国家는 전통적 意味의 国家라 할 수는 없고 이미 소멸되기 始作하는 国家, 即 폐지되지 않고 소멸하며, 独裁 같으면서도 民主的인 国家라 主張하였다. 強力한 国家이면서도 진짜 国家는 아닌 그런 性格의 国家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레닌」의 모순된 概念이다. 여기에서 누구나 「레닌」의 이 같은 고의적인 大衆誤導策과 自身의 真正한 의도를 숨기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하튼 그가 政治秩序를 이런 方式으로 다루었으므로, 그 결과 自由를 保障하겠다는 約束과 資本主義와 無階級社会間의 独裁에 依한 과도기라는 矛盾을 超来하였다.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이 共産闘争의 과도기에 있다고 믿고 있는 동안은 ─ 물론 이것은 영속되는 상태지만 ─ 그들은 언제까지나 「레닌」이 主張한 대로 共産主義 法律에 依해 무한정의 権力이 承認되고 資本階級에 対한 組織的인 폭력을 위해 組織된 共産独裁体制를 固執할 것이다.

「레닌」적 思考方式의 結果로 因하여 "과도기"의 概念은 時間的으로

앞뒤로 무한정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과도기」는 오랜 동안의 社会秩序를 成功的으로 운용코자 하는 教義에서는 매우 重要한 概念이다.

어떤 社会가 급격한 変化없이 모든 状況과 時代에 걸쳐 存在한다는 것은 그 社会가 秩序있는 안정을 享有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一般的으로 한 社会가 보여주는 연속적인 状況과, 継続 도래하는 時代의 모습은 흔히는 自身속에 어떤 안정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러나 時代와 状況을 거치면서 社会는 그 社会表面에서 認識되는 変化보다 더 큰 変化를 内部에서 継続 거듭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進化的 性格을 띄우는가 혹은 革命的인 性格을 띄우는가 하는 것이며 심사숙고한 行動過程을 통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받아들여 지고 있다는 点이다. 그러므로 모든 関係는 전복되고 폭력만이 제일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된다는 結論에 다다른다.

사람들은 흔히 형태가 뚜렷히 파악되지 않은 現在에 대해 무관심한 체하고, 未来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다.

「마르크스」는 이 点에 착안하여 資本主義에서 共産主義로 移行한다는 그들의 소위 '과도기'에는 政府란 「프롤레타리아」独裁 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性格을 規定지었다.

「레닌」은 이 '과도기'의 概念을 合法政府下에 유지되는 秩序状況이 아닌 혼란과 무법의 폭력상황으로 파악하였다. 「레닌」은 이 '과도기'를 既存 社会的 條件과 社会主義 革命間의 짧은 期間동안 지속되는 中間状態로 理解하는 대신에, 어떤 불확정 기간을 中心으로 과도기를 前後로 확대시켰다.

「마르크스」에 依하면, 「프롤레타리아」 과도기는 資本主義가 종식되고 社会主義国家가 스스로 이룩될려는 때에 비롯되는 「프롤레타리아」 独裁에 依하여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레닌」은 共産主義 過渡期는 「프롤레타리아」 革命独裁의 모든 状況, 즉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부르조아」社会가 発生하려는 時期에 나타

난다고 가정하였다.

그는 덧붙혀서 「프롤레타리아」独裁는 社会発展過程上 資本主義 以前 状況이나 봉건주의 以前 状況에서 가능하다고 暗示를 주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共産主義者들은 歴史 発展段階 구분방식에 따라 歴史는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로 진화한다고 主張한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階級이 支配하는 과도기는 위의 마지막 두 단계사이에서 発生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레닌」은 과도기의 概念을 뒤로 연장시킴으로써 모든 단계에 걸쳐 •과도기•体制의 性格을 認定하였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가 政権을 장악한 후에도 復合 階級들의 存在가 불확정 기간 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階級闘争은 階級들이 社会主義社会에서 政府가 정상화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계속 가열하게 되리라 판단하므로써, •과도기•를 무한한 것이라 主張하였다. 그가 죽은후, 蘇聯人의 思考方式속에 과도기개념의 拡大는 의미심장하다.

근래에는 資本主義에서 社会主義形成까지의 과도기 社会主義形成에서 社会主義까지의 과도기, 社会主義에서 共産主義 形成까지의 과도기 등의 承認이 그들 社会에 通用되고 있다.

그들은 現在 한걸음 더 나아가서 共産主義 初期段階로 부터 그의 成熟段階까지의 과도기를 구상하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시간이 갈수록 보다 많은 과도기의 概念을 拡大시켜 나갈 것이 確実하다. 그러므로 共産主義者들은 과도기라는 명분으로 生活을 점차 전환시켜 왔다.

이제 과도기는 과연 얼마나 오래 동안 더 持続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共産主義 당국자는 스스로 그 과도기가 어느 시점에서 끝날 것이라고 말하기를 拒否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이 約束한 •千年城•에 들어

갈 생각을 갖기전에 충족되어야만 할 여러가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레닌」主義者들이 말하는 이 要求들은 国家가 소멸한 뒤에는 어떤 사태가 올 것인가 하는 問題와 관련이 있다.

「레닌」은 未来 社会의 機能에 関해 몇가지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말하기를 資本家가 소멸하면 階級이 없어지며, 또한 그 社会構成員들은 社会的 生産手段에 대한 関係에 있어서도 社会構成員間에 平等하게 된다. 이 경우에만 사람들이 점차 社会関係의 기본 규범을 理解하게 됨으로써 民主主義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行動해야 할 것을 慣習에 依해서 行動하게 될 것이나, 이것으로 모두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労動이 매우 生産的인 것이 되므로 그들은 자기의 能力에 따라 自発的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教育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지금까지 資本主義 秩序下에서 극단적으로 単純化된 것 중 무엇이 必要한 것인가도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社会는 하나의 事務室과 같이 될 것이다.

이 瞬間부터 社会構成員들은 自己自身을 管理할 줄 알게 되고 모든 生産活動을 自己自身의 손으로 할 수 있게 되며, 종래의 여러 형태의 政府에 대한 要求들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 以外에 또 다른 要求条件이 있다. 「레닌」은 말하기를 "우리는 理想主義者가 아니므로 各 個個人들의 지나친 行動이 있을 可能性이나, 그러한 지나친 行動을 억압해야 한다는 必要性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지나친 行動, 다시 말해서 나쁜 行為는 大衆에 대한 착취의 結果로 생긴 부족과 빈곤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지나친 行動의 主要原因을 除去하면 그 나쁜 行為 自体도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빨리 또 成功的으로 이루어 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확실히 사라질 것만은 알고 있다. 이것이 없어짐에 따라 国家도 역시 같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미래의 社会는 계산이나 사업관리기능을 除外하고는 어떤 支配

形態도 要求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이 機能도 기실은 소수지배자가 아닌 人民大衆 自身에 依해 行使된다. 人民은 점차 秩序整然한 道德的인 慣習의 形成에 익숙해질 것이다.

国民의 思考方式속에 있는 悪의 뿌리는 빈곤과 착취행위가 除去될 때 同時에 除去될 것이다.

새롭고 階級없는 社会는 그러므로 人民이 社会에 適応하고 피차간에 道理를 다할 때에 実現된다. 그 때야 国家는 사라진다. 그 때까지는 우리 社会主義者들은 国家에 依한 社会統制와 労動의 조정 그리고 소비의 管理를 厳格히 要求할 것이다.

그 때까지는 独裁体制가 反論의 여지없이 継続될 것이라는 主張이다.

5. 世界政治(「프로그람」No. 14)

* 「니마이어」博 士

다른 어떤 著書보다도 「레닌」의 〈帝国主義論〉은 오늘날 共産主義들의 聖書로 불리워 지고 있다. 이 책은 世界 第一次大戰 当時인 1916年에 著述되었다.

社会民主主義를 표방하는 欧羅巴諸国의 여러 政党들 間에는 서기 1900年代 이래로 外交政策에 関한 논란이 일고 있었다. 이들 여러 政党들은 이웃 나라와 다른 政党들에 対해 어느 정도 政治的 比重과 影響力을 던져주는 立場에 있었다. 이들은 当時 軍隊의 使用問題와 특히 海外 식민지에서의 軍隊의 使用이라는 問題를 어떻게 解釈할 것인가 하는데 関해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 結果, 戦争과 国家의 自衛 및 식민지소유 등의 問題를 帝国主義와 関聯시켜서 생각하게 되었다.

1902年 英国人 「헙슨」(Habson)은 〈帝国主義論〉이라는 著書를 発刊하였는데 그 후 「레닌」은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룩셈부르그」와 独逸 및 「폴랜드」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은 帝国主義와 戦争間에는 깊은 関聯이 있다고 말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第二次 「인터내쇼날」 때에는 共産主義者들은 그들 스스로 戦争을 회피하고 反対하기 為한 모든 共産(民主)主義 政党들의 단결되고 협정된 行動을 取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1914年 世界 第1次大戦이 발발하자 모든 主要国家의 共産党들은 공동보조의 軍事力 使用을 결정하면서 国際的인 결속의 希望에 부풀게 되었다.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政治学教授
独逸胎生, 「마드리드」「프린스톤」「예일」大学教授
歴任

1916年 「레닌」이 〈帝国主義論〉을 집필할 때에는 이런 일련의 事実들을 고려속에 넣은 채 집필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미 帝国主義와 戦争에 관한 社会主義者들의 討論内容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헵슨」의 帝国主義 分析内容과 「허퍼딘」(Hufferdin)이라는 「오스트리아」의 「마르크스」主義者가 쓴 〈재정자본〉(Finance Capital)이라는 책의 수록내용을 많이 참고하여 가면서 집필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第二「인터내쇼날」을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背信集団'이라고 비난하면서 결별하였다. 그런데 그가 쓴 이 〈帝国主義論〉이라는 著書는 実際에 있어 「마르크스」의 소위 〈資本論〉에 대한 重要한 보충설명자료로서의 意味를 갖고 있다.

그 自身의 表現을 빌려서 말한다면 이 著書 〈帝国主義論〉은 '末期資本主義에 대한 分析'이라는 것이다. 著書의 주된 内容과 項目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진다.

① 독점자본주의 ② 독점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 ③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의 国際政治

「마르크스」가 죽은 後에 「레닌」은 資本主義가 새로운 段階에로 접어들었다는 사실과 대규모의 독점이 자유경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事実을 観察하였다.

물론 독점이라는 것은 生産業体들에 依해 수행되는 価格과 市場의 統制現像이다.

「마르크스」는 일찌기 資本家들의 会社들이 한 곳에 集中하고 中央集権化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레닌」은 이러한 움직임이 20세기 초반 이래 결정적인 독점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처음에는 資本家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努力을 하도록 채찍질하는 경쟁기능이 資本主義의 신속한 発達을 가져온다는 이유에서 경쟁적인 性格과 모습을 지녔으나 조금 후에는 독점형태로 대치되고

말았다.

경쟁체제가 독점체제에 依해 대치된다는 것은 資本主義가 이미 그 未来가 없다는 事実을 意味한다고 「레닌」은 主張하였다.

독점단계는 資本主義의 最高段階이자 最後의 段階라고 역설하면서, "그러나 資本主義의 特徵은 이같은 독점에만 있지 않고 소수 資本家의 手中에 떨어진 은행이 社会全体를 좌우하는 巨大한 기구로 등장한다는 점에도 있다"고 말했다.

「마르크스」가 生産을 감독 지휘하는 소수 기업인에 依해 支配되는 資本社会를 논난한데 비해, 「레닌」은 한걸음 더 나아가 소수 금융인에 依해 左右되는 銀行支配下의 現代的 資本主義를 논난하였다. 자본독점에 의한 기업조작은 必然的으로 재정그룹의 独裁로 나타난다고 그는 主張했다. 즉 銀行도 많고 財政家도 많지만 그들의 統制機能은 소수의 유력한 会社나 指導的인 상사들을 通해서 集中的으로 行使되는 까닭에 銀行과 金融家들의 이익은 주로 財政金融組織의 中央的 位置에 있는 소수 特權者들의 手中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企業体들에 대해 行使하는 金融人들의 集中的인 힘은 社会全体組織에 까지 속속들이 미치며, 그것은 한번 形成되기만 하면 数十億의 사람들을 統制할 수 있게 되므로써 政府의 형태나 国家의 組織이 어떤 社会이냐를 막론하고 그 社会內의 모든 공적생활의 구석구석에 침투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레닌」의 判断이었다.

「마르크스」나 「레닌」은 공히 다른 형태나 性格의 權力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기업가들의 힘의 行使라는 問題만을 물고 늘어졌다.

「레닌」은 기업인의 勢力을 全体 国民과 政府自体와 그 外의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는 勢力이라고 解釈하는 버릇을 가졌었다. 따라서 기업을 支配하는 者는 社会全体를 支配한다는 것이 그의 신앙 속에 뿌리박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真理가 아니고 전혀 「레닌」 自身의 分析에 不過한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自由競争体制가 존속되는 資本主義는 商品輸出을 주로 수행한다. 그런데 独占資本이 支配하는 종반 단계가 지니는 모습은 상품수출이 아닌 資本輸出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위 先進国에서는 잉여資本問題가 크게 일어난다. 이 잉여자본은 後進国에의 침투라는 唯一한 出口를 갖고 있다. 잉여자본이 노리는 곳은 한 마디로 資本이 결핍되고 임금이 싸고 땅값이 저렴하며 原料가 풍부한 後進国家이다. 이런 곳에서만이 投資가 最大한의 수익을 保障받을 수 있다. 그래서 独占資本家들은 資本을 식민지에 輸出한다. 資本의 独占化 공식과 이에 따른 自由競争의 段階的인 制限과 말살은 自己들의 海外投資地域에도 適用, 拡大된다.

金融家들은 市場統制를 의도한다. 그들間의 利権경쟁이 強熱해지면 질수록 세계의 분렬은 더욱 具体化한다.

금융가들은 自国의 政府를 統制하고 그 대신 政府의 市場統制를 상대적으로 협조해 준다. 심지어는 海外地域에 대한 政治的인 支配를 通한 原料의 統制까지도 政府에 協助해준다. 이같은 最高의 発展段階로까지 資本主義가 拡大되므로써 資本国家는 結局 帝国主義化하는 것이다. 独占資本化된 国家의 法律은 제국주의적인 대외정책의 수립과 수행을 요청하게 된다.'

歴史上 처음으로 「레닌」은 오늘의 世界는 強大한 資本主義国家들에 依해 몇 개의 덩어리로 쪼개져 있다고 비난하였다.

'帝国主義者들은 自己들 욕구와 형편에 따라 人類世界를 이렇게, 혹은 저렇게 여러 차례씩 재분할하려는 추태를 거듭할 것이다. 그러므로 帝国主義의 特徴的 性格은 식민지의 이익과 소유문제를 둘러 싼 強大国家間의 끊임없는 긴장과 충돌의 연속을 要求한다는 点에 있다.

이 충돌과 긴장이 現代 世界의 戦争의 要因이 된다. 라고 「레닌」은 主張했다.

그러나 「레닌」은 世界의 戦争原因을 帝国主義라고 하는 한 가지 点에만 국한하는 誤謬를 범하고 있다.

即 '帝国主義는 国家가 選択하는 政策이 아니고 資本主義가 걷게 되는

마지막 段階다.

독점자본과 金融資本의 支配体制가 구축되고 資本輸出이 重要한 政策으로 나타나며 이미 国際的 「트러스트」를 通해 世界 分割 支配를 시도하므로써 資本主義 強大国間의 世界 支配体制가 確立된 資本主義는 帝国主義인 것이다.'라고 「레닌」은 主張한다.

그는 시종일관 帝国主義 概念을 世界政治의 윤곽을 잡아 보려는 方法으로 利用하려 한다. 그러나 世界政治는 本質的으로는 식민지 획득을 為한 闘争이었다. 그러나 이 식민지 획득투쟁은 「레닌」이 集産的(Collective)資本主義国家라고 부른 나라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을 뿐이고,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그같은 集産的 資本主義 国家들은 실지 世界史에서 약소국에 対한 착취세력으로써 모습을 나타낸다. 그런데 「레닌」은 식민지를 소유한 国家와 식민지국가로 全世界를 두개의 集団으로 쪼개고 있다. 만사를 이렇게 두개의 덩어리로 양극화시키는 思考는 「마르크스」主義에 흐르는 전통적 태도이다.

「마르크스」自身은 現在의 世界는 歴史的 闘争過程을 통해서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두 階級으로 分裂되었다고 主張한 바 있으며, 「엥겔스」역시 모든 哲学的 内容이 観念主義와 物質主義의 두 덩어리 속에 整理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레닌」도 全人類世界속에는 「부르조아」勢力과 社会主義 勢力의 両大 勢力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또한 오늘날 世界人類가 軍事的으로 2개의 덩어리로 나눠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들間의 闘争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間에서 일어나는 闘争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레닌」의 이러한 分析은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間에 일어나는 一部의 闘争現像을 그것이 마치 全世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양 国際政治的인 問題로까지 拡大 説明한 데 不過한 것이다.

「마르크스」自身도 認定하듯이 이 地上에는 그 두 덩어리 外에도 그

와 關聯된 다른 重要한 要素들이 있는 것이다. 「레닌」도 形式上으로는 그렇게 主張하나 實際에 있어서는 財政과 外交에서 他国에 의존되어 있는 '準식민지'国家의 国際政治問題에 關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착취국가도 식민지도 아닌 것이다.

「레닌」의 노동자나 약소국을 착취하는 集産的인 資本主義者라는 概念은 그로 하여금 서구라파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감시키려고 努力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帝国主義者는 식민지역에서 착취해 얻은 財産을 自国의 労動者를 為해서 쓴다. 그 결과 「프롤레타리아」의 一部는 「부르죠아」가 되어 「부르죠아」政府의 편이된다'고 말하면서 「레닌」은 이런 사람들은 社会主義에 對한 盲目的 적대자 또는 労動貴族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우리는 「레닌」이 만든 새로운 概念의 新造語들을 많이 본 셈이다. 「金融資本」, 「帝国主義」, 「資本主義의 最高段階」, 「資本輸出」, 「食客資本主義者」, 「世界分割과 再分割」, 「잉여이익」, 「자본주의 소멸」, 「단순집산자본주의자」, 「両大 世界진영」, 「사회주의적 적대주의」등 …의 이런 概念들은 「마르크스」가 著述한 <資本論>이란 著書에 수록된 단어에서 誘導된 初期의 概念들을 대폭 바꿔 놓은 것이다.

「레닌」主義者들은 오늘의 세계 現実을 共産主義者의 안목으로 본 결과 資本主義発展段階, 国際政治関係와 国際政治的事件, 階級闘争의 現在 形態 등의 表現으로 説明하려 하였다.

共産主義者들의 思考方式은 이처럼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表現된 제반 용어들의 概念的 構造속에서 빚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全体的인 구조속에서 본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歴史에 対한 새로운 概念과 国際政治 및 社会主義革命에 관한 새로운 概念을 정의하거나 재 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歴史를 회고해 보면, 유물사관을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극히 重要한 疑問에 対한 解答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즉 資本

主義의 終末이 언제 도래할 것인가? 資本主義의 滅亡時期는 과연 언제쯤 될 것인가? 우리는 資本主義 滅亡時期의 징조를 과연 어떻게 해독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등이다.

「레닌」은 資本主義가 이미 그 최고단계에 들어갔다고 定義하면서 資本主義는 現在 그 存立의 마지막 状態에 처해 있다고 主張하면서 現在의 資本主義의 形態는 과도기의 資本主義라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形態의 더 높은 段階의 資本主義는 찾아볼 수 없다.

「레닌」은 곧 資本主義는 亡한다고 明白하고도 原則的인 답변을 했으나 그가 한 판단이 정당하거나 그 말이 真理와 関聯을 갖고 있다는 실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 「레닌」은 資本主義를 再分析하고 있다. 그의 이 새로운 分析은 「마르크스」가 수행한 資本主義 分析에 対한 보충작업이라 할 수도 있다.

資本主義에 대해 가해진 「레닌」의 이 새로운 分析이 共産主義者들에게 重要시 되는 理由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는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마르크스」의 教義를 통해서 資本主義가 現在 붕괴되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点을 説明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레닌」이 資本主義에 対한 「마르크스」의 규탄에 몇 가지의 추한 모습과 죄악상을 추가시키면서 마지막 段階에 처한 資本主義의 숨막히는 모습을 강조하려고 努力했다는 点이다.

그의 資本主義 存続 成功에의 説明은 하나의 単純한 公式과 같은 것이다. 資本主義가 자국내에서 그 발전가능성이 다 소모되었을 때엔 그 資本主義는 海外에서 착취할 것을 試図하므로써 그 식민지역에서 얻은 이익으로 또 다시 융성, 번영을 맛보게 된다. 개인자본가 뿐만이 아니라 国家資本마저, 식민지역으로부터 재미를 크게 본다는 식이다.

「레닌」은 이처럼 帝国主義 国家全体를 集団資本家들이라고 불렀다. 「레닌」이 그린 独占資本社会의 추악한 모습은 실로 지나치게 가공할 정도다. 即 "実権은 이미 工場소유자의 손에 있지 않고 장막뒤에 숨어서 줄을

끌어 다니는 금융가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産業의 実權者는 存在하지 않는다. 이들과 함께 자연히 株式을 所有하고 있거나 「쿠폰」을 떼어냄으로써 앉아서 돈을 버는 소위 食客資本家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表現하고 있다.

「레닌」의 이같은 内容을 담은 <帝国主義論>이 출간된 후로는 共産主義者들이 상상하는 資本主義의 상징적 지역은 美国의 金融街인 「월·스트리트」인 것이다. 그리하여 共産主義者들에게는 「월·스트리트」는 人民의 이익을 착취할 수 있는 새로운 場所로 理解되고 있다.

세째 「레닌」은 「마르크스」의 国際政治에 대한 說明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実際에 있어 国際政治의 性格 規定에 対한 共産社会에서의 最初의 組織的 分析인 것이다. 그는 強大国의 外交政策을 그들의 経済組織의 概念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레닌」은 "독점자본주의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必然的으로 原料와 価格과 市場에 対한 政治的인 統制權을 行使할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식민지에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戰争도발의 要因을 内包하게 된다"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는 독점자본주의가 自国内에서 일어나는 問題를 가지고 国際政治에서 発生되는 모든 문제를 解釈해 보려고 실로 무리한 努力을 했을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 몰락에 関해 「마르크스」가 지적한 몰락원인외에 새로운 몰락원인을 추가시키고 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그 自身의 生産方式이 갖고 있는 생래적인 経済的 矛盾, 즉 生産方式의 矛盾때문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지만, 「레닌」은 이제 제국주의化 즉 帝国主義的 資本家들 사이의 政治的 矛盾때문이라는 자본주의몰락원인을 추가 지적하였다. 実際로 「레닌」은 事実上 自身의 모든 주의력을 政治問題에 쏟았던 것이다.

실지 「레닌」은 「마르크스」가 資本主義를 說明하던 内容에다 다른 또

하나의 基本的인 意味를 첨가했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他人이나 他階級이나 他国에 対한 착취를 일삼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規定했음에 반해, 「레닌」은 帝国主義化 段階의 資本主義는 戰争의 원인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戰争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독점자본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現代의 모든 戰争은 本質에 있어 帝国主義 戰争이라는 主張이다.

그래서 「레닌」은 이런 概念을 통해서 共産主義者들로 하여금 帝国主義 戰争과 共産革命戰争을 구별할 수 있고, 이를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에 따라 부당한 戰争과 정당한 戰争을 구별하도록 教育시킬 것을 主張해 왔다.

그러므로 共産主義者들은 어느 戰争에 참가할 것인가를 스스로 確実하게 判断할 수 있으며, 참전할 경우 미리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전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들은 지금까지 정당한 戰争과 부당한 戰争으로 구별한 일은 없다. 자위의 경우든, 침략의 경우든 또는 어떤 다른 경우든 간에 옳은 戰争과 부당한 戰争을 구별함이 없이 행동해 왔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이 関聯된 戰争이면 自動的으로 부당한 戰争이요 帝国主義에 対抗하는 革命戰争이면 無条件 정당하다고 判断하는 것이다.

이제 「레닌」의 著書 〈帝国主義論〉을 통해 社会主義者들의 革命의 意義를 規定해 보기로 한다.

첫째 그 著書는 先進資本主義下의 「프롤레타리아」가 이미 예언된 바 있는 革命運動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를 説明한다.

그에 依하면 先進資本主義国家의 労動者들은 資本家에 매수되어 있으며 부패하였다는 것이다. 즉 「부르죠아」階級에 팔려버렸다는 의미다. 先進資本主義国家의 労動者 전부가 썩은 것이 아니고 社会主義에 대한 盲目的 적대자와 労動貴族들만이 썩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第二次 「인터내쇼날」의 실패, 西欧羅巴 社会民主主義者의 경우에 대한 説明인 것이다.

둘째, 더욱 重要한 것은 「레닌」이 말한 세계 양대진영의 概念인 것이다. 「레닌」은 全世界를 식민지소유국과 식민지로 구별하므로써, 自由主義国家와 共産主義国家들이 오늘날 처럼 人類사상 最大의 마지막 결전을 앞에 놓고 피차 대치상태에 서게 만들었다.

「레닌」의 両大진영 概念은 階級으로 構成된 것이 아니고 国家들로 構成되어 있다. 階級의 内容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레닌」의 主張이며 오직 그 형태만이 바뀐다는 것이 그의 변경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階級闘争은 두개의 国家 그룹들 間의 闘争으로 定型化한다. 따라서 이 国家間의 階級闘争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죠아」間의 闘争으로 연결된다는 主張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対한 식민지의 闘争은 착취세력에 대한 闘争이며, 이 闘争은 帝国主義가 滅亡하므로써 종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勝利는 제국주의에 의한 착취를 종식시킬 수 있으므로, 平和를 지향하는 共産国家는 제국주의국가의 敵이요 원수가 아닐 수 없다고 그들은 단언한다.

따라서 共産主義者들은 〈제국주의론〉을 통해 비록 闘争에 참여하고 있지만 平和를 애호한다는 위장을 할 수 있고 식민지 인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手段으로 利用한다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의 눈으로 보면, 결국 식민지 인민의 存在는 이 세계를 構成하는 절대다수의 입장이라고 理解되고 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社会主義革命은 地上의 절대다수 人民에 의해 수행되고 地上의 절대다수 人民을 為해 수행되는 歴史上 唯一한 革命이라고 말하고 있다.

「레닌」은 이처럼 戦略的으로, 숫적으로 소수인 「프롤레타리아」階級을 절대다수인 農民階級과 연결시키고 이 聯合된 多数勢力을 絶対多数라고 불렀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策略으로서 多小 産業化된 나라의 「프롤레타리아」와 저개발国家에 사는 数億의 人民에게 接近하고 있다. 그들과 聯合함으로서 全世界 人類의 絶対多数가 「프롤레타리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理解함으로써 共産革命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제국주의 타도라는 것은 그들의 강력한 신앙이요 구호이다. 共産主義者면 누구나가 必要할 때는 언제나 공산주의 武器庫 속에 있는 効果的인 이 帝国主義라는 「이데올로기」의 무기를 꺼내들고 휘두를 수가 있다.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는 共産主義者들을 支配할 뿐만 아니라 帝国主義라는 理念上의 問題만 없었더라도 共産主義와 아무런 関係가 없었을 수 많은 사람들까지도 支配해 왔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네루」 「낫셀」 「수카르노」 등이 包含되며 이들은 그들 主張의 理由를 주로 「레닌」의 <帝国主義論>에서 引用하고 있다.

「레닌」의 이 著書는 많은 지지자를 全世界에 걸쳐 확보하는데 成功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敵이 누구이며 그들의 闘争이 어떤 것임을 교조적으로 알게 하였다. 그 책은 西欧羅巴의 支配階層의 가슴 속에 일종의 죄의식을 심어 주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힘이 行使되어야 할 순간에 그들 支配階層이 스스로 疑心하고 주저하며 용기를 잃도록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지금까지는 그 책이 西欧羅巴에서 効率的인 비평에 부딪치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나 누구도 그 책이 묘사해 놓은 現実이 事実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첫째 독점에 대한 概念全体는 西欧社会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実際 西欧에는 産業이나 金融의 中央集権的인 集中 現像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一般人의 公的 生活을 모든 局面에 支配하고 있지는 않다. 거기엔 힘의 균형이 형성되어 있다.

어떤 資本도 그 自身의 単純한 聯合이나 集中만으로는 企業勢力을 혼자서 독점할 수 없다. 더우기 組合은 聯盟自体에 対한 政府의 影響力을 制限하는 役割을 한다. 반대로 政府는 大企業体에 対해서 그들의 항의와 反対闘争을 抑制하고 税金을 부과한다. 政府는 또한 立法機能을 通해서 대기업가들의 能力을 制限하기도 한다. 그리고 市場은 역시 기업활동에

対해 基本的인 규제적 요인으로서 存在한다.

西欧社会는, 政治와 経済秩序体制가 1人의 手中에 있고 工場 경영관리자들마저도 政府에 고용된 고용인에 불과한 소련이나 中共과 比較해 볼 때 실로 전형적인 多中心社会인 것이다.

둘째로 제국주의국가와 식민지間의 関係에 対한 「레닌」의 分析도 역시 事実과 다르다. 「레닌」은 帝国主義国家는 絶対的으로 식민지 착취에 의존한다고 말했으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바로는 식민지는 그 식민지와 関聯을 맺은 나라가 각종 協助와 원조를 為해 継続 경비를 支出하는 対像으로 되어 있을 뿐 결코 자국의 이익을 為해 착취하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즉 식민지는 소위 제국주의국가의 支出対像이지 帝国主義国家의 착취대상이 아닌 現実이다. 또한 식민지국가들은 이제 거의 독립되어 있다.

世界一次大戦 후로 국제연맹의 결성과 活動의 結果로 오늘날에는 식민지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海外의 所有物을 식민국에 빼앗긴 本国들도 붕괴의 고통은 당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오히려 전보다 낫게 지내고 있다.

「레닌」은 帝国主義를 일종의 막바지에 접어든 자본주의체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現実은 帝国主義는 하나의 거쳐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事実을 입증해 주고 있지 않는가. 帝国主義는 이미 사라졌으나 「레닌」의 말과는 달리 資本主義国家들은 아직도 存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도 더 번영하고 있다.

세째로 「레닌」은 그의 스승인 「마르크스」가 언급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제반 局面들에 対해 구체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마르크스」는 모든 자유로운 活動을 방해하는 中央政府의 強力한 統制에 의해서 융통성 없고 진취성 없게 된 「아시아」 地域社会에 対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말하기를 이러한 「아시아」地域에서는 수천년만에 西欧羅巴 제국주의의 충동과 자극에 의해서 하나의 最初의 획기적인 変化

가 発生되었다고 指適했다.

西欧社会는 私有財産制度를 실시하고 수천년의 전통을 통해 厳格하게 中央集権化된 東洋社会의 장벽을 허물어 줌으로써,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진행中인 民主主義를 向한 東洋社会의 発展을 可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帝国主義가 어두운 면을 갖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帝国主義란 원치않는 支配者들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나라를 支配하는 것이다.

事実 오늘날 存在하고 있는 帝国主義는 共産主義者들인 것이다. 「레닌」은 金融資本이라는 表現으로서 帝国主義를 規定함에 있어서 帝国主義의 責任을 資本主義世界에게 전가하려고 퍽 애를 썼다. 그러나 「레닌」의 定義는 그것이 아무리 「레닌」의 定義라 하드라도 真実性과 実際性을 거부하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다. 西欧羅巴에 戦争이 存在할 경우, 이제는 이미 과거에 속해 버린 그 어떤 동기에서 된 것이든 間에 남을 支配하려는 의도는 규탄되어야 한다.

結局 우리는 現在와 未来에 있어서는 全世界를 支配하려는 共産主義(第二段階 帝国主義)의 위협앞에 직면해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6. 戰術(「프로그람」 No. 15)

* 「니마이어」 博士

「레닌」의 著書들은 「러시아」 共產党의 「이데올로기」로 展開되어 왔다. 1919年에 蘇聯共產党은 第3次 「인터내쇼날」(共產党大会)을 創設하였고 1920年 여름 所謂 世界共產主義運動 2次 世界会議를 開催하였다. 이 会議를 準備하는 과정에서 「레닌」은 <左翼共產主義 유아기의 混乱> 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또한 国際情勢, 国家問題의 当面課題와 共產党의 機能等을 網羅하는 多数의 論文을 썼다. 또한 「레닌」은 国際共產主義者 同盟을 위한 21個条件을 作成하였다. 이 모든 것을 한묶음으로 묶은 것은 世界共產主義者 運動을 「러시아」 共產党에 대한 理論을 展開시킬 「이데올로기」로서 利用하기 為하여 計劃된 것이다. 그러니까 左翼共產主義는 그것을 超越한 追加된 機能을 가지고 있었다. 即 이는 思考와 實踐의 方針이 되며 이것으로부터 承認받지 못하는 사람은 党으로 부터 追放을 당할 수 밖에 없다. 西欧 여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도 所謂 左翼共產主義者들의 집단이 있었다. 勿論 이들은 색다른 것들을 要求했다. 党独裁의 神話인 労動者들의 工場管理와 「프롤레타리아」 大衆의 民主主義를 원했다. 西欧에서의 左翼共產主義者들은 各自의 路線을 걷기를 願했다. 그들은 積極的으로 非共產党이나 機関, 그리고 団体들과 연합체를 形成하였다.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러시아」에서 共產主義가 勢力을 잡았고 資本主義의 終末이 당도 했으니 共產主義者와의 타협은 勿論 非共產主義者나 다른 団体와의 타협도 必要치 않다고 생각했다.

「레닌」은 革命的左派主義를 代表하고 있다고 主張하는 蘇聯 및 西欧의 左翼共產主義者들의 要求뒤에 숨어있는 억측을 否定했다. 「레닌」은 이것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政治学教授
독逸胎生, 「마드리드」「프린스톤」「예일」大学教授
歷任

을 「革命的 姿勢」라고 불렀다. 이를 排除함에 있어 그는 勝戰後 「러시아」에서 본 것과 같이 歷史的 状況을 分析하고 定義를 내렸다. 以上의 것이 이 책의 主題이다. 이 책이 그 後 지금까지 世界共産主義運動에 対한 戰略 指針의 主要 源泉이 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思想의 一部는 "革命이란 全 人類의 生存을 短時間内에 변화시키는 単純한 하나의 폭발적인 事件이 될것"이라는 印象을 주고 있다. 그후 「마르크스」자신도 資本主義와 社会主義 사이에는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이 「레닌」이 정성들여 고친 思想이다. 「마르크스」는 이 과도기의 政府의 形態는 「프롤레타리아」에 依한 独裁가 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레닌」도 世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結論이었다. 그래서 「레닌」은 權力을 掌握한 後의 과도기는 闘争으로 一貫하리라고 推定했다. 그는 階級闘争은 權力掌握이라는 정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후에도 계속된다고 断定했다. 「마르크스」는 階級闘争은 權力의 掌握 即 「프롤레타리아」에 依한 革命的 成功으로 끝난다고 보았다. 「레닌」은 權力掌握이 闘争의 過程일뿐, 決定的 마지막 勝利는 아니라고 말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階級이라는 것은 도처에 残存한다. 支配者는 「프롤레타리아」에 依한 權力掌握後에도 亦是 수년간 남게되는 것이다. 아마 英国에서처럼 農民이 없는 곳에서는 그 期間이 짧아질 것이다. 階級없는 社会로의 進化는 비교적 수행하기 쉬운 地主나 資本家를 몰아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小規模의 商品生産者마저도 말살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들 小規模 生産者들은 쫓겨나거나 말살시킬 수는 없으며 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반드시 再形成될 수 있으며 再教育 될것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이 作業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徐徐히 注意를 要하는 조직적인 作業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 하잘것 없는 「부르조아」的 분위기에 浸潤되고 腐敗된 「프롤레타리아」는 小「부르조아」的인 無主觀과 와해와 個人主義思想으로 끊임없이 逆行시키는 契機가 되게하며 努力

과 逢合의 気調를 変化시키게 한다.' 資本家와 地主의 逐出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생각한 革命의 主要業務였다. 지금에 와서는 「레닌」은 이를 容易하고 副次的인 일로 미루어 놓았다. 그는 그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하였지만 成就는 거의 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금의 真正한 課業은 所謂 小規模 生産業者들 따위를 없애버리는 일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말할것도 없이 農民들이다. 그들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道徳的으로 士気가 低下되고 있다. 「레닌」은 그들을 「프롤레타리아」를 해치는 存在로서 묘사하였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를 자꾸만 「부르조아」的인 感情世界로 떨어지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強制로 擊波될 수는 없다. 그들에 対한 闘争은 또 다른 敵에게의 闘争으로 끌고 간다. 그러는 사이에 「프롤레타리아」는 農民들과 같이 調和를 이루면서 살지않으면 안된다. 即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의 道徳的 敵에 対抗하며 싸우는 한편 또한 그들과 共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에 依한 権力掌握으로 階級闘争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革命의 全部는 아니다. 権力掌握은 단지 그 出発点에 불과하다. 資本家들을 進化시키는 革命이란 단번에 発生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暴力의 期間도 아니며 오히려 数年間에 걸친 感情과 習慣과 感動과 伝統의 傾向에 対한 闘争이며 共産主義者들이 바라는 存在대로 모든 사람들이 변할때 까지 계속되는 闘争이다. 「레닌」은 革命에 対한 새로운 概念을 제시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独裁는 좀더 強力한 敵에 対한 戦争때문에 転倒된 十倍나 増加된 「부르조아」의 抵抗에 대해서 새로운 階級이 遂行한 가장 決定的이고 無慈悲한 戦争이다. 그 抵抗力은 国際的 資本力과 「부르조아」社会間의 国際的 유대력에만 潜在하는 것이 아니라 慣習의 힘과 小規模生産에도 存在한다. 이같은 理由때문에 「프롤레타리아」 独裁가 必要한 것이며 「부르조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완강함 없이는 不可能하고 그 戦争은 意志의 不屈性과 統合性에 기초한 인내와 訓錬을 要求한다. 또한 「레닌」은 '수많은 사람의 慣習力이나 수많은 사람의 경향성은 굉장한 勢力을

가지고 있다. 中央集權化된 「부르조아」社会를 瓦解시키는 것이 수백만 작은 群小소유자를 말살시키는 것보다 몇천배 더 쉽다. 그 群小 소유자는 日常 「부르조아」들이 바라는 다변한 結果를 이룩하는 환상적이고 타락적인 行為로 誘導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으로서 「레닌」이 길게 끌고온 多段階가 뜻하는바가 明確해 졌다. 「레닌」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전한 내용들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의 要点은 労動階級이 적대시하는 것은 習慣의 힘에 그 根拠를 두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힘"이다. 伝染性과 腐敗性을 征服하는 方法은 暴力으로는 이룩할 수 없다고 「레닌」은 말했다. 이것은 전연 새로운 思想이다. 「마르크스」의 分析은 매우 간단하다. 즉 「부르조아」의 힘은 私有財産에 있으므로 私有財産만 没収하면 支配階級의 勢力은 除去 된다고 갈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階級闘争論에다 自己의 무엇이 「부르조아」를 強하게 만들어 주는가 하는 観点을 덧붙였다.

以上의 것이 그들의 思考方式이고 感情이며 그들의 人民에 対한 일반적인 感情이고 또한 伝統的 人生観이며 일을 遂行하는 態度이다. 「레닌」은 그의 말대로 生死를 건 戦争을 共産革命의 方法으로서 생각하였다. 만약 共産革命의 이런 観点이 「마르크스」의 生前에만 알려졌더라도 別로 많은 追従者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決코 大衆의 注意를 集中시키지는 못했다. 政府나 党이 그들의 生活을 戦争으로 끌고 간다거나 그들을 강제로 새로운 형태의 社会로 몰아 넣을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이에 同意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레닌」은 그렇게 무서운 習慣의 힘으로서 小規模의 生産에 対한 「부르조아」의 勢力을 強調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마르크스」의 主張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를 社会의 悪이라고 하였다. 이 定義에 따르면 資本主義란 大規模 生産이다. 即 資本主義란 한개의 工場에 많은 労動者를 고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한사람

이 여러 工場을 独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레닌」은 <帝国主義>란 그의 著書에서 資本主義를 中央集權과 集中化로 보았다. 그는 「러시아」에서 資本家와 地主를 肅清하고 나서 「부르조아」의 窮極的 힘은 農民의 生産과 小規模 生産에 있다고 宣言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레닌」은 国営農場과 自治団体의 集団化에 対한 理論的 根拠를 마련하였다. 「레닌」의 分析中 세째번 要点은 이 敵意의 要素이다. 即 小規模生産과 農民의 土地所有는 正面攻擊으로는 극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正面攻擊이 農民이나 地主 또는 資本家에 対해서는 가능하지만 習慣의 힘이나 또는 小規模生産의 経済制度에 対해서는 通用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레닌」은 長期的이고 不確実한 共存의 期間을 設定하였다. 이 期間中 党은 農民을 肉体的으로 消滅시킬 의도는 없었으나 外形的으로는 그들과 調和를 이루는체 하며 内面的으로는 敵意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레닌」이 農民에게 使用했던 것보다 더 강열한 用語를 자본가들에게 使用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레닌」은 그의 追従者들에게 경고하기를 그들은 그들에게 심한 나쁜 影響을 끼치고 있는 農民階級과 상당한 오랜 期間동안 같이 共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듯이 이 調和란 것은 平和는 아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敵을 暴力으로 征服할 수 있을만큼 強力하지 못할때 漸次的으로 시간을 끄는 抹殺戰略이다. 이것이 「레닌」이 말하는 共存의 原則이다. 共存이라는 말은 「레닌」이 使用한 것은 아니고 그의 思想에서 따온 것이다.

이 책은 「레닌」의 다른 어떤 著書보다 戰略의 指針이 되는 것이며 戰略에 対한 최종적 權威요, 共産主義政策의 발려인 것이다. 이 책은 実践的인 忠告로 가득하며 모든 共産主義者들은 이 忠告를 独善的 教理로 参照하여 왔다. 이 책의 内容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세개의 根本指針을 들 수 있다. 그 첫째의 원칙은 制度와 調和해 가면서 이 制度속에서 妥協과 伸縮性等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共産主義社会에 依해서가 아

니고 資本主義社会에 依해서 形成된 人間資源과 협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그들의 独裁의 存在 即 忠誠과 好戦性을 갖고 있는 그들의 存在를 전부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되며 우리는 이같은 忠誠心이나 好戦性을 가진 대중을 우리 党으로 소속시키기 위하여 利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레닌」은 結論짓기를 만약 대중이 労動組合과 깊은 関聯을 맺으면 그들이 힘의 원천임으로 労動組合과 함께 일해 나가야한다. 만약 大衆이 議会에다 忠誠을 하면 우리는 議会를 通하여 協同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곳이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만약 大衆이 다른 党을 支持하면 우리는 그 政党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急히 交易団体나 議会 그리고 다른 政党들과도 過度한 信念으로 協同하지 말것을 덧붙였다. 이 思想은 이같은 制度를 強化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共産主義가 이런 制度를 利用함으로써 勢力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부르조아」의 議会와 모든 反動形態의 機関을 깨끗이 처결할 수 없는限 반드시 그들 内部에서 作用을 해야한다. 이같은 새로운 政治理念을 不信케 하여 손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方法은 表面上으로는 이것을 防禦하는척 하면서 不合理하게 이것을 誘導하는 것이다. 左派 共産主義者들은 「부르조아」時代는 이미 끝났고 社会主義 時代가 도래하였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르조아」制度를 알지 못하고 있다. 「레닌」은 人民이란 그들과 親熟했던 制度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法이니 서두르지 말것과, 이같은 戦略的 目的을 為해서는 이들 制度와 조화해 나가는 것이 権力을 掌握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부르조아」와 協同을 피함에 있어서는 内部的으로는 信用을 墜落시키려고 努力하고, 制度로 부터 大衆들을 피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社会의 公共信義를 墜落시키기를 즐기는 것은 共産主義者들의 基本的인 戦略的 行動이다.

第2원칙은 「이데올로기」의 硬直에 관한 共産主義者들에게 대한 경고이다. 共産主義者들은 아직도 약하므로 그들이 妥協에 대한 모색을 하지

않는 限 그들의 勢力追求를 推進시킬 수가 없다. 原則的인 妥協의 拒否는 悲劇이다. 国際的 「부르조아」의 打倒를 위한 戰争은 国家間의 頑強한 普通戰争보다 훨씬 더 어렵고 時間이 걸리며 내용이 복잡하다. 国家間의 利害가 相衝되는 것을 利用하기 위한 餘地나 술책을 拒絶하고, 同盟国과 어떤 妥協을 拒絶하기 위한 가식적 手段을 択하는 것은 窮極的으로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이다. 敵에게 分明히 이롭고 아군에게는 불리한 戰争을 받아드리는 것은 罪悪이다. 明白하게 不利한 戰争을 避하기 위하여 調節하고 妥協할 줄 모르는 革命階級의 政治指導者들은 무용한 것이다.

妥協의 原則은 平和와 文明 保障策의 하나로서 民主主義国家, 特히 文明이 진보된 国家間에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相互間의 信頼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仮定에 뿌리박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革命보다 더 根本的인 것은 없다고 仮想하고 있다. 妥協 即 革命을 위태롭게 하는 妥協에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레닌」은 大端히 明白하게 客觀的 条件에 依하여 強要된 妥協과 革命的인 熱意를 減少시키지 않는 妥協, 그리고 闘争을 조장시키는 妥協사이의 差異点을 分明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方法을 使用함에 있어 伸縮性의 原則이 있다. 「레닌」은 "우리가 모든 戰争의 方法을 通達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勝利는 明確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어떤 方法인가? 「레닌」은 "「프롤레타리아」独裁는 持続的인 闘争이요 피비린내 나고, 無慈悲하고, 乱暴하고도 平和스러운, 軍事的이고도 経済的이며, 教育的이고 行政的인 낡은 社会의 전통이나 세력에 対한 闘争이다."라고 대단히 広範囲하게 指摘하였다.

同時에 그는 고정된 하나의 형태로 궁극적인 그의 기대를 설정하였다. 共産主義者는 이런 모든 일들을 通해서 未来는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反面 그들은 決코 어떤 한가지 방법만이나 武力手段만을 동원해서는 안된다. 武力의 使用은 決定的인 것이 아니고 経

済的인 方法도 教育도 또한 決定的 方法은 아니다. 方法이 暴力的이거나 平和롭거나 그들은 같은 目標를 指向하고 있다. 「레닌」은 共産党의 陰謀性을 나타낸 合法的 闘争과 非合法的 闘争을 한데 묶고 있다. 그러나 「레닌」은 그의 追従者들에게 非合法的 闘争보다 恒常 合法的인 闘争을 追求할 것을 強要했다. 이점에서 바로 어느 共産党이든지 아무 障害없이 아주 自由스럽게 工作할 수 있는 国家에서 까지도 合法的 方法과 地下工作等 非合法的 方法으로 闘争을 할 수 있는 理由가 도출된다.

그들을 主로 「프롤레타리아」의 힘은 弱하고 또한 「부르조아」의 優勢한 힘에 포위당하고 있으며, 「부르조아」의 힘이 精神的으로나 感情的으로도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主要仮説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共産主義者는 만사에 조심스럽게 前進하도록 教育받고 있으며 絶対로 決定的인 政治的 進出을 하지 않으며, 人民大衆이 準備態勢를 갖추고 그들이 党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을때 까지는 絶対로 決定的 方法을 択하지 않는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저술한 당시 第2次 共産主義 「인터내쇼날」은 決定的 순간을 맞고 있었다. 「레닌」은 警告를 要하는 諸問題에 관한 것과 国家問題에 관한 것等의 많은 論文을 집필했었다. 만약 左翼共産主義가 多様한 共産政党의 内部的 原理를 包含한다면 거기에는 「레닌」이 追加하여 著述한 것으로서 全世界戦略의 第一의 輪廓이 包含되어 있다. 그 후 世界戦略은 1928年 第6次 「콤민테른」에서 명료하게 빛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戦略에 관한 서류는 印刷되어 활용되었다. 1920年에는 亜細亜에 있어 農民의 助力으로 革命의 原則에 対한 「레닌」의 革命의원회가 최초로 適用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中央의 統制를 받는 多数의 共産党으로 組織된 세계 共産党의 必須条件을 暗示했다. 同年 「레닌」은 또한 文化와 教育에 관한 青少年団에서 演説을 했다. 그는 또 드문일로 道徳的 原理라는 主題에 対하여도 말했다. 그러나 「레닌」이 便宜主義나 機会主義 그리고 実用主義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는 안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레닌」이 말한 습관의 무서운 힘과 그들의 적에 대한 党의 전면적 극복과 勝利를 그 目標로 하고 있다. 固定된 目標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한 固定된 原則을 갖고 있는 법이다. 「레닌」이 말하는 그의 戦略上의 타협이나 신축성은 다만 싸움에의 技巧에 불과했다. 그는 그의 主要目標는 결코 철회하지 않는다.

그의 이 主要目標를 위하여 그는 결코 道德律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소위 道德的인 것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을 연관 시켰다. 階級闘争은 아직도 進行되고 있다. "우리의 課題는 이 闘争의 利点에다 모든 것을 従属시키는 것이다. 道德이란 착취적인 旧社会를 멸망시키고 「프롤레타리아」를 団合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共産主義者의 道德은 이러한 闘争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레닌」은 말했다.

共産主義 道德을 真理로 信奉하는 「레닌」의 原則을 共産主義者들은 自身의 戦略的 利益에 活用해 왔다. 共産化하지 못한 남은 세계에 이 運動을 연결시켜야할 아무런 根拠도 없다. 특히 西欧国家에 있어서는 道德的 義務나 責任의 정교한 組織아 共産社会의 그것과는 何等의 共通点도 찾을 수 없다. 여기에서 共産主義化의 態度의 核心을 알 수 있다. 即 変動없는 窮極의 目的이 있고 闘争에 대한 無条件의 忠誠이 要求되며 方法에 있어서의 至極한 伸縮性이 그것이다. 「레닌」主義者는 언제나 妥協을 하며 共産主義 勢力을 獲得하기 위해서는 所謂 敵들의 制度를 使用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도 어떤 政治的 運動이 全面戦争으로 発展된 일은 일찌기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실존하고 있는 社会의 各組織自体를 破壊시키는 완벽한 戦術이다.

〈参　考　文　献〉

1. Leninism
   Alfred G. Meyer. Cambridge: Harvard, 1957

2. Lenin, Stalin, Khrushchev: Voices of Bolshevism
   Robert H. McNeal,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3

3. Marxism, Past and Present
   Rovert N. Carew Hunt. New York: Macmillan, 1954

4. German Marxism and Russian Communism
   John P. Plamenatz. London: Longmans, Green, 1954

5. Three Who Made a Revolution: A Biographical History
   Bertram D. Wolfe. New York: Dell, 1964

6. The Origin of Russian Communism
   Nicolas Berdyaev.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0

7. Introduction to Marx's "The Class Struggles in France, 1848 to 1850."
   Frederick Engel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8. Evolutionary Socialism
   Eduard Bernstein. New York: Schocken Books, 1961

9. The Russian Rovolution and Leninism or Marxism?
   Rosa Luxemburg,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1

10. Plekhanov, the Father of Russian Marxism.
    Samuel H. Bar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11. Terrorism and Communism
    Karl Kautsky. London: The National Labour Press Ltd., 1920.

12. Terrorism and Communism
    Leon Trotsk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1

13. Revisionism. Essays on the history of Marxist ideas.
    Leopold Labedz, ed. New York: Praeger, 1962

14. Lenin: The Compulsive Revolutionary
    Stefan T. Possony. Chicago: Regnery, 1964

15. Lenin: A Biography
    David Shub. Garden City: Doubleday, 1948

16. Lenin
Leon Trotsky. New York: Minton, Balch and Company, 1925

17. What Is To Be Done? Burning Questions of Our Movement(1902)
Vladimir I. Len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8. Two Tactics of Social-Democracy in the Democratic Revolution (1905)
Vladimir I. Len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eaching on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1917)
Vladimir I. Len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35

20.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A Popular Outline(1916)
Vladimir I. Len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3

21. "Left-Wing" Communism, An Infantile Disorder: A Popular Essay in Marxian Strategy and Tactics (1920).
Vladimir I. Len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40

22. The Tasks of the Youth Leagues (1920)
Vladimir I. Lenin.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第三節 「레닌」以後의 敎義

1. 「스탈린」의 理念的공헌(「프로그람」No. 16)

* 「니 마 이 어」博 士

요즘 소련 共産主義에서는 「스탈린」의 理念을 말하는 것은 流行에 뒤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그의 著書는 이미 蘇聯 書店街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즉 과연 아직도 그에게 관심을 가질 必要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트로츠키」의 境遇처럼 그저 과거의 사람으로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의 의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인 것이다. 「트로츠키」는 党으로 부터 축출되고 결국에는 反党的 理念의 所有者로서 暗殺당했으나, 「스탈린」은 党으로 부터 축출된 적도 없고, 아직도 위대한 공산주의 指導者로서 記憶되는 것이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의 理念이 아니라 그의 共産主義者로서의 行動인 것이다.

蘇聯 共産党의 公式的 解釈에 따른다면, 오직 그의 말기의 行動만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共産主義 理念에 관한 그의 기여는 바꿔지지도 않았고, 反党的이라고 宣布된 적도 없다.

오히려 그의 共産主義 理念에 대한 기여는 아직도 蘇聯의 指導者들이 가지고 있는 共産主義 理念의 根幹을 이룸으로서는 창시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알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도 알고 「레닌」도 알아야겠으나 「스탈린」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스탈린」의 저작은 13권의 책으로 構成되어 있다. 당초에는 15권으로 기획하였으나, 2권은 끝내 出版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政治学教授
獨逸出生, 「마드리드」「프린스톤」「예일」大学教授
歷任

가장 중요한 그의 共産主義 理念에 대한 著書는 아직도 西方世界에서 소책자형으로 1924年 出刊된 <「레닌」主義의 基礎>와 다음 1926年의 <「레닌」主義의 問題点> 그리고 有名한 "第4章"으로서, 이것은 소위 "短期完成過程"에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서 共産党의 歷史에 관한 教科書로서 쓰여진 것이다. 이 책들은 出版以後 지금까지도 계속 新版이 나오곤 한다. 그러나 "短期完成過程" 속의 "第4章"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体係的으로 辨証法的 唯物論을 解說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탈린」生存 末期에 出版된 중요한 두 소책자가 있으니, 1950年의 <「마르크스」主義와 言語学>과 1952年의 <蘇聯-社会主義의 問題点>이다. 이들 다섯권의 책자가 「스탈린」의 가장 중요한 理念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두권의 소책자가 있으니, 이것은 「스탈린」이 共産主義者의 立場에서 民族性의 問題를 다룬 것이다. 그는 그 問題에 관한 共産党의 公式的 전문가 였던 것이다.

「레닌」의 死亡直後, 「스탈린」은 「레닌」主義에 대한 일련의 강연을 행하였다. 이 강연을 통하여 마치 「레닌」이 「마르크스」死後 그의 思想을 정리요약하였던 것과 같이 「스탈린」은 "「레닌」의 教訓"이라는 公式的인 政治的 권위를 빌어 그의 사상을 정리 요약하였다. 이렇게 해서 「스탈린」은 「레닌」을 비판과 논쟁에서 해방된 独断教理로 変身 시켰던 것이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歷史観 및 現在 및 未来 社会에 관한 理念들을 教理化하였고, 그 바탕위에, 자신의 共産党 組織 및 戦略에 関한 原則을 発展시켰다. 이리하여 「레닌」의 党 組織 및 戦略에 関한 原則들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그 以後로는 모든 共産党 政策 및 그 집행이 独断的, 理念的 고려하에 実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레닌」 자신이 융통성을 그의 教訓의 일부로 만든 以来로는 共産党 政策이 융통성과 同時에 教理的인 性格을 가질 수 있었다.

<「레닌」主義의 基礎> 및 <「레닌」主義의 問題点>의 두 책자는 새

로운 內容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레닌」이 「마르크스」를 教理化한 境遇와 마찬가지로, 重要하다고 생각된 것은 強調하는 方式을 択했다. 「스탈린」은 共産党 組織에 관한 「레닌」의 原則을 '「레닌」主義의 真髓'라고 부른다.

「스탈린」은 『戰略과 戰術』이라는 章에서 共産主義 理念에서 최초로 戰略과 戰術의 問題에 언급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概念을 '밀물과 썰물' 또는 '사슬의 가장 弱한 連繫' 그리고 後에 蘇聯 政策에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된 다른 용어들로 부르고 있다. '밀물과 썰물'이라는 概念은 세세한 政策을 樹立할 때에는 全力을 다해 총궐기할 때와 숨을 죽이고 機会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사슬의 가장 약한 連繫'라는 것은 모든 帝国主義는 単一한 世界体制 즉, 한 사슬을 이루고 있고, 이 사슬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 사슬의 가장 약한 連繫를 공격해서 끊어야 하는데, 대체로 先進資本諸国들은 약한 連繫点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스탈린」은 帝国主義가 가장 쉽게 붕괴할 수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기타 地域国家들의 帝国主義를 攻擊하는 戰略을 세웠다.

「스탈린」의 辨証法 및 唯物史觀에 관한 章은 마치 教会의 教理 問答式으로 未来를 豫見한다. 이 책에서는 一般的인 概念을 권위있게 定義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례에서, 一般概念은 어떤 特定하게 要求되는 態度를 必要로 한다는 示唆와 함께 一般概念論에서 実際 政治로 넘어가고 있다. 그의 方法을 살펴보면 그의 주된 原則들로서는 '萬物의 相互 聯関性의 原則' '継続的 運動의 原則' '革命的 跳躍의 原則' 및 '矛盾의 原則'等이다. 그의 説明에 따른다면 변증법은 아래와 같은 네개의 事実로 説明할 수 있다. 첫째로 모든 사물은 相互聯関되어 있다. 둘째로는 모든 것은 運動 및 유동을 하며, 発展을 거듭하고 있다. 세째로 発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革命的 도약 및 파멸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네째로 이 모든 発展의 원동력은 모든 사물에 内在되어 있

는 矛盾이다. 이 네가지 法則 내지 原則들에 대해서 그는 좀더 자세히 定義해 주고 있다. 그러면 그가 이 法則들로 부터 유도해 낸 結論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一例로 다음의 結論을 생각해 보자 "변증법적 방법이 기본적으로 重要하게 여기는 것은 특정 시점에 있어서 影響力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나, 이미 衰残의 길로 접어든 그러한 것이 아니고, 비록 특정 시점에서는 큰 勢力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現在 계속 上昇하고 発展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변증법적 方法論이란 오직 上昇하고 発展하는 것만을 무적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関心이 가는 부분은 진화론에 대한 철학적 명제와 무적성에 대한 戦略的 結論과의 結合인 것이다. 勝利한 戦争이나 戦闘에 사용하는 概念이다. 고로 発展하고 있는 모든 것은 現存하는 모든 것과의 어떠한 치열한 闘争에서 勝利를 거두어야만 한다고 主張한 셈이 된다. 다음의 引用으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辨証法的 方法論이란 発展의 過程을 원수위의 운동과 같이, 発展하는듯 하나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理解할 것이 아니라, 向上하고 전진하는 運動으로서, 단순으로 부터 복잡으로의 発展으로서, 下位 段階로 부터 高位 段階로의 発展으로서 理解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方法論이다." 위의 진술과 함께 다음의 진술을 살펴보자 辨証法的 方法論은 下位로 부터 高位로의 発展의 過程이 現像의 調和的 展開로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고, 矛盾의 폭로와 사물과 현상에 대한 熱望에 의해, 또한 이들 矛盾에 基礎해서 作用하는 相互対立的 경향들의 闘争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時間의 進行이란 자동적 発展속에서의 계속적 향상운동이다. 그러나 発展이 점진적 革命의 形態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闘争에 의해서 그의 말대로 하자면 도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위와 같은 一般的 진술에 이어 「스탈린」은 매우 구체적인 政治的 結論을 이끌어 낸다. 다음의 세가지 結論이 그것이다.

"고로 政策的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과거가 아니라 未来를

바라 보아야 한다."

"고로 政策的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革命家가 되어야 하지 改革家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로 政策的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비타협적인 「프롤레타리아」階級의 政策路線을 추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辨証法的 唯物論이 철학의 한 体係로서 가르쳐 졌으나, 共産主義의 實践行動에도 절대적 影響力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스탈린」은 여기서 변증법을 하나의 方法으로 말하고 있다. 사실상 그 자신의 말을 살펴 볼때 변증법이란 하나의 方法이라기 보다는 궁극적 현실에 대한 한가지 見解이며, 특히 運動하고 変動하는 사물에 관한, 또한 歷史의 궁극적 終着点에 관한 명문집인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唯物論이 問題로 남아있게 된다. 왜냐하면 변증법이 반드시 唯物論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헤겔」이 唯物論者가 됨이 없이 변증법으로 歷史를 解釈했던 것처럼 辨証法으로 歷史를 解釈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運動의 法則으로서 辨証法을 使用하지 않고서도 18世紀의 「프랑스」 哲学者들과 마찬가지로 唯物論者가 될 수도 있다.

「스탈린」은 네가지 명제로서 辨証法을 定義한 後 다음의 세 명제로써 唯物論을 定義 한다.

첫째, 이 세계는 그 근본 性質上 唯物的인 것이다.

둘째, 사물이란 客観的인 実体로서 人間의 精神과는 独立해서 存在하는 것으로 人間의 精神과는 対立하는 것이다.

세째, 이 世界와 그 法則은 비록 特定時点에서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完全하게 把握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스탈린」은 이 전제들로부터 実践的 結論을 이끌어 낸다.

"고로 政策的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들의 党은 그 活動을 人間의 理性이라는 抽象的 原理들의 바탕위에 놓을 것이 아니라, 社会発展의 原動力으로서의 社会의 物質生活의 状態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고로 政策的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党은 그 計劃과 実際 行動에 있어서 주로 生産発展의 法則으로 부터 出発하여야 한다.˝

세가지 概念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모든 共産主義 理念은 모든 사물을 説明할 수 있다고 主張하는 체계를 갖춘 哲学위에 입각해 있다.

그들의 主張은 모든 사물이 어떤 状態에 있으며, 어떻게 変化하며, 人間은 어떻게 行動해야 하는가를 説明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 辨証法的 唯物史観은 抽象的 思索으로서가 아니라 行動의 指針으로서 간주된다. 「스탈린」에 의하면 사물이란 있는 그대로가 現実이기 때문에 오직 옳은 政策은 하나밖에 없다고 함으로서 「스탈린」이 말하는 것은 모두 옳은 것이 된다. 그는 政策에서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기본적 真理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째로 辨証法的 唯物論이란 後者가 그것이 어떠 어떠한 哲学이라고 생각하고 있건, 확실히 第1次的인 精神的 原動力인 것이다. 이 理論은 共産主義者들에게 동기를 불어 넣어주고 또한 그들의 모든 力量을 현대 어느 西欧哲学도 할 수 없을 程度로 指導하고 있는 것이다. 唯物論과 辨証法은 하나의 概念体系로 結合되어 있는데, 실은 그들은 성질상 양립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唯物論이란 궁극적 現実은 物質이라는 概念으로서 오직 한가지 実体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한 사물이 変化하였다면 우리는 그 한 実体内에서 自体的 結合이 変化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화의 문제라고 하겠다. 반면 辨証法이란 闘争과 矛盾과 跳躍을 통한 変化의 원리로서 변화와 도약과 진화에 수반하는 새로운 성질이라는 概念을 도입한다. 辨証法이란 분명히 闘争, 革命, 긴장 및 갈등에 모든 강조점을 두는 反面, 唯物論이란 進化論的 結果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辨証法과 唯物論間의 차이점들이 学問的인 意義만을 갖지는 않는다. 蘇聯 哲学者들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구별하지 못한 結果로 그들 자신들의 自由와 生命을 잃었고, 党은 매번 唯物論이 주창자들과 辨証法의 주창자들 간의 対立으로 分裂을 거듭했던 것이다.

辨証法的 唯物論哲学은 그 自体内에서 統一되지 못하며 그리고 그것은 共産党이 関聯되는한 分裂된 개성을 초래한다.

이제 「스탈린」의 後期 생애에 대한 소책자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 두 소책자는 광범위한 討論의 結果이며, 그 討論은 명백하게 共産党自体에 의해 선동되었다.

그리고 그 討論에서 「스탈린」은 마지막으로 최고중계자로서 등장한다. <「마르크스」主義와 言語学>이 그 討論을 끝맺는바, 거기서의 희생자는 「N.Y. 마」(N.Y.Marr) 였다。그는 그때까지 蘇聯에서 言語学에 대한 論議의 여지가 없는 최고권위자 였다. 그는 정통적 「마르크스」主義式으로 言語는 所謂 상부구조의 부분이었다고 主張했다. 「마르크스」는 모든 사물의 근본을 経済力과 経済的 相互関係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근본위에 한편에선 法則과 政府와 国家를 構成하는, 또 한편에선 哲学과 宗教와 理念을 構成하는 상부구조가 일어나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 말을 모든 위대한 形態의 社会는 그 자신의 상부구조를 가지며, 言語란 이 상부구조의 한 부분이라는 뜻으로 理解했다. 「스탈린」은 이 討論을 선동하고 그리고 권위적으로 討論을 귀결시키고 나서 「마르크스」의 권위와 思想을 거세하였다. 만약 言語가 「스탈린」이 말한바대로 상부구조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階級規定의 한 부분이라면, 모든 階級은 그 自身의 言語를 가지게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言語란 상부구조의 한 부분이 될수 없으며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소유물이다. 共産主義者의 特性은 그들 理念속의 새로운 概念과 새로운 강조와 解釈과 用語에 의해서 変化되어 왔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見解에 대한 「스탈린」의 평판은 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이는 다음 두가지 観点에서 観察할 수 있다.

첫째 「스탈린」의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둘째 이 소책자가 어떤 結果를 惹起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스탈린」의 의도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問題는 결코 完全하게 명백하지는 않고, 다만 그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확실히 그는 「마르크스」가 상부구조라고 부른 것을 強調하려고 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상부구조도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고, 「마르크스」는 社会의 政治的인 様相을 経済的인 측면에도 종속시켰다. 아마도 「스탈린」은 逆으로 중점을 두는데 興味를 가졌던것 같다. 아마도 그는 人間에 속하는 어떤 것을 国家나 政府나 法則이나 哲学이라고 부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모든 共産主義 理念의 要素들에 反対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言語는 위의 것들과는 다른 것으로 無害한 것이며, 階級闘争으로 부터 言語를 끌어 올려 그것이 상부구조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宣言함으로써 그는 階級闘争위에 선언될 수 있는 기구 이론의 後期発展을 위한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바꾸어 말하면 政治学에 있어 共産党 政府理論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言語学에 관한 소책자는 우리가 미래 세계질서에 대한 展望을 発見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世界言語 즉 「러시아」語, 中国語, 英語가 남을 것이며 이것들이 나머지 言語를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에는 이 3개의 言語가 하나의 世界言語와 단 하나의 世界文化로 변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帝国主義 滅亡以後에 일어날 것이라고 「스탈린」은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날에도 「스탈린」이 言語 思想에 의하여 도달한 그 未来世界秩序에 대한 概観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言語理論은 그것에 의해서 政治思想을 출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소책자는 간접적으로 사고의 어떤 부분을 辨証法的 唯物論에 국한 시키려는 강압으로 부터 解放시키는 効果를 가져왔다. 言語나 言語学的 訓練以後에 理念的인 구속으로 부터 脱出하는 것은 形式論理学이다. 그후 数学이며, 마지막으로 理論物理学과 化学이다. 이러한 解放이

生物学에서는 中止된 것을 発見한다. 그 이유는 生物学이 人間과 人間性에 너무 밀접히 関聯되어 있기 때문이다. 生物学과 흡사한 모든 哲学의 측면들, 즉 人間性과 行為의 原則과 人間의 숙명과 関係되는 哲学은 아직도 硬直되어 辨証法的 唯物論의 要請에 의하여 統制되고 있다. 그 以後에 「스탈린」은 経済問題에 関한 討論을 시작 했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社会와 그 経済法則을 分析하였다. 그러나 그는 社会主義 社会의 未来에 대한 経済理論과 같은 것을 発展시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1917年에 共産主義者들이 権力을 掌握했을때, 그들은 経済的 社会主義를 어떻게 建設할 것인가에 관한 公式的인 方向提示는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단지 막연하게 모든 것이 資本主義와 정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正確히 어떻게 社会主義 経済가 가능하게 될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1952年의 討論에서 「스탈린」은 社会主義 経済問題에 注意를 기울였다. 그는 그의 討論을 그가 죽기 직전 出版된 소책자에 남겨 두었다. 経済問題에 관한 소책자는 한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言語学에 관한 것과 비슷하다. 経済法則은 言語法則처럼 社会의 주어진 形態를 超越하며 自然法則과 흡사한 정당성을 갖는다고 「스탈린」은 主張한다. 経済学과 言語学은 그 構造위에 人間이 그의 일상생활을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두개가 비슷하다고 「스탈린」은 말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는 이러한 経済問題에 대해서 「마르크스」主義的인 진단보다는 商業的인 方法으로 접근했다. 물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른다. 이 자체가 이미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스탈린」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그는 主張하기를 蘇聯과 같은 社会主義 国家에서는 마치 価値의 法則이 商品의 価格을 支配하고 決定하는 것처럼 日用品 生産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마르크스」의 <資本論>은 日用品 生産에 관한 章으로 부터 시작되는데 日用品生産이란 주로 市場에서 商品을 販売하기 위한 生産이다.

価値의 法則은 日用品은 労動代価에 의해 決定된 価値에 따라서 販売된

다고 말한다. 「마르크스」에 있어선 이러한 特性들이 資本主義 社会의 悪이며 이러한 悪들은 私有財産의 生産手段이 제거됨에 따라 소멸될 것이라는데 있어서 疑心의 餘地가 없다. 지금 蘇聯에는 私有財産의 生産手段은 없어졌지만 「스탈린」은 日用品生産과 価値의 法則은 存続해 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蘇聯 経済를 무한하게 特性지워 줄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当代를 支配하던 者의 著書에서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社会主義 経済라는 것과의 엄청난 결별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가 資本主義의 근본적 悪이라고 생각한것, 즉 사용을 위해서 보다 판매하기 위한 생산은 私有財産의 生産手段이 除去된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스탈린」의 다른 두개의 思想에 관해서 言及해 보기로 한다. 그는 상당한 努力을 기울였으나 社会主義 経済理論의 公式化에 成功하지 못했다. 그가 社会主義의 根本的인 原則으로 얼버무린 것은 하나의 지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全体로서의 社会의 必要를 社会의 個個 構成員의 필요보다도 強調한 것이다.

「스탈린」이 말하는 기본적인 社会主義 経済法則이란 "끊임없이 惹起되는 全体社会의 物質的, 文化的 要求에 대한 最大限의 満足을 辨証法的 方法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社会主義의 生産을 拡張하고 完成시킴으로써 획득하는 것이다." 위의 経済法則은 消費財보다는 資本財에 計劃的이며 지속적인 중점을 두며 個人의 利益보다는 国家의 利益을 強調한다. 「스탈린」의 또 다른 思想은 貨幣, 賃金, 貿易이 없어지기 전에 그리고 共産主義의 마지막 段階가 成就되기 전에 充足되어야만 하는 共産主義者의 要求에 대한 그의 定義에서 나타난다. 「스탈린」은 세개의 条件을 要求하고 있다.

a. 合理的인 経済秩序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보다 높고 보다 위대한 生産手段의 発展

b. 集団農場의 国有化

c. 社会의 文化的 発展, 무엇보다도 人間 精神力의 総体的 開発

첫째의 두가지 条件은 蘇聯 政策에 있어 恒久的인 指令을 이루고 있다. 보다 많은 資本財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위해서가 아니라 社会의 神化的 未来를 위해서 産業発展을 育成한다. 集団農場의 国有化는 農場労動이 궁극적으로 工場労動과 매우 흡사하게 조직될 것을 直視하는 目的을 達成하게 된다. 말하자면 農夫가 雇傭員으로 転落하게 되고 中央集権的 官僚主義와 職工長이나 工場長과 같은 機構에 支配 된다. 하지만 마지막 条件은 人間에 대한 要求이다.

「스탈린」은 우리가 理想的인 人間이 된다면 共産主義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理想的인 人間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탈린」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의 「알리바이」를 設定해서 그것에 의해 가장 높은 達成点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항상 변명할 수 있고 그들이 아직도 進行中에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스탈린」은 大衆教育에 明確한 재능을 가졌다. 그는 「레닌」의 教理를 単純化 했고 쉽게 理解될 수 있는 形式으로 바꿨다. 게다가 그는 蘇聯 政治理論 및 経済理論에 대한 基礎를 마련할려고 努力했으나 成功하지 못하였다.

「스탈린」의 어떤 著述도 公式的으로는 거부되지 않았으며 그의 思想또한 비난받지 않았다. 「스탈린」은 熱狂的이고 매혹적인 著述을 남겨놓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蘇聯 共産主義 理念의 基礎에 공헌을 했으며 아무도 그를 看過할 수는 없다.

2. 「후르시쵸프」와 「스탈린」格下運動 (프로그람 No. 17)

* 「드라코빗치」 博 士

「후르시쵸프」治下에서의 소련은 「스탈린」治下의 소련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어려운 것은 両者의 差異点의 歴史的인 깊은 意義, 그리고 그 相異点을 評価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近代 共産主義의 核心的인 理念 즉 「스탈린」主義라고 하는 것은 다루기가 비교적 쉽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은 특히 「스탈린」支配下에서의 特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스탈린」支配의 末期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보다 폐쇄적이고 고루한 性格을 띄고 있는 것이다.

「니키다 후르시쵸프」의 統治는 그와 反対로 우리에게 상당히 어렵게 비추어 지며 그것을 당장 분명하게 또 올바르게 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그 可能性, 歴史的인 役割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本人은 세개의 題目을 中心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스탈린」主義의 現象과 알려지지 않은 局面, 그리고 1953年 3月 「스탈린」이 사망한 후에 黙示的으로 「스탈린」格下運動의 局面이 表現되었을 때 둘째로 1956年 2月 소련共産党 第20次大会에 있어서의 秘密演説을 통한 有能한 「후르시쵸프」의 公式的인 「스탈린」格下 「캠페인」의 始初를 다루고 세째로 소련의 「스탈린」格下運動이 国内와 国際的 水準에서 상당히 고난의 길을 겪어 왔으며 1961年 10月 소련共産党 第22次大会에서 採択된 새로운 党의 綱領까지의 問題를 다루고저 한다.

1953年 3月5日 「스탈린」이 사망한 直後에 일어난 여러 가지 反譲의 原因에 対해서 이야기 하게 되면 「스탈린」治下 특히 「스탈린」生涯末期에 있어서의 그의 時代의 基本的인 特質이 간단히 説明될 수 있다.

---

* Milorad Drachkovitch: 「스텐포드」大学 「후버 研究所」研究委員
「유고」胎生, 「스위스」「제네바」大学 Ph.D
「하바드」大学 「러시아研究所」研究委員歴任

아래 三大要素가 基本的인 重要性을 띄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무시무시한 「테러」体制인 바 이것으로 인해서 현존하고 있는 모든 警察組織을 国家内의 真正한 한 国家로 변모시켜 놓았던 것이다.

저명한 英国의 歷史家 「워트슨」(Hugh Sitton Wattson) 敎授는 이와 같은 現象을 아래와 같이 叙述하고 있다. "소련의 秘密警察은 그들만의 「엘리트」精随軍隊를 가지고 있었고 또 内部의 軍隊와 国防警備隊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自体의 空軍과 또 空港 그리고 工場과 鉄道 그리고 그들 自体의 領域이 있고 또한 그들 自体의 労動者들에 의해서 営為되는 그들의 領域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権力은 그들 自体内의 領域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고 그들 自体의 維持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다.

소련의 政府機関과 政府企業体들은 그들의 特別部署와 秘密部署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機関内에 보안경찰의 특별설합이 있어서 그들의 첩보활동의 中心地가 되며 政府内에서 企業組織内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난, 도발, 정보활동의 中心地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공포감이 소련政府와 모든 組織内에 침투된 것은 특히 「스탈린」生涯의 最後末期에 가장 무시무시 하였으며 마치 1936年과 1938年度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流血粛清이 再演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니키다 후르시쵸프」의 말을 빌리면 「스탈린」의 피해망상증은 믿을 수 없는 境地에 까지 到達하였다고 하며 특히 그 末期에서 더욱 甚해졌다고 한다. 우리는 「스탈린」이 조금 더 살았더라면 그 새로운 粛清이 얼마나 거창할지에 対해서는 오로지 추측해 볼 뿐이다. 그러나 分明한 것은 만일 이와 같은 새로운 공포가 일어났다면 이것은 「스탈린」의 가장 친근한 벗들과 동료들에게 対해서 거의 말로써 表現할 수 없는 粛清이 되지 않았을까 予測되는 바이며

두번째 要因으로서는 그와 같은 粛清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歷史上에 일찌기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만큼 組織的으로 「스탈린」個人의 崇拝에 対한 強力한 결속을 요구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탈린」의 公共的인 公務에 관한 個人的인 能力에 対해서 그들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스탈린」은 党의 書記長이라는 위치로 부터 共産主義와 人類의 가장 위대한 指導者로 올라섰다.

세번째 要因은 「스탈린」이 소련을 支配하는데 있어서의 特徵에 関한 要因인 것이다. 共産党이 비록 그 運営에 있어서 三分化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스탈린」은 그 権限을 無条件 委任하지는 않았다. 「스탈린」의 불신감은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個人的인 特質이겠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련의 政府機構를 党과 政府로 分離하여서 競争을 시키고 그의 支配機構를 重複化 함으로서 個人支配의 安全性을 増進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와같은 一般 国民経済生活에 関한 行政的인 位置 즉, 모든 経済的 決定이 中央에서 이루어지는 実情에 対해서 그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세가지 要因을 把握하게 되면 「스탈린」生涯에 있어서의 소련社会가 왜 결빙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거의 마비될 정도로 얼어서 동면해 버린 状態로 되었는가를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폴자이너」(Polziner) 教授는 아래와 같이 記述하고 있다. "이와같이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공포감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国民들은 거의 団結할 것 까지도 생각 못하고 적절히 反応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우리가 理解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말을 들으면 치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1953年 3月6日 「스탈린」이 逝去하였다고 発表된 몇 시간후에 公共宣言文이 党과 政府의 最高機関에서 発表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리더쉽」의 偉大한 団結의 必要性을 호소하고 있으며 어떠한 形態의 혼란과 공포감도 予防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두가지 用語, 「혼란」과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이 「스탈린」후계자들이 追求한 「스탈린」格下運動이 絶対的으로 必要했는가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열쇄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事実上 비록 모든 것이 静態的으로 보였고 「스탈린」의 中東部 구라파諸国과 소련의 모든 것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

는것 같이 보였으나 「스탈린」治下의 침침한 마지막 몇個月 동안에 있어서는 거센불만의 구름이 점차 모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著名한 소련의 史学家이며 政治論評家인 「보리스.니콜라프스키」(Boris Nikolapsi)씨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스탈린」의 편집광적 폭정은 잠재적 폭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 소련市民 個個人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不安感의 総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차 늘어 나가고 있는 技術的 「인테리」階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들 수 있다. 대체로 親共産主義者였던 불란서의 哲学家 「장·폴·사르트르」가 1956年 11月에 「스탈린」政權下의 중동부 구라파를 叙述한 바와 같이 「공포와 불안」이 팽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혼란과 공포감이 「스탈린」死亡直後에 如實히 예견될 수가 있었다. 먼저 1953年 6月에 특히 全東独이 共産主義 政權에 항거하는 궐기를 하였고, 몇週後에는 「시베리아」에 있는 「볼코다」強制労動收容所가 收容所 当局者에 対抗하여 궐기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것은 「스탈린」生涯 中에서 도저히 想像할 수 없었던 것이다. 同時에 「스탈린」이 없어졌다고 하여서 소련자체에서 共産主義 政權을 전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企図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나, 東独에서는 즉각적으로 進駐한 소련군대의 간섭에 依하여서 組織되지 못하고 즉흥적인 大衆의 궐기가 무자비하게 탄압되었던 것이다. 「스탈린」의 後継者들은 그 当時와 또 앞으로도 相当期間동안 적어도 소련과 中部구라파에 있어서의 共産主義体制를 維持하기 為하여서는 「스탈린」主義式 政府의 強圧的인 要素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서 「스탈린」의 死亡 直後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스탈린」이 사라지고 난 소련政府에서는 「스탈린」格下運動의 必要性을 소련의 秘密警察 指導者인 「베리아」까지도 포함하여서 모든 소련의 지도자들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며 그들은 서로가 소련市民들의 個人的인 安定感의 要求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탈린」이 死亡한 直後 열흘동안에 그의 後継者로 보이는 「게오로그

말렌코프」는 「스탈린」이 갖고 있던 최고의 權限을 자기 손아귀에 들어 쥐게 되었다. 그 짧은 기간동안에 그는 共產党 第一書記의 자리를 「니키다 후르시쵸프」에게 넘겨주고 스스로는 그後 二年間 소련首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当時 共產党의 最高政治機構는 소련共產党 中央委員会 幹部会議인데 그 会員이 10名으로 감축되었으며 그중 3名은 「말렌코프」와 「몰로토프」 그리고 「베리아」인바 이들은 最高의 三頭体制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같은 새로운 조처는 「스탈린」의 個人支配에 対한 「안티·테제」로서의 集団 指導体制의 形式으로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와같은 体制가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1953年 7月 「베리아」는 서두르게도 国民들의 점차 自由化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병행하려서 자기가 모든 權限을 장악하려고 試図하였고 그것이 소련共產党 中央委員会 幹部会議의 동료들에 의해서 自己의 秘密警察의 組織이 체포되고 銃殺됨으로써 挫折되었다. 그의 去勢는 또한 그의 追從者에 대한 粛清을 가져왔으며 나아가서는 秘密警察의 解体까지에 이르렀고 특히 秘密警察의 特權的인 地位가 해체되었으며 国家内에 또 하나의 国家를 세운다는 特殊地位가 와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全体主義 国家에서의 秘密警察의 不可欠한 役割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아니고 단지 「스탈린」主義的 공포정책의 專制的인 独断性이 저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權力闘争은 継続되었으며 단 종전과 비슷한 폭력적인 性格만을 取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權力을 위한 唯一한 「라이벌」은 党 第一書記인 「후르시쵸프」와 首相 「말렌코프」였는바 「말렌코프」는 消費財의 生產增強이라는 상당히 国民의 人気를 얻는 「슬로간」을 내세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후르시쵸프」는 마침내 1955年 2月에 「말렌코프」를 去勢하였는데 成功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말렌코프」의 頂上을 指向하는 野望에 対한 결정적인 공격이었으며 그리하여서 「스탈린」에 버금가는 政治人으로서의 巨頭가 没落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共産党 中央委員会 幹部会議의 또 하나의 멤버인 「니콜라스 불가닌」이 그후 3年間 「말렌코프」를 대치하여 首相이 됨으로써 「후르시쵸프」와 함께 소위 새로운 集団指導体制에 있어서의 가장 強力한 政治的 人物이 되었던 것이다. 「스탈린」의 死亡以後 3年만인 1956年 2月에 開催되었던 소련共産党 第20次大会(이것은 특히 「스탈린」의 死亡後 최초의 소련共産党大会였다)에서는 어느 정도 黙示的으로 나마 암암리에 「스탈린」格下運動에 対한 気運이 감돌았던 것이다.

경찰공포주의에 依한 통제방식은 마비되었고 党과 政府機関間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와같은 것도 어느정도 解消되었고 모든 것은 党에 有利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후르시쵸프」의 탁월한 「리더쉽」에 依해서 정비되었던 것이다. 「스탈린」治下에 있어서의 文化生活에 対한 独裁도 점차로 없어졌으며 1954年에 出版된 「보리스·파스테르나크」의 小説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술가들에게 많은 自由를 許容하게 되었다.

外交政策面에서의 変化는 더욱 현저하다. 소위 새로운 路線이 「항가리」에서 「엘마나시」首相下의 政権下에서 1953年 이래로 용납되었으며 「말렌코프」의 特赦, 그리고 韓国戦争에 있어서의 停戦이 1953年 7月에 이루어 졌으며 「티토」와의 関係改善이 追求되었고 특히 「티토」는 「스탈린」의 원수였던 바 「후르시쵸프」가 1955年 5月에 「벨그라드」를 방문 함으로써 이루어 졌고 西方国家間의 頂上会談이 1955年 7月에 「제네바」에서 開催되었으며 同年 末에 「후르시쵸프」와 「불가닌」은 関係改善을 위한 여행을 「인도」, 「버마」와 「아프카니스탄」으로 떠났던 것이다. 이와같은 것은 「스탈린」의 死亡後에 「스탈린」의 극단적인 고루한 外交政策時代이후 새로운 外交政策의 出現을 代辯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새로운 外交政策의 展開라는 것이 소위 냉전체제의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보다 活気를 띈 冷戦의 開始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英国의 소련問題 専門家의 말을 빌린다면 "소련의 外交政策은 계속해서 구라파의 中立化를 指向하고, 美国의 孤立化를 指向하며,

또한 開発途上国家에 대한 進出을 지향했던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은 理由로 말미암아서 1956年初에 「스탈린」主義的 国内政治 및 外交政策은 大部分 죽은 独裁者를 공공연하게 비난하지도 않은 체 포기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소련의 第22次 共産党大会가 끝날 무렵인 1956年 2月24日과 25日사이의 밤에 「후르시쵸프」는 솔직하고 신랄한 공격을 「스탈린」治下의 여러 부문에 대해서 퍼부었던 것이다. 「후르시쵸프」는 대체로 四個범위의 죄악과 신비주의가 「스탈린」治下에서 「스탈린」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그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다.

첫째로 그리고 가장 重要한 것은 「후르시쵸프」의 말을 빌리면 「스탈린」에 대한 個人崇拝主義인바 이것이 점차적으로 増進되었고 特定時点에 있어서는 그것이 党의 重大한 路線을 심각하게 悪化하기도 하였으며 또 党의· 民主主義와 革命的 法体制를 마비시키기 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첫째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후르시쵸프」가 「스탈린」의 論題를 拒否한 것이다. 사실상 소련에서 恣行된 「스탈린」의 공포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련의 社会主義를 막아버렸으며 그리하여 共産主義者들에게 보다 많은 敵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스탈린」의 "怪物과 같은 行動"으로서 많은 同族을 自己나라로 부터 追放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스탈린」의 고루한 外交政策으로 말미암아 소련이 外交関係에 있어서의 難局에 이르렀다는 「후르시쵸프」의 主張인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個人崇拝 強調에 대한 「후르시쵸프」의 공격으로서 「스탈린」治下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후르시쵸프」가 공격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이 点은 상당히 重要한 것인데 「후르시쵸프」가 自己의 報告書에서 強調한 바와 마찬가지로 "内戦에 있어서 「스탈린」의 社会主義 革命을 執行하는데 있어서의 役割, 그리고 우리 祖国에 있어서의 社会主義의 建設을 為한 闘争"을 強調했다.

「후르시쵸프」는 「스탈린」의 個人的인 탈락이 1934年 소련共産党 第17次大会때 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換言하면 「스탈린」이 소련의 非共産主義者들에 対해서 한 모든 行動은 그의 革命的인 長点으로서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탈린」이 비난 받는것은 「스탈린」이 共産主義者를 肅清하는 犯罪와 過誤에 対해서만 퍼부어진 것이며, 共産主義 理想을 보다 効率的으로 하기 위하는데 있어서의 失敗를 비난하는 것이 特色인 것이다.

「보리스 니콜라에프스키」에 의한다면 "「스탈린」의 共産主義者 同僚에 対한 犯罪에 있어서 가려진 点은 이제는 分明히 들어났고 비난 당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이 소련人民에 対해서 行한 보다 큰 犯罪는 社会主義 建設이라는 이름으로서 개탄하는 바이다"라는 것이다. 「후르시쵸프」가 「스탈린」의 個人崇拜에 対한 비난을 한 것은 또한 두가지 点에서 특히 重要한 点을 가지고 있는 바 이것은 全体的인 作用에 対한 理解를 위해서 強調되어야 하겠다.

첫째 죽은 「스탈린」을 공격함으로써 「후르시쵸프」를 비롯한 과거「스탈린」을 추종했던 第20次 共産党大会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은 党全体로서의 罪過는 고려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公開的으로 批判함으로써 国民들의 同情을 살수 있다는 利点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노련한 政治人으로서, 또한 「스탈린」執権下의 거칠은 学校에서 모든 「스탈린」의 教訓을 배운 「후르시쵸프」로서는 「스탈린」에 対한 공격을 敢行함으로써 아직도 「스탈린」의 추억에 充実한 모든 사람에게 自身, 즉 「후르시쵸프」自身이 「레닌」의 理念과 모든 教訓에 充実하다는 것을 과시할 必要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후르시쵸프」는 「레닌」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唯一한 指標이며 「후르시쵸프」는 오로지 「마르크스•레닌」의 原則을 創造的으로 적용하는 것 밖에 없다는 自身의 「이미지」를 과시할 必要가 있었던 것이다.

「레닌」의 이름을 빌려서 「스탈린」을 규탄하면서 「후르시쵸프」는 共

産党·独裁体制를 무사하게 保存할 수 있었고 自身의 地位를 보다 安全하게 그리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후르시쵸프」가 계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의 「스탈린」에 대한 규탄은 상당히 소련에서 好意的인 反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중부 유럽의 소련위성국가에 있어서의 그 反応은 分明히 破局的이었던 것이다.

「스탈린」의 罪過에 대한 「후르시쵸프」의 叙述은 특히 위성국에 있어서는 가장 민감한 것이었으며 또한 소련의 指導的인 地位에 있는 사람이 「스탈린」의 야수적인 行動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 마치 그들 자신의 重要한 面 즉 中央 및 東部欧羅巴의 노예적인 状態를 抹消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다. 故로 여기서 단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후르시쵸프」의 2月 秘密演説과 1956年 가을에 열렸던 大規模 大衆 暴動間에는 거의 밀접한 関係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그와같은 운동은 「항가리」와 「폴란드」에서 일어났고 그 結果로서 소련제국의 모든 基礎를 뒤흔드는 威脅으로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같은 結果를 막기 위해서 「후르시쵸프」는 다시 야만적인 武力介入을 「항가리」에서 감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主張한 自由化 運動의 過程을 遅延시켰던 것이다. 더우기 「후르시쵸프」의 反「스탈린」演説은 主要한 西欧 共産党들, 특히 伊太利 共産党에 의하여 가장 非「마르크스」主義的인 内容이라고 非難을 받았으며 또 「항가리」의 革命에 대한 武力弾圧은 全世界의 共産党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고 또 많은 共産党員의 大規模 脱党事例를 빚어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中国共産党은 「후르시쵸프」의 「스탈린」問題의 취급에 대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態度를 나타냈던 것이다. 「후르시쵸프」가 海外에 있는 同僚 共産党들과 아무런 事前 協議없이 「스탈린」을 非難한 것이 아마도 「후르시쵸프」와 毛沢東間의 最初의 심각한 不協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 것이다. 1956年에 나타난 失望感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나오지 않게 되었으나 오히려 1957年과 1958年間에

「니키다•후르시쵸프」는 아마도 自己 生涯에 있어서 最高의 栄光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57年 6月에 「후르시쵸프」는 党의 指導権을 為한 自己의 「라이벌」과의 경합에서 또 하나의 勝利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는 蘇聯共産党 中央委員会 幹部会議에서 党의 中央委員会에 対한 闘争에서 이겼고, 党의 오랜 「멤버」였던 「몰로토프」와 「카가노비치」와 「말렌코프」를 蘇聯共産党 中央委員会 幹部会議로 부터 逐出하였으며 反党的인 要素라고 규탄하였던 것이다. 새로운 幹部会議를 自己自身의 追従者로 채워놓음으로써 「후르시쵸프」는 10月에 蘇聯의 戦争 英雄인 「쥬코프」元帥를 党의 地位와 軍地位로부터 解任했으며 1958年에 自身의 오랜 同僚이었던 「불가닌」首相마저도 解任해 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후르시쵸프」自身이 「불가닌」의 機能을 맡아서 党의 우두머리를 차지함으로써 「스탈린」의 病的인 症勢만 뺀다면 「스탈린」이 가지고 있던 모든 権限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같은 해인 1957年 동안에 「후르시쵸프」는 経済閣僚会議에 対하여 큰 공격을 퍼부어서 소위 権限의 下部移譲이라는 것을 始作해서 政府官僚와 経済管理者 그리고 専門家를 地方으로 分散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党의 中央機構의 영향력을 強化했던 것이다. 같은 해인 1957年 「후르시쵸프」治下의 소련은 軍事 및 技術工学的인 分野에 있어서 巨大한 成就를 이룩하였다.

첫째는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10月에 成功的인 実験을 마쳤고 그 직후에 最初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地球의 궤도상에 쏴올려 졌던 것이다. 故로 이해할 수 있던 것은 기운이 넘친 「후르시쵸프」가 世界共産党大会를 주최했으며 이것이 1957年 11月 「모스크바」에서 開催됨으로써 「볼세비키」革命 第40週年을 紀念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世界 共産党指導者의 엄숙한 会議를 通하여서 「모스크바」의 宣言文이 나왔는 바, 여기서 「후르시쵸프」는 여러가지 중에서도 소련共産

党 第20次 全党大会의 歷史的인 決定을 업적으로서 칭송하였던 것이며, 이와 같은 것이 世界共産主義運動에 있어서의 새로운 次元을 열게 되었다고 까지 強調하였던 것이다.

「모스크바」의 宣言은 毛沢東의 약간의 불만을 포함하였으나 「후르시쵸프」가 생각하는 가장 純粹한 「레닌」主義的인 行動을 대변한다고 主張되었던 것이다. 毛沢東은 그 세계공산당대회에 참가한 후 새롭게 団結된 世界共産主義運動이 가장 강력한 소련에 의해서 영도되므로서 이제야 말로 세계적인 反資本主義的인 공세를 펼 契機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 「모스크바」宣言文은 상당히 공격적인 文句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레닌」主義的인 平和共存의 原則을 반복 주장하였으나 戦争의 경우에 있어서는 "帝国主義가 스스로 파멸될 것이라"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1957年 「모스크바」의 世界共産党 指導者大会에 있어서의 宣言속에 담겨진 낙관적인 見解는 또한 蘇聯共産党의 1959年 1月27日에 열린 非常全党大会에서 「후르시쵸프」가 낭독한 보고서 内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1959年에서 부터 1965年 사이에 期間을 잡고 있는 새로운 소련의 七個年計劃의 完成에 対하여 보고하면서 「후르시쵸프」는 낙관적으로 소련의 基本的인 経済的 과업은 "国民1人当 生産高에 있어서 가장 빠른 先進的인 資本主義国家를 가장 빠른 期間内에 따르고 앞지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더 具体的으로 말해서 「후르시쵸프」의 말을 빌린다면 "7個年経済計劃을 完遂한 5年 뒤면 美国을 앞지를 수 있는 바 이것은 1970年頃이며 그때는 美国에 対하여 工業生産面에서 소련이 훨씬 능가하게 되며 国際舞台에 있어서 資本主義와 社会主義와의 平和的인 경쟁속에서 社会主義가 歷史的인 勝利를 거두게 된다"고 그는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에 「후르시쵸프」에 依해서 1957年과 1959年 사이에 고무적으로 대두되었던 모든 것에 変化가 있는 것 같이 보였다. 中国共産主義者들과의 점차로 벌어지는 不和, 그리고 中·東部 欧羅巴와의 점차적인 分

離現象, 그리고 소요, 그밖에 점차 增加하고 있는 国内問題의 難点들이 「스탈린」의 方法을 포기하고 非難하는 것은 쉬우나 계속적으로 国内, 国際的으로 成功的인 政策을 成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시 「후르시쵸프」의 「스탈린」格下運動의 중심적인 問題点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인바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決定的인 解答을 求하기에는 어려운 点이다. 그 問題는 両面性을 띄고 있는 二重的이다.

첫째로 「스탈린」은 鉄拳政治로서 소련을 数十年間 支配해 왔던 것이며 특히 自己의 生涯 末期에는 그는 철두철미한 全面的인 独裁主義 政策을 썼고 権力에 굶주린 폭군과 같은 추세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의 後継者인 「후르시쵸프」는 어느 程度의 안전판을 열었고 또한 「스탈린」主義의 가장 非合理主義的인 局面을 廃止하였던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소련에서의 共産主義 支配体制를 重要한 面의 損傷없이 그대로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同時에 여러가지 미묘한 外交政策에 있어서 「후르시쵸프」는 世界에 있어서의 소련의 영향력과 行動半径을 拡大했던 것이다. 反面에 家父長的인 殺人者로서 「스탈린」을 묘사함으로써 특히 「스탈린」이 오랫동안 소련에서 神格化되었던 位置를 비난함으로써 소련共産党의 理念的인 権威를 「후르시쵸프」가 弱化시켰던 것이며 共産圏의 団結力을 이완시켰고 어느 程度 소련帝国의 瓦解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騒擾의 要素를 容認하는 새로운 政策을 導入하였던 것이다.

3. 党의 新綱領(Ⅰ) (「프로그람」 No. 18)

＊ 「니 마 이 어」 博 士

1961年10月에 소련共產党은 새로운 党의 計劃이라는 것을 採択하였다. 이것은 소련共產党의 세번째 計劃이며 첫번째 計劃은 1903年에 「레닌」이 첫번째로 소련共產党의 理念을 展開하였으며, 이는 소련共產党과 그밖의 여러 부수단체의 점검을 위한 理念을 開発하기 為해 採択된 것이며, 두번째 計劃은 1919年에 표결에 의하여 可決된 것으로써 소련共產党이 소련을 완전히 掌握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事態속에서 그 共產党의 固有한 自体의 役割을 다른 状況속에서 再確認하기 為한 것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党의 計劃의 採択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重要한 契機를 통하여 可能한 것이다.

反面에 새로운 党의 計劃의 採択은 소련共產党 自体가 그 歷史속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契機가 끝나고 또 새로운 時代를 접하여 그속에서 새로운 役割을 再規定코자 바란다는 表示인 것이다.

「후르시쵸프」는 새로운 時代의 創始者가 됨으로서 党의 課業의 새로운 概念을 設置하는 이정표를 세웠던 것이다. 反面에 소련共產党에서 새로운 党의 計劃을 採択하였다는 자체가 特別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소련이 아닌 「체코슬로바키아」나 「유고」의 共產党이 하나의 計劃을 採択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소련共產党(CPSU)은 恆常 唯一한 権威的인 発言権을 가지고 말한다. 소련共產党은 모든 共產主義者들의 歷史的인 事態의 特性을 규정짓고 있으며 또한 가장 進歩的인 또 가장 進歩的이라고 主張되는 共產党으로서 모든 世界의 共產主義

＊ Gerhart Niemeyer: 「노틀담」大学 政治学 教授 独逸胎生
「마드리드」「프린스톤」「예일」大学教授 歷任

者들이 따라갈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레닌」의 死亡 後에 새로운 事態의 変化가 온 것이다. 이제는 소련은 世界共産党運動上의 그 「리더쉽」에 対해서 無条件 盲従되고 있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同時에 그들의 路線이 아직도 普遍妥当性을 가지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모든 共産主義者들에 依해서 가장 重要한 理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소련共産党의 「프로그램」은 現代社会에 対한 「마르크스」의 基本的인 공격을 재반복하므로서 始作하고 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資本主義는 末期社会인 最終段階에 이르렀음을 반복하고 있고, 또한 그 資本主義 前期社会는 英国에서 끝났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그 最終段階란 「레닌」에 依한다면 물론 帝国主義의 段階를 말하는 것이다.

帝国主義는 이제 깨어지고 있으며 특히 民族解放運動의 공격과 社会主義国家의 공격으로 인하여 世界의 勢力均衡이 資本主義에 不利하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計劃에 依한다면 우리는 資本主義의 몰락의 時代에 突入하고 있으며 社会主義 勝利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文句를 여기서 引用해 보기로 한다.

"世界歴史의 問題点을 分析 調査한 結果, 그리고 現代世界의 発展 趨勢를 研究한 結果, 우리는 人間이 共産主義를 指向하는 前進의 過程에 関한 法則에 依해서 世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変化는 급격한 勢力이며 또한 社会主義의 要素이며 또한 資本主義의 一般的인 危機의 悪化에 依해서 촉진되는 것이다.
帝国主義에 依한 植民地体制의 破壊와 그 結果, 그리고 全世界 人民의 民族解放運動의 増進등을 볼적에 全世界와 全人類의 歴史는 그 「이데올로기」의 기본적인 「도그마」속에 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레닌」主義的 見解의 本質인 것이다. 그 운명은 그것을 이룩할 수 있다든가 또는 그 結論대로 맞아 들어간다든가 하는 問題가 아닌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前에도 자본주의의 最終의 危機를 主張했다.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資本主義는 継続해서 維持되었으며 成長하고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 새로운 소련共産党의 「프로그램」에서는 資本主義는 現在 그 최종단계의 第三段階에 놓여졌다는 것이다.

그 第三段階는 軍国主義에 의해서 特徴지어지며 「파씨즘」的인 政権에 의해서 支持되고 또한 신성하지 못한 同盟을 設立하며, 또한 美国이 世界警察의 役割을 하게 되며, 西方国家 間에 緊張이 고조되는 등으로써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資本主義는 그 生産率 減少와 失業率 増大 및 深刻한 市場競争, 그리고 技術的인 革新을 할 수 없다는 特徴으로써 점차 弱化되고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反面에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世界革命運動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点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들의 主된 利点은 소위 世界社会主義体制라는 것이다. 共産主義 支配下에 있는 여러 国家의 「블록」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의 資源과 政策은 帝国主義에 対抗하는 闘争이라는 目的을 為하여 결합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世界社会主義体制에 添加해서 全植民地 民族들의 民族解放運動이 또한 資本主義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第三勢力, 즉 共産革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勢力으로서 資本主義国家의 国民들이 있으니, 그들은 反戦思想을 만연시키고 있으며 또한 民主主義的 自由의 増進에 興味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共産党의 戦略이 그 基礎를 두고있는 世界観인 것이다. 소련 共産党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은 世界의 状況 変化에 의해서 必要했었으며, 또 世界 勢力均衡의 変化, 그리고 植民主義 人民들의 아우와 같은 役割의 不可能 또 「부르조아」속에서의 협오주의적인 要素 등이 새로운 可能性을 造成하고 있다는 데서 그 発表가 必要했던 것이다. 또한 이것은 共産主義革命의 最終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戦略이 必要하다고 主張한 것이다.

이 새로운 共産党 「프로그램」은 共産主義 世界観에 基本的인 概念上의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基本的인 概念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와 같은 基本的 理念에 있어서의 戦略的인 結論을 새롭게 導出하는 것을 試図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共産党 計劃의 새로운 戰略的인 槪念을 세가지로 分類할 수 있을 것이며 즉 이것은 共産主義者들이 權力을 執權하는 路程에 關한 것이요, 共産執權層의 機構에 關한 것이요 또한 世界社会主義 体制에 關한 것이다.

첫째 共産主義가 어떻게 執權하게 되는가 하는 그 過程을 살펴본다면, 그 過程이란 바로 「프롤레타리아」革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計劃은 共産主義 路線의 「프롤레타리아」革命의 槪念에 4個의 새로운 槪念을 導入하고 있다.

첫째로 共産主義者들은 暴力的인 方法으로 執權하는 것이 아니라 平和的인 方法으로 執權을 할 수 있다는 理念인 것이다.

둘째로 共産主義 革命에 이르는 重要한 同盟으로서의 民族解放運動의 地位向上인 것이다.

세째로 共産革命의 役割에 있어서 平和主義者, 中立主義者와 社会民主主義者에게 機能을 分担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새로운 革命의 目的인 革命的 執權을 短縮시키기 위한 急激한 革新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로 伝統的인 革命에 관한 路線은 支配階級의 權力을 逐出하기 위해서는 暴力的인 革命이 必要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対한 唯一한 例外는 1872年에 「마르크스」가 고찰한 敎訓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 「프롤레타리아」層은 英国이나 美国과 같은 나라에서는 平和的으로 權力을 掌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은 나중에 「레닌」에 의해서 修正되었던 바. 「레닌」은 이것을 고쳐서 말하기를 「마르크스」가 그런 말을 할 적에는 英国과 美国에는 常備軍이 없었고 官僚体制가 充分하게 발달하지 못했던 時代였기 때문에 그것이 可能했었다고 訂正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레닌」의 路線은 어떤 나라에서든지 「프롤레타리아」가 權力을 掌握하기 위해서는 暴力이 隨伴되는 것이 不可決하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닌」에 關한 限 「프롤레

타리아」革命은 단지 武力暴動에 依해서만 可能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革命政權의 樹立을 目的으로 해야하는 것이며 특히 이것은 既存政權이 人気가 없고 不安定할 때 가장 쉽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観点에서 볼 적에 世界社会主義体制의 存在와 그리고 소련의 여러가지 成就 등은 그 計劃의 主張에 의한다면 새로운 狀態를 造成하고 있다는 것이다.

資本主義 国家와의 平和的인 競争을 통하여 소련은 共産主義가 보다 우월한 制度임을 証明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共産主義体制는 完全雇傭을 提供하며, 보다 높은 生活水準이 提供되며, 公共奉仕를 無料로 提供하며, 또한 보다 增進된 規模의 높은 文化와 巨大한 軍事力을 維持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社会主義 소련의 偉大한 成就가 알려만 지면 全地球上에 있는 数億의 人民들은 共産主義를 支持한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計劃이 例言한 바에 의한다면 平和的인 競争이라는 것은 基本的으로 아직 自由陣営에 있는 많은 人民들의 호감을 사기 為한 競争이라는 것이다. 그 目的은 労動階級의 뒤에 있는 이러한 수많은 大衆, 즉 共産主義의 支配下에 있거나 혹은 共産主義에 対해서 호의적인 政治的 集団인 大衆의 支持를 獲得하는데 있다. 核戦争에 대한 공포라거나 広範囲한 民主主義에 対한 욕구와 같은 이러한 「무드」속에서는 앞에서 말한 共産主義에 好意的 내지 同情的인 集団이 平和的인 方法, 例를 들어서 議会制度의 過程을 通해서도 執權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平和的인 方法은 労動階級과 全体人民에 더욱 関心을 가져야 한다고 主張되었다.

이와같이 그 内容을 살펴보건대 「히틀러」가 最初에는 權力을 暴力的인 方法으로 掌握하려고 하다가 失敗한 後 나중에는 合法的인 闘争을 통해서 權力을 掌握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렇게 해서 「히틀러」는 合法的인 節次를 通해서 權力을 掌握하였던 것이다. 權力을 掌握하고 난 다음에는 革命은 위로 부터의 革命이 되어야 하며 그의 방대한 힘으로써 党이 政府를 보는 観点에서

親共産主義的인 集団은 広範囲한 大衆闘争을 議会밖에서 펴야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모든 反動的인 勢力의 항거를 철저하게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議会밖에서의 広範囲한 大衆의 闘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群衆暴動을 半公式的으로 使用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것은 1933年에 「히틀러」가 政権을 掌握한 뒤에 使用되었던 方法과 恰似하다. 이와같은 새로운 소련 共産党의 「프로그램」은 다른 面에 있어서는 暴力을 予見하고 있는 것이다. 이 暴力은 権力을 掌握하는 手段으로서가 아니라 平和的인 方法을 通해서 権力을 掌握하고 난後에 모든 共産主義에 反対하는 요소를 破壊하기 위하여서 駆使되어야 할 첫 措置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에 대한 抵抗을 合法的인 政府에 대한 暴力的 抵抗으로 규탄함으로서 反対勢力을 合法的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利益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過程에 대한 소련의 支配方式은 共産主義 支持団体들에 대한 政治的 支援을 해줄 일종의 大衆的 무드를 増進시키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団体들이 人類의 一般的 目的이라는 깃발밑에 支持를 위한 시위를 벌일때의 政治的인 支援을 意味한다.

두번째로서 共産主義者들의 戦略은 1903年부터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大衆과도 同盟을 한다는 原則下에서 出発했던 것이다. 즉 産業労働階級 以外의 大衆과도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다.

「레닌」의 主張은 「프롤레타리아」는 그 혼자로서는 強力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프롤레타리아」는 그 数에 있어서나 大衆에 対한 부각면에 있어서 弱하기 때문에 社会主義에 対하여 그렇게 興味를 갖고 있지 않지만 불만을 품은 大衆을 共産党의 便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레닌」이 選択한 集団은 農民인 것이다. 특히 農民들 중에서도 貧農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이 「프롤레타리아」들과 権力을 掌握하는 路程에 있어서 同伴者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同時에 「레닌」이 警告한 것은 農民들은 継続해서 真正한 継続的인 革命勢力의 同伴者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레닌」의 主張에 의할 것 같으면 農民들의 態度는 우유부단하고 가끔 革命的인 勢力을 갖고 있으나 어떤 때는 그들의 土地에 대한 굶주림이 充足되면 革命的인 理念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農民階級이란 革命의 目的達成을 위해서 끝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最終의 共産主義 社会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만큼 強力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理由로 해서 「레닌」은 共産主義者들에게 그들의 同伴者인 農民을 마치 敵을 警戒하듯이 경계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했다. 「레닌」의 不満에 가득찬 非共産主義的인 大衆과의 잠정적인 同盟運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련의 事情에서 適用될 수 있는 것이었는 바 이제 새로운 소련共産党의 計劃은 「레닌」의 原則을 全世界에 適用시키고 있는 것이다. 「레닌」이 考察한 바 있는 農民階層의 特性과 이 새로운 共産党 「프로그램」이 考察한 民族解放運動間에는 相当히 近似한 것이 엿보인다. 그에 의하면 民族解放運動은 農民과 같이 根本的으로 「부르죠아」로 形成되어 있으며 그들의 態度가 모호하고 우유부단하므로 窮極的으로는 依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農民과 마찬가지로 이 民族解放運動도 그 数와 힘에 있어서는 強大한 것이며 따라서 共産主義者들 스스로 만으로서는 도저히 達成할 수 없는 巨大한 勢力을 形成할 수 있으며, 또한 共産主義 運動에 対해서는 根本的으로 잘 모르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強力한 刺戟을 준다는 것이다.

農民에 있어서의 土地 所有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民族解放運動에서의 民族独立이란 매우 자극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農民의 役割과 民族解放運動의 役割은 共産主義戦略을 竝存하는 것이다. 「레닌」은 農民들이 追求하는 것은 「부르죠아」型의 民主主義라고 말했으며 共産主義者들이 興味를 갖고 있는 民主主義型 類型은 그 政権의 内部 外部에서 많은 敵対勢力의 抵抗을 받지 않고 활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의 궁극적 戦略的인 目的은 民主主義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의 独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民主主義가 아니다. 물론 각기 다른 目的을 가지고 있지만 民主主義는 일종의 共同的인 計劃으로써 잠정적인 同盟을 維持하기 為해서 両者에게 使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理念이 民族解放運動에도 적용된다. 이 計劃에 의하면 民族解放運動은 民族独立과 民族的民主主義에 興味를 갖고 있으므로 共産党은 이같은 目的을 위한 指導的役割을 提供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民族独立을 위한 闘争에 있어서는 植民治下에 있는 人民들은 그들의 民族的 政府를 樹立함으로써 独立이 達成되는 것이 아니고 独立政府를 세운 다음에도 帝国主義에 対한 闘争은 継続되는 것이며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政治的인 独立과 아울러서 経済的 主権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帝国主義에의 闘争은 共産主義와 民族解放運動이 同盟을 맺을 수 있는 터전을 提供해준다는 것이다. 民族的 民主主義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理論이 適用된다.

植民地 国民들이 그들의 政権을 세운 다음에도 国内의 民主主義는 外国의 帝国主義 勢力과 紐帯를 맺고있는 国内의 民族的 「부르죠아」에 依해서 威脅을 받고 있으며 오로지 共産主義者만이 完全하고 포괄적인 民主主義를 達成하도록 植民地 国民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共産主義者들 만이 오로지 民主主義를 完成하는데 決然한 態度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과 左翼「부르죠아」間의 関係, 그리고 右翼労動運動間의 関係는 多様性을 갖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이 그들의 主体性을 위해서 闘争할 때는 「레닌」이 主張한 바와 마찬가지로 共産主義에 理念的으로 가까운 者야말로 가장 果敢하게 때려 부셔야 할 要素라고 主張했으며 例를 들면 社会民主主義者들이 共産主義者들의 第一의 敵이라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나중에 「스탈린」도 社会民主主義者들은 第一公敵으로 取扱되어야 한다고 宣言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社会主義者, 平和主義者 그리고 소위 修正主義者 등을 같이 取扱할 수 있다는 것이다. 社会主義者들의 人民戦線

当時에는 共産主義者들은 기꺼이 진보적인 政党과 聯合하여 「파씨즘」에 対抗하여서 싸웠다. 그리고 그 協同体制는 「히틀러」가 소련과 独逸間의 不可侵條約을 깨트린 二次大戦때 까지도 継続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終戦後에는 共産主義者들은 또다시 이와같은 穩健左派에 対해서는 敵対的인 関係로 돌아갔던 것이다.

1956年 以来로 또 다시 社会民主主義者들과 自由主義的 左派와의 関係改善이라는 方向変化가 있었다. 共産主義者들이 볼 적에 社会民主主義者와 自由主義的 左翼分子들은 西欧 共産主義者들의 政治的인 支持를 받으며 数的으로도 重要한 勢力이 된다는 것이며 특히 西方国家에 있어서는 이러한 目的을 為해서 農民이나 民族解放運動이 活用될 수 없기 때문에 社会民主主義者와 自由主義的 左翼分子를 活用해야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共産党計劃은 平和, 軍縮問題, 民主的 権利 등의 이름으로 社会民主主義者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同時에 이「프로그램」은 共産主義者들은 継続해서 社会民主主義者들의 理念에 対抗해서 闘争하라고 警告하고 있으며 社会主義의 小市民的 「부르죠아」를 無視하라고 要求하고 있다. 換言하면 社会民主主義者들이나 左派自由主義者들의 경우는 共産主義의 영원한 親旧로서는 考慮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단지 共産主義者들에게 必要할 적에만 利用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러한 同盟者들에 対한 궁극적인 粛清을 準備하라고 要請하고 있다. 農民들과 共産主義者들의 잠정적인 同盟体制는 共産主義者들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農民에게 興味있는 問題를 다루게 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社会民主主義者나 左派 自由主義者의 支持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目的과 修正主義者들이 追求하는 바에 対해서 共産主義者의 支持를 表明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改革主義者나 左派 自由主義者들의 関心事들을 소련의 現世界에 있어서의 관심사와 기묘하게 結合시키고 있다. 「레닌」은 農民과의 同盟이라는 戦略을 고안했을 적에 共産主義者들로 하여금 最少限의 計劃, 즉 共産主義者들은 農民의 支持에 依存하는 동안 이룩할 政治的인 目的만

을 갖도록 하였다. 「레닌」의 最少限의 計劃은 마치 自由主義的 民主主義者가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土地改革이며 이와같은 것은 農民의 支持를 받았던 것이다. 現時点에 있어서는 共産主義者들이 後進国에 있어서의 民族解放運動과의 同盟을 計算하고 있으며, 또한 西欧의 온건주의자와의 同盟을 計劃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計劃에 있어서의 最少限의 「프로그램」이 또한 그들의 支持를 받기 위해서는 必要하고 可能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새로운 最少限의 計劃은 共産主義者들이 급격한 計劃이라고 말하는 共産党의 計劃으로 偽装된 形態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改革은 資本主義社会에 対한 어떤 形態의 改革이든 革命運動의 価値있는 目標가 된다는 것이 「레닌」의 굳은 信念이었다. 우리는 共産主義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歴史的인 本質로서 볼때 그들의 改革目的에 反対하고 있는 어떠한 変化들도 拒否하고 있는 形態로서 이룩되었으며, 階級闘争의 理念은 妥協할 수 없는 것이며, 그 最初의 目的을 어떠한 手段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実現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레닌」이 가르쳐준 바와 마찬가지로 共産主義者들은 이와같은 最終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 一時的인 改革에는 잠정적으로는 同意할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組織과 勢力을 拡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改革이나 修正이란 어떠한 것이든 共産主義者들의 革命的인 目的으로서는 考慮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社会民主主義者나 小市民的 「부르죠아」의 過誤속에 빠져들어 가는 파국을 免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의 唯一한 最終目的은 資本主義社会의 完全한 破壊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計劃은 마치 이 原則을 変更시킨것 같이 보인다. 새로운 歴史 事態속에서는 労動階級의 成就中의 一部는 그들의 最終的인 目標인 全面的인 勝利를 達成하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利益을 増進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成就된 課業은 그와 같은 理由때문에 더욱 追求될 必要가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社会主義体制속의 成就라고 하는 것은 一般的인 改革을 능가하는 것이며 共産主義運動에 있어서

決定的인 重要性을 띄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두개로 分離될 수 있는 것이다. 一面에서는 国内的인 圧力에서 結果되는 軍事政策에 関한 変更을 가져오는 国家가 있다. 労動階級은 支配階級을 形成해서 새로운 世界戦争의 準備를 中止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局地戦争을 도발하는 것을 포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며 経済力을 平和的인 目的을 위해서 使用할 수도 있다. 또한 労動階級은 「팟쇼」反動分子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으며 人民의 生活水準의 向上을 위하고 民主主義的 生活과 独立과 平和를 위한 国家計劃에 그들의 힘을 기울일 수도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軍事力의 解体 혹은 軍事力의 減縮까지도 유발하고 있는 것이며 現在 軍事力이란 소련이 世界支配를 함에 있어서 外部의 공격에 抵抗하기에 充分할 만큼 強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과격한 개혁임에는 틀림없다. 反面에 経済的인 変化에 関한 最少限의 計劃을 또한 볼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들이 広範囲한 意味에 있어서의 国有化 또 国民에게 利益되는 国有化, 즉 労動組合을 支配하고 다른 民主主義的 代議制度와 国有化된 産業을 支配하고 그리고 国家의 모든 経済的인 活動을 支配하게 되면 그와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共産党이 労動者의 土地改革에 対한 要求를 支持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為해서는 "土地는 耕作者에게"라는 「슬로간」을 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共産主義者의 目的은 될수 없는 것이며 共産主義者들은 궁극적으로는 耕作者에게 땅을 맡길 수 없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議会制度나 다른 民主的 代議機構를 통한 国家의 経済活動을 反対한다. 共産主義者들의 目的은 궁극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에 依한 独裁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経済制度의 独裁的인 管理, 国有化는 共産党에 의해서 指導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急進的인 改革은 共産主義 革命을 完遂하는 過程에 있어서의 잠정적인 停止点 이상의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소련共産党의 「프로그램」에 依한다면 새로운 世界의 事態속에서 権力을 잡고 있는 勢力인 労動階級은 共産主義者들의 몇가지

궁극적인 目標를 資本主義의 完全한 逐出前에도 達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特히 戰爭에 関한 限 戰爭없이도 그들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戰爭의 排除는 帝国主義가 몰락한 以後에야 可能하다고 이야기 되어 왔다. 그들의 目的은 이제 보다 높은 次元으로 発展되었다. 그들의 「프로그램」에 의한다면 社会主義 勢力의 継続的인 우위의 유지로 말미암아 帝国主義 勢力은 弱化되었고 또 平和의 勢力도 弱化되었으며 또 戰爭의 勢力도 弱化되었다. 그래서 世界大戰을 피할 수 있으며, 그러한 人間社会에 있어서는 戰爭을 하지 않아도 共産主義 革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地球上에는 資本主義가 部分的으로 存在하더라도 그리고 社会主義의 革命이 地球上에서 完了되지 않더라도 戰爭은 회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世界大戰의 排除는 社会主義 勢力의 優位性으로 因해서 可能하다고 規定지어 지는 것이다. 이것은 戰爭을 혐오하고 平和를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社会主義 勢力을 支持하게 하고 帝国主義的 勢力을 拒否하도록 하는 하나의 초대장으로서의 性格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権力獲得을 為한 過程을 생각해 본다면 이 새로운 計劃은 「레닌」의 理念, 즉 모든 종류의 不平들을 동원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全体的인 不平을 一般化시키고 全体社会에 대한 一般的인 거부현상으로 동원해야 한다는 「레닌」의 理念에 忠実히 따르고 있다.

「레닌」은 이와같은 原理를 소련에 適用하였던 것인데 이제 새로운 소련共産党의 「프로그램」을 全世界에 適用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依한다면 "社会主義者의 革命, 反帝国主義的인 民族解放革命, 人民에 의한 民主革命, 広範囲한 農民運動, 「파시스트」政権이나 모든 부패한 政権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大衆闘争, 그리고 民族的 학정에 対抗하는 一般的인 民主主義運動, 이와같은 것이 모두가 하나의 革命的인 発展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그리하여 資本主義의 전복과 파괴를 向하여 前進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記述하고 있는 것이다.

結局 資本主義의 破壞가 共産主義의 目的인 것이다. 그밖의 모든 運動은 部分的으로 그 目的을 達成하기 為한 手段에 不過한 것이며 또 그들의 힘을 합침으로써 그들의 課業을 達成하기 위한 充分한 勢力이 形成된다는 것이다.

4. 党의 新綱領(II) (「프로그람」 No. 19)

* 「니 마 이 어」 博 士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는 特徵的으로 政治的 理論 즉 共産主義的인 政治秩序概念을 欠하고 있다. 그들의 政治的 理論이라는 것은 단지 資本主義段階로부터 社会主義 段階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共産主義 政権에 関한 教義에만 치중할 뿐이다. 이와같은 과도기의 共産主義 政権을 「레닌」은 "暴力에 의거한 統治와 法에 依해서 制限을 받지 않는것"이라고 規定했다. 이는 秩序에 関한 組織이라기 보다 戰争 組織을 規定한 것이라 하겠다. 그는 이것을 「프롤레타리아」 独裁라고 불렀다. 「스탈린」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独裁는 国家의 概念인 것이다. 이 概念은 共産主義者가 執権하면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지는 国家의 特徵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国家는 最高의 権力으로 発展하며 人類史上 가장 強力한 国家로 発展할 때까지 持続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는 항상 共産主義 社会가 일단 完成되면 이러한 国家는 점차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主張하고 있다.

새로운 共産党의 計劃은 共産主義의 政治的 戰争의 問題를 계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한 取扱의 基礎는 「스탈린」의 <「마르크스」主義와 言語学과 소련 社会主義의 経済的 問題>라는 小冊字에 根拠한 것이다. 이 計劃은 特히 「레닌」과 「스탈린」의 思想을 능가하는 새로운 概念을 導入하고 있다. 즉 첫째로 「프롤레타리아」独裁라는 概念은 이제 旧式이

---

* Gerhart Niemeyer: 「노들담」大学政治学教授 独逸胎生, 「마드리드」 「프린스톤」 「예일」大学教授歴任

되었다. 둘째로 이와같은 概念은 「社会 民主主義」라는 새로운 国家 概念으로 代置될 것이다. 세째로 国家의 점차적인 消滅은 社会組織과 国家機能의 革命이라는 形態로 始作될 것이다.

첫째로, 「프롤레타리아」 独裁라는 것은 共産主義者의 統治와 同一한 特徵으로 내세워져 왔던 公式이다. 이와같은 特徵은 共産党에의 權力의 独占, 党의 權力 強化라는 主目的에서의 政府의 活用, 法과 下部機構의 党의 戰略的 利益에의 예속 그리고 統治의 手段으로서 「테러」의 活用을 들 수 있다. 共産党은 다른 政党의 배제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共産主義者의 統制로부터 벗어난 政党이나 集団의 組織을 막음으로써 그의 權力 独占을 樹立해 왔다.

모든 形態의 組織은 共産党에 依해서 배타적으로 主導되고 監督을 받으며 命令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權力의 独占은 곧 社会組織의 独占이 되는 것이다. 党만이 政治的 意志를 가지는 唯一한 機構이며 그의 모든 戰略的 組織을 통해서 国家를 조종하게 된다. 이는 党의 敵이 특히 強力하므로 서서히 거세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정립된 論理이다. 共産党은 法이 정당함과 부당함의 범주를 표시하도록 許容하지 않고 재판은 党의 權力的인 戰略의 利益에 맞도록 活用하고 있다. 그리고 同時에 모든 個人과 集団이 党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도록 그들을 危脅하려고 강구된 暴力, 非暴力的 方法을 遂行한다. 이것이 곧 共産主義的 独裁의 特徵인 것이다. 「프롤레타리안」이라는 形容詞는 「프롤레타리아트」에 対해서는 어떤 実際的인 의의도 전혀 없는 것이다. 労動者들이 政府組織에 包含된 것도 아니고 어떤 政治的 特權을 行使한 것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独裁는 本質的으로 共産党 權力의 目的을 위한 政府機構의 独裁的 活用이었던 것이다.

새로운 計劃은 「프롤레타리아」独裁의 勝利를 宣言하고 있다. 이 変化는 「스탈린」의 死亡 이후에 試図되었던 変革에 依해서 予見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스탈린」治下에서 「테러」는 체포, 死刑宣告 또는 投獄에 이

르기까지 거의 무한의 權力으로 行事되었다. 이와같은 行態는 이제 継続되지 않고 있다. 秘密警察의 権限이 制限되었으며, 強制労動収容所 주위의 철조망도 철거되었다. 그래서 비록 「테러」의 形態가 줄어들므로써 어느정도 独裁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主張을 뒷받침하는 것같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根本的으로 共産党의 権力의 位置에는 어떠한 実際的 変化도 없었다.

아직도 共産党은 政治的 権力과 모든 組織을 独占하고 있다. 政府의 目的은 아직도 敵을 능가하는 共産党의 権力強化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法이란 政治権力을 客観的으로 制限하는 것이라기 보다 정치권력의 하나의 道具에 불과하다. 意見을 달리하는 個人이나 集団은 아직도 危脅을 받거나 孤立되거나 공포에 사로 잡혀있다. 아직도 政府当局은 市民을 정탐하고 어떠한 사소한 항거라도 迅速히 탄압하는 것이다. 새로운 党의 計劃에 依해서 提案된 것은 社会的 圧力의 手段에 依하기 보다 개방적이고 공공연하며 直接的인 「테러」에 依하여 実行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社会的 圧力의 手段은 党 自体를 危脅하고 無能化시키며 党員사이에 疑心을 惹起시키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独裁의 포기라는 것은 「스탈린」治下의 方法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約束에 不過한 것이다.

새로운 党의 計劃이란 党의 権力을 分散시키겠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反対派나 競争勢力을 黙認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社会的, 政治的, 結社의 自由를 許容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客観的인 法에 依한 統治나 공포없는 統治를 意味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두번째의 問題点을 다루려 한다. 「社会主義的 民主主義」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独裁의 포기에 依해서 생겨진 空白을 메꾸기 위해서 設計된 하나의 公式처럼 보인다. 이것은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새로운 概念임에 틀림없다. 「레닌」이나 「마르크스」도 「프롤레타리아」 独裁 다음에 民主主義 時代가 온다고 보지 않았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独裁만이 人類史上 가장 民主的인 政権이라고 역설적으로 主張

했다. 이러한 政權은 社会主義의 意識構造가 国民들을 労動訓練과 社会主義 体制에 適応하도록 잘 調節시켜서 어떠한 強制的인 공공기구도 전혀 必要치 않을 때까지 持続 될 것이며 그때에는 国家는 점차로 消滅될 것이라 하였다. 이 새로운 国家의 概念은 결국 「프롤레타리아」独裁가 民主的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프롤레타리아」独裁의 時期와 国家의 終局的인 消滅의 時期 사이에는 人民에 依한 共産主義 政權의 時期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概念은 階級概念의 独自性을 배제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보다 人民을 매우 強調하고 있다. 實際로 社会主義的 民主主義는 다음과 같은 몇몇의 改革的인 概念을 導入하고 있다. 즉 ① 政府의 指導的 機構의 改革 原理 ② 公職三年任期原則 ③ 官吏의 減縮 ④ 權力의 남용에 대한 処罰 ⑤ 当局의 直接的인 權限行使의 大衆的인 영향력으로의 代置등이다.

여기서 가장 重要한 変化는 주요 政府機構의 定期的인 更新의 原則이다. 만일 이 原則이 최고의 指導者인 「후르시쵸프」에 適用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真正한 民主主義 原則에 依한 改革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만일 이 原則에 依한 改革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만일 이 原則이 단지 無能한 下級 管理의 代置를 위해서 使用되고 最高 支配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이는 政府 官僚 組織内에 있어서의 党의 最高指導層의 全面的인 強化를 뜻할 것이다. 이것은 党의 새로운 計劃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 모든 政府의 진정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밖의 새로운 党의 計劃에 의해 제시된 変化는 이와같은 論理에 따르고 있다. 職業官僚 中에서 봉급을 받는 官吏의 勢力이 増進되면 그때는 그들을 다루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봉급을 받지 않는 임시고용의 官吏들은 対照的으로 일종의 消耗品에 不過하며 이들은 反抗에 無能하여 다루기 쉽다. 官僚權限의 남용에 대한 処罰의 原則은 国民들에게 가장 人気가 있었으며 特히 법원이 權限의 남용을 규제하는 어떠한 客観的인 法的 原則을 개발하도록 許容되지 않았을 때 特히 行政官吏들을 調和시키는데 有用하였으며

따라서 그러한 概念은 党이 願하는 대로 되었다. 처벌의 공공 영향력에로의 대치라는 主張도 같은 類型의 公的 처벌이다. 이것은 政府를 大衆이 統治한다는 환상인 것이다. 實際로 어떠한 組織이나 集团도 党의 指導力이나 指針에 어긋나는 行為는 許用되지 않는다. 党만이 모든 公共 영향력을 動員할 수 있고 組織할 수 있다. 공공 영향력의 활용은 官僚組職을 초월해서 大衆에 対한 党의 統制에 있어서의 가장 強力한 手段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社会主義的 民主主義」는 明白히 反民主主義的 形態로 構成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소련정권내에 있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반대세력의 영향마저도 거세할 수 있다는 여유를 党 指導者에게 준 것이다.

세번째 問題는 지금까지 모든 共産主義学者들이 継続的으로 主張해 온 国家의 消滅이라는 問題이다. 共産主義者에 依하면 国家란 社会의 階級에 따른 分化와 한 階級의 다른 階級에 対한 支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抑圧의 特殊機構라는 것이다. 「레닌」은 「階級이 사라지면 抑圧 機構는 더 이상 必要하지 않게 되며 政治的인 機能이나 個人의 힘이라는 것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우게 될 職業技能에 依해서 代替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모든 人民에 依해서 工場의 機能的인 訓練이 完全히 숙달케 되면 国家의 機能은 아무런 必要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党의 새로운 計劃은 이와같은 것을 完全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즉 国家의 機能은 消滅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特히 労動組合이나 消費組合, 또는 公式的으로 政府라고 불리어지지 않는 어떠한 社会的인 組織에 의해 権力이 行使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国家는 이미 消滅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될 뿐이다.

實際로 이러한 社会組織들은 스스로 特定한 権力의 領域을 가지고 있으며 政府에 公的으로 흡수되지 않는 限 完全한 権限의 독점이 될 수는 없다. 労動組合은 作業場에서의 「레크리에이션」이나 社会的 봉사 또는 社会的인 人情등을 베풀기도 하고 抑制하기도 할 수 있다.

消費組合은 一定 水準의 연령의 青少年의 唯一한 組織인 것이다. 이 두 形態의 組織은 모든 사람들을 生活 必需品이나 순응하지 않은 者에 대한 처벌 등에 依해서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든 人民을 집단노동수용소에 보내지 않고서도 効果的으로 統制할 수 있다. 더우기 이 두 組織은 政府가 그러하듯이 党의 完全한 統制下에 있다.

이와같이 政府의 特定 機能을 社会団体에 移転시킴으로써 共産党은 단지 하나의 강압적인 方法을 다른 강압적인 方法으로 代置한데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差異点은 단지 「스탈린」의 死後의 소련의 体制의 趨勢를 그대로 継続하면서 새로운 方法을 보다 교묘하게 적용한것 뿐인 것이다.

네번째로 새로운 党의 計劃의 다른 面은 共産主義者에 의한 人間의 도덕적인 規範의 基本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는 모든 道德은 오직 支配階級의 利益속에서 生成되는 階級的 道德이라고만 主張해 온 것이다.

이와같이 共産主義의 唯一한 本質이었던 階級闘争을 共産主義 「이데올로기」史上 最初로 거부한 새로운 党의 計劃은 時代를 초월해서 人間에게 共通的인 道德의 存在를 認定한 것이다. 이 새로운 党의 計劃이 道德을 人民大衆이 悪과 압박에 対抗해 闘争하는 것과 착취계급의 道德으로 区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人間의 基本的인 道德의 概念을 받아 들인것은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의 論理에 있어서 巨大한 業績이며 이것은 「스탈린」이 「言語가 人間의 階級的 闘争으로부터 独立된 人間의 共有物」이라고 認定한 것보다도 더욱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 計劃은 人間이 一般的으로 善과 悪을 区別하는 基準에서 모든 것을 決定하는데까지 소련体制를 許容하려는 意図는 아닌 것이다. 共産党에 대한 가장 강력한 対抗은 過去에도 대체로 道德的인 판단기준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있어 왔다.

이 計劃은 12個의 상세히 기술된 原則으로 人間道德의 基本的 規範에 充実하는 듯 하므로써 共産主義 路線을 비판하는 자의 비난의 소리를 최

피하려는 것이다. 이 12個의 原則中 처음 3個의 原則은 労動에 있어서 共産主義 原則에 依해 양심적으로 봉사할 것과 또 公共財産에 対한 애호심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4번째의 原則은 共産政権에 反政府的이라는 行為의 禁止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計劃은 党 利益에 必要한 道徳과 規範을 유지하기를 希望하면서 人間의 基本的인 道徳에 말로써만 관심이 있는 듯이 表示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人間 道徳에 関한 말만의 観心은 共産党에 対한 批判을 中和시키려는 党의 본래의 企図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간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는 일보전진의 段階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共産党 政権에 対한 이 새로운 計劃은 共産党 政権이 権力을 人民들과 함께 향유한다는 인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며 共産党 政権이 한 階級의 지지만을 바라기 보다는 全人民의 支持에 基底하고 있는 듯이 보이길 바라고 있고 自身의 権力行使에 있어서의 制限으로서 法律, 道徳과 같은 客観的 基準을 받아 들인 것처럼 보이길 願하는데 기인하는 것같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動機는 敵이나 共産政権의 批判者들을 거세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다. 共産主義者들은 独裁나 階級的 적대나 道徳的 冷笑主義가 그들의 힘으로써는 抵抗할 수 없는 反抗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共産主義者들은 이제 그들의 敵을 처부수기보다 그들에 対한 批判者들의 가장 重要한 批判点에 対해서 양보를 하는 듯이 보이면서 그들에 대한 批判을 解消시키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가 비록 그 사실 自体만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나 実際的인 것이 아니라 外観上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共産党이 最終的으로는 人民의 意思에 党의 운영을 맡길 의사가 없다는 확증은 이 計劃이 党과 人民의 関係를 説明하는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와같은 関係에서 人民은 主人이 아니라 党의 생도이며 党은 人民의 下人이 아니라 교사의 入場에 있는 것이다. 보따 나은 未来에 対한 展望은 모든 人民이 党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모두 배울때 까지

연기된 것이다. 따라서 人民은 永遠히 未成熟한 것으로 낙인을 찍히며 党만이 真理와 지혜의 唯一한 所有者란 結論에 이르른다. 즉 「党은 두뇌요 • 명예요 • 양심으로써 全体 蘇聯 人民의 新紀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関係에서는 政府의 民主主義的 原則은 생각할 수도 없고 단지 唯一한 선택이란 공개적인 혹은 비공개적인 권위주의적 指導 또는 造作하에서 하나를 選択할 수 있는 것 뿐이다.

이제 世界 社会主義体制에 対해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世界社会主義体制와 関聯하여 党의 새로운 計劃으로써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概念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革命 勢力에 관한 概念으로 종래의 「階級意識」「프롤레타리아트」「共産党」 또는 「社会主義 祖国」이라는 概念을 代置하고 있는 것이다. 「레닌」은 「党」의 概念을 처음으로 体系있게 정리하였다. 「스탈린」은 「社会主義 祖国」의 概念을 제일 먼저 定立하므로써 世界 社会主義 体制를 「이데올로기」와 結合시킨 最初의 사람이었다. 「스탈린」의 公式이 相当한 기간동안 共産党 文献에 使用되어 온 것은 이상과 같은 相異한 概念들이 共産主義者들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어느 정도의 未来를 계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後者의 두개의 概念이 特히 소련의 外交政策을 革命的 戦略과 結合시켰다. 「社会主義 祖国」이라는 概念과 「世界 社会主義 体制」라는 概念의 差異는 社会主義가 한 나라에 制限된 限에 있어서는 前者는 강력하고 우위의 세력을 갖고 있는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포위된 것을 가상한 것이고 反面에 「世界 社会主義 体制」라는 概念은 帝国主義 体制와 同等하게 対立하고 있는 国家群을 말하고 있다는데 있다. 한 国家内의 社会主義라는 時期에 있어서의 共産主義 戦略은 弱者의 立場에서 그 作用을 해 왔으며 이에 反해서 「새로운 党의 計劃」은 勢力 均衡이 社会主義에 有利하게 기울어 진다는 가정하에서 새로운 概念을 説明하는 것이다.

동시에 共産主義 勢力은 그들이 볼 때에는 수많은 共産主義 会員国家들 間의 단결의 問題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党의

計劃은 이와 關聯하여 아래와 같은 原則을 提示하고 있다.

1) 「世界 社会主義 体制」의 会員国家들의 国内 政権의 問題

2) 各 社会主義 国家 相互関係의 問題

3) 共通 政策의 問題

1956年의 経験은 「크레므린」에게 各 나라의 特殊한 与件에 따른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教訓을 준 것이다. 그러나 同時에 「티토」의 分裂主義는 이와같은 方向으로 너무 깊이 들어갈 危険性도 있다는 点을 指摘하였다. 새로운 党의 計劃은 모든 世界 社会主義 体制의 会員国이 同等한 主権을 지닌다는 인상을 줌과 同時에 소련의 보다 우월한 지위를 強調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客観的인 法律을 세움으로써 可能하다는 것이며 또한 소련은 항상 어떤 共産政権보다도 共産主義 路線에서 앞서 있다고 하는 法体制를 樹立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소련이외의 社会主義 政権은 公式的으로 하나의 새로운 政治組織의 形態이며 「프롤레타리아」 独裁의 다양화된 하나의 類型인 소위 「人民民主主義」라는 범주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무리를 形成하였다. 비록 그것이 더욱 平和的이고 유화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人民民主主義」란 古典的 形態로서의 「프롤레타리아」独裁라는 段階까지 発展하지 못한 하나의 共産主義 路程上의 한 段階에 지나지 않다.

이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복구라는 것은 거의 무방하며 社会主義的 生産関係가 뚜렷이 부각될 뿐이다. 그래서 「人民民主主義」는 結局 国家의 全体社会를 뒤집어 엎는 방법이고 그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이 内乱이나 폭력적 혁명 없이도 그들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社会主義 国家들은 먼저 社会主義 経済体制와 共産主義者 즉 労動者 階級에 의해 支配되는 政治体制와 「이데올로기」를 가지며 革命的 방어를 위해서 共通의 目的인 共産主義를 指向하는데 있어서의 共通의 利益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国家도 特権을 主張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즉 社会

主義 国家群에서의 分離, 孤立이란 것은 理論的으로 成立될 수 없으며 経済的으로는 危險하고 政治的으로는 반동적이라고 主張했다. 그래서 世界社会主義 体制의 重要한 戒律은 「단결」인 것이다. 또 이 計劃에 의하면 체제 内에서의 공통정책은 다음 두가지 概念에 依해서 支配된다는 것이다.

첫째, 階級闘争은 社会主義 建設段階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둘째로, 資本主義는 이제 쇠퇴와 몰락의 時期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党의 計劃은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그들의 공통정책을 예시하고 있다. 高度의 安定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国内·外의 적대세력에 대한 부단한 경계와 투쟁, 그리고 적진영의 단결의 와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 사회주의 진영은 그들의 모든 세력을 단합하여서 共産主義에 적대하는 어떠한 勢力도 마지막까지 철저히 분쇄해야 되는 것이며 経済的인 경쟁에서 이기고 또 帝国主義 진영내의 세력을 활용해서 군비감축을 선동하고 유화주의 정책을 선동하며 그리고 西方陣営의 단결체제의 와해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世界 社会主義 体制는 植民地 혹은 前 植民地 国家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후르시쵸프」가 창안한 革命의 戦略은 1956年부터 이 計劃에 수록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는 모든 社会主義 国家의 공통정책이 되어 왔으며 그들은 무엇보다도 적의 저항을 침식시키고 손상시키기 위해 그들의 세력을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들이 勢力을 얻었을 때에는 이제는 平和的 方法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方向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毛沢東의 理念的 貢献(프로그램 No. 20)

* 「빗 트 포 겔」 博 士

共産主義 思想과 行態에 対한 毛沢東의 貢献은 그의 불분명한 独創性에 대한 主張 때문에 모호하게 되었다. 毛沢東은 그가 처음으로 社会主義의 모순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가 처음으로 가장 과감히 農民에 기반한 共産主義 權力闘争 政策을 形成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湖南省農民報告書는 1927年에 저술되었다.

毛沢東은 그가 正統派 共産主義에 対해서 言及하는 과정에 後進性 「부르조아」民族主義者들과 植民地나 半植民地 国家들을 매우 다양하게 活用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主張들은 毛沢東의 実際業績을 모호하게 하는 신비스런 일들이며! 어느 정도 事実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行態는 많은 伝説이 퍼뜨린 것과는 다른 것이 있다. 毛沢東은 分明히 政治的인 現象의 核心問題에 対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그의 몇가지 思想은 상당히 날카로운 바가 있다. 그는 特히 사람과 사상을 아주 능란하게 組織하는 天性을 타고 났다. 그는 또한 충격적인 文句를 만들어 내는데 天才的인 素質을 갖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資質들은 그것만을 가지고서 그를 共産党의 가장 卓越한 指導者로 만드는데 充分한 条件은 아니었을 것이나, 적어도 그가 中国共産党의 現位置에 올라가는데 그를 도와준 것은 事実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것이 分明히 그를 가장 능률적인 宣伝家로 만드는데 決定的인 要因이 되었다. 그러나 宣伝이란 理論이 아닌 것이므로 毛沢東이 변증법적인 用語를 썼다고 해서 그가 곧 古典的인 共産主義思想의 哲学者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社会主義라는 이름밑에 二次的인 혹은 非敵対的인

* Karl A.Wittfogel: 「와싱톤」大学 中国史教授. 独逸胎生, 「프랑크푸르트」大学 Ph.D.

모순이 생길 것이라고 毛沢東은 宣言하였으나 그의 말은 전혀 새로운 概念도 새로운 形態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概念은 일찌기 「칼.마르크스」가 1875年에 이미 사용한 바가 있다.

이와같은 形態는 「레닌」이 提示하였다. 또 實質的으로 毛沢東이 그 社会主義의 모순에 対해서 「레닌」으로 부터 引用하였다고 自己演説에서 말한 바도 있다. 1957年에 毛沢東은 社会主義下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위 非敵対的인 모순을 열거한 적이 있다.

이 모순이란 共産主義政府와 人民사이에 存在하는 모순을 말했다.

1956年2月24日에 있었던 秘密会議에서의 「스탈린」統治時代에 対한 연설에서 「후르시쵸프」도 이러한 理念에 対해서 言及한 바가 있다. 그러나 毛沢東의 말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후르시쵸프」의 말보다 널리 보급되었으며 毛沢東은 이와같은 共産主義 政府와 人民間의 알력을 모순이라고 불렀다. 毛沢東은 모순이란 概念을 拡大 駆使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변증법적유물론 自体를 더욱 拡大시켰다는 뜻은 아니다.

1937年 여름에 行한 社会主義의 実際와 矛盾에 対한 두개의 哲学的인 강연은 政治的으로 매우 興味로운 것이었으며 나중 그는 이것을 그의 選集속에서 結論을 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実際 中国의 与件에 들어 맞기 때문인 것이다. 理論的으로는 이것은 원래의 矛盾論보다 더 나은 것도 못한 것도 아니다. 毛沢東은 단지 初步的인 理論을 반복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스탈린」과 「레닌」등에서 부터 引用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1937年에 그들의 作品들이 이미 소련 서적으로부터 中国말로 번역되어 中国에서는 辨証法的唯物論에 関한 冊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때인 것이다.

이같은 毛沢東의 2個의 哲学的인 演説은 1951年과 1952年에 各各 出版되었다. 1937年에 刊行된 그의 原本에 대해서 많은 修正을 加한 그의 社会主義 実際와 矛盾에 関한 그의 公式的 選集이 1951年과 1952年版 소련原典의 번역에 더욱 의존했었는지의 여부에 対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에서 나온 情報에 依한다면 1940年에 毛沢東이 辨証法的 唯物論이라고 제목을 붙인 세번째 哲学的 論文의 試図인 두권의 冊을 出版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여러개의 論文에서의 毛沢東의 辨証法的 唯物論에 관한 理論은 全的으로 中国에 알려진 소련의 著書들에 依存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의 그 原文의 40%가 文字 그대로 베낀 것이며 소련共産主義 思想家会議의 中国語로의 번역과정에서 표절되었고 절취되었으며 그것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文字그대로 실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 毛沢東이 그렇게 너무도 표절했기 때문에 그가 抽象的인 哲学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態度가 특별히 不安했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다. 어쨌던 그 問題에 対해서 不完全한 出版物들은 그의 1940年 選集에서는 除外하였다. 그렇다면 毛沢東이 共産主義의 哲学的 基本思想에 対해서 어떤 기여를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無視할 程度라는 것을 우리는 確言할 수 있다.

그리고 共産主義의 戦略概念에 関한 毛沢東의 貢献도 그렇게 인상적인 것은 못된다. 帝国主義에 対한 共産主義의 概念은 1915年에 「레닌」에 의하여 形成되었다. 共産主義者들이 잠정적으로는 植民主義国家나 革命的, 民族的 「부르죠아」와 聯合戦線을 편다고 하는 概念도 1920年 「레닌」에 의하여 形成되었다. 1920年이란 中国共産党이 創党되기 바로 전 해인 것이다. 「마르크스」主義的 立場에서 본다면 中国共産党의 創設者들 중 毛沢東까지도 포함하여서 아무도 당시는 成熟되지 않은 새파란 애숭이였고, 共産主義 理念을 거의 理解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922年에 가서야 그들의 党計劃의 礎石으로써 이러한 概念이 도입되었다. 毛沢東이나 中国共産党을 創立한 그의 同志들이 後進된 反動투성이의 国家에서는 共産主義者들은 불만에 찬 農民의 支持를 받고 그것에 의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創案한 것은 아니다. 이 概念, 즉 農民을 통한 革命의 成就라고 하는 概念조차도 事実은 「레닌」의 착상인 것이다.

그리고 毛沢東은 그 思想을 創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適用

하는데도 相当히 지체되었던 것이다. 毛沢東의 中国共産党 同志들은 1927年에 発刊된 湖南省報告書의 原本에 의할 것 같으면 그때에는 土地分配에 관한 問題조차도 提示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 1951年에 毛沢東選集속에 편집된 湖南省報告書에는 이와같은 項目이 後에 날조 挿入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위 1927年 늦여름에 추수폭동이 일어났을때 毛沢東은 自己의 고향인 湖南省에서 主要役割을 맡았으나 農民革命에 対해서 어떤 関心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土地分配에 対해서도 1927年 11月 14日까지도 아무런 関心을 갖고 있지 않아서 結局 党의 政治局으로부터 逐出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의 政治局으로 부터의 逐出에 対한 主된 理由였던 것이다.

毛沢東의 全面的인 権力闘争의 적극적인 戦略은 共産主義 思想의 特殊한 形態라는 点에서 적극적인 것인바 이것은 특히 共産主義思想의 戦術運営的 形態와는 다른 것이다. 여기에 関한 限 우리가 毛沢東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相当히 重要한 戦争의 形態가 中国에서부터 처음으로 発生되었으며 이것은 中国과 비슷한 背景을 가진 나라에 있어서 그와 같은 새로운 形態의 戦争이라고 하는 것은 相当히 重要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民族主義者들과의 統一戦線을 편다는 戦略에 関한 限 위장과 침투 같은 여러가지 戦術的인 問題가 毛沢東의 選集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1923年에 毛沢東의 論文은 当時의 国際共産党의 路線과 一致하고 있으며. 이것은 물론 中国共産党의 路線과도 一致하는 것이다. 그는 中国의 商人들이 노동자나 農民보다도 民族革命의 主流가 되어야 한다고 提示하고 있다. 이 論文은 最近에 発刊된 그의 選集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누구든지 中国共産党의 刊行物을 보는 사람은 쉽게 그 原文을 얻어볼 수 있다. 1927年 가을과 겨울에 毛沢東은 1923年以後 共産党員의 加入을 許容한 国民党의 宣伝部長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国民党에 対해서는 말만의 봉사를 하고 実際的으로는 共産党의 利益을 追求한다는 概念을 創案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最初의 聯合戦線時期에 毛沢東이 쓴 많은 論文과 演説文들은 그후 大衆앞에 出版되지는 않았다.

1940年 봄에 소위 中国国民党과 国民政府의 第二次国共合作에 대한 問題点이 크게 대두되었다. 毛沢東은 자기의 選集 第2巻에 편집된 辨証法的 合作이라는 内容에서 辨証法的 合作이라고 하는 合作의 最終目的을 아래와 같다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우리 共産主義者들은 国民党의 영토내에서 「부르조아」 民族主義者들과 協助함으로써 利益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1940年에 「히틀러」와 「스탈린」의 不可侵条約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고, 中国共産主義者들은 抗日聯合戰線을 為하여 国共合作을 하였던 것이며 国民党의 組織과 領土에 침투해 들어가지 않겠다고 約束하였던 것이다. 1945年에는 아직도 公式的으로는 1943年에 맺어진 国共間의 協定이 維持되었으나 이는 「모스크바」가 아직도 中日戰争이 계속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国際共産党의 立場은 独・蘇不可侵条約의 結果로 相当히 強化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毛沢東은 이제는 中国共産党의 수령으로서 自己의 同志들에게 "国民党의 提案을 무시하고 可能한 限 많은 地域에 대한 支配権을 확보하라"고 지령하였으며 이것은 中国 全領土에의 파급을 意味했다. 이것은 敵과 同盟을 맺고 이를 利用하여 敵의 勢力을 잠식해 들어가는 共産党 政策의 典型的인 例인 것이다. 「레닌」의 共産主義者와 民族主義的 革命者와의 잠정적인 統一戰線을 形成한다는 概念이 形成되었으며 第一次国共合作의 末期에 가서는 国際共産主義者들은 農民革命과 土地分配 問題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中国共産主義者들은 「부르조아」階級을 놀라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宗教에 관한 政治的・社会的 革命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広範한 試図를 하였다. 毛沢東은 그의 <湖南省報告書>에서 第一 時急한 問題인 土地分配問題에 대해서는 종전에 그가 取한 伝統的 権威社会에 대한 社会的・政治的 革命을 철저히 計劃하고 組織化하는 過程에서 土地分配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主張과는 달리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態度를 取

하고 있다. 그의 宣伝的이고 組織的인 方法이 여기에 活用되었으며, 여기서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라틴아메리카」의 問題에 대한 理論의 適用같은 것은 아무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個個의 敵에 対한 사살, 위협, 고문등의 問題에 対해서 상당히 具体的으로 叙述하고 있다. 〈湖南省報告書〉에서는 農村地域의 人民의 $\frac{1}{3}$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指摘하였다. 그것은 바로 무자비한 地域別 「테러」行為의 問題인 것이다. 毛沢東의 思想이란 것은 教訓的인 一面이 있는만큼 실로 공포의 一面도 갖고 있는 것이다.

〈湖南省報告書〉의 다른 面은 또한 重要한 것인바 여기서는 毛沢東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룸펜·프롤레타리아」에 対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対한 일종의 態度인 바 그들 「룸펜」이 「프롤레타리아」의 밑에서 그리고 범주 밖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면에서는 아직도 약간 구태의연하여서 「프롤레타리아」革命運動에서 이들은 除外하라고 하였으며 1848年의 불란서혁명에서는 이들을 銃殺하라고 까지 要請하였다. 이와 같은 観点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바쿠닌」와 같은 사람과는 예리한 의견의 対立을 보았으며, 「바쿠닌」는 社会의 全般的인 変動과 破壊를 為하여서는 이들의 役割이 重要하다고 評하였던 것이다. 「볼세비키」들은 이와같은 行動에 対해서 反対는 하지 않았으나 「레닌」은 이것을 概念化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類似 無政府主義的 政策을 수행한 사람은 바로 毛沢東이었다. 「마르크스」主義와 「레닌」主義의 共産主義가 中国에 들어오기 前까지는 毛沢東은 약간 無政府主義的인 要素를 짙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후에 毛沢東은 "나는 無政府主義에 関한 「팜프렛」을 읽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라고 말한 일이 있다. 毛沢東의 〈湖南省報告書〉와 그밖에 初期의 그의 著書들에서 이와 같이 말한 바가 있다. 毛沢東은 「룸펜·프롤레타리아」層의 革命의 잠재적인 力量을 強調하였다. 中国사람들은 이들 「룸펜·프

롤레타리아」등은 遊民이라고 하면서 떠돌아 다니는 사람·거지·도둑·탈주병, 강도, 도박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룸펜·프롤레타리아」에 관한 그의 槪念은 毛沢東이 과거에 類似無政府主義的인 背景을 가졌다고 해서만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 「콤민테른」과 「불가린」이 아무런 制約없이 그 報告書에 対해서 대만족한 態度를 가졌다는 것 역시 重要한 것이다. 그런데 「콤민테른」 즉 国際共産党은 이 報告書를 널리 普及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불가린」이 「콤민테른」의 책임자였을 때 뿐만 아니라 그후에 「스탈린」의 時代에 와서도 그랬던 것이다. 〈湖南省報告書〉와 毛沢東의 다른 著述에 의할 것 같으면 「룸펜·프롤레타리아」를 活用하라고 主唱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社会에 対한 背景에 対해서 強調되어 있지 않으나 毛沢東의 選集속에는 대개 要点이 記録되어 있다. 이것은 当時의 소련에 있어서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으며 또한 다른 国際共産党 運動에서도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스탈린」의 死亡 직후에 소련共産党의 기관지 「프라우다」는 毛沢東을 世界解放運動에 있어서의 가장 偉大한 「마르크스」主義 理論家라고 치켜 올렸던 것이다. 毛沢東의 著書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解放闘争을 보다 무자비하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対해서 首肯할 따름이며, 이것은 특히 共産主義者들이 충동하고 이끌고 있는 많은 後進開発途上国에 있어서의 共産主義者들이 소위 解放闘争을 더욱 무자비하게 하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오늘날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야만적인 闘争이 中国共産党에 의해서 지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것은 毛沢東에 의해서 저술되었으며 「모스크바」의 共産主義 指導者들은 단지 그것을 国際共産党 運動속에 집어넣었을 따름이다. 「레닌」과 「스탈린」은 둘다 그들이 이끌고 후에 그 속에서 権力을 장악한 革命政党과 마찬가지로 都市 中心의 路線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소련共産党은 産業労動者의 政党으로서 「레닌」과 같은 都市의 「인테리」 또는 「스탈린」과 같은 「半인테리」에 의해서 이끌어졌던 것이다. 毛沢東의 中国共産主義者들이 탄생시킨 社会라

고 하는 것은 거의가 農村 村落들이고 몇개의 外国人 居住地를 除外하고는 産業都市라곤 거의 없다.

中国共産主義者들이 이와같은 自己들의 特性을 알게 되자 그들은 農民과 손을 잡을 것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主要한 政治的인 路線의 과업성취에서는 이것이 不可欠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毛沢東은 村落에서 자란 少年이었고 많은 中国의 富農家族들이 没落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들은 반드시 農民은 아니었으나 富農들이 農民과 가까운 정도는 「마르크스」主義者나 「레닌」主義者들 보다는 훨씬 가까왔던 것이었다.

이와같은 事実이 「마르크스・레닌」主義者들이 소련의 農村에 대한 経済的인 研究 結果를 서술하고 있는 동안 毛沢東은 왜 農村에 들어가서 그들의 助言者가 되고 平凡한 農民을 組織하는 사람이 되고 그 중에서도 현지 조사를 하게 되는 가를 説明한다.

그리고 「레닌」의 基本的인 戦略概念을 維持하면서 毛沢東이 「레닌」의 植民地 및 農村地域의 事態에 対한 共産主義의 運営에 対한 것을 더 追求하여 拡大하고 세련화시켰던 것은 「레닌」과 「스탈린」은 農村에 対하여 잘 알고 있지 못했거나 거의 막연한 생각을 가진 것일 따름인데 比해서 毛沢東은 거기에 比較的 密接한 関係를 가지고 있었다는 理由에 연유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事実은 또한 共産主義의 「게릴라」戦闘概念이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形成되지 않고 毛沢東에 依해서 説明된 理由도 말해주고 있다

이와같은 概念은 中国共産主義者들의 背景속에는 가장 자연스럽게 開発될 수 있었으며 毛沢東은 1927年만 하더라도 都市를 떠나서 活動하였다. 世界勢力의 観点에서 볼적에는 도시 근처라고 하는 것은 또한 国民党 政府와 長期的인 내전을 할 수 있는 中心地였으며 또한 그 地域的인 분거지가 되었다. 또한 毛沢東은 最初의 農村集居 동안에는 主로 中部 中国에 있었는데 主로 軍事的인 과업과 問題에 있어서는 그렇게 새로운 論旨를 전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소련에서 訓練을 받은 中国共産主義者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소련의 군사학적 文献들이 中国의 환경에 맞도록 번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毛沢東은 紅軍의 연안지방으로의 長征 以後의 第二次農民時代에 있어서 中国 北西部의 省인 江西省에서 소규모의 共産軍事力을 建設하고, 組織的으로 国民党과의 戦闘에서 얻은 여러가지 教訓을 体系化하였으며, 특히 中共軍 즉 紅軍이 1927年부터 싸워 왔던 国府軍과의 対戦에서의 여러가지 教訓을 整理하였던 것이다. 「게릴라」戦闘에 관한 著書에서 毛沢東은 中共軍이 中日戦争에 있어서 어떤 役割을 할 것인가에 対한 어떠한 修正을 加했던 것이다. 그는 共産主義 「게릴라」戦闘의 特徴을 서술하고 이와같은 戦闘의 特徴으로서는 政治的·経済的·理念的인 戦争이며 同時에 軍事的인 戦争의 結合物이라고 하는 것을 指摘하였던 것이다. 그는 또한 中.소関係에 있어서의 중반기에 창안되었던 「슬로간」들도 그와같은 「게릴라」戦争에 活用했던 것들이다. 그는 또한 中共軍이 人民大衆들에게 어떻게 行動을 해야 할 것인가에 対한 一般的인 問題点들을 指摘하였고, 共産主義者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人民들의 사이에서 사는 고기라는 文句를 썼으며, 고도의 流動的인 戦闘의 形態를 썼고, 소위 질질끄는 戦争이라는 用語들을 표준화하였으며 三段階 闘争에 対한 概念, 그리고 세계포위의 概念, 또한 共産主義者들이 莫大한 代価를 치루고서라도 공격을 하고 모든 난경을 겪고 나면 最終의 영광스러운 勝利를 얻을 것이라는 言約을 「게릴라」戦에 対한 논의 속에 包含하였던 것이다.

毛沢東의 「게릴라」戦術에 있어서 어느 程度의 非現実性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대단히 興味로운 것이나 毛沢東의 「게릴라」戦闘에 対한 科学的인 理解와 戦術的인 깊이에서는 약간 非現実的인 面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던 毛沢東이 共産主義 形態로서 그렇게 理念的으로 주의를 끌지는 못했지만 어쨌던 한 形態의 새로운 戦闘의 原則을 그가 形成하였던 것이다. 毛沢東의 「게릴라」戦闘에 관한 이념은 널리

퍼졌으며 여러나라 말로 번역되어 많은 未開発国에 이미 퍼져 있다. 毛沢東의 「게릴라」戦術戦略에 関한 서적은 例를 들면 월맹의 「지압」, 그리고 「쿠바」의 「체·게바라」와 같은 親共的 作家나 共産主義者들에게는 잘 알려진 有名한 冊이다. 毛沢東이 「게릴라」戦争에 関해서 한 강연과 여러 論説集은 世界共産主義運動의 闘争方式에 있어서 하나의 重要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地球上에 새로운 国家가 늘어감에 따라 共産主義를 택하는 사람의 数도 자연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多元化된 開放社会의 成長을 저해하고 一元化된 全体主義 勢力을 設立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効果的인 方法이다. 그리고 이것은 全体 人民을 노예화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重要한 要素가 되고 있다.

毛沢東은 이와같은 중요한 기여를 그 生涯에 있어서의 初期와 中期에 이룩하였던 것이다. 最近에 毛沢東은 理念的이고 政治的인 새로운 概念의 定立化를 為한 試図를 하였던 것이다. 소위 前産業時代的인 農業의 高度의 集団化 政策과 그렇게 함으로서의 集団農場의 設立, 戦争과 平和共存에 관한 理念的인 論争 특히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伝統主義者와 修正主義者의 概念 等이다. 共産主義者의 水準에서 이와같은 것을 평가해 볼적에는 毛沢東의 最近의 概念은 상당히 고상한 要素를 갖고 있다. 또 一部는 상당히 共産主義의 目的에 새로운 것도 되는 것이며 왜냐하면 대부분의 党의 思想은 中国共産党 政権이 安定된 다음에 나온 것이며 主로 「스탈린」의 死後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中国共産党의 새로운 思想은 적어도 극동지역의 現代史에는 상당히 重要한 部分이 되는 바 이는 다음 章들 즉, 中国의 共産主義 政権과 중·소紛争이라고 하는 논제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第四節 共産主義教義에 対한 反応

1. 共産主義에 있어서의 理念의 역할(프로그람 No. 21)

*「니 마 이 어」博 士

대개의 사람들은 共産主義理念에 対한 研究가 共産主義를 理解하는 열쇠가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와 相反되는 見解도 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 対해서 言及하고난 다음에 결국 共産主義의 理念이 共産主義者들의 行動과 그들의 政策에 있어서 어떠한 関係에 있는가에 対해서 具体的인 実例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로 理念을 무시하는 学者들이 있다. 이 範囲속에 포함되는 것에는 물론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6가지의 理念的인 共産主義 분석자들의 例를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共産主義者들은 最初에는 理念에 対한 신봉을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들의 革命的 열의는 식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냉담하여 졌다는 見解이다.

두번째로 共産主義者들의 理念이 変하였다는 見解이다. 理念이 너무나 많이 変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理念体系로 存続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너무나 심한 変化가 있어서 이제 共産主義者들이 더 以上 그 理念에 따라서 行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 理念이란 権力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다만 질서 유지를 위하여 理念을 利用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네번째 「이데올로기」는 아직 存在하고 있으며 共産主義者들은 어느 정도까지 理念에 대해서 존경을 表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実際的인 問題는 発展하고 있는 産業社会의 問題인 것이다. 産業社会야 말로 第一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 政治学 教授
独逸胎生,「마드리드」「프린스톤」「예일」大学教授歷任

重要한 問題이며 「이데올로기」란 단지 產業社会의 하나의 庶子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共產主義란 「이데올로기」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共產主義는 단지 階級闘争으로서만 說明되어야 하며 共產主義者들의 견해차이는 새로운 階級 即 官吏層의 官僚에 대한 理解와 상관되는 問題라는 것이다.

여섯째 共產主義란 理念으로서 分析될 수 없고 단지 民族主義와 民族主義的 特性에 依해서만 說明되어 진다는 견해이다. 共產主義者란 本質的으로 제정 「러시아」때의 「러시아」 民族主義의 연속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이들의 見解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첫번째의 見解는 革命의 自然法則에 関한 것인데 그 法則에 依할 것 같으면 革命的인 정력은 最初에는 잠간동안 극열한 暴力性을 띄고 있다가 점차로 이것이 식어지면서 가장 保守的인 日常生活로 젖어 들어간다는 것이다. 두번째 견해는 「이데올로기」란 하나의 料理冊과 같아서 必要할 적에 가끔씩 参照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共產主義의 實際와는 다른 것이며 이와같은 견해를 主張한 것은 共產主義者들이 理念에 立脚해서 行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번째 견해는 權力의 存在가 政治的 行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서만 政治的 行動이 說明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번째 견해는 經済的인 問題보다도 더 實際的인 問題가 없다는 것이며 經済的인 問題만이 모든 人間行動을 說明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번째 견해는 「마르크스」主義的인 견해로서 단지 階級만이 모든 것을 說明할 수 있고 「이데올로기」란 階級의 利益에 종속된다는 見解인 것이며 마지막 견해란 民族主義가 絶対的인 要素로서 이것만이 모든 原動力이 된다는 見解인 것이다.

그런데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理念的인 問題에 對해서 討論하고 그들의 理念을 갖게 되고, 이를 出版하고 모든 国民들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注入시키며 이것에 依해서만 行動한다. 다시말해서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란 相当히 重要한 것이다. 따라서 現實의 權力이나 經済나

階級이나 民族主義者의 것보다 理念이 重要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도의 共産主義者들의 行動속에서의 理念的인 重要性의 두렷한 実例를 無視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벌써 결정되었으며 또한 이같은 事実은 理論以外의 엄연한 事実로는 表現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그와같은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学者的인 態度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이것 자체가 本質的으로 理念的이다. 한 例를 든다면 階級의 利益이라는 觀点에서 全体的인 共産主義의 政治的인 行動을 説明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마르크스」主義者의 理念과 一致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이 理念的인 面에서 体系化되지 않고 그렇게 行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와같은 論者들은 現実의 事実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같은 事実들이 그들의 先入見에 들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外面하려고 하는데 不過하지만 이것 자체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行動인 것이다. 또한 革命이란 하나의 週期를 必要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부당하다. 歷史的인 実例로서 불란서 革命에는 들어 맞을는지 모르겠으나 1795年에 불란서 革命의 「테러」분자들은 모든 것을 정지했으며, 불란서는 대체로 行政的인 問題와 経済的인 問題를 実際的 課題로 표방하는 政権의 支配下에 들어 갔었다. 우리가 섣불리 結論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불란서 革命에 있어서의 理念的인 革命主義者들이 一定한 時間이 지난 다음에는 열의가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理念的인 支配者들은 그들의 마음을 変更시키기 보다는 차라리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이다. 共産主義者의 경우에서는 그와같은 事実은 일어나지 않았다.

소련의 肅淸過程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은 어느 程度 宥和主義的인 路線으로 갈려고 할때 処刑 당했었다. 소련共産党의 権力闘争에 있어서는 理念이 그 절대적 영향력을 行使했다. 마지막으로 理念은 共産主義에 対해서 별 영향을 주지 않고 共産主義者들은 마치 하나의 料理冊처럼

이것을 가끔 參考할 뿐이라는 見解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근거로 한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唯物論者이다〃라고 말해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問題가 아니다. 實際로 그들은 理想에 對해서 相当히 重要한 關心을 갖고 있는 것이 事実이며 이러한 事実은 그들이 理念問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과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共產主義者들의 行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共產主義者들의 世界觀이라고 하는 것은 共產主義에 有利한 사람들의 著書에 根拠를 두고 있는 것이며 共產主義者들은 이를 매우 간단한 形態로서 형상화하여 알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그들과 全世界를 現在와 未来라는 두 時代사이의 概念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두 社会中에서 단지 未来만이 実際的인 社会이며 그것만이 人類의 진실한 삶을 구축해 준다고 보고 있다. 未来社会란 社会主義로서만 만들어 지는 것이며 모든 긴장, 不和, 人生生活에 있어서의 問題点 같은 것은 完全히 극복된다는 것이다. 人間은 未来에는 完全한 自己自身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思考와 行動間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고 個人과 社会全体와도 아무런 충돌이 없을 것이다. 또 人間은 어떠한 苦役도 겪지 않을 것이며 가난과 압박과 戰爭은 사라지고 어떤 구애됨도 가식도 없을 것이며 그뿐 아니라 모든 不条理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人間은 完全한 自我를 찾으며 모든 自己分裂的인 요소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相反되는 要素로서 共產主義者들은 現在 우리가 살고 있는 社会는 거짓투성이의 社会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社会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에 依할 것 같으면 여러개의 階級으로 갈라져 있으며 理想이란 真理보다는 階級의 利益을 代表하는 것에 불과하며, 人間은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며, 화폐가 사람들을 그들의 동료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이다. 人間은 학정하에서 시달리며 政治的인 権力에 依한 暴力, 그리고 少数의 利益과 戰爭에 依해서 항상 利用当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人間의 組織은 내부적인 모순에 依해서 꾸며졌다는 것이다. 모든 社会, 모

든 哲学, 모든 宗教에는 真実이 없다는 것이다. 政府에는 共同体意識이나 조화가 없으며 自由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共産主義者들은 앞으로 오는 미래의 社会主義時代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나아지며 이것을 為해서 現時代의 모든것, 即 나쁜 資本主義에 反対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真理한 未来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것이며 現在의 時代는 모두 거짓과 환상뿐이라는 것이다. 故로 그들이 믿는 것은 미래는 보다 진실하며 現実의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들은 두툼한 3권의 資本論이 모든 것을 科学的으로 証明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모든 関心을 두 時代사이에 있어서의 과도기라는 理論에 集中하고 있다. 그들은 이 과도기란 상당 기간동안이며 이것만이 事実이고 새로운 時代의 힘과 낡은 時代의 힘과의 闘争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한다.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이야말로 未来의 군사이며 그들을 対抗하는 者들은 모두 反動的이고 암흑의 現在를 代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미래는 그들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장기적으로 번영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그들의 闘争이란 암흑의 時代에 대한 闘争인 것이며 또한 現時代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闘争이며, 現時代를 풍미하고 있는 理念에 対한 闘争이며, 모든 사람들의 습성, 습관, 관습 그리고 現代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에 対한 闘争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새롭게 改造될 것이며 現在 있는 것의 完全한 破壊를 為해서 闘争을 継続해야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共産主義者들의 世界観 또는 그들의 態度에 対한 要約인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그들의 교묘한 態度라든가 변증법,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경제학이나 剰餘価値論 등을 그들의 立場이 되어서 볼 必要까지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은 모두 하나의 根本的인 歴史観의 差異에서 기인한다. 歴史를 通한 人間存在의 運動과 「마르크스·레닌」主義는 根本的으로 하나의 科学 即 歴史法則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것들이 그들의 主張대로 科学에 依한 것

이라면 共産主義者들은 未來를 予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未來는 自明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未來를 아는 그들이야말로 오로지 올바른 路線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歷史의 올바른 經路를 걷고 있는 것이며 현재로부터 予定된 未來로 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共産党은 그들이 이러한 歷史의 方向에 対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主張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未來를 위한 전위이고 또 앞으로 올 것을 発展시킬 가장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共産党은 人民의 진실한 利益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階級의 利益과 国家의 利益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共産党은 잘 보이지 않는 未來의 路程에의 안내자인 듯이 꾸미고 있으며 그들만이 딴 사람들을 方向感覚을 상실하지 않게 올바르게 指導할 수 있다는 것이다. 共産党 以外에는 어떤 사람도 이와같은 「리더쉽」을 主張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共産党이 과오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判断은 基本的으로는 어떠한 다른 判断보다도 正当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共産主義者들에게는 党의 路線이야 말로 가장 정당한 것이며 이것은 政策以上인 것이다. 이것은 歷史的으로 提示되는 真理라는 것이다. 그래서 共産党은 단지 하나의 組織만이 아니고 이것은 精神的인 하나의 고향이며 現代의 무질서한 世界에 있어서 唯一한 질서의 섬이라는 것이다. 共産党을 떠난다면 反動과 무의미와 暗黒과 悪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初期의 「볼세비키」主義者인 「익스페리코프」(Iksperikov)가 共産党이 歷史의 法則을 克服하여서 革命을 이룩하는데 成功하였고 따라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成功시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말한 바에 依하면 共産党의 基本的인 특성은 어떠한 법에 依해서 구속받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不可能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질 때까지 그 可能의 영역을 継続 넓혀 나간다는 것이다. 共産党에게는 不可能한 것이 없을 것이며 실현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党에서는 그의 말에 依할 것 같으면 진지한 「볼세비키」主義者들은 그들의 마

음을 共産主義의 理想에 바침으로써, 한번 바치게 된 理由로 해서 永遠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볼세비키」分子는 그들의 個性을 党의 個性속에 完全히 의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個人의 信念과 견해는 버릴려는 努力이 必要하며 단지 良心的으로 党의 모든 路線에 正直하게 복종할 수 만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真正한 「볼세비키」主義者인가에 対한 하나의 시험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時代로부터 다른 하나의 時代로의 運動에 対한 信念이라는 것에다가 무조건적인 集団体, 即 共産党에의 종속에 対한 信念을 하나 더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共産党은 歴史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歴史의 運動은 共産主義者들이 볼 때에는 意義 있는 하나의 구조이며 党은 그들이 속해야 할 唯一한 장소이다. 그러나 共産主義의 「이데올로기」 역시 그들의 行動을 支配할 수가 있다. 共産主義者들이 行動을 하다가 料理冊을 보듯이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까를 参照하는데만 「이데올로기」를 参照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行動自体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언어에 제시된 대로 行動하며 단지 「이데올로기」的인 見地에서만 判断을 내린다. 그것이 곧 옳고 그른가를 判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주어진 사실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党의 決定에 달려 있다. 이것은 即 누가 党의 要職에 있느냐 하는 問題인데 바로 이와같은 実用主義的 観点위에서 党의 路線이 결정되기도 하나 党의 路線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絶対的인 真理위의 具体的인 路線이라고 認定되어 있으며 또한 特定時点에 있어서의 歴史表現의 진리라고 主張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주어진 実用的 選擇이란 것은 보통의 다른 実用的인 선택과는 다른 것이며 正確한 選擇이란 단지 하나만이 存在할 뿐이다.

그 밖의 모든 選択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반동적인 생각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모든 共産主義者들이 自己 주위에서

유리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품게하며 그는 자기가 革命的인 知識에서 소외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항상 품고 있게 되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이 항상 現代社会의 영향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그들의 党 동료까지도 反動에 물들지 않는가 하고 의심한다. 그들은 反動的이고 敵対的인 世界와는 対話도 나눌 수 없다는 信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共産主義者들은 거짓을 해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숨기고 조작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한다. 그들의 理念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共産主義者들이 그들의 一生을 단지 階級의 敵에 대해서는 敵対的으로 行動하게금 생각하게 하였으며 또 現存代의 모든 勢力에 対抗하여 行動하도록 要求하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世界란 바로 타락해 가고 있는 資本主義의 世界라고 함으로서 그들의 모든 敵에 対해서 적대감정을 갖도록 教育을 하고 있다. 歴史의 前進運動이라는 것은 모든 反動에 対한 闘争으로 形成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적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말에 따르면 科学的인 精密性을 가지고 그들의 敵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観点에서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적을 美国이라고 生覚하고 있다. 이는 美国이 罪悪을 犯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美国이 모든 現代의 勢力의 中心이라는데 根拠한다.

理念은 또한 소위 유명한 共産主義者들의 예언의 根源인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未来는 불가피하게 그들의 것이라는 의심 없는 信仰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거짓을 아무런 패배감이나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行動追求過程에서 失敗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들의 利益을 追求해 나갈 수 있는 다른 方法을 모색한다. 마치 기계공이 나사못을 잘못 끼우면 다른 나사못으로 바꿔 끼듯이 한번 失敗한 것은 다른 方法으로 조용히 変更할 뿐인 것이다.

그들은 또한 모든 강요와 困難을 달게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未来에는 이와같은 것이 充分히 보상되리라는 信念을 가지고서 現在의 困難을 감수한다. 그들은 또한 「후르시쵸프」의 「월터・리프맨」과의 「인터뷰」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膨脹을 하나의 현상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딴 나라에의 간섭을 国内問題라고도 태연히 이야기 한다. 共産主義者들의 理念이란 이와같이 멀리를 조망하는 것으로서 世界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근원이며 세계관인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現在에 있는 現実을 그대로 直視하는 것이 아니라 共産主義 理念이 그려주는 대로, 理念이라는 틀을 통해서 現実을 보려고 한다. 共産主義者들은 理念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世界観을 받아 들이려고 결심한 者들인 것이며 또한 理念的인 태도 속에 그들의 態度를 完全히 一致시키게금 決心을 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의 世界観과 態度에 対해서 한번 그렇게 決心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또한 党의 圧力에 依해서 強化된다. 共産主義者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매력에 의해서 支配되고 있으며 또한 半合理主義的인 설득과 강압을 통해서 그것이 유지된다. 이와같은 世界観은 現実的인 行動과도 巨大한 포용력과 適応力을 가지고서 서로 조화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의 変化에도 適応하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의 「이데올로기」는 수시로 수정 되었다. 그들의 理念은 戦略的인 概念과 그들이 精神的인 上部構造라고 부르는 両面에 있어서 修正을 받았다. 그들의 戦略概念은 状況의 変化에 따라서 修正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르시초프」의 새로운 戦略은 1956年에 形成되었는데 外部勢力과 그들의 勢力間의 새로운 関係에서 改編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変化는 理性的인 상부구조 속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이 상부구조는 共産主義 理念의 세부적인 것을 구성한다. 그래서 共産主義의 理念에 있어서의 弱点이 이곳 저곳에서 修正되며 새로운 것에 依해서 보장되나, 共産主義 理念의 核心이나 基本的인 世界観 그리고 그것에 適応하는 態度는 절대로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거의 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共産主義 理念에 対한 研究는 곧 共産主義에 대한 態度에 対해서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共産主義者들의 理念的인 動機造成이 継続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근거에 대해서 関心을 가질 必要가 있다. 또한 理念이라고 하는 問題는 共産主義者 自身들에게 理念自体의 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첫번째 問題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共産主義者들의 끊임없고 強力한 그들의 教理에 対한 教育을 주의해야 한다. 수백만권의 理念에 관한 冊이 印刷되었고 分配되었으며 共産主義者들은 항상 이와같은 尨大한 量의 理念的인 注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정규학교에서의 교과과정에서는 물론 당계서의 教育에서도 50%以上을 理念에 대한 教育을 받고 있다. 특히 당의 学校에서는 그 以上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注入 이외에도 党의 各種会議에서도 教育이 이루어 지고 있다. 모든 政策은 理念的인 観点에서만 討論되고 있으며 모든 勢力의 構造는 理念的인 問題만을 다루고 있다. 누구든지 敗하는 者는 理念的인 観点에서 敗北하는 것이며 勝利者는 그들이야 말로 가장 原動的인 「이데올로기」적 路線을 追求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끔 이루어지고 있는 숙청은 오로지 「이데올로기」라는 観点에서 正当化되고 있으며 事実上 모든 숙청이라는 것도 理念의 変質을 막기 위해서 또는 궁극적인 「이데올로기」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견지에서 강요되는 것이다. 그들이 반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除外하고 나서 어떠한 근거에서 共産主義 政權의 反宗教的인 政策을 擁護할 수 있을 것인가? 理念的 理由때문이 아니라면 왜 共産主義者들이 長期的인 闘争이라는 어려운 問題를 일부러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인가? 왜 그들의 政府가 理念的인 理由 때문이 아니라면 芸術의 統制를 하는 것일까? 왜 共産主義者들이 半合理的인 経済政策을 採択하여도 原価計算, 価格의 決定 等 合理的인 経済政策을 取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理念的인 理由以外에는 어떠한 理由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의 政策과 共産主義者들의 그 実践은 우리가 理念을 理解하고 나서야 理解될 수 있는 것이며 理念을 떠나서는 「윈스톤·처칠」의 말과 같이 内的으로 外的으로 신비에 싸여 있는 수수께끼로 밖에 理解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共産主義者들의 「이데올로기」란 하나의 資産일 뿐만 아니라, 共産主義者들에게 가끔 짐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은 人工的인 概念이며 허위의 自由概念이다. 이것은 現実을 그릇 判断케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데올로기」란 그 定義上 理想的인 現実을 있는 그대로 反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一定한 方向으로 現実을 볼려고 하는 人間의 의지를 반영해 주게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或은 拘束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根拠하고 있는 政策이라고 하는 것은 現実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데올로기」主義者들은 이렇게 해서 人間의 本性, 人間의 利益 그리고 理想等에 対해서 오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며 그릇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데올로기」에 拘束되어 있는 人間이란 대개 이상을 예정된 틀에 맞추려고 하고 있고 現実을 自己의 기성개념과 억지로 두드려 맞추려고 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확신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바란대로의 現実을 現実로서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現実이란 実際 있는 그대로인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정상적인 현실과 실제 있는 그대로의 現実과는 항상 等式이 成立되지 않는다. 全体主義的인 政策이라고 하는 것은 全面的인 失敗로서 運命지워졌었다. 共産主義者들이 「러시아」에 強要한 것은 社会主義였으나 社会主義와 소련社会는 그들이 기대했던대로 一致된 조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社会中心으로써 統合하고 그들의 범죄를 줄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위 풍요한 生活을 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는 곧 共産主義者들의 基本的인 失敗를 나타내는 것이다. 共産主義的인 経営下의 소련 농업은 끝없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으며 宗教的인 영향은 사라지지 않고 人民은 그들의 個人的인 利益에 立脚해서 살고자 必死的인 努力을 경주해 왔다. 한편 民族主義者들은 그들을 社会主義化하려고 하는 共産主義의 意図에 対해서 反抗을 하고 있다. 그와같은 일이 일어나면 共産主義

者들은 하나의 「딜렘마」에 直面하게 되고 그때마다 그들은 理念을 버리거나 宗際的인 成功을 포기하는 相反된 행동을 자행한다.

大体로 그들은 全体主義的인 權力을 通해서 그들의 意思대로 모든 것을 밀고 強行하려고 한다. 바로 이 때문에 共產主義者가 全体主義的 路線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反面에 그들은 또한 그들이 기대한 유형대로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묶으려 하고 그들의 理念을 変化하는 現実에 맞추어 나가려고 努力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란 共產主義者들의 政策과 權力에 너무도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權力闘争에서 理念 問題가 惹起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民들은 그들의 權力闘争속에 휘말려서 희생을 당하게 되며 「이데올로기」 역시 그러한 것이다. 또 「이데올로기」가 앞으로의 그런 權力闘争에 따라 더욱 희생당할지도 모른다. 이와같은 것은 勝利者가 패배자를 完全히 침묵시킬 힘이 없을때 나타난다. 「트로츠키」는 반역자로 선고 받은 뒤 소련을 떠나서 10年以上 生存 했으며 이러한 「트로츠키」의 운동은 아직도 共產主義者들의 理念속에 한가지 흔적을 남겨 놓았다. 「티토」와의 闘争에서도 같은 役割이 있었으며 그리고 현재의 소련의 경우도 장래에는 「이데올로기」에 어떤 영향을 줄는지 모르겠다. 만일 「이데올로기」란 한갓 걸치레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모든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共產主義者들의 마음 自体가 「이데올로기」의 틀에 매여있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데올로기」가 그에게 다시 분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無視한다면 우리는 敗北의 苦痛을 맛보아야 할 것이다.

〈参　考　文　献〉

1. Works (13 volumes)
   Joseph V. Stalin.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2-55.

2. Foundations of Leninism (1924)
   Joseph V. Stal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32

3. Dialectical and Historical Materialism (1938)
   Joseph V. Stal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4. Marxism and Linguistics (1950)
   Joseph V. Stal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51

5.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 (1952)
   Joseph V. Stali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52

6. The Grand Tactician: Khrushchev's Rise to Power
   Lazar Pistrak. New York: Praeger, 1961

7. Conquest Without War
   Compiled and edited by N. H. Mager and Jacques Katel.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1.

8. Khrushchev and Stalin's Ghost
   Bertram D. Wolfe. New York: Praeger, 1957.

9.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to the 20th Party Congress
   Nikita S. Khrushchev.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6.

10. Control Figure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USSR for 1959-1965.
    Nikita S. Khrushchev.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9.

11. The U.S.S.R. and the Future
    Leonard Schapiro, ed. New York: Praeger, 1963

12. Soviet Communism, Programs and Rules
    Jan F. Triska, ed. San Francisco: Chandler, 1962

13. The New Soviet Society
    With annotations and an introduction by Herbert Ritvo. New York: The New Leader, 1962

14. "Mao Tse-tung"
K. A. Wittfogel. Colliers Encyclopedia. A critical account of Mao's life.

15.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Arthur A. Cohen. Chicago and London, 196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 "The Legend of 'Maoism'"
K. A. Wittfogel. China Quarterly, I, Jan./March; II, April/June 1960.

17. "Some Remarks on Mao's Handling of Concepts and Problems of Dialectic"
K. A. Wittfogel. Studies on Soviet Thought, December 1963.

18. "The Ideological Motivation of Communists"
Gerhart Niemeyer. Modern Age, 5:389-396 (Fall, 1961).

19. The Nature of Communism
Robert V. Daniels. New York: Random House, 1962

第三章 共 産 政 権

第一節 蘇聯共産党史

第二節 소련의 政治・経済・社会実態

第三節 소련 以外地域에서의 共産主義

第一節 蘇聯共産党史

1. 1917年 以前의 「러시아」革命(프로그램 No. 22)

* 「엘리슨」 博士

소련의 革命運動의 시초는 1917年의 소련革命으로부터 거의 한 世紀 정도 더 소급될 수 있으며 최초의 事例는 대체로 知識階級의 革命運動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革命運動이란 소련 歷史上 자주 있었던 大衆의 蜂起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인에 의해서 計劃化되고, 社会的 政治的인 「러시아」帝国의 질서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한 것을 말한다. 지성인들의 革命運動이 소련에서 시작된 것은 「알렉산더•라디세프」(Alexander Radischev)의 出現에서부터 이다.

「라디세프」는 「캐더린」大帝治下에 있어서의 소년근위병이었으며 그는 당시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그는 「라이프지히」大学에서 法律学을 工夫하게금 命令을 받았고 학업을 마친 뒤에는 황실에 돌아와서 일하게금 予定되어 있었다. 「라이프지히」大学에서 法科大学生으로서 「라디세프」는 「루소」의 사상을 배웠고 당시의 急進的인 구라파의 知性人들 처럼 「루소」를 열렬히 신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루소」의 徳과 正義의 共和国에 심취하였으며 소련에 있어서의 急進的인 改革의 단행을 決心하였던 것이다. 그가 이와같은 思想을 담은 著書를 出版하자 「캐더린」황제는 그가 불란서의 미친病이 걸린 사람이라고 즉각 투옥하고 유형에 처하였으며 그는 不幸한 生活속에서 일찍 死亡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최초로 소련政治社会의 秩序를 既存 秩序로부터 급격히 변경하고자 하는 革命知性人이라는 点이 重要한 것이다. 그래서 「라디세프」

---

* Herber J. Ellison : 「캔사스」大学 歷史学教授, 「슬라브」地域研究所場, 「런던」大学 Ph. D.

는 소련社会의 하나의 例外가 되었다.

당시에는 少数의 改革的 「인테리」가 있었으나 大部分은 漸進的으로 그리고 秩序있게 改革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大部分이었다. 온건한 改革主義者와 황실과의 関係는 근 1세기에 걸친 소련革命運動史의 重要한 問題点이 되어 왔다. 이와같은 온건파들은 「캐더린」황제의 末期 政策에 対해서 실망을 하였고 「파울」황제의 짧은 統治에도 역시 실망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더」皇帝의 治下에 있어서는 새로운 約束이 이루어졌으며 소련帝国에 상당히 急進的인 改革이 오리라는 커다란 希望이 주어졌고 이것은 皇帝自身이 일선에 나서서 活動을 展開하였던 것이다. 皇帝는 사려깊은 통찰력을 통해 活動을 展開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온건한 改革主義者들은 그를 감싸고 그를 지도자로 받들게 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더」皇帝 治下의 末期에 이르러서는 유럽과 밀접한 접촉을 維持하므로써 改革思想은 다소 鼓舞的이었으나, 불란서革命, 그리고 「나폴레옹」의 등장에 따른 구라파의 反改革的인 気運으로 말미암아 当時의 皇帝는 점차 그와같은 생각을 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皇帝를 改革運動의 기수로 보지 않게 되었다. 改革主義者들은 「알렉산더」의 死亡後, 비밀리에 組織을 形成하여 機会가 있으면 새로운 皇帝에게서 強制로 점차 양보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825年에는 「니콜라스」I世를 강박하여 憲法을 制定하게 하고 政治的 構造를 변모시켰던 것이다. 물론 改革主義者들의 見解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귀족주의적이요, 또 어떤 사람은 온건한 立憲主義者이고 또 급진적인 共和主義者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目的이 完全한 소련帝国의 政治秩序의 再構成이라는데 있어서는 一致했었다. 그런데 12月 党員들의 反乱은 1820年 초기에 일어났던 運動 以前의 것이다. 당시는 불란서의 合理主義로부터 哲学的인 理想主義로 向한 変化가 일어나고 있었고 특히 그것은 당시 독일에서 有力했었다. 즉 「쉘링」의 理念, 「헤겔」의 思想이 独逸에서 流行을 하였고 이것이 「러시아」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思想은 1820年代와 30年代에

러시아의 知性人들에게 상당히 支配的 이었다. 이것이 1917年의 소련革命에 이르기까지 知性人들의 뇌리에 큰 영향을 미쳤었다.

「슬라브」主義者들은 「러시아」의 伝統과 過去에 重点을 두었고 그들은 伝統的인 宗教, 社会, 政治的인 기구에도 重点을 두었었다. 「러시아」는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独特한 路線을 걸어야 되며 노예적으로 西欧羅巴의 政治, 社会機構的 영향을 답습할 必要가 없다고 하였다. 즉 그들은 「러시아」의 伝統과 과거에 입각한 새로운 類型을 建設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표틀」大帝를 소련의 伝統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소련이 구라파의 伝統을 배우려고 하는 面에서 많은 무모하고 낭비스런 과오를 범하였다고 主張하였다. 반면에 西欧化主義者들은 그들의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련은 구라파의 類型을 모방하는 것이 最善의 方案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구라파의 뒤를 따라가는 学生이 되는 수 밖에 없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모든 制度는 「표틀」大帝가 시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라파의 類型을 본 받아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들 西欧化主義者와 「슬라브」主義者의 論争은 19세기의 保守主義者들의 思想과 「분트」急進主義者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들이 「러시아」의 過激主義者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問題이다. 여기서 「슬라브」主義者들은 특히 그후의 「러시아」 「인테리」階級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西欧化主義者들의 伝統은 19세기 후반기의 「러시아」 知性人의 伝統에 두드러지게 表現되었다. 「알렉산더」 II세의 時代는 소련革命運動 사상사에 커다란 변모를 가져 왔었다. 「알렉산더」 II세의 統治로 調和를 約束하면서 많은 기대속에서 새로운 「짜르」의 統治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希望이 穩健主義者들에게 支配的 이었다. 이와같은 穩健主義者들은 상당한 数의 知性人을 包含하고 있었으며 「알렉산더」皇帝는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一連의 改革을 直接 主導權을 잡고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数年間은 실망도 컸던 것이다. 初期에는 皇帝가 온건주의자가 主張하는대

로 直接 改革을 할 것이 기대되었으나 1860年代를 基準으로 「헤리슨」 같은 사람들의 著書에서 분명히 밝혀진 바와 같이 転換点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政治的인 見解의 対立이 극대화 되었으며 皇帝는 점차로 온건적 改革主義者들과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헬젠」(Heltzen) 성명서가 1860年에 발표되었는 바 여기서는 바람직한 改革의 範囲가 提示되었으며 皇帝로서는 그 程度도 양보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점차로 保守的 民族主義의 영향이 増進되고 그들의 発言權이 점차 強化되었으며 점차로 初期改革의 潮流를 역전하려고 하는 한편, 자유주의자들에 対해서 날카로운 批判을 加하게 되었다. 知性人階級 외의 急進主義者는 의견의 両極化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極烈急進主義者들은 左右翼 双方에서부터 공격을 받아 점차 고립화 되었고 「헬젠」도 未来의 流刑과정에서 알게된 바와같이 政治的인 여론에서 両勢力으로부터 完全히 고립되었던 것이다.

1860年代와 70年代의 초기에 있어서는 새로운 潮流가 나타났다. 그중의 어떤 것은 곧 사라졌고 또 어떤 것도 「러시아」의 急進主義的 伝統에서 볼때, 장기적인 영향력을 行使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들 中 한 潮流는 1860年代 特히 70年代에 있어서 상당히 重要한 위치를 占하게 되었으며 후에 19세기 말엽의 「社会主義革命党」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결국 1870年代의 소위 集産主義(Populism)의 사조를 이루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소련의 19세기의 가장 急進的인 思想 가운데서도 代表的인 例이다. 이와 같은 集産主義 運動에 있어서의 主要한 指導者로서는 「라브노프」(Ravnof)와 「니카노브스키」(Nihanovski)와 「바쿠리온」(Bakulion)을 들 수 있다. 그들의 見解는 다양성을 띄고 있으며, 集産主義 理念의 個個條項에 対한 그들의 영향은 각기 다른 時期에 다른 영향을 끼쳤다. 根本的으로 이와같은 그들의 見解를 通해서 集産主義 路線의 主要争点을 알 수 있다.

첫째, 봉사의 概念이다. 集産主義者들은 知性人들이 열성적으로 人民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된다고 主張했고, 이것은 그들이 教育받은 特權에 対한 代価라 하였다. 그중 「니카노브스키」는 人道主義를 主張하였고, 「라브노프」와 「바쿠니온」은 社会革命 組織을 위한 농촌 봉사를 각각 主張하기도 하였다.

둘째 重要한 点은 「러시아」는 구라파가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러시아」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主張이다. 社会主義 社会는 그 特性이 団結과 完全한 結束에 있다는 전제하에 集産主義의 運動은 知性人들의 運動을 유발시킬 것을 強調하였다. 그리하여 1870年代 초기에는 약 4千名의 知性人이 農村으로 가서 여러가지 형태의 革命的 선동을 위해서 農村속에 뛰어 들어갔다. 1876年에는 소위 새로운 集産主義的 政党이 출현하여 「土地와 自由」라는 「슬로간」下에 革命組織을 農民을 통해서 이룩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作業은 組織的이고 体系的으로 遂行되어야만 될 것인바, 초기의 非組織的인 努力에다 警察의 방해로 失敗에 그치고 말았다.

이와같은 失敗의 経験으로 실망한 그들은 다음 해에 集産主義의 目的과 実績에 対한 광범위한 評価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革命的 「테러」集団을 組織할 것을 計劃하였으나, 그것이 失敗하자 集産主義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集産主義 運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1880年代의 다른 重要한 革命的 運動과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1880年代는 소련 革命運動에 있어서의 하나의 劃期的인 転換点을 이루고 있다. 集産主義가 失敗하자 새로운 소련의 「마르크스」主義가 두개의 革命思潮를 形成하였다. 그것은 1870年代 初에는 잠잠하였으나 「마르크스」主義 集団의 과격한 活動을 통해 점차 集産主義的 運動組織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1898年 이와같은 「마르크스」主義者의 組織과 여러개의 「마르크스」主義의 「서클」이 모여서 「러시아 社会民主労動党」을 形成하였다. 최초의 그들의 결성대회는 失敗하여 会員들이 警察에 依해서 체포되었고 그리하여 1903年까지의 「러시아 社会民主労動党」은 「멘세비키」와 「볼세

비키」의 派로서 갈라져 빛을 보지 못하였다. 소련 「社会革命党」이 1900年과 1905年 사이에 組織되었고 1905年에는 「빅터·체노프」(Victor Chenov)의 領導下에 集産主義的 主張이었던 労動者와 農民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路線을 다시 強調하게 되었다. 이 路線은 그후 새로운 現代 소련「社会革命党」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의 思潮는 革命的 自由主義이다. 이는 革命的이라고는 잘 생각되지 않지만, 専制主義的 「러시아」帝国의 立張에서는 매우 革命的이었던 것이다. 自由主義者들은 1860年과 70年代에 매우 没落한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革命運動의 擡頭에 인한다. 즉 궁전内外의「서클」에 의한 民族主義의 成長과 「러시아」 内部뿐 아니라 인접국가 특히 「폴랜드」에서 発生하고 있는 革命気運에 対한 공포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1870年代 및 80年代의 「러시아」 自由主義는 현저한 몰락을 가져왔던 것이다. 반면에 자치기관으로서는「러시아」의 「젬스트로프」(Zemstrov)가 있다. 이것은 地方自治組織으로서,「러시아」의 自由主義 運動의 새로운 組織의 機会를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소련의 自由主義가 1890年에 재탄생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自由主義 運動에는 더욱 과격한 方向을 표방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온건주의와 「젬스트로프」運動에 依한 실험적 헌정주의대신 1890年代 末期부터 20세기 初에는 보다 과격한 自由主義가 社会主義 指導者 「폴·밀리우코프」(Paul Miliukov)라고 하는 「모스크바」大学의 歴史学 教授에 依하여 領導되었다. 새로운 自由主義者들은 政府의 협조를 거부하고 非妥協的이었으며 또한 政府의 온건한 改革主義者들의 支持를 받아 오히려 革命党과 협조하면서 王党政治에 対한 革命的인 태도를 견지해 나갔던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革命的 運動은 初期에 타협적으로 나아가다 失敗한 自由主義者로부터 많은 支持를 받았으며, 社会主義者들의 計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과 또한 자유주의 운동을 보다 活潑한 運動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関心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이들은 20세기 초엽, 당시의 두개의 커다란 革命運動인 社会民主

主義와 社会革命主義의 潜在的인 協同体制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1905年 革命運動 歷史上 최초로, 1905年의 革命이 일어났다. 日露戰爭과 国内에 있어서의 社会·政治的인 불만으로 말미암아 급진적인 자유주의자와 社会民主主義者들의 聯合戰線이 1905年에 結成될 수 있었다. 이와같은 君主의 専制政権에 対한 政治的인 反対派의 統一戰線이 이룩됨에 따라서 全国的인 파업이 可能하였고 政府를 完全히 마비시켰으며 그리하여 皇帝의 가장 卓越한 조언자인 「서지·기타」(Serge Guithar)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소위 10月선언문(Manifesto)을 선포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議会를 全国的인 市民의 自由를 보장하는 制度로서 設立할 것을 約束하였는 바 이것은 소위 소련 政治史上에 있어서의 立憲君主制度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立憲君主制 실시의 시기는 매우 重要한 때였으며 특히 「러시아」革命史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革命的 反対派와 専制主義派가 갈라졌다는데 기인된다. 한편, 社会主義 革命主義派와 社会民主党 중의 「볼세비키」派와 같은 者들은 그 宣言文을 拒否하고 革命的인 行動의 계속만이 唯一한 共同戰線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自由主義者들은 주로 過激派 自由主義者들이나 「카뎃트」派(Kadets)인바, 이들은 「러시아」의 自由主義 運動의 多数派를 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제야말로 議会로 進入하여야 할 때다. 그리하여 議会의 단상에서 더 많은 改革을 為해서 「帝政」에 対한 闘争을 하여야 한다. 過激하고 完全한 民主主義를 「러시아」帝国에서 実現해야 한다." 고 主張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議会制度를 主張하는 過激派 自由主義者들과 「멘세비키」들은 皇帝가 準備하고 있는 양보를 받아 들이기를 거부하였다. 이 같은 制限된 양보는 事態를 安定시키거나 恒久的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데 根拠를 두고 있다. 議会가 能率的으로 作用을 하지 못한 것도 事実이다.

代議員들의 大部分이 政府와 協調하기를 거절했으며 政府와의 타협도 거절했다.

1906年과 1907年에는 소위 거대한 규모로 組織된 革命的「테러」主義의 부활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社会主義 革命党에 의해서 主導된 것이었다. 여러가지 形態의 右翼 民族主義 集团의「테러」分子들도 점차로 과격하게 나타났으며 政治的인 混乱이 극도에 다달았고 그 結果로 保守主義者들은 드디어 1907年에 궁전에서 議会의 権限과 効率性을 制限코자 하였다.

1907年에 들어가자「러시아」帝政은 制度的인 弾压의 計劃을 開始했으며 그들은 革命的 反対派뿐만 아니라 최초에 皇帝가 양보하였던 條項에 관해서도 弾压을 하였고 특히 議会에 대한 弾压을 加一層 強化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1907年부터 戦争의 발발時까지「러시아」의 革命主義 運動은 점차 쇠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自由主義者들은 그들의 勢力이 議会内에서 감축되는 것을 보았고 그들 자체의 会員中에서도 점차 右翼主義的인 方向으로 会員이 이탈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社会主義者 또는 革命主義者들은 많은 分派로 극렬하게 対立되고 分裂되었으며 또한 그들의「테러」主義 組織에 警察의 앞잡이가 投入되었다.「멘세비키」와「볼세비키」는 論争으로 소란을 겪었으며 1912年「레닌」의 不法的으로 党을「멘세비키」로부터 약탈하려고 하는 시도로 말미암아 両派間의 対立은 극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年부터 戦争이 발발하기 前까지 革命派들의 大部分은 투옥되거나 流配되었다. 그러나 革命運動은 完全히 소멸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戦争이 발발하기 까지의 事態는 바로 이와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革命主義 運動은 점차 감퇴되었으나 革命運動은 당시까지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그들이 改革主義者 首相「피터·스톨리핀」(Peter Stolypin)을 1911年에 암살할 수 있었다는 事実은 곧 그들

의 活動이 潛在하고 있음을 証明하는 것이다. 그후 「러시아」政府는 広範囲한 改革計劃을 成功시키므로서 새로운 安定이 이룩되었고 또한 農民과 労動者들은 安定된 가운데 새로운 約束이 마치 平和의 時代가 온다는 約束처럼 보였고 革命運動은 이제는 「러시아」帝政의 指導者들에게는 다만 좋지 못한 추억으로만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継続的인 革命的인 「테러」分子들의 行動은 地下運動으로 変更되었고 地上에서는 革命運動者들이 流配되기는 하였지만 많은 政治人들은 공포에 쌓여 있었고 특히 1905年에 일어난 위기와 같은 것이 일어날까봐 不安에 떨고 있었다. 나아가서 그들은 또한 全面的인 革命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도 하였었던 것이다.

2. 1917年 以前의 「러시아」共産党史(프로그램 No. 23)

*「엘 리 슨」 博 士

「마르크스」主義의 出現 훨씬 前에는 「러시아」의 知識階級들은 유럽 급진주의의 새로운 思想을 받아 들이는 것이 관례였다. 1830年代와 40年代에 걸쳐 「러시아」를 여행한 「프랑스」人들은 「유토피아」 社会主義者의 사상이 「프랑스」에서 보다 「러시아」에서 더 열심히 거론되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 思想의 流行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伝統에 따라 소련에서 「마르크스」主義의 흡수가 일찌기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마르크스」가 자기의 問題点을 기술한 곳인 英国에서 그의 思想이 幅 넓게 받아 들여 지기도 전에 「러시아」에 커다란 관련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러시아」에는 이러한 伝統外에 知識階級間에 새로운 革命에 대한 期待가 있었다. 集産主義에 대한 상당한 불만과 그것의 基底가 된 「유토피아」 社会主義者의 思想은 1870年代에 불만족스러운 結果를 가져왔다. 일종의 社会学이며 経済学인 「마르크스」主義에는 새로운 産業社会에의 約束을 包含하고 있었다. 即 「러시아」에 있어 産業化의 첫 段階 동안은 어느정도 앞날의 繁栄과 発展을 확신시켜 주었고 또한 그들의 当面問題 解決에도 어느정도 적합한 것처럼 보였다. 集産主義者들 역시 農民과의 経験에서 매우 실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社会革命의 基礎로써 새로운 階級 즉 「마르크스」主義者가 主張하는 産業「프롤레타리아트」에 관한 주장은 확실히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다.

「러시아」的인 「프롤레타리아트」와 급속한 産業化의 매력외에도 「마르크스」主義는 決定的 概念을 갖고 있었다. 即 「러시아」는 「유럽」社会가 지

---

* Herber J. Ellison : 「켄사스」大学 歴史学教授, 「슬라브」地域研究所長, 「런던」大学 Ph. D.

나 온 길을 답습해 나가야 한다는 主張으로, 이는 一般的으로 西欧化된 「러시아」의 知識階級들에 対해서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의 아버지라고 자주 불리우는 「조지・프래하노프」는 集産主義로 부터 「마르크스」主義로 転換한 以後 「러시아」「마르크스」主義 思想의 主要 골자를 제공한 두 冊子를 発刊하였다. 이중 처음 것은 1883年의 〈社会主義와 政治的 闘争〉이라는 題目의 것으로, 여기에서 「프래하노프」는 革命的 勝利의 重要性을 主張했다. 社会主義 政党의 여러 目的중에서 제일가는 것은 社会主義 革命의 成就와 革命勢力의 勝利인 것이다. 다음해인 1884年에 그는 「러시아」의 새로운 급진적 政治의 指導者가 왜 「마르크스」主義와 集産主義의 区別을 해야 하는가에 対해서 자기의 主張을 設定하였다. 그의 作業은 먼저 集産主義와 「마르크스」主義와의 主要한 差異点을 区別해 내는 것이었다.

이 中 첫째로 그는 集産主義者에 依해 가정된 独特한 発展의 経路는 곧 포기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主要 유럽 国家들이 이룩한 것 같은 경로를 따라서 産業資本主義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러시아」의 発展에 関한 그들의 理念 때문이다.

둘째로 「마르크스」主義의 主要内容을 차지하는 歴史的 必然性의 概念에 依해서 知識階級에 対한 포기의 必要性을 主張했다. 끝으로 그는 集産主義者가 믿었던 農民 대신에 産業 「프롤레타리아트」를 革命의 社会的 根拠로 믿었다. 「프래하노프」가 말한 差異는 그가 본 「마르크스」主義者와 旧 集産主義者의 伝統과의 差異로 構成되어 있다. 1880年代 末에 「프래하노프」의 初期 작품출판 이후에 主로 大学生들로 構成된 「마르크스」主義派는 「러시아」帝国의 다른 地域에서 형체를 나타냈었다. 80年代와 90年代에 걸쳐 全「러시아」帝国을 통한 「마르크스」主義派의 이러한 発展은 社会民主党의 궁극적인 勝利를 위한 組織을 準備하는 主要発展過程中의 하나이다. 「마르크스」主義는 多数의 急進的 知識階級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유럽의 知識人에게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과 같

은 理由에서 이다. 그것은 表面的으로는 資本主義의 대두와 社会主義의 発展에 対한 経済学的, 社会学的인 理由에 対한 科学的인 説明같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유토피아」 社会主義의 理想主義的인 目的과 社会学과 経済学의 特殊한 混合이었던 것이다.

유럽에서의 社会民主主義的 運動의 発展이 一般的으로 「러시아」社会主義運動을 고무했으며, 特히 유럽의 여러 社会民主主義的 政党中 가장 巨大한 独逸 社会民主政党의 発展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1890年代 末 第一次 「러시아」 社会民主主義 運動의 総会를 開催하였는데 이때 오직 9名의 代表만이 参席했고 나머지는 여러가지 理由 즉 주로 警察의 방해 때문이라는 理由로 参席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후 1898年 3月 1日에 組織된 総会는 歴史上 第一次 「러시아 社会民主党 総会」 또는 공식명칭으로 第一次 「러시아 社会民主労動党 総会」로 記録되었다. 「모스크바」에서 온 代表, 「聖•피터스버그」, 「키예프」와 「리투아니아」의 유태系, 社会主義者 代表들은 各 単位 組織의 幅 넓은 自律에 基礎한 허술한 党 組織을 하였고 一般的으로 유럽 社会党의 유형을 따랐었다. 総会 직후에 代表들은 거의 체포되었으며 党 組織의 全面 개편作業이 다시 開始되었다. 이는 1903年의 「브루셀」, 「런던」総会와 「러시아」 社会民主労動党 第二次 総会까지 継続되었다. 1898年으로 부터 1903年까지의 重要한 特徴은 指導権에 対한 競争이며 이는 세 그룹의 「러시아」 社会民主主義運動의 組織的 理念的 性格의 규정権에 対한 競争이었다. 이 세 그룹은 「合法的 마르크스」主義者 即 오늘날 「合法的 마르크스」 主義者로 알려진 一派, 그리고 「経済学者派」 및 오늘날 伝統的 「마르크스」 主義者로 불리기도 하는 伝統的 「마르크스」主義者 등이다. 이 세 그룹 사이의 競争은 원래는 合法的 「마르크스」 主義者들의 말에 根拠했으며 그들은 党의 目的을 위해서 合法的 多数의 社会民主党을 組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経済学派들은 特殊하고 즉각적인 目的에의 集中의 必要性과 労動条件의 改善, 高賃金, 보다 나은 住生活 등과 公民의 自由등을 主張했었다. 「프래하노프」에 依해

주도된 伝統的 「마르크스」主義者들은 党이 革命的 勝利를 할 수 있게 組織할 必要性을 強調했다. 그래서 社会主義者의 革命的 勝利는 「프래하노프」에 의해 主導된 伝統的 「마르크스」主義者들의 主된 目的인 것이다. 1898年과 1903年 사이의 그의 目的의 추구과정에서 「프래하노프」는 새로이 나타난 열정적인 「러시아」 社会民主主義 運動에로 전향한 「블라디미르·일비치·울리아노프」에게서 相当한 도움을 받았으며 그는 후에 「레닌」이라는 이름으로 歴史에 잘 알려진 人物이 되었다. 「프래하노프」는 1895年에 「레닌」이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만났으며 「레닌」은 「프래하노프」를 만나기 2年前에 그의 著書를 읽었었는데, 그 著書에서 「프래하노프」는 社会民主主義 運動의 指導権 장악을 확신하고 있었다. 「레닌」은 한 지방의 장학관의 아들로 「볼가」地方의 「심비르스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1887年 그의 아버지와 兄이 死亡할 때까지는 조용한 生活을 누렸다. 그의 兄은 「짜아르·알렉산더 3세」의 暗殺陰謀에 가담한 죄로 사형을 당했었다. 「레닌」이 大学에 入学하고 1887年에 政治活動을 시작한 以後 변호사 시험 準備期間 동안 「레닌」은 또한 「마르크스」主義 研究를 했으며 이 研究는 1889年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가 法学工夫를 마쳤을 때는 「마르크스」의 研究도 많이 進歩됐으며, 「聖 피터스버그」로 이주하였다. 거기서 그는 1893年에 그 都市의 社会民主主義 運動의 参加者로써 그의 著作活動을 시작했다. 그는 1895年에 海外로 나가 「스위스」에서 「프래하노프」를 만났으며 돌아와서는 2年동안 투옥되었었다. 그후 그는 3年間 「시베리아」로 流刑되었었다. 「레닌」이 후에 成功的으로 실천한 計劃을 作成한 것은 이 「시베리아」 流刑 期間동안 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1900年부터 独逸, 英国 그리고 「스위스」에서 4번 革命運動의 積極的 支持者로 일하는데 成功할 수 있었다. 「레닌」의 당시의 活動은 능란한 論争家로서, 열정적인 편집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論理에 対해서는 더 正確히 말해서 그의 愛国的 논조에 対해서는 약간의 問題를 제기시켰다. 그는 政治的

論争에서 적대적이고 비타협적인 精神을 強調했던 것이다.

1903年 런던에서 開催된 第二次 「러시아」 社会主義 民主労動党 総会에서 東方 그룹인 伝統的 「마르크스」主義者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勝利者로서 대두되었으나 그들은 기대되었던 것 보다는 理念的으로 단합되지 못해 「볼세비키」派와 「멘세비키」派들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第2次 党総会에서 勝利를 거두게 된데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다. 첫째, 経済学派들과 合法的「마르크스」 主義者들은 総会期間중의 論争에서 상당히 두들겨 맞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警察들이 経済学派들의 지위를 침식했고 그들 중 상당수의 会員들이 체포되었으며 警察이 労動組合 運動을 조작했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은 모든 要因들의 結果로서 「볼세비키」는 総会의 指導者가 되었으며 그들은 会長団을 支配할 수 있었다. 그들은 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열심히 努力하였고 최후 순간에 가서 유태系 社会主義者 同盟이 除去됨으로써 完全히 支配権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党의 파벌에 의한 分裂은 「레닌」이 다른派의 「그룹」을 형성하므로써 생긴 것으로 그는 組織上의 파벌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重要한 것은 理念上의 파벌도 形成하였다. 「레닌」은 별개의 主張을 規定했으며 이것은 후에 「볼세비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레닌」과 그의 支持派들이 공개적인 쟁점으로 들고 나온 것은 주로 党의 組織에 関한 問題이었다. 「레닌」의 「聖 피터스버그」 시절부터의 옛 친구였던 「쥬리스•마르토프」에 의해서 指導되는 党의 理念問題에 関한 大多数 의견은 党員에 対한 定義에 있어서 하나의 党組織의 方向下에서 정규적이고 個人的인 協助를 주로 主張하였다. 이와같은 党의 党員에 対한 定義에 있어서 「레닌」은 個人的인 資格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党의 組織에 参加한다는 것으로 이를 해석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다시 말해서 「레닌」은 당에 対해 보다 강화된 概念을 主張한다. 「레닌」은 1902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가장 重要한 著書中의 하나를 출간했다. 여기에서 그는 모든 修正主義者들을 규탄하고 社会民主主義 運動에 있어서

의 理念的인 正統主義의 重要性을 強調하였으며 나아가 党의 組織에 관한 概念을 規定하였다. 이러한 正統性은 소위 修正主義者들의 進出을 抑制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의 党에 대한 概念은 理念的인 正統主義이며 그는 職業的인 革命主義로서 構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総会에서 그의 党員에 対한 概念 論争에서는 失敗를 했으나 党誌 <이스크라> 誌의 편집권에 対한 統制를 為해서 정열적으로 일하였으며 이러한 편집권 統制를 為한 闘争過程에서 그는 「볼세비키」와 「멘세비키」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使用하였다.

「레닌」은 勝利를 얻게 되었으며 투표를 통해서 그의 派는 「볼세비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소련語로 多数派라는 뜻을 갖는다. 패배자인 「멘세비키」는 少数派라는 뜻으로서 「레닌」은 実際的으로는 少数派였으나 이러한 多数派라는 용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상당히 자부할 만한 징표가 되었다. 그들은 党 組織에 있어서 항상 多数派를 形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総会 後, 「레닌」은 그가 비록 편집에 対한 支配権을 얻었으나 効率的으로 運営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집위원이라는 位置는 다만 形式的인 位置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닌」은 이 편집부에서 그가 원하는 政策을 自由로히 게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結局 사퇴하고 말았다.

그는 사퇴한 후, 별개의 派를 組織하였다. 이것이 1904年 12月 이후부터 「多数派의 委員会 組合」 또는 「볼세비키 委員会 組合」이라 불리워졌고 그는 이것을 통해 党의 分裂을 기도하게 되었다. 자기의 組織的이고 理論的인 勝利를 얻기 위해서는 党의 파멸까지도 불사할 것이 분명해 졌던 것이다. 그는 1903年頃에 또 다른 代替的 概念을 形成하였다. 즉 党의 組織에 関한 것 뿐 아니라 党의 路線(Doctrine)에 関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볼세비키」를 소련 社会民主主義의 주류로부터 永遠히 分離시키는 基礎를 닦게 되었다. 「레닌」의 見解는 단지 「프레하노프」의 正統的 「마르크스」主義의 概念만이 아닌 것이다. 그의 理念을

보면, 이것은 「멘세비키」와도 다음과 같은 点들에서 대조적이다.

먼저 「멘세비키」는 「부르죠아」 社会로부터 社会主義 民主革命으로의 発展의 概念을 수락하고 있다. 伝統的인 「마르크스」主義의 概念은 「러시아」 歷史의 発展 段階에 있어서 「부르죠아」 段階로부터의 社会主義 段階에로의 発展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멘세비키」들은 「부르죠아」의 段階라는 것은 民主主義로 特徵지워지며 그 期間에 있어서의 革命的 聯合은 自由主義者와 社会主義의 聯合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고로 그들은 急進的 自由主義者들과 聯合하여 「부르죠아」革命을 통하여 專制主義를 전복할 것을 원했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民主主義 政治 段階에 있어서는 自由主義者가 영도권을 가질 수 있으며 社会主義 革命은 「러시아」에서는 産業의 発展이 先行한 後 먼 장래에 이루어 질 것이며 그 때에 가서야 社会主義 革命이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社会主義 社会와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레닌」은 革命的 聯合 段階의 概念에 完全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로 그는 「부르죠아」革命에 있어서 專制主義를 정복하는 것이 農民과 産業「프롤레타리아트」와의 聯合 전선을 통해서 可能하다는 것이다. 「부르죠아」 段階란 社会主義者와 自由主義者에 의한 独裁로 特徵지워질 수 있다. 「마르크스」의 思想에 있어서는 「부르죠아」段階의 代表는 「부르죠아」段階에 있어서 「마르크스」가 그들에게 許容했던 指導権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段階란 극히 짧다는 것이다. 「부르죠아」段階는 社会革命의 보다 빠른 前進을 為한 準備期間을 줄여준다. 이러한 社会革命이란 革命的 社会主義者들의 손에 모든 「리더쉽」이 장악되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멘세비키」派들이 볼 때에 伝統的인 「마르크스」 理論과, 급진적인 概念에서 보더라도 이와같이 農民과의 연합전선이나 自由主義者의 歷史的인 使命의 탈취 같은 것은 매우 급격한 概念인 것이다. 1905年의 革命은 「멘세비키」와 「볼세비키」로 分裂된 두 派間의 概念의 差異를 시험해 볼 기회를 주었다.

이 革命은 그들의 見解 差異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다. 왜냐하면 10月 宣言直後 「볼셰비키」派들은 左翼党 党派들과 연합전선을 펴면서 継続해서 革命的 行動을 추구했다. 이는 10月 선언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専制主義的 革命的인 전복의 路線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1906年 봄, 「스톡홀름」에서 開催된 소위, 단합 総会라는 第3次 革命社会民主労動党 総会는 이 두 派의 見解 差異를 메꾸고자 시도하였으나 失敗로 끝났다. 「멘셰비키」와 「볼셰비키」는 모두 「레닌」의 自由主義者와의 연합전선을 거부하자는 見解뿐 아니라 農民과의 연합전선을 펴자는 概念에서도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부르조아」段階라는 歷史的인 段階의 구성요소에 対한 概念에 있어서도 差異를 나타냈었다. 그들은 또한 土地 計劃에 対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즉 「볼셰비키」들은 中央集權的인 土地의 国有化를 主張하였고 「멘셰비키」들은 地方分權的인 土地의 地方 管理를 主張했던 것이다. 그들은 또한 「레닌」의 別個 分派 組織때문에 意見의 対立을 보았다. 「레닌」은 第3次 「스톡홀름」総会에서는 소위 파벌적 組織의 포기를 동의했으나 総会 後, 그는 그의 約束을 지키지 않았다. 1907年 「런던」에서의 第4次 総会에서도 그들의 見解差는 더 예리하게 대립되었다. 이때는 革命的 機会가 점차 감퇴되는 時期였으며 「러시아」 政府는 強力한 權力을 유지하고 있어 革命의 希望은 소련內에서도 점차 퇴색해 가는 상태에 있었다. 「레닌」은 当時 단지 자기의 位置를 지킬 것과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일수록 修正主義者들의 党內 침투를 막기 위해 党의 강화가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그는 어떠한 理念的인 問題 즉 初期의 理念問題에 대한 「멘셰비키」와 「볼셰비키」의 分裂을 종식시키기 위한 타협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그는 「멘셰비키」에 対해서 상당히 건방지다고 말하면서, 「볼셰비키」運動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術数의 使用까지도 不辞하였다. 1905年의 「런던」 総会를 계기로 革命과 그후 사태의 진전은 그들의 결별이 더욱 분명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제 党의 단합을 가질 可能性은 거의

없음이 確実해 졌다. 이와같은 背景下에서 重要한 1912年의 事件이 일어났다. 그해 「레닌」은 어떠한 手法을 써서라도 社会 民主党의 支配権을 장악하고자 골두 했다. 그리하여 그는 不法的인 方法으로 党総会를 열기로 했으며 1912年 1月 「프라그」에서 「멘세비키」의 동의나 승인없이 独自的인 党総会를 열어 그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벤세비키」 代表들만 초청하고 이를 第6次 「러시아」 社会民主労動党(RSDLP) 総会라 불렀다. 이 会議는 完全히 「볼세비키」의 手中에 장악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1912年의 総会는 「멘세비키」 분파間에 상당히 많은 混乱을 야기시켰고 「레닌」의 이와같은 음흉한 음모에 対한 반발로 거의 결별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에 「레닌」도 그가 원하였던 勝利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멘세비키」가 「레닌」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화되지 못한 것처럼 「레닌」도 이와같은 勝利를 党의 完全한 장악으로 끌고 나가는데 적절한 조직을 갖지 못했다. 그가 원했던 「볼세비즘」에 의한 党権의 完全한 統制権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第1次 世界大戦이 일어나자 「볼세비키」는 그들의 社会民主主義 運動의 同僚들뿐 아니라 모든 「러시아」 社会主義 運動家들로 부터도 고립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戦争에 대한 支持에 関한 投票에서 分明히 나타났다. 모든 社会民主主義 集団 中에서 全 「러시아」의 社会主義者들 가운데서 「볼세비키」만이 홀로 戦争에 対한 反対 投票를 했던 것이다.

「레닌」은 「스위스」에 망명해 있으면서 戦争동안에 反戦 社会主義者들과 함께 일하며 이들을 組織化 할려고 努力했다. 이들 反戦 社会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 国際主義라는 社会主義 路線에 동조하여 각국의 戦争 試図에 対抗해서 싸울 수 있는 者들이었다. 「레닌」은 그의 見解를 그의 〈帝国主義 : 資本主義의 最高時期〉라는 冊에서 피력했다. 그는 帝国主義 戦争은 内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主張했다. 따라서 그는 反戦 社会主義의 国際的 組織을 만들려고 努力했으며 「러시아」 内部에 革命이 일어났을때 内戦을 組織化할 수 있는 時期에 대비해서 準備를 하고

있었다.

1917年 革命 直前의 「볼세비키」들의 位置는 다음과 같은 点에서 評価할 수 있겠다. 첫째로 그들은 完全한 의미에서의 党이 아니다. 그들은 「볼세비키」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러시아」 社会民主労動党(RS-DLP)의 一派였다. 「레닌」은 「멘세비키」로부터 「볼세비키」를 完全히 결별시켰으나 그는 아직 充分한 자격이 있는 党을 形成치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볼세비키」는 党組織이라기 보다는 理念의 뭉치에 不過했다. 党의 組織은 「레닌」이 철저하게 支配했다. 「볼세비키」党의 현저한 特徵中의 하나는 구세대가 지향했고 社会民主主義 運動에서 뚜렷했던 称号의 欠乏인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레닌」의 「마르크스」主義에 의한 急進的 改革 方向을 認定할 수 없었으며 「멘세비키」의 위치에 더 동정심을 発揮하게 되었다. 그러나 「레닌」의 位置는 理念的으로 거의 完全하게 굳혀 있었다. 그에게는 소수의 정통적이고 順従하는 추종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重要했다. 가장 巨大한 党보다 理念的 正伝性을 갖는 추종자들이 그에게는 훨씬 더 重要한 것이기 때문이다. 2月 革命의 機会를 포착함에 「레닌」이 대비한 것은 그의 意思에 따르는 소수의 잘 訓練된 党員이었다. 1917年의 事件은 그가 革命的 行動의 道具로서 만든 党의 能力을 証明해 준 것이었다.

3. 1917年의 「러시아」革命(프로그람 No. 24)

＊「엘 리 슨」 博 士

1917年의 「러시아」革命은 単一革命이 아니라 두가지의 革命的 行動이었다. 즉 2月의 君主政体의 顚覆과 10月의 臨時政府에 対한 「볼세비키」의 구테타이다. 이 두 事件사이의 期間은 8個月이며, 그동안 自由主義者들과 穩健派 社会主義者들은 効率的이고 安定된 政府를 세울려고 努力하였다. 이는 革命的 事件들이 연속되었던 期間보다는 덜 극적인 期間이나, 「러시아」革命의 実質的 意味를 다른 어느것 보다도 더 複雜하고 의미심장한 期間이었다. 2月부터 10月까지의 期間에 対하여 일방적으로 論議되어지는 特徵中의 하나는 効率的이고 安定的인 政府를 세울려는 臨時政府의 努力이다. 그러나 이 努力은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두번째는 1次大戰이라는 挑戰을 처리할려는 努力이다. 戰爭은 「러시아」帝政下에서와 다름없이 継続되었다. 이것이 「러시아」帝政의 顚覆에 主要한 原因이 되었으며, 政権의 継承者에게도 역시 困難한 問題로 남게 되었다. 세번째 問題는 政治的, 社会的 革命集団들, 土地問題, 労動問題, 民族主義問題, 등의 여러 難題들이 戰爭이라는 큰 問題와 함께 臨時政府에게 遺産으로서 그대로 継承되어 내려 왔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들이 2月과 10月 革命사이의 「러시아」의 主要한 特徵들이다. 상세히 이것들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들은 近代 「러시아」 歷史上 가장 重要한 時期를 깊이 理解할 수 있다.

安定되고 効率的인 政府를 세워서 여러 問題들을 처리할려는 臨時政府의 努力중 가장 인상적인 일은 組織의 微弱과 政府가 使用한 道具의 두가지이다. 처음에 政府를 이끈 自由主義者들은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

＊ Herbert J. Ellison :「켄사스」大学 歷史学教授, 「슬라브」地域研究所長, 「런던」大学 Ph. D.

(Petrograd Soviet)의 要求에 의하여 全權이 剝奪되었다.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는 臨時政府와 동시에 機能을 시작한 対応組織으로서, 社会主義者의 指導權은 權力을 独立的으로 要求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臨時政府의 全權을 否認하였다. 「소비에트」는 監察 民兵組織 등과 같은 일의 權限을 맡았고, 臨時政府의 国内 및 国際関係 등 모든 問題들에 대한 權限에 対하여 拒否權을 要求하였다. 분명히 이러한 것은 臨時政府의 独立性을 심히 弱化시켰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政府의 両頭体制的 構造가 다른 어떠한 要素보다도 臨時政府의 權威와 그 効率性을 弱化 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臨時政府는 權力의 必須的 手段을 欠如하였었다. 帝国主義的 官僚主義는 君主政府의 顚覆後 数 週日内에 大部分 瓦解되었다. 臨時政府가 憲法上 地方政府 水準에서 旧官僚主義와 代替할려는 自治組織은 臨時政府의 効率的인 作用物이나 代辯人이 되지 못하였고, 또 그 組織은 中央政府의 權限을 地方政府 水準으로 効率的으로 移行시키지도 못하였다. 그런고로 臨時政府는 그의 意見을 地方水準까지 効率的으로 伝達하게 하기 위해서 長期間동안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의 權限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全国的 「소비에트」 組織에 연결된 「소비에트」 階級組織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17年 여름과 가을동안 革命勢力의 支持를 얻어감에 따라 「소비에트」組織조차도 軍隊와 全国的인 革命潮流속에 휘말려 있는 農民들을 統制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7年 여름과 가을, 臨時政府는 점점 더 能率的인 權力機関이라는 概念과는 멀어져 갔다.

부적절한 警察組織과 軍隊의 腐敗로 因하여 臨時政府는 어떠한 政府나 그들의 뜻을 効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 依存하게 되는 伝統的인 弾圧의 手段마저도 잃게 되었다. 이러한 附加的인 要因은 社会革命勢力을 增大시켰다. 實際로 臨時政府時代의 모든 問題는 결국 1次大戰이라는 挑戰으로 귀착하게 된다. 前任者와 마찬가지로 臨時政府는 원하든 원치않든 그 戰爭을 処理해야만 하였다. 戰爭의 問題는 차근차근해서 戰爭이라는 当面한 강압적인 諸争点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問題를 処理할 수도 없

었다. 最初 臨時政府의 自由主義 指導者들은 革命의 結果로 臨時政府가 効率的인 戰爭 努力을 행할 委任을 맡았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最初 臨時政府의 戰爭相이고 有力한 人物인 「밀리온코프」의 見解였다. 이 같은 臨時政府는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와의 関係에서 戰爭에 関하여 困難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의 穩健派 社会主義者들의 見解는 즉각적인 平和에 対한 모색이었으며, 그 平和는 併合이나 賠償없이 協商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그들은 「밀리온코프」의 領土拡大 思想, 특히 「오스트리아」의 一部와 全「터어키」 영토를 獲得할려는 計劃을 거절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政策은 戰爭을 永久化시키는 効力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撤軍이나 一方的 平和란 있을 수 없고 또한 同盟国들이 분명히 平和를 追求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에트」와 臨時政府의 政策 사이에는 그리 큰 차이는 없었다. 「케렌스키」(Kerensky)가 權力을 잡은 第2次 臨時政府는 더 맹렬히 戰爭을 벌릴 것을 主張하였다. 그 結果는 革命에 의하여 解放된 国民의 戰闘意慾의 動員이었으며, 이러한 것은 「밀리온코프」의 태도와 별로 다를게 없었다. 이것은 併合이나 賠償이 없는 平和에 対한 가장 훌륭한 対備策이다. 왜냐하면 공격으로부터의 利得이 臨時政府를 協商 「테이블」에서 有利한 立場에 서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렌스키」의 태도는 實際的으로 6月부터의 臨時政府의 政策에는 아무런 変動이 없고 다만 革命에 의하여 解放된 国民들의 戰闘공격력을 動員하여 이러한 공격의 結果로서 外交的 立地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1917年 7月 末, 国防省과 内閣内部에서 軍隊組織을 一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의 많은 独自的인 統治措置의 하나로써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는 3月1日에 유명한 革命 第1号를 発하였는 바, 이것은 軍隊組織의 民主化를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伝統的 軍隊紀律의 構造가 심히 侵蝕되었었다. 이 結果 7月攻勢에는 거의 파멸적인 挿話的인 사건들이 있었다. 즉 兵士들이 攻勢를 멈추고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

가 생각한대로 공격이 비공격적인 戦争과 양립할 수 있는가를 討論하는 따위의 일들이다. 7月末에야 비로소 臨時政府는 死刑制度를 復活하고 달리 군대조직을 改善할려는 命令을 発함으로써 겨우 그 상황의 수정을 시도할 수 있었다. 어쨌던 「캐렌스키」의 計劃에 의한 7月攻勢는 파멸적인 失敗였다. 그러나 그것은 군대기강의 伝統的 構造의 해체라는 問題를 야기 시켰다. 軍隊組織内에 기강과 紀律을 회복하고,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로 부터의 莫強한 権限에 対한 挑戦을 받는 경우에 臨時政府를 保護할 目的으로 軍内의 친위부대를 使用할려는 努力이 행해졌다. 「라바·코니노프」(Lava Koninov)의 이 과업은 그가 反革命陰謀로 告発 당함으로서, 終結되었다. 그 결과 大多数의 軍장교에 대한 不信風潮가 惹起되어, 과거보다 더한 기강해이와 탈주가 「러시아」軍隊의 特徴이 되어 버렸다. 脱走는 꽤 일직 시작되어 7月에는 만연상태에 있었다. 그리하여 8, 9月에는 「러시아」軍隊組織을 해체할려는 問題까지 대두되었다. 10月에는 農村에서 農民謀叛이 또한 일어났고, 農民에 対한 土地分配는 兵士들이 戦争에 나가기 보다 土地分配에 参加하게 만들었다. 모든 기차가 軍隊에 의하여 징발되었고 군대의 붕괴는 대규모적인 것으로 정부청사 앞에서 해체되어가는 지경이었다. 「볼세비키」가 政権을 잡기 바로 전의 「러시아」軍隊는 오합지졸의 반란군이었고, 장교나 臨時政府의 권위에 대한 반란군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自由主義나 穏健社会主義 臨時政府의 指導者들은 前任者들의 生涯의 一部分이었던 政治的 革命과 社会的 革命의 潮流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潮流는 戦争동안에는 潜在的이고 臨時政府의 初期 段階에서도 역시 潜在的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1917年 여름과 가을 동안에 活潑해졌다. 臨時政府는 戦争努力에 対한 先入観과 政治的 状況의 変動에 따른 새로운 挑戦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非効率的이었다.

自由主義者이던 穏健社会主義者이던간에, 臨時政府의 指導者의 見解는 모든 主要한 変動이 国民議会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継続的으로 国民議会의 集会를 연기함에 따라 그 기구의 권위는 微弱하여졌다.

革命 指導者들의 「러시아」의 政治, 社会体制를 改革할려는 努力은 항상 失敗로 돌아갔다. 農民問題가 君主体制를 顚覆한 후에 継続 革命勢力의 가장 重要한 問題중의 하나가 되었다. 臨時政府의 自由主義 指導者들에게 있어서 革命이 의회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면, 農民들에게는 과거 集産主義者들의 「슬로간」, 즉 "平等한 土地와 自由"를 의미한다. 解放以後 小農들은 貴族들의 土地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것은 19세기 末의 구매와 그후의 더욱 빠른 속도와 広範한 구매 및 다른 여러 交換形態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戦争의 마지막 段階에 이르러 安定과 政治的 発言権을 가진 農民들 사이에 새로운 主張이 나돌았다. 土地는 그들의 것이고 土地에 対한 모든 権利는 労動의 権利, 즉 그 土地를 耕作하는 사람의 権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따라서 貴族의 政治権力의 상실과 특히 警察力의 상실은 小農들에게 「러시아」帝国에 残存하고 있는 土地制度를 시험해 보는 신호처럼 보였었다. 2月革命後 시작된 이 試図는 1917年 여름과 가을사이에 점점 강열해져서 10月에는 農民들이 政府의 権威와 위정자들의 勢力을 점차 시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君主政治가 顚覆될 当時에 「러시아」当局에 存在하였던 個人所有動産의 거의 半을 獲得하였다. 臨時政府의 태도는 自由主義者와 穏健社会主義者로 나누어져 구구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를 実行에 옮기지도 못했다. 自由主義者들은 国民議会 開催까지 기다리기를 主張하였고, 穏健社会主義者들은 地方政府의 手中으로 土地를 이양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그들의 안목으로 볼 때 점점 勢力을 펴가는 農民을 고무시킬려고 하기보다는 農民들을 挫折시킬려고 努力하였다.

그 非効率性은 革命進行過程에서 明白히 나타났다. 그들의 政治的 損失은 農民들이 점점 「볼세비키」의 口号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都市労動者들에게는 2月革命 以前에 이미 戦争이 심각한 問題를 낳고 있었다. 가장 두렷한 것은 「인플레」와 그 結果의 実質賃金의 下落이다. 食品과 消費者価格의 上昇은 戦争開始부터 始作되어 2月革命때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다. 2月革命의 여파로 臨時政府는 税金을 징수할 能力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으로 화폐를 찍어 내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그 結果 「인플레」는 継続的으로 加速되어 物価는 수백「퍼센트」가 上昇되었다. 반면에 賃金은 대체로 一定하여 物価와 実質賃金間의 不均衡은 점점 深化되었다. 이런 状況下에서 급진적 선동자들은 많은 機会를 가질 수 있었다. 「볼세비키」와 무정부주의자들은 보기드문 聯合을 이루며 国号를 提案하였다. 즉 1917年 여름과 가을의 「労動者 支配運動」의 기초가 된 「労動者에 依한 支配」라는 구호였다. 그것은 労動者들이 할 일은 工場들의 支配権을 장악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経営主의 착취분을 포함시킴으로서 그들의 賃金을 높여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勿論 結果는 予測한 것의 正反対였다. 労動者들은 支配権은 가지고 있었으나 工場 가동에 必要한 経営技術, 資本 그리고 原料들이 없었다. 그 結果는 장악의 終結과 戦争遂行을 위한 政府能力의 減退뿐만 아니라 産業雇傭状態의 점진적인 悪化로 나타났다. 国民性의 問題도 臨時政府가 다루어야 할 政治的 社会的 革命의 또 다른 主要한 一面이었다. 政府는 解決을 国民議会에 미룸으로써 制約을 받았고 더욱 重要한 것은 구태의연한 政府의 태도였다. 이것은 소수 国民들의 政治運動에 対한 태도로 自由主義者나 穏健社会主義者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모든 사람이 独立은 独逸人 手中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던 「폴랜드」에 対한 臨時政府의 태도는 学究的인 것이었다. 반면 「핀랜드」에서의 国民運動은 臨時政府가 前任者의 革命政策의 거부, 憲法的 自由 부활의 約束등을 양보할 정도에까지 도달하였다. 「핀랜드」의 政党은 臨時政府가 그 나라에 부여할려고 생각한 制限과 自治가 아니라 独立을 要求하였었다.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国民会議를 3月에 構成하였고 그 다음달에는 民族主義라는 관점에서 점점 더 과격해지는 「우크라이나」 自治権에 対한 要求가 점점 심해졌다. 즉 臨時政府가 分離된 政府와 分離된 軍隊組織形態를 양보하도록 하는 圧力이었다. 이와같은 民族主義者들의 要求와

급격한 変化를 要求하는 태도에 의하여 臨時政府는 이런 争点에 対한 行動을 연기하게 되었다. 臨時政府는 그의 政策의 모든 面에서 失敗했다고 볼 수 있다. 効率的인 政府를 세우는 것도,「러시아」가 당면한 주요한 問題들을 処理하는 것도 失敗하였다. 農民, 労動者 少数 被支配民族들이 革命勢力으로 作用함에 따라 臨時政府는 그들을 統制하거나 이끌수도 없었다. 이런 추세를 観察한 「레닌」도 臨時政府가 지지도를 점점 잃어감에 따라 결국 政権을 잃게 될 것이라고 確信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것이 「볼세비즘」이 나타날 수 있었던 背景이었다. 「레닌」은 独逸 帝国主義 政府의 덕택으로 「스위스」로부터 「핀랜드」를 경유하여 4月3日 「러시아」로 돌아왔다. 그 다음날 그는 四月憲章을 発表하여 「볼세비키」를 다른 政党과 区別하여 놓고, 그들의 지위를 보장하여 주고, 그들의 計劃을 明確히 규정하여 臨時政府에 협조했다고 보여지는 다른 모든 政党과 특히 다른 社会主義者들과 区別하였다. 그는 臨時政府는 어떠한 権力도 가질 수 없고 一方的인 平和 形態의 즉각적인 戦争 終結만이 있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리고 그는 革命의 統率을 위하여 闘争期間동안 独立된 지위로 臨時政府에 対抗할 수 있는 「볼세비키」를 두었었다.

1917年 여름과 가을, 即 「레닌」이 「러시아」에서 政権을 掌握하기 직전의 時期는 完全히 「레닌」의 必要性을 充足시켜 주었으며 그의 主張의 正当性을 보여 주었었다. 同時에 「볼세비키」의 権力은 증대되어 4月부터 8月사이에 党勢는 8萬名의 党員에서 20萬으로 늘었었다. 그리고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의 「소비에트」支配権을 얻었고, 이런 支配権을 바탕으로 하여 直接的인 権力争取를 위한 革命的인 運動을 벌일 準備를 하고 있었다. 1917年 가을 「레닌」은 革命의 時間表를 作成했는데 그때 그는 「러시아」帝国을 진동시키는 革命勢力의 절정을 목격하였었다. 그는 9月 중순 「볼세비키」가 権力을 쟁취할 時期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였다. 이 쟁점이 論議되어 질 때 意見의 差異가 있었다. 즉 움직여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을 이룩하기 위해

서 「볼세비키」의 目的을 어떻게 定義하는가에 대한 意見衝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反対들은 充実한 「레닌」派에 依하여 봉쇄되어지고 상대방의 비난은 「레닌」으로 하여금 中央委員会에서 投票로 決定할 時期라고 단정케 하였다. 10月10日에 열린 投票에서 臨時政府를 顚覆하여 権力을 장악해야 한다는 決定을 얻어내는데 成功하였다. 그 뒤에 「레닌」은 反対者들을 粛清하고 準備된 폭동을 計劃하였다. 暴動計劃은 「트로츠키」의 手中에 있었다. 그는 臨時政府에 대한 暴動을 準備하는데 겨우 5日의 여유밖에 갖지 못하였었다. 「볼세비키」는 小規模이나 기강이 厳하고 잘 짜여진 軍隊와, 역시 소규모이나 紀律이 훌륭한 政党을 가지고 있었다.

10月의 地方「소비에트」선거는 「소비에트」 組織内에 「볼세비키」에 대한 支持가 늘어간다는 것과 地方政府組織이나 重要都市 人民들 사이에서도 「볼세비키」支持度가 増大되어감을 보여 주었다. 「트로츠키」는 5日内에 最終計劃을 짰다. 폭동거사전에 그는 그의 軍隊를 검열하였고 24일에는 「볼세비키」들이 主要 政府建物, 다리, 역 등을 포위하였고 10月25日에 그들의 革命은 始作되었다. 臨時政府는 25日에 「겨울宮」에서 저항하였으나 그날 저녁 늦게 그 宮은 강습 당하여 臨時政府 수뇌들은 체포 당하였다. 「케렌스키」는 「볼세비키」에 저항하기 위하여 수도로 도망갔으나 失敗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볼세비키」革命은 勝利를 거두었고 「레닌」은 그가 기대하였던 重要한 役割을 담당하게 되었다.

4. 革命後의 党의 支配(1917－1932) (프로그램 No. 25)

＊「엘 리 슨」博 士

1917年부터 1932年까지 소련은 3段階의 発展을 거쳤는데 첫번째 段階는 1917年부터 1921年까지의 内戦과 権力의 形成期이며, 第2段階는 1921年부터 1928年까지의 新経済政策의 期間이며, 第3段階는 1928年부터 1932年까지의 第一次 5個年 計劃의 期間이다. 이러한 各時代는 각기 特性과 問題点을 지니고 있었으며 소련社会의 性格形成에 지대한 影響을 미쳤던 것이다.

「볼세비키」에 의한 権力形成期의 第1段階는 1917年의 10月革命 直後로부터 시작된다. 小規模의 党의 指導者로서 그의 意志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는 다만 小規模의 軍隊만을 갖고 있었던 「레닌」은 그가 継承한 政府보다 더 効果的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그의 合法的인 計劃을 통해서 「볼세비키」運動에 対한 상당한 支持를 받는 것이 그의 課題였다. 그 結果로 그의 計劃에는 그가 前에 했던 一連의 約束이 包含되고 있었다. 그는 農民에게 이미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주었고 이를 土地法으로 認定하였으며, 労動者에게는 그가 約束한 工場의 支配権을 부여했으며 国内의 少数派에게는 自決権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밖에도 그는 필요하다면 一方的인 平和의 方法을 통해서라도 政府는 즉각적으로 平和를 追求하는 手段을 探究할 것이라고 約束하였다. 그는 그의 執権時에 그가 얻은 政府権力을 「볼세비키」가 独占하는 것을 反対하였으며 또한 党内外에서 「볼세비키」가 아닌 社会主義者도 閣僚의 地位를 갖도록 하라는 圧力이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또한 그는 그가 선출을 約束했던 議会의 構成員에 対한 解散을 1918年 1月에 行함으로

* Herbert J.Ellison:「캔사스」大学 歴史学教授,「슬라브」地域研究所長,「런던」大学 ph.D.

써 權力의 独占을 保有한다는 그의 결의를 表示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1917年 末에는 매우 発展된 그의 감찰권과 「체카」(Cheka)라는 秘密警察組織을 통하여 「볼세비키」權力의 高度的인 集中을 나타내는 아주 強力한 地位를 占하였고, 1918年 봄에는 그들의 많은 約束을 改造하여 「反볼세비키」運動의 組織이라는 面에 하나의 要素로서 기여케 되었다.

産業에 있어서 그들은 労動者에 依한 統制政策에서 労動의 集約的인 規制의 틀을 가지는 中央管理的 統制政策으로 옮겼으며, 農業에 있어서도 그들은 農民들에게 그들의 土地를 자유롭게 経営하는 것을 許容하는 政策에서 都市의 利益을 위해서 農民으로부터 穀物을 強制로 수탈하는 政策으로 옮겼다. 또한 民族主義 問題에 있어서도 1918年 1月부터는 前에 있었던 自由로운 自決權의 概念을 拒否하고 「프롤레타리아」를 為한 새로운 自決權의 概念으로 기울어지는 새로운 方向이 提示되었으며 사실상 「볼세비키」를 為한 自決權만이 이러한 措置에 의해서 認定되었다. 따라서 聯邦의 概念은 「볼세비키」政府의 威力이 미치는 限에 있어서는 충분히 抑制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브레스트-리토브스크」条約은 中央政府와의 사이에 1918年 3月에 비준된 것으로서 中央政府와의 関係에 있어서의 平和를 추구하는 最高 결정의 것인 바 이것은 황제가 가졌던 광활한 領土에의 抛棄를 意味한다. 皇帝는 前에는 「볼세비키」와 協力했으나 다시 「볼세비키」에 反対하여 反乱을 일으키고 反「볼세비키」勢力集団의 広範囲한 形成을 도모했었다.

「브레스트-리토브스크」条約은 「폴랜드」의 西部国境을 設定하였으며 또한 「볼세비키」政府는 「핀랜드」와 「발틱」地方의 「우크라이나」의 独立을 받아 들여야만 했기 때문에 戦前帝国의 西部領土의 全部가 떨어져 나갔다.

따라서 大体로 帝政時代의 「무스코버트」의 領土의 윤곽을 따라가는 程度로 西部의 領土가 減少되었다. 「러시아」에 있어서 反「볼세비키」의 첫번째 勢力은 1918年 1月 後方地域에서 일어났고 그 後에 계속해서

「볼가」地域 上部에서 「짜르」反乱, 「러시아」人에 의한 中部 「볼가」地域과 「우랄」地域에서의 反乱과 「시베리아」에서의 反乱이 1918年 봄에 일어났다. 反面에 北部 및 北西部 地方에서의 「브레스트-리토브스크」条約을 위반한 独逸軍의 「러시아」領土 침공은 1918年 봄에 점점 더 깊숙히 進行되어 北「코카사스」 方向으로 進行되었다. 聯合国들은 北部의 「무르만스크」와 「브라디보스톡」이 있는 極東과 기타 中央「아시아」의 여러곳의 「러시아」領土를 간섭하기 위하여 独逸의 進攻을 関心있게 살펴보고 있었다. 이러한 状況때문에 1918年의 봄과 여름, 「볼세비키」는 아주 不利하게 되었고 나아가 「볼세비키」를 反対하는 잠재적인 聯合勢力들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観点에서 볼 때, 「레닌」은 상당한 技術을 가진 策略을 써야만 했었다. 또한 内外 状況은 独逸의 革命에 의하여 1918年 11月에 急変되었다. 独逸政権의 崩壊는 赤軍이 革命을 통해 「발틱」地方과 独逸国境으로 進攻할 機会를 주었던 것이다. 1918年 末과 1919年 初期에 共産党 「스타일」의 革命의 同時的 発生은 「레닌」의 소련革命의 拡散으로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状況은 다시 逆転되었다.

独逸에서 革命이 粉砕된 1919年 1月末, 特히 「발틱」地方에서 「볼세비키」에 対抗하는 諸勢力으로 말미암아 「볼세비키」는 不利하게 되었다. 이때 「레닌」의 役割이 크게 나타났다. 그는 1919年 3月의 「파리」에서의 聯合国 最高会議가 간섭을 撤回할 것을 決定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불란서군은 「우크라이나」에서 1919年 봄에 재빠르게 撤軍해 버렸다. 이는 白軍이 南部, 東部, 그리고 北部와 北西部에서 「볼세비키」軍隊에 対抗해서 아주 큰 전과를 올릴 時期와 거의 때를 같이 했다. 이러한 白軍의 돌진은 1919年의 봄과 여름 동안에 넓은 領土에 걸쳐서 特히 南部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폴랜드」의 「방글」将軍에 依해서 이끌어지고 首相이 前面에 나타난 1920年 봄의 소련 南部로의 侵攻에 힘입어 「러시아」의 反「볼세비키」派는 再建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短命이

었고 그후 곧 白軍은 降服하였다. 1922年 가을 「볼세비키」는 다시 極東까지 占領하여 「짜르」의 前 領土에 対한 支配権을 장악하였고 그들은 「핀랜드」와 「발틱」地方, 그리고 「폴랜드」의 西部領土를 降服시켰다. 그리하여 旧「러시아」 皇帝治下의 全領土를 그들의 統治下에 再結合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内戦이 끝날 무렵, 「볼세비키」들은 대단한 困境에 処해 있었는데 그것은 人民의 広範囲한 不満足과 「우크라이나」와 「시베리아」에 걸쳐서 일어난 農民反乱이었다. 소련의 経済는 매우 不安定하게 되어 있었고 産業生産은 戦前의 半으로 떨어졌으며, 重工業은 거의 戦前의 7%, 農業生産도 戦前의 50%에 不過해서 1919年부터 1921年까지 全国的으로 500万名에 달하는 犠牲者가 나타난 무서운 기아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따라 政治的인 反対勢力이 成長되자, 「레닌」은 内戦의 時代에서도 世界共産主義의 政策이라는 名目下에 열렬히 追求하였던 経済의 社会化 計劃을 強力히 추진해야만 했었다.

그는 土地를 国有化했고 企業과 銀行, 産業, 国内外의 交易을 国有化했다. 1920年 末, 그는 産業에서의 더욱 더 甚한 国有化 手段을 提示하였고, 農業에 있어서의 더 큰 集団化의 圧力을 加했다. 더욱이 매우 극적인 方法으로서 그는 物物交換制度를 導入하여 貨幣를 없애려고 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은 1921年 3月의 第10次 全党大会에서 導入된 新経済政策에 의해서 바뀌어졌다. 1921年 3月의 新経済政策은 農民에 対한 一連의 양보로서 시작되는데 「레닌」은 農民에 対한 양보가 革命的인 것의 貯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目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매우 극적인 것이다. 農民에 대한 양보는 農民들을 강제로 集団農場에 参与하도록 하는 圧力의 抛棄가 그 주된 것이다. 集団化가 限定된 範囲에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곡물세의 徴収가 어려워 1920年代까지 遵守되어온 정액곡물세제도를 포기하였던 것이다. 新経済政策의 最初의 目的은 매우 빨리 達成되었다. 즉 첫째로, 内戦時代의 황폐와 共

産党의 戦争政策에 対한 과도한 열성에서부터 나오는 損失로부터 経済의 復興을 達成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빠른 重工業의 成長을 達成하는 것이었다. 農業의 回復은 1926年에 達成되었고 工業의 回復은 1927年에 達成되었으나 그 拡張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農業生産은 1926年에 戦前의 水準을 달성한 후 다소 정체상태에 있었으며 小農의 数가 아주 크게 増加한 反面 市場 生産物의 大部分을 供給하는 企業農과 大農이 除去되므로 市場과 輸出을 위한 農業生産物이 急激히 下落되었다. 輸出은 外国에서의 産業資材의 購入에 絶対的으로 重要하고 또 全体産業化計劃에 있어서 매우 重要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事態였다. 工業部門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問題点이 있으나 이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工業生産性의 둔화에 따른 産業経済의 非効率的 拡張이다. 이러한 問題는 1920年代의 党指導層에 依해서 매우 심각하게 論議되었으며 問題는 収容可能한 政策의 테두리안에서 社会主義的으로 어떻게 農工業을 다루고 充分히 빠른 成長率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1920年代의 党의 指導者들間에서 발단된 의견은 1925年과 1926年의 짧은 期間에 있어서 農民과 個人主義에 対한 양보와 또 農業生産의 拡張을 達成하는 手段으로서 農民에 대한 誘因에 対해서 양보를 하여 産業生産의 拡張을 期한다는 것이었다.

1927年의 15次 全党大会에서는 다음해의 農業과 工業에 있어서 提示될 問題들을 다루었는데 그 主要政策은 農工業 発展의 均衡政策과 漸進的인 自発的 集団化이었다. 즉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軽工業과 重工業의 均衡 発展과 消費材의 継続的인 流通이 労動者에 대한 誘因을 増加시키고 産業化의 정도에 따라서 農民에 대한 誘因도 増加시킨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同時에 産業 特히 重工業의 充分한 成長率을 達成하려는 것이었다. 農業에 있어서는 集団化에 関한限 自意的인 것으로 하게 하고, 農民들이 어떠한 代価를 치루던 온순해지도록 圧力을 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政策이 1次 5個年計劃의 첫 年度가 되는 다음 해의 経済에 関한 党의 政策이었다. 이같은 政策은 그 이면에 「스탈린」의 経歴이 그러한 状況

을 극적으로 変化 発展시킨 것과 密接하게 関聯되어 있다. 1920年代에 있어서 「스탈린」은 원래 그가 産業의 均衡発展과 自意的인 集団化를 支持하는 온건세력과 같은 便이라는 印象을 주었다. 그는 후에 右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과 協力을 하였고, 그 代表者로서 「트로츠키」가 속해 있는 左翼과 対立하였으며 그는 窮極的으로 中道政策을 따르는 것이 그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소위 右翼指導者들이 믿도록 여러가지 理由를 提示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는 1920年代 후반기에 権力을 잡아 15次 党大会에서와 같이 左翼指導者들을 추방하여 고립시켰고 소위 効果的인 左翼政策을 支持하는 右翼指導者들을 배척하였던 것이다.

第1次 5個年計劃을 検討해 보기 前에 살펴보아야 할 1920年代 政策의 또 다른 局面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主要特質로서 모든 소련生活에 党의 勢力을 構築하려는 努力과 소련社会의 다양한 要素에 対한 党의 統制力을 세우려는 努力, 그리고 소련 文化生活의 모든 것에 対한 党의 統制力을 確立하려는 努力 등이다.

党의 統制를 確立하기 위해서는 全体主義라고 불리우는 構造의 拡張과 「스탈린」이 그후 1次5個年計劃期間 동안에 急速하게 追求했던 소련 専制主義体系를 構築하기 위한 統制와 機構의 構造를 実質的으로 拡張하는 것이 必要하다. 「볼셰비키」執権 初期인 1918年에는 宗教에 対한 政策으로 맨 먼저 公立学校에서의 神学에 対한 教育権을 박탈하고, 漸次 神学校에서의 神学教育権까지를 박탈하였으며, 여러가지 規制에 의하여 聖職者의 数를 実質的으로 減少시켰다. 1925年에 이르러서 장노에 새로운 長老의 任命을 抑制하고 教会를 責任者 없이 방치토록 함으로써 窮極的으로는 소련社会에 있어서의 宗教의 影響力을 감소시켰던 것이다.

宗教에 対한 積極的인 分離政策과 国家権力에의 従属政策, 그리고 宗教의 소련社会에 있어서의 影響力의 減少政策은 教会의 地位와 信仰生活에 対한 変化의 一部分인 것이다. 宗教政策은 「러시아」 正教会뿐만 아니라 유대

교와 「이스람」교에게도 影響을 미쳤다. 소련權力의 初期에는 広範囲한 教育問題에 관한 実験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1923年頃 소련의 教育制度의 発展과 더불어 거의 포기되었다. 즉 1923年부터는 9年間의 大学予備過程으로 3年과 2年의 보습교육기간과 4年制学制를 설정하였다. 한편 技術学校制의 導入과 아울러 高度로 中央集権化된 学校制度를 導入하여 国家의 統制権을 強化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政府의 学校 統制는 教育委員会에 依한 学校行政과 教授진의 철저한 任命을 의미하는 制度로서 1922年에 完成된 것이다. 政府統制는 1918年부터 1921年까지 실시된 入学制限의 完全撤廃의 形態로 特別하게 実験을 実施한 高等教育에도 適用되었다. 1918年 이후부터는 大学의 人事権에 대한 統制를 強化하기 시작했고 다시 教育委員会가 教授와 教育行政 관료를 任命하는데 대한 統制権을 獲得하였다. 한편 모든 学校의 教科課程은 党理念의 요구에 따라 広範囲하게 修正되었으며 이것이 후에 専制主義的 教育政策으로 変하는 계기가 되었다.

文化生活에 있어서도 1920年代에는 검열권의 形態로서 「볼세비키」革命直後에 나타난 制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自由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党에 대해서 反対하는 글을 쓰지 않는限, 大体로 出版의 自由가 보장되었다. 特히 1924年의 憲法을 前後해서 純粋文学에 있어서는 広範囲한 自由를 認定해 주었다. 그러나 모든 部門에 걸쳐 党組織의 構造는 1次 5個年計劃 期間동안에 知的生活에 대한 組織的인 統制의 基盤確立이 成就되었다.

1920年代의 民族的 少数派와 그들의 生活에 있어서의 主要한 発展들은 다음과 같다. 1924年의 政治的인 中央集権主義의 体制는 소련聯邦 憲法의 導入으로 公式化 되었다. 이 憲法은 公式的으로는 聯邦主義이지만 実際로는 一貫性있는 中央集権主義的인 것이었다. 또한 이 憲法도 民族的 少数派를 考慮하는데 소홀하였으며 그들은 아주 限定된 範囲内에서 文化的 自由를 누렸을 뿐이다. 그것도 1920年代 후기에 와서 이러한 抑制가 政治的으로 中央集権主義의 目的에 危険이 될 수도 있다는 党에 대한 不

平때문에 비로서 許容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1920年代의 소련社会에 대한 党의 統制의 発展된 몇가지의 局面이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1次5個年計劃의 背景이 되는 것이다. 1次5個年計劃을 살펴보면 考察되어야 할 여러가지 局面과 次元이 있다.

1927年과 1928年에 農·工業에 관한 政策을 둘러싸고 党内 闘争이 있었다. 15次 党大会에서는 漸進的이고 自発的인 集団化와 均衡된 産業開発이 採択되었다. 「스탈린」의 党의 機構에 대한 統制는 1928年과 1929年에 와서는 党을 그의 1次5個年計劃으로 漸進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位置에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것에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었다. 発展에 대해서 보다 온건한 開発計劃을 作成한 国家의 企劃部署의 専門家들을 「스탈린」은 달가와 하지 않았으며, 「스탈린」形態의 計劃을 支持하는 관리에게 더 큰 성원을 해 주었다. 또 経済에 대해서 経済危機가 増加되고 있다는 印象을 주려는 方法이 있었으며 이것의 大部分은 「스탈린」과 그의 동료가 그들의 努力을 最善으로 할 수 있는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運営調整 되었으며, 또한 右翼이 存在한다는 印象을 만들어 내는 方法도 있었으니, 물론 右翼이라는 말은 그의 構成員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후에 「스탈린」과 協力하여 左翼과 対決한 「톰스키」나 「리코프」 같은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1929年 末期와 1930年 初期에 1次5個年計劃이 시작되었는데 이때까지도 左翼指導者들은 그들을 影響力있는 位置에서 除去한 것과 「스탈린」이 国家의 運命을 独断하는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農業에 있어서는 이 政策은 2,500万의 農民을 20万個의 「콜호즈」, 즉 集団農場으로 줄인다는 目標를 達成한 以外에는 아무것도 이룩한 것이 없었다. 이러한 극적인 変化는 1929年 12月에 시작해서 1930年 3月에는 全集団化의 54%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資産을 没収당하거나 強制的인 流配를 당하는 農民을 과도하게 함부로 取扱함으로서 그들의 反撥이 頻繁해지고 猛烈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작업은 一時的인 希望에 불

과했었다. 그러나 1930年의 6月에 完全한 선풍적인 集団化가 다시 행하여 졌고 이의 결과는 農場의 数의 감소와 農夫들이 集団農場에 配置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集団農場에서는 国家에 의해서 任命된 責任者의 指揮下에 運営되며 構成員들은 수확한 穀物이나 農業政策에 対해서 아무런 統制権도 없었다. 1次5個年計劃期間에 있어서 産業은 84%가 이미 国家 所有였으며 따라서 그 移動이 農業에서 처럼 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手工業의 破壊와 그들의 国家経済로의 吸収는 産業生産을 倍加하는 大量計劃과 鉄, 石炭, 鋼鉄, 精油 등의 重工業에 치중하는 計劃과 軽工業과 住宅 등의 犠牲위에서 이러한 重工業의 急激한 成張의 成就를 目標로 하는 産業의 完全한 社会化와 結合되어야 한다. 이러한 産業政策実施後에는 割符나 경품권이 없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経済의 完全한 社会化가 完成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工業生産의 広範囲한 拡張과 農業生産의 急激한 減少가 나타나고 또한 農業 및 工業人口에게 무서운 犠牲을 강요하였으니, 農民은 集団農場에 편성되거나 都市 혹은 노동캠프로 流出되었고, 産業労動者들은 集団으로 組織化되었으며 또 이러한 計劃의 全体는 「볼세비키」政権의 継承者가 数年동안 괴로워할 심각한 社会的, 経済的 問題를 提起하는 것이었다.

5. 「러시아」共産党의 支配(1932-1961) (프로그램 No. 26)

* 「엘 리 슨」 博 士

1932年 第1次 5個年計劃 終了로부터 1941年 소련의 第2次 大戰參戰까지의 期間은 주로 소련共産党 組織構造의 完成으로 특징지워진다. 組織構造의 樹立은 이미 1928年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소련 独裁政治의 完全한 骨格을 이루었으며, 또한 이는 「스탈린」의 「리더쉽」 아래 完全히 成熟되었던 것이다. 이는 集団農場 組織의 完成, 産業의 社会化 과정의 完成, 農民 및 労動者들에 대한 自由의 현저한 制限 또한 破局에 도달한 「스탈린」의 經済的 「리더쉽」의 失策에서 오는 모순, 1930年代 중엽부터의 反対派에 대한 徹底한 숙청에 의한 対衆의 공포 및 專制政策으로 특징지워지는 政治的 「리더쉽」의 開化와 転換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때부터 全体主義 制度의 機構가 成熟되는 数年 동안의 특징들은 소련市民生活의 個人的 側面을 考察함으로서 또한 그것이 招来한 知識人들의 生活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으며, 또한 純文学的인 文学과 学問의 제영역에서의 공식노선, 作家들에 대한 作品 主題의 事前 指示, 真実은 現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党이 달성하고자 표방한 目標라는 社会主義 実在論의 批判的 教理의 導入등을 살펴 봄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教育에 있어서도 1930年代의 일반 国民教育 및 高等教育의 조속한 拡大와 나아가서는 教育이 政治的 統制의 強力한 한 要素가 되었음을 보아도 역시 알 수 있다. 宗教生活에 있어서도 基督教, 「이슬람」教, 유태教 등 既存宗教 団体들에 전례없는 박해가 가해졌으며 이것은 혹독했던 1920年代보다도 더욱 심한 박해였다. 이러한 박해는 1930年代에 있어서 이들 宗教 集団들을 극히 침체되도록 만들었으며 현대의 宗教歴史 중 어느때

* Herbert J. Ellison: 「캔사스」大学 歴史学教授, 「슬라브」 地域研究所長, 「런던」大学 ph.D.

보다도 취약하게 만들었다. 国内 小数 民族의 生活에 있어서도 政治的으로나 文化的으로 극히 制限되었던 自由가 더욱 더 制限되었고, 国境地方 政党의 共産主義 指導者들에 대한 広範囲한 숙청이 있었고, 그때 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許容되었던 制限된 文化生活의 自由마저도 더욱 縮少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30年代에 이르러서는 1920年代의 党의 타협적 姿勢마저도 거부됨을 보게 되는 것이다.

經済, 政治, 文化分野에서 極的인 変化가 오고 1920年代에 시작되었던 経済的인 論争같은 것은 사라져 버린지 오래였다. 農民의 生活은 革命化되어 集団農場에 이주하게 되었으며, 都市人口는 1928年의 2千3百万에서 戦争 발발 直前에는 그 2倍로 늘어났던 것이다. 政府機構는 実験的 잠정적 기능에서 보다 딱딱하고 교조주의적인 「스탈린」主義의 特色으로 굳혀 갔으며 5倍 半으로 늘어나 戦争直前에는 1千1百50万의 관료를 거느리게 되었으며, 1930年代 말엽의 소련의 政治, 經済, 文化에 걸친 모든 生活을 支配하게 되었던 것이다.

第2次 世界大戦은 소련에 커다란 試錬을 안겨 주었으며 소련共産党은 일찌기 유례가 없었던 最大의 도전을 받게 되었으니, 군사상의, 経済機構에 대한, 그리고 가장 극적인 党의 政治的 「리더쉽」에의 도전이였던 것이다. 戦争 初期 段階에는 극심한 後退作戦으로 커다란 軍事力의 損傷을 입었다. 軍事機関을 急히 改編하여 이와 같은 問題를 대처코자 하였으며 独逸軍의 戦略에서 얻은 教訓을 活用코자 하였던 것이다. 1941年 12月 初부터 소련政府는 심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격을 시도하였고 점차 戦争初期의 軍事的인 損傷에도 불구하고 반격작전을 拡大해 나갔던 것이다. 동시에 소련 政府는 경제, 政治的인 措置를 取하여 独逸軍의 도전에 対処하려고 하였다. 軍事力의 再組織 또한 이와같은 일련의 改革試図의 하나였던 것이며, 経済的인 問題에서는 産業施設의 保存과 계속적인 生産을 강행하며 적군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랄」地方과 「시베리아」地方으로 이동시켰던 것이다. 이 政策은 戦争을 遂行함에 있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정치적인 도전은 더욱 어렵고 다양한 形態로 닥쳐왔다. 戰争初期에 심한 피해를 입고난 뒤 크게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厳한 계율과 軍事訓練을 遂行하기 위해서 난폭한 手段 등 여러가지 방안이 취해졌다. 戰争 遂行중 党의 宣伝機構가 주로 活用되었는데 共産主義보다는 民族主義와 宗教的인 宣伝이 適切하게 取해졌으니 民族主義 宣伝에서는 과거 「러시아」의 역사적이고 民族主義的인 주제와 史的인 業績과 軍事的인 偉大性이 크게 強調되었으며, 변방의 少数民族의 民族主義 고조도 그 「테마」였다. 희랍정교와 「모슬렘」교도들에게 宗教의 自由를 許容하는 커다란 양보를 하였으나 유태교도들에게는 政治的인 利得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恵沢도 부여되지 않았다. 희랍정교회는 다시 大主教의 임명을 戰争遂行에 있어서 政府에 協助하겠다는 条件部로 認定받았다. 戰争동안에 소련国民과 소련共産党은 커다란 역경속에서도 試錬을 인내해낼 수 있다는 것을 証明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共産党은 역경속에서도 그 組織力과 団結力과 規律性의 어려운 問題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였으니 그 組織이 연약했던들 戰争의 무게아래 파멸되었을 것이다.

終戰 後에는 大衆이 政府의 楽観的인 宣伝때문에 모든 것이 나아지고 党의 政策이 많이 改善될 것이라는 큰 期待속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희구는 戰後에 무자비하게 짓밟혀 버렸으니 戰後의 소련政府의 政策은 計劃初期 政策과 같은 内容이였고 大衆이 원하던 것과는 달랐다. 지성인의 生活은 크게 規制되었으며 経済政策의 改編과 拡大計劃은 計劃初期의 政策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숙청과 핍박이 계속되었으며, 党組織의 拡大 強化가 遂行되었다. 소련 政府의 帰還労動者와 帰還戰争捕虜의 取扱政策이 소련지성인들에게는 크게 못마땅한 것이었다. 帰還労動者와 帰還戰争捕虜들은 반역자 取扱을 받아 가혹하게 投獄되거나 強制労動에 処해졌으며 가급적 国民 大衆들과의 接触에서 격리되었다. 文化生活도 오로지 党의 政治的 目的을 위해서만 利用될 뿐이었다. 「빨치산」이나 그밖의 낡은 주제가 再登場하고, 소련 文化政策에서 反西方的인 주제

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国民들에게 西方文化의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무시하도록 하려는 政治的 目的 아래 文化生活이 統制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文学과 映画의 統制, 歴史의 改造, 思想家들에 대한 再教育, 모든 学文과 言語学에의 과도한 党의 간섭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文化 知性的인 面에서 党의 規制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著名한 学者, 作家 등이 大規模로 公開 모욕을 받았으며 地位와 수입을 잃고 유배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그 後 産業政策에서는 戦後 수년간 全国家의 最大 観心事였던 戦争의 惨禍에서 오는 被害의 復旧에 力点이 주어졌다. 이에 随伴해서 1945年에서 1953年間 重工業 産出量의 2倍 生産이 達成되었으며 産業의 新設과 近代化가 수반되었다. 그중에서도 核開発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 하겠다.

労動政策은 戦前과 大同小異해서 再賃金, 長時間 労動, 消費材 生産과 労動者 住宅의 소홀 등과 이를 위한 탄압과 規制, 특히 規制의 正当化를 위한 規制가 戦後政策의 特性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農林政策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그 回復이 상당히 느려 1952年에 이르러서도 2次大戦 当時 水準보다도 낮은 個人 生産水準을 가져 왔다. 個人의 生産意慾과 家族을 連結시키는 制度가 소련에서 広範囲하게 使用되어 農業生産의 増加를 試図하였으나 1950年에 포기되어 「니키타·후르시쵸프」에 의해 신랄한 공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소련農業의 전면적인 社会主義 制度化인 大規模 集団農場의 準備段階로서 集団農場의 統合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의 소수민족에 대해서 가장 効果的이었던 広範囲한 民族主義的 宣伝은 戦後에 종지부를 내리고, 위대한 소련의 相対方인 西方陣営과 인연을 맺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宣伝攻勢가 반복되었다. 이들의 사소한 저항의 기미도 戦後의 소련政府에는 심각한 問題였기에 強圧的이고 冷酷한 탄압政策을 썼다. 특히 「폴랜드」로부터 빼앗은 새로운 領土인 「발틱」연해의 새로 併合된 소수민족들에게는 가장 탄압적이고 공포적인 政策을 썼으며

이것은 서부 「우크라이나」地方에서도 그러했다.

소련共産党은 党員数의 急激한 増加가 特色이었는 바, 戦争 初期에 4百万이었던 党員数가 1945年에 6百万名이다가 戦後에는 7百万名으로 急増하였다. 1946年에서 48年 사이에 共産党의 중간 階層에 약간의 압력과 人員 変動이 있었으나 党의 最高支配層의 安定만이 그들의 主된 観心事였던 것이다. 「스탈린」이야말로 党組織의 疑心할 여지없는 主人이었으며, 「스탈린」은 天才, 아버지, 偉大한 영도자, 天才的 教師, 소련歴史上 가장 偉大한 人物, 世界共産主義 史上 最大의 人物로서 表現되던 時代였다. 1952年 가을의 19次 共産党全党大会에서 음모의 징조가 나타났고 「스탈린」統治時代가 끝나게 되었다. 이 음모는 分明히 「스탈린」이 자기 측근 막료인 고위 党支配層을 改編하기 위해 꾸민 것이 分明했으며 1930年代와 같은 대숙청의 기운이 造成되었다. 1952年 마지막 달과 1953年 新年 첫 몇 주 사이에 이러한 기운이 최고조에 도달하였고 1953年 1月에 의사의 음모가 発表되자 이 음모는 急速히 종결된 듯이 보였다.

이와같은 음모가 進行 중일 동안에 「스탈린」이 死亡하게 되자 高位指導者의 代替와 일대 숙청의 計劃이 파기되고 그 대상이 되었던 旧 막료들의 集団指導 体制가 시작되었다. 「스탈린」 死亡後 소련政府의 政策을 여러 面에서 면밀히 検討해 볼 必要가 있다. 그중에서도 三頭政治制度의 指導体制와 中共 및 위성국 간의 関係 두가지가 특히 두드러지겠다.

集団指導体制가 주요하게 대두되었으나 그 중의 일원이었던 「베리아」(Beria)는 1953年 7月에 그의 모든 職策과 秘密警察의 우두머리 位置로 부터 거세되고 총살된다. 다음 수개월 동안은 「후르시쵸프」와 「말렌코프」의 양인체제가 밀고나가다가 1955年 初에 「말렌코프」는 重工業 発展의 重要性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理由로 수상의 자리에서 축출된다.

다음 단계는 1957年 6月에 「후르시쵸프」의 衛星国政策과 文化政策이 国内와 東구라파에서 심각한 난국에 봉착했다는 理由로해서 당 常任委員会

의 대다수가 党의 指導者 位置로부터 「후르시쵸프」의 辞退를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후르시쵸프」는 이와같은 要求를 묵살하기로 하고 党中央委員会에 호소하는 形式을 取해 이들을 숙청하여 버린후 党常任委員会를 자기의 政策을 지지하고 복종할 者들로 代替해 버렸다.

이와 같은 高位 党幹部를 반당분자로 낙인을 찍고 숙청하는 것이 몇차례 반복되자 集団指導体制는 「스탈린」時代의 制度에의 復旧처럼 보였고 「후르시쵸프」 일인체제가 주된 役割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衛星国 및 中共과의 関係라는 問題에 対해서는 地図를 보며 戦後의 소련 政策과 問題点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스탈린」은 모든 衛星国들이 「모스크바」에서 指令하는 획일적인 政策을 따르도록 規制化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는 동구 공산당의 組織과 大衆에게 엄청난 圧力을 계속 加하여 왔으나 「스탈린」 이후의 指導層은 이를 약간 풀어주어야만 하겠다고 느꼈던 것이다. 「스탈린」死後의 소련指導層은 1953年 「체코」와 東独労動者의 봉기에 의하여 이와같은 경고를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事態에 대한 뒷 措置로써 1955年과 1956年 동안에 「스탈린」主義的 体制의 変化를 지향하여 東구라파 共産党 지도자들에 대한 問題 및 経済 宗教的인 問題에 대한 緩和措置가 강구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改革이라는 時代的 背景 아래서 1956年 「풀랜드」와 「항가리」事態가 발발하였던 것이다. 이 事態는 東欧 共産党指導層에 대한 党員의 反発과 소련의 支配政策에 대한 反発과 大衆의 전반적인 不満이 大規模 적대감정의 표시로 나타났던 것이다.

「풀랜드」에서는 소련指導者들이 「풀랜드」共産党에 自律権을 大幅 譲歩하자 事態가 많이 수습되고 大衆들도 상당히 順応하게 되었다. 그러나 「항가리」에서는 事態가 수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더욱 悪化되어 暴力革命의 形態를 띄고 계속 闘争할 気勢를 띄우며, 소련의 支配, 共産体制 「프롤레타리아」 독재제도, 共産党의 독재 등 모두를 거부하며 드디어 「항가리」에서 共産党独裁体制를 解体할 気勢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 段階에

들어서자 소련指導者들은 1956年 11月4日 「항가리」의 영향이 全 동구권에 파급되어 모든 共産衛星圈이 壞滅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大規模的인 개입을 決定하게 되었던 것이다.

1956年 이래 「항가리」에는 共産政権이 다시 復旧되었으나 일부에서 억측하던대로 전 동구권에 「스탈린」式 支配体制가 復旧되지는 않았고, 소련政府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東欧共産党들은 소련共産党의 直接的인 支配를 받지 않으며 漸次 独自的인 国内政策과 支配体制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中共의 경우에는 소련과의 問題가 특히 1958年에 公開化되었다. 1958年과 60年 사이에 中国共産党 内部의 政策과 理念的 正統性의 問題로 紛争이 있었고 1960年 後부터는 좀 더 国際的으로 紛争이 拡大되어 理念問題 뿐만 아니라 国際 共産党의 問題에 마지 번지게 되었던 것이다. 中, 蘇紛争이 1940年과 62年 사이에 가열화 되어 점차 公開的인 결별로 까지 치다를 듯이 까지 보였다.

「스탈린」 統治時代 以後의 共公政策이란 知識人, 農業, 産業에 대한 規制라고 自称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을지 모르겠다. 知性人層에 대한 支配에서 소련의 集権層이 直面한 問題点은 바로 지식인의 生活의 여러 局面에서 가장 必要한 만큼의 支配를 하되, 스탈린時代의 非合理的이고 破壊的인 統制를 피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国家発展에 必要한 知的인 発展을 기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1954年과 1956年 사이에 벌써 대두하기 시작한 바와 같이 知性人에게 너무 自由를 許容해 버림으로써 政治的 危険을 招来하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시도아래 純粋文学에 대한 統制를 大幅緩和하여 지성인에 대한 不合理한 統制를 加해서 「아인슈타인」의 「相対性 原理」를 討論할 수 없다거나 ,「파브로프」事件으로 알려진 悪名높은 유전학에 대한 干渉같은 것을 막기 위한 緩和政策이 講究되었던 것이다. 換言하면 知性人의 活動에 대한 広範囲한 自由와 外部世界와의 接触 등을 용인함으로써 당의 支配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

나 「스탈린」의 生前보다는 보다 많은 自由가 용납되었으며 많은 変化가 이루어 졌다.

「스탈린」 이후의 農業政策은 農業制度의 問題点을 시인한 点이었으니, 1953年의 農業生産量이 파국적이여서 즉각적으로 대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全国의 経済가 심대한 被害를 입을 것을 솔직히 인정한 点이다.

「스탈린」以後의 時代에서는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可耕地의 開発을 위한 計劃이 이루어 졌다. 이 計劃이 그리 成功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処女地에서 창피스러울 정도의 失敗를 만회하기 위한 政策들이 강구되기도 하였다.

이 때에는 또한 集団農場의 大規模 統合政策이 추구되어서 農業制度의 社会主義化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특히 1963年 가을에는 1928年 이래 처음으로 소련의 小規模 耕作方法을 機械化하고 大規模 施肥의 必要性들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소련의 農業問題는 소련 歴史上 항상 解決이 不可能한 問題였으며 또한 現在에도 풀기 어려운 問題로 보인다.

「스탈린」이후 時代의 産業分野에서의 問題点은 낮은 生産性의 問題로서 부각되는 바, 1953年과 60年 사이에 重工業分野는 2倍로 成長하는 등 括目할 만한 성취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플라스틱」 등 化学産業 分野의 낙후성, 工学技術의 後進性, 全般 産業의 拡張의 지지부진 등은 소련의 経済를 西欧나 美国보다 뒤떨어지게 하고 있다.

全般的인 経済政策에서는 계속해서 産業的 역량을 拡張할려는 試図를 하고 있으며, 특히 最近까지는 軍事力増強에 가장 우선적인 政策的 配慮가 두어지고 있다. 또한 「스탈린」時代부터 물려받은 정통적 社会主義 構造라는 견지에서 農産物 増産에 커다란 努力이 기울어져 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모든 社会構造를 共産主義 形態로 転換해 보려는 試図도 이루어 졌다. 1960年代 初期의 소련事態 全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点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될 것이다.

첫째로 「스탈린」時代보다 共産党이 「소비에트」生活의 모든 局面을 支

配하던 풍조는 덜 두드러 지고 있다.

둘째 「소비에트」 市民의 日常生活에 주어졌던 탄압은 상당히 緩和되었다. 이 点은 특히 法的形態에서 그러하다.

세째 外部와의 接触이 大幅 增加되었다는 点이며, 여러 形態로 많은 소련市民들이 広範囲하게 外部世界와 接触을 하고 있다. 비록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나 「스탈린」 時代보다 훨씬 広範囲한 接触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째로 가장 重要한 것은 「소비에트」 市民의 生活 水準의 改善이다.

이와 같은 変化를 綜合해 볼때 느리나 지속적인 変化가 소련市民에게 오고 있으며 市民들이 소련政府 立場에서 볼때 여러 形態의 問題点을 던져주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는 証拠가 지난 10年間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련政府는 계속해서 解決 方案을 강구해야만 되나 그 解決方案이란 적절해야할 運命을 띄고 있고 共産路線에 수정을 가하지 말아야만 하며, 소련 共産主義의 基本路線을 견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오늘날 「소비에트」의 指導層이 안고 있는 問題点인 것이다.

〈参　考　文　献〉

1.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Robert V. Daniels, ed. New York: Random House, 1960

2. The Realities of World Communism
William Peterson,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4

3. Communist Totalitarianism: Keys to the Sovier System, 2d ed.
Bertram D. Wolfe. Boston: Beacon, 1961

4. The New Face of Soviet Totalitarianism
Adam B. Ulam. Cambridge: Harvard, 1963

5. Cases in Soviet Government and Politics
Alexander Dallin and Alan F. Westin, eds. New York: Harcourt, Brace, World, 1965

6. Encyclopedia of Russia and the Soviet Union
Michael T. Florinsky, ed. New York: McGraw-Hill, 1961

7. A Concise Encyclopedia of Russia
S. V. Utechin. New York: Dutton, 1963

8.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Leonard Schapiro. New York: Random House, 1960

9. Facts on Communism, vol. II: The Soviet Union, From Lenin to Khrushchev
David J. Dallin. U.S. Congress, House, 87th Cong., 1st sess.,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10. A Concise History of the Soviet Union, 2d ed.
John S. Reshetar. New York: Praeger, 1964

11. The Bolshevist Tradition: Lenin, Stalin, Khrushchev
Rovert H. McNeal.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3

12. A History of Soviet Russia, 4th ed.
Georg Von Rauch. New York: Praeger, 1964

13. A History of Russia, 4th ed.
George Vernadsky. New Haven: Yale, 1954

14. Russia, Tsarist and Communist, 2d ed.
Anatole G. Mazour. Princeton: Van Nostrand, 1963

15. Russian Political Thought: A Concise History
S. V. Utechin. New York: Praeger, 1964

16. Road to Revolution: A Century of Russian Radicalism
Avrahm Yarmolinsky. New York: Macmillan, 1959

17. The Origin of Russian Communism, 2d ed.
Nicholas Berdiaev. London: Bles, 1948

18. To the Finland Station: A Study in the Writing and Acting of History
Edmund Wilson. New York: Harcourt, Brace, 1940

19. The Russian Revolution and Bolshevik Victory: Why and How?
Arthur E. Adams, ed. New York: Heath, 1960

20. The Russian Revolution, 1917-21, 2 vols., 2d ed.
William Henry Chamberlin. New York: Macmillan, 1952

21. The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3 vols.
Leon Trotsky, Ann Arbor: Michigan, 1957

22. The Anatomy of Revolution, 2d ed.
Crane Brinton. New York: Prentice-Hall, 1952

23. Smolensk Under Soviet Rule
Merle Fainsod. Cambridge: Harvard, 1958

24. The Origin of the Communist Autocracy: Political Opposition in the Soviet State
Leonard Schapiro. Cambridge: Harvard, 1956.

25. The Conscience of the Revolution: Communist Opposition in Soviet Russia
Robert V. Daniels. Cambridge: Harvard, 1960

26. A History of Soviet Russia, 8 vols. (to date)
Edward Hallett Carr. New York: Macmillan, 1950

27. The Politics of Totalitarianism: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from 1934 to the Present
John A. Armstrong. New York: Random House, 1961

28. The Great Retreat: The Growth and Decline of Communism in Russia
Nicolas S. Timasheff. New York: Dutton, 1946

29. The Great Purge Trial
Robert C. Tucker and Stephen F. Cohen, eds. New York: Universal, 1965

30. Soviet Opposition to Stalin: A Case Study in World War II
George Fischer. Cambridge: Harvard, 1952

第二節 소련의 政治·経済·社会実態

1. 소련의 国家権力構造(프로그램 No. 27)

* 「쿨 스 키」 博 士

소련共産党은 소련의 法律에 의하여 絶対的이고도 完全한 権力의 独占을 누리고 있다. 共産党은 反対의 여지란 있을 수 없는 党의 命令을 통해서 国家를 支配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共産党의 党憲은 党의 이와같은 지도적 位置를 구태어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党憲前文에는 共産党을 "소련社会를 지도하고 支配하는 勢力"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엘리트」의 組織인 소련共産党은 党의 理念에 献身할 것을 行動으로 보여주고 党政策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効果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만 入党을 許容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련共産党의 党員総数가 약 1千万名에 달하고 있다고 해서 별로 놀랄 일은 못된다. 이것은 약 2億2千万名에 달하는 전체소련인구 가운데 5%도 못되는 数字이기 때문이다.

이 5%의 소련共産党 党員들이 나머지 95%의 소련 国民全体를 실질적으로 支配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실은 소련을 支配하고 있는 것은 1千万名의 소련共産党員들이 아니라 党員들을 포함하여 2億2千万名의 소련国民 全体를 支配하고 있는 党最高位幹部들로 구성된 寡頭独裁政治 集団인 것이다.

소련共産党은 一般党員, 各種機能에 따른 位階秩序로 구성되어 있는 党機構, 그리고 最高位 党指導部 등 大略 세가지로 区分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들 세가지의 機能은 相互間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일반 平党員들은

---

* Wladyslaw W.Kulski: 「듀크」大学「러시아」科教授「파리」大学L.L.D.
「폴랜드」外交官 歴任

그들의 專門職業分野나 혹은 기타 모든 社会活動分野에 있어서 党의 政策을 수행하고, 党員이 아닌 이웃이나 職場 同僚들에게 이 政策의 의미를 說明하는 동시에 党의 規律을 尊重하는데 있어서 共產党員이 아닌 一般国民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上部의 命令을 수행하고 全体소련国民들의 政治的 忠誠과 労動生産性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国民속에 파고드는 政治的 軍人인 셈이다. 이들은 党의 政策樹立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平党員들은 다른 目的, 즉 말하자면 上部의 決定사항들을 各地方에서 効果的으로 実践할 수 있는 最善의 方途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다.

階級的으로 組織된 党機構는 党最高指導層의 命令을 一般党員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구실을 하고 있다. 党機構는 또한 一般党員들 뿐만 아니라 모든 소련国民들에게도 支配権을 行使하고 있다. 党憲은 党機構의 上下階序関係를 明白히 規定하고 있다. 党憲第 19 条에는 上部機関의 決定事項이 下部機関에 対해 절대적으로 拘束力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党의 党僚들은 平党員이나 一般国民들과 마찬가지로 上部에서 決定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妥当性의 여부에 対해서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任務는 党最高位指導者들의 指示事項을 実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감독하는데 있다. 그들은 共產党이라고 하는 政治軍隊에 있어서 일종의 下級 및 高級将校와도 같은 存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피라밑」의 頂上과도 같은 존재인 最高 司令部가 있다. 最高의 政治 「엘리트」들을 代表하는 党中央委員会도 이 最高司令部는 아니다. 中央委員会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党의 最高位幹部들 뿐만 아니라 各地方의 중요한 指導者들, 労組와 共産主義 青年同盟과 같은 大衆団体의 幹部들, 軍部指導者들, 가장 영향력 있는 軍部의 元帥 및 将星들 그리고 信任을 받고 있는 知識人들도 包含되어 있다. 이들은 政治権力의 「엘리트」들인 것이다. 中央委員会의 委員総数는 후보위원들을 包含할 경우 3 百30 名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最高執行機関으로서 活動을 하기에는 그

規模가 너무나 비대한 실정이다. 더욱이 中央委員会는 常設会議機関은 아닌 것이다. 中央委員会는 연간 3～4回 정도 会議를 소집하며 各会議期間은 平均 1週日 내지 10日間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정확한 権力의 限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련소식통으로부터 나온 資料에 의하면 中央委員会는 党最高位指導者들에 대한 주요 諮問役割을 하는 동시에 이 지도자들과 党機構間의 중개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中央委는 또한 주요 政治指導者들이 서로 분열하여 国家最高権力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모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후르시초프」와 그의 政敵들이 지난 1957年 6月에 벌인 権力闘争이 바로 그러한 싸움의 한가지 実例이다. 「후르시초프」 추종자들은 中央委員会의 과반수 権力을 장악하기 위해 努力한 끝에 그의 政敵에 대한 支持者들을 패배시키는데 성공했다. 「후르시초프」는 中央委員会의 支持를 確保할 必要性이 있다는 것을 充分히 깨닫고 있었다. 그는 中央委員会 委員들을 존경하는 態度로 대했으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의 모든 政治的 親旧들과 함께 中央委를 받들어 왔다는 点이다. 그는 中央委를 그가 수행할려하는 政策에 대한 하나의 音響効果 장치로 사용했다.

党과 国家에 대한 支配権은 全体中央委員会機構보다도 훨씬 規模가 작은 한 復合的인 機構에 의해 行使되고 있다. 中央委員会 委員들 가운데 일부는 상임위원회로 호칭되는 그의 執行機関의 委員이나 혹은 中央委員会의 秘書局의 비서의 職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 委員들은 극소수이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는 12명의 委員들이 있고, 후보위원은 6명, 그리고 秘書局 秘書는 14명이다. 中央委員会 秘書가운데 6명은 상임위원회 委員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委員과 秘書局 秘書들을 모두 합치면 이들 두 職責을 兼職하고 있는 6명을 감안해 볼 때에 우리는 소련의 最高権力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26명이라는 사실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 이들이야 말로 사실상의 소련政権인 것이다. 26명 対 2億2千万명이라는 이들 2個의 数

的対比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련정권의 寡頭独裁政治的 性格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들 26명의 政治指導者들이 各者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애쓴다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와 秘書局에서 進行된 討論内容에 관한 記録은 비록 그러한 討論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発表된 일은 없었다.

党 最高位指導部는 相互間 密接히 연결되어 있고 그 集団 가운데 第1人者인 党 第1書記의 指導아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적어도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이것은 사실이다. 역시 党中央委員会 書記長이었던 「스탈린」은 1人統治를 실시했으며 党의 最高位幹部들을 包含한 万人에게 무조건 복종을 기대했었다. 현재 26명으로 構成되어 있는 이 最高指導部는 国内外 政策을 包含한 소련의 모든 国家政策을 樹立할 수 있는 権限을 가지고 있는 소련内의 唯一無二한 集団이다. 政策이 일단 樹立된 다음 段階는 実行뿐인 것이다. 그 実行機関들은 党官僚, 党員, 国家行政機関, 国家安保機構, 軍部, 経済界幹部 및 기타 등등이다. 이러한 모든 政策遂行機関들은 各機関내에 設置되어 있는 党細胞組織을 통해서 면밀한 감시를 받는다. 따라서 党政策의 実行与否는 소련国民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協議를 받는 것이 아니라 党의 指示에 복종하도록만 되어 있는 소련国民들을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左右되는 것이다.

党의 政策을 遂行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에 적합한 法律의 発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소련最高会議(Supreme Soviet)로 호칭되고 있는 立法機関은 어떤 反対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特性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련選挙制度를 훑어 볼 필요가 있다. 4年마다 한번씩 選出되는 소련最高会議의 경우 「갤럽」輿論調査와 같은 어떤 輿論調査의 도움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選挙結果는 1年前에 미리 수학적인 正確性에 못지 않게 予測할 수가 있다. 소련最高会議의 選挙制度는

놀랄만치 간단한 것이다. 党은 各選挙区마다 競争相対者가 없는 単一立候補者를 추천하게 되며, 이 候補者의 名単만이 投票用紙에 印刷된다. 有権者들은 投票所에서 이 投票用紙에 捺印만 하면 되는 것이다. 理論的으로 볼 때에 有権者들은 이 投票用紙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無効票로 만들거나 또는 기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総有権者의 99% 以上이 投票에 参加하고 総投票者 数의 99% 이상이 이 単一候補者에 投票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련最高会議의 立候補者는 그가 候補者로 지명되어 投票가 실시되는 바로 그날에 이미 자기가 当選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는 또한 그가 党의 추천으로 立候補者가 되었다는 것과 有権者들의 反対投票로 그가 언제라도 候補資格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党은 代議員들 자신의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代議員들로부터 거의 만장일치의 支持를 받는다. 代議員들은 党의 자유재량에 따라서 그들의 権限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실정의 영향은 즉각 나타나게 마련이다. 소련最高会議의 代議員들은 거의 대다수가 입을 여는 일이 별로 없다. 그들은 党이 제안한 案件에 대해서는 절대로 反対하는 일이 없으며 만장일치의 挙手로서 案件을 処理한다. 記録上으로 남은 代議員들의 모든 投票는 항상 만장일치였다. 단하나의 例外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소련憲法 第30条는 最高会議가 소련의 最高国家権力機関이라고 記録하고 있으나 소련共産党은 이 最高会議에 대해 外観上으로 나마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美国議会가 매년 山積한 議案들을 処理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와 비유해 볼때에 소련最高会議가 항상 会議를 열어도 그들에게 부과된 모든 임무를 제 期間内에 도저히 다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国家形態는 소련연방제이지마는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権力이 中央政府에 集結되어 있는 高度의 中央集権的 国家이다. 国家経済는 完全히

社会主義化 되어 있다. 소련에는 個人企業体라곤 존재치 않으며 国家予算은 強化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国家予算은 聯邦予算뿐만 아니라 各연방공화국과 지방의 予算도 包含하고 있다.

모든 社会生活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組織化 되어 있다. 이러한 結果로 수많은 法과 規制가 必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法과 規制를 党의 政策変化에 알맞도록 수시로 改正해야 할 필요성에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最高会議는 1年에 두번 会議를 소집하는데다가 한번 소집되는 会議期間도 약 1週日 정도 밖에 안되는 짧은 期間이다. 그렇다면 합계 2週日이라는 짧은 期間동안에 그해에 処理해야 할 案件들을 어떻게 모두 소화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점에 관해서는 한가지 설명을 상상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組織的인 反対가 存在할 수 없다는 것, 간단하고 말썽없는 討論, 그리고 모든 政府法案과 政策에 대한 절대적인 만장일치제도 등이 그것이다.

또 한가지 理由는 소련의 진정한 立法機関은 고작 数件의 法律밖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最高会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소련의 진정한 立法機関이란 소련最高会議 幹部会議로서 이것은 党中央委員会 소속의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것이다. 소련最高会議의 総 1千5百名 代議員들 가운데 이 幹部会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33名에 불과하다. 이 幹部会議의 委員들은 중견党員들이다. 信任이 두터운 이들 33名의 最高位党員들로 구성된 이 最高会議幹部会議는 共産党指導部의 特別組織体이다.

最高会議 幹部会議는 두가지 機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소련国家組織의 頂上인 동시에 소련国家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立法機関이다. 幹部会議는 法的効力을 가지고 있는 布告令을 発動시킬 수 있는 憲法的 権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布告令들은 最高会議가 다음 会期때 一括的으로 承認하면 되는 것이다. 이 布告令에 대한 承認은 討論같은 것은 거치지도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해마다 発表되는 布告令의 수는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最高会議가 長期間동안 会議를 열 必要가 없

는 이유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行政執行上의 最高権限은 閣僚会議에 부여되어 있다. 상당수의 閣僚들로 구성된 閣僚会議는 거의 全員이 党中央委員会 委員職을 兼任하고 있다. 閣僚会議 議長은 最高統治者가 兼任하며 4名의 副議長들은 党의 最高位幹部들 가운데서 선발된다. 이 閣僚会議도 党이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特別組織体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共産党의 高位指導層이 全閣僚職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国家行政機関의 組織을 차례로 検討해 내려가 보더라도 党員들의 침투상에 관해서 꼭같은 현상을 発見하게 된다. 組織体의 位置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組織体를 구성하고 있는 党員들의 数的 比率도 높으며, 특히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組織体内에서 차지하고 있는 地位이다. 그 한 例로서 最高会議의 代議員 가운데 75%가 共産党員이며 要職은 모두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中小都市의 市委員会 水準에서는 공산당 출신 代議員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政治的인 影響面에서는 党員의 比率에 상관없이 그 영향력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이다. 党憲 第67条는 国家行政構関내에서 선거에 의한 직책이나 또는 행정집행직책을 가지고 있는 党員들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集団을 構成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各集団들은 그들이 参加하고 있는 「소비에트」나 혹은 기타 다른 国家機関内에서의 活動에 対해서 党에 責任을 지게 된다. 이 集団들은 党의 政策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方法으로 소속 機関의 活動을 指導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集団들은 党의 指令을 非党員인 職場同僚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이 指令을 만장일치의 承認을 통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通路役割을 하는 것이다.

모든 国家機関은 이러한 党員集団의 先導的 活動을 통해서만 행동할 수가 있다. 그 수법은 단순하면서도 効果的이다.

이러한 集団들은 또한 이른바 一般社会団体内에서도 活動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地方労組団体의 会員으로서 共産党員인 者들은 그들끼리 集団을 구성하여 소속 労組의 業務를 지도하는 동시에 그 労組가 党의 指示에 따르도록 감독해야만 하는 것이다.

党의 指令을 社会団体가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団体内에 党組織体가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만이 유일한 理由는 아니다. 또 한가지 理由는 各社会活動分野마다 단 하나의 団体만이 許容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団体以外에는 어떤 競争団体의 存在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련法律에 의하면 어떤 社会団体이건 国家行政機関의 許可를 받아야만 合法化 될 수 있으며 이 許可는 法院의 判決없이도 언제나 취소가 可能하다. 各社会団体는 党의 자유재량에 따라서만 存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상 各社会団体는 그 해당 分野마다 独占的 地位를 누리고 있다. 党의 政策을 実践에 옮기는데 있어서 그 窮極的인 成功与否는 一般国民들의 政治的 忠誠心과 労動生産性에 의해서 左右된다. 이러한 忠誠心은 어떤 組織的 反対도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情報 및 教育手段은 党이 独占的으로 支配하고 있다는 것, 소련政権에 대한 모든 不当 行為에 대해서는 厳格한 刑罰을 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広範囲한 国家治安 維持網과 党員들의 厳格한 감시 및 法院의 順従 등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진정한 問題点은 政治的 忠誠心이 아니라 소련国民들의 労動生産性과 一般的 態度에 있다. 党은 組織的인 社会的 圧力을 利用하여 그들이 바라는 성과를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러한 社会的 圧力에 관한 한가지 実例가 바로 同種 産業内의 企業体들과 同一工場内의 各部署들, 그리고 各個人労動者들로 하여금 自意이든 他意이든 간에 参与하도록 하는 이른바 社会主義式 競争方法이다. 그들은 計劃量生産을 超過達成하는 한편 生産費節減을 위해서 서로 競争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例는 같은 職場内의 同僚들이나, 또는 같은 「아파트」나 같은 동네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人民裁判制度이다. 만일에 어떤 소련市民이 술주정뱅이거나, 또는 공원이나 거리에서 公衆道德을 무시하는 사람이

거나, 게으름뱅이로서 수차 規則을 위반한 사람, 家族을 등한히 하는 사람, 동네에서 귀찮은 存在, 혹은 犯罪行為가 아닌 비행을 수차 저지른 사람과 같은 여러가지 경우에 그런 사람은 人民裁判의 公開場所에 끌려나가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党은 모든 新聞과 定期刊行物, 印刷所, 「라디오」 및 「텔레비전」 放送局, 일반강습소 및 学校 등 一切의 機関들을 統轄한다. 모든 「매스·메디아」들은 党이 바라는 世界像을 樹立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体制가 完全히 効果的일 수 있을까? 그러나 소련의 現実은 党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련農民들이 集団作業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소련新聞들을 一見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正直하지 못한 労動者들이 많이 있으며 国家行政官僚나 企業体의 幹部들 가운데 「알콜」에 빠지고, 国家를 기만하며, 뇌물을 받는 자들도 자주 눈에 뜨인다. 소련이라는 나라에는 「알콜」중독과 少年犯罪가 충만해 있고 一般的인 犯罪行為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소련의 男女들은 새로운 人間型이고 社会主義 政権의 崇高한 産物이라는 소련共産党의 자랑스러운 主張에도 불구하고 소련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不完全한 人間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소련共産党은 또한 소련国民들은 党의 指導者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国民들의 실제행동은 그와같은 共産党의 패기만간한 주장과는 일치되고 있지 않다. 소련国民들은 党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그들이 그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党이 싫어하는 方法으로 行動하는 수가 더러 있다. 소련 国民들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무슨 秘密을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르시쵸프」나 또는 그밖의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 소련経済의 背景 (프로그램 No. 28)

* 「서 한」 박 사

소련 経済 問題에 関한 検討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은 지금 餘他 共産国家에게는 経済的 競争에 있어서의 모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련이 가지는 매력은 先進 工業国家들 보다는 세계의 未開発国家들에게 호소력이 강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붉은 군대에 짓밟힌 몇몇 東欧羅巴 위성국가들을 除外하고서는 공업화된 국가로서 공산주의를 지금까지 採択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未開発 国家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는 사회적 및 경제적 혁명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진정한 性格이 잘 이해가 되고 있지 않으며 더우기 그것이 또 経済成長의 빠른 속도를 達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点도 잘 이해가 되고 있지 않다.

세계의 未開発 国家들은 経済的으로 他国을 따라 가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生活水準과 生活安定이 先進国의 그것과는 큰 差異가 있기 때문이다. 소련은 공산주의 経済制度가 組織 및 成長面에 있어서 기적을 성취한다는 인상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全世界에 펴지게 하는데에 成功하였다.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가를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알아야 하고 또 世界 全体가 알아야 한다.

1913년 바로 직전에 「러시아」는 이미 어느정도 工業化되어 있어서 如何한 経済制度 밑에서도 急速한 経済発展을 이룩할 수 있는 準備가

---

* Ewing P. Shahan : 「벤더빌트」大学 経済学 教授
「콜럼비아」大学 Ph.D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研究所」所長

되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이 特定한 経済 段階에 있어서 「러시아」는 또한 全面的인 経済 및 社会革命을 할 段階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国家였다는 事実에 특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주의는 그곳에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며, 「러시아」는 사실상 그 이상의 急速한 工業化를 이룩할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革命의 前提条件으로서 꼭 필요한 存在라고 「마르크스」가 主張한 「프롤레타리아」계급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르크스」主義는 마침내 「러시아」를 支配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러시아」에는 全面的인 革命에의 素地가 무르익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条件이 두개의 본래의 서로 맞지 않는 要素들을 결합시킬 수 있었으며 이 결합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을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는 첫째로 今世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存在한 経済組織의 形態를 이해해야 한다. 이와같이 発展이 늦은 나라는 구라파 어디서도 볼 수 없다. 「러시아」는 歴史的으로 우리가 아시아적 社会라고 부르는 社会를 代表한다. 이것은 法律, 経済, 政治, 軍事, 宗教의 모든 権力과 모든 組織이 문자 그대로 모든 権力의 中心이 되는 皇帝, 즉 国家元首에게 集中 依存되어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1861년 「러시아」에 있어서의 농노해방의 전야까지 皇帝는 「러시아」全土地의 67.6%를 所有하고 있었다. 우리는 当時의 「러시아」가 주로 농민에게 依存된 農業社会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経済力의 集中인가를 理解할 수 있다. 그 나머지 土地 중에서 貴族이 30.6%, 그리고 其他가 1.8%를 所有하고 있었다. 貴族들은 皇帝와 提携되어 完全히 皇帝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두가지 계급으로 構成된 社会로서 한편에 皇帝와 貴族들이 人口의 1%에 不過하면서 그 土地의 98%를 所有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人口의 98%를 훨씬 넘는 農民의 두 계급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其他의 계급을 든다면 군대가 「짜르」政権의 一部로써 経済的 支援을 「짜르」에게 依存하고 있었고,

교회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 이었다. 교회의 所有 土地들은 1764 년에 皇帝에 의하여 접수되어 버렸고 따라서 성직자들은 経済的으로 특권계급이 못되었다. 사실상 교회는 政府의 一部로서 政府 当局에 의해서 組織되었다. 1860 년의 「부르조아지」는 상인들로 構成되었고 그 중에는 몇몇 大商人도 있었지만 社会的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 상업 계급의 대부분은 零細商人들과 商人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에 存在하였던 「짜르」에의 놀라운 権力 및 統治権의 集中이라는 問題는 오늘날 「러시아」国民이 왜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는 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点인 것이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짜르」皇帝가 支配하는 「러시아」社会는 経済的으로 重大한 不況状態를 보이기 始作하였으며, 따라서 「러시아」政府는 세계의 다른 地域에서 進行되고 있는 것과 같은 技術的 発展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対策을 樹立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있어서도 「러시아」에 있어서의 농노제도는 아직도 원시적인 制度였다. 地主는 농노의 몸둥아리까지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으며 아무런 보수없이 그들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었다. 농노는 아무런 보수없이 그의 시간의 거의 반을 地主의 땅에서 일해야 했고, 아니면 그 대신에 免疫地代를 支払해야 하였다. 大地主의 農地独占과 農民에 대한 수탈때문에 농업에 있어서의 技術的인 発展은 있을 수 없었다.

농노들은 財産을 所有할 権利가 없었지만, 不法的으로 어떤 농노들은 새로운 形態의 農業을 発展시키며 다른 농노들의 所有主가 되었는데 이것은 後에 「스탈린」에게 크게 고통을 준 小農의 全身이다. 이 制度의 어려움은 간단한 통계로서 証明될 수 있다. 즉 19세기 중엽의 해방 전야의 구라파쪽 「러시아」에 있는 貴族들이 所有한 土地의 40%와 또 個人所有의 男子 農奴들의 70%가 皇帝의 신용제도에 저당되었었다. 同時에 18세기말에는 「짜르」皇帝의 指導下에 「러시아」는 그 時代의 다른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工業化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経済 및 社会制度는 19세기의 西欧와 美国에서 처럼 工業의 発展에 適応될 수 없었다. 따라서 19세기에는 특히 1861년 농노해방을 頂点으로 制度의 崩壊와 改革들이 있었다.

1861년 以前의 工業은 특히 자유로운 労動力 供給의 不足때문에 지장을 받았으나 그래도 농노제도를 공업에까지 拡張함으로써 發展할 수 있었다. 많은 皇室 所有의 農奴들이 工場労動에 割当되었고 또 個人 工場主들은 이 目的을 위하여 農奴들을 살 수가 있었다. 1861년「러시아」에는 약 5십만명의 工場労動者들이 있었는데 이때 美国에는 약 2백만명의 工場 労動者들이 있었다. 아마 이중의 반은 工場에 割当된 농노들이라기 보다 자유롭게 雇傭된 労動者들이었으나 그중의 거의 全部가 그들의 賃金으로 부터 免疫地代를 支払하는 농민들 이었다.

농노해방은 貴族들을 약화시키고 「부르죠아지」를 강화하고 또 工業 및 商業階級으로 하여금 「러시아」歴史上 처음으로 急速하게 発展할 수 있게 한 長期的인 影響을 가져왔다. 농노해방은 貴族으로 부터 그들 土地의 약 3분의 1과 그리고 그들의 농노 労動力의 全部를 빼앗았다. 時間이 経過함에 따라 어느 정도는 그들 自身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貴族들은 그들의 土地 대신에 받은 政府의 公債를 팔아야 하였고 또 이 공채 매매의 圧力으로 이 公債들은 가끔 시장 평가의 30%밖에 価値가 없었다. 이와같이 하여 貴族들은 그들의 土地를 또한 팔지 않을 수 없었다. 1877년에 이르러서 그들은 1861년에 그들이 所有했던 土地의 13%를 팔아버렸고 또 1916년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59%에 이르렀다. 이 土地와 公債들을 산 사람들은 大部分 「부르죠아」農民層을 包含한 신흥 「부르죠아」였다. 농노해방으로 부터 결과한 증대된 労動力의 供給으로 인하여 工業과 商業이 상당히 成長되었다. 「부르죠아지」는 또한 새로운 사회신분을 獲得하였다. 工業化는 1870년대와 80년대에 급진적으로 発展되었다가 90년대와 20세기 초의 불안한 기간에 저조했는데 다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農村에서는 土地整理 및 土地의 사유지화 운동이 드디어 農民들 사이에 発展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政府의 農業改革에 따라 第1次 世界大戦 直前에 急速度로 発展하였다. 1913년에는 「러시아」 農民들의 약 4분의 1이 그들의 所有地를 統合整理하고 또 그 이상의 統合整理에 대한 많은 支援이 계류 중에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혁명 전야에는 어느 정도의 統合된 土地를 所有한 부유한 農民層이 생겼지만 물론 土地없이 雇傭되어 일하는 農民들의 数가 훨씬 더 많았다.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者들과 集産主義者들 및 그들의 後継者들 간의 論争이 그 절정에 달한 것은 1890년대였다. 「레닌」의 最初의 大著 즉, <「러시아」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発展>(이 책은 1890년대 후기에 나왔다)은 이 問題를 다룬 것이다. 그것은 資本主義와 「프롤레타리아」가 「러시아」에서 顕著하게 発展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마르크스」主義의 立場을 이 나라에 適用할 수 있다는 것을 証明하려는 試図에서 발간되었다.

1913년에 「러시아」는 健全한 화폐를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銀行制度를 発展시켰으며, 또 상당한 철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철도망의 총 길이는 약 4만7천 마일로써 그 당시 英国의 2만5천마일과 비슷하다지만 美国의 2십4만마일과는 比較가 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약 2백5십만명의 工場 労動者를 가지고 있었는데 1913년 美国에는 약 8백만명의 工場 労動者가 있었다. 「러시아」의 人口는 1次大戦 直前에 1억4천2백5십만이었는데 美国은 약 9천2백만 이었다. 「러시아」는 世界의 大工業国家 중의 하나로써 대체로 7위 또는 8위에 위치해 있었고 면직물에 있어서는 世界 第 4위였고 석유에 있어서는 2위였다.

이러한 숫자들로 미루어 볼때, 우리들은 다른 「유럽」国家들이 훨씬 전에 発展시켰고 또 「케렌스키」政府가 「볼셰비키」党에 政権을 빼앗기기 전에 시작한 것 같은 그러한 立憲的 君主国을 「러시아」가 쉽게 発展시

킬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急速한 経済発展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 토대는 「러시아」를 하나의 모범으로서 간주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많은 未開発 国家들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더 적절한 토대이었다. 이와같은 보편적인 표현이 합당할는지는 모르겠으나 第一次 世界大戦 後의 「러시아」는 如何한 経済組織下에서도 急速한 経済的 発展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마도 우리가 항상 意識하고 있지 않는 가장 주목할 만한 오늘날의 소련 経済의 理念的인 背景에 関한 要素는 「마르크스」, 「엥겔스」 및 「레닌」이 発展시킨 共産主義 理念은 経済組織에 対해서는 아무런 적극적인 理論도 包含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社会에 適用되어 왔다고 보는 歴史의 法則들을 発展시키는데 흥미를 가졌다. 「레닌」은 이 作業을 더욱 拡張시키면서 革命을 일으키는 手段을 가지려고 애썼다.

共産主義者들이 「러시아」의 政権을 掌握했을 때 그들은 充分한 経済計劃이나 其他의 아무런 計劃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共産主義者가 일단 政権을 잡기만 하면 共産主義 政府의 経済政策을 決定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가지의 理念的 目標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레닌」의 理論이 要求하는 것은 첫째로 당장 필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권력의 구축인 것이다. 共産主義 政府로서는 그 社会속에 政府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아무런 勢力도 存在하지 않을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두려워 할 勢力은 아마도 経済的인 勢力일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 재벌도 政府로 부터 独立的으로 存在할 수 없게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財産은 그들에게 대항하는 反対勢力을 経済的으로 도와 줄 수 있는 手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理由에서 共産主義 政府는 중요한 모든 資源을 접수하고 처리하여 可能한 限 빨리 完全한 社会主義를 確立하는 것이다.

共産主義 政府가 그 権力을 構築한 다음에 追求하는 둘째 目標는 그 社会의 生産能力을 拡張하는 일이다. 「프롤레타리아」独裁의 理論은 그것이 「부르죠아」階級이 없이도, 또 立憲的 民主主義와 같은 制度가 없이도 資本主義라는 歴史的 段階가 주었던 그러한 恵沢을 社会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可能한 限 生産을 増大하려는 것이 모든 共産主義 政府의 원래의 目標이다. 위에서 말한 바 첫째 目標가 요구하는 完全한 社会主義가 오게 되면 그때에는 이와같은 것은 中央政府의 계획과 組織으로서만 達成될 것이다.

세째 目標는 社会의 「부르죠아」分子들을 소탕하여 人民들을 理念的으로 再教育하는 것을 完遂하는 것이며, 또 네째 즉 최후의 目標는 「마르크스」의 哲学에 입각하여 人間을 다시 창조하는 일이다. 이 마지막 두 가지는(비록 세째번 것이 共産党에 대한 反対党의 勢力을 분쇄하는 데에 당장 필요한 것이겠지만) 長期的인 政策이 된다.

共産主義 政府의 経済政策을 돕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理念上의 요인들이 있다. 물론 生産手段을 国有化하는 表面上의 理由中의 하나는 資本主義者들로 부터 生産施設을 빼앗고 이리하여 그들이 主張하는 착취나 소외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哲学的 및 経済的 입장이요 따라서 実際的인 큰 結果를 가져오는 것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共産主義 政府들은 당장 그들의 労動力에 대한 가장 집중적인 착취를 始作하기 때문이다. 共産主義 政府들이 生産施設을 접수하는 것은 빠른 時間内에 大衆의 수입을 均等하게 하려거나 生活水準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며, 共産主義者들은 항상 그들의 根本的인 目標를 推進하기 위해서 얼마동안 生活水準을 희생시키겠다는 말을 해왔다. 우리는 「쿠바」나 中共의 경우에서 그들이 겪은 困難과 낮은 生活水準에 対해서 알고 있다. 1930년대 「스탈린」時代의 소련의 경우를 보면, 国民의 生活水準은 第一次 世界大戦 直前水準의 半도 이르지 못했으며 일반 소련 国民들은 1953년까지 「짜르」황제時代의 生活水準을 능가할 수 없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봉사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사상에서 表現된 「유토피아」적인 배급이론을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먼 훗날의 共産主義 社会에서만 適用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現在의 「프롤레타리아」社会에서는 그 理論은 각자의 생산 결과에 따라 각자는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主義 経済理論은 共産主義 経済政策, 특히 労動価値說과 地代論을 많이 취급하여 왔다.

다음 「소비에트」経済制度의 地理的 背景에 関해서 살펴본다면 「소비에트」経済의 資源的 기초는 우수하여 美国의 그것과 比較할 만하다. 더우기 農業分野에서 그러하다. 소련은 광대한 나라로서 8백 5십만 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대륙은 「알라스카」를 除外하고 3백만 평방마일에 이르고 있으므로 북아메리카 大陸 全体의 크기와 소련의 영토가 그 크기가 비슷할 것이다.

地理的인 面에서 소련을 理解하려면 그것을 東으로 부터 西로 세 부분, 또 北으로 부터 南으로 세가지 지대로 나누어 보는 것이 便利하다고 생각한다.

東쪽의 제1지대는 광대한 주로 未開発 地帯이며, 東部 「시베리아」의 높은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다. 다음은 東部와 中央「시베리아」고원지대이다. 西쪽으로 나가면서 이 지대의 끝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시베리아」 횡단거리의 半 내지 3분의 2 사이에 있게 된다. 구라파쪽 「러시아」 全体 및 西部「시베리아」를 包含하여 나머지 「러시아」는 「우랄」산맥에 의해서만 가로 막혀지는 광대한 평야이다. 이 「우랄」산맥은 낮은 산악지대이며 최고봉이 해발 2천 내지 3천피트에 不過하며 통행이 빈번하다. 이것은 北部 및 西部 「유럽」에 까지 이르러 나중에는 「프랑스」와 「스페인」사이에 있는 「피레네」산맥에 의하여 끝나는 大平原이다. 소련国民의 거의 全部가 이 평원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자연적인 방어적 위치를

겸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왜 「러시아」가 歷史的으로 각 방면에서의 침략을 받아 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또 15세기에 「이반」大帝가 근대 「러시아」의 기초를 닦은 이래 「러시아」国民이 지녀왔던 그런 극히 中央集權化된 軍事的 政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北으로부터 南으로의 세 가지 地理的 区分에 대해서 말하면, 첫째 것이 「쑨드라」, 즉 「러시아」의 영원히 동결된 부분이요, 다음은 광대한 주로 침엽수림 지대이며 이것은 「레닌그라드」로 부터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으며 南쪽으로 向하면서 땅은 점점 말라가서 이 「스텝」지방의 南部는 美国의 南西部의 일부분처럼 주로 사막으로 되어 있다.

「러시아」의 地下資源은 아마도 美国보다 더 多様性이 있겠지만 대체로 그 정도는 높지 못할 것이다. (비록 「러시아」가 美国처럼 完全히 開発되어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木材資源은 광대한 森林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무진장이지만 단단한 재목은 부족하다. 「러시아」의 水力資源은 世界에서 가장 豊富하며 그 大部分이 먼 「시베리아」고원지대의 큰 강들에 集中되어 있다. 「러시아」의 石炭과 石油資源은 아마도 美国만큼 많지 않지만 그러나 豊富하다. 우리는 누구나 「러시아」가 따뜻한 기후의 항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또 나라가 크기 때문에 자연 자원을 利用하는 데에 比較的 輸送費가 비싸게 먹힌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과거 「러시아」가 이 問題에 있어서 경험한 困難은 그 거리로 인한 것 보다도 오히려 工業施設의 졸렬한 配置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제 농업에 관해서 살펴보면 그 資源의 기조에 관한 한 농업이 「소비에트」経済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大部分은 유용한 農業을 위해서는 너무 춥고 산이 너무 많고 너무 건조하다. 여기서는 東部 산악지대, 「시베리아」고원, 全体 「쑨드라」지대 그리고 南쪽의 사막지대는 除外한다. 農業은 구라파쪽 평원과 서부 「시베리아」와 개간된 남부 삼림지대 그리고 건조기에 들어가기 前의 북부 초원지대에서 경작될 수 있다. 지리학자들은

「러시아」에 농업 삼각형을 그려 가지고 그 저변은 「레닌그라드」로 부터 서쪽에서는 「오뎃사」로 뻗어나가게 하고 그 정점은 中央「시베리아」의 「바이칼」호의 서쪽 산들에 두고 있다. 이 삼각형은 대서양쪽으로 부터의 습기 많은 지대로 形成되는데 이것은 구라파쪽 「러시아」의 넓은 地域을 「커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시베리아」「스텝」을 하여 점점 가늘어 지면서 비옥한 땅줄기를 形成하는데 이 땅줄기를 통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놓여 있다. 이 농업 삼각형은 그 크기에 있어서 약 1백만 평방마일이며 그 속에 「소비에트」의 모든 농장들과 그 인구의 90%가 살고 있다. 또 중요한 석탄, 철, 석유자원까지도 구라파쪽의 이 삼각형 안과 「우랄」산맥 주위에 있다. 아직까지 明白히 成功하지 못한 「후르시쵸프」의 処女地 計劃은 이 삼각형을 뚫고 「시베리아」지대의 北쪽과 南쪽으로 向하려는 기도인데, 이 地域들은 사실상 그 토질과 경작조건이 농업에는 부적합하게 너무 건조한 것이다. 소련의 사실상의 住居可能地域인 이 三角形 地域도 그 土質과 耕作条件은 美国보다 훨씬 빈약하다. 「러시아」에는 美国의 中西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자연적으로 비옥한 땅은 없는 것이다. 이 삼각형의 大部分의 땅에 있어서도 美国의 水準으로서는 너무 말랐거나 너무 추운지역에서 農業을 하고 있다. 南部地方 「러시아」 사람들은 12인치의 우량을 가지고 정식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반면 美国에서는 20인치 이하의 우량을 가지고는 정식으로 농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을 수 없을 만큼 건조한 농업조건 때문에, 보통 「소비에트」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는 南部 「우크라이나」地方은 歴史上 가장 큰 기근을 맛볼 것이다. 모자라는 강우량 때문에 처녀지 계획은 장래를 알 수 없는 계획이 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짧은 성장기간을 갖고 있는(大洋의 완화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는) 北国이다.

우리는 「레닌그라드」가 남부 「알라스카」와 같은 위도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스크바」는 美国의 「허드슨」만의 南쪽 끝의 북위쪽 반대편에 있고, 또 소련에 있어서는 멀리 남쪽에 위치한 흑해는 북쪽과 남쪽에 있어서 대략 美国의 「휴론」호수와 같은 위치에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의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사막의 가장 남쪽에의 부분은 대략 美国의 「북 캐롤라이나」와 「테네시」의 반대편에 있다. 이와같이 「러시아」의 農業은 기껏해야 美国보다는 南部 「카나다」에 있어서의 農業과 같은 条件에서 이루어 지지만 그 雨量과 土質에 있어서는 「카나다」보다도 못하다.

이러한 地理的 考察을 통해서 소련의 農業은 앞으로의 소련의 経済問題에 있어서 치명적인 「아키레스의 腱」이라는 事實을 알 수 있다.

3. 소련의 經濟構造 (프로그램 No. 29)

* 「서 한」 博 士

소련經濟의 構造와 組織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共産主義「이데올로기」의 몇가지 局面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련經濟와 自由主義 經濟의 根本的인 差異点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소련經濟는 社会主義的 經濟라는 点이다. 社会主義라는 말은 多意的인 意味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使用하는 데에는 慎重을 期하지 않으면 안된다. 歷史的으로 말해서 社会主義는 항상 세가지 主要 公共經濟政策을 표방해 왔는 바, 그 첫째는 최소한 가장 重要한 主된 生産施設의 政府所有와 管理, 둘째는 政府가 基本的인 經濟目標와 目的을 設定할 만큼 經濟計劃 및 指導를 주도하는것, 세째는 보다 平等한 所得과 富의 分配이다. 소련의 社会主義는 이상 세가지 가운데 첫 두가지에 關해서는 거의 100% 完遂했으나 세번째 것에 관해서는 뒤에 論述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으며 또 계획되고 있는 바도 전혀 없다.

그런데 社会主義와 共産主義를 区別하는 것이 극히 重要하다. 社会主義는 주로 經濟体制인데 반해 共産主義는 어느 정도 宗教에 比較될 수 있는 総体的 「이데올로기」로서 党의 政治的 至上權力으로 인한 완벽한 社会主義를 요구한다. 그러나 社会主義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반드시 共産主義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事実 共産主義는 一般的으로, 共産主義的「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또 共産党이 社会主義 政党과 戰略上 一時的 提携나 연합을 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共産党의 支配도 받지 않는

---

* Ewing P. Shahan : 「벤더빌트」大学 經濟学教授
「콜럼비아」大学 Ph.D.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 研究所」所長

社会主義와는 극히 相反되는 形態를 지니고 있다. 共産主義者의 立場에서 볼 때 社会主義는 共産主義者들이 바라는 모든 「부르죠아」階級과 民主主義制度의 철저한 粉砕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共産主義와 社会主義의 差異点을 理解함이 중요하다. 共産主義가 이러하므로 우리는 全世界的으로 共産主義에 反対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共産主義와 社会主義를 크게 混同하여 全世界에 걸쳐 社会主義에 대해서 마져 反対하려 든다면 이는 우리의 主義主張을 弱化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社会主義는 好戰的이고 무자비한 운동은 아니다. 共産主義「이데올로기」아래서 存続하고 있는 社会主義의 한 分派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主義 経済学의 特性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共産主義 社会에 있어서는 生産施設의 完全国有化를 実現하는 것이 党의 政治的 必要性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公言된 理由의 하나는 資本家 階級으로 부터 生産手段을 奪取하여 理論的으로 「마르크스」主義的 意味에 있어서의 搾取를 根絶하는데 있다는 것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는 哲学的이며 同時에 経済学的 입장이기는 하나 어떤 実際的인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周知하는 바와 같이 모든 共産主義 政権은 그들이 確固한 토대를 다듬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즉시 搾取라는 말의 日常的인 意味 이상으로 労動力의 광범한 搾取에 나서기 때문이다.

「마르크스」主義의 労動価値説과 地代論은 또한 共産主義 経済政策에 많은 影響을 끼쳤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商品의 価値는 全的으로 그에 投入된 労動時間의 量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資本財는 단순히 商品을 生産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노고에 대하여 支払되는 固定労動力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같은 立場에 立脚하여 소련에서는 資本이 無利子로 国営企業에 提供되고 있다. 더구나 소련에서는 個人은 어느 누구도 그의 生産物을 販売할 目的으로 他人을 雇傭하는 것이 許容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를 「마르크스」主義者의

観点에서 볼 때 他人의 労動力으로 剰餘価値를 거두어 들이는 搾取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個人이 보다 높은 価格으로 팔아먹기 위하여 財貨를 買入한다는 것은 不法이다. 理論的으로 보아 그는 이같은 行為를 通해 얻게 될 利得을 正当化 시킬 수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의 歪曲된 教理에 따르면 国家가 国民의 一部에 대하여 이같은 行為를 하는 것은 全的으로 合法的이다. 또한「마르크스」主義 理論 分析에 依하면 共産主義 政権은 素朴한 未熟練労動으로 賃金体系를 設定하고 또 未熟練労動賃金率을 多様化함으로써 熟練労動賃金을 決定하는 基礎로 간주하려고 한다. 이는 결국 조잡하고 伸縮性없는 賃金体系를 招来하게 된다. 끝으로 「마르크스」가 대체로 古典主義 経済学者들로 부터 빌려온 「마르크스」主義의 地代論에 따르면 土地는 自然의 下賜物이며 따라서 未開墾土地의 単純한 所有로 인해서 얻게 되는 地代는 불명예스러운 보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련에서는 모든 土地는 国家에 의해 所有되며 土地使用에 対해서도 地代가 賦課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소련経済의 具体的인 構造와 政策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소련의 経済組織의 形態를 考察할 필요가 있다. 소련의 経済組織은 国営企業, 協同組合 및 一人企業의 세가지 形態를 갖고 있다. 国営企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国家가 직접 所有하여 管理하는 企業이다. 法律的인 형식에서 볼 때 組合은 이에 加入한 労動者들의 所有이다. 労動者들은 그들의 会費가 그 組合 資本金의 一部가 되기 때문에 組合員의 資格을 얻기 위해서는 組合費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労動者들은 理論上으로 組合의 経営者를 選出하며 이윤을 나누어 갖는 権利와, 損失을 分担하는 義務를 진다. 組合은 完全한 国有化에 있어서의 重要한 公式的인 例外이다. 그러면 国営企業의 所管分野는 무엇이며 組合의 所管分野는 무엇인가? 이같은 問題에 対한 가장 좋은 対答은 組合이 하는 일을 살펴보는 것이다. 集団農場 또는 法律上의 形式에 있어서의

組合은 農業生産의 약 85%를 占하고 있다. 組合은 大部分의 農村小売業을 거의 占有하고 있으며 또 採石業, 伐木業과 같은 地方 生産業을 経営하며 一部 業種과 「서비스」産業에서는 최고 50%에 이를 정도로 一部 軽製造業을 営為하고 있다.

극소수의 一人企業을 除外하고서는 모든 農場은 国家에 의해 営為되고 있다. 国家가 직접 所有하고 管理하는 分野는 交通, 通信, 金融, 「리크리에이션」, 文化, 教育, 保険, 重工業, 都売業, 都市小売業 및 大部分의 軽製造業 등이다. 「마르크스」主義 理論에 의하면 国家所有가 아니거나 組合企業에 속하지 않는 모든 企業은 모두가 一人企業이다. 一人企業은 総体的으로는 대단치는 않으나 整備産業에 있어서의 一部 「서비스」業에서 発見되고 있다. 소련経済에는 民間部門이 存在하지 않으므로 組合에 대한 確実한 理解를 갖도록 함이 필요하다. 組合이 그 商品에 매기는 価格에는 国家에 의해서 決定되는 賃金이 包含되어 있으며, 国家는 그 計劃에 組合의 生産量을 고려하고 있다. 理論上 労動者들이 行使하고 있는 経営者 選出権 역시 党이 그 結果에 관심을 갖고 党의 意思에 따라 影響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단치 않은 것이다. 이윤을 分占하고 損失을 分担하는 権利 義務도 대체로 国家가 価格과 税金을 策定하는데 따라 国家에 의해 決定되기 때문에 労動者에 対한 恵沢은 되지 못하고 있다. 労動者의 보수의 源泉에 対한 重要한 자극요인은 극히 조금밖에 存在하지 않고 있다. 사실 損失分担은 특히 集団農場의 경우에 있어서 国家가 한 企業의 生産에 대한 国家 自身의 利益을 守護하기 위해 그 構成員들에게 損失分担을 強制할 수 있는 手段이 되고 있다. 生産을 위해 필요한 資本財는 물론 최초의 運転資本을 国営企業에 대해 無利子로 提供된다. 이는 물론 国家豫算으로 부터 支給된다. 組合은 一般的으로 그 自体의 投資資金을 調達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물론 이는 国家의 規制와 監督을 받는다. 모든 組合이 国家가 優先順位를 낮게 評価하고 있는 分野에만 종사하고 있고 따라서 組合자체의

資本蓄積의 成敗는 소련政權의 無関心事가 되고 있다고 指摘하는 것은 不必要한 일일런지도 모른다. 土地에 있어서는 모든 土地가 国家에 의해 所有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一部 土地는 土地使用期間을 흔히 地代없이 無期限으로 한다는 協約에 따라 国家의 所有가 아닌 社会各機関에게로 分譲되고 있는데, 이에는 集団農場이나 다른 組合에 의해 所有되고 있는 土地, 集団農場에서의 現計劃 作物土地, 教会가 使用하는 土地 및 住居用으로 使用되는 土地가 包含되고 있다.

다음으로 巨大한 国家経済가 如何히 組織化되고 또 管理되는가 하는 두가지 根本的인 問題가 있다. 이를 理解하기 위해서 이를 하나의 방대한 組合, 즉 하나의 經営者 밑에 結合한 거대한 組織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国家가 직접 所有하는 企業의 総被雇傭人数는 勿驚 5천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単一 中央集權的 管理를 받는 組合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国家는 그밖의 다른 모든 経済部門의 活動을 計劃하고 監督한다. 国家의 직접所有를 벗어난 主要集団은 集団農場에서 労動하는 者들로 構成되고 있는 것으로, 国家에 직접 雇傭되고 있는 者들 보다는 훨씬 적은 数이지만 상당한 数에 이르고 있다.

問題가 되고 있는 組織의 規模가 아무리 크더라도 組織의 原理는 극히 보편적이다. 모든 組織의 最上部에는 일종의 理事会가 存在하고 있는데 소련의 경우, 이는 소련政府의 行政과 経済의 主要 部署를 担当하고 있는 者들로 構成되는 閣僚会議이다. 閣僚会議는 幹部会議를 갖고 있으며 이 幹部会議는 閣僚会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機能을 遂行하며 政策決定에서 극히 主導的인 役割을 한다. 이 幹部会議는 執行委員会에 어느 정도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 規模는 相異하나 약 12명의 委員으로 構成되고 있으며 또 이들 중의 약 半数는 소련에서 最高權力을 行使하고 있는 党 中央委 常任委員을 兼하고 있다. 閣僚会議와 幹部会議의 閣僚 및 委員은 소련의 經済, 政治組織의 位階를 밟아 昇進해 온 者들이다. 閣僚 아래에는 組織이 두 分野로 나누어 지는데 방대한

中央計劃 및 統計機関과 管理組織 自体의 두가지 組織으로 分割되어 있다. 組織面에 있어서 소련에서는 두가지 基本的인 形態가 使用되고 있다. 首都 「모스크바」에 있는 閣僚를 頂点으로 하여 地理的 基礎에 입각한 順序에 따라, 예컨데 地方事務所와 같은 相異한 各層의 權威体를 거쳐 소련 全国의 各 地域別 各個 工場으로 直結되는 命令系統과 各級系統에 挿入되어 그 地域의 모든 産業을 監督하는, 閣僚会議에 상당한 下級階層으로 連結되는 命令系統이 그것이다. 첫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소련이라는 하나의 巨大한 組合이 基本的으로 主務部処를 통해 中央으로 부터 直接 管理되고 있다. 둘째번 경우에 있어서는 下級組織들이 自体의 計劃機能을 갖고 있어서 소련経済는 다소 分權化되어 있다. 「스탈린」時代에 있어서는 첫번째의 中央部処의 直系組織이 圧倒的인 傾向이었으나 1950年代 末에 이르러 大幅的인 組織改編이 断行되어 下級階層의 閣僚会議에 準하는 기구에 보다 많은 重点이 두어지게 되었다.

中央部処로 부터의 이같은 權限移譲은 上記 두번째 命令系統을 따라 下部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아직도 中心部에서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計劃機関에 보다 많은 權力이 集中됨으로써 必要하게 되었고, 또 党의 權力増大에 의해 必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命令은 어느 것이든 最上層部로 부터 組織系統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各級 階層에는 計劃, 財政, 供給, 販売, 建設, 人力 및 会計 등과 같은 事務機能이 부여되어 있어 그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最終生産単位는 企業으로 불리워 지고 있으며 그 首席行政官은 管理人으로 불리우고 있다. 各企業의 管理人에게는 물론 必要한 役員이 딸려있다. 企業은 単一의 工場, 商店 또는 国営農場이 될 수도 있으며 또는 「레닌그라드」에 있는 모든 百貨店이나 一定地域에 있는 모든 採鉱業과 伐木業과 같이 한 地域에 있는 다수의 類似産業施設이 될 수도 있다. 企業은 主務部処에서 制定한 定款을 갖고 있는 法律上의 実体이며 国家로 부터 無利子로 土地와 資本을 賦与받고 있다. 企業은 自体의 債務에 対해

責任을 지며 訴訟을 提起하거나 訴訟을 당할 수도 있으며 貸借対照表와 損益計算書를 비롯한 独自的인 会計記録을 갖고 있다. 企業은 또 独自的인 生産計劃과 銀行計定을 갖고 있으며 自体의 名儀와 自由裁量에 따라 国営銀行으로 부터 運営資金을 借用한다.

두번째 系統, 즉 非管理的 系統上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必要가 있는 主機関은 2個의 방대한 統計機関과 企劃機関인데, 그 한가지 機能은 中央当局에 会計와 統計資料를 継続 供給하고 이를 分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機能은 비록 名称이 자주 変更되긴 했지만 보통 「고스플랜」 (Gosplan) 으로 알려져 있는 現行計劃의 執行을 調整하고 評価하며 새로운 計劃을 立案하는 것이다. 모든 大規模的인 組織과 마찬가지로 소련 国家経済는 統計 및 会計資料를 土台로 하여 간접적으로 管理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같은 中央企劃機関은 소련 全体経済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重要한 役割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巨大한 組織은 現代의 모든 大規模 組織과 마찬가지로 豫算方法을 土台로 하여 管理, 経営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豫算方法은 資金이 아니라 物資의 流通에 力点을 두는 傾向을 띠고 있다. 計劃된 目的을 위한 豫算期間은 종래 5個年을 網羅하고 있었다. 소련의 基本的인 決定은 이 期間을 위한 豫算目標가 사전에 反映된 5個年 計劃을 中心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5個年計劃은 延長되었다. 어느 特定 計劃期間에 있어서의 国家的 豫算의 包括的인 目標는 幹部会議 안의 最高位党職者들 自身에 의해 決定된다. 이같은 決定을 내리는데 필요한 資料를 提供하고 이같은 決定을 短期間別로 그리고 基本管理 単位別로 個個의 構成要因에 맞추어 細分化하는 過程을 監督하는 것이 中央 統計機関의 機能이다. 아마도 가장 본질적인 点은 모든 活動은 各個의 計劃에 따라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決定되는 点일 것이다. 따라서 特定한 豫算은 물론 우선순위가 높은 事業에 重点을 두어 各種目標를 達成하는데 필요한 物資와 補給이 個別企業으로 부터 흘러 나올 수 있도록

짜여지고 있다. 諸目標는 이같은 方式으로 中央当局에 의해 決定되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한 産業이 15個의 새로운 「플랜트」를 供給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를 위해 필요한 物資 調達은 各個 部処와 企業豫算에 関聯되는 全産業의 하나의 目標로써 賦課될 것이다. 소련의 全産業과 모든 優先 事業을 생각할 때 이같은 종류의 計劃은 매우 복잡한 問題가 되는 것이며 効果的인 解決策이 될 것인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모든 物資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貨幣로 代価가 支払되어야 하고 経済는 財政面에서 組織化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物量豫算外에 財政豫算이 있게 된다. 事実 소련은 優先順位가 높은 産業以外의 産業에 있어서는 그들이 願하는 바의 資源配分을 도모하기 위하여 物価를 規制할 뿐만 아니라 物資流通을 管理하고 있다. 소련에서는 労動力 配分을 指示하거나, 工場의 低優先順位 物資使用을 권장 또는 방해할 때와, 그리고 消費財를 国民에게 分配하는데 있어서 価格을 利用하고 있다.

이같은 모든 것은 우리들의 観点에서 볼 때 지극히 거치장스러우리라 생각되며 또 事実 그러하기는하나, 우리는 이같은 것이 機能을 発揮하고 있으며 또 継続 機能을 発揮하고 아마도 継続 改善되어갈 것이라는 点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欧美의 大会社들의 統計 및 豫算方法을 살펴보면 이같은 方法을 잘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政府는 다음에 열거하는 主要目的을 위해 資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소련政府는 다른 모든 国家政府와 마찬가지로 官僚体制 維持, 軍事活動과 軍事基地運用, 硏究活動, 宇宙開発과 探険 및 国際的活動을 위해 独自的인 直接経費를 調達하고 있다. 물론 소련의 경우 이같은 経費는 극히 巨額에 달하고 있으며, 国際共産主義 活動費까지 包含되고 있다.

소련政府는 또 특히 社会保障制度와 教養 및 宣伝計劃을 위해 国内経済의 많은 部門에 補助를 해주고 있는데, 소련은 자유진영국가에서는 주로 民間部門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投資資金을 独特한 方式으로 調達하고 있다. 소련政府는 投資財源을 包含한 歳入의 大部分을 直接物

品税, 間接物品税 및 資源蓄積의 微微한 要因에 지나지 않는 家計貯蓄으로 부터 거두어 들이고 있다. 아마도 総歲入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을 占하고 있는 歲入源의 主宗은 売上税, 国営企業의 利益金 및 表面上으로는 社会保障制度 目的을 위해 徵収되는 給与税의 세가지이다. 이 세가지는 모두 該当 企業의 製品 販売価格에 加算되고 있기 때문에 物品税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세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重要한 売上税는 自由世界의 物品税 또는 販売税에 該当하는 것이다. 売上税는 生産者 또는 配給業者에게 賦課되어 販売価格에 加算되고 있다. 売上税의 大部分은 商品에 賦課되고 있어 結局 消費者에게 転嫁된다. 売上税의 最大의 徵収対象은 農産物이다. 歷史的으로 소련은 集団農場에서 生産되는 農産物 価格을 극히 낮게 策定한 다음에 国営商店을 통해 農産物을 높은 価格으로 販売함으로써 高額의 売上税를 徵収하여 国庫収入의 蹉跌을 메꾸어 왔다. 그러나 最近 몇년전부터는 労動者들에게 보다 큰 자극요인을 주기 위해 集団農場에 대한 보상이 增加되고 있다. 소련에서는 投資資金이 国家豫算을 통해 放出되고 있고 売上税가 農業部門에 重課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소련에 있어서의 資本蓄積, 즉 投資資金蓄積의 大部分이 農業労動者들에게 強要되고 있어 이들이 資本蓄積의 負担을 크게 지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租税体制는 低所得層이 그들의 所得中에서 納付하지 않으면 안되는 担税比率이 高所得層에 比해 높다는 意味에서 매우 퇴보적이다. 그러나 売上税率이 必須品에 대해서보다는 사치품에 대하여 높다는 것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国営企業体의 利潤도 主要 歲入源이 되고 있다. 国営企業의 利潤은 国家에 의한 商品 買入価格과 販売価格策定의 副産物로서 留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느정도 人為的인 要因이다. 給与税는 巨額이기는 하나 반드시 社会保障制度用으로 策定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소련에서는 特定租税가 特定経費와 直結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끝으로 소련에서의 労動者의 位置에 対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労動者

는 물론 国家에 의해 策定되는 임금을 貨幣로 받고 그들의 労動力을 国家에 팔고 있다. 그러므로 労動者들은 물론 所得増大를 통해 自身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해 努力하고 있기는 하나 国家가 事実上 労動者의 生活水準을 決定해 주는 셈이 된다. 労動者는 所得과 그리고 간혹 国家에 의해 没収 당할 수도 있는 貯蓄 및 家財道具나 個人財貨 또는 一部 경우에 있어서는 家屋으로 構成되는 私有財産을 所有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集団農場의 家計는 小規模의 農耕地, 食料品, 家畜 및 약간의 農耕道具를 所有하고 있다. 私有財産은 国民의 貯蓄을 장려하기 위해 相続이라는 媒介와 貯蓄 또는 預金利子를 通해 相続될 수도 있다.

労動者들은 또 実際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制限되고 있기는 하나 食糧의 配給期間 以外에는 願하는 商品을 国営商店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全般的으로 소련에서는 自由国家内의 一般的인 見解와는 달리 労動力의 配分이 管理価格制度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労動力은 이같은 管理価格制度를 통해 直接的인 命令에 依해서만 아니라 어느 정도 自由로이 移動할 수 있다. 또 일자리를 찾아 就業하는 것은 一般的으로 各個 労動者들이 해야 할 일이며 自体의 労動力을 確保하는 것은 各 企業이 해야 할 일이다. 一般的으로 소련에는 全国的 規模의 고용 担当機関이 存在하지 않고 있다. 労動力 需給計劃은 全般的인 経済計劃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 労動力需給計劃을 위해 충당되는 労動者数는 人口成長, 特定目的을 위해 필요한 労動量, 生産性指数를 통한 이같은 労動量의 分類 등과 같은 全般的 統計数値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소련政府는 一般的으로 差等賃金, 非賃金誘因 或은 特別給与 등의 手段을 통해 政府가 願하는 部門으로 労動力을 誘致시키고 있다. 政府는 그들이 각별한 関心을 갖는 大規模 事業을 위해서는 全国的으로 労動力을 徴発한다. 또 대다수의 青年들은 職業訓練을 履修한 뒤 2년 내지 4년의 기간동안 職場에 配置한다. 強制労動収容所에 収容되어 있는 強制労動力도 있었으며, 政府는 賃金水準은 물론 労動時間까지 統制하

고 있다. 소련노동계급에게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상의 自律性이 許容되고 있기는 하나 党과 中央政府가 労動力을 組織化하는데 使用하는 本質的 手段이 되고 있는 労動組合 등을 通한 온갖 種類의 陰性的 統制가 許多하다. 労動者가 그 雇傭場所를 그만둘때 署名하지 않으면 안되는 悪名높은 作業記録簿도 있는데, 이것은 대개의 경우 얼마간 作業時間을 초과하도록 強制를 받아왔다. 끝으로 소련에서는 보다 나은 労動条件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 就業하고자 하는 不断한 慾求에 따라 労動力 移動率이 높아 첫 두차례의 5個年 計劃期間과 같은 경우에서는 労動力 移動率이 年間 100%를 上廻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遅延되어 왔던 소련 労動者들의 物質的 福祉는 드디어 1950年代 중엽에 이르러 共産政権이 樹立된 以後 처음으로 多少 改善되기 시작했으며 또 그 改善이 継続되고 있다.

4. 農業과 農民 (프로그램 No. 30)

* 「비트포겔」博 士

農業問題는 共産主義経済에 있어 진정 「아킬레스」의 발뒤축과 같은 主要 弱点의 하나인가? 이에 대해서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共産党의 農民政策은 특히 뿌리깊은 여러 矛盾으로 点綴되어 있다. 共産主義者들이 權力을 掌握하고 나면 農民들은 「레닌」이 말한 바 "最後의 資本主義階級"으로 化하게 되며 이는 다시 말하면 共産政權이 農民들에 대해 끝까지 闘争을 継続해야 할 主要 敵으로 化한다는 말이다. 共産政權의 全経済体制에는 이처럼 뿌리깊은 持久的인 危機를 내포하고 있는 이같은 農民政策이 介在해 있다.

第一段階에서 共産主義者들은 農民들에게 革命的인 土地改革을 약속한다. 다시 말해서 地主들의 땅을 보상없이 農村의 가난한 土地없는 貧農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中共은 이 段階에서 "耕作者에게 土地를"이라는 口号를 使用했다. 당초에 이 「슬로건」은 中国民族主義의 아버지인 孫逸仙 박사가 만들어 낸 것으로 中国共産主義者들도 소련의 「레닌」이 「러시아」国民에게 人気가 있던 社会農民党 즉 社会主義的 革命分子들의 計劃을 盜用한 것처럼 中国民族主義의 政治的 標語를 표절한 것이다.

革命的인 土地分配의 약속은 共産党의 執權을 위해 특히 貧農을 中心으로한 農民의 同情을 얻자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共産党은 적어도 一部의 積極的인 少数派나마 이 闘争에 가담케 하는데 마침내 成功했다.

---

* Karl A. Wittfogel : 「와싱톤」大学 中国史教授
独逸胎生, 「프랑크푸르트」大学 Ph.D.

이 政策은 「레닌」에 의해 主導되었다. 1905年에 「레닌」은 「러시아」의 最初의 革命에서 「마르크스」의 元来의 政策을 抛棄했는 바 이 政策은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해 主로 마련된 것으로 農民들의 所有慾을 刺戟하는 土地分配와 같은 政策은 反猶太的인 社会的 煽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를 배격했었다.

이는 다시말하면 「마르크스」의 元来의 계획에 따를것 같으면 革命的인 「마르크스」主義者들은 이같은 公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이 같은 公約을 내걸었다.

10月革命에 이어 1920年의 第二次 世界 共産党大会에서 「레닌」은 새 政策을 보편 多様化시켰는데 이 새 政策이 당초의 계획에 包含되어 있었다는 것은 共産党 政策에 反対된다는 것을 意味함으로 이같은 事実을 記憶해 두는 것이 重要할 것이다.

第2段階로서 1920年 以後 이 政策의 一大 修正이 있었다. 土地分配와 함께 国有化를 当初에 宣言했던 소련의 共産主義者들은 没収한 土地의 国有化라는 「슬로건」의 선전을 포기했다. 古来의 村落共同体制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이 「슬로건」은 村落体制에서의 経済的 平等과 経済的 安定의 概念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련農民들의 매력을 끌 수 있었던 것이나, 이 「슬로건」은 이와 同時에 그들이 받게 될 土地의 完全한 所有権을 願했던 農民들의 기대를 背反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2次大戦이 끝난 後 共産党은 没収한 土地를 農民들에게 주겠다고 約束하고 国有化한 国家財産의 土地에는 言及함이 없이 完全한 財産権을 주겠다고 言約했으나 그 後 共産党은 어쨌던 国有化를 그대로 推進하고 말았다.

共産党은 機会가 到来했다고 判断만 하면 土地를 즉각 没収하고 이를 分配했던 것이다. 이는 소련에서 1917年과 1918年에 始作되었다. 그러나 多大数의 소련農民은 이 政策을 懐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른바 社会主義的 革命分子라는 社会主義 農民党을 継続 따랐으나 「볼세비키」는 10月革命 後 自発的으로 発生한 곳에서의 土地分配는 이를 그대로 容認을 하고 土地分配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는 土地分配를 促進시켰다.

中国에서는 農業政策이 多年間 継続된 持久的인 執権闘争의 一部를 이루었다. 中国의 農民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土地를 받기를 꺼렸으며 그들은 그 土地의 값을 치르기를 願했는데 그렇게 하여야만 그 土地가 진정한 자기네 들의 所有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中共의 党幹部들은 貧農層을 行動으로 몰아내기 위해 東奔西走했으며 中共의 여러 有名한 小説들은 農民들로 하여금 土地를 받도록 説得하기 위한 오래고 느린 이 過程을 표사하고 있다.

戦後의 東欧에서는 共産主義者들이 소련이 가져다 준 共産党의 執権에의 기반을 굳히기 위해 과격한 土地分配를 断行했다.

第3段階는 共産主義者들이 모든 것을 決定하는 耕作農場의 創設이며 이는 小規模의 農土들을 共産党이 強要하고 統制하는 集団農場으로 転換시키는 이른바 生産者 協同組合으로의 転換이다. 共産党의 이 農業集団化는 여러가지 目的을 위한 것이었다.

経済的 目的은 明白하다. 政府는 이제 農業生産物의 많은 比率을 重工業이나 軍備, 戦略通信, 党의 経済力의 発展과 또한 共産友邦国들에 資金을 대주고 海外의 共産主義運動을 支援하기 위한 政治資金을 供給하는데 使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集団化 政策의 政治的 目的도 또한 明白하다. 秘密경찰 같은 党의 全体主義体制의 機構들이 이제 農村地方으로 完全히 浸透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共産党 権力의 強化 後로는 農業集団化가 定則으로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의 例外가 있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티토」가 「스탈린」으로 부터 이탈한 後, 「티토」는 그의 이른바 大衆基盤을 強化하기 위해 集団化 했던 土地를 農

民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폴란드」에서는 1956年의 「스탈린」格下運動과 그 뒤를 이어 反集団化運動을 包含한 극도로 悪化된 反소 감정을 달래기 위한 一部의 양보로서 비슷한 集団化還元현상이 일어났다. 최근 「폴란드」에서 政府의 圧力이 増大하고 있으며 政府는 農業集団化를 다시 試図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쿠바」에서는 土地改革으로 부터 재빨리 共産党 統制下의 生産者協同組合으로 移行했다. 「쿠바」共産党은 窮極的으로는 이 第3段階도 뛰어넘어 第4段階인, 즉 集団農場을 이른바 人民公社(communes)로 転換시켜 農民들이 옛날 経済体制의 최후의 발판까지 잃어버리고 農場労動者의 位置로 転落하게 되는 第4段階에 도달하기를 꿈꾸고 있다.

人民公社를 為한 最初의 試図는 世界共産主義의 물결이 높던 때에 「레닌」의 承認을 얻어 소련에서 먼저 着手되었었으나 이 企図는 当時 나이 어린 소련共和国의 한 遺物로 化하고 그 後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두번째 企図는 1929年과 1930年의 「스탈린」의 集団化過程 中 첫해에 地方에서 다시 과격파 共産党幹部들에 의해 試図되었었으나 이것도 失敗하고 말았다.

모든 集団農場을 人民公社로 転換시키려는 1958年度의 毛沢東의 全国的인 企図는 全国的인 危機를 몰고와 結局 集団農場으로 다시 還元되고 말았다.

다음으로 共産党政策의 여러 段階에 対한 農民들의 態度에 関해 考察해 보기로 하자.

第一段階에 対한 農民의 反応은 部分的으로는 疑心쩍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 두고보자는 好奇心에 찬 것이 없다. 農民들은 어떻든 共産党式의 土地分配에는 好応을 보였다. 第二段階에 対한 反応은 한결같이 같은 것은 아니었다.

좋은 農機具를 가지고 있고 成功的인 農民들은 経済的으로 그들보다 有利한 位置에 있는 사람들과 언제나 步調를 같이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들間에는 不安感과 꺼려하는 마음이 감돌았으나 農事일에 전혀 従事해 본일도 없는 共産党의 地方出身 貧民들의 支持를 얻어 土地分配는 그럭저럭 遂行이 되었다.

農民들의 저항은 이 土地分配가 遂行된 後 第二의 局面과 第三의 局面사이에서 일어난 農民経済에 대한 과중한 租税負担에 대해서 発生했다. 이 期間 중에 共産党은 収奪에 가까운 現物税를 徵収하고 과중한 土地税를 부과했다. 처음에는 農民들은 그들의 곡물収穫의 剩餘部分을 政府가 策定한 낮은 価格으로 国家에 바쳐야 했다. 그들의 전통적인 財産인 農産物도 価格誘因에 立脚해 있었으며 農民들은 集団農場에서 쉬지 않고 일했으나 그 効果는 별로 없었다.

소련에서는 特히 第2局面의 後期 進展過程에서 나타난 과중한 負担, 특히 가혹한 現物税 徵収에 대한 農民의 抵抗을 粉砕하기 위해서 그들의 集団化 作業을 시작한 것이라고 公言하고 있다. 集団化에 뒤이어 農民의 抵抗은 全国的으로 퍼져 나갔다. 그 結果 共産党은 全経済体制의 瓦解를 沮止하기 위해 몇가지의 緊急譲歩策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国家는 農民들에게 一部의 土地, 즉 약간의 야채耕地, 少数의 家畜을 돌려 주었다. 이후로 農民들은 이 自耕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야채나 계란, 고기들을 生産하여 一部는 自体消費를 하고 一部는 合法的인 市場에서 팔기도 했다.

共産党은 一部의 誘因策을 통해 集団農場의 生産性을 높이려 했다. 이 誘因策은 약간의 改善 効果는 있었으나 事態를 是正하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共産国家의 国民経済面에서 볼 때 이같은 譲歩策은 特히 農村에서 広域 農業部門에 있어서는 食糧供給에 약간의 改善을 가져오기는 했다. 이 点은 우리가 언제나 留意해 둘 必要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곡물생산과 가축생산은 農村에서의 個人所有権과 私有財産에 바탕을 둔 価格 誘因이라는 面에 있어서는 훨씬 未達한 것이었고, 農民

들은 이 두가지 面에 対해서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같은 共産国에서 農民들이 共産党에 의한 集団化에 그처럼 強硬하게 抵抗하는 問題가 発生하는 것일까? 그것은 共産国家의 農業経済에는 그럴만한 特殊様相이 있기 때문이다.

工業에 있어서는 生産은 空間的으로는 集中的이고 時間的으로는 継続性을 띠고 있다. 農業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여기저기 隔離되어 있어서 空間的으로 흩어져 있고 時間的으로는 断続的이다. 따라서 農業에서는 보다 厳格하고 継続的인 손질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손질은 作業에 강렬한 자극을 주면서도 紀綱의 감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家族式 農業에서 最高度로 可能하다. 이러한 손질은 徴発된 労動에 의한 大規模 農業에서 가장 적게 可能한 것인데 그것은 労動이 徴発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作業意欲이 적고 일을 여기저기 흩어져서 해야하기 때문에 効果的인 監督을 사실상 不可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련이나 東欧에서는 이같은 事情을 약간 軽減시켜 주는 要素들을 発見할 수 있다. 이 나라들의 農業은 광역적인 것이다. 여기서는 比較的 소수의 간단한 農耕作業, 다시 말해서 밭갈기, 씨뿌리기, 및 収穫 등의 作業만을 要求한다. 이 나라에서는 工業이 보다 発達되어 있어 農機械, 「트랙터」 및 収穫機械 같은 것을 生産해 낼 수 있다. 이 機械들은 모두 広域農業에 알맞는 것들이다.

소련이나 集団化된 一部 東欧諸国内 事情의 약간의 好転에도 불구하고 農業生産은 아직도 深刻한 問題로 남아 있다. 이 나라들의 農業은 많은 労動量을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農民들은 일을 느리게 하고 充分한 収穫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集団農場의 農民들 間에는 挫折感과 反感이 충만해 있는 것이다.

「하바드」大学 研究班에서 西欧로 亡命온 農民들에게 이 問題들을 물어본 일이 있는데 불가피할 경우 옛날의 自由農業経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모스크바」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도 좋을것인가 라는 질문에

对해 이들 集団農場의 農民가운데 80%以上이 그들은 원자폭탄이라도 떨어뜨렸으면 좋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련農民들이 決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같은 事実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中共과 월맹의 農業地域에서도 危機는 深刻한데 그것은 이 나라들의 農業은 集約的이고 이 나라의 農業은 관개에 의존해 있으며 관개에 의존한 農業은 特히 集約的인 農耕活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労動力 不足이라고 위장되고 있는 이 나라들의 労動危機는 中共서는 人民公社에서 그 最高潮에 달했는 바, 人民公社서는 모든 耕作地를 農民으로 부터 빼앗았기 때문에 物質的 誘因의 低水準状態를 主로 準軍事的인 作業 紀綱으로 充足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重要한 事実은 集団化와 더불어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事実이며 이 危機는 集団化의 復元 및 완화조치가 취해진 後에도 약간 덜 과격한 様相으로 여전히 継続되어 오고 있다. 中共은 農業의 集約性으로 말미암아 農業経済의 根本的 弱点은 그대로 持続되고 있으며 重工業도 마비되어 있고 최근의 보도에서 示唆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半은 마비된 状態에 있는 経済이다.

이제까지의 이같은 事実들을 볼 때 우리는 重要한 比較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마땅히 다음과 같은 教訓을 얻어 낼 수가 있다. 소련과 같은 広域農業의 共産国家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소련과 美国의 農業을 비교해보면 西方世界의 個人所有権과 家族農場形式의 広域農業이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特히 中共처럼 관개의 集約農業을 하고 있는 共産国家의 경우를 보면 中共의 条件과 日本이나 泰国, 台湾의 条件과의 비교에서 우리는 極東의 非共産主義国家들이 가지고 있는 個人所有権과 家族을 기반으로한 集約農業이 현저하게 우월하다는 것을 発見하게 된다.

이같은 差異는 共産主義 宣伝에 처음에는 매력을 느꼈던 開発途上国家

들의 政治 指導者들에게는 큰 経済的 意義를 내포하는 것이다. 確実히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持久的인 闘争에서 이 農業政策의 成敗에 対해 상당히 두려워 하고 있다. 「레닌」은 世界第一次大戦前에 그리고 「콤민테른」에서, 또한 「스탈린」도 農業生産에 있어서는 美国式 方式이 더 좋다는 것을 말한 바 있다. 農民의 立場에서 보아도 소련方法보다는 確実히 日本式 方式이 共産主義方式보다 좋은 것이다. 이같은 差異点은 또한 큰 政治的 意義를 지니고 있다.

소련이나 東欧諸国, 中国, 월맹 및 「쿠바」의 集団農場의 農民들의 処遇로 보아 그들은 그들의 統治者들에 対한 抵抗을 높여갈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여러 事情은 그들의 軍事的 地位를 더욱 不安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공공연한 国際的 危機에 있어서의 이같은 事実의 政治的 意義는 엄청나게 크다고 할 것이다.

5. 蘇聯経済의 実績(「프로그람」 No. 31)

* 「서 한」 博 士

소련経済가 이룩한 成果에 関한 問題는 重要한 問題로서 이는 소련経済 成長이 어느 面에서는 대단히 刮目할만한 것이었고, 소련은 全世界를 통한 競争에 있어서의 「모델」로 스스로의 地位를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可能하면 이 問題에 대한 真意를 把握하는 것이 重要한 일이다. 그러나 不幸히도 이 問題는 아직도 不明瞭하고 엇갈린 소련에 대한 研究領域에 属한다. 細部事項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소련의 統計資料는 소련経済를 世界 다른 国家와 比較하는 根拠로 活用하기에는 不適合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公式的으로 発表한 統計数字는 実質的으로 소련이 이룩한 것 보다 더 높으며, 西欧의 大部分의 非共産主義 分析家들은 소련이 不況에 処해 있다고 異口同声으로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問題点은 상당히 먼 거리에 存在하며, 이에 関한 問題는 専門家들의 意見과 主張이 相互 対立的이며 아마도 먼 未来까지도 対立的 立場을 見地할 것 같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問題点은 소련은 果然 얼마만한 刮目할 業績을 이룩했는가 하는 것이며, 그것은 즉 소련의 経済的 成果는 果然 独特하고, 소련型 経済組織을 樹立하는데 기여할만큼 刮目할만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対한 대답은 共産主義者들이 執権하고난 以後의 소련이 이룩한 業績과 美国의 業績을 比較한 다음의 比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否定的인 것이다.

---

* Ewing P. Shahan : 「벤더빌드」大学 経済学教授
「콜럼비아」大学 Ph. D.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研究所」 所長

共産主義者들이 소련을 引受받은 以来 人口는 1億4千万名에서 2億2千万名으로 増加했으나, 農業에 従事하는 労動力의 全人口 対 比率은 80%에서 50% 程度로 減少했다. 이 期間中에 「러시아」는 世界 主要 工業国「랭킹」의 7~8位에서 2位로 発展했다. 同時에 「러시아」는 世界 第2位의 強力한 軍事力을 保有했으며 共産化 当時 「러시아」의 文盲比率은 約 60%였으나 現在 거의 無(「Zero」)에 가까우며, 同時에 学校卒業後의 職業技術教育計劃과 研究組織을 効果的으로 開発해 왔다.

이 期間에 工業生産量은 6~7倍 以上으로 増加하였고 同時에 健康管理施設, 安全, 教育과 通信施設 等 「서어비스」 産業制度도 拡充시겼으며 이 分野의 成長은 刮目할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이 이같은 成長을 보게된 것은 現代社会에서는 매우 긴 歳月인 50年이라는 期間이 所要되었다는 것을 記憶해야 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美国에 関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1次世界大戦 当時 美国의 人口는 9千2百萬名 가량이었으나 그후 人口는 大略 2倍 가량 増加한 1億8千萬名으로 増加하였다. 이 期間동안에 美国의 農業労動力은 全 人口의 33%에서 約 8% 가량으로 減少하였다. 1次世界大戦 当時에도 文盲者 問題는 없었으며, 그동안 大学生数는 3%에서 대개 33% 가량으로 増加되었다. 그리고 거의 「제로」状態에서 出発하여 卒業後 職業技術教育計劃과 研究計劃을 世界에서 가장 効果的인 것으로 構築하였다.

美国은 하찮은 軍事力에서 地球上의 가장 強力한 軍事力을 所有한 国家로 発展했고, 또한 経済的으로 最上状態가 되지못한 状態에서 世界的으로 가장 重要한 経済国으로 発展했고, 어떤 領域에선 事実上 他国家와 実際的으로 比較할 수 없을만큼의 発展相을 維持하고 있다.

美国의 工業生産 上昇率은 소련의 그것보다 도 아마 5~6倍 程度 뒤떨어지게 増加하였다. 그러나 雇傭人口로 判断하건데 美国은 約 4倍程度「서어비스」産業의 重要性이 提高되었다. 부연하여 말하자면 美国의 実際生計水準은 「러시아」의 上昇率과는 相対가 되지 않는 約 3倍程度 上昇

하였다.

또한 美国経済는 高所得層의 所得水準의 相対的인 重要性이 提高되지 못한 反面 下層階級의 所得水準이 劇的인 形態로 増加함으로써 所得分配에 있어서의 큰 変革을 이루었다..

이와같은 事実 역시 刮目할만한 것이라는 点을 首肯해야 할 것이다.

소련이 이룩한 成果의 特徵은 美国의 1次大戦 以前보다도 훨씬 낮은 低水準으로 부터 始作하였다는 点이며, 또한 그들은 軍需産業과 関聯을 갖는 産業 즉 그들이 特別히 強調하여 育成시키기로 決定한 몇몇 特定分野에 있어서는 美国経済에 매우 接近하였으며, 이런 分野의 成長率의 百分率은 経済의 全般的인 高度의 成長을 提高할 수 있을만큼 非正常的으로 過大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発展은 持続的인 高投資率과 労動力의 過大 膨脹에 의하여 達成된 것이다. 개관하면, 소련의 投資 総規模는 美国의 그것과 비슷하나 国民経済 成長率은 보다 높은 比率을 가지고 있다.

소련 経済成長의 가장 큰 欠陥은 国民生活水準을 帝政 「러시아」 以後에도 刮目할만큼 改善시키지 못했다는 点이다. 소련 인민들은 1950年代까지도 1913年에 그들이 享有하였던 生活水準을 回復하지 못했었고, 어떤 때는 1913年 生活水準의 切半 程度의 生活을 営為하고 있었을 뿐이다. 最近 소련 国民의 生活水準은 向上되고 있으나 아직도 美国水準의 1/4 程度의 生活을 営為하고 있을 따름이다.

共産政権이 成立된 直後인 共産戰争期는 外国戰争을 끝마치고 大量 破壊의 内戰이 만연했던 時期로서 明確한 経済政策이 施行되지 못하였고, 党権이 沈滞되고 있던 時期였다. 이 期間中에 소련経済가 얼마나 荒廃되었는가를 알아볼 必要가 있는데, 이것은 新生 共産国家가 体験한 바와 다를 바 없다.

1921年 소련의 工業生産量은 戰争前의 13%였고, 農業生産量은 50%에 不過했다. 都市의 賃金이 지나치게 싸서 労動者들이 農村으로 移住하는 率이 急増하는 形便이었다. 共産戰争期間에 「모스크바」 人口의 45%와

「레닌 그라드」 人口의 60%가 줄어들었다. 소련의 人口는 飢餓와 疾病으로 500萬名 程度가 減少되었다. 또한 우리는 이같이 소련 実情이 荒廃된 것은 共産主義者들이 政権을 掌握한 以後에 発生되었고, 共産党이 全国을 통해 그들의 支配力을 強化하려는 闘争에서 나타난 内乱期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例를 들어 1916年은 戦前 産業生産量의 最高記録을 세운 해였다. 1917年 부터 経済生産率은 低下되기 始作하였고, 1918年에는 소련의 工業生産量은 最下点으로 떨어졌다.

소련 経済史에 있어서 두번째 期間에 該当하는 新経済政策期間 동안에는 共産党은 그의 基本 目標를 縮小 調整하여 経済를 어느 程度 緩和시키고 모든 形態의 経済活動을 促進시켜 1927~28年頃에는 戦争以前의 水準으로 다시 回復할 수가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期間은 生産量의 刮目할 만한 増加로서 特徴지워진다. 1928年 「스탈린」은 그의 支配力을 공고히 하였고, 共産党의 徹底한 支配権과 組織을 強化해 갔으며 5個年計劃을 개시하였다.

첫번째의 第1, 2次 5個年計劃은 1928年 10月에 始作하여 9年동안에 完成되었고, 第1次 5個年計劃을 発表한지 4年만에 完成하였으며 이 期間의 소련의 経済成長은 刮目할만한 것이었다. 1928年부터 1937年 동안 소련의 工業生産高는 年間 12%~16%에 가깝게 成長하고 있었다. 이 期間 동안에 美国의 平均 成長率은 一般的으로 3~4% 程度였다.

1928年의 蘇聯의 역청탄 生産高는 3千5百30万톤에서 1935年에는 1億8千90万톤으로 増加되었고, 선철 生産量은 같은 期間 동안에 3百30万톤에서 1千2百50万톤으로, 그리고 鋼鉄은 4百30万톤에서 1千2百50万톤을 生産하였다.

第1次 5個年計劃은 本質的으로 広範한 基幹産業의 工場建設과 消費商品의 生産이었으나 労動生産에 있어서는 별다른 成果를 올리지 못했다.

第2次 5個年計劃은 새로운 基幹産業工場의 稼動이 始作되었으므로 労動

생산성은 急激히 上昇하였다. 第1次 5個年計劃期間 中의 経済成長은 主로 雇傭의 增大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労動力의 徵発은 대체로 22才 以下의 青少年層과 婦人들로 부터 이끌어졌다. 이것은 都市로 農村사람이 移動되는 現状을 包含한 都市化 現状도 가져왔다. 急造한 技術学校를 통해 労動者들을 訓練시켰는데 勿論 必要한 技術者와 「엔지니어」를 얻는데는 困難한 点이 많이 随伴되었다.

2次 5個年計劃 期間동안 소련은 消費財의 完全分配에 重点을 두었고, 이에 대한 効率性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生産品의 質은 顯著히 下落되었고, 労動의 忌避性이 만연하여 收拾할 수 있는 限界線을 넘어 서서 거의 만성화된 問題였다.

勿論 이 期間동안에 美国의 成果는 刮目할만한 것이었으나, 戦争期와 比較한다면 同一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1939~1944年의 第2次大戦 期間동안에 美国의 年間 工業生産 成長率은 16~17%의 上昇率을 보였다.

1937年에 始作한 소련의 3次 5個年計劃은 全般的으로 失敗했다. 年間 平均成長率은 3%까지 떨어지고, 이 期間동안에 소련의 領土拡張을 除外한다면, 結局 어떤 産業分野의 成長을 보았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소련의 公式 見解에 의하면 이 計劃의 失敗는 鉄鋼産業計劃이 豫定대로 進行되지 못한데 起因한다고 했으나, 이 失敗를 説明하는데 좋은 다른 与件은 아마도 大規模의 政治的 動揺에 起因했을 것이다. 즉 이 期間동안 소련은 全般的인 大規模의 政治的 粛清에 起因한 政治的 動揺와 아직 整頓되지 않은 微弱한 産業施設의 軍需産業에로의 過重投資에 起因한 것 같다.

当時 유럽 情勢는 主로 소련 때문에 政治的 不安이 造成되고 있었다. 経済計劃의 失敗를 回復하기 위한 試図를 展開한 蘇聯政權은 時間外 労動을 強要하게 되었는데 이 時間外 労動時間은 年間 25%까지 增加시켰다. 이 期間동안에 소련의 生産量은 多少 低下되고, 1次大戦과 마찬가지로 2次大

戦 때도 소련経済를 萎縮시켰고, 1946年~1950年까지의 第4次 5個年計劃은 그 回復에 置重되었다. 生産高는 急速히 上昇되었고, 1949年에는 戦争前의 水準까지 回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傾向 즉「러시아」의 戦後에 있어서 経済回復은 日本이나 「프랑스」, 西独과 比較해 볼때 特異한 것은 아니다.

美国의 援助가 다른 国家들이 戦後 回復을 図謀하는데 寄与한 影響에 比較할 수 없을 만큼 많은 影響을 소련은 戦争中에 占領한 地域으로 부터의 약탈에서 経済回復의 図謀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1950年~1955年 동안의 第5次 5個年計劃은 두번째로 成功的인 것이었다. 以前의 第2次 5個年計劃에 있어선 단지 産業施設을 빠른 速度로 成長시켰을 뿐이었고, 이 期間동안에 労動者 1人当 生産高는 소련 歴史上 第一 높은 水準을 維持시켰다.

1955年 以後 소련은 経済計劃에도 많은 어려움을 当하고 있고, 最近에는 生産高나 成長率에도 별다른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956年에 始作한 第6次 5個年計劃은 2年後에 取消되었는데 그 主要理由는 目標量이 너무 높게 設定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59年부터 1965年 까지는 새로운 7個年 計劃을 遂行했는데 이 計劃은 더 一般的이고 開放的 計劃労力을 通한 再調整이기도 하다.

1950年代 後半期에 農業生産量이 크게 増加한 것은 気候의 順調로움에 起因하는 것이며, 工業生産量은 이 期間동안에 数% 低下했고, 그 後에도 継続된 것으로 推定된다. 소련 当局自身이 그들의 目標成長率을 縮小調整하고 있는 事実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1960年代 初半의 状況은 明確하지 않지만, 成長率은 従前보다 상당히 下落되었다는 것은 分明하며, 소련이 그 自体内의 問題点들을 完全히 克服하지 못한 것은 明白한 事実이다.

1928年에서 1955年 사이의 소련의 産業成長率은 年間 6.5~8.5%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期間동안에 美国의 産業成長率은 年間 4%를 下回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5個年 計劃期間 동안에 소련의 工業成長率은 美国의 約 2倍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는 急速히 成長한 美国의 非工業分野의 成長率의 数値가 包含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国民総生産에 基準을 두어 評価한다면 그 숫자는 대단치 않은 것이다.

소련의 成長率은 美国의 그것보다 現在에도 더 높지만 이에 対한 比較로 分析과 보다 더 진보된 解説을 하지 않고서는 소련의 成長率을 額面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먼저 統計的으로 이야기 한다면 이와 같은 現状은 経済的 発展段階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러므로 19세기 後半에 있어서의 美国 基幹産業의 成長率은 오늘날의 成長率 보다는 훨씬 높았다. 当時 美国의 経済的 発展段階는 1920年代와 1930年代에 소련이 突入했던 段階와 거의 비슷한 것이었다.

위에서 말한 소련의 選定된 工業分野의 統計数字를 美国의 그것에 比較하여 보면 美国의 역청탄 生産高는 1870年에는 1,700万톤에서 1890年에는 1億1千1百万톤으로 増加하였고 鋼鉄生産高는 1880年에 1百20万톤에서 1900年에는 1千万톤으로 各各 増加되었다.

이와 같은 現状은 소련의 生産率과 比較할 때, 劇的인 数字이며 美国과 소련의 같은 10年間의 生産量 増加率의 比較는 1930年代 初半의 소련의 成長率 처럼 急進的인 것은 아니었다.

世界工業国家의 거의 大部分이 発展段階의 어떤 特定한 期間동안에는 이와 같이 劇的인 成長率을 보이기 마련이다.

둘째, 世界的 技術水準에 関聯시켜 한 国家의 技術水準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 最近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련은 技術分野에 있어서 世界水準의 상당한 程度까지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世界水準의 技術発展을 위해 急進的인 労力을 展開하고 있다.

끝으로 다른 主要国家들에 관해 論해보면 몇몇 西方国家들은 美国 보다 빠른 速度로 成長하고 있으며 어떤 分野에 있어서는 소련의 成長比率을 継続的으로 凌駕하고 있다. 1950年 以来 日本, 自由中国, 西独, 「그리스」는 소련의 成長比率을 凌駕하고 있으며, 1953年 以来 「프랑스」 「이태리」는 소련과 類似한 成長率을 보이고 있다. 이 問題에 관해서는 많은 興味로운 問題가 있으니, 現在와 比較해서 未来의 成長率이 어떠할 것인가를 점쳐보는 것도 重要한 일이다.

소련의 工業生産量은 美国와 1/5 乃至 1/3 程度를 維持하고 있으며, 生活水準은 美国의 1/4 程度를 維持하고 있을 뿐이다.

소련은 美国보다 훨씬 많은 工業労動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美国의 工業労動力이 生産한 量보다 적게 生産한다는 事実에 비추어 볼때 소련의 工業条件이 나쁘고 非能率的이라는 事実을 알 수 있다.

農業問題에 있어서 소련은 従来에 지닌 大部分의 問題点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소련의 農業労動力의 極端的인 非能率性을 例証하는 것이다.

美国의 農業生産量은 소련보다 約 1/3 가량이 더 많다. 美国은 全体労動力의 8%가 農業에 投入되고 있으며, 소련은 50%를 投入시키고 있지만 美国보다 적은 農業生産量을 내고 있다. 이것이 소련의 根本的인 問題点인 것이다.

소련農村의 生活水準이 美国을 따라 올려면 훨씬 많은 労動力을 投入해야 可能할 것이다.

이같은 現状을 非農業部門에 適用시켜 両国의 生活水準을 比較하여 본다면 顕著한 差異를 나타내게 되는데, 소련은 非農業部門에서 全体労動力의 50%만을 効果的으로 利用하여 美国의 労動力 92%가 生産할 수 있는 量보다 더 많이 生産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소련이 現在 훨씬 美国에 뒤져있으므로 未来는 両国의 成長率에 달려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소련이 最近 維持하고 있는 年 6~8%의 成長率을 継続 維持하고, 美国이 1950年 下半期에 나타낸 2%의 낮은 成長率을 継続 維持하게 된다면, 소련은 1980年代가 되면 美国을 凌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成長率의 차이가 크면 経済発展의 격차라는 것은 매우 빠르게 좁혀진다는 事実을 보여주고 있다. 両国의 未来 成長率이 流動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미래 현상을 豫測하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소련의 工業生産量은 1950年 下半期에 있어선 美国의 切半에 該当하였으나, 1959年에 「후르시쵸프」는 1970年 까지는 美国의 工業生産量을 凌駕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그 以後로 소련의 成長率은 下落해 왔으며, 反面에 美国의 成長率은 上昇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르시쵸프」가 1950年代 後半期에 늘어놓은 허풍에 대해선 귀를 기울일 必要가 없다. 단지 우리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未来 소련의 経済的 位置와 美国의 位置를 比較해 볼때 그것은 두 나라가 数年間에 이룩할 成長率의 차이에 全的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제 結論的으로 소련経済의 問題点들에 관한 몇가지 特別한 要因들을 検討할까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련의 国民経済는 하나의 거대한 会社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大企業의 運営問題를 처음으로 解決한 것은 19세기 後半期에 있었던 대대적인 合併運動 後에 美国에서였다. 이 問題를 遂行한 두 가지의 根本原則은 調整과 非中央集権(分散)의 原則이었다.

소련이 巨大企業을 管理하는 問題를 解決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두가지 路線에 立脚한 것이었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調整에 의한 管理原則이란 会計資料와 統計資料를 基礎로 하여 間接的인 方法으로 巨大企業을 管理하는 一般的인 技術을 말한다.

소련은 最近 이러한 分野에서 適当한 役割을 하기 위해 最善을 다하고 있으며 西方国家들로 부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소련이 가야할 길은 요원하다.

소련은 아마도 美国을 除外하고는 다른 어느나라 보다도 巨大한 量의 統計的 資料를 手中에 保有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簡単한 資料조차 処理하기에 適合치 않으며 소련은 이러한 資料를 分析하기 위한 大部分의 発展된 技術을 利用하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소련이 合併에 関聯된 複雑한 問題를 解決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数学的 技術은 상당한 信憑性을 現在 実質化하고 있으며 現在 소련이 継続하고 있고 아마도 未来에도 持続될 問題에 対해서 상당한 程度까지 改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可能한 限 作業 現場에 最大의 決定権을 부여한다는 分散化의 原則에 관해선 共産主義가 共産主義로 存続하고 있는 限 소련은 이 方法의 이로움을 活用할 수 없을 것이다.

理論上으로는 소련의 企業은 法的으로 独立된 権限을 保有하고 거의 自動的으로 稼動할 수 있으나, 모든 共産政権이 現在 追求하고 있는 바와 같이 分散에서 오는 利点을 運用하려는 政策을 追求하지 않는 바, 그 理由는 企業의 分散化는 党権의 沈滞 危険이 있는 権力 分散을 초래하는 것이며, 적어도 経済政策決定의 상당한 領域까지를 分散시키는 結果를 招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거론될 問題는 소련의 価格制度이다. 모든 国家의 重要하고 一般的인 経済問題는 投入된 資本으로 부터 最大의 生産을 算出해 내는 것이다. 全般的인 経済分野에 이 可能性을 成就하기 위해 実質 投資価格을 算出하는 어떤 基準을 設定한다는 것은 必須的인 것이다. 自由世界의 経済体制에 있어서는 価格이 그러한 基準으로 適切한 機能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会社의 経営者가 投資를 最大効果에 직결시키고저 努力할 때, 価格이 投入된 投資의 実質価格의 適当한 基準이 되는 것이다.

소련에서의 価格은 이같은 価格이 人為的으로 操作된 것이라는 観点에서 美国에서의 価格과 比較될 수 없다. 論理的으로는 소련의 価格基準은

厳格하게 設定되고 있으나, 実際的으로 소련에서는 원료의 再分配나 価格変更을 위해서 価格変動을 하며 주기적으로 全体 価格制度는 改正된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説明한 目標를 充足시키는 것은 아니다.

価格이 実質 費用을 反映하지 않는 限, 소련은 그들의 投資가 最大効果를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逢着할 것이다.

이러한 特別한 様相이 「마르크스」의 理論인데 다시 말해서 企業에 주어진 資本과 土地가 価格과는 関係가 없다는 理論이다.

이와같은 것이 資源分配를 放害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経済理論과 資本과 土地가 稀薄한 点과 그들이 着服 使用하는데 包含된 費用이 있기 때문이다. 소련経済制度에는 그런 価格制度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土地와 資本을 効果的으로 利用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逢着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을 是正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절충적인 制度를 施行했지만 満足스러운 結果를 얻지 못한 것은 事実이다.

또한 分散化 原則에 있어서도, 実質的인 価格이 없이는 소련 当局은 企業의 経営者들에게 誘引 要素를 蒐集하는데 난관을 겪을 것이다. 蘇聯이 価格 代身에 「루블」貨幣나 物質的 補償 등의 制度를 樹立하고 있지만, 소련의 経営者들은 소련 当局이 원하고 있는 것과는 反対가 되는 어떠한 誘引 要素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련의 운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資本主義를 向한 運動이라고 解釈할 수는 없다. 그들은 誘引 要素를 変更하는데 관해서도, 価格을 変更하는데 관해서도 이야기는 하지만, 勿論 소련에 있어서의 社会主義라는 것은 모든 分野에 대한 党의 完全한 統制와, 모든 事業과 工場의 完全한 社会化라는 것이다. 이러한 変革이 있을 때까지는 소련에는 진정 資本主義를 向한 実際的인 運動이란 없는 것이다.

6. 소련의 法과 犯罪 및 処罰(프로그람 No. 32)

* 「스 텀 프」 博 士

우리들은 大体로 法과 거의 関聯을 맺지않고 살고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직도 法이 現代人의 行動을 規制하는 가장 重要한 作用을 하고있는 것은 厳然한 事実이다.

法에는 세가지 側面이 있다. 法은 우선 規範(Body of Rules)으로 定義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規範은 人間의 行動을 다스리고, 人間과 制度 속의 人格体間의 相互関係를 規律하는 것을 말한다.

規範은 過去의 先例에서 도출한 戒律의 原理에 立脚하고 있다. 그러므로 法은 첫째로 우리에게 行動方法을 알려주는 하나의 規範이다. 둘째로 法은 強制性(Regime of Force)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規範을 모두 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에티켙」規範, 其他 行動規範 그리고 경기의 規則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規範 中에서 우리가 法이라고 부를 수 있는 規範은 組織된 強制力 또는 組織된 社会的 権力과 関聯된 規範이다.

그러므로 法의 두번째 側面은 人間들이 規範에 따라 行動하도록 하는 強制性을 갖고 있다는 点이다. 그러나 法의 概念을 完全히 把握하기 위해서는, 法이란 規範이요, 強制性을 띤 것이라고만 해서는 理解할 수 없다. 세번째 側面으로서 法은 하나의 過程인 것이다. 이 過程이란 社会의 目標를 成就시킬 目的을 위해 使用된 過程으로서 우리가 裁判過程이라고 부를 수 있는 過程을 意味한다. 이것은 法의 一般的 定義인 바 즉, 法이란 行動規範으로서 이 規範을 実践할 強制性이 있으며, 社会의 理念, 理想

* Samuel E. Stumpf: 「밴더빌트」大学 政治学教授
「시카고」大学 Ph.D.

및 目標를 達成시키게 할 過程-節次를 갖고 있는 것이다. 法哲学에서 가장 問題되는 点은 다음과 같다. 즉 法을 以上과 같이 定義하면 太初 이래 人間의 마음을 움직여 온 哲学的 本性에 관해 重大하고 深刻한 問題가 提起된다. 먼저 만일 人間이 法에 따라서 行動하고 그 法이 人間의 服従을 象徵하는 통치규범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통치규범의 根源이 무엇이며, 또한 이 規範을 効力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問題들이 提起된다.

둘째로 法은 強制性을 띤 것이라고 한다면, 権力이나 強制力을 갖고 있지 않으면 法이 아니냐 하는 問題가 야기된다. 만일 強制力 없이는 法이 아니라고 하여 法現象에 있어 가장 重要한 構成要素가 強制力이라고 한다면, 法에는 権力이나 強制力이 包含되는가 하는 問題가 생기며 이 問題는 法의 本質的 属性이 実際로 무엇이며, 法이 바로 強制力인가 또는 強制力을 凌駕하는 것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세째로 法이 하나의 過程, 即 法으로 인도하려고 試図하는 過程이라고 하면 즉 어떤 目的과 目標를 成就시키기 위한 人間行動의 過程이라고 한다면 '法의 目的이 実際로 무엇인가?' 또 全体的인 規範体로서의 法이 成就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어떠한 形態의 社会를 이룩하려고 하는가의 問題가 있다. 이러한 問題들에 대하여 西欧文明史에는 가끔 代案들이 提示되어 왔다. 例를 들면, 統治規範(Body of Rules)으로서 法의 根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国家라고 答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상할런지 몰라도 法이 国家 以外의 어느 다른 곳에서 由来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떤 見地에서 보면 法이란 国家의 命令(Command of State)이라고 定義될 수 있으므로 国家를 法의 唯一한 源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法哲学的 見地에서는 国家가 特定人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法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되며 또 国家意思는 무엇이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도 問題인 것이다. 歷史的으로 볼 때 国家가 任意로 行動規範을 命令해서는 안되고 諸規範은 人間의 관습에서 成長해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段階의 評論에서 提起되는 実際問題는 法規範을 道德的 要請에 適合시키려고 努力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国家는 慣習에 密着해야 하지만 慣習自体도 有効한 道德規範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 바로 여기에 慣習自体가 国家를 評価하고, 国家가 慣習을 批判하는 根拠가 있으며, 아울러 法律家들이 恆常 人間의 本性 속에서 規範을 찾으려고 하는 까닭이 있다. 여기에 法規範의 源泉이 萬物의 根源인 하나님에 窮極的으로 帰属되는 것으로 생각케 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몇가지 代案이 提示된다.

法을 強制性을 띤 것으로 定義하여 法의 本質을 論하는 見解가 있는가 하면 強制性이 法의 精髄가 될 수 없다는 歷史的인 主要見解도 있다. 法은 힘과 定義의 調和이다. 힘은 그것을 執行하기 위해서 単純히 必要하지만, 그 힘은 正義의 要求에 의하여 調整된 것이다.

法을 目的成就를 위한 努力의 過程으로서 본 세번째의 側面에서는 法이 어떤 目的을 成就하려고 하는가의 問題가 있다. 우리는 흔히 法과 秩序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은 여러 可能性中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亦是 自由로운 社会를 이룩하려고 努力하며 法으로서 더욱더 安全을 確保하려고 努力해 왔다. 여기에서 法의 目的이 무엇이냐에 대한 解答을 얻게 된다. 以上이 法概念에 대한 簡略한 一般的 説明인 것이다. 즉 法은 規範体이고, 強制性이 있으며 또한 国家로 부터든지, 慣習으로 부터든지, 自然으로 부터든지 由来되는 한 過程인 것이며, 이는 그 目的을 秩序, 自由 그리고 安全과의 均衡을 達成하는데 두고 있는 힘과 正義의 매우 이상한 結合인 것이다.

이제 「마르크스」主義者의 法理論을 検討하면 마음속에 많은 이러한 問題点들을 가질 수 있다. 소련의 識者들이 만든 法概念에서 매우 重要한 것 中의 하나는 그들이 包括的인 法哲学의 体系를 만들려고 努力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法이 무엇이며 法이 어떠한 方法으로 発生하는가를 説明하려고 하는 것이다.

実際로 法学徒였던 「마르크스」 自身은 비록 法에 対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지만 法에 대하여 慎重하고 体系的인 著書는 남기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은 「마르크스」法理論에 대하여 제각기 多様스런 側面에서 記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르크스」主義者의 法理論에 対한 独特한 面은 너무 조심스럽게 歴史哲学에 立脚하고 있다는 事実이다. 이것은 所謂 歴史의 動態的(dynamic) 運動이라고 하는 「헤겔」의 歴史運動 概念으로 부터 到来된다. 이것을 그들은 弁証法的 過程으로서 説明하고 있다. 그들은 歴史는 한 世代로부터 다른 世代로의 運動이라고 보고 이런 歴史的 運動은 厳格하고 機械的이라고 한다. 継続的인 運動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고자한 것은 事物進行 過程의 本体(Basic Reality)는 物質的인 秩序(Material Order)에 있다는 것이다. 物質的인 秩序는 下部構造이며, 外面에 들어나지 않는 実体部分이다. 이 物質的 秩序는 生産関係로 이루어진다. 이 生産関係는 原料, 労動者, 賃金, 生産物間의 関係를 말한다. 그것은 生産節次를 決定하고 工業生産物이 分配되는 方式까지를 包含하고 있다. 이것이 第一 重要한 点이다. 歴史를 통하여 特徴的인 階級闘争이 있어왔다. 이것은 所有者와 労動者間의 차이에 起因하며 이 闘争은 時代마다 相異하다. 現代에는 두개의 基本的인 階級이 남아있다. 거기다가 現代에는 私有財産制度가 存在하여 가진 者와 못가진 者라는 두 階級을 創造하는 根源이 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工業技術의 内在的 論理가 이 全体的인 生産節次에 가장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고 한다. 製品이 生産되는 技術의 内在律自体가 다른 製品의 生産에 作用되고 製品生産에 作用되어야 할 生産節次 規制方式은 그 時代의 技術事情에 左右된다는 것이다. 한 例로 巨大한 工場을 所有하고 있다는 事実이 巨大한 労動力을 한 場所에 集結시킨다는 前에 없었던 状況을 創造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이 바로 現実이라고 規定하고 이같은 技

術의 内在的 論理 때문에 한 時期의 運動이 다른 時期로 移行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의 目的上 言及하고 싶은 것은 「마르크스」가 人間生活의 観念的 側面을 증식확산(Proliferous)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反現象的인 것(Antiphenomena)이라고 말한 点이다. 즉 思考가 第一 重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思考는 物質秩序의 本体에서 二次的인 것이라고 한다. 思考는 여러가지로 多様하게 行하여지지만 우리의 硏究 目的上 지극히 重要한 세가지 種類의 観念(Idea)을 생각할 수 있다. 즉 法律観念, 倫理観念 및 宗教観念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観念을 똑같은 方法으로 아무렇게나 다루면서 이러한 観念은 그 時代의 物質的인 状態를 反映하는 것이라고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興味있는 일이다. 여기서 重要한 것은 이러한 것이 어떠한 法的인 原則, 倫理的 原則 및 宗教的인 思考方法 ── 「마르크스」에 의하면 一定時点에서 物質的 秩序가 構成되는 方法을 単純히 反映하는 것에 不過하다는 ── 을 意味한다는 것이다. 物質的 秩序가 動態的이고 時代의 흐름에 따라 다르다면 観念은 上部構造가 다르듯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一聯의 観念이 以前에는 適合했지만 다음 時代에는 不適合한 것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物質的 秩序가 이제는 変遷하였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基本的인 正義의 理念은 永遠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永遠한 正義의 理念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時間과 人間을 超越하여 適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마르크스」가 「아리스토텔레스」時代의 奴隷制를 正当한 것으로 認定한 것은 当時의 奴隷制는 物質的 立場과 그 当時의 階級闘争을 意味하는 生産関係를 매우 適切히 反映한 것, 즉 技術論理的 運動의 反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観念은 그 状況을 正確하게 反映하는 限 올바른 것이 된다. 그러나 要点은 現代 즉 資本主義時代에 이러한 理論을 適用할려면 다른 時代에는 모두 適用이 되던 이 理論이 適用되지 않는다는 点이다.

다음으로 「法이란 무엇인가」하는 問題를 살펴보기로 하자. 「마르크스」

에 따르면 法은 永遠한 것이 아니며, 그 淵源은 生産関係로서, 物質的 秩序에 그 基礎를 두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의하면 社会의 経済的 支配階級의 생각을 反映한다. 따라서 法은 무기이며, 마치 国家가 하나의 수단인 것처럼 法도 하나의 수단이다. 法은 부자가 자기의 所有物을 統制할 수 있는 手段이 되고 또한 其他의 사람들을 그들이 願하는 方法으로 行動을 規律하는 手段이 된다. 그러므로 法은 不滅의 原理에 基礎를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特定時代에서 우리가 発見하는 理念에 立脚하게 된다.

이제 思考의 地位 法의 地位 그리고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의 正義槪念에 대한 地位가 각기 무엇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러한 分析의 全般的인 観点은 法이란 上部構造의 一部分 이라는 것이다. 法이란 実体的인 属性에 있어서의 어떠한 根本的인 것이다. 法이란 不滅의 形態로 存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不滅의 実体가 없기 때문이다. 法은 어디에서나 「이데올로기」적인 것이거나 혹은 理念的인 것으로서 存在하지 않는다. 実際로 그러한 理念들(法理念, 倫理理念, 宗教理念)은 항상 変遷하고 있다. 한 時代에 適切했던 것은 다음 時代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마르크스」主義가 試図하려는 것은 항구적이고 動態的인 社会의 展開가 存在하며, 이것은 厳格히 지켜지는 運動으로 이것을 저지할 方法은 없으며, 그러므로 理念들은 이 運動에 適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正義에 対한 論議 및 法에 대한 論議는 実際로 다음과 같이 要約해서 말할 수 있다. 즉 어떤 法的인 理念이나 혹은 正義와 権利의 理念- 이러한 理念들은 前期 資本主義時代나 아니면 그보다 더 以前에 適切했던 것으로서- 을 固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後期 資本主義時代에 살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생각을 反動的인 思考方式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思考란 지난날을 회상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継続해서 그는 그러한 正義 理念은 下部構造로서의 実体에 전혀 適応되지 못하며 그

러한 実体는 이미 오래前에 変更되었다는 간단한 理由로 이는 無益하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体制(Body)든지 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内在的인 技術의 論理 때문에 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제 「마르크스」理論에 있어서 理念의 全般的 役割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提起된다.

正義의 概念을 形成할려면 이것은 思考나 哲学의 問題라는 事実을 発見하게 되며, 이러한 事実을 안다는 것은 法에 관한 研究에 있어서 重要한 問題이다. 「마르크스」가 主張하는 것은 理念은 새로운 実体를 創造한 能力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実体를 創造해 내는 것은 歴史의 内的運動을 特徵지우는 内的論理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理念은 하나의 役割을 하고 있으며 理念의 役割은 歴史의 発生距離를 간단하게 短縮시키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社会의 運動構造 및 社会의 進行方向을 正確하게 分析할 때에는 이러한 理念을 使用하게 되는데, 이러한 理念은 過程을 促進시키는데 새로운 実体를 反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過程을 創造하기 위한 努力과는 같지 않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마르크스」는 「유토피아」哲学者들이나 善人(Do Gooders)들과는 많은 알력을 가졌다. 「마르크스」는 法의 機能은 単純히 物質的 秩序를 따르는 것에 不過하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主義者들의 初期 思考方式으로는 法은 明確하게 사상의 範疇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倫理 및 宗教와 더불어 거부되어졌던 것이다. 이는 経済的인 支配階級의 手中에 놓여져 있는 思考方式이라고 象徵되었기 때문이다. 法과 倫理 그리고 宗教는 強者가 弱者의 行動을 統制하는데 使用하는 技術이나 媒介体로서 생각되어졌던 것이다. 즉 強者는 弱者에게 正義, 倫理 그리고 宗教가 永遠不滅의 真理 및 信仰이라고 説明함으로써 弱者에게 圧力을 加한다는 것이다. 이제 「마르크스」主義者들은 모든 것은 唯物的인 本性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모든 것을 破壊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法的, 倫理的, 宗教的 思想의 本質을 変更시켜 버렸다.

소련에서는 初創期에 法은 하나의 범주로서 認定되지 않았다. 国家가

滅亡하는 것처럼 法은 消滅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즉 法은 여러 利害関係의 自動的인 調和를 위하여 簡単하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에도 社会主義時代가 끝나고 共産主義時代가 이루어질 때는 法은 아무런 必要도 없다는 생각이 소련의 思想家들의 法律理論의 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私有財産制를 廃止하면 階級闘争의 基礎가 除去되고 階級闘争이 없으면 支配階級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支配階級이 없어지면 法, 즉 経済的인 支配階級의 의사로서 正義되는 法은 必要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生産要素의 調和로운 関係로부터 도출되는 平和롭고 새로운 秩序가 기대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法基礎에 대한 唯物史観的이고 변증법적인 分析이 되는 것이다. 法概念을 다시 살펴보면 「마르크스」主義者들은 法의 根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充分한 그들 나름의 理論을 갖고 있다. 그 根源은 国家만도 아니고, 慣習도 아니고, 神도 아니며 그것은 自然, 즉 唯物的인 秩序로서의 自然人인 것이다.

強制性에 대해서는 共産主義者들은 변증법적 運動의 自然的인 進行過程을 저지하고 있는 反動勢力에 대항하여 統治의 実現을 위해서 強制力을 利用한다는 것은 대단히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法의 進行過程 및 目的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者는 完全히 새로운 社会를 創造하겠다는 概念을 역설해 왔었다. 소련의 最高裁判所의 長은 그의 演説에서 '法機能은 人間의 양심을 재생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만일 우리가 소련의 체제를 関聯지우면서 '法의 目的이 무엇인가'하는 質問을 한다면, 그들은 新社会를 建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人間을 만드는 것이 이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人間을 개조하면 新社会가 到来된다는 것이다. 刑法에 관하여 「가야카」教授는 犯罪는 不滅의 領域에 属하는 것이 아니라 社会構造에 따라서 必然的으로 나타나는 귀결이라고 主張하였다. 犯罪는 組織社会의 一聯의 귀결이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社会秩序에서는 犯罪는 除去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소련의 理論家들은 犯罪를 除去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人間을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人間을 만들기 위

해서는 社会를 改造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소련의 法은 새로운 人間을 創造하려는 극도의 意慾的인 企図이며, 바로 이것이 소련의 새로운 法理論이 되는 것이다.

7. 소련의 文化(프로그람 No. 33)

* 「쿨 스 키」 博 士

소련의 職業的인 政治家들은 文芸作家, 画家, 彫刻家, 作曲家 및 映画製作者들에게 芸術美의 基準을 指示하고 있다.

이 職業的인 政治家들이란 소련 共産党의 指導者들을 말한다. 그들은 왜 政治와는 거의 아무런 인연도 없다시피한 人間活動의 領域인 芸術에까지 介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들이 이런 態度를 갖는데는 두가지 理由가 있다. 첫째로 그들은 그들의 哲学인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幸福을 追求하기 위해 人類가 따라야 할 方向같은 人間의 마음을 언제나 사로잡는 모든 問題에 대한 完全하고도 전적으로 満足스런 해답을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党 指導者들은 이것이 絶対的 真理의 열쇠이며, 人類의 永遠한 幸福을 保障하는 技術的인 公式이라고 믿고, 自負하고 있으며 또한 自負하려 한다.

둘째로 그들은 이 絶対的인 真理를 밖으로 부터의 挑戦을 받음이 없이 保障하는 것이 그들의 義務이며 만일 必要하다면 소련市民들로 하여금 이 真理를 받아들이도록 強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보다는 소련市民들로 하여금 그들의 理念과 政策의 政党性을 마음속으로 부터 確信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共産主義 指導者들의 精神的 構造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正当性에 懷疑를 품게 만들거나, 그들의 主義 解釈에 異議를 提起하게 되는, 또는 그들이 政治的 理念의 公式的인 守護者라는 地位를 害치게 될 어떤 見解의 発表도 저지 또는 抑圧하기 위해서 思想을 厳格히 統制하는 것은 正当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 Wladyslaw W. Kulski : 「듀크」大学 「러시아」科 教授 「파리」大学 L.L.D 「폴랜드」外交官 歴任

만일 어떤 文芸作家에게 그의 非順応的인 見解를 発表하도록 許容된다면 그는 그의 독자들의 政治的 忠誠心을 뒤집어 엎을 것이고, 다른 어떤 政治的 선전책자 以上으로 効果的인 影響을 미칠지도 모르는 것이다. 소련 指導者들은 文芸作家들이 프랑스의 18세기 王党派政権을 타도시키고 또한 「러시아」의 「짜르」帝政을 顚覆시키는데 큰 힘을 発揮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文芸作家나 그리고 이들 보다 그 影響力이 조금 적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創作 芸術家들은 共産党의 일당독재에 대한 진정한 危脅的인 存在로 化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해 만일 그들이 党의 指令에 따르도록 厳格히 統制되고 強要되기만 한다면 그들은 説得을 위한 가장 有能한 道具 구실을 할 수도 있다. 그들은 党의 宣伝員으로 活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党이 그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그들의 社会的 役割이다.

「후르시초프」는 소련 文学을 共産主義 教育의 強力한 살아 있는 道具라고 말한 바 있다. 共産主義 教育의 이 산 道具들을 使用하고 있는 労動者들은 社会主義的 現実主義의 指標를 따르라는 指示를 間断없이 받고 있는 것이다.

社会主義的 現実主義란 바로 党路線을 말하며 그 뜻을 풀이하자면 그 内容은 좀 까다로워 약간의 説明과 敷衍을 必要로 한다.

芸術作品의 内容은 社会主義的이어야 한다. 小説이나 詩, 映画, 絵画, 彫刻, 「오페라」등 그 어느 것도 모두 党의 理想을 表現해야 하고 이밖의 党의 모든 見解의 正当性을 묘사해야 하며 大衆으로 하여금 党을 熱狂的으로 支持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진정한 社会主義的인 小説이라면 그 小説의 主人公과 悪役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明確히 돋보이게 해야 한다. 英雄的인 小説의 主人公은 직면하는 모든 問題에 対한 賢明한 解決策을 찾아내는 熱誠的인 党員일 수도 있고, 外国侵略者와 맞싸우는 두려움을 모르는 빨치산투사일 수도 있

으며, 또는 보다 많은, 보다 좋은 生産増加를 위해 献身하는 工場労動者거나 外国間諜을 摘発해내는 경각심 높은 한 市民일 수도 있다.

소련市民들의 精神을 害치고 소련市民의 安全과 福祉에 害를 加하려는 悪人의 役割은 美国人間諜이나 또는 소련의 腐敗한 官吏 또는 外国通貨의 投機를 일삼는 유태교의 信徒에 의해 연출되어진다.

「스탈린」時代에는 作品의 줄거리는 마치 西部活劇 모양 単純 明快했었다. 즉 主人公들은 티하나 없는 完全無欠한 사람이며 悪人은 道徳的으로 치사스런 人間이었다.

오늘날에도 共産主義者들은 窮極的인 犠牲者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긴하나 現時点에서 소련文学에 登場하는 人物들의 性格은 전보다는 心理学的인 面에서 더 複雑하다.

党은 作品의 主人公들이 그들 自身의 人間的인 弱点을 가지고 있더라도 文芸作品들이 政治教育의 効果的인 手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理解하고 있다. 勿論 그렇다고 主人公의 人間的인 弱点이 그의 美徳보다 더 커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悪役에 있어서도 그가 魅力的인 精神的 特徴은 하나도 없는 마치 悪徳의 化身과 같은 存在로서만 登場시킬 必要는 없다는 것도 깨닫고 있다.

文学과 芸術의 任務는 前보다는 좀더 精巧한 손질이 加해지고는 있지만, 그 任務는 前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現代芸術에 있어 그들 作品에 社会主義的인 内容을 담는 것만으로는 充分치 않다. 이 作品들은 同時에 現実主義的이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의 芸術指標는 두가지의 뜻을 内包하고 있다. 즉 内容에 充実하면서도 党이 禁하는 自然主義와 混同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自然主義的이라 한다면 소련의 現実을 되도록 真実되게 되도록 完全하게 묘사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모스크바」의 貧民層을 그려낸다면 그 그림은 自然主義的인 그림이 될 것이다. 독자들에게 소련農民의 絶望的인 生活을 紹介해 주는 小説은 自然主義的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될 것이다.

党은 다음과 같은 말로 現実主義를 定義하고 있다. 즉 文芸作家나 다른 芸術人들이 表現하는 전형적인 대상은 現代 소련生活의 흔한 平均的인 단면이 아니라, 전형적이면서도 異例的인 것 다시말해서 未来의 소련社会의 一般的인 様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異例的인 断面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未来에 対한 楽観的인 展望을 現実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것과 재치있게 混合을 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이 現実主義의 内容이다.

따라서 画家들에게는 画幅위에 「모스크바」의 새로운 街路에 솟아오르는 「아파트」건물군을 그려내되 아직도 콩나물시루 같은 貧民窟의 참상같은 것은 그리지말라고 勧告된다.

悲観主義는 어떤 경우이든간에 소련의 文学이나 芸術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 즉 文学이나 芸術은 人類를 위해 光明스런 未来를 建設하고 있는 社会와 마찬가지로 楽観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市民은 기꺼운 마음으로 未来의 理想社会의 초석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으로 想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芸術人들의 支配的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劇作家나 小説家들은 自己分野에서 순전히 個人的인 感情을 心理的으로 解剖하고 分析하는 부질없는 일에 時間을 浪費해서는 안된다. 作品主人公의 個人的 感情이나 作品의 줄거리는 소련의 現課業과 密接히 連結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個人主義的인 叙情詩가 소련에서 歓迎받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現実主義는 芸術作品의 形式에 関係되는 또 하나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 党은 文学과 芸術의 主要課業은 党의 理念을 大衆에게 伝達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党은 文学과 芸術이라는 경로를 통해 社会의 모든 層에 党의 理念이 스며들기를 願하고 있다. 党은 社会에는 知能이 좀 높기도 하고, 知能이 좀 낮기도 한 여러사람들이 同時에 並存하고 있다는 事実을 外面하고 있다.

文芸作品이나 芸術作品 또는 作曲된 音楽들이 오로지 巨大한 하나의 大

衆만을 위해 存在하는 것이라는 党의 생각 때문에, 党은 党의 政治的, 理念的「메세지」를 소련의 모든 市民에게 쉽게 明確하게 伝達하지 못하는 모든 芸術 形式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놓이게 된다. 소련의 作家들이나 芸術家 및 作曲家들은 党 指導者들에게 서로 相違한 趣味를 가진 여러 種類의 사람들이 存在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 次例 試図했으나 끝내 成功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抽象化나 추상파의 彫刻 또는「멜로디」없이 音만을 위주로 하는 音楽等 現代의 전형적인 芸術形式들은 象徵詩가 禁止 当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理由로 糾弾을 받고 있다.

党路線으로 부터 離脱한 모든 現代的 芸術形式은 「現実主義」와의 極을 이루고 있는 「形式主義」라는 이름밑에 한묶음으로 処理되고 만다. 그 結果 西方世界에서 가장 流行하고 있는 芸術形式들은 소련의 創作活動家들에게는 건드려서는 안될 禁忌가 되어 있다.

「후르시쵸프」는 1957年과 1963年에 또다시 抽象芸術과「멜로디」없는 音楽에 대한 強力한 파문선고를 言渡했다.

이러한 点에 있어서 그는 여전히 진정한 意味의 「스탈린」主義者였다. 이같은 態度는 또한 党指導者들의 個人的인 趣味 性向에서 연유되는 面도 있었다. 即 「스탈린」이나 「후르시쵸프」도 抽象的인 그림이나 彫刻 또는「멜로디」없는 作曲같은 것에 魅力을 느낄 위인은 못되었다. 党指導者들은 그들의 個人的인 趣味를 創作家나 소련社会의 보다 知能이 높은 市民들에게 強要하는데 있어 그들의 無限한 政治権力을 행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死後, 党路線의 이같은 빡빡한 올가미로 부터 벗어나려는 소련作家가 芸術家들에 의한 企図가 여러 次例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소련市民들이 그들 指導者들의 취향과 軌道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党의 態度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거나 監視의 눈길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그때마다 抽象派의 그림이나 彫刻들이 갑자기 展示場에 얼굴을 내밀곤 했다.

党이 바라는 것보다 좀더 複雜한 方法으로 소련의 生活을 묘사한 映画들이 製作되기도 했다. 그리고 作曲家들은 現代의 西方音楽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音楽을 公表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一部의 作家나 芸術人, 音楽家들 가운데 이런 離脱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들이 国立出版社의 検閲官이나 文芸, 音楽担当 編輯人 또는 評論家들 사이에 동조자들을 発見했기 때문에 可能할 것이라는 짐작이 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党은 大衆과의 모든 接触通路를 直接, 間接的으로 統制하고 있다. 만일 党이 党의 命令에 대한 芸術人들의 完全한 服従을 強要하지 못하는 일이 간혹 있다면, 이는 離脱主義者的인 見解가 党員들을 包含하여 소련의 많은 市民들에 의해 受諾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党指導者들이 다른 問題에 골몰해 있을 때마다 党의 一部 検閲官들이나 原稿作成者들 또는 芸術人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創作을 하게 된다. 統制緩和의 時期에 뒤이어 党의 雨雷와 같은 非難과 보다 厳格한 党路線이 施行되는 時期가 틀림없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면 芸術界는 또다시 꼼짝없이 服従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당의 厳한 경고에 대한 반대자들은 침묵으로 이에 対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 있는 作家나 芸術家들은 입을 다무는 대신 그들 作品의 出版이나 発表를 保留하게 된다. 그들은 信念에 反하여 당이 정해준 厳格한 芸術的 基準에 따라 일하지 않을 수 없는 탐욕적인 技能工의 신세를 受諾하느니 보다는 오히려 大衆으로부터 격리되는 쪽을 択한다. 一例로 党의 検閲官이 原稿内容의 修正을 要求할 경우 国立出版社나 文芸雑誌에 原稿를 내기보다는 外国作品의 翻訳으로 부터 들어오는 収入에 依存하려는 作家들도 있다.

党은 이런 침묵형태의 항의를 달가워하지 않으며 침묵도 반대의 한 형태라고 말한다. 「스탈린」死後에는 순응하는 作家와 芸術家의 지원을 받고 있는 党과 한편 党의 기분이 暫定的으로나마 좀 누그러졌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들의 見解를 감히 主張하고 대담하고 創造的인 精神을 가진 사

람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일종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는 党이 勇敢히 내세우고 있는 19세기식 西欧의 芸術基準과 오늘날의 西方世界의 芸術風潮 사이의 하나의 対決이다. 언제나 걸핏하면 革命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 좋아하는 党도 芸術形式에 있어서의 革命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후르시쵸프」의 어떤 후계자라도 「멜로디」없는 音楽이나 추상파 芸術을 그가 지원해 주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質問에 답변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 党指導者도 이를 党의 하나의 公式路線으로 정해버리므로써 소련市民들에게 그의 個人的인 趣味를 強要하려 할 것이 아닌가 하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美에 대한 党의 基準이 이제는 거꾸로 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도 새로운 党路線은 継続해서 芸術的 創作의 自由를 制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重要한 것은 文学이나 芸術에 있어서의 이같은 制約, 즉 이같은 党路線이 存在하고 있다는 바로 그 事実이다. 이것은 党이 어떤 特定한 美의 基準을 強要할 것이냐 하는 그 基準 自体보다도 더 重要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党은 作家, 芸術家, 作曲家들로 하여금 党의 의사를 尊重토록 強要하는데 있어 두가지 手段을 使用하고 있다. 소련経済는 전적으로 社会主義経済이기 때문에 党은 直接, 間接的으로 唯一한 雇傭主이며, 또한 唯一한 돈 많은 顧客이다. 소련에는 民間人의 出版社나 新聞, 文芸雑誌 또는 個人所有의 화랑이나 美術舘 演奏会場도 없다. 모든 것이 党員들의 管理下에 있는 것이다. 党路線에서 離脱한다 하여 당장에 刑務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国家機関도 그의 원고를 받아주지 않으며 그의 戯曲作品을 상연하지 않으며 公共美術舘을 위해 그의 그림을 사려고 하지 않고 공원에 세우기 위해 그의 彫刻을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作曲作品을 演奏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報復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아무런 報酬도 못받게 되고 그의 재능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면서 그의 生計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虛送歲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자기를 알아줄 大衆으로 부터 절연당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소련의 作家들은 그들의 小說이나 戱曲의 원작이 党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党의 要求에 머리숙여 內容을 修正하게 되는 理由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罪지은 芸術人들을 회개케 하는 다른 方法은 党이 組織한 大衆压力을 동원하는 일이다.

만일 당이 어떤 芸術作品을 정말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党은 성토운동을 일으키는데 着手한다. 作家, 芸術家의 職業同盟이나, 文芸誌, 일간신문 등이 일제히 非難의 소리를 지르면 그것은 마치 훌륭한 指揮者가 演奏하는 交響曲과도 같다.

罪를 진 芸術家는 이렇게 시끄러운 公開的인 批判에 놀라자빠지게 된다. 結局 단죄의 분위기가 造成되며 罪人은 그가 동포들로 부터 絶緣되고 孤立되었으며 의지할 곳 없는 処地에 빠졌다고 느끼게 된다. 흔히 이런 芸術人들은 公開的으로 悔改를 하고, 속마음으로 부터 그렇게 생각하건 안하건 간에 다시는 같은 罪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誓約을 하는 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역설적으로 들릴런지는 모르지만 소련作家나 芸術家들은 「스탈린」의 生存時에는 소련에서 마음대로 行動할 수 있었다. 美에 대한 「스탈린」의 基準은 1946年과 1948年에 党中央委員会가 採択한 결의속에 정식으로 明確하게 定義되어 있었다. 그 길은 좁긴 했으나 明確히 方向은 나타나 있었다. 「스탈린」의 意思를 거역하면 危險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党路線은 「스탈린」治下 때와 根本的으로 同一하나 緩和의 時期에 뒤이어 嚴한 統制의 時期가 뒤따르곤 하는 바람에 가장 忠誠的인 소련市民까지도 어리둥절해질 판인 것이다.

소련作家나 芸術家들은 党이 芸術的 離脱에 대해 어느만큼 눈을 감아줄 用意가 있는 것인지 또는 1957年과, 1962年 부터 1963年 사이에 「후르시쵸프」가 突然히 그랬듯이 党이 언제 또 채찍을 휘둘르려할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現時点은 소련文学과 芸術에 대한 統制의 行政機構를 再補強하려 하고 있는 그런 時点일런지도 모른다. 「후르시쵸프」는 1963年에 個人崇拜思想이 糾弾되었다 해서 이는 自発的 行動의 時期가 도래했다거나, 政府의 統制가 늦추어졌다거나, 社会라는 배가 目的없이 파도 위를 방황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기분에 따라 行動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反対로 党은 이미 樹立해 놓은 政策을 間断없이 단호하게 施行하고 있으며 党은 모든 理念的 離脱에 대해 추호의 타협도 없는 態度로 任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西方諸国과의 関係에서 주의를 게을리하면 새로운 물결과 함께 形式主義的 思潮가 스며들고 마침내는 西方社会의 理念이 浸透하게 될 것이라는 点이었다. 그가 숨기려하지 않았던 그의 이같은 念慮는 그의 理念이 西方世界에 대해 勝利할 것이라는 그의 자랑섞인 例言과는 좋은 対照를 이루고 있다.

한편 소련文学은 党이 감추려고 하는 共産主義 生活의 이같은 局面에 새로운 각광을 비춰주고 있다. 一例로 몇개의 小説이나 映画들은 이른바 父子間의 알력이 소련안에 存在하고 있음을 들어내고 있다. 이는 旧世代에 대한 新世代의 一般的인 항거 以上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또한 소련 青少年層에 理念的인 方向感覚 상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映画의 다음과 같은 場面이 諸般의 사정을 잘 말해 줄 것이다. 이 映画의 主人公인 한 青年이 二次大戦中 戦死한 그의 아버지를 꿈에서 만나본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젊은 兵士로 戦死했을 때의 나이로 나타난다. 아버지와 子息의 対決이 펼쳐지며 두 젊은이의 얼굴이 서로 마주

보게 된다. 이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人生의 보람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方向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걸게 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조롱하듯 자기 아들에게 나이가 몇이냐고 묻는다. 22세라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나는 不過 20세라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하고 助言을 해줄 수 있겠니'하고 아버지는 말한다.

20세는 그의 아버지가 戰爭에서 죽었을 때의 나이였다. 이렇게 해서 이 젊은이의 꿈은 끝나는데 여기서 젊은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內容의 뜻은 자명하다. 길잡이를 위한 助言을 늙은 기성세대에게 기대하지 말고 너희들 人生의 길을 스스로 찾아내라는 것이다.

党은 이 映画가 소련 青少年들의 精神을 害치는 것이라고 糾弾할 뿐만 아니라 「스크린」에 野蛮的인 光景을 登場시켰다고 호통을 친다. 党이 이처럼 怒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않다. 党 指導者들은 모든 問題에 对한 解決策을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기성세대의 人物들이다. 소련의 젊은이들이 挫折感을 느낄 必要는 하나도 없는 것이며 그들의 앞길은 賢明한 党指導者들에 의해 그들에게 곧바로 明示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党은 父子間의 알력이 있다는 것을 積極 부인하는데 이에는 이밖에도 政治的으로 重要한 理由가 있다.

党은 소련市民의 아버지라고 부르던 「스탈린」에 대한 限없는 信頼를 젊은이들 가슴속에 거의 30年 동안이나 심어왔으며 소련의 많은 젊은이들은 党의 말이 진실이라 믿어왔고 「스탈린」이야말로 人民에 对한 사랑과 智慧의 化身이라고 믿어온 것이다. 그러나 党이 「스탈린」의 罪状을 폭로하자 이는 큰 衝擊을 가져왔고 그 餘波는 오늘날에 까지 아직 그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当然히 이렇게 自問自答하게 될 것이다. '만일 「스탈린」조차도 罪를 저질렀다면 왜 党은 国民들로 하여금 그를 崇拜하도록 만들었으며 現在의 指導者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탈린」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에 못지 않게 賢明하다는 保証은 어디 있는 것이냐'고

文学이나 芸術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判断하건대 소련社会는 「스탈린」 治下와 같은 劃一主義의 말없는 공동묘지와 같은 存在는 아니다. 党이 統制를 늦추면 그때마다 반대의 소리가 들여오는 것이다.

소련의 知識人들은 年前보다는 다스리기가 더 어렵게 되었으나 党의 路線은 前과 다름이 없다. 社会主義的 現実主義가 継続해서 판을 칠 것이며 西方世界의 形式主義는 禁止되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소련의 作家나 芸術家들은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려하고 党이 치명적인 罪에 해당된다고 看做하고 있는 일들을 저질러 보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8. 소련의 宗教(프로그람 No. 34)

*「서 한」博 士

宗教에 对한 共產主義者들의 態度는 明確하고 決定的이며, 「마르크스」로 부터 「후르시쵸프」에 이르는 모든 高位 指導者들에 의해 同一한 말로써 疑心할 나위없이 뚜렷이 表現되고 実証되어 왔다.

共產主義는 無神論的이다. 共產主義는 첫째로 「마르크스」가 採択한 窮極的인 立場에서 科学的 唯物論은 神의 概念과 両立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힌 点으로 보아 無神論的이다. 둘째로 共產主義者들은 宗教는 해로운 것이며 이 地球上에서 抹殺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共產主義는 宗教에 대해 特別한 敵意를 품고 있으며, 宗教에 관해 말할 때는 가장 거리낌 없는 辱說을 퍼붓고 있다. 그 몇가지 実例를 든다면 「칼·마르크스」는 「헤겔」의 哲学에 対한 그의 批判에서 1884年에 그의 基本的인 態度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즉 '宗教의 一般的인 命題는 진정한 幸福을 追求하는 사람들에게 幸福의 환상을 주는 것으로서, 宗教는 抑圧된 人民의 신음소리이며, 無精神의 状況 속에서의 精神이 진정한 精神인 것 처럼 無情한 世界의 따뜻한 마음이며 그런 뜻에서 宗教는 人民의 아편이다.'

「레닌」도 <社会主義와 宗教>라는 그의 基本的인 저서에서 1905年에 이 아편론에 대해 言及하면서 "宗教는 일종의 精神的인 동굴로서 資本의 奴隷들인 人間이 그의 人間으로서의 形体를 여기에 파묻고 한 人間으로서 살 수 있는 그들의 어떤 權利도 이 속에 파묻어버리는 그런 동굴과 같은 存在'라고 부연했다.

---

* Ewing P. Shahan: 「벤더빌트」大学 経済学 教授
「콜럼비아」大学 Ph.D.
「共產主義 및 立憲民主主義研究所」 所長

「후르시쵸프」도 1958年에 이보다 한술 더뜬 말을 했는바 '나는 神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概念으로 부터 나를 解放시킨지 이미 오래다. 나는 科学的인 観点과 科学을 信奉한다. 信仰과 초자연적인 힘은 우리가 科学的인 意見을 初志一貫해서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必然的으로 서로를 排除하게 되는 서로 融和될 수 없는 見解들이다'라고 말했다.

宗教에 대한 共産主義者들의 態度는 어떠한가? 먼저 共産主義의 指導的인 思想家들이 神의 存在를 否認하려들지는 않았으며 그들의 主張을 展開함에 있어 無神論을 出発点으로 삼지 않았다는 事実에 유의할 必要가 있다. 그것은 神의 存在를 처음부터 否認하려 들면 그들이 내세우고저 하는 다른 一部의 立場들과 상충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마르크스」自身에게서 매우 明確하게 볼 수 있다. 「마르크스」의 表現에 따르자면 共産主義의 核心에는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勝利를 구가하는 唯物論的 人間主義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唯物論的 人間主義라 함은 人間을 하나의 中心体로 보고 人間을 中心으로 해서 人間의 無条件的인 自己 主張과 自己 決定을 集中的으로 完成시켜 나간다는 뜻이다. 이는 神의 보다 높은 目的과 精神的인 命令에 따라 人間에게 주어진 모든 구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버리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人間이 唯物論의 기반에 서서 人間의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는 人間理性의 可能性을 無制限的으로 信奉하는 立場으로, 人間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를 觀察함으로써 얻는 知識으로 人間의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는 信念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도 물론 科学을 믿으며 이 点에 있어서는 共産主義者들의 立場과 같고 科学으로 人間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는 点에 대해서도 共産主義者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強力하고도 重要한 보람있는 時代運動의 물결을 탄 것으로, 다시 말하면 人間이 必要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고, 地球上에서 삶을 営為하는 人間을 추적하면

서, 科学의 手段으로 人間環境을 改善해 보자는 現在 人類의 心的態度를 말해주는 것이다.

共産主義는 이같은 強力한 見解를 표방하여 많은 信奉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共産主義는 이 위대한 真理의 局所的인 部分만을 狂信的으로 고집하는 나머지 全体 真理를 변형시키고 歪曲시키고 있는 것이다. 共産主義는 구속받지 않는 人間主義의 勝利이며 共産主義는 人間自身을 神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人間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宗教란 科学처럼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宗教는 強力한 歷史的인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宗教의 存在를 適当히 証明해 두는 것이 重要해진 것이다. 「엥겔스」는 이같은 点을 아주 包括的으로 表現했다. 그는 宗教의 役割은 人間의 生命을 統制하고, 人間의 一生 中 거의 언제나 人間을 괴롭히고 있는 人間周囲의 強力하고도 신비스러운 힘을 操縦하고 人間을 이 힘에 適応시키는 하나의 手段으로서의 口実을 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었다.

人間社会의 初期段階에서는 이것은 바로 自然世界의 힘이었다. 그러나 近代社会에서는 이 힘은 무수한 社会의 힘, 社会의 諸勢力이며 만일 社会가 人間에 대해 고통을 주는 存在로서의 状態를 멈춘다면 — 事実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社会는 人間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 그 때는 宗教는 必要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보고 있었던 것이다.

「엥겔스」는 原始基督教는 로마제국의 탄압과 학정속에서 벗어나려는 過程에서 発生한 것이라고 説明하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이렇게 되면 宗教는 真実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宗教는 害로운 存在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는 共産主義者들은 온화한 学文的인 思考의 面에서는 無神論的이 아닐지 모르지만 戦闘的이며 攻撃的인 面에서는 無神論的이라는 말이다.

共産主義는 地球上에서 일찌기 감행된 것으로는 가장 大規模的이고 잘 組織된, 그리고 가장 무자비한 反宗教的인 運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骨髓共産主義者들은 宗教란 다음 3가지 理由로 해서 害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宗教는 欺瞞的이라는 것이다. 宗教는 人間을 속이고 人間을 거짓으로 끌고가는 것으로서 「엥겔스」의 表現을 빌리자면 '非現実을 극적으로 反映한 것'이기 때문에 人間의 視野를 가리고 이를 흐리게 하며 唯物論을 통해서 発見할 수 있는 진정한 真理를 発見하지 못하도록 人間을 放害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에 따라 共産主義者들이 宗教에 対한 毒舌을 퍼붓는 것으로서, 共産主義者들은 宗教란 社会의 支配階級이 이른바 被搾取階級들로 하여금 그들이 階級的 位置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 利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宗教는 人間을 謙遜하고 服従的으로 만들며 이 때문에 오른 빰을 맞거든 왼빰을 돌려대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宗教는 現在의 問題에 대한 觀心을 딴 곳으로 쏠리게 하고 그들의 難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세상에서나 可能한 것 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부르죠아」社会에 대한 이러한 論調의 아주 재미있는 論議를 展開해 나가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위대한 運動이든 그 初期段階에는 唯物論이 基本的인 哲学의 바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부르죠아」階級이 權力을 掌握하고 있던 17, 18세기에도 그러했다고 보고있으며 이같은 立場을 여러가지 引用으로 자랑삼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継級도 일단 權力을 掌握하게 되면 宗教를 그들의 地位를 強化시키고 抑圧된 階級을 支配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이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돈을 들여가며 宣教活動이나 YMCA 運動 또는 그 밖의 여러가지 活動에 자금을 供給해 주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부르죠아」階級이 19世紀 中葉에 이르러 특히 労動者들의 革命 以後에 物質主義를 抛棄하고 宗教를 全的으로 떠받

들기 시작했는 바, 이는 이것이 그들에게 有利할 것이라고 判断했었기 때문이라고 論하고 있다.

「레닌」도 그의 <社会主義와 宗教>라는 저서에서 이에 덧붙여 그의 혹독한 論評을 加하면서 「부르조아」階級은 무산계급을 쇠사슬에 묶어두기 위해서 宗教를 利用하며 이는 宗教가 搾取階級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論했다.

그는 그의 저서 <社会主義와 宗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남의 労動을 利用해서 生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남을 부려먹는 동안 자선을 베풀라는 가르침을 宗教에서 배웠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搾取階級으로서 그들의 存在를 正当化시킬 수 있는 값싼 方法을 얻게 되는 것이며 宗教를 하늘의 福을 누릴 수 있는 入場券으로서 適当한 값으로 販売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세째로, 宗教는 人間을 人間으로 만들어주고 人間을 人間으로서 完成시키는 길을 막기 때문에 共産主義者들의 見解로 볼때 害로운 存在이다. 이는 人間이 宗教 때문에 그의 救援이나 또는 人間 스스로가 解決해야 할 問題의 解決策도 人間에게서 求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神에게 依存하려 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戦闘的인 無神論은 共産主義 주위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共産主義의 바로 核心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共産主義가 神의 存在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뒤집어엎는 結果가 될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이 宗教에 대해 그처럼 도전적인 態度로 나오는 基本的인 理由가 바로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다.

根本的인 問題는 과연 神이 存在하느냐에 있다. 神이 진정 存在한다면 共産主義者들의 態度와 政策에 全面的인 変化가 일어날 것이며, 「마르크스」主義者들이 分析하는 것과 같은 自然이나 人間의 必要性같은 것은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問題는 그러한 自然이나 人間의 必要性이 除去된다는 것이 아니라 神과 격리되어 있다는 뜻이며 그 解決策은 財産權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神과 함께 더부러 있었다는 뜻이다.

만일 神이 存在한다면 唯物論은 明白히 真実이 아니다. 神이 만일 存在한다면 어떤 法律이나 歷史도 人間의 運命을 左右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神이 있다면, 그리고 神이 정녕 우리 생각하는 대로의 神이라면 共產主義 倫理는 宗教倫理의 面에서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며 宗教的 倫理 原則을 언제나 위배하는 行動으로서 宗教的 目標에 到達하기는 不可能한 일이 될 것이다.

만일 神이 存在한다면 選択받은 党의 「엘리트」들에 의해 世界를 千年至福의 状態로 끌고간다는 共產主義의 指導概念도 아무런 意義가 없는 것이 되고만다.

지금까지 考察한 바에 의해서 宗教는 完全히 말살되어야 하며 共產主義者들은 宗教와 어떤 最終的인 妥協도 할 수 없다는 것이 共產主義者들의 窮極的인 政策이라는 事実이 完全히 明白했졌다. 宗教가 人間生活의 影響力 있는 하나의 要素로 남아 있는 限 共產主義의 新世界는 実現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異論의 여지가 없는 바이긴 하나 宗教에 対한 共產主義 政策은 微妙하고도 가끔 알쏭달쏭했으며 때로는 共產主義가 宗教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 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 것일까? 첫째로 共產主義者들은 宗教에 대해 忍耐心을 가질 用意를 갖추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이른바 그들의 말대로 社会를 抑圧된 状態로 부터 ── 이 抑圧状態가 宗教를 発生시키는 것이지만 ── 完全히 改革하고 나면 人間은 더 以上 宗教를 必要치 않게 될 것이라는 完全한 自信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宗教도 国家처럼 消滅될 것이며 共產主義者들은 宗教의 消滅展望에 対해서는 完全히 자신만만하다.

이밖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순교자를 길러내게 되면 宗教를 오히려 強化시키게 된다는 危険性을 지적하고 있다. 「엥겔스」는 1847年에 그의 亡命中에 쓴 저술에서 '오늘날 神에게 바칠 수 있는 唯一한 奉仕는 無神論者임을 公言하는 일이며, 그렇게 되면 強制信仰의 条項들이

생겨날 것이나, 그럴 경우 宗教를 全般的으로 禁止시킴으로써 強制信仰의 많은 法律들을 無色케 만들어 버리는 일' 이라고 까지 말한 일이 있다.

「엥겔스」는 宗教란 人間이 逆境에 처해 있음을 発見할 때 発生하는 것으로서 人間을 둘러싼 이 逆境의 環境이 除去되기 전에는 人間은 宗教로 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宗教에 対해 忍耐心으로 임해야 했으며 宗教를 強化시켜 주는 効果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일 등을 避하려고 한 것이다.

다음의 要素는 물론 戦略的인 性格의 것이다. 무엇보다도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이 社会에 対한 支配権을 維持할 수 있는 立場을 固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見地에서 그들은 너무 조급하게 宗教와 싸움을 벌이면 그들의 権力掌握과 権力維持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執権中인 共産党은 宗教를 人民의 生活로 부터 除去시키려는 그들의 圧力을 결코 緩和시키지는 않으나, 이 窮極的인 目的達成을 위한 노골적인 手段으로 부터 가끔 아주 顕著한 後退를 하곤 한다.

共産党 戦略의 마지막 要素는 現存하는 宗教나 宗教機関과 한동안 共存해야 겠다는 그들의 実質的인 必要性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들은 可能한 限에 있어서는 教会들을 党의 目的을 위해 利用하려 한다.

「러시아」正教会에 対한 소련共産党의 態度가 現在 바로 이러한 것으로 보이며, 소련共産党은 「러시아」正教会의 存在를 묵인 乃至 奨励하며 이를 共産党의 目的을 위해 利用하려 하고 있다. 이와 同時에 다른 考慮는 차치하고라도 어떤 宗教나 宗教団体들이 現実的으로 共産党의 位置나 共産党의 核心的인 政策들에 威脅을 加하면 共産党은 언제나 이같은 宗教団体에 무자비한 反擊을 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련내의 宗教에 対한 共産党의 手法을 考察해 보기로 하자. 共産党은 権力掌握前이나 심지어는 権力強化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조차도 宗教에 반대하지 않으며, 어쩌면 宗教에 賛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주려고 애써 왔다는 事実을 먼저 注目해야 한다.

즉 소련 最初의 憲法에는 宗教에 대해 매우 好意的인 것처럼 보이는 条項이 들어 있었다. 中国에서도 2次大戦後 人民解放軍이 征服者로서 南進을 할 때 言論, 出版 其他의 自由와 함께 宗教의 自由를 宣言하는 告示를 나붙였었다. 그러나 共産政権이 権力을 掌握하고 그들의 位置가 安定되었다고 느껴지자마자 그들은 언제나 迅速, 強力히 宗教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理念的인 理由에서 뿐만 아니라 共産党에 対한 反対勢力의 核心이 될지도 모를 자기의사 決定을 하는 어떤 集団도 그들 社会안에 存在하는 것을 許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1917年의 革命後 소련에서 처음으로 起草된 憲法에는 유명한 第13条가 들어 있는데 이 第13条는 宗教의 自由 및 反宗教的 宣伝의 自由를 保障한 것으로서, 그 内容은 宗教의 自由와 反宗教的 宣伝을 같은 차원위에 함께 올려 놓자는 것으로 보였었다. 事実에 있어서는 이 条項의 真正한 意図는 反宗教的 宣伝을 즉각적으로 開始하려는 「레닌」의 意図를 反映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条項의 生命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29年에 憲法改正案이 採択되어 原条項은 「宗教的 礼拜와 反宗教的 宣伝의 自由」를 주는 것으로 修正되었다. 이는 소련憲法의 宗教에 관한 条項으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뜻은 어떤 団体라는 直接的으로 宗教的인 礼拜行事를 하는 것은 自由이나, 그들의 見解를 宣伝하거나 増進시키는 自由도 없고, 国家가 宗教에 대해 조심스럽게 遂行하고 있는 反宗教的 宣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自由도 없다는 뜻이다.

初期 憲法에 나타났던 全般的인 語調에도 不拘하고 소련共産党은 権力을 잡은 直後인 1917年부터 1922年 까지의 期間동안에 宗教団体들에 対해 厳格하고도 決定的인 反対態度로 나아갔다. 이때 共産党이 採択한 措置들이란 教会의 教育的, 知性的 影響力을 可能한 限 国家에 完全히 隷属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過程에서도 党은 迫害를 加한다는 인상을 주기를 피했는

데, 教会에 対해 여러가지 날조된 告発과 非難을 퍼부으면서도, 이는 주로 宗教的인 것이 아닌 問題에 対한 告発과 非難을 일삼았던 것이다. 이런 것이 初期의 主要措置들이었으며, 한편 이런 措置들을 당한 教会들은 大部分 그 規模가 縮小된 채로 소련의 正式 宗教団体로서 오늘날에도 그 命脈을 維持하고 있다.

첫째로 党은 初期에는 보상없이 教会의 모든 資産을 没収했다. 地方의 宗教集団들은 남아있는 教会建物들을 純全히 礼拜를 위해서만 使用할 수 있게 許容되었다. 教会内의 位階関係를 破壊하기 위해서 地方의 信徒들이 소련안에서 教会의 資産을 使用할 수 있는 者라고 인정을 받는 限度内에서 教会建物들은 地方의 信徒들을 代表하는 소수의 集団에게만 대여되었다.

둘째로 地方의 信徒集団들과는 別途인 僧院이나 그 밖의 모든 宗教集団들을 閉鎖시켰다. 이것은 오랜 闘争을 必要로 했으나 数年内에 이같은 団体들은 自取를 감추고 말았다.

다음으로 教会任員들이나 僧侶, 牧師들은 微微한 地位로 그 社会的 地位가 格下되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方法들이 使用되었으니 즉, 그들에게는 投票権을 주지 않았다. 하기는 投票権이란 共産社会에서는 별다른 権利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食糧配給権도 타지 못했고 나온다 해도 그 食糧権은 等級이 가장 낮은 것이었다. 그들은 労動組合에도 加入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없으며 生計의 手段을 그의 信徒들로 부터의 補助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엄청나게 増大 賃貸料와 税金을 내야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뼈아팠던 것은 그들의 子女를 中学校나 大学에서 工夫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処事였다. 이같은 経済的 制約과 差別은 가끔 저명한 一般平信徒들에게 까지 拡大 適用되었다.

다음으로 宗教에 対한 講義가 国公立 또는 私立学校에서 禁止되었다. 이로써 教会가 후원하는 学校들이 더 以上 存在할 수 없게 되었으며, 모든 公立学校에서 宗教科目이 廃棄되었다. 僧侶와 牧師들의 養成目的만을

위해 몇개의 神学校들이 特別許可로 存続이 許容되었다.

끝으로 教会에서의 結婚이나 離婚은 소련에서 法的인 認定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1921年에 共産主義로 부터의 一歩後退인 것 처럼 보였던 새로운 経済政策이 採択되었을 때, 이에 대한 部分的인 理念上의 補償인양 宗教에 대한 가열하면서도 위장된 攻撃이 開始되었다. 教会나 国民들에게 값이 나갈 수 있는 그들의 모든 貴重品을 国家에 提出하라는 命令이었다. 이에는 自然히 教会의 거의 모든 聖器類도 包含된다. 国家에 의한 이같은 没収의 표면상의 理由인 즉 기근상태의 同胞의 救済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当然히 教会의 任員들은 이에 抵抗했다.

그러자 그들은 裁判에 회부되었으며 이러한 大大的인 엉터리裁判은 그후 어느 곳에서나 宗教에 対한 共産主義 政策의 一部로 化한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런 裁判 가운데의 하나가 1922年 「모스크바」에서 열린 54人 裁判事件으로서 이때 裁判에 回附된 被告의 大部分은 処刑되었으며 많은 教会人들이 処刑, 追放 및 投獄 등으로 粛清되었다.

이 期間동안에 소련共産党은 또 하나의 전형적인 수법을 試図했는데 그것은 党의 支配를 받고 公式的으로 党에 의해 支援되는 競争的인 位階関係를 만들어 教会를 이들로 하여금 管掌케 하는 것이었다. 1922年에 이런저런 理由로 「러시아」正教会에 反対하고 있던 人士들로서 現代教会 (Living Church)가 創設되었다. 共産諸国에서의 여러 경우에 있어 이같은 官에 의해서 設立된 教会들의 責任者로는 本来의 教会에서 破門을 당했던 사람들이 들어 앉거나 一般 平信徒나 品性이 疑心될만한 사람들이 들어 앉았다.

이 政策을 遂行하기 위해 現代教会가 일단 創設되자 소련国家는 教会建物들을 押収하고 이를 国立教会의 任員들에게 移譲했으며 数万의 聖職者, 僧侶, 牧師들을 내쫓고는 国家의 앞잡이인 僧侶, 任員들을 그들 자리에 앉혀 놓았다. 그러나 이 政策은 때로 信徒들이 새로운 教会任員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成功을 거두지 못하기도 했다.

事実上 이즈음에 이르러 소련에서의 宗教에 対한 共産党 政策에 反対하는 世界的인 輿論이 뒤끓어 公開的 弾圧의 제 1기는 끝났다. 그러나 새로운 弾圧의 様相이 始作되었다. 그들은 継続해서 教会를 괴롭히는 以外에 強力한 反宗教的 宣伝攻勢를 펴는 수법으로 転換했다. 그 実例들을 보면 宗教行事나 宗教意識에 対한 侮辱的인 言辞와 조롱이 公公然히 展開되고, 好戦的인 「無神論者聯盟」이 組織되었다. 이 聯盟은 한때 5百万名의 会員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目的은 可能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반종교적 선전을 일삼는데 있었다. 그리고 教会所有의 土地에 対한 課税도 増加되었다.

月暦이 変更되어 教会의 祝日이 勤務를 해야 하는 평일로 고쳐지기도 하고, 宗教的 学習은 教会나 3人 以上이 모이는 民間人 모임에서는 禁止케 되었다. 「크리스마스·트리」나 「크리스마스」装飾品, 復活節에 먹는 음식 등의 販売가 禁止되었다. 主要한 教会指導者들이 投獄되거나 또한 심한 行動의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教会는 自然히 共産党의 路線을 뒤따르는 以外의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1929年에 새로운 政策이 출현했으니 즉 「스탈린」은 그의 権力을 다시 強化하자 다시 公公然히 教会弾圧의 方向으로 나온 것이다. 数万名의 逮捕, 監禁이 일어났고 이때의 이같은 弾圧은 教会가 社会, 文化的 中心地가 되어버렸다는 事実에 対한 報復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教会建物이나 資産을 正式 礼拝節次 以外의 어떤 目的을 위해서도 使用하지 못하도록 禁止했다. 끝으로 이 時期에 反宗教的 宣伝이 学校 教科内容의 一部로서 모든 学校에 採択케 되었다.

党은 農場을 集団化시키면서 同時에 農村地方의 教会들을 閉鎖시킬 수 없는 것을 認識하자 비로소 이같은 反宗教的 運動을 緩和시켰으니, 1930年代 初期에 약간의 緩和가 엿보였다. 그러나 1937年에 「스탈린」은 또 다시 「네로」時代라고 불리울만한 時期의 막을 올렸는 바, 이때 大量検挙와 宗教指導者, 宗教人들의 粛清은 数万名에 이르게 되었다. 数千,

数万의 반항하는 教会들이 閉鎖되었으며 直接的이며 公開的이고 호전적인 迫害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1939年에 共産党의 態度는 変化했고 이 変化는 오늘날에 까지 持続되고 있다. 그들은 宗教를 破壊하는데 成功하지 못했다. 이 面에서 아마도 教会組織은 다른 어떤 種類의 制度보다도 가장 끈질기다는 것을 立証한 셈이다. 그러나 共産党의 主要政策이나 計劃에 관한 限 教会는 完全無能의 位置로 까지 転落하고 말았다. 오늘날 소련教会의 実態를 아는데 必要한 믿을만한 重要 統計資料는 入手할 수 없는 形便이다. 그러나 革命前에는 国民의 約 8割이 教会와의 関聯을 맺고 있었던 点으로 보아 現在는 国民의 2.5割이나 5割이 教会와 아직 関聯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推計되고 있다. 教会의 数字나 教会人의 数字를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소련인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며 이것이 이 問題에 있어서는 가장 重要한 点일 것이다.

教会가 政治的, 社会的, 経済的으로 無能한 位置에 있고 오로지 国家의 寛容 徳分으로 그 命脈을 維持하고 있는 以上, 그리고 宗教로서의 最小限의 権利만을 겨우 行事하도록 許容받고 있는 以上, 소련政権의 現政策은 教会와 共存은 하되 宗教에 대한 가차없는 教育的이고 宣伝的인 圧力의 結果로 教会가 自然히 消滅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그러는 동안에도 国家는 教会를 国家自身의 目的을 위해 利用하려고 하고 있다. 現在의 政策으로는 宗教에도 一種의 科学的인 宣伝手段을 부여하고 있으며 行政的인 迫害를 学校의 教科科目에 加하지 않게 되어 있다. 勿論 이같은 政策은 거의 10年間이나 継続되어 오긴 했으나 우리는 이 政策이 언제라도 変更될 수 있다는 事実을 알아야 한다. 소련

政権은 「러시아」正教会에 対해 호의적이며 심지어는 그들을 奨励하기 까지 하나, 소련의 教会指導者들의 말에 의하면 소련政府는 教会의 協助와 支持를 받고 있는 것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教会는 때로 놀랄만한 宣伝的인 宣言에도 함께 参与하는 일이 있으니 소련政権의 매우 호전적인 内容의 宣言에도 소련의 教会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다른 共産国家에 있어서도 宗教와 教会의 問題는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그 手法들은 비슷하고 成功의 度도 엇비슷할 것이다. 結局 긴 眼目으로 볼 때 이 宗教의 問題는 共産主義者들이 直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하고 가장 緊薄한 問題일 것이다. 宗教는 끝까지 남을 것이나 共産主義는 끝까지 남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共産主義는 人間을 神의 位置로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参　考　文　献〉

1. The Soviet Regime: Communism in Practice, 4th ed.
Wladyslaw W. Kulski.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3

2. Soviet Society: A Book of Readings
Alex Inkeles and Kent Geiger, eds. Boston: Houghton Mifflin, 1961

3. Russia Under Khrushchev: An Anthology From Problems of Communism
Abraham Brumberg, ed. New York: Praeger, 1961

4. Nine Soviet Portraits
Raymond A. Bauer. New York: M. I. T. and Wiley, 1955

5. How the Soviet System Works
Raymond A. Bauer, Alex Inkeles, and Clyde Kluckhohn. New York: Random House, 1958

6. The Future Is Ours, Comrade
Joseph Novak. New York: Dutton, 1964

7.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Cambridge: Harvard, 1956

8. Totalitarianism
Carl J. Friedrich, ed. Cambridge: Harvard, 1954

9. Verdict of Three Decades: From the Literature of Individual Revolt Against Soviet Communism, 1917-50
Julien Steinberg, ed. New York: Duell, Sloan, Pearce, 1950.

10. How Russia Is Ruled, 2d ed.
Merle Fainsod. Cambridge: Harvard, 1963

11. The Soviet System of Government, 3d ed.
John N. Hazard. Chicago: University Press, 1964

12. The Soviet Political System
Alfred G. Meyer. New York: Random House, 1964

13. Ideology, Politics, and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An Introduction
John A. Armstrong. New York: Praeger, 1962

14. Russian Political Institutions
Derek J. R. Scott. New York: Rinehart, 1957

15. Soviet Politics: The Dilemma of Power. The Role of Ideas in Social Change
Barrington Moore. Cambridge: Harvard, 1951

16. Russia's Soviet Economy, 2d ed.
Harry Schwartz. New York: Prentice-Hall, 1954

17. An Economic History of Russia, 2 vols.
James Mavor. New York: Dutton, 1914.

18. Soviet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Nicolas Suplber. Bloomington: Indiana, 1964

19. Soviet Potentials: A Geographic Appraisal
George B. Cress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2

20. An Atlas of Soviet Affairs
Robert N. Taaffe and Robert C. Kingsbury. New York: Praeger, 1965

21. Soviet Economic Power: Its Organization, Growth, and Challenge, 2d ed.
Robert W. Campbell. Boston: Houghton Mifflin, 1964

22. The Soviet Economy: An Introduction
Alec Nove. New York: Praeger, 1961

23. Dimensions of Soviet Economic Power
U.S. Congress, 87th Cong., 2d sess., Joint Economic Committee.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24. The Soviet Economy: A Collection of Western and Soviet Views
Harry G. Shaffer, ed.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3

25. The Red Phoenix: Russia Since World War II
Harry Schwartz. New York: Praeger, 1961

26. The Economics of Soviet Planning
Abram Bergson. New Haven: Yale, 1964

27. Economic Rationality and Soviet Politics: Or, Was Stalin Really Necessary?
Alec Nove. New York: Praeger, 1964

28. The Red Executive: A Study of the Organization Man in Russian Industry
David Granick. Garden City: Doubleday, 1960

29. Factory and Manager in the U. S. S. R.
Joseph S. Berliner. Cambridge: Harvard, 1957

30. Labor in the Soviet Union, 2d ed.
Solomon M. Schwarz. London: Cresset, 1963

31. Soviet Trade Unions: Their Place in Soviet Labour Policy
Isaac Deutscher.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50

32. "The Peasants"
K. A. Wittfogel. Handbook on Communism. New York: Praeger, 1962.

33. Marx Against the Peasant: A Study in Social Dogmatism
David Mitrany. Chapel Hill: North Carolina, 1951

34. The Socialized Agriculture of the USSR: Plans and Performance
Naum Jasn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49

35. "Mao Tse-tung, Liberator or Destroyer of the Chinese Peasants?"
K. A. Wittfogel. Free Trade Union Committee, AF of L, New York 1955;

36. Land and Labor in China
R. H. Tawney.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2

37. Economic Trends in the Soviet Union
Abram Bergson and Simon Kuznets, eds. Cambridge: Harvard, 1963

38. Soviet Industrialization, 1928-52
Naum Jasny. Chicago: University Press, 1961

39. Soviet Industrial Production, 1928-51
Donald R. Hodgman. Cambridge: Harvard, 1954

40. Growth of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Soviet Union
G. Warren Nutter, et al. Princetion: University Press, 1962

41. Justice in the U.S.S.R. An Interpretation of Soviet Law, 2d ed.
Harold J. Berman. Cambridge: Harvard, 1963

42. Soviet Legal Institutions: Doctrines and Social Functions
Kazimierz Graybowski. Ann Arbor: Michigan, 1962

43. The Law of the Soviet State
Andrei Y. Vyshinsky, ed. New York: Macmillan, 1948.

44. Settling Disputes in Soviet Societie: The Formative Years of Legal Institutions
John N. Hazard. New York: Columbia, 1960.

45. The Soviet Secret Police
Simon Wolin and Robert M. Slusser, eds. New York: Praeger, 1957.

46. Forced Labor in Soviet Russia
David J. Dallin and Boris I. Nicolaevsky, New Haven: Yale, 1947

47. How the Soviet System Works: Cultural, Psychological, and Social Themes
Raymond A. Bauer, et al. Cambridge: Harvard, 1956

48. Khrushchev and the Arts: The Politics of Soviet Culture
Leopold Labedz and Priscilla Johnson. Cambridge: M. I. T., 1964

49. The Soviet Citizen: Daily Life in a Totalitarian Society
Alex Inkeles and Raymond A. Bauer. Cambridge: Harvard, 1959

50. The Soviet Family
David and Vera Mace. Garden City: Doubleday, 1963

51. Soviet Youth Under Khrushchev
W. Mervyn Matthews. New York: Walker, 1964

52. Soviet Education
Nigel Grant. Baltimore: Penguin, 1964

53. The Soviet Youth Program: Regimentation and Rebellion
Allen Kassof. Cambridge: Harvard, 1965.

54. The Challenge of Soviet Education
George S. Counts and Nucia P. Lodge. New York: McGraw-Hill, 1957.

55. Communist Education
Edmund J. King, ed. London: Methuen, 1963

56. Political Control of Literature in the U. S. S. R., 1946-59
Ernest Harold Swayze. Cambridge: Harvard, 1962

57. The Pasternak Affair: Courage of Genius
Robert Conquest. Philadelphia: Lippincott, 1962

58. Contemporary History in the Soviet Mirror
John Keep and Liliana Brisby, eds. New York: Praeger, 1964

59. Rewriting Russian History: Soviet Interpretations of Russia's Past, 2d ed.
Cyril E. Black, ed. New York: Random House, 1962

60. Religion in the Soviet Union
Walter Kolarz. New York: St. Martin's, 1961

61. The Atheist's Handbook
U. 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Washington: J. P. R. S., 1961.

62. The Russian Church and the Soviet State, 1971-50
John Shelton Curtiss. Boston: Little, Brown, 1953.

63. Religion in Soviet Russia, 1917-42
N. S. Timasheff. New York: Sheed and Ward, 1942.

64. The Church in Soviet Russia
Matthew Spink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第三節 蘇聯以外地域에서의 共産主義

1. 共産主義者들의 執權方式(Ⅰ)(「프로그람」No. 35)

* 「드라코비치」 博 士

「히틀러」独逸의 巨大한 軍事組織이 무너질 当時,「나치」独逸의 悪毒한 独逸帝国主義에 犠牲을 当하고 있던 中·東「유럽」의 住民들에게는 独逸의 敗戰이 肯定的인 事実로서 提起되었던 状況에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제까지는 独逸軍이 占領하고 있었으나 새로히 蘇聯의 붉은軍隊에 依해 解放된 이 모든 나라의 「나치」敗退後의 政府形態는 어떻게 될 것이냐하는 問題가 새로이 提起되었다. 이에 関해서는 三大聯合国인 美国, 蘇聯, 英国政府들이 「유럽」 特히 「유럽」東部의 戦後의 政治的 再建의 方向에 対한 原則에 合意하고 있었다는 事実을 記憶해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할 것이다. 2次大戦에 勝利한 3大国이 1945年 2月11日의 「얄타」会談에서 署名한 『解放된 「유럽」에 関한 宣言』을 여기서 引用해 보고자 한다.

"秩序있는 「유럽」의 樹立과 国家別 経済生活의 再建은 解放地域 住民들로 하여금 「나치」主義 및 「파쇼」主義의 최후의 残滓를 破壊하고 그들 自身의 선택으로 民主主義制度를 設立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成就되어야 한다. 이는 大西洋憲章의 原則이다. 侵略国家들이 強制로 박탈해간 主権을 回復시켜주고 住民들은 自治政府의 形態를 선택할 수 있는 権利를 가져야 한다. 解放地域住民들이 이 権利를 行使할 수 있는 与件을 造成해주기 위해 三大国 政府는 「유럽」의 解放된 어떤 国家나 또는 「유럽」의 前軸国 衛星国家의 住民들이 다음의 与件을 具備할 수 있도록 共同

---

* Milorad Drachkovitch ; 「스텐포드」大学 「후버」研究所研究委員
「유고」태생, 「스위스」「제네바」大学 ph.D.
「하바드」大学「러시아」研究所 研究委員歴任

으로 支援할 것이다.
㉮国内의 平和를 위한 与件造成 ㉯罹災住民을 救護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遂行 ㉰住民의 모든 民主的 要素를 広範하게 代表하는 臨時政府의 形成과 自由選挙를 통해 住民의 意思에 순응할 政府를 可及的 조속히 樹立시킨다는 公約 ㉱必要할 경우 이러한 선거실시를 促成시키기 위한 措置•

「유럽」解放宣言은 自由, 秘密選挙를 통해서 나타난 과반수 国民의 意思에 따라 그들의 運命을 決定한다는 바, 民主主義의 基本権과 꼭 그대로 合致하는 것이다. 実로 이러한 原則의 勝利를 위해 2次世界大戦이 벌어졌던 것이고 「히틀러」帝国의 崩壊에 이어 이같은 原則들이 시행되어야만 戦争의 그 참혹한 人命被害도 正当化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歴史는 그러한 方向으로 進行되지를 않았다.

위에서 引用한 宣言을 선포하므로써 이 宣言의 高尚한 原則들이 実際로 적용이 可能하리라고 分明히 믿고 있던 西方強大国들이 戦後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分析하는 것은 本論의 限界를 벗어나는 일이다. 「콜롬비아」大学의 「필립•모슬리」教授는 『強大国들의 希望이 곧 政策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西方側의 認識錯誤를 가장 통찰력있는 表現으로서 批判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蘇聯—이는 実質的으로는 「스탈린」個人을 말하는 것이지만—의 態度와 多少間의 差異는 있을 망정 거의 例外없이 蘇聯軍의 存在 때문에 政治舞台의 각광을 갑자기 받게 되었던 各地域 共産主義者들의 態度에 関해 考察해 보기로 하자.

「콜롬비아」大学의 「즈비그뉴•브레진스키」教授에 의하면 中•東部「유럽」에 関한 限, 「스탈린」은 2次大戦 終結 当時 다음의 다섯가지 目的을 胸中에 품고 있었다 한다. ① 全地域을 세계의 余他地域으로부터 蘇聯의 安保를 維持하기 위한 安保地帯로 利用한다. ② 蘇聯에 敵対的인 地域内 要素들을 除去시킨다. ③蘇聯의 経済回復을 위해 全地域을 利用한다. ④ 이 地域을 資本主義 世界에 한치도 譲歩하지 않는다. ⑤ 이 全地域을 将次의 共産主義 膨脹活動을 위한 基地로 転換시킨다. 이에 関해서는 2次

大戰이 끝나기 数 週日 前에 「스탈린」이 「유고슬라비아」의 共産主義 指導者의 하나인 「밀로반·질라스」에게 말한 『戰争은 멀지않아 끝날 것이다. 우리는 15年이나 20年後면 다시 힘을 回復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또다시 戰争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発言을 引用하고 싶다.

西方同盟国들이 独逸에 対한 共同의 戰争努力으로 세계의 永続的인 平和와 友誼의 条件이 造成될 것이라고 真心으로 믿고 있던 바로 그때에 「스탈린」은 「나치」에 対抗해서 싸운 同盟国들에 対한 未来의 戰争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意義를 지니는 事実이라 아니할 수 없다.

「스탈린」의 当初計劃은 中·東「유럽」을 소련을 보호하는 완충지대와 西方世界로의 팽창을 위한 跳躍台로서 利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計劃을 당장에 성급하게 実行에 옮기려 하지는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까지 自由롭고 独立的이던 「발틱」海의 三個国을 소련에 編入시킨 것과 같이 그는 敏速하고도 無慈悲하게 행동하기도 했다.

또다른 경우에는 「유고슬라비아」나 「알바니아」에서 처럼 地方의 共産党들로 하여금 世界의 情勢를 그들에게 有利하게 利用하게 함으로써 이미 2次大戰이 끝날 무렵에 革命權力을 장악케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폴랜드」나 「항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 및 「체코슬로바키아」같은 中·東「유럽」의 다른 諸国에서는 共産党의 執權過程은 보다 느리고 漸進的인 것이었다.

1945年부터 1947年에 이르는 약 2年동안 이 나라들은 모든 政党들의 真正한 聯立에 依한 政府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서 共産党도 重要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關鍵的인 役割을 맡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權力을 独占하는 일은 없었다. 共産党의 行動의 이같은 漸進性은 다음과 같은 여러理由로 説明이 될 것이다. 첫째로 「스탈린」은 西方世界에 対한 그의 기본적인 敵対態度를 暫定的으로 偽装하고 있었으니 즉 그는 美国이 그 当時 絶対的인 武器 즉 原子弾을 独占하고 있다는 事実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西方側과 즉각적으로 関係를 멀리하는 것을 원치않았다. 둘째로 「체코슬로바키아」를 除外하고는 中·東「유럽」의 모든 나라의 共産党은 혼자서 権力을 行使하기엔 아직 未備된 群小勢力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탈린」은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現実을 勘案하여 国内의 共産主義者들은 일을 서서히 進行시키라는 指令을 받고 있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政権의 構成要素는 進歩的 中産層의 議会主義와 真正한 改良社会主義의 일종의 混合勢力이어야 한다고 固執했다.

이러한 情勢속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周知하는 바와 같이 붉은軍隊의 存在와 西方世界의 초연한 태도로 해서 共産党과 非共産党間의 불안스러운 相互妥協이 一聯의 改革과 그밖의 公的인 措置를 통해서 이루어 졌었다. 이러한 諸措置가운데의 一部, 이를테면 황폐된 国土의 즉각적인 再建을 目的으로 한 短期計劃이나 農業改革 같은 措置들은 確実히 国民들의 넓은 支持를 받았다. 그러나 「파쇼」分子들의 粛清과 같은 다른 公式的인 措置들은 보다 많은 論争을 불러 일으키는 性質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共産党은 悪名높은 附逆者외에도 強硬한 反共路線을 지니고 있는 市民들이나 政治团体들을 함께 粛清해버렸기 때문이었다. 끝으로 이것이 이 問題의 分析을 위해서는 相当히 重要한 대목이지만 소련当局이나 国内 共産主義者들은 당초에는 間接的인 脅迫을 통해 国民들로 하여금 共産党의 優位를 받아 들이도록 만들고 그후 이같은 事実을 既定事実로서 받아 들이게금 하면 될 것이므로 공공연한 暴力行使 없이도 合法的으로 権力을 장악할 수 있으리라고 期待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期待는 조만간에 실망으로 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후에 나타난 선거결과는 共産党에게 致命的인 打撃을 주었기 때문이다.

1945年 11月4日 「항가리」서 実施된 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結果가 나타났다. 群小資産家와 農民을 代表하는 政党이 総票数의 57%를, 社会民主党이 17.4%, 그리고 共産党은 17%를 各各 얻은 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보다 数日後인 11月25日에 선거가 実施되었는데 그 結果

는 極左派에게는 더욱 비참한 것이었다. 人民「카톨릭」党이 1百60万票를 얻어 85個의 議席을 차지했고 이 뒤를 이어 社会民主党은 1百42万8千票에 議席 76個, 共産党은 17万4千票로 議席은 겨우 4席뿐이었다. 이같은 敗北를 通해서 前独逸領 소련軍占領地帯의 共産主義者들은 1946年初에 이르러 社会民主党과 糾合을 해야할 必要性을 認識하기에 이르렀다.

伯林의 西方地区에서는 社会民主党의 82%가 共産党과의 제휴에 反対投票를 던졌으며 같은 内容을 묻기 위한 投票가 伯林의 소련占領地区에서는 禁止되었다. 1946年 4月에 社会民主党과의 強制統合이 이루어져 이른바 独逸聯合 社会党이 共産党을 主流로 하여 形成되긴 했으나 다른 政党들도 競合할 수 있도록 아직 許容되어 있는 가운데 1946年10月에 東独에서 実施된 마지막 선거에서 独逸聯合 社会党은 그 相対党에게 간신히 辛勝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항가리」와 「오스트리아」 및 東独에서의 経験을 겪은 후, 소련当局과 各国의 共産主義者들은 선거방식을 대폭적으로 바꾸기로 決定하고 어떤 反対勢力도 容納하지 않는 単一立侯補選挙制를 強要하기에 이르렀다. 1947年 以来로 이 選挙方式은 소련의 全衛星国家에서 非順応的인 政治勢力의 어떤 存立도 認定하지 않는 가운데 줄곧 그대로 使用되고 있다.

다음에는 重要한 한해였던 1947年에 対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오늘날 흔히 冷戦이라고 부르는 時期의 시초를 劃하는 国際的 事件들의 一部를 간단히 回想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첫째로 1947年 3月12日에 「트루만」大統領은 「그리스」와 「터키」의 원조를 위해 4億弗을 議会에 要請하는 歴史的인 行動을 취했다. 그는 議会에 보낸 教書에서 이 援助의 진정한 目的을 説明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武装少数派나 外部로부터의 圧力에 의해 예속을 강요하려는 企図에 저항하는 自由民을 支援하는 것이 美合衆国의 政策일 것으로 確信한다』 「트루만」大統領은 이와 같이 말하면서 共産党이 主導하는 「게릴라」勢力이 「그리스」의 実権을 장악하게 되면 소련이 이미 確保하고 있는 諸国家의 境界線을 더욱

넘히게 된다는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美国의 援助는 「터키」로 하여금 소련의 圧力에 抵抗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보다 불과 수주일후에 「조지•마샬」美国務長官은 「하바드」大学에서 1947年 6月5日 그의 歴史的인 演説을 통해서 英国과 소련을 包含한 全「유럽」에의 経済援助를 提議했다. 이 提議는 소련에 의해 즉각 거부되었으나 당시 아직 共産党의 支配를 받고 있지 않던 「체코슬로바키아」가 처음에는 美国 원조를 受諾했다가 数日後 「스탈린」의 직접적인 介入으로 이를 拒否했다는 사실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어떻든 「마샬」国務長官을 통한 美国의 원조제의가 西「유럽」의 현저한 経済再建을 돕는 구실을 했고 이때의 경제부흥이 오늘날의 西「유럽」의 経済的 繁栄의 基礎를 이루고 있다. 같은 해인 1947年中에 美国, 英国, 불란서의 西方三大国政府들은 独逸経済의 民主化와 共同管理에 関해 소련政府와 어떤 合意에도 到達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로 明白해 졌다. 1947年의 3月과 4月, 그리고 또다시 11月과 12月에 「모스크바」에서 四大国 外相会談이 두차례 열렸으나 아무런 合意에도 到達할 수 없었다. 独逸의 两断이라는 宿命的인 事実이 이같은 外相会談의 決裂로 그대로 굳어져 버렸고 이는 오늘날에도 아직 세계의 가장 爆発的인 政治的 争点의 하나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지적한 이같은 一聯의 事件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局面이 나타났는 바, 이는 「벨지움」이나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여러 聯立政府들로 부터의 共産党 閣僚들의 脱退로 象徴되는 西「유럽」에서의 共産党政策의 전반적인 硬化状態였다. 共産党이 権力分霑의 政治参与로 부터 全面的인 反対의 方向으로 方向転換을 한 뒤를 이어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共産党領導下의 労組들에 依한 一聯의 罷業들이 뒤따르게 되었고 各地方의 共産党들도 暴力的인 大衆示威를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西「유럽」의 民主的 秩序는 強力하고 好戦的인 共産党들 때문에 적어도 한 동안은 全的으로 崩壊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크게 威脅을 당할 것처럼 보였다. 1947年의 후반은 極度로 소란스럽고 파란이 많았으나 美国의 支

다도 共産党을 소련이 支持한다는 뜻을 의심할 나위없이 명백히 伝達함으로써 深重한 心理的 衝擊을 加하였다. 이밖에도 겉으로는 民主主義的인 것처럼 보였던 1947年 以前의 時期에 이미 共産主義者들은 이른바 『指揮高地』라는 要衝을 構築하고 있었다. 이는 共産党의 믿을만한 党員들이 内務省이나 警察, 軍隊, 情報 또는 司法 등의 核心的 閣僚職全部나 또는 一部를 차지한다는 条件下에 그들이 여러政府에서 少数派로 머물러 있기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후 그들은 이 閣僚職들을 将次 있을 權力 장악을 위한 발판으로 転換시키는데 그들의 全力을 다하였다. 共産主義者들은 또한 労動組合이나 青年, 女性 및 「스포츠」등의 大衆組織을 만드는데 많은 関心을 傾注했으며 이런 組織속에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党員들로 하여금 가장 重要한 要職을 맡도록 配置시켰다. 이같은 工作의 또 하나의 重要한 面은 다른 政党에도 党員들을 侵透시켜 그들과 이른바 民族戦線(National Front)을 形成케 하는 일이다. 이에 関聯해서 1947年 9月 「폴랜드」의 秘密会議에서 저 有名한 共産党情報局(「콤민포름」)이 形成될 때 「이탈리아」共産党을 代表했던 저명한 前「이탈리아」共産党員 「유진•리알레」의 証言을 引用하고자 한다. 그는 아직 英語로는 発表된 일이 없는 한 論文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콤민포름」의 公式文書에서 言及이 되지 않은 또 하나의 問題点은 東「유럽」의 共産主義指導者들이 民族戦線에 属하는 다른 政党들에 侵透하는 것에 成功했음을 冷笑的으로 是認하면서 이른바 平和的으로 權力을 征服하려는 징조를 이미 나타내고 있었다는 点이다. 이 会議에 나왔던 「유고슬라비아」의 指導級 代表者인 「라테스•하우카르델」은 「유고슬라비아」内의 民族戦線에 속하는 다른 政党들에서의 共産党의 位置는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民族戦線안에서 볼만한 것은 共産党 뿐이다. 다른 政党들은 다만 간판에 불과하다. 民族戦線의 모든 委員会의 書記들은 동시에 共産党의 書記들이다. 中央政府의 24人閣僚가운데 共産党員은 16名이며 다른 閣僚들도

우리 党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次官은 全員이 共產党員이다. 이 会議에 참석한 「항가리」共產党 代表 「레스리」는 이른바 「항가리」의 民族農民党의 役割을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그들은 우리의 指導에 따라 行動한다. 그들 書記는 共產主義者들이다. 政府에서 그 党을 代表하는 2名의 閣僚가운데 하나는 共產主義者이다. 32名의 閣僚補佐官들 가운데 15名은 共產主義者들이며 8名은 共產主義 同調者들이다. 「루마니아」共產党 指導者 「게오르·길다시」는 「루마니아」国会議員 선거의 結果를 奇異한 말투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거결과는 共產党이 이 나라의 가장 有力한 政党임을 보여 주었다. 共產党의 당선자 수는 70名을 넘지 못했지만 3百40名의 国会議員 가운데 共產主義者들은 1百80名이나 당선되었다." 나는 이런 發言을 되풀이 하면서 이런 秘密을 털어놓는 말을 들었을 때의 나의 반응을 아직도 生生하게 記憶할 수가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금도 후회의 빛도 없이 이런 発言을 하는 것을 듣고 정말로 놀랬다. 한 党에 属하는 書記가 어떻게 다른 党에 属할 수 있단 말인가. 確実히 나의 思考方式은 「마르크스」主義的 또는 적어도 「스탈린」主義的 論理에서 아주 벗어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13名의 閣僚가운데 4名은 社会党, 4名은 群小農民党, 2名은 民族農民党代表 그리고 7名이 共產党, 그래서 그 総計가 13名이 아니라 17名이라고 計算할때 나는 경악의 感을 禁할 수가 없었다』

中·東「유럽」의 共產党들이 權力장악의 길을 닦기 위해 使用하고 있는 手法에 関한 内部人士들의 아주 믿을 수 있는 証言을 보여주기 위해 「리알레」氏의 重要한 論文内容을 아주 길다랗게 引用해 보았다. 그러나 1945年부터 1946年까지 그들은 다른 政党들과의 權力의 共同参与를 받아 들이고 소련과 그들 나라 사이의 差異를 強調하면서 신중하게 행동을 취해왔던 것이다. 그들은 1947年에는 이런 가면을 모두 내던져 버리고 모든 反対派 勢力을 政治的으로 抹殺시키는 작업을 신속, 무자비하게 遂行했다. 이때는 「항가리」共產党 指導者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이 『「스탈린」

으로 부터 決定的인 자극과 援助』를 받고 있었으며 소련이 中·東「유럽」 共産党들의 둘도 없는 上典이라는 宣伝을 強力히 推進하고 있던 때였다.

이와 關聯하여 共産党이 이처럼 무자비한 手法을 쓰기 前까지 과반수 国民들의 信任을 받고 있던 다른 政党들을 共産党이 어떤 攻擊方式으로 粉碎하여 同化시켰는지를 간단히나마 說明해두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항가리」의 가장 著名한 「스탈린」主義者인 「마르티·에시라코쉬」는 이러한 과정을 "「살라미」戦術"이라고 表現했다. "「살라미」戦術"이란 現存하는 모든 組織的인 政治的 反対勢力을 하나씩 하나씩 토막을 내어 除去해 버리는 戦術을 말한다.

「파쇼」主義者들이 占領軍에 協力했다는 罪目으로 右派政党들로 부터 肅清 당했으며 그후에는 非共産主義者들과 左派人士들에 対한 肅清의 차례가 되었다. 첫번째의 犧牲者들은 「폴랜드」나 「항가리」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서 많은 支持를 받고 있던 土地均分論者들이었다. 가장 著名한 指導者들도 여러가지 名目으로 체포, 投獄, 処刑 또는 強制 国外追放을 당했다. 다음의 対象은 社会主義者들로서 그들은 共産党 指示에 따라 共産党과 合流하던가 아니면 모든 政治活動을 中止하라는 両者択一의 選択을 強要당했다. 最終的인 分析을 통해 보건데 共産党은 노골적인「테러」行為와 사람을 달래는 유혹적인 甘言利説을 併行하는 야수적이면서도 미묘한 圧力의 術策을 弄하면서 기껏해야 말로나 抗議를 하는 西方側과 対決을 벌여가면서 1947年과 1948年 사이에 그들의 長期目標를 드디어 成就시키고 만 것이었다.

2. 共産主義者들의 執權方式(II) (「프로그람」 No. 36)

*「드라코비치」博 士

지금까지는 2次世界大戰後 共産党의 權力剝奪問題를 다루었다. 中·東「유럽」의 情勢, 즉 이 全地域이 蘇聯과 蘇聯의 붉은軍隊의 全幅的인 支援下에 各国共産党의 専制的인 政治支配下에 놓이게 된 2次大戰 직후부터 1947年 내지 1948年에 이르는 동안 벌어진 事態를 檢討했다. 이제부터는 먼저 中·東「유럽」에서 共産党이 權力을 掌握하게 된 全般的인 意義에 関해 考察하고 이어 「피델·카스트로」에 의해 「쿠바」가 共産主義의 길을 밟게된 가장 重要한 側面을 간략히 分析하고 세번째로는 世界의 여러 地域에서 앞으로 共産主義가 侵蝕해 들어가려는 가장 威脅的인 様状에 関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問題에 들어가기 前에 먼저 著名한 美国의 学者이며 外交官이었던 「조지·케난」氏가 1960年에 쓴 한 重要한 論文 가운데 몇 句節을 引用하고자 한다. 『中·東「유럽」의 이들 政權은 「모스크바」에서 訓練 또는 操縱을 받고, 蘇聯軍隊들이 매우 가까운 곳에 駐屯해 있다는 事実의 支援을 받은 高度로 紀律化된 共産党 少数派의 巧妙한 術策에 依해 強要되었다. 그들은 비슷한 手法으로 그들의 權力을 維持했다.』

2次世界大戰後 2年만에 「유럽」의 큰 地域을 蘇聯의 全的인 支配下에 그리고 各国共産党의 独裁的 統治下에 들어가게 만든 이러한 加速化된 歷史的 過程의 全般的인 重要性은 다음과 같은 事実을 염두에 두면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地域에서 蘇聯과 共産党의 目的達成을 위해 使用된 暴力的인 手法은 2次世界大戰의 勝利国들인 蘇聯, 英国 및 美

---

* Milorad Drachkovitch : 「스텐포드」大学 「후버」研究所 研究委員
「유고」태생, 「스위스」「제네바」大学 Ph.D.
「하바드」大学 「러시아」研究所 研究委員
歷任

国이 1945年 2月 「유럽」人들에게 厳粛하게 公約했던 民族自決의 原則을 露骨的으로 違反한 것이었다. 따라서 蘇聯共産主義者들의 処事는 冷戰이라고 불리워지는 事態를 불러일으킨 根本的인 原因이 되었다. 中·東「유럽」에서의 共産党의 執權은 이와 동시에 또 하나의 意義를 지니고 있다. 이는 事実上 1917年 「러시아」에 「볼세비키」政權이 樹立된 이래로 最初의 共産主義의 大規模的인 対西方팽창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事態는 到処에서 共産党들의 士気를 높여주고 共産主義者들이 즐겨 使用하는 宣伝 즉 歴史過程의 필연적인 추세에 따라 共産主義가 全世界에서의 勝利를 향해 前進하고 있다는 그들 主張을 내세우는데 있어 이를데 없이 貴重한 論争꺼리의 役割을 다했다.

다른 한편 「얄타」協定의 違反과 中·東「유럽」에서의 共産主義者들의 잔학성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美国과 「캐나다」의 支援下에 自衛의 劃期的인 措置들을 採択하기에 이르렀다. 1948年 2月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共産党「구데타」의 가장 직접적인 余波로서 強力한 防衛体制인 北大西洋条約機構(NATO)가 탄생케 되었다는 것이 옳은 表現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冷戰의 시작과 더불어 蘇聯의 軍事力과 潜在的 팽창경향 및 西「유럽」에 対해 攻撃을 加하려는 유혹을 蘇聯이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는 事実 등이 自由世界에 対한 主要한 위험이라는 것을 西方世界가 認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조지·케난」氏는 1947年에 저 有名한 <封鎖理論>을 提唱했다. 蘇聯과 交渉하는 美国의 公式的인 外交政策에 多年間 많은 精神的 영향을 주었던 「케난」氏의 見解의 核心은 美国은 『長期間의 忍耐를 通해 蘇聯의 팽창主義的 경향을 断乎한 경각심으로 封鎖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1949年에 NATO가 創設될때 NATO의 防衛的인 性格 규정은 이 封鎖理論에 따라 決定된 것이었다. 불행히도 이 封鎖理論은 어디까지나 静的이고 끝까지 防衛를 위주로 한 것이었다.

NATO는 西「유럽」의 自由를 가장 効果的으로 守護하고 있으나 中・東部 「유럽」에서의 蘇聯의 帝国主義的 肥大化를 저지하는데는 이렇다할 効果가 없었다.

더우기나 蘇聯의 팽창주의적 경향을 封鎖하는데 重点이 주어졌기 때문에 共産主義者들이 붉은軍隊에 依한 占領外의 다른 方法으로 世界의 다른 地域에서 権力을 장악할려고 努力을 継続하고 있다는 事実은 간과되고 말았다. 따라서 NATO가 創設되던 같은 해에 中共은 蘇聯의 아무런 직접적인 軍事援助없이 심지어는 「스탈린」의 期待와 助言에 어긋나는 方向으로 中国本土를 席捲하고 말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로부터 数年後에 「쿠바」에서 일어난 事態는 蘇聯의 팽창경향은 共産主義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단하가지의 側面과 方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다시 보여준 셈이 되었다.

두번째로 「쿠바」에서의 共産党의 執権이 보여준 特異한 様状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는 巨大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두가지의 根本的인 問題 즉 「쿠바」革命을 大衆的 性格으로 부터 共産主義 性格으로 転換시킨 「피델・카스트로」의 役割과 「쿠바」의 国境너머로 까지 그 余波를 波及시킬 潜在的 可能性을 가지고 있는 「쿠바」共産党의 諸実験이 지니는 여러가지 側面으로 集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 「쿠바」에 関한 著述家들은 「피델・카스트로」의 山中 「게릴라」軍隊는 「바티스타」独裁政権의 道義的 政治的 崩壊가 事前에 없었더라면 革命에 勝利할 수 있는 機会는 매우 희박했을 것이라는데 対해 意見의 一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델・카스트로」가 1959年의 執権初期에 누릴 수 있었던 国民大衆의 圧倒的인 支持도 그가 抑圧된 「쿠바」人들에게 진정한 民族的인 解放者 그리고 民主主義的 解放者로서 비쳤기 때문이라고 説明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그의 公判에서 有名한 演説을 했던 1953年부터 그가 執権의 문턱에 들어선 1958年末에 이르는 동안 内容이 뚜렷한 여러 発言을 통해 自由 民主의 「쿠바」를 再生시키고 憲法保障을 위해 全力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実例를 「코로네트」誌 1958年

度 2月号에 실린 그의 論文에서 한토막 引用해보겠다. 이 글에서 「카스트로」는 『真正으로 民意를 代弁하는 代議政府』를 讚揚하고 12個月内에 『진정으로 公正한 총선거』를 實施할 것을 約束하고, 公共情報 및 모든 言論機関의 『全幅的이고 制限없는 自由』를 保障하고 그가 『軍事独裁를 革命独裁로 뒤바꾸려 陰謨』하고 있다는 비난에 対해서 個人 및 政治의 權利를 復活시키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스스로를 弁護했고, 또한 같은 글에서 『没収당한 土地所有者들에 対한 公正한 補償』을 하는 土地改革을 贊成한다고 말하면서 『国有化는 아무리 잘돼봤자 거치장스러운 方法』이며 「쿠바」의 工業化를 위해서는 『外国 投資는 언제나 환영하며 그 安全을 保障받을것』이라고 宣言했었다.

이처럼 겉으로는 民主主義的인 政治・経済的 公約을 내걸었기 때문에 圧倒的인 多大数 国民이 시초에는 「카스트로」의 새로운 革命政権에 忠誠을 바쳤던 것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附言해 둘것은 1925年에 創立된 「쿠바」의 公式的인 共產党은 적어도 「카스트로」가 집권할 때까지는 전혀 다른 路線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카스트로」 以前의 「쿠바」共產党은 典型的인 「스탈린」主義的 路線의 產物이었다. 「쿠바」共產党은 1938年부터 1946年 初까지는 「바티스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카스트로」가 勝利하기 전까지는 「카스트로」의 闘争이란 「바티스타」를 顚覆시키기에는 너무도 弱勢이고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公式的인 共產党은 「바티스타」에 反対해 반란을 일으키는 当面行動보다는 反「바티스타」闘争에 있어 보다 長期的인 政治工作을 할 것을 計劃하고 있었다. 2年도 채 못가서 「카스트로」가 勝利하자 그의 政権을 찬양하면서 함께 合流했던 公式的인 共產党과 「카스트로」사이의 関係는 이상한 方向으로 発展하기 시작했다. 「카스트로」의 7月26日運動에 참여했던 「카스트로」軍隊의 많은 指導者들과 노동組合들이 공산주의자들의 侵透 및 奪權企図에 反対해서 싸웠으며 「카스트로」自身도 1959年5月에는 共產主義者들과 서로를 비난하는 公開論争에 뛰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末에 이르러 反共主義는 許容될 수 없게 되었고 反「바티스타」勢力의 著名한 「쿠바·게릴라」指導者인 「후베르토·마토스」少領이 1959年 10月에 체포되자 反共主義는 反革命的 犯罪로서 규정을 받게 되었다.

「카스트로」는 그의 忠実한 追從者들의 幻滅과 抗議에도 아랑곳 없이 共産党의 便에 들어 그의 당초의 7月26日運動이 瓦解되는 方向으로 적극적·소극적인 助力을 해주기에 이르렀다. 그는 共産主義者들의 個別的인 介入을 받아들여 労動組合의 指揮組織으로부터 그 自身의 反共主義的 追從者들을 多数 逐出해 냈다. 「쿠바」의 親共的 傾向을 決定的으로 보여준 最後의 措置는 1960年10月 거의 4百個에 달하는 企業体들을 国有化한 措置였다. 이같은 추세는 결국 1960年 2月에 있었던『「쿠바」·蘇聯経済協定』의 締結로 까지 発展하였다.

이렇게 해서 「피델·카스트로」가 執權한지 2年만에 그의 기본적인 民主主義 公約은 忘却되고 그의 당초의 大衆革命은 背反되었으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쿠바」共産党은 급속히 그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실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쿠바」의 共産主義者들이 使用한 이같은 特異한 奪權方式은 共産党이 「피델·카스트로」와 제휴 및 統合을 하고 「카스트로」 個人의 權力을 永続化시키는 方法으로서 그를 「쿠바」民主主義의 초기의 기수로서 그리고 大衆의 英雄으로서 推載해놓고 共産党이 「바티스타」에 対한 反対에서 留保的인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에 一般의 信任이 크지않음을 깨닫자 「카스트로」에 反対하기 보다는 「카스트로」를 통해 權力을 잡을 수 있는 最善의 機会를 発見하려한 것이라고 説明을 할 수 있을 것이다.

美国의 著名한 歷史家이며 政治分析家인 「테오도르·드라이저」는 「피델·카스트로」가 어찌해서 1959年末에 마음을 바꾸어 路線을 変更하게 되었는가의 수수께끼에 対해 가장 納得이 갈 수 있는 回答을 説明해주고 있는 것같다. 「드라이저」氏의 著書 <「카스트로」의 革命-그 神話와 現実>에서 引用해 보면 다음과 같다.

『理想主義者인 것만큼이나 煽動家이고, 革命闘士인 것 만큼이나 冒険家이고, 共産主義者 또는 그 밖의 무엇이건 간에 그것에 못지않을 만큼 無政府主義者인 「피델·카스트로」는 現実的인 党의 勢力이나 軍隊 또는 現実的인 計劃없이 갑자기 뜻밖에 權力의 자리로 떠밀려 나오게 되었다. 執權을 위한 闘争에서 그는 어떤 独創的인 経済的·政治的 理念을 내세우는 것도 없었고 그저 伝統的인 民主改革과 「쿠바」人들의 理想의 「테두리」안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主로 戰術面에서 「바티스타」의 다른 敵들과는 좀 달랐다. 그는 武装闘争에서 그의 信念을 動員하고 그의 信念을 組織化할 用意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權力이 그의 손에 굴러 떨어지자 그는 그의 權力을 制限하거나 縮少시키게될 어떤 것도 許容하기를 拒否했다.

그는 政府도 그의 個人的인 統治의 간관으로서 作用하는 것이 아니면 政府의 機能発揮조차도 容認하려 하지 않았고 自己自身의 政治生命을 伸張시켜 주지않는 것이라면 党까지도 許容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權力과 그의 諸公約은 처음부터 両立 不可能한 것이었고 이러한 矛盾때문에 그는 그의 政權의 기반을 反「바티스타」革命과 동떨어진 곳에서 全的으로 追求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紀律있고 経験있는 党要員들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革命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転換시키는데 필요한 「이데올로기」나 国際的 支持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蘇聯과 「쿠바」共産党만이 그에게 이런 것을 提供해 줄 수 있을 따름이었다』

「피델·카스트로」自身은 1961年12月1日의 그의 有名한 演説에서 『나는 「마르크스·레닌」主義者이다. 나는 내목숨 다할때까지 나의 이 主義를 지킬 것이다』라고 외쳤다. 「카스트로」는 여러 面에서 「드라이저」氏의 分析結果 및 結論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는 그가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에 関해 많은 偏見을 가지고 있었고 自己는 本格的인 革命闘士가 아니며 이제까지 權力을 혼자서 행사해 왔으나 이 權力을

革命党에 넘겨줄 時期가 到来했다는 告白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델·카스트로」가 共産党과 妥協을 하려는 그의 宿命的인 決定을 내렸을때,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의 運動의 명성을 経験이 많은 共産党과 統合시켜 이른바 「쿠바」社会主義 革命聯合党이라는 것을 새로히 만들어 그 自身이 書記長이 되려는 決定을 내렸을때 「쿠바」는 共産主義에 이르는 奇異한 발길을 내딛게 된 것이었다. 그 社会革命聯合党은 아직도 組織段階에 있으며 「쿠바」共産党은 根本的으로는 「이데올로기」面에 있어서나 또는 組織 原則面에서 蘇聯이나 東「유럽」 또는 中共의 共産党들이 이미 樹立해 놓은 様式을 따르고 있다.

오늘날 「카스트로」政権의 内部에 있는 많은 모순점, 이를테면 旧「스탈린」主義者들과 새로운 「피델리스트」派間의 軋轢이나 中·蘇 理念論争에 対한 「쿠바」 現指導者들間의 対立된 見解같은 것을 分析하는 것은 本論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피델·카스트로」가 원할 경우 共産党의 손아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앞으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많은 놀라운 일들이 「쿠바」에서 벌어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期待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한때 그 스스로를 共産党과 有機的으로 연결시키려는 기본적인 決定을 내렸으며 이런 뜻에서 그는 「쿠바」를 全体主義的으로 編成하는 過程의 門戸를 열었다. 그는 形式上으로는 最高指揮者로 남아 있으나 国内 및 国外分野에서의 그의 행동과 決定의 自由는 크게 제한을 받아오고 있으며 그러한 制限은 앞으로 「쿠바」内에서나 国外에서 더 커질런지도 모른다.

「카스트로」의 経験은 또 하나의 根本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는바 마지막으로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카스트로」는 그의 政権에 새로운 方向을 제시하고 「쿠바」를 共産国家로 転換시키기로 決定함과 때를 같이하여 外交問題에서 그의 急進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카스트로」의 反美的인 毒舌은 여기서는 論外로

하고 外交分野의 두가지 具体的 面에 対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하나의 側面은 「이데올로기」 및 宣伝에 関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組織 및 顚覆活動에 関한 것이다. 첫번째에 関해서는 「피델・카스트로」의 政権은 全南美地域革命의 선구자이며 模型이라고 宣伝하여 왔고 또한 現在도 그렇게 宣伝하고 있다. 이 革命은 南美를 美国의 経済的 帝国主義로부터 解放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革命이며 「쿠바」는 이미 그 目的을 達成한 나라로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重要한 것은 「카스트로」가 自負하고 있는바 革命課業의 組織과 顚覆活動에 関한 側面이다. 이를 간략하게 分析하기 위해서는 「쿠바」政権의 가장 著名했던 人物의 하나인 「체・게바라」가 1960年7月에 쓴 저 有名한 「게릴라」戦法教本을 引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 짤막한 저술은 執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서 共産「게릴라」戦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関한 가장 솔직하고 그러면서 또한 가장 実際的인 내용을 담은 글이다. 「게바라」에 의하면 「쿠바」革命은 中南美大陸에서의 武装革命에 관한 세가지의 根本的인 結論을 보여주었다.

① 첫째로 人民大衆은 軍隊에 対抗하는 闘争에서 勝利할 수 있으며

② 革命的 情勢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必要없이 이같은 情勢를 만들어 낼 수 있고, ③ 中・南美 後進国에서는 農業地域이 革命을 위한 훌륭한 戦闘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바라」의 이러한 見解는 緻密하게 짜여진 職業的인 革命闘士들을 통해 革命意識을 外部로 부터 大衆에게 가져다 준다는 「레닌」의 思考와 毛沢東이 1937年에 主張했던 「게릴라」戦의 理念을 함께 합친것과 비슷한 内容을 가지고 있다.

「게바라」는 그의 「게릴라」戦法教本에서 毛沢東은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蜂起를 불러 일으키는데 失敗했으며 中国공산주의자들은 農民反乱의 路線을 따라 農村地方에 뿌리를 박음으로써 비로소 그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므로 「게바라」의 말을 따르자면 『적절한 作戦地形과 기아상태, 敵勢力 内部의 不正등의 要件만 주어진다면

30 내지 50 名의 核心部隊만 가지고도 南美의 어떤 나라에서이던 武装革命의 불을 지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게바라」의 戦術理論에 따라 「쿠바」는 数年間 南美 여러나라로부터 온 革命分子들의 訓練基地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이들의 目的은 그들의 軍事, 政治訓練을 마친후로는 그들의 本国으로 돌아가 여러가지 顚覆活動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테러」事件들은 분명히 「카스트로」의 資援을 받은 것이며 南美의 모든 나라에는 事情과 環境만 허락한다면 「게바라」의 戦術을 実践에 옮기려는 素質을 가진 적어도 多小間의 人間들이 存在하고 있다. 「쿠바」에서의 現在의 実験이 「쿠바」内로 국한된 후라하더라도 顚覆活動의 근거지 및 革命的 攻撃의 輸出国으로서 공공연히 선전된 「쿠바」의 存在를 간과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結果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 말한것과 관련해서 「체·게바라」의 「게릴라」戦法教本에서 짧으나마 意味深長한 한 귀절을 다시 引用해 보고자 한다. 그는 『「쿠바」는 「아시아」「아프리카」를 식민지 南美와 단결시키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말이 단순한 宣伝文句 以上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1964年 1月 「아프리카」의 「잔지바」島에서 일어났던 사실들이 여실히 입증해 주고있다. 「뉴요크·타임즈」紙 特派員 「로버트·콘리」記者는 1964年 1月에 「케냐」의 「나이로비」로 부터 다음과 같은 기사를 打電해 왔다. 『「게릴라」戦法과 政治的 革命의 訓練을 받은 50名 미만의 顚覆活動分子들이 「잔지바」에서 政権전복을 단행했다.

「쿠바」는 「게릴라」들을 訓練시켰고 中共과 蘇聯은 政治専門家들을 訓練시켰다』 「체·게바라」는 그의 教本에서 어느 곳에서나 유리한 조건만 있으면 40내지 50명으로도 権力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뉴욕·타임즈」紙 特派員이 「잔지바」의 사태에 関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約 50名의 顚覆活動分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는 아주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탕가니카」와 「잔지바」의 聯合共和国이 새로 樹立된 후로 共

産主義 独裁의 威脅이 東「아프리카」에서 살아져가고 있는듯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지바」의 実権이 「체·게바라」教本의 内容을 그대로 消化하고 있는 사람들의 手中에 남아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쿠바」나 蘇聯 또는 특히 오늘날 中共에서 多数의 革命 또는 「게릴라」指導者 및 戦士들을 양성하고 있으나 그들이 반드시 成功하고 勝利를 거두리라고 仮定한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悲観論的인 생각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政治的 및 潜在的 可能性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잘못된 생각이다. 原子武器의 存在로 말미암아 核強大国들의 핵무기 사용이 저지되고 있는 오늘날 이른바 후진국가들은 「체·게바라」의 말처럼 공산주의活動에 대해 특히 유리한 무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앞으로 全世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成功을 거둔다면 그것은 1947年에 「케난」氏가 말한바 『蘇聯의 팽창주의적 경향』의 結果로서 비롯되는 것은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러한 성공은 中共의 직접적인 팽창과 侵略의 結果로서도 오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아프리카」 및 南美에서 앞으로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革命的 情勢를 造成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바라」流의 各国 職業的 革命闘士들에 依한 複数的 活動의 結果로서 나타날 可能性이 더 많은 것이다. 共産党이 将次 権力을 奪取할 가능성의 面으로 보아서는 이같은 사태에서 오는 위험성이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中国에서의 共産主義(I): 權力闘争(「프로그람」No. 37)

* 「비트포겔」博士

흔히 이제까지 이야기되어 오기로는 中国은 형태로 보아서는 일종의 農業国家의 変形된 형태의 나라이며, 權力形態로는 一元的인 社会이고 西方社会의 "絶対主義"가 갖는 의미보다 더욱 權力이 절대적으로 集中되어 있는 「아시아」的인 社会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代議的이며 . 民意를 대표하는 政府가 발달하기는 어려웠다는 이야기였다. 이 같은 代議政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싸워온 国民党政府는 따라서 이처럼 엄청난 課業을 위해 闘争한 그 노력을 높이 評価받을만 하다 .

이밖에도 伝統的인 中国에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経済的 特異性이 있었다. 中国은 経済的으로는 매우 集約的인 관개식 농업국가이며 따라서 耕地의 확장을 언제나 필요로 했다. 人口가 늘고 土地가 계속 작게 나누어지고 1人当 소유의 토지가 계속, 줄어들면 土地의 個人 所有權을 위해 農民들의 노동의욕은 높아지나 반면에 地主階級이 形成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의 問題, 토지를 가지고 있다한 경우 더 많은 토지를 차지하려는 토지에 얽힌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中国共産主義者들이 執權하기전에 그들 活動의 초기에 조심스럽게 이용했던 点이었다. 中国共産党 歴史의 第2期에는 農業의 集約性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共産主義者들이 처음에 표면에 나타났을때 中国이 전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문제를 附加的으로 제기시켰다. 즉 수많은 外国의 強大国들이 中国의 主權을 유린하고 있었으며 「레닌」이 말한바 『半植民地』的인 상태가 造成되고 있었으니 中国民族主義運動의 선구자 孫

---

* Karl A.Wittfogel : 「와싱톤」大学 中国史 教授
独逸태생, 「프랑크푸르트」大学 Ph.D.

있었다. 蘇聯共産主義者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中国공산주의자들이 그들 나름으로 일을 進行시키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제 中国共産主義者들의 執権闘争을 여러가지 局面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들은 두가지의 主要政策을 가지고 있었는 바 하나는 統一戦線이며 다른 하나는 内戦이었다. 執権闘争의 과정속에서 中国공산주의자들은 세 가지 형태의 統一戦線을 이용했고 두가지 形態의 内戦을 벌였다. 먼저 세 가지 형태의 統一戦線부터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것은 어떤형태를 취하고 있었는가. 첫째形態의 統一戦線은 『侵透』를 통한 統一戦線이었다.

이는 1922 - 23년부터 1927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중에 中国공산주의자들은 国民党 加入이 許容되었다. 国民党指導者 孫逸仙博士는 사실상 이를 환영했고 中国공산주의자들이 加入案을 내기도 했다. 그결과 공산주의자들의 勢力이 늘어났고 마침내 공공연한 紛争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공산주의자들은 1926년 3월에 그 勢力이 暫時 저지되었고 1927년 봄과 여름에는 完全한 敗退를 하기에 이르렀다.

두번째 형태의 統一戦線은 『同盟』을 통한 統一戦線이며 中国공산주의자들은 1963年 특히 1937년부터 国民党과 合作을 하게 되었다. 이때 国民党은 中国全国의 각 지방에 걸쳐서 여러가지 힘을 가진 単一政府를 樹立했으며 中国공산주의자들은 中原으로부터 中国 西北地方으로 도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기서 이른바 延安政権을 維持했다. 그들은 西北地方에서 협소한 地域的인 勢力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第2期의 統一戦線時에는 南京에 있는 国民党政府와 延安에 있는 자그마한 共産主義地区間의 合作이 있은 셈이다. 이 第2次 統一戦線은 共産主義者들에게 다시 成長할 수 있는 機会를 주었다. 그러나 이 合作에서도 対立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対立은 世界第2次大戦의 終戦과 더불어 끝나고 이 統一戦線도 무너지고 말았다. 2次大戦후 약 1년동안 이른바 『聯合政府』라는 세번째형태의 統一戦線을 樹立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를 위한 協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에는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한 先

例가 있었다. 共産主義者들은 東「유럽」에서의 이같은 協商에서 보다 많은 成功과 솜씨의 能熟함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手法을 中国에서 써보려고 했던 것이다. 中国共産主義者들이 이런 形態의 聯合政府를 만들어 내는데 成功할 것이라는 根拠있는 推測이 그후 2年間 떠돌고 있었으나 2次大戰의 終戰과 더불어 情勢는 달라졌고 제3의 統一戰線은 瓦解되어 이어 内戰이 뒤따르게 되었다. 第一次 統一戰線과 第2次 統一戰線사이, 그리고 第2次 統一戰線과 그후의 時期사이를 特徴짓는 두가지 形態의 内戰에 関해 考察해 보기로 하자.

1927年부터 国民党은 共産党과의 関係를 끊었고 第1次 統一戰線의 終末서 부터 1935年까지 中国共産主義者들은 山岳地帯로 도망쳐 共産紅軍을 組織하고 이른바 農村勢力基地를 만들어 이를 「소비에트」라고 불렀다. 또한 中国「소비에트」中央政府를 樹立하고 이른바 中共軍은 国府軍과 싸웠다.

이 첫번째 内戰은 中国共産主義者들이 遂行한 内戰이었다. 이는 世界의 余他地域에서 일어난 사태의 特徴을 보여준다는 意味에서 重要하다. 그들의 軍事活動도 소련과는 전혀 関係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政治的. 軍事的 指導는 받았으나 物質的 援助는 받지 않았다. 첫번째 内戰은 진압이 되었다. 国府軍이 中国「소비에트」政権을 粉砕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極少数만이 살아 남아 西北地方으로까지 『長征』을 하고 이른바 延安政府를 수립했다. 그러므로 이는 소련과 関係를 갖지않고 벌어진 最初의 内戰이었다.

第2次의 内戰은 2次大戰이 끝난지 約 1年 후인 1946 - 1947年間에 벌어졌다. 이때는 中国共産主義者들은 延安에서 뿐만아니라 멀리는 満州에서도 蘇聯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모든 軍事, 経済的 援助를 얻을 수 있었다. 이 内戰은 中国共産主義者들의 勝利로 끝났다.

中国共産主義運動의 이같은 5個의 국면을 살펴본뒤 国府側이 여기서 무엇을 배우려 했는가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시초부터 国府側은 中国공산주의자들에 関해서는 이렇다할 아무런 経験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孫逸仙博士가 共産党을 참여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라하여 共産党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을때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政策의 진정한 目的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中国공산주의자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했으나 그것은 国民党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自身의 目的을 위해서였다.

그들은 孫逸仙에게 여러가지 約束을 했는데 孫逸仙은 다음과 같은 重大한 오류를 범한것 같이 보인다.

그는 中国공산주의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現実主義的이었다. 그러나 그는 「모스크바」는 信頼했다. 그는 소련공산주의자들이 中国공산주의자들에 対해서 보다는 그에게 더 友好的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면에서는 그는 現実的이 못되었다. 孫逸仙은 그의 이같은 태도가 그후 自殺에 가까운 結果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채 1925년초에 逝去했다. 蔣介石이 그의 뒤를 잇자 그는 教訓을 얻은바가 있었다. 원래는 그도 中国공산주의자들을 信頼하고 있었으나 1926년에 이미 그는 中国공산주의자들을 牽制하기 시작했다. 孫逸仙의 運動의 始発地인 広東으로부터 그가 北으로 쳐들어가는 이른바 『北伐』에 착수하기 前에 蔣介石은 中国공산주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는 中国 中部와 東部를 거쳐 上海로 軍隊를 전진시키면서 더많은 教訓을 배웠다. 그는 이미 広東에서 공산주의자들을 弾圧 또는 적어도 制限하려는 시도를 했다.

1927年 봄에 上海에 到達했을때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完全粉砕했다.

武漢에서 中国共産党과 暫定的으로 밀접히 提携하고 있었던 国民党의 左派도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面従腹背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武漢』合作은 瓦解되었다.

1927年 여름에 国民党은 共産党과의 관계를 끊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国民党은 많은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経験하기 시작한 것이다. 共産党이 1935年에 또다시 第2次 統一戦線을 제의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때의 背景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1935-1936年에 国民党은 南京을 首都로 하여 全中国에 걸친 허술한 統治体制를 確立했다. 그러나 国民党

은 延安政権과 가까이 하기를 매우 꺼려했다. 그러나 国民党은 마침내 共産党과 第2次의 統一戦線을 폈다. 国民党은 日本侵略軍에 対抗하는 戦争이 시작되던 1937 - 1939년의 第1期 기간중에 당시 共産党이 차지하고 있던 비교적 좁은 地域안에 中国공산주의자들을 가두어 두려고 했다.

그러나 그후 즉 「히틀러·스탈린」間의 条約이 成立되던 때부터 統一戦線의 同盟関係는 점차로 악화되어 갔다. 「유럽」戦争의 중반기부터 정확히 말한다면 「스탈린그라드」에서 蘇聯이 勝戦한 以後로 소련공산주의자들의 힘은 점차로 강해졌고 中国공산주의자들은 서서히 그들의 태도와 政策을 보다 好戦的인 방향으로 밀고 나갔다.

国府·中共 両勢力間의 関係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왜 中国共産党이 国民党과 이런 홍정을 벌여왔으며 어떻게 해서 統一戦線을 만들게 되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31년에 日本軍이 侵入하여 満州를 占領했는데 中国人들은 満州를 特定国家로 보지않고 東北地方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때 中国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民族主義的 精神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도 그들은 対日戦争에 熱을 올리지 않았다. 이때 「모스크바」는 아직도 日本과 어떤 理解를 成立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던 때였다. 中国共産党은 国民党에 対한 그들의 闘争을 포기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闘争을 強化했다. 1935년 「모스크바」가 위기에 처했다고 느꼈을때 즉 「히틀러」가 日本의 外交政策을 独逸쪽에 끌어들이는데 成功하여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을때에 비로소 「모스크바」는 소련을 공격할지도 모를 日本의 関心을 딴곳으로 끌기 위해 中国에서 보다 치열한 戦争이 벌어지기를 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中国共産党이 外部로부터의 敵에 그들의 関心을 돌린 것은 祖国이 그것을 필요로 했을때가 아니라 「모스크바」가 그것을 필요로 했을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티토」도 「유고슬라비아」가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소련이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비로소 「유고슬라비아」를 방위하기 시작했으니 「티토」의 「게릴라」

軍은 蘇聯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자 「게릴라」作戰을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蘇聯의 活動과 中国공산주의자들의 活動을 하나씩 하나씩 대비시켜가면서 이야기를 進行시키겠다. 「모스크바」가 極東戰線에서의 구원을 몹시 원하고 있던 1937年부터의 첫 기간중에는 中共党은 아무런 말썽꺼리도 없었다. 그러나 1939년에 「히틀러・스탈린」条約이 成立되자 情勢는 달라졌다. 「모스크바」는 이제 매우 강력하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中国共産党은 이때도 国民党과의 合作을 확고히 그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日本의 勢力을 極東에 묶어두기 위해 中・日戰争의 계속을 소련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統一戰線의 内部에서 共産党은 国民党의 地域과 組織속에 組織的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히틀러」의 蘇聯侵攻과 蘇聯・中国共産党間의 관계를 세번째로 対比시켜 고찰해 보자. 1941年 여름에 「모스크바」는 또다시 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中国공산당은 그들의 顚覆活動을 중단하고 그들의 全力을 日本軍에 集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탈린그라드」作戰에서 소련軍이 이긴 후로는 (이것은 특히 極東을 위해서는 歴史的인 重要性을 갖는 転機이다) 「모스크바」의 힘은 크게 增大하기 시작했고 国民党과 共産党의 聯合은 무너지기 시작했으나 완전히 瓦解된것은 아니었다. 共産主義者들이 西方側 특히 美国과의 공공연한 戰争을 두려워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들의 힘을 增強시키는 간접적인 方法을 택했다.

1944年부터 46年까지의 한동안 그들은 聯合政府의 協商을 벌였다. 1944년 이후로 中国共産党은 国民党의 中央政府에 참여하기 위해 적절한 양보조건을 제시하면서 共産紅軍도 해체시키겠다고 제의하고 나섰다.

그러므로 2次大戰後에 이르러 비로소 소련이 中国共産党에게 国府側과 合作하는 政策을 추구토록 勧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스탈린」이 그런 뜻의 声明을 냈기 때문인데 「스탈린」의 声明은 그로부터 훨씬 후에 다른 目的을 위해 発表되었음은 明白한 사실이다. 中国共産党은 1944년에 聯合政府形態의 統一戰線 結成

을 위한 協商을 시작했으며 이를 입증하는 여러가지 文書들이 오늘날 存在하고 있다.

2次大戰이 끝나고 日本이 敗戰하자 새로운 勢力再編成이 이루어졌다. 中国共產党은 蘇聯과의 軍事的 접촉을 통해 그들의 力量을 強化하면서 共産紅軍을 「게릴라」軍으로부터 正規軍으로 전환시켰다. 蘇聯이 이른바 資本主義的 帝国主義陣営에 대한 공공연한 敵対行為를 강화시키자 中国共產党은 美国이 공개적으로 反対를 하려들지 않는다면 中国本土를 統治하게될 全面的인 権力奪取의 戰争으로 까지 번져 나갈 수도 있는 内戦에서 中国共產党의 위치를 強化시키는 행동을 취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満州에서 소련은 中国共產党에게 그들이 주어서는 안될 援助를 주고 말았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제대로 알려져있지 않은 点이 있는데 8月14日 国民党 政府는 「모스크바」와 条約을 맺고 「모스크바」는 精神的·軍事的 援助를 国民党政府에게만 주기로 約束했다. 그러나 事実에 있어서는 소련은 즉각적으로 이 約束을 어기고 満州에서 中国共產党을 直·間接的으로 援助해 주었다. 이 밖에도 中国本土内에서의 権力을 위한 闘争으로부터 関心을 딴데로 쏠리게 하기 위한 運動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蘇聯은 東南亜와 南「아시아」의 여러곳에서 1948年2月의 「칼카타」会談을 시초로하여 蜂起와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

1948年6月에 蘇聯은 伯林에 이르는 地上封鎖를 단행했고 이때부터 美国은 伯林封鎖를 돌파하기 위해 空輸作戦에 没頭하게 되었다. 이러한 空間을 利用하여 中国共產党은 양자강을 넘어 南部 中国에 까지 밀고 내려가 1949년 10월에 中国本土의 主人公으로서 中華人民共和国을 수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4. 中国에서의 共産主義(Ⅱ) : 中共政權(「프로그람」 No. 38)

* 「비 트 포 겔」博 士

中共政權의 性格을 이해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中共政權의 背景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옛날의 中国, 伝統的인 中国, 共産化 以前의 中国 - 이것이 옛 中国의 마지막 局面이었지만 - 은 모두가 「아시아」的 社会의 国家였다. 이 社会는 強力한 政治的 管理의 中心体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진 社会의 政府는 西方側의 絶対主義보다 더 強力하다. 中国共産主義者들이 1921년부터 1949년까지의 사이에 그들의 權力争取를 위한 闘争을 수행하고 있을때 이 「아시아」的 社会는 統制된 代議形態의 政府를 가진 均衡잡힌 多中心的 社会로 移転하고 있는 과정속에 있었다. 中国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闘争끝에 보다 全体主義的 管理와 보다 全体主義的 政治形態인 『東洋的 專制主義』 政權을 수립했다. 공산주의자들은 民族主義運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国民党을 誤導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執權企図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소비에트」라는 特殊한 형태를 갖춘 農民들을 指導 援助하면서 그들을 誤導하고 이용하였다. 이 일을 수행해낸 中国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活動을 시작할때 「마르크스」主義의 理論을 제대로 알고있지 못했다.

그들은 오늘날 「마르크스」理論에 対해서 약간 배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레닌·스탈린」理念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

中国공산주의가 처음 抬頭했을때는 「레닌」의 生涯가 끝날 무렵이었다는 것을 알아둘 必要가 있다. 共産主義者들이 「스탈린」主義에 입각하여 權力의 頂上으로까지 闘争해 올라가고 「레닌」이 불귀의 몸이 될 병석에 눕게된 것은 1922 - 23년의 일이었다.

---

* Karl A.Wittfogel : 「와싱톤」大学 中国史教授
独逸태생, 「프랑크푸르트」大学 Ph.D.

中共政權의 特殊問題들은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問題를 詳細히 고찰하기에 앞서 中共政權과 같은 政權은 중요한 經濟的 特殊性은 물론 人間面의 特殊性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經濟的 特殊性 가운데 으뜸가는것이 中国農業의 特性이다. 中国의 農業은 세계에서 가장 공이 많이드는 集約的인 농업이다. 偉大한 生化学者 「도스베리크」는 中国의 農業은 成人과 어린이를 비교하는 것처럼 19세기의 独逸농업과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集約的 농업으로부터 자극誘因을 없애버리면 참담한 結果가 초래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후 中共에서 일어난 現象이었다. 다음에는 人間面의 特殊性이 있다. 全体主義的 權力이 存在하는 状況下에서 특히 東洋的 專制主義의 状況下에서 最高統治者 - 최고독재자 - 의 人格은 엄청나게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 統治者의 나이가 늙고 매우 높은 推仰을 받게되면 그는 이른바 「아시아」的 專制者의 漸增하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히기가 쉽다. 毛沢東은 人民公社 以後로 부터 中共政策을 다룸에 있어 非合理性이 점점 높아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는 合理的인 판단에 의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의 權力衝動이 命令하는 바에 따른 政策을 추구해왔다.

中国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政權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몇가지의 主要局面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첫 段階는 1949년 그들이 權力을 굳힌 후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사태는 1953年까지 계속 되었는데 이 段階에서 中共은 그들이 奪取한 權力을 공고히하고 内戰이 가져온 파괴를 收拾하며 그들의 權力을 새로운 首都 北京에 集中시켰던 것이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는 權力이 強化되어 滿州처럼 辺境에 있는 地域의 여러가지 軍事·政治指導者들도 順従을 하게 되었다. 滿州에는 아주 강력한 指導者가 있었다. 그는 党의 指導者로서 결코 낮추어볼 人物은 아니었다. 그는 軍事·政治的으로 하도 강력했기 때문에 『滿州의 王』이라

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러나 1953년에 「스탈린」이 죽자 「스탈린」과 약간의 관련을 가지고 있던 高崗이라는 이 사나이는 北京에 소환되었다. 北京은 이제 그를 党本部로 불러들일만큼 강력해졌던 것이다. 그는 北京에와 거기서 체포되고 그후 머지않아 스스로의 목숨을 끊지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후로 가장 강력한 辺境이었던 満州도 中央権力에 順従을 하게 되었다.

또 같은 時期의 経済分野에 있어서는 농민들에게 그때까지도 많은 양보 정책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土地를 分配하고 작은 농토를 가진 農民들에게는 그들의 農民経済를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宣伝하였다. 이때 中共政権은 아직도 資本家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산업 및 상업자본가들을 『民族的 中産階級』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中共은 그들에게 모든 종류의 듣기좋은 公約을 내걸었다. 이와 동시에 中共政権은 宣教師들에게도 宗教의 自由에 대한 비슷한 公約들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約束들은 그후 무참하게 짓밟혀졌다. 이 시기의 초기에 있어서는 民族的 「부르조아」들은 앞으로 아직 그들이 独自的인 活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多少間 혹은 相当한 기간 있으리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政治的으로 또는 憲法上으로 말한다면 中国공산주의자들은 奇異한 형태의 聯立政府를 수립한 셈이었다. 그들은 여러 群小政党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이름을 利用했다. 그러나 그들은 허울좋은 간판에 불과했다.

사실상 民主主義政党들이 共産党에게 이용당한 東「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共産党外의 다른 政党들은 아무런 実権도 없었다. 그들은 地方에 組織도 없었고 中央에 権力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허울좋은 「쇼윈도」의 장식품과도 같았다. 国際的인 面에 있어서는 이 시기의 「모스크바」와의 関係는 「모스크바」가 制度面 및 人的面에서 先任者의 위치에 있는 枢軸과 같은 관계였다. 「스탈린」이 指導者로서 인정되어 있었고 毛沢東은 그에게 従属하여 있었다. 毛沢東이 어떤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또는 経済援助量의 制限같은 어떤 具体的 問題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그는 어떠던 第二義的인 役割을 맡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事情은 1953年에 이르러 달라졌다. 中国공산주의자들은 前과 같은 軸軸의 関係에 머무르고는 있었지만 세계공산주의 運動의 元老 政治人인 毛沢東을 推戴하고 있었고 여러 方面에 있어서 그들의 独自路線을 추구하였다.

一例로 中共은 소련人民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탈린」을 格下시키지는 않았다. 이것은 「말렌코프」나 「후르시쵸프」가 軸軸이라는 条件을 떠나서 党의 特殊問題들을 다루었으며 第2次的인 地位에 있는 党이라 하더라도 毛沢東과 같은 큰 名声을 가진 指導者를 最高指導者로 가지고 있을때는 第2位級의 中国共産党도 그들대로의 特別한 発言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第2段階의 기간중에 中共은 経済面의 여러가지 重要한 政策的 変化를 단행했다. 中共은 이제 農民이나 民族主義的 「부르죠아」에게 내걸었던 公約을 깨뜨려도 될만큼 強力해졌다고 느끼기에 이른 것이다. 그들은 民族主義的 「부르죠아」를 除去하고 거의 모든 現代的 産業들을 接受했으며 모든 大規模 交易을 接受했다.

農業面에 있어서는 이때는 毛沢東이 集団化形式으로 농민들로부터 土地를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데 成功한 때였다.

土地는 共産政権과 政府管理 企業体의 管理統制下에 직접 예속케 되었다.

이 作業이 完成된지 2년후에 農民들이 갖가지의 抵抗을 하고 있음을 発見하자 中共政権은 더 급진적인 大躍進政策을 시도했다. 그들은 이때 약간의 양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었으나 毛沢東의 不合理性의 結果의 一部로서 일을 그대로 밀고나가 『大躍進』運動의 첫번째 政策을 수립하고는 軍隊, 学生, 그리고 엄청난 数의 女性들을 포함한 모든 階級의 労動力을 動員하여 마침내 人民公社를 設立했다. 여기서는 労動誘因이 主로 準軍事的인 紀律에 의해 대치 되었다.

이 政策이 실패하자, 中共政権의 第二局面에 접어들게 된다. 1959年에 農業集団化와 人民公社 作業에 起因한 一大国内危機, 一大農業危機가 찾아들게 된다. 그러자 中共政権은 軽工業分野에 조정을 가하고 농민들에게 여러가지 양보를 했으나 政権이 完全히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最小限의 식량이라도 生産하기 위해 集団化政策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国内危機로부터 対外危機가 조성되는 바, 이제 이 문제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 対外的 위기란 「모스크바」와의 関係에 관한 것이다. 이는 中国共産党과 「크렘린」間의 敵対関係로까지 발전하고 이 対立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이제 中共이 対内的으로 『업적』이라고 말하는 바의 그들의 実質的인 活動面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여러가지 업적가운데 특히 共産主義의 名分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업적과 특별히 공산주의적 背景을 갖는 다른 업적을 서로 구별해서 생각해 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적절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中国本土의 統一問題와 主権問題를 생각해 보자. 이 두가지 일은 그 대강의 일을 国民党이 처음으로 시작하여 確立해 놓은 일들이었다. 2次大戦後 西方列強들은 中国에 対한 그들의 権利를 포기했다. 中国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여건下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統一된 中国全体를 相対로 하여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統一과 主権이라는 重要하고도 적극적인 要素들을 이용했으나 그 요소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国土의 統一이란 한나라 国民에게 어떤 일을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国立鉄道를 부설하는 등의 일은 국토가 統一되어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文盲退治의 問題가 있다. 文字解得人口比率이란 全般的인 発展의 一部이다. 工業化 및 近代化와 더불어 全般的으로 文盲率은 감소한다. 1908年 帝政「러시아」가 아직 執権하고 있을 당시 工業化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을때 一般教育政策이 수립되고 「러시아」国民들이 모두 읽고 쓰기를 배우기 시작하자 1930年

代 末에는 文盲者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930년대라면 그때 蘇聯国民들은 공산주의下에서 배우고 있었던 때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日本에서도 있었다. 공업발전과 더불어 文字解得人口比率도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文字解得人口比率은 적극적인 요소이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그것은 공산당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기 보다는 全般的인 工業化가 이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세번째 要素는 女性地位의 向上이다. 이것도 近代化와 함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現象의 하나이긴 하지만 中国서도 国民党은 女性地位의 向上에 이미 손을 댔다. 또 이밖에 公衆保健問題가 있다. 近代化過程에는 여러가지 일들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이 모든것을 그대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업적으로는 돌릴 수 없는 것이다. 保健은 모기撲滅이나 「말라리아」絶滅등의 활동을 필요로 하며 DDT등의 現代式 手段들이 있을 때는 이같은 일을 쉽게 해낼 수가 있다. 日本도 그랬고 대만도 그러했다. 사실상 蔣介石은 대만에서 毛沢東보다 이 일을 확실히 더 훌륭히 더 성공적으로 수행했었다.

다음으로 共產治下의 状態를 特別히 고찰해 보자. 여기서도 두가지 즉 国民에게 潛在的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事物과 国民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事物들을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中国共產党은 国民大衆을 統制할 수 있는 特殊한 権力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이나 大제방의 건설, 관개용운하, 道路 및 철도 등의 큰 工事를 할 수가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国民의 労動力을 마음대로 動員할 수 없는 政府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처지에 있다. 이렇게해서 工業化를 상당히 촉진시키고 文盲退治를 빨리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다음의 문제를 세밀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공산주의자들의 特異한 方式에 따라 우리는 国民에게 害를 끼치면서 이루어진것이 무엇인가, 다시말해 国民에게 아무런 도움도 줌이 없이 이루어진것은 무엇인가를 直視하여야 한다. 철도문제를 例로 들어보자. 中共은 国土가 統一되

어 있었기 때문에 国民党政府나 과거 어느때보다도 많은 철도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建設한 많은 철도들은 거의가 戦略用 철도였다. 中共이 철도부설의 工事를 시작할때 그들은 중공을 소련과 連結시키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철도는 몽고와 「투르키스탄」의 사막을 횡단한다. 이 철도는 国民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는 철도이다. 이제 中共에는 飢饉이니 식량문제의 위기가 있는데 그런 状況에서 철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철도란 権力維持의 計算에서 만든 것이지 国民의 福利를 위해 敷設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을 重工業에 対해서도 말할 수 있다. 中共은 다른나라에서처럼 国民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権力의 目的을 위해 重工業発展에 중점을 두고있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美国이나 西「유럽」 및 日本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現代式 工業과 통신시설은 国民에 奉仕하기 위해 建立된 것이다. 또는 巨大한 治水事業의 例를 들어보자. 大規模의 治水事業은 그 결과를 과시하기 위해 성급히 착공된다. 많은 낭비가 뒤따르게 되고 관료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이 새로운 治水시설들에는 많은 「알카리」成分이 섞여있기 때문에 상당한 해독을 당장에 끼치는 것이다. 염분이 땅에 퍼져 스며들게 되고 土地의 肥沃度을 높이는 대신 토양을 망치고 마는 것이다.

教育의 例를 들어보자. 国民들로 하여금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자 또 어떤 技能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자. 물론 그런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生活에서는 이런類의 物質的 혜택이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누가 남보고 형무소에 들어가라고 勧하겠는가? 中共의 教育政策에 있어서는 政権의 権力目的에 맞지 않는 세계의 훌륭한 文学作品들을 몰아내고 있으며 또한 女性의 地位問題에 있어서도 女性의 지위가 기술상으로는 男性의 地位에 매우 근사하게 된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바로 「몽테스큐」가 否定的인 民主化라고 말하고 있는 바의 그 現象이다. 모든 사람

이 모두 평등하다고 말할때 모든 사람이란 아무도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女性들은 이제 전보다 더 고된 육체노동을 하도록 그 地位가 格下되고 있다. 즉 女性들은 道路工事나 堤坊工事 또는 堆肥蒐集등의 보다 고된 重労動을 하도록 動員되고 있다. 労賃의 問題外에도 女性을 労動力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家庭의 위치가 떨어지고 家族의 機能이 마비되고 있다. 어머니가 婦人으로서 알맞는 作業의 代替物을 발견하기 까지는 밖에나가 일하지 않을 수 없고, 女性들이 밖에 나가 일하기 때문에 共同取食과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한 代案이 마련된다고 하나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公共作業場에 나가 일을 함으로써 古来의 家族生活様式은 파괴되고 어린이들의 処遇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実情을 실지로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는 慨嘆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끝으로 公衆保健問題를 살펴보자. 一般的인 向上때문에 보건면에도 어느정도의 全般的인 向上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이밖에도 다른 社会奉仕를 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일을 集産主義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独逸이나 工業化가 成長하고 있는 다른 여러나라에서는 모든 종류의 社会奉仕는 経済의 個人主義的 性格이나 人間生活을 파괴함이 없이 수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公衆保健上의 어떤 変化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언제나 눈에 뜨이지 않는 공중보건의 断面이란 있게 마련이며 이는 農業経済 또는 共産主義의 経済全般에서 나타나는 結果로서 共産主義経済에서는 식량생산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国民의 恒久的인 영양실조상태가 造成되는 것이다. 즉 「비타민」의 섭취량 저하의 사태가 일어나고 위장병 또는 폐결핵등의 여러질병이 일어나는 사태가 조성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諸般問題에 関한 고찰을 통해서 볼때 工業化以前의 社会 즉 中共과 같은 나라의 近代化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아시아」나 자유세계의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형태의 近代化와는 동떨어져서 存在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명확히 알 수가 있다. 日本과 같이 多中心的인 社会에서는 労動者와 농민들은 그들의 経済的 地位向上을 위해 여러형태의 活動에 참여할 수 있다.

工業化란 한가지 部分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工業化는 농업과 경공업 및 중공업을 向上시킨다. 한편에는 市場이 있고 生産이 増加하면 労動者나 농민들도 이에 참여하여 利得을 더 올릴 수 있다. 政治的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近代化를 위해서 強制的인 全体主義的 方式을 구태여 따를 필요는 없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日本이나 소련, 帝政「러시아」 및 새로 工業化를 推進하고 있는 여러나라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近代化過程의 한 偉大한 特徴이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들이 工業化를 위해 좋은 役割을 해주고 있는 代議政府的인 요소를 점차로 많이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나라를 近代化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方式을 새로이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多中心的 社会에서 工業化를 이룩하게 되면 国民도 여기서 利得을 얻고 政府도 또한 利得을 얻게 된다. 中共서는 国民은 많은 고통을 겪었고 政府도 큰 위기속에 휘말리고 있다. 그리고 中共은 또한 심각한 軍事的 위기도 露呈하고 있는 것이다. 시골의 村落民들까지도 불만에 쌓여 있고 怨声이 높다. 이제 軍装備도 낡아가고 있다. 政府内에서도 또한 軍隊의 兵士들도 불만에 쌓여 있다. 그러므로 이제 経済危機外에 中共에는 政治的 危機와 軍事的 危機까지 겹쳐 있는 것이다.

5. 東欧 위성국가에서의 共産主義(「프로그람」 No. 39)

* 「드라코빗치」 博 士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政治情勢가 급속히 変転하고 있는 많은 地域들이 있다. 東南亜나 「아프리카」 또는 南美의 어떤 地方의 危機를 알려주는 「뉴스」들이 매일 新聞의 지면들을 채우고 있다. 이와는 좀 다른 뜻에서 共産主義者들이 支配하고 있는 中・東「유럽」의 情勢를 살펴보면 역시 그곳의 事情도 마찬가지이다. 전번에는 中・東「유럽」의 여러나라에서 共産主義者들이 権力을 奪取하는 手法을 論議한 바 있다.

이 章에서는 앞서의 講議에서 말한 様相과 情勢를 좀더 拡大해서 2次世界大戦以後의 歴史的 観点에서 共産諸国政権의 進展状況을 検討해 보려고 한다. 이 章의 核心的 論題는 한편으로는 共産諸国政権의 의도를 分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地域共産執権者들을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予言할 수 없는 革命에 기여하고 있는 주위사정은 어떤 것인가를 検討해 보려는데 있다. 이에 対한 核心을 추려내기 위해 먼저 다음의 세가지 問題를 다루기로 하겠다.

첫째로 中・東「유럽」의 급속한 変化라고 흔히 말하는 것의 内容을 説明하고 둘째로 이 地域에 있는 共産政権들의 多様化 現象을 간략히 説明分析하고 세째로 소련衛星国에서 보이는 가장 最近의 国民들사이의 動揺徴候에 관련하여 몇가지의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먼저 中・東「유럽」内의 급속한 変化의 問題와 過程을 論해 보기로 하자. 이 全地域의 운명이 크게 変한 2次大戦後의 二十年이 채못되는 期間을 다시 6個의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 Milorad Drachkovitch ; 「스텐포드」大学 「후버」研究所研究委員
「유고」태생, 「스위스」「제네바」大学 Ph.D.
「하바드」大学 「러시아」研究所研究委員 歴任

대략 1945年서 1947年에 이르는 2次大戦 직후의 시기에 中·東「유렵」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 있는 共産党들은 세심히 그리고 段階的으로 그들의 活動을 推進시켜 나갔다. 英国의 歷史家 「휴·시드니·윗슨」教授는 진정한 聯立政府를 似而非聯立政府로 그리고 이를 다시 単一的 統治形態로 転換시킨 三段階政治過程을 세밀히 分析하고 있다. 이와 同時에 共産党은 共産党統治下에 이른바 「사라미」戦術을 사용했으며 이는 여러가지의 目的을 가진 政治的 경쟁세력을 하나하나씩 組織的으로 各個 擊破하여 除去해 버리는 術策을 말한다. 冷戦이 実際로 시작된 1947年中에는 걸치고 있던 慎重性의 仮装을 벗어던진 本格的인 共産政権들이 수립되었다. 第2의 時期는 보다 정확히는 「스탈린」主義의 시기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1947年부터 1948年 그리고 1953年에 「스탈린」의 生命이 終末할때까지의 시기이다. 「스탈린」의 統治方式과 政府運営方式에는 政治的 「테러」行動과 経済的 集産主義의 두가지 뚜렷한 特徵이 있었다. 無制限으로 使用된 政治「테러」는 二重의 目的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中·東「유렵」의 諸共産党에서 「스탈린」의 意見을 전적으로 강요하는데 実際로나 또는 潜在的으로 反対할 수 있거나 反対하게 될 모든 要素들을 철저하게 粛清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統治者들의 意見에 따라 이 地域国民들을 改造하기 為해 非共産主義的 住民에 対해 多方面으로부터의 圧力行使였던 것이다.

「스탈린」의 個人崇拝는 소련에 못지않게 中·東「유렵」에서도 줄기차게 推進되었다. 中·東「유렵」의 青少年世代에게 소련에 대한 一次的인 忠誠을 注入시키기 위한 組織的인 努力이 傾注되었다. 経済的 集団主義化에 관해서는 약간의 特別한 様相이 提示되었다. 「스탈린」統治의 가장 重要한 特徵의 하나는 소련과 비슷한 経済体制를 中·東「유렵」에 꼭 그대로 再現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各 나라는 一種의 소련縮小版再生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와 동시에 소련이 各나라를 공공연히 또는 위장된 형태로 착취하는 것이 現今의 手法이며 이에는 여러가지 側面이 있다. 즉 地域内 交易方向의 転換, 소련제품의 값을 높이 매기고 中·東「유렵」에서 오는 제품은

값을 싸게 策定하는것, 이른바 「항가리」,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서의 『合作商社』의 機能 또는 소련군대나 技術顧問의 주둔 등이다. 이런 全般的인 經濟関係로 말미암아 소련은 1945年부터 1956年까지의 기간동안에 衛星諸国의 착취로 総2百億 내지 2百50億弗의 利得을 얻게 되었다.

이 利得이 얼마나 큰 利得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비슷한 같은 기간중 소련이 衛星諸国에 제공한 원조총액이 約 20億弗에 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支配에 관련하여 가장 현저한 사실은 이 支配가 「스탈린」의 死亡後에는 계속될 수 없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스탈린」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統治는 절대적이었고 누구의 挑戰도 받지 않으며 또한 감히 어느 누구도 挑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1953年 3月에 그가 死亡하자 그의 帝国은 예속된 衛星諸国으로부터의 圧力으로 말미암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死亡後 불과 수개월도 안되어서 1953年 6月에 東伯林에 抗拒하여 일어섰으며 붉은軍隊의 出動으로 이를 鎮圧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비슷한 事件들의 連発때문에 「스탈린」의 후계자들은 이른바 『新路線』을 내걸지 않을 수 없었다.

1953年부터 1956年까지 계속된 이 『新路線』은 中·東「유럽」의 여러나라에서 한결같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체코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 또는 「불가리아」같은 一部의 나라에서는 改革은 이미 확립된 「스탈린」主義의 테두리안에서 技術的인 改善에 局限되었고 「폴란드」와 「항가리」에서는 「新路線」은 보다 그 폭이 깊고 実際에 있어 一部의 「스탈린」主義的 기본폐단을 攻擊하는 것이었다. 共産主義者들이 이 새政策을 쓴 目的은 과격한 이나라 国民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약간의 안전변을 열어놓아 그들을 달래보자는 것이었다. 이런 뜻에서 農民들에게 양보가 이루어지고 重工業과 軽工業의 비율이 재조정되었으며 소비물자생산이 增加되고 「테러」의 極悪한 様相이 除去되었다. 이 「新路線」은 一貫된 것도 또는 効果的인것도 아니었다. 1956年2月 소련共産党 第20次大会에서 「후르시쵸프」自身이 「스탈린」個人崇拜를 공격하자 전혀 뜻밖의 사태가

일어났다. 특히 衛星諸国의 知識人들이 그들 뿐만 아니라 多数의 젊은 労動者들과 個人 및 共産党内 여러団体들의 糾合을 얻어 특히 「폴랜드」와 「항가리」에서 보다 많은 과감한 改革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共産主義者들을 놀라게하고 당혹케 한 이같은 国民大衆의 요구는 1956年 가을의 歴史的인 事件의 発端을 이룬 契機가 된것으로 이때 「폴란드」는 본격적인 反蘇叛乱 직전상태에 있었고 「항가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民主主義的 反蘇革命을 断行하였으니 한때 蘇聯帝国의 全版図가 崩壊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그러나 붉은軍隊가 出動함으로써 「항거리」 자유의거는 겨우 진압되었다. 中・東「유럽」의 勢力版図를 유지하겠다는 소련의 決意와 被圧迫国家들을 돕지 못하는 西方世界의 무기력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의 主役은 「니키다・후르시쵸프」였다.

이 時期는 1957年 즉 「항가리」革命의 収拾으로부터 「후르시쵸프」의 거창한 計略이 적어도 暫定的으로나마 失敗했던 1963年 중반기까지 계속된다. 「후르시쵸프」가 이 거창한 計略으로 무엇을 꾸미려했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후르시쵸프」는 「스탈린」의 다른 어떤 후계자들보다도 「스탈린」主義的 統治로는 앞으로 더 統治해 나가기가 불가능하며 소련帝国을 保存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衛星諸国에서 追求해 온 형태의 政策을 一部 대폭적으로 変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956年 가을의 사건들을 겪고 中・東「유럽」을 병합하기 위한 소련의 恆久的인 目標는 「스탈린」이 使用한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方法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더 쉽게 成就할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후르시쵸프」는 相互経済援助協議会(「코메콘」)라는 공산권 내부기관을 보강시켰는데 「코메콘」은 1949年에 「마샬・플랜」에 대항하기 위해 「스탈린」에 의해 創説되었으나 그후 多年間 活動을 중단하고 있었다. 1956年과 10月의 激発的인 사건을 겪은 「소비에트」指導者들은 「코메콘」이 共産諸国을 結束시키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理想的인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1957年 여러級에서의 몇차례 会談에 이어 経済援

助에 關한 「모스크바」에서의 1958年 5月의 共産圈一般会議(General Communist Conference)에서 「코메콘」의 새로운 局面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会議의 主된 決定事項은 超長期的•超国家的 企劃을 위해 全蘇聯圈의 体系的인 經済統合을 단행하자는 것이었다. 이 計劃의 達成目標는 이른바 『社会主義的 分業』을 통해 各国家間의 発展水準의 差異를 除去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바꾸어 말해서 「코메콘」会員国間에 生産의 特定分野의 専門化를 增進시키자는 것이다. 이 専門化는 소련 및 中•東「유럽」의 巨大한 全域에 걸쳐 短期•長期的 視野에 입각한 共同努力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후르시쵸프」의 遠大한 計略이란 이처럼 두가지 機能을 発揮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는 모든 衛星諸国이 国家마다의 潜在的 可能性에 상관없이 소련을 꼭 닮은 縮小版으로서 発展시켜야 하며 厳格한 「스탈린」主義的 經済的 不合理性을 초월하여 「모스크바」의 厳格한 統制를 받는 하나의 經済単位로 발전시키자는 것이고 둘째는 「코메콘」의 기능과 「코메콘」의 主要目的은 各国家에 存在하는 個別的 計劃들로부터 탈피하여 소련 및 全衛星国을 포함하는 世界的 經済計劃으로 점차로 대치시킴으로서 西方世界의 超国家的 經済統合과 대항해 보자는 것이었다. 「후르시쵸프」가 成就하려고 꾀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상상하기는 과히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 点을 더 分明히 설명하고 그의 이 새로운 經済的 実驗의 目的과 아울러 「모스크바」와 中•東「유럽」間의 政治的 関係의 一部 変化를 略述하고자 한다. 첫째 대목에 관하여는 蘇聯圈内部의 超国家的 統合은 그 규모때문일 뿐만아니라 소련이 다른 衛星諸国에 対한 主要原料供給国으로서 남게 된다는 点, 그리고 이와 동시에 「코메콘」会員国들이 労動의 社会的 分業의 概念 테두리 안에서 經済的 専門化의 길을 걷게 된다는 뜻에서 소련을 아주 決定的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經済的 統合은 衛星諸国을 全的으로 그리고 確定的으로 소련으로 흡수해버린다는 利得을 장기간에 걸쳐서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러나 「후루시쵸프」는 「스탈린」

과는 달리 各国 共産党이 政治権力의 独占을 抛棄하고 蘇聯의 外交政策路線을 어김없이 따른다는 条件이라면 各個 共産国의 統治者들이 그들 国内問題를 처리할 수 있는 보다 큰 行動의 自由를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후르시쵸프」의 이러한 遠大한 計略뒤에 一抹의 미묘한 計略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特記할 만한 일은 그의 이 計略이 中途에서 뜻하지 않는 一部의 障碍物에 부딪쳤다는 사실이다.

1963年中에 특히 「루마니아」共産党은 共産圏内部의 専門化 및 統合이 発展할 수 있는 앞길을 여러차례 가로막았다. 「루마니아」共産党의 이같은 행동의 主要目的은 労動의 分業概念과 経済的 専門化는 経済的으로 저개발의 나라들이 工業化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데서 出発한 것이었다. 「루마니아」의 反対는 아마 一部의 다른 「코메콘」会員国들의 支持도 얻었던 모양으로 소련으로 하여금 超国家的 統合을 강요하려는 더 以上의 세력을 적어도 한동안이나마 保留토록 만들었다. 1963年 7月에 열린 全「코메콘」会員国의 第1次 共産党書記会議후에 발표된 公式 「코뮤니케」는 『経済計劃의 多辺的 調整을 위한 可能한 最善의 기반은 会員国間의 双務的 協議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決定에 이어 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 「항가리」, 「불가리아」 衛星諸国間에는 個別的으로 経済, 科学, 技術協助를 위한 政府間委員会가 創設되고 一聯의 双務的協定들이 締結되었다. 이때로부터 오늘날까지 双務的 関係를 위한 모든 交渉은 統合을 위한 새로운 計劃의 前例를 따르고 있다. 이는 또한 지난해 여름에 中・東「유럽」에서는 戦後의 発展時期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 사태를 우리는 変動의 時期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두번째의 主要項目 즉 中・東「유럽」에 있어서의 共産諸国政権의 多様化에 관한 様相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 多様化라는 概念自体는 좀 説明을 요한다.

「루마니아」는 国内統治의 政治的 領域에 있어서는 民主化의 傾向을 찾아 볼 수 없으나 国民大衆의 진정한 愛国的 感情을 抑圧, 抹殺하는 手段

으로서 「루마니아」의 民族主義를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一部의 共産国家에서는 民族主義 意識을 고취하는 措置들을 오늘날 채택하고 있어 소련의 計劃에 反対해서 싸우는 것이 결코 무의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조치들도 国民의 忠誠心을 높이고 共産党의 人気를 높이려는 目的으로 취해지고 있으므로 이는 다시 말하면 衛星諸国의 共産政權들은 겉으로 나타나있는 것보다는 더 強烈한 国民感情이 存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에 「뉴욕·타임즈」紙는 이에 関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民族的 矜持에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 経済生活을 統御하는 官僚들의 無能에 대한 嫌悪感, 過去 및 現在의 不正에 対한 반발심 및 自由人으로서의 權利에 対한 갈망 이런 모든것들이 이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뒤끓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로서 現今의 共産圈内部의 多様化는 여러가지 주위사정의 結果이며 무엇보다도 「니키다·후르시쵸프」가 中·東「유럽」에 対한 소련支配의 核心을 유지하고 아울러 이나라들의 共産党 統治 그 자체를 살리기 위해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스탈린」格下運動의 과정에서 나타난 結果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후르시쵸프」의 伸縮性은 「스탈린」의 경직성이 失敗했던 곳에서 成功할 수 있을지를 알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러므로 이 地域의 오늘날의 情勢를 "実験的이고 過渡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지금의 状況은 共産党統治에 있어서 救援과 瓦解의 要素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

오늘날 中·東「유럽」의 상황은 共産党이 專断的인 權力을 行使할 수 있는 위치를 그대로 保有하려는 共産諸国政權의 몸부림과 外部로부터의 소련의 영향력과 国内的으로는 共産党統治의 힘을 弱化시키려고 作用하고 있는 一聯의 遠心的인 諸勢力이 宿命的으로 対立하고 있는 様相이라고 말할 수 있다. 現場에서 共産圈의 実情을 목격한 鋭敏하고 有能한 観察

家인 「아나돌프·샤프」(Anadolf Sharp) 氏는 이 問題를 다음과 같은 明快한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 "中·東「유럽」에 있어서 共産諸国政権間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共産主義 国家는 어디까지나 共産主義 国家이다. 그 나라들은 모두 党中央委員会 指示를 따르고 있고 指導層은 永続的이며 法院과 言論은 政治的으로 統制되고 있다. 秘密警察은 이제는 絶対万能은 아닐지라도 到処에 깔려있다. 任意団体들은 크게 制限을 받고 있으며 여행은 아직도 権利이기 보다는 特権이다. 이같은 「유럽」에 있어서의 새로운 発展은 「크레므린」을 強化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弱化시키고 있는 것일까? 短期的으로 보아서는 그 対答은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情勢는 「스탈린」死亡前에 비해서는 훨씬 덜 폭발적이다. 그러나 蘇聯指導者 「후르시쵸프」는 이같은 相対的 安全状態를 「이데올로기」의 不調和, 民族主義의 高揚 및 蘇聯権威의 의심할 나위없는 減退라는 代価를 치루고서 얻은 것이다."

이 説明은 오늘날 中·東「유럽」에서의 政治的 現実에 関한 두가지의 相異한 局面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하나는 모든 共産政権은 그들의 政治権力 独占을 維持하려는 결의를 갖고 있다. 国民大衆의 感情이나 그 圧力에 対해 改革이나 양보를 한다 해도 이는 共産主義者들의 権力基盤을 확대시키려는 目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一部의 衛星諸国에서 최근의 動揺事態가 갖는 潜在可能性의 意義에 関한 考察을 해보기로 한다. 모든 動揺事態는 각기 性格과 規模는 서로 다르나 그 意義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1964年 3月 14日 「폴랜드」의 가장 저명한 知識人들 가운데 34名은 政府에 強硬한 請願書를 제출하면서 여러 出版物에 印刷用紙를 恣意로 配給하는 것을 反対하고 또한 検閲制度에 対한 抗議를 했다. 그들은 公開的으로 公正한 批判을 할 수 있는 権利가 憲法에 明記되어 있다고 強調하고 이 権利를 抑圧하는 것이 国家利益에 害로울 것이라고 主張했다.

数 週日後인 5月1日 「체코슬로바키아」의 首都 「프라그」에서 伝統的인 「메이데이」祝賀行事가 自由를 要求하는 学生集会로 化하자 数千名의 학생들이 警察과 충돌했다. 이보다 하루뒤 「불가리아」의 首都 「소피아」에서는 東方正教会의 祝賀「미사」에 참석하려고 教人들이 경찰의 支援을 받는 깡패들의 습격을 당했으며 이어 乱闘劇이 벌어졌다. 이와는 다른 意味에서 그러나 그 意義가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는 「루마니아」共産政権이 최근에 소련과 어떤 点에 関해서는 政治的 同盟을 強化하고 있는 事例를 지적할 수 있다. 一部의 西方側新聞人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事例나 또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가지고 国民大衆의 새로운 감정폭발의 始初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이 섞인 말이 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中•東「유럽」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이 또다시 감소되고 있으며 모든 共産政権이 国民大衆의 反対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潜在可能性을 지닌 소요적인 局面이 적어도 공공연한 不満事態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다.

오늘날 中•東「유럽」에는 세가지의 破壊的인 힘이 作用하고 있다. 하나는 民族主義 感情이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東「유럽」国家들은 과거에 数世紀에 걸쳐 栄光스런 経験을 지닌 오랜 歴史를 자랑하는 国民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単一 표정의 欧亜集団안으로 暴力的으로 또는 미묘한 방법으로 흡수해 버리려는 소련의 計略에 맹렬히 反対하고 있는 것이다. 中•東「유럽」의 社会에 오늘날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번째 要素는 個人의 権利와 自由를 保障해 줄 진정한 民主主義를 지향하자는 것이 国民大衆의 열망이다. 끝으로 「후르시쵸프」의 非「스탈린」化運動의 結果로서 共産政権 自体内에서 「이데올로기」가 해체되고 있다는 要素이다. 그리고 現今의 中•소対立은 이러한 사태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諸般国内問題의 増加와 矛盾의 漸高로 中•東「유럽」内의 共産政権이 해체될 정도까지 弱化되고 있다고 結論을 내린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問題의 重大性으로 보아 무엇인가 이밖의

여러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強調하고 싶은바가 바로 이 点이다. 中・東「유럽」에 共産主義가 들어온 것은 正常的인 政治革命의 結果로서나 또는 자유로이 表現된 国民大衆의 見解 表示의 結果로서가 아니라 2次大戰後 붉은軍隊의 주둔의 結果로서 그리고 政治権力을 장악, 유지할 수 있었던 共産主義 少数集団의 갖가지의 策略의 結果로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 地域에 대한 소련의 大君主로서의 地位主張이나 共産主義者들의 政治的 自己宣伝은 오늘날 일종의 時代錯誤的 現象에 속한다.

오늘날의 成功的인 西「유럽」의 政治的 統合의 과정은 中・東「유럽」에 자연히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는 関鍵的인 政治, 経済的 現象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통적인 歷史的, 文化的 根源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이 두지역을 再統一시키는 것 이상으로 더 論理에 맞고 平和造成에 이바지 하게될 일은 없을 것이다. 冷戰의 第1次的이고 根本的인 原因 즉 「스탈린」이 수립한 政権들을 除去하는 일은 소련統治者들을 包含하여 모든 사람들의 利益에 바로 合致되는 일이 될 것이다. 統一된 民主的 「유럽」이야말로 「유럽」 및 世界의 平和에 무엇보다도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유고슬라비아」의 共產主義(「프로그람」 No. 40)

＊ 「드라코빗치」 博 士

전후 共產主義의 파란많은 역사속에서 「티토」의 「유고슬라비아」는 異例的이고 独特한 역할을 맡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맡게 될 것이다.

과격한 対立을 보이다 극적인 和解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유고슬라비아」의 共產主義는 直接的이었든 또는 어떤중계를 통해서였든 간에 금세기에 있어서의 가장 치열하고 기이한 政治闘争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티토」主義는 많은 論争을 불러 일으킨 문제였고 미합중국의회에서 활발한 論争의 일부는 공산국「유고슬라비아」에 대한 美国協助의 문제를 焦点으로 하여 벌어졌다.

「유고슬라비아」共產党이 시초에 보였던 急進主義의 의의를 說明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 政治的으로 가장 특징적인 점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919 - 20년에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이 창립된 이후로 「유고」공산당은 세계의 모든 革命的 共產党의 일종의 国際的 本部가 될 목적으로 1919年 3月에 「모스크바」에 설립된 초기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콤민테른」의 가장 훌륭한 支部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초기의 이같은 성공에 이어 「유고」공산당은 「유고」정부의 效果的인 反共 諸措置 때문에 일련의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모스크바」에서 「유고」공산당은 「콤민테른」의 최악의 支部의 하나로 간주되었고 공식적으로 解体될 우려마저 느껴지고 있었다.

1936 - 38년의 「스탈린」의 숙청 때 소련에 망명하고 있던 다수의

＊ Milorad Drachkovitch : 「스텐포드」大学「후버」研究所 研究委員
「유고」태생·「스위스」「제네바」大学 Ph.D.
「하바드」大学「러시아」研究所 研究委員歴任

「유고」인들이 파멸의 운명을 맛보았다. 이 가운데 겨우 살아남아 「콤민테른」에 의해 「유고」공산당 서기장직에 임명된 것이 「요시프 브로스 티토」였다. 「티토」의 指導下에 「유고」공산당은 철저하게 「스탈린」化되었고 同時에 개편을 断行했다.

1941年 4月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職業的革命分子들의 소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평화시에 정치적 세력으로서는 보잘것 없는 존재였으나 外国軍隊가 주둔하고 있는 혼란시기와 기존의 国家 社会秩序가 전적으로 崩壊되는 状況속에서는 매우 有力한 効果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였다.

「티토」는 1941년에 「유고」공산주의자들의 活動을 지휘하고 그 이름을 떨쳤는데 1941年 6月에 独逸이 소련을 공격한 뒤를 이어 「모스크바」가 「유럽」의 모든 공산당에게 対独「게릴라」戦을 展開하라고 요구했을 때 빨치산 闘争을 성공적으로 始作할 수 있었던 共産党은 「유고」共産党 뿐이었다. 「유고」共産主義者들은 「크레므린」의 呼訴에 호응하면서 中国 共産主義者들로 부터 배웠던 「게릴라」戦과 政治戦의 교훈을 実践에 옮기기 시작했다. 빨치산 闘争에서 그들은 組織을 진행시키면서도 그들의 真正한 目的을 교묘히 감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종전후 政治権力을 장악하자는 것이었다.

「유고」共産党은 「스탈린」治下의 蘇聯에 광신적으로 헌신하는 나머지 머지않아 「드라자·미하일로비치」대령(후에 장군으로 승급)이 이끄는 「유고슬라비아」内의 또다른 反「나치」 저항운동과 対立을 하게 되었다.

「미하일로비치」는 組織的인 抵抗勢力의 면에서는 共産主義者들 보다 앞선 사람으로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大多数国民 특히 「유고슬라비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종족인 「세르브」족 주민들의 親西方的 感情을 그대로 한몸에 지니고 표현한 사람이었다.

親蘇 및 親西方의 2개 저항운동은 점령군에 대항하는 共同闘争의 조건에 관해서는 合議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점령군 치하에서 서로 国内戦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티토」領導下의 세력과 「미하일로비치」領導下의 세

력간에 短期間의 協力이 이루어졌다. 國際情勢, 좀더 상세히 말한다면 서방열강의 체념 때문에 「유고슬라비아」는 2차대전 직후 소련勢力圈에 속하게 되었고 1944년에 붉은 군대가 「유고슬라비아」에 진주하자 2차대전 후의 共産党 勝利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따라서 1945년 2차대전의 終戰과 더불어 「유고」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가장 異例的인 革命闘争의 기록을 내걸 수가 있었다. 그들은 戦前의 無気力하던 政治的인 한 분파의 存在로 부터 「유고」의 完全한 支配者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蘇聯의 청사진에 따라 「유고슬라비아」를 再編成하는 일에 서둘러 착수하게 되었다. 2次大戦前과 2次大戦中에 「유고」共産主義者들이 「스탈린」에 대한 진정한 개인숭배정신을 갖고 体系的인 훈련을 받아 왔었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이다.

10년전에 共産主義에 幻滅을 느끼고 共産党에서 脱党한 「유고슬라비아」의 가장 저명한 前共産主義者의 한사람인 「밀로반·질라스」는 <「스탈린」과의 대화>라는 그의 最近의 著書에서 재미있는 証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絶対로 잘못이 있을 수 없고 허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스탈린」에 대해 그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에는 그를 얼마나 個人的으로 숭배했던가를 여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유고」의 共産主義者들이 그들의 勝利에 도취하여 「유고슬라비아」内의 모든 組織的 政治反対 勢力의 잔재를 신속히 分析하고 蘇聯의 1936년 憲法을 그대로 모방하여 社会主義와 集団主義의 획기적인 措置들을 도입하려고 급급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들은 그들의 革命的 急進主義 때문에 東「유럽」의 「나치」정권 점령지역의 나라들이 진정한 民主主義 国家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는 「얄타」회담과 같은 強大国들의 저명한 国際協定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와 동시에 「유고슬라비아」의 全国境과 領土는 붉은 군대가 점령했고 「유고슬라비아」는 好戦的인 外交政策을 수행했다. 그들은 「그리스」에서의 공산주의 「게릴라」 活動을 시작시키고 이를 積極 支援했다. 그들은 「트리

에스트」를 둘러싸고 西方同盟国들과 軍事対決을 벌일 직전에 까지 이르렀었다. 그들은 「유고슬라비아」국경 부근을 비행하는 미국항공기 一台를 격추시켰다. 그들은 国内外問題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好戦性에 있어 「스탈린」자신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것 처럼 행동했다. 이점에 관하여 두가지 実例를 들어보기로 하자. 1945年 6月5日 또 하나의 主導的 「유고」共産党 指導者인 「에드와드·카르도」는 당시 「유고」駐在 蘇聯大使인 「스티코프」와의 対談에서 「유고」공산당은 소련공산당의 일파로서 看做되어야 하며 蘇聯은 「유고슬라비아」共産党을 한 国家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장차의 蘇聯의 하나의 공화국의 代表로서 처우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명했다.

1947年 9月 새로운 国際共産主義 組織体인 유명한 「콤민포름」을 설립한 「폴랜드」에서의 비밀회의에서 「유고」共産党 代表 「칼·A 질라스」는 가장 극렬한 말투로 「이탈리아」共産党은 無能하다고 공격하고 「유고」共産党의 急進主義는 革命的 美徳의 模範이라고 찬양했다. 1947年 末에는 겉으로 보아서 「유고」共産党은 蘇聯에 다음가는 가장 영예롭고 特殊한 지위를 国際共産主義 運動의 階序속에서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반년후인 1948年 6月28日에 같은 「유고」共産党은 「콤민포름」에서 追放되고 政治的 離脱과 배반의 모든 범죄를 범했다는 非難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때 전세계를 놀라게한 이 悲劇的인 事件은 설명을 요하는 것으로 「유고」共産主義者들의 非「스탈린」化 過程의 요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스탈린」의 病的인 의심증 그리고 그만이 命令을 내릴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그의 命令을 遂行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의 철통같은 규율 등으로 미루어 생각해 볼때, 共産主義 革命 拡大라는 大義만을 위해 奉仕하고 自身의 信念하에 独自的으로 행동하고 있는 「티토」에 대해 「스탈린」이 점차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理解하기 쉬운 일이다.

事実上 2次大戦後 모든 共産党을 그의 의사에 무조건 服従시키는 習性

이 들었던 「스탈린」으로서는 「티토」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誤算을 한 것이다. 1956年 2月 「후르시쵸프」는 蘇聯共産党 제20차 대회에서 演說하는 가운데 「스탈린」의 발언 또는 「스탈린」이 그때 생각하고 있었으리라는 그의 信念을 引用하면서 「스탈린」으로서는 그의 손가락 하나를 들기만 해도 「티토」를 없애버리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歷史의 方向은 얄궂게도 「티토」로 하여금 그가 「스탈린」에게 屈服하는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도 파멸할 것이라는 국면에 있어서 그로 하여금 오히려 저항의 길을 택하게 했던 것이다.

「티토」는 그의 前主人이며 偶像이었던 「스탈린」, 즉 그의 全体主義 국가를 効果있게 樹立함에 있어 그 方法과 青写真을 제공해 주었던 「스탈린」에 항거하는데 成功했던 것이다.

「티토」주의의 현상을 理解하는데 있어서는 「티토」가 「모스크바」에 항거한 것은 「티토」자신이 計劃的으로 不服従을 하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탈린」이 그를 없애버리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蘇聯의 原型과는 다른 方法으로 共産主義 体制를 처음 成功的으로 発展시킨 例로서의 「티토」주의의 現状은 「티토」의 反乱의 결과가 아니라 마지못해 強要된 自衛策의 결과였던 것이다. 「티토」는 「콤민포름」으로 부터 파문을 당한 후 만 1년동안 「스탈린」과의 和解를 摸索했으나 「스탈린」은 和解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티토」의 머리를 원하고 있음을 「티토」는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모스크바」와 「베오그라드」간의 対立은 全面的인 様相을 띄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蘇聯 및 衛星諸国의 政治, 経済的 封鎖와 「보이콧」에 직면하게된 「유고슬라비아」는 일종의 経済的 질식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바로 韓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바와 같은 代理戦争에 의한 공격의 위협마저 받게되었다. 「유고슬라비아」政府는 世界 余地의 나라에 経済援助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빠지게 되었고 緊急事態時에는 간접적이나마 軍事的 保護도 요청하

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協助는 조건없는 것이라야만 했다. 「유고」와 西方世界와의 관계가 本論의 기본적 뼈대가 되겠지만 여기서 그것을 다 論議할 수는 없고 그대신 이 문제의 考察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소들을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스탈린」의 生存時에는 「유고슬라비아」와 蘇聯의 관계는 매우 緊張된 敵対関係 속에 있었다. 간첩과 「테러」活動의 直接的 事例 및 「유고슬라비아」와 인접한 소련의 衛星諸国과의 국경에서의 軍事的 挑発行為등은 「모스크바」와 「베오그라드」간의 관계의 性質을 무엇보다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련과 蘇聯衛星諸国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이야기를 할 때는 『「파쇼」주의자들의 멍에』나 『帝国主義의 노예』라 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티토」측의 反応도 이에 못지않게 激烈한 것이였다. 「모스크바」에 충성을 다하는 이른바 「콤민포름」주의자들인 수천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되고 「아드리아」島의 불모의 섬에 있는 무시무시한 集団収容所에서 처참한 처우를 당해야 했다.

1952年 11月에 열린 「유고슬라비아」共産党 第6次 大会는 一大反蘇集会로 化했다. 「티토」는 이 대회에 보내는 報告書에서 「스탈린」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犯罪를 저질렀다고 非難하고 「히틀러」조차도 「스탈린」이 蘇聯의 全住民을 숙청하는데 사용한 手法을 부러워할 지경이었을 것이라고 言明했다.

蘇聯은 또한 앞서까지 독립국이던 동「유럽」 제국을 소련의 한낱 植民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티토」의 또하나의 攻撃言辞였다. 이 당대회는 蘇聯이 帝国主義的이며 官僚主義的이고 反社会主義的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앞서까지는 우상으로 숭상하던 「스탈린」이라는 上典과 그의 가장 成功的인 제자였던 「티토」간의 이같은 緊張된 관계와 併行하여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특히 경제면에서 몇가지의 중요한 改革이 일어났다. 앞서 말

한 바대로 「유고슬라비아」는 「모스크바」와 결렬할 때까지는 모든면에 있어서 蘇聯의 模型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었다. 이제 「스탈린」을 『공적 제1호』로 선언하자 「유고슬라비아」의 「스탈린」主義는 修正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50 - 1953년간 즉, 独裁者 「스탈린」이 사망하기 전까지 「스탈린」,「티토」의 関係가 가장 극렬했던 이 시기에 「유고슬라비아」에 導入된 두가지의 가장 重要한 社会 経済的 改革은 이른바 『労動者 評議会』 제도와 또한 「유고슬라비아」의 新経済 政策이라고 부를 수 있는 諸措置였다.

労動者 評議会는 고전적인 「마르크스」主義 計劃에 따라 새로운 社会体制 즉, 『国家가 規定하는 全般的인 經濟的 指令 안에서 労動者들을 管理人 및 生産者로 하여 企業을 管理』케 한다는 理論에 따라 구상된 것이었다. 이 뜻에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最高 行政機関으로서의 国家는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추게 되며 일반적으로 地方分権이 된 社会에서 労動者들이 그들 운명을 스스로 決定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다.

「티토」의 새 経済政策은 「스탈린」式인 중앙에서의 상세한 計劃을 廃止하고 그 대신 経済発展의 基本目標만을 설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計劃方式으로서 이는 各個 企業体들이 社会에 대한 특정의 根本的인 物理的 책임을 完遂한 後에는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려는 것이었다. 이 실리주의적인 改革은 西方社会 특히 미국으로 부터 経済援助를 얻어 「스탈린」主義 方式으로 부터의 전면적인 파산을 모면하고 특이한 혼합경제체제를 성취하려는 「유고」정권에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改革은 経済的 集産主義와 많은 고전적인 経済的 유인을 한데 종합시키려는 것으로 生産性을 높이고 労動者들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社会主義化된 企業体들은 다소간 자유화된 수요 공급의 원칙이 支配하는 市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것은 다른 共産主義国家에서 용인되고 있는 経済方式에서 약간 변형된 것이지만 「유고」共産党은 이를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인 적용의 結果라고 공식적으로

내세웠다.

「티토」主義의 현상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두가지 점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첫째 「유고」共産党은 「유고」経済生活의 青写真으로서 「스탈린」主義를 거부했으나 그들 자신의 実験을 단행하는 시초부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이며 「스탈린」은 「마르크스」의 原理와 「레닌」主義의 実践에서 이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때로 부터 오늘날까지 「티토」式으로 변형된 地方分権의 共産主義 体制는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新生国家들에게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한 実例로서 제시되어 오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특히 中共을 비롯한 일부의 共産国家들로 부터 共産主義의 변절자라고 비난을 받고 있으나 그들은 現今의 「마르크스·레닌」主義運動에서 그들이 가장 진보적인 流派라고 主張하고 있고 이 主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958年 4月에 「유고」는 그들 스스로의 「이데올로기」計劃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서 그들은 그들 나름으로 만들어낸 「유고」版 非「스탈린」化 共産主義의 内容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 計劃에서 그들은 『人類는 수많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社会主義 時代로 깊숙히 진입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공언하고 있다.

「티토」의 非「스탈린」化에 관한 두번째 説明은 그 内容이 좀다르기는 하나 그 意義는 根本的으로 重要하다. 「모스크바」와 「베오그라드」의 관계는 「스탈린」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격렬하고 화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1953年 3月 「스탈린」 사망 직후 그의 후계자들은 「티토」의 「유고슬라비아」와 関係改善을 위한 具体的인 措置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티토」를 「파쇼」主義의 「스파이」라고 하던 공격이 蘇聯新聞의 지면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外交関係 및 交易関係가 재개되었다. 和解를 위한 蘇聯의 주도권에 대한 「티토」의 회답도 이에 못지않게 和解를 바

라는 의사를 명백히 表示하는 것이었다. 「유고」共産党 指導者들이 「스탈린」의 후계자들과의 関係 改善을 원하고 있고 「크레므린 과의 実験的 措置를 취하려 하던 때 「유고」共産主義 指導者가운데 하나인 「밀로반·질라스」는 이런 政策路線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질라스」의 事件은 매우 意義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問題를 특별히 고찰해 볼 必要가 있다.

1948年 「모스크바」에서 「콤민포름」의 밑에 있을 때의 「밀로반·질라스」는 여러모로 보아 전형적인 「스탈린」主義者 였다. 「질라스」는 党의 首席 理論家로서 또한 가장 능란한 웅변가로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에서의 共産党宣伝의 책임자로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유고」共産党의 急進的인 性格에 貢献한 사람이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스탈린」과의 대립은 「질라스」는 말할 것도 없이 「유고」의 여러 共産党員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이는 실망적인 일인 同時에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러자 「스탈린」에 対한 「질라스」의 충성심은 그 反対方向으로 転換되고 말았다. 「유고」共産党 가운데 「스탈린」主義的 統治를 「밀로반·질라스」만큼 強力하게 비난한 사람도 없었다. 그의 反「스탈린」主義는 그의 동지 및 「유고슬라비아」共産党首의 새 路線에 아랑곳없이 「스탈린」死後에 까지 継続되었다. 「유고」共産党의 余他의 指導者들과는 달리 「질라스」가 継続해서 주창한 것도 共産党이 政治権力의 독점을 포기한다 해도 어디까지나 「스탈린」主義的 색채를 못벗어날 것이니 「유고슬라비아」의 共産党과 共産主義를 진정으로 非「스탈린」化 하자는 것이었다.

이 관건적인 점에 관해 「질라스」는 1954年 1月에 党에서 公開的인 견책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理念을 著述로 発表하여 그의 著述이 <새계급>이라는 이름으로 1957年 여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出版되었다. 이 책 自体는 共産主義의 方式을 모든 면에 걸쳐 날카롭게 철저히 비판한 것이었다. 이 책이 出版된 후 「질라스」는 「유고슬라비아」의

政治舞台에서 完全히 제거되어 그후 투옥되었다.

다른 共産主義의 国家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유고슬라비아」는 単一的 政治団体인 「유고슬라비아」共産主義 聯合勢力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이 統治는 많은 면에 있어 다른 共産主義 国家에 있어서의 통치와는 상이하다. 「유고슬라비아」의 国民들은 앞서 말한 혼합경제 체제때문에 다른 共産主義 国家의 国民들보다 経済的으로 여유있는 生活을 하고 있다. 그들은 比較的 쉽게 海外旅行을 할 수 있고 比較的 自由스럽게 外国으로 부터의 訪問客들이나 外国新聞 및 映画들에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政治権力과 統制를 독점하고 있는 単一政党의 政治的 支配에 어떤 意味로나 도전하지 않는다는 条件하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知識人들의 生活이란 것도 특히 理念面에서는 질식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마르크스·레닌」主義를 理念上으로 공개적으로 批判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있다. 真正한 政治的 民主化를 거부하고 있는 国家와 組織的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민주화의 요구가 일고 있는 사회사이에 이같은 不安스런 均衡이 維持되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또하나의 애매성은 「유고슬라비아」의 経済体制에 관한 것이다. 문서상으로 나타난 労動者評議会의 原則은 事実上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 現実的 効果는 훨씬 적다.

그 하나의 実例는 당의 통제에 대해 労動者들이 감히 反対할 수도 없고 反対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번째의 実例는 관리인들의 특권인데 관리인의 특권은 実際面에 있어서는 理論上의 労動者들의 権利 以上으로 더 많이 行事되고 있는 것이며 이밖에 또 労動者들의 経験不足이란 면도 있다. 끝으로 이것이 가장 重要한 점이지만 理論上 産業民主主義를 지향하는 체제는 現実에 있어서는 政治的 일당독재와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外交政策도 이와 비슷한 曖昧性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티토」는 직·간접적인 經濟援助를 하고 있는 美国과의 関係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후르시쵸프」와 매우 密接한 関係를 수립하고 모든 주요정책에 있어서는 「후르시쵸프」의 外交政策을 따르고 있다. 그는 蘇聯에 의지하는 일방 저개발제국과는 특별한 関係를 개척하여 世界의 第3勢力을 증진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티토」主義의 「유고슬라비아」가 장차 어떻게 될것이냐는 말하기 어려운 問題이다. 왜냐하면 過去와 마찬가지로 国際的 条件이 重要한 役割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유고슬라비아」의 矛盾的인 様相은 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티토」의 뒤를 누가 인계할 것이냐도 根本的인 問題를 제기해 준다. 그러나 여기서 두가지 점은 確実하다.

하나는 共産主義 治下의 「유고슬라비아」社会가 実質的으로 변화는 했으나 진정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国民大衆의 열망은 그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것이며, 「티토」主義는 이뜻에서 양면적으로 모순된 現実에 처해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고」의 共産主義는 「스탈린」主義的 기본악을 일부 修正한 것이긴 하나 아직도 고칠 수 없는 「스탈린」主義的 병폐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티토」의 통치가 「유고슬라비아」나 그밖의 地域의 共産主義를 살리기 위한 必要한 措置를 代表하는 것인지 아니면 共産主義的 全体主義 崩壊에 이르는 치명적인 措置를 뜻하는 것인지는 오직 미래의 歷史만이 그 향배를 決定해 줄 것이다.

7. 소련의 外交政策(Ⅰ)(「프로그람」 No. 41)

* 「포 소 니」 博 士

1915年 가을 欧羅巴에서는 世界第1次大戦이 한창이였다. 「러시아」와 独逸은 動員할 수 있는 모든 手段을 다하여 싸우고 있었다. 独逸은 「러시아」의 侵攻을 撃退시키기는 하였으나 「러시아」帝国의 방대한 勢力巻 깊숙히 進攻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지난 1世紀 以上을 「러시아」에 対한 戦争方法에 関하여 研究하여 온 独逸의 戦略家들은 「러시아」에 勝利하기 為하여는 군사전과 정치전을 混用하여야 된다는 確信을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의 軍隊를 격파하는 것만으로는 完全한 勝利를 얻을 수 없다. 完全한 勝利를 위해서는 首都 「聖피터스버그」에 있는 「러시아」政府를 타도하여야 하며 그것으로도 안되면 革命의 手段으로 政権 全体를 전복시켜야 한다. 当時 「러시아」, 「우크라이나」, 中部亜細亜, 「코카사스」 및 「시베리아」가 「러시아」皇帝의 統治下에 있었으며 皇帝의 軍隊가 이 地域을 防禦하고 있었다. 皇帝는 専制君主로서 그의 意思가 곧 法律이었다. 伝統的으로 「러시아」의 国家 統治機構는 強圧的이고 非能率的 이었다. 20世紀가 始作되면서 부터 「짜르」政権은 흔들리기 始作하여 官僚制度와 司法制度가 漸次 発展되기 始作하였고 1905年에 設立된 民主的인 制度들은 제법 成功的으로 運営되기 始作하고 있어 「러시아」는 여러모로 改革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짜르」政府는 너무나 느리고도 不安定한 進度를 보였고 또한 建設的인 思考方式이 欠乏되어 있었다. 「짜르」政権은 人民의 支持를 못받고 있었으며 国民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努力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 全域에

---

* Stefan T. Possony : 「스탠포드」大学 「후버」外交問題研究所 所長
「오스트리아」胎生, 「비엔나」大学 ph.D.

걸쳐서 「짜르」政權을 전복시키고, 이를 民主共和国으로 대치하려는 革命運動이 퍼지고 있었다. 또한 피압박민족들의 自決權을 要求하는 独立運動도 일어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貴族들 까지도 変化를 바라고 있었고, 軍部와 実業界도 近代的 国家를 원하고 있었다. 여러개의 革命団体들이 存在하고 있었는데, 그중 몇개는 共産主義나 社会主義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견고히 組織된 団体들로서 単純히 専制政府를 타도하는 것만으로는 満足하지 않았다. 그들의 目的은 専制 君主制度와 함께 中産階級을 타도하고, 社会主義 経済를 樹立함으로써 階級없는 社会를 創造하고, 世界 全域에 걸친 社会主義 革命을 遂行하는 것이었다. 世界第1次大戰 期間中, 소련을內部로 부터 弱化시키기를 熱望한 独逸 戰略専門家들은 「러시아」의 극단적인 革命団体들과 接触을 갖게 되었다. 独逸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러시아」를 굴복시키고 그러므로서 또한 仏蘭西와 英国에 対한 勝利를 굳혀서 全世界에 独逸의 패권을 樹立하고자 한 것이다. 많은 「러시아」革命家들은 「러시아」 警察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亡命生活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自由롭게 集会를 할 수 있고 宣伝物도 만들 수 있으며 募金活動도 할 수 있는 西欧羅巴에서 大部分 生活하고 있으나 이들은 간신히 生活을 維持하여 왔고 完全히 非主流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祖国으로 돌아가기를 熱望하였고 이의 挫折로 因한 증오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內部에 있는 革命家들에게 政治的인 支援을 提供할 機会가 가끔 있었다. 1914年에 世界大戰이 始作할 当時, 이러한 亡命革命家들 중의 많은 사람이 帰国하였고, 그들 중에는 軍隊에 入隊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帰国한 사람 全部가 이러한 種類의 愛国者가 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극단적인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祖国인 「짜르」政權의 勝利를 저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任務라고 宣言하며, 「짜르」의 勝利는 世界 社会主義 運動에 害를 끼치게 되므로 그들은 그들의 祖国인 「러시아」의 패전을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任務라고 主張하였으며 이것이 世界革命의 첫 段階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種類의 革命

家들은 패배주의자라고 불리워졌다.

1915年 9月 어느날, 아무런 지원자도 一定한 居處도 없으며 추종자도 자금도 없는 「러시아」革命家 한 사람이 중개를 통하여 한 独逸 外務省 官吏와 만났다. 이 「러시아」革命家는 独逸의 情報員으로서 約 半年間을 일해 왔으며, 그는 自己가 執權하면 「짜르」帝国에 의하여 支配되어온 非「러시아」国家들에게 独立을 부여하겠다고 主張해 왔었다. 이것은 즉 「러시아」帝国을 전복시켜버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自己가 執權하면 独逸과 共同으로 印度를 攻擊할 것을 約束하였다. 이것은 즉 英国에 対抗하는 独逸·「러시아」 同盟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러시아」革命家의 이름은 바로 「레닌」이었다. 「레닌」은 「스위스」의 「베른」에서 居住하고 있었으며, 그의 月收入은 100弗 未滿이었고, 추종자의 数도 200名을 넘지 못하였으나, 이들 追従者들은 全員이 헌신적인 共産主義者들이었다.

물론 独逸政府가 共産主義를 信奉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自己들의 軍事的 目的達成을 위하여 「러시아」革命家들을 必要로 하였던 것이다. 「레닌」 역시 独逸의 帝国主義를 지지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独逸의 財政 및 物資 支援을 必要로 하였던 것이다. 서로 協力者가 될 수 없는 이 両者間에는 한가지의 共同目標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제정「러시아」의 滅亡이었던 것이다.

当時의 모든 革命家나 革命団体들은 革命을 反対하고 있는 다른 政府들로 부터의 支援을 얻고자 努力하였음으로 1915年 9月에 있은 「레닌」과 独逸 外務省 当局과의 接触도 特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独逸과 같은 強力한 国家와 「레닌」과 같이 無名人으로서 별로 重要視되지 않고 있던 革命家와의 接触은 前例를 찾을 수 없는 드문 일이었다. 当時의 状况으로는 独逸의 強力한 支援을 받는다 하더라도 「레닌」이 成功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奇蹟이 일어났다. 「레닌」과 独逸의 関係가 中断되었음에도 不

拘하고 「레닌」의 執權을 独逸이 도우게 되게끔 事態가 進展되었으니, 結局 「레닌」과 独逸 사이의 同盟関係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러시아」帝国의 「짜르」政権은 破滅되고 말았다. 이러한 뜻에서 1915年 9月은 소련 外交政策의 始作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인 것은 소련 外交政策은 소련政権 自体가 誕生하기도 以前에 벌써 始作되었다는 事実이다. 그러나 「레닌」이 共産党을 最優先的으로 생각하며 行動해 왔고, 「레닌」이 国家라는 것은 党이 利用하는 하나의 手段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党을 무엇보다도 重要하게 생각해 왔던 것을 想起할 때 이러한 現状은 반드시 역설적인 것만은 아니다. 共産主義者란 즉 共産革命을 위하여 闘争하는 사람이므로, 国家間의 関係를 다루는 外交政策이란 지금 그들이 그 国家를 支配하고 있든 않든간에 世界革命家들이 活用하여야 하는 여러가지 方法중의 하나에 不過하다. 実際로 共産主義者들의 外交政策은 歴史의 進路를 変更시켰었다. 独逸의 支援과 圧力이 없었던들 「레닌」은 일찌기 「러시아」에 帰国하여 効率的인 革命勢力을 구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独逸의 지원을 除外하고 「레닌」은 新聞, 武器, 組織, 軍隊 등의 어떠한 다른 手段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따라서 権力을 掌握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権力을 維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레닌」은 独逸로 부터 막강한 힘을 補給받았으며, 「레닌」이 提供한 것이란 「이데올로기」, 작전이론, 조직능력 및 不屈의 執権意志 뿐이었으나, 이러한 것이야말로 가장 重要하고도 強力한 要素들이었던 것이다. 独逸의 最強国에의 꿈은 사라졌지만 「레닌」의 戦略은 成功하였었다. 世界共産主義는 그들이 活動할 수 있는 첫번째의 基地를 獲得하였으며, 더구나 이 기지는 欧羅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 設立되었을 뿐아니라 지리적으로 보아도 亜細亜로 進出하기에 最適合한 곳에 位置하고 있었다.

1918年에는 「볼세비키」의 統治権은 「페드로그라드」, 「모스크바」 및 「볼가」강 沿岸에 局限되어 있었으나 「우크라이나」는 社会主義政府가 掌握하고 있던 独立国家였다. 「발틱」帝国과 「폴랜드」 및 「코카사스」는

独逸의 支配下에 있던 独立된 国家들이었고 「핀랜드」도 또한 独立国家였다. 1918年에 独逸이 敗戰한 後 「볼세비키」政府는 「짜르」帝国에 속하였던 旧地域들을 再占領하려고 나섰다. 「레닌」은 平和를 約束하면서도 歷史上 가장 유혈적인 戰争을 일으키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4年間에 걸친 世界第1次大戰에 뒤이어 約 4年間 継続된 内乱을 통하여 「볼세비키」가 勝利를 거두므로서 그 結果 「우크라이나」가 「볼세비키」統治下로 들어왔으며, 「코카사스」와 西「시베리아」 및 「발틱」帝国의 反「볼세비키」勢力들이 擊退되었다. 中部亜細亜 및 東部「시베리아」에서 있었던 反抗運動과 日本의 支援을 받았던 反共勢力도 섬멸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黒海에서 作戰中이던 仏蘭西 艦隊에서 反乱이 일어 났으며, 反「볼세비키」勢力을 支援하기 위하여 上陸하였던 美·英 聯合軍隊는 内乱에 対하여 中立을 지켜야만 되게 되었으며, 結局 이들은 계략의 虚를 찔리고 撤収하고 말았다. 失敗로 끝나버린 여러가지의 反「볼세비키」運動에 가담하였다가 捕虜가 된 外国兵士들은 洗脳후 釈放되어 「유럽」이나 美国으로 革命思想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 内乱을 遂行하는 과정에서 宣伝, 経済的 破壊, 偽装外交, 侵透, 暴動, 軍事作戰 등 正規戰과 革命戰術이 混合된 전혀 새로운 形態의 闘争方式이 導入되었다 例를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볼세비키」 暴動部隊가 權力을 掌握하고 난 뒤에 붉은 軍隊가 이를 占領함으로서 作戰을 完遂하였으며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攻擊的 革命戰術로서 軍隊가 먼저 一擊을 加한 後에 혁명궐기로서 作戰을 끝마치는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革命만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戰争만으로 그칠때도 있었다. 이러한 革命과 闘争은 旧「러시아」帝国의 国境内에만 局限된 것은 아니었고, 붉은 軍隊는 「폴랜드」에 대하여 革命戰争을 開始한 例도 있었다. 対「폴랜드」戰争이 「폴랜드」軍隊의 攻擊으로 始作되었던 것은 事実이지만, 「레닌」은 이 機会에 独逸에서 革命이 일어날 수 있게 戰争을 拡大할 것을 希望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심지어 이 機会에 欧羅巴 全域에 걸친 共産主義의 本格的인 抬頭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붉

은 軍隊는 「폴랜드」의 首都 「바르샤바」의 문턱에서 敗北 当하고 말았으며, 얼마 후에 「러시아」海軍의 「발틱」海 基地인 「코스타트」에서 있었던 暴動을 비롯하여 「러시아」全域에 波及된 国内動揺로 말미암아 「레닌」은 国外에서의 革命的 攻勢를 縮少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레닌」은 이제와서 世界를 征服하려면 軍事的인 方法을 必要로 함을 깨달았으나, 共産主義者들에게는 이에대한 軍備가 되어있지 않았다. 「레닌」은 国内平定을 先決하기 위해서 「시베리아」征服을 完遂할 것을 命令하여 드디어 東端에 있는 「울라디보스톡」이 함락되므로써 攻擊은 끝을 맺었다.

「레닌」은 制限된 勝利로서 満足하여야 될 処地임을 일직 깨달음으로서 그가 「나폴레옹」보다도 더욱 成功的인 征服者라는 것을 証明하였다. 「레닌」은 「발틱」제국과 「핀랜드」를 除外하고는 自己가 붕괴시켰던 「짜르」제국을 完全히 다시 復旧시켰던 것이다. 이제 共産主義者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両大「슬라브」国家 및 그외에도 열두엇의 餘他国家들과 数百個의 其他 種族들을 支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서 共産主義의 支配権은 「발틱」海로부터 太平洋까지 拡張되었던 것이다.

共産主義의 팽창이 欧羅巴에서 저지되므로서 「볼세비키」는 独逸, 「바바리아」, 「항가리」 및 「루마니아」 等地에서의 共産主義 革命運動을 支援할 수가 없었으며 때로는 지원을 꺼리기도 하였다. 그후 「레닌」은 「이탈리아」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 共産革命勢力으로 부터의 支援要請도 거절하였다.

「레닌」은 탁월한 戦略家로서 그의 전략을 現実에 가장 알맞게 잘 実践하였다. 그는 自己의 権力 基盤을 堅固히 할 때까지는 国際的인 紛争이 일어나는 것을 回避하였으며, 自己의 能力限度 内에서만 活動하였다.

世界 여러 곳에서 共産革命이 시도되었고 우발적인 暴動도 여러번 일어났었으나 「레닌」은 이러한 革命에 対한 支援을 要請받았을 때마다 대개는 急進的인 用語를 구사하여 연막을 피우고는, 実際 支援은 거절하여 왔다.

征服된 地域들은 「소비에트」聯邦共和国의 創設과 더불어 이에 흡수되었다.

이 聯邦共和国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黄「러시아」, 「코-카사스」 帝国 및 中央亜細亜諸国의 聯邦을 뜻한다. 「러시아」는 이와같이 所謂 聯邦共和国으로 行勢하고 있지만 그러나 事実에 있어서 소련은 聯邦国이 아니라 여러 国家들이 中央集権的으로 組織된 하나의 国家이며, 이들은 「모스크바」에 의하여 統治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全体의 半数에 지나지않는 人口로서 "맏兄"의 役割을 担当하고 있는 것이다.

1922年 末까지 「소비에트」聯邦이 創設되므로서 소련 外交政策의 첫 段階가 끝을 맺었다. 소련이 成就한 革命的인 重要性은 共産主義가 처음으로 방대한 国家를 掌握하게 되었다는 点이다. 国際権力構造的인 面에서 본다면 共産主義者들이 「짜르」帝国을 相属하여 「러시아」帝国의 実質的인 힘과 莫大한 잠재력을 世界共産革命을 為하여 活用할 수 있게 되었다는 点이 重要成果라고 하겠다.

소련 外交政策의 第1段階는 約 7年間 継続되었다. 이 期間은 극도의 유혈기간이었다. 그러나 約 11年間 継続된 第2段階 期間은 대체로 非暴力的이었다. 물론 共産主義者들은 機会가 있을 때마다 暴力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例를들면 「레닌」이 病으로 쓰러지자 자제력이 약한 後継者는 独逸에서 革命을 시도하다가 失敗하고 말았으며, 「불가리아」를 掌握하려고 대대적인 「테러」작전을 展開하여 보았으나 이 역시 失敗하고 말았다. 또한 동양, 특히 중국에서 그들은 반란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失敗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자 当時 소련은 国内 基盤을 堅固히 하는데 力点을 두게되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世界革命의 目標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

1919년에 「크레므린」은 전세계 共産党에 대한 指針下達을 위한 機関으로서 共産主義「인터내쇼날」(Commintern)을 設立하였다. 이 機構는 世界 共産革命의 総司令部로서 참모 및 조정의 役割을 담당하였다. 「콤민테른」에서 「러시아」共産党은 다른 共産党들과 마찬가지로 一個의 構成要素였으나, 모든 共産党들을 実際로 支配할 수 있는 機構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새로운 괴수로 登場한 「요셉·스탈린」은 共産主

義「인터내쇼날」을 자기 마음대로 運営하기를 希望하였다. 이 「인터내쇼날」은 일명 「콤민테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結局은 「러시아」共産党의 외곽기구로 전락되어 소련정권의 보조세력이 되고말았다.

各国의 共産党들은 「모스크바」로 부터 支援을 받았으나 이러한 지지는 반드시 金錢이나 武器를 提供하는 形態를 取하지는 않았다. 「크레므린」이 派遣한 密使들은 各国에 있는 共産党을 「볼세비키」와 同質的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스탈린」의 命令에 無条件 追從하지 않는 共産主義 指導者들을 直席에서 가차없이 粛清하였다. 「콤민테른」은 欧羅巴, 亜細亜 및 美洲에 根拠地를 構築하였고, 資本主義 国家의 軍隊内에 침투하였으며, 붉은 軍隊를 위한 情報活動을 하였고, 共産主義 宣伝活動을 하였으며, 反共運動을 中和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였다. 「콤민테른」의 重要 任務는 「부르죠아」階級과 社会民主主義 政府들을 弱化시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努力의 結果로 共産主義者들의 国際的 勢力 版図에 있어서의 相対的인 地位는 向上되었으며 특히 独逸과 仏蘭西에서의 共産勢力의 拡張은 현저하였다. 소련 共産主義者들은 国内에서도 強力한 軍事基地를 構築하고 막강한 軍隊를 養成하였으며, 国外에 있어서는 政治的인 軍隊 즉, 「스탈린」의 表現을 빌리면「外国共産党」(foreign Communist Party)을 組織하였다. 이 政治的인 軍隊의 役割은 階級의 敵의 배후에서 活動하는 것으로서 이는 즉 소련의 敵의 배후를 뜻하는 것이다.

当時 各国 政府中 共産党의 活動을 明白히 理解하고 있는 政府는 하나도 없었다. 全部가 共産党의 잠재력을 過大評価 또는 過少評価하고 있었으며 共産主義에서 파생하는 이 새로운 種類의 危脅에 対한 対備策을 갖고있는 民主国家는 하나도 없었다. 例를들면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은 共産主義와 民主主義를 다같이 탄압하였는데, 그 결과는 많은 대가를 치뤄야하는 独裁政治였었다. 共産党에 対한 판단의 혼동, 공포 및 결단을 못내리는 우유부단한 行為 등이 모두 소련을 도운 結果가 되었다.

「레닌」은 共産主義者들에게 모든 攻撃手段의 使用方法을 배워두라고 指

示하였으나 「볼셰비키」는 처음에는 外交的 武器를 使用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소련은 独逸과의 関係에 가장 큰 比重을 두었다. 独逸과 소련은 다같이 西方国家에게는 받아드려질 수 없는 国家들이었으며, 国際社会에서 容納되지 않는 이 두 追放国家들은 世界1次大戰이 終了한 後 数年동안 상호 의지하여 왔으며 이들은 1922年 더욱 緊密한 関係를 맺게 되었다.

独逸側은 外交的인 支持 獲得과 「베르사이유」条約에 規定된 非武裝 条項을 소련의 도움을 얻어서 이행하지 않고 軍隊를 몰래 養成할 것을 熱望하였으며, 한편 蘇聯側은 独逸과의 貿易과 独逸로 부터의 軍事上의 知識 習得을 希望하고 있었다. 両国은 「폴랜드」및 其他 仏蘭西와 同盟을 맺고 있는 東欧羅巴諸国에 対抗하기 위하여 相互 支援할 것을 決意하였다. 그 当時에는 仏蘭西가 帝国主義의 主要 基地로 看做되고 있었으며 現在는 美国이 그 칭호를 継承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베를린」과 「모스크바」両国政府는 密接한 協力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곧 独逸共産党이 独逸政府 전복에 努力을 傾注하는 것을 中断함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独逸共産党의 음모를 인내하여 온 独逸 民主主義의 맹점이 結果的으로 소련에게 큰 利得이 된 것은 分明한 事実이다.

「모스크바」와 英国과의 関係는 많은 곡절을 겪었으며, 両国의 関係는 두번씩이나 断切되었었다. 소련은 결국 거의 모든 나라들로 부터 外交的 承認과 貿易関係 樹立을 獲得하였다. 美国은 좀 늦게 1933年에 가서야 소련을 外交的으로 承認하였다.

소련이 이러한 成功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다른 国家와 별로 다른 것이 없고, 약간 과격하고 거칠기는 하지만 世界革命이 올바르게 継続되는데 関心을 가지고 있는 国家인 듯한 印象을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효율적인 선전의 結果로서, 全世界는 소련에서도 資本主義가 制限된 範囲内에서는 復帰하게 되었고, 소련은 自国内에서만 社会主義를 建設

하고저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範囲에 属하지 않는다고 判断되는 전혀 다른 活動들이 많이 있었으니, 1928年 開催된 「콤민테른」 第6次大会의 発表에는 世界革命에의 役割이 再確認되었으며 그 주제는 共産主義 革命은 戦争을 手段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革命이라는 目的을 추구하기 위한 戦争은 恒常 正当한 戦争이라는 것이다. 소련은 「콤민테른」 추종자에게 이러한 革命戦争의 正当論을 主張하며 이러한 事実을 外部世界에 감추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内容을 가지고 있는 「콤민테른」 6次大会의 会議録들은 外部人에게 強力한 경종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共産陣営 밖에서는 아무도 関心을 表示하지 않았다. 소련정부는 「콤민테른」이 하는 일에는 아무 関係도 없고 責任도 없다는 立場을 取하였다.

1929年에 소련은 새로운 経済開発計劃을 採択하고 本格的으로 産業과 戦争潜在力을 育成하기 始作하였다. 이를 위하여 農業의 集団化라는 극단적인 方法을 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理念上의 確信이 얼마나 強하였던지 農業集団化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무 주저없이 500万 以上의 同族을 犠牲시켰다.

1931年 日本은 침략행위를 始作하여 満洲를 占領하였다. 이 当時 全世界는 極甚한 경제 대공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으며, 특히 独逸은 経済的인 타격을 가장 甚하게 받고 있었고, 労動力의 4分의 1 以上이 実業状態에 있었다. 이 当時 独逸 共産党은 소련을 除外하고는 世界에서 가장 強力한 共産党이었고, 当時 独逸의 与件은 革命을 일으키기에 適合하다고 생각되었으며 独逸 共産党이 事態를 잘 活用하여 権力争取를 試図한다면 소련이 이를 支援할 것이라고 누구나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欧羅巴 国家中에서 유독 소련만이 独逸物品을 대량 구입하고 그 代価를 金으로서 支払함으로서 破滅되어가던 独逸経済를 救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行為는 그들의 共産革命運動을 크게 阻害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独逸의 危機에 대한 反「나치스」的 政策을 実現시킬 수는 있는 것

으로 独逸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마르크스」主義 兄弟인 独逸 社会民主主義者들 및 自由主義者들과 同盟을 맺을 수 있었다. 이러한 同盟은 무엇보다도 労動組合에게 歷史上 前例가 없는 強力한 權力을 賦与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르크스」主義者들인 独逸 共産党과 独逸 社会民主党은 의회에서 多数席을 保有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서 左派 연립정권을 樹立할 수 있었을 것이다. 共産党이 연립정부에 参与하지 않고 이 左派政府를 支持만 하더라도 独逸의 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나치스」의 抬頭는 防止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토록 惨酷한 世界2次大戦도 避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들은 継続해서 「히틀러」와 그의 民族的 社会主義者들을 支援하였고, 反「나치스」 運動이라는 煙幕을 치면서 1933年에 「히틀러」가 執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소련은 自己들의 最大의 敵이라고 恒常 말하여 오던 人物과 集団이 權力을 掌握하도록 協助하였던 것이다.

「나치스」가 執権함으로써 全般的인 世界情勢가 変하였으니 即 世界第1次大戦 以後 時代가 끝나고 世界2次大戦 以前 時代가 始作되었다. 그러나 「히틀러」가 맨 먼저 취한 措置는 共産党을 탄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事件들이 소련 外交政策의 第2段階 時期를 特徵지워주는 것들이었다.

8. 소련의 外交政策(II) (「프로그람」 No. 42)

＊「포 소 니」 博 士

1933 年에 소련 外交政策의 第3段階가 始作되었다.

独逸 「나치스」 党의 首領인 「히틀러」는 執権 数週日 後부터 独逸共産党을 탄압하기 始作 함으로써, 独逸共産党은 世界第2次大戦이 끝나고 나서 소련 空軍이 그들을 다시 独逸에 空輸하여줄 때까지 12年 동안이나 질식상태에 있었다. 「히틀러」의 執権과 이로 因한 独逸共産党의 除去는 「크레므린」 外交政策의 破滅的인 패배라고 생각되었다. 「크레므린」은 모든 共産党을 支援할 義務가 있었으며 特히 独逸共産党에 대하여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되어 있었다.

独逸과 소련의 共産党은 歷史的으로 緊密한 유대관계를 維持하여 왔으며, 独逸共産党은 소련이 欧羅巴에서 確保하고 있었던 가장 強力한 共産党이었다. 아무도 이러한 独逸共産党의 滅亡이 소련에 利益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戦争 専門家는 때로는 一定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그 勢力의 一部를 犠牲시켜야되는 境遇가 있음을 알고있다. 이런 面에서 考察한 때에 世界革命軍隊의 一員인 独逸共産党은 犠牲시킬 수도 있는 存在였다. 「스탈린」은 주저하는 党 指導層에게 自己의 政策을 強要함으로서 「히틀러」의 執権을 막기 위한 아무런 措置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証明될 수가 있다.

独逸 民主主義가 남아있는 마지막 数年間에 「스탈린」이 취한 対独逸政策은 조용히 아무 説明없이 「히틀러」를 援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独逸에서 政権을 掌握한 後 8年만에 소련을 攻撃하여 소련군을 「볼가」江과 「코카사스」까지 後退시켰으며 소련 共産政権을 거의 滅亡시킬뻔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스탈린」의 「히틀러」에 対한 支援은 커다란

＊ Stefan T.Possony : 「스탠포드」大学 「후버」外交問題研究所 所長
「오스트리아」胎生, 「비엔나」大学 ph.D.

잘못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이 過誤를 犯하였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았었는지는 우리가 「스탈린」의 真意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判断하는데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스탈린」이 真正으로 소련 自国内에서만의 社会主義 国家建設과 平和롭게 사는 것을 目標로 했었다면, 「스탈린」은 돌이킬 수 없는 過誤를 犯한 것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独逸의 経済危機를 틈타서 独逸共産党이 執権하게 되었다면 仏蘭西가 이를 방관할 수 없어 独逸을 侵攻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소련은 싸울 準備를 갖추지도 못한체 仏蘭西와의 戦争으로 말려들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論理의 전개도 있으나 이것은 그다지 説得力이 強한 것은 못된다. 그 当時에는 共産党政府는 樹立될 수 없었고 오로지 社会民主主義 政府만이 樹立될 수 있었다. 社会民主主義 政府는 그전에도 여러번 樹立되었었고 이들과는 過去에 協助가 잘 되었던 点으로 보아서 이들에게 대해서 仏蘭西가 攻撃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스탈린」은 防禦的인 面보다는 攻撃的인 面에 더욱 関心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시한번 共産主義 世界革命을 推進하고자 했던 것이다. 1925年에 이미 「스탈린」은 世界2次大戦은 不可避하다고 判断하였으며, 소련이 이 大戦에 介入치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判断하였다. 「스탈린」은 소련이 이 大戦에 말려들어가야 된다면 먼저 敵対的인 資本主義国家들 끼리 사우게 해서 서로가 지친 다음에 소련이 介入하는 것이 가장 有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니, 즉 資本主義 国家가 소련의 攻撃에 対抗할 수 없을 程度로 虚弱한 状態가 되면 소련군이 進撃하여 항복한 国家에게 「모스크바」의 要求条件 즉 共産主義를 強要한다는 戦略이다.

이러한 意見은 「레닌」도 말한 바가 있는데, 그는 蘇聯 外交政策의 가장 重要한 任務는 資本主義 国家들을 서로 싸우게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要約하면 資本主義 国家들끼리 서로 싸우게해서 滅亡시킨 연후에 自己들이 主導権을 掌握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1920年 末葉에는 欧羅巴大陸에서 큰 戰爭이 일어날 可能性은 전혀 없었다. 戰爭을 일으키는 方法은 단 하나 밖에 없었으니 그것은 独逸에 好戰的인 政府가 들어서게 하는 것이었다. 当時의 欧羅巴 政治人들 중에서 무력만 있으면 당장 戰爭을 일으킬 사람은 「히틀러」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므로 欧羅巴 国家들 間에 戰爭이 일어나게 하려면 「히틀러」가 執權할 수 있게 조작을 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欧羅巴 国家間의 戰爭은 欧羅巴 資本主義国家들이 소련을 攻撃할 수 없게 만든다는 副産物도 가져오는 것이다. 「스탈린」이 「히틀러」를 支援한 것은 이러한 戰略과 一致하는 것이다. 이러한 作戰은 共産主義 世界革命을 促進시키고 強化해주며 共産主義를 拡張시켜주는 것이다.

極東에 있어서의 소련은 日本을 宥和시키려고 모든 努力을 다 하였다. 日本이 滿洲에서 拡張政策을 쓰는 것이 궁극에 있어서는 英国 및 美国과의 紛争을 가져올 것이라는 見地에서 소련은 日本의 滿洲侵略을 許容하였다. 소련이 日本을 宥和한 것은 欧羅巴에서 戰爭의 危険이 増大되도록 堤防을 쌓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戰略을 構築하기 為하여 「스탈린」은 「나치스」独逸과의 友好的인 関係樹立을 希望하였다. 「스탈린」은 「나치스」와 소련軍隊가 비밀리에 協助関係를 継続할 것을 願하였으나 이러한 協助関係는 「히틀러」의 命令으로 두절되었으나, 그것은 「히틀러」가 소련과의 関係를 継続하기를 願치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히틀러」는 1934年에 「모스크바」와의 同盟을 主張한 「나치스」 指導層의 大部分을 粛清하였던 것이다. 「스탈린」이 「히틀러」와의 協力関係 維持가 不可能함을 깨닫게 되기에는 相当한 時間이 걸렸다. 「스탈린」은 드디어 「나치스」의 侵略의 야욕에의 危脅을 느끼고 소련 外交政策을 変更시켰다.

1934年에 소련은 国際聯盟에 加入하고 西方国家들에 対한 友好的인 関係改善을 모색하기 始作하였다. 「나치스」의 再軍備가 明白해지자 1935年에 소련과 仏蘭西는 軍事同盟을 締結하였다. 이미 仏蘭西와 同盟関係에 있던 「체코슬로바키아」와도 「모스

크바」는 同盟을 맺었다. 仏蘭西가 소련과의 同盟関係를 받아들이게 하기 為하여 「스탈린」은 仏蘭西共産党과의 関係를 끊겠다는 것을 約束하였으니 自己가 造成한 危険으로 부터 自己自身을 보호하기 為하여 「스탈린」 은 이제 두번째의 共産党을 희생시키기로 決定하였던 것이다. 独逸共産党이 破滅된 後로는 欧羅巴에서 仏蘭西共産党이 제일 強大하였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自己의 約束을 안지켜도 좋게 되었으니 그것은 얼마후에 仏蘭西政府가 崩壊되고 社会主義政府가 樹立되었으며 共産党의 活動이 許容되었기 때문이다.

仏蘭西共産党은 当分間 反軍国主義的 活動을 激化시켰다. 이러한 仏蘭西共産党의 勝利는 結果的으로는 「모스크바」에게 비싼 代価를 치르도록 하였으니, 仏蘭西의 軍事力이 弱하였던 点이 후에 「나치스」로 하여금 소련에게 大勝할 수 있는 要因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仏·蘇 軍事同盟이 国際情勢를 安定시킬 수 있기를 希望하였으나 独逸, 日本 및 「이탈리아」는 그들의 侵略活動을 継続하였다. 1919 年에 非武装化 되었던 「라인」地方을 独逸이 再占領하였으며 이 占領이 仏蘭西와 소련의 軍事的 위치를 相対的으로 弱化시켰다. 「이탈리아」는 東部「아프리카」에서 戦争을 始作하였고, 日本은 中国에 対한 作戦을 拡大하고, 소련 国境에 対하여 数百回의 予告없는 国境紛争을 惹起시킴으로써 소련의 決意를 탐색했다.

1936年 「스페인」内乱이 일어나자 이에 共産党이 介入하였으나 「스탈린」은 곧 介入을 中止시켰다. 그 理由는 「스탈린」이 피의 大粛清을 始作하기 위해서 이고 이 숙청을 통하여 「스탈린」은 旧「볼세비키」党의 競争者들과 소련軍隊 指導層의 大部分을 粛清하였다. 이로 因하여 「스페인」 역시 「파시스트」의 手中으로 넘어 가게되는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国際危機가 継続되는 동안 仏蘭西, 英国 및 美国은 態度의 決定을 못함으로써 그들의 弱点을 들어냈다. 「히틀러」는 더욱 強大하여져서

1938年初에 「뭇소리니」와 共同으로 「오스트리아」를 占領하였다. 이에 対하여 西方国家들이 아무런 措置도 取하지 않자,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게 独逸言語를 使用하는 사람들이 居住하는 地域을 独逸에게 이양할 것을 要求하였다. 「히틀러」는 요구가 관철 안 될때는 戦争도 不辞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仏蘭西와 英国은 이러한 「히틀러」의 最後通牒에 対하여 양보하기로 決定하였다. 이렇게 되어 中部 欧羅巴에서 지금까지 強力한 民主主義 勢力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軍事的으로 無力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를 支援하여야 할 立場에 있었으나 마치 仏蘭西가 이 問題에 対하여 소련과 協力하자고 提案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도 그의 友邦을 支援할 아무런 措置도 取하지 않고 말았다. 이로서 事実上 仏蘭西와 「체코슬로바키아」와의 同盟関係는 死文化 되고 말았다. 「히틀러」는 西方国家의 간섭이 없을 것이라고 判断하여 1939年 3月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部分마저 占領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렇게 独逸에게 合併되자 仏蘭西와 英国은 크게 失望하였다. 그와는 対照的으로 「히틀러」는 기고만장하여 이번에는 「폴랜드」領土의 一部는 当然히 独逸에 帰属되어야 한다고 要求하였다. 이에 対하여 英国은 「폴랜드」와 「루마니아」領土의 不可侵을 宣言하고 仏蘭西 및 소련과의 同盟을 추진하였다.

소련은 「나치스」의 危脅에 対한 集団安保條約에 関하여 討議할 意思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万一 戦争을 방지하려면 소련과 西方国家들이 同盟을 締結하는 길만이 「히틀러」를 抑制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었다. 그러나 同盟을 締結하기 까지는 技術的인 難関과 相互不信이라는 問題가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協議는 거의 成功할 段階에 까지 進展하였으나 独逸의 外相이 소련을 訪問하고 난 뒤 소련은 西方国家들과의 協議를 아무 予告도 없이 갑자기 中断하였다. 소련은 独逸과 貿易協定을 締結하고 곧 이어서 所謂「独・蘇不可侵條約」을 締結하였다. 이 條約은 不可侵의 性格을 띈 것이 아니라 이 條約의 秘密附録에 東欧羅巴의 分割에 対한 合意를 包含하고 있는 独・

蘇 共同의 侵略條約이었다.

이러한 소련의 外交政策은 戰爭을 不可避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 條約이 締結된지 몇 時間도 되지 않아 独逸은 「폴랜드」를 侵攻함으로써 世界第2次大戰이 開始되었다. 불란서와 英国은 「나치스」独逸에게 宣戰布告를하였다. 불란서공산당은 불란서가 「폴랜드」를 支援하는 것을 反対하였고 그럼으로써 結果的으로 「히틀러」를 도운 것이다. 여기까지가 소련 外交政策의 第3段階라고 할 수 있겠다.

歷史上 가장 참혹하였던 世界第2次大戰을 「히틀러」가 始作할 수 있도록 하여준 「스탈린」의 動機에 対하여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다. 一般的인 解釈은 「스탈린」이 소련의 防備를 目的으로 하였을 것이라고 說明하지만 이러한 解說은 신빙성이 없다. 그 논거는 방어적인 戰略은 戰争의 危險性을 增大하는게 아니라 減少시키는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는 解釈은 世界共産主義 概念에 忠実한 「스탈린」이 独逸과 西方国家들 間의 戰争을 선동하기 為하여 「히틀러」를 支援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스탈린」이 独逸을 두려워하여 여기에 対한 防禦策을 썼다면 그가 独逸이 切実히 必要로 하는 戰略物資를 大量으로 独逸이 求得하도록 하여준 것이나 소련領土内에 「나치스」의 잠수함基地를 提供한 것들을 說明할 길이 없다. 「나치스」의 本質이나 그 勢力을 考慮할 때 이러한 「스탈린」의 戰略은 無責任한 것이다. 「스탈린」이 이러한 危險한 전략을 감행한 것은 아마도 불란서의 軍事力을 過大評価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치스」独逸이 불란서를 정복한 다음에야 비로소 「스탈린」은 소련 安保를 걱정하기 始作하였고 소련 軍需工場에 時間外 勤務를 命令하였던 것이다.

「스탈린」의 처음 計劃은 疑心할 餘地없이 「히틀러」와 불란서를 싸우게 하고 그러므로서 独逸, 仏蘭西 및 英国이 그들의 国力을 다 소모할 때까지 戰争을 継続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전격적인 勝利는 「스탈린」이 予見하지 못했던 事態를 造成하였다. 1915年에 英領 印度에

서의 革命戰爭에 있어서 独逸을 도우겠다는 「레닌」의 제안을 想起하였는지는 몰라도 「스탈린」은 이번에는 独逸에게 亜細亜地域의 分割을 提案하였다. 「스탈린」은 「페르시아」湾에의 進出을 希望하였는데 이것은 英国과의 一戰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이러한 提案을 함에 있어서 過慾을 부린 나머지 独逸의 欧羅巴에서의 過多한 譲步를 要請하였다. 그는 「발틱」海의 入口에 대한 支配権을 熱望하였던 것이다. 「히틀러」는 소련의 支援을 얻기 為하여 많은 代価를 支払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히틀러」도 또한 「스탈린」을 믿을 수 없는 者라고 이미 決定짓고 있었다. 「히틀러」는 英国을 攻擊하고 싶었지만 独逸이 英国으로 主力을 移動하면 소련이 後方에서 独逸을 攻擊할 것을 두려워 하였는 바 이것은 充分히 상상할 수 있는 事態였다. 그러므로 英国에 勝利하기 為하여서는 소련을 먼저 擊破하여야 되겠다고 「히틀러」는 決定하였다.

「모스크바」와 「베를린」에서 独・蘇間의 協議는 進展없이 継続되었고 独逸이 소련과 決判을 내려는 징조가 차츰 濃厚하여졌다. 뒤늦게 「스탈린」이 譲步하겠다고 나섰으나 이때는 이미 「히틀러」가 흥미를 잃고 있었다. 1941年 6月에 独逸은 소련을 侵攻하였으며 「스탈린」과 소련軍隊는 이에 크게 놀랐다. 남을 疑心하고 不信하는 것이 「스탈린」의 特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히틀러」를 信頼하였던 것이다.

소련이 1939年에서 1940年 사이에 장악한 「발틱」諸国과 東部「폴랜드」. 「핀랜드」의 一部 등이 단시일내에 敵에게 상실되고 소련共産政権은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 및 「코카사스」 등지의 교외에서 生存을 건 戰鬪를 하게 되었다.

한가지 소련을 도운 것이 있었으니, 소련이 後日 英国과 美国과의 対決에서 利用할 目的으로 1941年에 日本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해 두었던 事実이다. 日本은 「나치스」独逸이 소련을 西方으로 부터 攻擊함으로써 発生한 好機를 活用하지 못하고 소련을 東方으로 부터 攻擊하지 않았다. 이러한 蘇聯外交政策이 成功을 거둔 것은 「나치스」를 가장하고 日本에서

活動하던 秘密独逸共産党員 「조르게」가 遂行한 소련 共産主義의 政治戰의 덕분이었다. 「크레므린」上部로 부터의 命令을 忠実히 履行한 「조르게」는 日本으로 하여금 「울라디보스톡」을 攻撃하는 代身에 美国의 真珠湾을 攻撃하게 하는데 成功하였고, 그러므로서 그는 美国이 世界第2次大戰에 介入하게 만든 張本人의 한사람이 되었다. 여기까지를 소련外交政策의 第4段階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 소련이 採択하는 外交政策은 「모스크바」가 単独으로 樹立한 것이 아니다. 이것의 一部는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樹立한 것으로 共産主義者들의 平和協商提案을 全部 拒絶함으로서 그들이 生存을 위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든 点과, 또 다른 一面으로는 英国과 美国이 「나치스」와 闘争하는 소련을 支援하기로 決定한 点이다.

「스탈린」은 西方国家들이 「나치스」와 合勢하여 소련을 攻撃할 것으로 생각하였었다. 戰時同盟을 무리하게라도 끌고 가는 것이 世界第2次大戰中의 소련外交政策의 目標이었으며 그 理由는 美国과 英国으로 부터 援助를 獲得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西方国家의 政策을 支持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우선적인 任務는 世界革命의 基地인 소련을 保護하는데 있었다. 그러기 위하여 1943年에 共産主義「인터내쇼날」을 解体하고 이를 크게 宣伝함으로써 共産主義가 변모하였다는 印像을 조작하여 냈다. 이러한 印像의 조작은 美国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기위하여 必要하였으며 그렇다고 世界革命이 中断된 것은 아니다. 世界革命의 運動을 遂行하기 위한 機構는 解体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強化되었다.

「스탈린」은 美国으로 하여금 西欧羅巴에 不充分한 準備状態로 上陸 하게금 誘導하는데에 最大의 計略을 다하였다. 이러한 要求는 소련의 防禦必要性으로 볼때 充分히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즉 仏蘭西에서 独逸軍이 美軍과 싸우게 되면은 東部戰線에서의 圧力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不充分한 準備状態에서 美国과 英国이 欧洲大陸에 上陸하게 된다면, 그들은 独逸軍에게 撃破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聯合軍의 本格的인 欧羅巴 進撃이

2年以上 遅延될 것이고, 聯合軍의 敗戰은 소련으로 하여금 戰争終了段階에 가서 「라인」地方 또는 仏蘭西에 까지 進出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이러한 試図는 失敗하고 그들은 고작하여 欧羅巴에 散在하여 있는 「게릴라」運動 内部에 침투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들은 「유고슬라비아」 및 희랍에 「게릴라」勢力을 構築하는데 成功하였고, 「이탈리아」와 仏蘭西에서도 약간의 成功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独逸軍隊 後方에서 大規模 「스파이」活動을 하는 것 以外에는 対独逸作戦에 있어서 특히 独逸本土에 対한 作戦에 있어서는 거의 完全한 失敗를 하였다.

対独逸戦争이 끝났을때 소련軍은 東欧羅巴의 大部分을 占領하였다. 소련은 1939年서 1940年 사이에 그들이 占領하였던 東部「폴랜드」, 「발틱」諸国, 「베사 아라비아」등을 되찾았다. 또한 大西洋憲章에 署名함으로서 東部「프로시아」인 独逸의 一部를 合併하였다. 소련은 또한 「폴랜드」와의 妥協을 배제하고 「폴랜드」를 西쪽으로 移動시키고 東部 独逸과 「폴랜드」를 合併하였다. 美国과의 戦時 合意事項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行為는 不法的이었다. 独逸 本土에서 美国과 英国은 소련地域으로 規定된 地域도 占領하였으나 호의를 베푸느라고 소련이 約束을 지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中部 独逸의 이 地域을 소련에게 넘겨주었다. . 그러나 이러한 西方側의 希望은 끝내 충족되지 못하였다. 西欧羅巴에 있어서는 대조적으로 共産主義의 위험은 抑制되었다. 아시아에 있어서 소련은 日本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世界第2次大戦 終了前 一週日 동안에 滿洲, 樺太南半部 및 「쿠릴」群島를 占領하였다. 東欧羅巴 소련 占領地域에서는 새로운 정부들이 樹立되었는데 이러한 정부들은 소련에게 友好的이긴 하지만 그 構成에 있어서 共産主義 政府는 아니었다. 이러한 정부들은 聯立政府라고 불리웠는데 여기에는 少数의 共産主義와 社会主義者 및 自由民主主義者들이 包含되어 있었다.

占領地域에 対하여 住民들의 自決権을 존중한다는 国際的 協約도 있었다. 그러나 1943年 2月에 「스탈린」은 戰時中의 美国과의 協力은 終結되었고 共産化로의 前進이 다시 継続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演説은 오늘

날의 世界革命에 대한 호칭인 所謂 「冷戰」時代의 始作을 記録한 것이었다. 이것으로서 소련 外交政策의 第5段階가 끝나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의 革命活動은 東欧羅巴에서 増大되었으며 기타 「이탈리아」와 仏蘭西에서 특히 活発하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共産主義 運動은 失敗하였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왔다. 東欧羅巴 各国에서 各各 特殊方法을 使用하여, 共産主義者들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항가리」 「폴랜드」 및 「유고슬라비아」를 모든 種類의 統制下에 몰아 넣었다. 1948年 소련은 独逸全体를 掌握하려는 의도하에 4大国이 共同占領하고 있는 「베를린」을 封鎖하였고, 工業化된 欧羅巴를 支配함으로서 国際的 힘의 均衡을 自己에게 有利하게 誘導하기 위하여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은 美国과 그리고 自由의 便을 들기로 決心한 独逸사람들은 疎隔시키는 決定的인 過誤를 犯하였다. 그들은 民主主義 勢力이 自由守護를 위한 努力을 継続하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共産主義者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함으로서 그들의 占領을 完了하였다. 全体主義는 全 東欧羅巴를 支配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 한가지의 敗北가 있었으니 그것은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모스크바」의 의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独立性을 增大하게 되었던 点이다.

中国 共産主義者들은 거의 自力으로서, 그리고 일본군대에서 압수한 武器를 使用하여 国民党政府에 대한 全面 戰争을 開始하였다. 1949年 毛沢東이 中国本土를 手中에 넣고나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共産主義者들은 世界에서 가장 人口가 많은 国家를 統治하고 있다. 世界革命은 큰 進展을 보였으나 여기에 대한 反抗勢力도 組織化되어 革命의 물결을 이제 그 탄력성을 잃고 있다. 「스탈린」은 革命의 탄력성을 살려 나가려고 안간 힘을 썼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大韓民国을 侵略하도록 命令하였다. 이러한 攻撃은 間接的으로는 日本을 意中에 두고 한 것이다. 大韓民国은 「유엔」 깃발 밑에서 美国과 其他 여러나라의 支援을 받았고 中共은 北韓을 支援하기 為하여 介入하였다. 韓国動乱은 無勝負로 끝을 맺었는데 이때 「스탈린」이

死亡하였다. 「스탈린」의 後継者는 韓国動乱을 끝내자는 美国決定에 同意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判断하여 휴전협정에 同意하였다. 여기까지가 共産主義 外交政策의 第6段階이다.

「스탈린」의 戦略은 数 百万名의 희생자를 내었다. 그는 많은 과오를 犯하였으며 無責任한 모험도 많이 하였다. 만일 「나치스」가 「스탈린그라드」戦闘에서 勝利를 하였더라면 「스탈린」의 独裁는 継続될 수 없었을 것이다. 「스탈린」은 「이란」, 「그리스」, 「터키」, 서독, 「이태리」, 불란서, 韓国, 「아프리카」의 一部를 掌握하려고 시도하였으나 失敗하였다.

「스탈린」이 「파시스트」나 「나치스」와 같은 独裁政権과 協同한 것은 共産主義路線에 違反된다는 論議도 나올 수 있다. 여러모로 보아서 「스탈린」은 「러시아」에 있어서의 「히틀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마르크스」主義를 앞에 내세움으로서 그의 「나치스」式 全体主義 指向을 음폐하였다.

「스탈린」이 人類 歴史上 最悪의 暴君이었던 것은 事実이다. 그러나 그가 共産主義 世界革命에 크게 이바지 한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実이다. 「스탈린」領導下에 共産主義는 東欧羅巴와 中国本土를 征服하였다. 이제 共産主義帝国은 「엘베」江에서 中国本土를 거쳐 海南島에 까지 拡張되었다. 「스탈린」의 失策은 그의 業績에 比하면 별 것이 아닐 정도였다. 「스탈린」은 歴史上 가장 成功的인 征服者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征服한 것만큼 自由가 없어졌던 것이다.

<参　考　文　献>

1.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Hugh Seton-Watson. New York: Praeger, 1956

2. Castro's Revolution. Myths and Realities
   Theodore Draper. New York: Praeger, 1962

3. On Guerrilla Warfare
   Che Guevara. New York: Praeger, 1961

4. Communism and Revolution. The Strategic Uses of Political Violence
   Cyril E. Black and Thomas P. Thornton, ed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5. Communists in Coalition Governments
   Gerhart Niemeyer. Washingt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63.

6. Allied Wartime Diplomacy. A Pattern in Poland
   Edward J. Rozek.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58

7. The Communist Subversion of Czechoslovakia, 1938-1948. The Failure of Coexistence
   Josef Korb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8. Communist Strategy and Tactics in Czechoslovakia, 1918-1949
   Paul E. Zinner. New York: Praeger, 1963

9. Rift and Revolt in Hungary. Nationalism versus Communism
   Ferenc A. Vali.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10. Communism and Revolution: The Strategic Uses of Political Violence
    Cyril E. Black and Thomas P. Thornton, ed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11. Modern Guerrilla Warfare: Fighting Communist Guerrilla Movements, 1914-61
    Franklin Mark Osanka, ed.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1964

12. Guerrilla
    Charles W. Thayer. New York: Harper, 1963

13. Conflict in the Shadows: The Nature and Politics of Guerrilla War
    James E. Cross. Garden City: Doubleday, 1963

14.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U. 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15. Modern China: A Brief History
David N. Rowe. Princeton: Van Nostrand, 1961

16. "The Russian and Chinese Revolutions: A Socio-Historical Comparison"
K. A. Wittfogel. The Year Book of World Affairs, 1961, vol. 15(London).

17. The Far East in the Modern World
F. H. Michael and G. E. Taylor. New York: Henry Holt and Co., 1956

18. "Chinese Society: An Historical Survey"
K. A. Wittfogel.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VI. no. 3, May 1957

19. Chinese Family and Society
Olga La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6.

20. Chinese Education Under Communism
C. T. Hu,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of Columbia University, 1964

21. A Military History of Modern China. 1924-1949
F. F. Liu.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6

22. Chinese Civilization and Bureaucracy
Etienne Balazs. New Haven: Yale, 1964.

23. Sun Yat-sen and the Chinese Republic
Paul Linebarger. New York and London: The Century Co., 1925.

24. Sun Yat-sen and Communism
S. C. Leng and N. Palmer. New York: Praeger, 1960

25. The China of Chiang Kai-shek. A Political Study
Paul Linebarger. Boston: World Peace Foundation, 1941

26. A History of Sino-Russian Relations
Cheng Tien-fong. Washington: Public Affairs Press, 1957.

27. The China Tangle
Herbert Fe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28. Red Star over China
Edgar Snow. New York: Grove Press, 1961

29. "A Stronger Oriental Desposition"
K. A. Wittfogel. China Quarterly, Jan.-March 1960, no. 1.

30. Communism in China
Union Research Institute. Hong Kong: Union Research Institute, 1959

31. Ta Ta, Tan Tan
Valentin Chu. New York: Norton, 1963

32. The Economy of Communist China: An Introduction
Wu Yuan-Li. New York: Praeger, 1965

33. "Forced Labour in Communist China"
K. A. Wittfogel. The New Men. Hong Kong: China Viewpoints, 1958.

34. Brain-Washing in Red China
Edward Hunter. New York: Vanguard, 1951

35. Is Peaceful Co-existence Possible?
Michael Lindsay.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60.

36. The Hundred Flowers
Roderick MacFarquhar. Paris: Atlantic, 1960

37.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John Wilson Lewis. Ithaca: Cornell, 1963

38. The Soviet Bloc. Unity and Conflict
Zbigniew Brzezinski. Co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39. Communist Eastern Europe
Joseph Rotschild. New York: Walker, 1965

40. National Communism and Popular Revolt in Eastern Europe.
Paul E. Zinner,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7

41. Bitter Harvest. The Intellectual Revolt behind the Iron Curtain
Edmund Stillman, ed. Introduction by Francois Bondy. New York: Praeger, 1959.

42. The Dynamics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R. V. Burk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43. Communism in Europe. Continuity, Change, and the Sino-Soviet Dispute. Vol 1
William E. Griffith, ed. M. I. T. Press, 1964

44. Yugoslavia
Frederick A. Praeger, New York, 1957

45. Tito Speaks. His Self Portrait and Struggle with Stalin
Vladimir Dedijer.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1953.

46. The Heretic. The Life and Time of Josip Broz-Tito
Fitzroy Maclean.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7.

47. Tito's Promised Land
Alex N. Dragnich. New Brunswick, N. J.; Rutgers University Press, 1954.

48. Yugoslavia's Way
Program of the League of the Yugoslav Communists. New York: All Nations Press, 1958.

49. Yugoslavia and the New Communism
George W. Hoffman and Fred W. Neal.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1962

50. Titoism--Pattern for International Communism
Charles P. McVicke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7

51. Yugoslav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Development Planning
George Macesich. Charlottesville: Virginia, 1964.

52. Anatomy of A Moral. The Political Essays of Milovan Djilas
Abraham Rothberg, ed. New York: Praeger, 1959.

53. Russia and the West Under Lenin and Stalin
George F. Kennan. Boston: Little, Brown, 1961

54. The Kremlin and World Politics: Studies in Soviet Policy and Action
Philip E. Mosely. New York: Random House, 1960

55. The Rise of the Soviet Empire: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Jan Librach. New York: Praeger, 1964

56. Peaceful Coexistence: An Analysis of Soviet Foreign Policy
Wladislaw W. Kulski. Chicago: Regnery, 1959

57. A Century of Conflict. Communist Techniques of World Revolution, 1848-1950
Stefan T. Possony. Chicago: Regnery, 1953

58. Russian Foreign Policy: Essays in Historical Perspective
Ivo J. Lederer, ed. New Haven: Yale, 1962

59. Readings in Russian Foreign Policy
Robert A. Goldwin, et al, eds. New York: Oxford, 1959

60. The Foreign Policy of the Soviet Union
Alvin Z. Rubinstein, ed. New York: Random House, 1960

61. Neither War Nor Peace: The Struggle for Power in the Postwar World, 2d ed.
Hugh Seton-Watson. New York: Praeger, 1962

62. A History of the Cold War
John Lukacs. Garden City: Doubleday, 1961

63.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1917-60, 2 vol.
Denna F. Fleming. Garden City: Doubleday, 1961.

64. America, Britain, and Russia: Their Co-Operation and Conflict, 1941-46
William H. McNeill. New York: Oxford, 1953.

65. On Dealing With the Communist World
George F. Kennan. New York: Harper and Row, 1964

66. Negotiating With the Russians
Raymond Dennett and Joseph E. Johnson, eds. Boston: World Peace Foundation, 1951.

67. How Communists Negotiate
Admiral C. Turner Joy. New York: Macmillan, 1955.

68. The Challenge of Coexistence: A Study of Soviet Economic Diplomacy
Milton Kovner. Washington: Public Affairs Press, 1961

69. The Theory, Law, and Policy of Soviet Treaties
Jan. F. Triska and Robert M. Sluss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70. The Soviet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anging Policy Toward Developing Countries, 1953-63.
Alvin Z. Rubinstei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71. The Soviet Union at the United Nations: An Inquiry Into Soviet Motives and Objectives
Alexander Dallin. New York: Praeger, 1962

第四章 共　　産　　党

1. 世界共産主義(「프로그람」 No. 43)

* 「드라코비치」 博 士

우리가 「콤민테른」이라고 부르는 第3次 共産主義「인터내쇼날」은 1919年 3月에 「모스크바」에서 発足하였다. 모든 意味에서 그 設立者는 「레닌」이었다. 第2次 共産主義「인터내쇼날」이 世界第1次大戰의 폭발을 沮止시키지못하였고 심지어는 大戰防止를 為하여 共同歩調 조차도 取하지 못한데 対하여 크게 失望한 「레닌」은 그가 亡命하고 있던 「스위스」에서 第2次「인터내쇼날」을 맹렬히 非難하고 새로운 国際革命機構 創造의 必要性을 力說하였다. 「러시아」에서 「볼세비키」가 勝利를 한 후 「레닌」은 그가 掌握하고 있는 領土에서 새로운 事業을 発足시킬 수가 있었다.

「콤민테른」의 創立総会는 그 規模가 큰 것도 아니었고 또한 真実로 各界를 代表하는 会議도 아니었다. 이 創立総会에는 52名이 参席하였는데, 그 中 12名만이 共産主義나 또는 社会主義 「그룹」의 代辯人이었으며 이들 12名 中에서도 8名은 「러시아」 共産党을 代表하는 者들이었다. 外国을 代表한 共産党 中에서 独逸代表만이 真正한 의미의 代表이었는데 이 独逸代表는 새로운 国際機構를 早急하게 創立하는 데에 反対하라는 独逸共産党의 指令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状況下에서 独逸共産党 代表의 反対는 기각되고 「레닌」의 뜻이 관철되었다. 「트로츠키」가 草案한 「콤민테른」선언이 이 創立総会에서 採択 되었는데 이 선언문은 「콤민테른」의 理念方向과 「콤민테른」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明示하였다. " 우리 들의

---

* Milorad Drachkovitch : 「스텐포드」大学 「후버」研究所 研究委員
「유고」胎生, 「스위스」「제네바」大学 ph.D.
「하바드」大学 「러시아」研究所 研究委員 歴任

課業은 機会主義者와 社会主義的 愛国者들이 붕괴되어가는 動態를 바로 잡기 為하여 労動階級의 革命経験을 一般化하고, 全世界 「프롤레타리아」의 모든 真正한 革命勢力을 動員함으로서 全世界를 통한 共産主義 革命의 勝利를 招来하고 促進하는 것이다.'

「콤민테른」은 그 創立当時에 外部에서 同調하는 勢力이 거의 없었음에도 不拘하고, 뜻하지 않은 後援者들을 그 初創期에 가지게 되었다. 「러시아」의 革命運動에 同情心을 가지고 있던 西欧羅巴및 美国의 勢力이 이 새로운 革命組織에 그 同情心을 表示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콤민테른」의 指導者들에게 未来에 대한 楽観的 見解를 가지게 하였다.

「콤민테른」의 初代 議長이었으며 「레닌」의 가장 가까운 政治的 同志였던 「그레고리·지노비에프」는 「콤민테른」의 機関紙 創刊号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欧羅巴는 이제 「프롤레타리아」革命을 向하여 全力으로 질주하고 있다.'

実際로 「콤민테른」의 創立当時의 「러시아」의 「볼세비키」主義者 들은 특히 独逸을 包含한 欧羅巴 先進国家에서 共産主義가 勝利하는 것이 共産主義「러시아」와 「콤민테른」이 生存할 수있는 前提条件이라고 믿고 있었다. 「레닌」 自身이 이 問題를 다음과 같이 強調하였다. '一個 国家에서 만의 社会主義 革命의 完全한 勝利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社会主義 革命이 完全한 勝利를 하려면 最少限 数個의 主要国家들의 가장 積極的인 協力을 必要로 하고 「러시아」는 이들 主要国家에 包含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歴史의 흐름은 그의 予見과는 달랐다. 数次에 걸친 共産革命의 試図와 끈질긴 政治 선동에도 不拘하고, 共産主義革命은 「러시아」 以外 国家로 波及되지 않았다.

그러나 「콤민테른」 創立 初期에 다른 国家内에 民族主義的 共産党이라는 새로운 政治実体들이 創設되었다. 이들 共産党은 各国에 있던 社会主義 政党에서 分裂되어 創党되었는데 이들 共産党들의 革命的 態度는 「콤

민테른」指導者가 보기에는 아직 満足스럽지가 못하였다.

이러한 事態를 바로 잡기 為하여 1920年 여름에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콤민테른」 第2次 大会에서 새로운 共産党의 浄化作業이 이루어졌다. 共産党의 浄化作業으로서 修正主義者와 社会主義 平和論者들을 党에서 축출하였는데 이들의 行為는 「프롤레타리아」革命을 「사보타쥬」하고 「부르조아」 및 第2次 「인터내쇼날」을 支援하는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콤민테른」 第2次大会의 歷史的 重要性은 그 有名한 「콤민테른」 加入에, 21個項의 条件을 이 会議에서 採択한 点이다. 이들 条件들은 매우 厳格하고도 明白한 것이었다. 例를 들면 労動運動의 모든 責任있는 職責으로 부터 修正主義者들을 축출하여야 하고, 決定的인 時期에 共産党이 革命任務를 遂行하는 것을 支援하기 為한 秘密스럽고 不法的인 共産党 組織을 만드는 義務를 부여하고, 「소비에트」 共和国들의 反革命勢力과의 闘争을 無条件 支援할 수 있도록 하기 為하여 週期的으로 党員들을 粛清할 義務를 賦与하고, 그 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条件은 「콤민테른」에 加入된 모든 共産党들은 「콤민테른」会議 및 그 執行委員会의 모든 決定을 絶対準守 한다는 誓約을 하는 条件이다.

이러한 条件이 採択됨으로서, 다시 말하여 이러한 条件들이 強要됨으로해서 宿命的인 結果가 나타났다. 그것은 모든 나라에서 社会主義者와 共産主義者間에 最終的인 決裂이 招来된 것이다. 그 反面에 이러한 条件들은 厳格한 規律을 가진 半合法的이고 半陰謀的인 共産党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設立된 전연 새로운 種類의 国際革命体制는 「모스크바」에 位置한 「콤민테른」 최고사령부의 모든 決定을 無条件 盲従하는 共産党으로만 構成되어 있었다. 「레닌」이 主張하는 党의 概念은 強力한 中央集権的인 形態와 軍隊와 같은 厳한 規律이었는데 이러한 「레닌」의 概念이 「러시아」의 領域을 넘어서 이제는 国際舞台에까지 適用되게 된 것이다. 「레닌」의 「콤민테른」 組織에 関한 이러한 主張이 勝利를 거두자, 「콤민테른」에 同調를 하던 独逸, 仏蘭西, 伊太利 共産党들의 創設者들을 包含한 많은

共產主義者들은 곧 「콤민테른」의 이러한 処事는 그들의 理念과는 모순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콤민테른」의 処事에 不満을 가진 共產主義者들은 「콤민테른」에서 脫退를 하든지 또는 추방을 当하든지 하였다. 이들이 특히 反撥을 한 것은 「콤민테른」間에 秘密組織을 만든 点으로서, 이 組織은 各国 共產党의 業務를 감독하도록 秘密特使를 派遣하였으며 이들 特使들의 못마땅한 行為에 対하여 이들이 크게 반발하였던 것이다.

独逸 共產主義 指導者의 한 사람이며 1921年 「콤민테른」에서 축출당한 「파울라빈」은 「콤민테른」의 秘密特使의 役割에 関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이들 秘密特使들은 絶対로 그 나라 共產党 指導者와 協調하여 일하지를 아니하고 이들은 언제나 그 나라 指導者 背後에서 工作을 하든지 그 나라 共產党 指導者와 対立하는 일을 하였다. 이 秘密特使들은 地域 共產党 指導者의 不信을 받았지만 「모스크바」 本部의 信任을받고 있었다. 「콤민테른」의 執行委員会는 秘密警察의 役割을 하였고 그 権限은 「러시아」 国境 밖에 까지도 미쳤다.' 「콤민테른」에 属해 있는 各国 共產党의 조그마한 独立性 까지도 말살하고 「모스크바」의 直接的인 統制를 各国 共產主義 指導者들에게 強要하려는 傾向은 「레닌」 生存時에 이미 始作되었지만 「레닌」이 死亡한 後에는 이것이 制度化가 되어 버렸다. 「레닌」이 参席한 4個年間의 「콤민테른」総会에서는 外国共產党 代表들이 異見을 表示하는 것이 許容되어 있어서 「콤민테른」総会는 그런데로 活気를 띄우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레닌」이 歷史의 章에서 사라진 後 完全히 달라졌고 「러시아」 共產党内의 後継者 権力闘争은 「콤민테른」 全体에 그대로 反影되었다.

이런 意味에서 1924年 6月과 7月에 召集되었던 第5次 「콤민테른」 会議는 特別한 意義를 가지게 되었다. 이 会議에서 所謂 「트로츠키」派에 対한 闘争이 始作되었고 共產党의 「볼세비키」化 概念이 採択되었다. 이러한 決定에 関한 公式說明은 '共產党 内에 残在하고 있는 伝統的인 社会民主主義 理念이 復活하는 것을 理念的으로 擊退시키는' 闘争의 必要性

때문에 「볼세비키」化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事実上 「볼세비키」化로의 움직임은 모든 外国 共産党을 소련 支配下에 끌어 넣는 過程이 되었다. 모든 外国 共産党은 「러시아」共産党의 経験과 方法을 동일하게 自国에서 採択하고 適用하도록 強要 当하였다.

第6次 「콤민테른」 会議가 1928年 여름에 開催되었는데, 이것은 「러시아」 共産党 内 後継者 権力闘争에서 「스탈린」이 完全 勝利를 거두기 直前이었으며 그러므로 해서 「콤민테른」은 이러한 権力闘争의 戦場이 되었었다. 「콤민테른」의 初代 議長이었던 「지노비에프」는 1926年에 失脚하였고 議長職을 「니코라이·부카린」이 차지 하였다. 「레닌」이 「러시아」共産党 内에서 "가장 有能하고 精力的인 理論家"라고 認定하던 「부카린」은 「지노비에프」와 「트로츠키」의 聯合反対派와의 権力闘争에 있어서 「스탈린」과 野合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카린」이 2年間 議長職을 맡고 있는 동안 「콤민테른」 内에서의 反対意見은 完全히 除去되었다.

「부카린」 自身의 第6次 「콤민테른」 会議 直前에 構想한 "資本主義에도 여러가지 変形이 있듯이 社会主義에도 다른 類型이 있을 수 있다." 라는 理論 等도 「콤민테른」의 公式見解에서 完全히 除去되고 말았다. 「레닌」自身도 「콤민테른」 設立 初期에는 이러한 見解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는 "独逸과 같은 資本主義가 発達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일어나면 소련은 가장 進歩的인 国家의 位置로 代置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콤민테른」 第6次 会議는 어떠한 面에 있어서는 「콤민테른」歴史의 分水嶺이 되었다고 할 수있다. 第6次会議가 끝난 直後 「레닌」의 死亡으로 생긴 空白期間이 終了된 것이 明白해 졌으니, 「레닌」이 党書記長으로는 不適当한 者라고 불러오던 「스탈린」이 「레닌」後継者 権力闘争에서 完全한 勝利者로서 부각되었던 것이다. 「스탈린」은 「러시아」共産党 과 「콤민테른」에 特殊한 틀을 形成하는데 多年間 専念하였고 그러므로서 「러시아」史 및 世界史에 深遠한 痕跡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면 「스탈린」領導下의 「콤민테른」의 性格 形成을 分析해 보기로하자. 「콤민테른」은 그의 24年의 歷史 中 14年間을 「스탈린」의 絶対権限下에서 存在하였다는 사실을 우선 주의할 必要가 있다. 다시 말하여 소련과 「콤민테른」은 相当히 長期間에 결쳐서 完全히 「스탈린」化가 된 것이다. 「스탈린」領導下의 「콤민테른」의 運命에 深遠한 変化를 招来한 問題를 検討하는 最上의 方法은 1928年에 開催되었던 第6次 「콤민테른」 会議와 「모스크바」에서 1935年에 開催되었던 最終 会議의 差異点을 検討하는 方法일 것이다.

「콤민테른」 第6次 会議가 召集되었을 時節 「스탈린」은 이미 「러시아」의 強制的 工業化와 農業의 集団化에 対하여 決心을 굳히고 있었다. 「스탈린」이 「러시아」에 「一国 社会主義」를 建設하겠다는 決心은 또한 「콤민테른」이 追求하려는 新過激 極左派 戰術과도 우연히 一致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戰術을 그들이 一般的으로 資本主義가 極深한 危機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予見하는 理念的인 分析에 그 根拠를 두고 說明하고 또한 正当化하였다. 「콤민테른」 第6次 会議는 国際情勢를 "帝国主義 国家들 間의 侵略戰争, 帝国主義 国家들의 対 소련 戰争, 帝国主義에 対抗하는 民族解放戰争, 巨大한 階級闘争에 간섭하는 帝国主義者의 戰争"의 새로운 時代가 必然的으로 発生할 것이라고 規定지었다. 그 외에는 「콤민테른」 第6次 会議는 全的으로 「부르조아」의 性格을 가지고 있고 実質的으로 帝国主義的인 社会民主主義에 対한 全幅的인 政治戰을 宣言하였고, 앞으로 社会主義者와 労動党들을 共産党의 主要 敵으로서 紛砕하는 闘争을 強化하라고 모든 共産党에게 指令하였다. 이러한 階級과 階級을 싸움시키는 「콤민테른」의 新戰術은 모든 곳에서 破局的인 結果를 招来하였다. 이러한 戰術은 共産党들을 無意味한 革命戰争으로 몰아 넣었으며, 그 結果 党員들을 失望시키고 그들을 政治的으로 고립시켰다. 階級闘争의 結果로 仏蘭西 共産党員의 数가 1921年의 13万1千名에서 1932年에는 2万8千名으로 減少되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 共産党員은 1921年의 35万名에서

1931年에는 3万5千名으로 줄어 들었다. 그보다도 가장 打擊을 많이 받은 것은 「유고슬라비아」共産党인데, 1920年의 6万名의 党員이 1929年에 와서는 500名에 不過한 過激한 「테러」 反乱分子로 転落하고 말았다. 그러나 가장 甚한 打撃을 받은 것은 바로 独逸共産党이었다.

「윌리암·쉬러」는 그의 <第3帝国의 興亡史> 라는 冊에서 소련을 除外한 全 欧羅巴地域에서 가장 많은 党員을 所有하고 있었고 또한 가장 組織이 잘 되어 있었던 独逸 共産党에 「階級 対 階級의 闘争」戦術이 適用되었을때 어떠한 現状이 일어났는 가에 対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独逸 共産党은 社会民主主義者, 社会主義 労動組合, 中産層 民主勢力을 滅亡시킴으로서 커다란 어리석음을 犯했으니 이것은 이러한 것이 独逸을 「나치스」執權으로 誘導하게 되지만 이러한 現状은 一時的인 것으로 「나치스」政権의 資本主義는 必然的으로 와해되고 그런 然後에 共産党이 執権하고 「프롤레타리아」 独裁를 設立한다라는 어리석은 理論의 展開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当時 「볼세비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資本主義의 最終段階가 「파시즘」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自殺的인 路線을 追求함으로 独逸에서의 「히틀러」執権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와 併行하여 「콤민테른」은 「레닌」에게 無条件 盲従하는 機構가 되어 버렸고 이러한 事態는 일찌기 国際機構 歴史上에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世界革命運動에서 소련共産党의 주도권은 그 시초에는 잠정적으로 存在하였던 것이 1928年 以後에는 蘇聯共産党이 完全히 그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소련 일개국에서의 社会主義 設立의 完全 勝利를 宣言한 1934年의 소련共産党 第17次大会에서 소련의 国際共産主義運動에의 주도권의 完全掌握은 明白해졌다. 이 해에 「콤민테른」의 書記長인 「게오르기·미트로프」는 「콤민테른」機関誌에 실린 「소련은 우리의 祖国」이라는 글에서 '소련은 보통 国家가 아니며 世界 「프롤레타리아」革命의 源泉이다. 소련의 国境은 全世界에 뻗쳐있고 共産主義를 為하여 闘争하는 모든 労動階

級을 뒷받침하고 있다. 社会主義를 実現시킬 수있는 나라로서 建立되고 또한 全世界의 「프롤레타리아」의 理想이 実現된 소련은 全世界 勤労者의 社会主義的 祖国이다.'라고 말하였다. 1935年에 「모스크바」에서 「콤민테른」 第7次 大会가 開催되었을때 거기에는 한사람의 反対者도 없었으며 소련은 궁극적인 共産主義에로의 発展에 있어서의 引導者 役割을 오늘날까지 하여 왔고, 앞으로도 永遠한 引導者가 된다는 主題만을 모든 사람이 앞다투어 찬양하였다. 「스탈린」의 이름은 高声으로 熱狂的인 환영을 받았고, 「후르시쵸프」의 말을 빌리면 個人 崇拜는 그 絶頂에 到達하였던 것이다.

「콤민테른」第7次 大会는 또 하나의 다른 理由에서 매우 重要한 것이었다. 「階級 対 階級의 闘争」이라는 戦術의 破滅的인 結果를 뒤늦게 認識한 「콤민테른」指導者, 특히 「스탈린」은 政治路線을 正反対로 変更하여 국제적인 反 「파시스트」聯合戦線을 設立하는데 最大의 努力을 경주하기로 決定하였다. 이 새로운 戦術, 即 소위 「人民戦線」戦術은 「콤민테른」 第7次 大会에서 熱熱한 支援을 받았다. 「스탈린」의 伝記를 著述한 「이삭·도이처」는 「콤민테른」路線의 変化에 対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파시즘」으로 부터 民主主義를 防禦하는 闘争은 労動階級의至上課業이다. 「파시즘」에 対抗하여 闘争하고 있는 모든 中産階級의 政党및 모임, 自由主義者, 極端主義者 심지어 保守主義者들을 모두 包含한 「人民戦線」을 形成함에 있어서 社会主義者와 共産主義者들은 이에 적극 協力할 것이다.' 「人民戦線」의 戦術은 時期的으로 너무 늦게 発足하였고, 또한 그 意図하는 本意가 真実하지 못함이 明白하였음으로, 仏蘭西 및 「스페인」을 除外한 地域에서는 그 影響과 効果가 별로 없었다. 그러므로 「人民戦線」戦術은 오래 継続되지 못하였다.

1939年 8月에 締結된 「히틀러-스탈린」条約은 또 하나의 戦術上의 劇的인 変化를 가져왔으니, 이번에는 反「파시즘」代身에 특히 美国과 仏蘭西가 주축이 되어 西方 資本主義 国家들이 벌이고 있는 帝国主義 戦争에 対

하여 「콤민테른」의 모든 会員들은 全力 闘争을 하여 그들이 滅亡할 때까지 闘争을 継続해야 한다는 政策이었다. 이러한 路線은 独逸이 1941 年 6月에 소련을 侵攻하자 또 다시 変更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人民戦線」의 「슬로간」이 再出現하였고 다시 한번 모든 「콤민테른」会員은 反「나치스」聖戦을 展開하라는 指令을 받았다. 「콤민테른」의 指令은 「人民戦線」의 基盤을 最大로 拡張시키고, 人民의 모든 要素를 전부 이 闘争에 総動員 할 것을 強調하였다. 이번 戦争의 「슬로간」은 「民族戦線」(National Front)을 모든 곳에 樹立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그재그」戦術은 「레닌」이 提唱하고 「레닌」의 執権下에서 行使되기 시작하였으며 「스탈린」政権下에서 特殊性格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政策의 変化는 事実에 있어서 「스탈린」에 依해서 具体化된 소련 外交政策의 必要性과 聯関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1943年 5月 15日 「모스크바」에서 発表된 「콤민테른」의 解体를 宣言한 「콤민테른」으로서의 마지막 公式 行為마저도 世界2次大戦 기간 중의 미묘한 時期에 있어서의 「스탈린」의 政治的 및 心理的 必要性에 依하여 決定된 것이었다. 모든 共産党들이 이미 소련과 특히 「스탈린」에 対하여 絶対 忠誠을 맹서하고 있었기 때문에 「콤민테른」이 「콤민테른」解体에 関하여 正式으로 同意를 하느냐 않느냐는 것은 問題도 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러한 決定에 反対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事実들을 念頭에 두고 第3次 「인터내쇼날」의 歴史的 役割에 対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問題와 関聯하여 특히 重要한 것이 두가지가 있다.

그 한가지는 第1次 「콤민테른」의 目的이 世界革命에 있었다면 이것은 여지없는 失敗였다는 점이다. 欧羅巴 및 其他 地域에서 試図된 수많은 「콤민테른」의 革命企図는 단 하나도 成功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事実때문에 아마도 「스탈린」이 国際機構로서의 「콤민테른」을 멸시하고 소련内에 亡命客으로 居住하고 있는 外国 共産党 指導者들을 멸시 하였다고 説明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화려한 「스탈린」의 伝記를 저술하였고 前 仏蘭西共産党 指導者이었으며 또한 「콤민테른」의 常任委員会 委員이었던 「볼즈·즈바린」은 "「콤민테른」은 누구를 代表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構成員만의 支持로 存在하였었다"라고 서술한 바있다. 이러한 説明은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던 어마어마한 事実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即, 소련에서 1936年에서 1938年 사이에 있었던 大粛清인바 이 大粛清에서 数千名의 外国 共産党의 指導者와 党員들이 共産主義의 天国이라고 믿고 亡命生活을 하고 있던 소련 땅에서 아무런 裁判도 없이 또한 刑執行의 公表도 없이 「볼세비키」의 兵士들과 「스탈린」의 警察에 依하여 殺害된 事実이다.

또 하나의 重要한 観点은 「콤민테른」이 世界赤化 目的에는 失敗하였으나 成功한 面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콤민테른」은 소련과 「스탈린」에게 盲目的으로 忠誠을 바치고 世界共産主義의 中心이라고 認定받고 있는 者들로 부터의 모든 指令을 그대로 執行하려는 汎世界的 共産党을 創立하였다는 点이다. 前「유고슬라비아」의 共産党 指導者이었던 「밀로반·질라스」는 말하기를 "「스탈린」은 闘争을 領導하는 단순한 指導者가 아니다. 그는 共産主義의 생각을 純粋한 理念으로 神格化하는 理念의 代身이며, 그럼으로서 그는 絶対로 틀리는 일이 없고 罪悪을 犯할 수 없는 사람이다. 「스탈린」은 今日의 勝利를 争取하였고 来日의 人類의 協同을 구축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結論的으로 要約해 본다면 「콤민테른」이 이러한 일사불란한 획일적 지도체제를 갖게 된데는 3個의 重要 原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다른 共産主義 国家와 比較하여 볼때 소련은 比較가 될 수 없으리 만큼 월등히 強力한 国家이였다는 事実이고 둘째로는 公式的이건 非公式的이건 「모스크바」의 絶対的인 領導力을 받아들인 共産主義者들 間의 유대의 特性을 들수 있으며, 셋째 原因은 「스탈린」은 무엇을 하던지 恒常 絶対로 틀릴 수가 없으며 罪가 될 수도 없다는 「스탈린」을 神格化한 造作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共產主義者의 養成方式(「프로그람」 No. 44)

*「마 이 어」 博 士

共產主義者는 만들어지는 것이며 날때부터의 共產主義란 없는 법이다. 共產主義 同調者나 共產党의 新入党員, 심지어는 入党한지 1年 밖에 안된 党員들은 아직도 人間이며 단지 그들과 같은 다른 一般国民보다는 党의 組織에 더 接近해 있다는 것에 不過하다. 이들을 核心을 이루는 老練한 공산주의자들로 訓練시켜 全世界 共產党의 幹部 党員으로 만든다. 이같은 熟練된 共產主義者들은 訓練과 压力의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 共產主義 指導精神으로 武裝된 忠誠된 共產主義者들이다.

共產主義者들이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훌륭한 共產主義者란 어떤 人間일까? 그들은 여러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一般 人間들을 어떤 種類의 人間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共產主義者로 만드는데 있어서 共產主義者들이 생각하고 있는 理想은 무엇일까? 心理的으로나 気質的으로 또는 背景에 있어서 여러모로 다른 모든 형태의 人間들이 共產党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共產主義者의 理想的인 「이미지」라고 할 個人의 心理的 特性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끈질긴 特性이 党에 有利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좋은 共產党員이 될 要件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弱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共產主義 同調者로서 党의 平党員的인 地位에 항상 머무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完全한 共產主義者란 물론 있을 수없다. 人間이 아무리 努力한다 해도 理想的인 完全한 人間이란 있을 수 없는 法이다. 그러나 厳格한 党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를 견디어 내어 核心分子 또는 幹部党員이 되는 共產主義者들은 이 理想的인 人間에 多小나마

---

* Frank S.Meyer: 「National Review」 紙 編輯長
「런던」大学, 「시카고」大学修学

가깝다고 말할 수있다. 幹部党員이란 事実은 바로 党을 말하며 「레닌」이 말하는 바 労動者 階級의 前衛를 뜻한다. 共産党의 規模가 現実的으로 얼마나 큰가에 相関없이 党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이 核心分子들이다.

오늘날 美国과 같은 一部 国家에서는 共産党은 実質的으로 核心分子에 依해서 即 갖가지 経験을 겪은 共産主義의 幹部要員들로만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東南亜나 南美諸国에서와 마찬가지로 共産党은 大衆에 기반을 둔 政党이며 이 党内의 老練한 核心的인 共産主義者들 만이 「레닌」이 定義하는 바의 党이라고 말할 수 있다. 党의 大衆的 一般 党員들은 党指導層의 立場에서 본다면, 労動階級 가운데 가장 階級意識이 強한 大衆組織으로서 機能을 하는 것이지 真正한 共産主義者로서의 機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全般的인 뜻에서의 共産主義者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共産主義者란 모든 伝統的, 個人的, 情緒的인 意識要素들이 最小限度로 縮小되고 鉄과 같은 意志의 命令에 따르는 人間들을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知性이란 党에서 具現된 単一의 至上 課題를 위해서만 全的으로 봉사되는 것이다. 이들은 歴史란 必然的인 힘이며 이 힘의 法測과 방향은 党의 理論과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方法에 依해서 科学的으로 알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意識은 그가 어떤 自由의 느낌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그로 하여금 품게 해주는 바, 이 自由란 우리가 생각하는 自由가 아니라 哲学家이며 「마르크스」의 先任者인 「헤겔」이 "自由는 必然性의 認識이다."라고 定義한 바의 自由인 것이다.

幹部要員은 労動階級을 지도하는 準聖職者 같은 存在이며, 共産主義 活動의 動力機関이고 労動階級을 救援의 길로 이끄는 原動力이다. 이러한 特殊한 사명을 가졌다는 信念의 도취감 때문에 共産主義者들은 그처럼 党에 헌신하고 그들 스스로를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科学的 神話의 수호자라고 自処하게 되는 것이며, 그들을 歴史意識의 代辯者라고 생각케 되는 바

「레닌」의 生存時 「스탈린」은 이에 関해 그의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共産主義者들은 特殊한 속성을 가진 人間들이며 우리는 特殊하게 만들어진 人間들이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의 偉大한 戰略을 遂行하는 軍隊의 構成分子이며 「레닌」同志의 軍隊要員이다. 「레닌」同志가 領導하는 党의 党員이라는 資格 以上으로 더 높은 資格이란 存在하지 않는다. 이러한 資格은 党의 모든 党員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資格은 党員들에게 뒤따르는 모든 폭풍우와 압력을 견디어 낸 모든 者들에게도 전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幹部共産主義者들을 선정하는 主要 基準은 1935年 共産主義「인터내쇼날」의 第7次 総会에서 当時 共産主義「인터내쇼날」의 書記였던 「미트로프」가 演說하는 가운데 共産主義者들을 위한 教訓으로서 장황하게 提示되었다. 그 基準은 단지 네가지이며 그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理解하려면 그의 말을 共産主義的인 思考方式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말은 共産主義者들 끼리 주고 받는 意味를 우리 나름대로 理解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네가지 基準을 여기서 例挙하고 이어서 共産主義 指導者들이 共産主義者들에게 教示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하나 하나의 뜻을 說明해 보고자 한다.

첫째, 労動階級의 大義에 絶対的으로 헌신해야 한다. 党에 対한 忠誠心은 敵과 直面했을 때나, 戰闘時에나 獄中에서나 법정에서 그 真偽가 들어난다. 둘째, 共産主義者로서 理解해야할 革命理論 即 「마르크스·레닌」의 理論을 体得해야 한다. 이는 그저 알고 있어야 할 教義가 아니라 行動및 戦争計劃의 하나의 指針으로서 体得되어야 한다. 革命理論 없이는 아무런 革命的 実践도 있을 수 없다.

세째, 自己의 処身을 独自的으로 가름할 수 있는 能力을 가져야 하며 決定을 내릴 責任을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네째, 階級의 敵에 対한 仮借없는 闘争에서 紀律을 지키고, 「볼세비키」의 강인성을 가져야 하며 「볼세비키」路線으로 부터의 모든 離脫에 対해

추호의 양보없이 闘争해야 한다.

이제 이것을 하나 하나 分析해 보자. 첫째번의 労動者階級에 対한 絶対的 헌신의 項目을 생각 해보자 이는 바로 共産党과 共産党指導層에 対한 절대적 헌신을 말한다. 이처럼 労動者階級은 共産主義 思想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의 象徴으로서 登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共産党指導層이란 労動者階級의 指導層이란 말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共産主義 幹部들이 노동자들에게는 마치 聖職者나 僧侶와 같은 存在가 되라는 이야기이다.

헌신이란 一慣性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이 뜻 外에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特殊한 性格의 헌신이다. 그 本質로 보자면 헌신은 결코 受動的인 것이 아니다. 이는 統制의 概念 即 自然과 人間 및 社会를 統制한다는 概念이다. 이에는 唯物哲学, 「마르크스·레닌」 의 政治理論, 倫理的으로 보는 人間 自体의 여러 問題들이 包含되어 있다. 이 要素들은 "世界를 바꾼다"든가 또는 "世界를 統制한다"는 広範한 意味의 項目속에서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文字 그대로 본다해도 이는 幹部共産主義者들을 위해 存在하는 것도 아니다. 喜와 美, 知性的 探究心의 満足같은 것이 따로 存在할 수있다고 主張하는 것은 共産主義者들의 눈으로 볼때는 부질없는 관념의 遊戯에 불과하다. 또는 「미트로프」가 그의 연설에서 使用한 말을 그대로 引用한다면 이는 "쓸데없는 공허한 抽象的 관념의 장난"이다.

共産主義者들은 人間의 本性속에 깊이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理念的으로 心理 操縱을 하는 知識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共産主義者들이나 幹部要員 및 特殊한 属性을 가진 人間들이 볼때에는 人間 本性의 이같은 깊이라는 것은 파괴되어야 하고, 統制받지 않는 意識水準 밑으로 까지 끌어내려져야 하는,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敵과같은 存在인 것이다. 幹部共産主義者들에게 이 点을 이렇게 強調하는 것은 아주 自家撞着的으로 들릴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解釈하는 바, 또는 「헤겔」이 表現하고 있는 바의 意識이란 "現実的인 것은 모두가 合

理的이다. 現実的이 아닌 것은 그 어느 것도 合理的인 것이라고는 생각될 수 없다.'로 表現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表現을 달리 「헤겔」의 말을 빌려 풀이해 보자면 '合理的인 것은 모두가 現実이다. 그러나 그들이 理解하고 있는 바가 現実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가 現実化 시키라고 指示하고 있는 바의 것이다.

두번째 基準은 革命理論의 体得이다. 共産主義者에게는 理論이란 깊은 뜻의 意味를 지닌다. 즉 그들이 말하는 理論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의 理論의 뜻과는 根本的으로 그 意味가 相違하다. 우리들이 말하는 理論은 抽象的이고 非実際的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들 思考方式에 있어서의 根本은 이른바 理論과 実践의 一致이다. 共産主義者들에게는 理論과 実践은 恒常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지 서로 따로 떨어져 存在하는 것이 아니다. 理論이 実践을 이끌어 주며 理論은 実践으로 부터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理論은 実践으로 縮小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理論과 実践은 한 쪽이 없으면 다른 한 쪽도 있을 수 없다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 쪽의 存立性을 許容하면서 다른 한 쪽을 決定하는 그러한 関係속에서 서로 独自的인 存在를 지키면서 結合되어 있기 때문에 抽象的인 理論이 없으면 経験的 実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哲学的 立場을 説明하는 가운데 文明 社会의 基本理念을 攻撃하면서 理論은 宇宙를 理解하기 위한 수단이지 宇宙를 統制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말했었다. 「마르크스」는 以前의 諸理論과 哲学을 멸시하고 嘲弄하면서 '哲学家들은 지금까지 世界에 関해 생각해 왔지만 이제 그들의 思考方式을 고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마르크스」理論은 現在의 人格形成의 뼈대로서 그대로 살아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思考와 行動의 両者를 統合시켜주는 힘이다. 理論과 実践의 合一은 共産主義的 人間 形成의 鋳型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理論의 体得은 革命的 実践行動을 為한 必須不可欠한 것이다.

세번째와 네번째의 이 마지막 두가지 基準을 한데 묶어서 생각해 볼 必

要가 있다. 왜냐하면 西方側의 見解로는 이 兩者는 相互矛盾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人間에게 「볼세비키」方式의 紀律을 부과하는 方法은 무엇인가. 人間은 어떻게 하면 党路線의 모든 残忍한 歪曲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의 道義的, 知性的 判断을 그의 上典에게 絶対的으로 従属시키고, 1941 年에 소련이 「히틀러」의 攻擊을 받았을때 党의 口号가 바뀌었던 것처럼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어떻게 白을 黑이라 부르고 黑을 白이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같은 일이 可能해 질것인가. 그러고도 人間은 「미트로프」의 말처럼 그의 処身을 独自的으로 가름할 수 있는 能力을 지니면서 決定을 내리는 責任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인가. 共産主義者들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 처럼 理論과 実践의 統合을 통해서 이 難問題를 解決하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理論과 実践의 統合으로써 党의 모든 行動을 歴史의 必然性이라고 主張할 수가 있으며 그들의 歴史的인 態度는 이 必然性을 認識케 만드는 것이며 이를 認識하는 것은 自由를 얻는 일이다. 이것은 言語上의 造作의 문제이다. 한편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이 独立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責任을 질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理性과 感性을, 마음 속에 갖고 있으며 이와 同時에 実際에 있어서 共産主義者들 마음속에는 上部 命令에의 服従心과 隷属性과 紀律과 「볼세비키」的인 強忍性이 함께 共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内容을 理解할 수 있는 하나의 方法으로서 共産主義者들이 表面上 서로 矛盾되는 듯이 보이는 두가지 概念을 하나의 統一된 概念으로서 処理하는 그들의 心理状態를 「아더·케슬러」는 그의 小説<白昼의 暗黑>에서 이를 훌륭히 묘사하고 있다. 抽象的인 理論으로는 이것을 説明할 수 없으며 어떤 主人公을 通해서 그려나가는 創作小説만이 이런 這間의 事情을 説明할 수 있을 것이다. 1930 年代의 粛清時期에 있어서의 「볼세비키」指導者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法廷에 서서 무고한 犯罪를 告白하면서 거의 자랑스러운 듯이 그들의 잘못을 告白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間에 党만이

그것을 決定해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行動하고 있었던 것이다.

指導的인 位置에 있는 한 共産党員은 党이 取한 立場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關한 討議에서 "물론 우리의 立場은 옳다. 党은 언제나 옳은 것이니까"라고 말한 일이 있다. 이런 面으로 본다면 責任을 지고 決定을 내리는 힘을 保有할 수 있는 能力과, 紀律을 絶対的으로 받아 들이는 習性은 바로 함께 共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 点, 즉 責任을 지는 能力과 絶対的인 紀律間의 根本的인 關聯性을 念頭에 두면서 이제 個性의 問題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判断의 独自性, 責任을 질 수 있는 能力과 意欲 및 決定을 내릴 수 있는 能力은 比較的 論議를 必要로 하지 않는 資質들이다. 이 낱말들은 直線的이며 明確하여 그 뜻하는 바는 말 그 대로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 局面에 対해서는 여기서 強調해 둘 必要가 있다. 指導的인 共産主義者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는 거의 無制限의 融通性이 適用되고 있다. 指導的인 共産主義者는 그의 当面한 情勢下에서 「마르크스·레닌」的인 科学에 立脚하여 놀라울 정도로 여러가지의 融通性있는 行動을 取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労組를 指導하고, 怠業을 組織하며 当時의 党路線에 따라 自由主義的 社会主義者건, 保守派건, 無政府主義者나 「파쇼」主義者이건 간에 어떤 組織体와도 協力 또는 이를 破壊할 수 있어야 하며, 宗教 団体에 賛成할 수도 있고 反対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거나 그들에 反対해서 일할 수도 있어야 하며, 強硬한 社会主義者들이나 또는 탄광 노동자들과도 協同할 수 있어야 하고, 작가나 예술가, 과학자, 영화배우, 또는 국회의원과도 한결같은 自信과 권위를 가지고 批判을 加할 수도 있어야 하며, 大衆運動속에서 合法的으로 活動하거나 또는 陰謀와 같은 가장 곤란한 条件下에서 不法的으로도 活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레닌」의 教示처럼 그는 가장 폭넓게 革命経験과 現代社会의 모든 階級을 包括하는 闘争의 보다 많은 여러 形式, 形態 및 方法등을 体得해야

하는 것이다. 訓練을 받은 共産主義者라면 누구나가 이같은 여러 鬪争方式을 서로 聯関지울 수 있고, 어떤 任務라도 이를 맡아 어떤 資格으로라도 이를 遂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윌리엄·키스너」大領은 여러곳에서 発行된 그의 훌륭한 著書에서 이를 "部分을 相互内部的으로 交換할수있는 共産主義者의 能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共産主義의 核心幹部要員들은 엄청날 정도의 行動의 伸縮性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紀律과 「볼세비키」的인 強忍性이라는 点에 関해서는 共産主義者들이 왜 이처럼 紀律을 強調하고 党路線으로 부터의 離脱을 許容하지 않는가를 理解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들이 그들 主義의 純粋性을 強調하는 것은 결코 抽象的 真理를 사랑하는 때문이 아니며, 그렇다고 抽象的 真理에 対한 信念 保存을 主張하게 되는 集団의 特性으로 흔히 나타나는 그들을 하나의 分派로서 保存하려는 것 때문도 아니다. 그들의 目的은 分派를 만드는데 있지 않고 世界를 支配하는데에 있다. 主義와 党의 紀律이 그처럼 고집하는 것은 이것이 世界를 変形시키는 唯一한 科学的 手段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党은 하나의 物質的 힘인 것이며 共産主義者들에게는 힘 以外의 아무것도 存在하지 않는다. 即 党은 人生의 意義自体를 具現시켜 주는 物質的 힘인 것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訓練된 共産主義者들은 冷笑主義와 理想主義의 相互矛盾的인 結合을 다함께 同等한 位置에 놓고 이를 受容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이 밖의 어떠한 矛盾이라도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人生의 唯一한 意義라고 생각되는 것 以外에는 모든 것에 対해서 冷笑的인 態度를 取하는데, 人生의 唯一한 意義란 歴史와 歴史를 創造하기 위해 선택된 手段을 가진 것은 党뿐이라는 그들의 信念이다. 洗煉되고 啓発된 人間이 組織的인 悪의 意識的인 代行者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열성과 희생적인 態度를 가지고 「아시아」的인 環境下에서 무시무시한 「테러」와 박탈행위를 敢行할 수 있었고,

数 十万의 무고한 人民들을 体系的으로 破壊하며 그들의 人間性을 빼앗는 直線的인 体制를 維持할 수 있었던 것이다.

西欧 共産社会의 唯一한 詩人인 「부트로·블레드」는 西方世界의 共産主義에서 나타나고 있는 共産主義의 人間型을 다음과 같이 詩的인 말로써 表現하고 있다.

"共産主義를 위해서 闘争하는 사람은 싸울 수도 안싸울 수도 있고, 真理에 直面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그는 봉사를 提供할 수도 또는 拒否할 수도 있으며, 約束을 지킬 수도 어길 수도 있다. 또한 그는 危険속에 뛰어 들 수도 있고, 避할 수도 있으며 이름을 알려지게 또는 알려지지 않게 할 수도 있다. 共産主義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共産主義를 위해 싸운다는 美徳만 빼놓고는 모든 美徳을 다 갖추고 있다. 그것이 바로 理想的인 共産主義者의 人間型이다."

사람들은 이 人間型에 더욱 가까이 接近할수록 경탄적인 語調로 表現되는 「볼세비키」라는 가상스런 称号를 받을 수 있는 資格을 얻게 된다. 共産主義社会에서는 "그는 真正한 「볼세비키」다." 라는 表現 以上가는 最高의 讃辞는 없다. 「스탈린」의 말대로 이 호칭이 党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特定人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은 결코 奇異한 일이 아닌 것이다.

3. 党의 内部訓練의 管理(「프로그람」 No. 45)

* 「마 이 어 」 博 士

지금까지 共産主義 人間의 理想型에 關해 考察해 보았다. 即, 經歷을 쌓은 共産主義者들이 党의 指導下에 自己를 그러한 人間으로 만들려고 努力하고 있는 바의 模型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았다. 共産主義의 幹部要員들을 만들어냄에 있어 이 理想型의 人間像은 指標의 口実을 하는 것이나 共産主義者의 見解에 依하면 모든 理論이란 実践計劃을 随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共産主義者들은 共産主義의 理想的인 人間型을 実践行動으로 옮기고 人間을 이 理想型에 맞춰 改造하기 為한 訓練体制를 반드시 樹立해야 한다.

教育과 訓練을 為한 体制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의 教育과 訓練의 테두리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 이 体制는 党의 全体 活動과 함께, 그리고 各個 党員들의 모든 活動과 함께 展開된다.

이 体制가 주는 圧力은 党員의 生活 그 自体를 決定짓는다. 党員의 党内 地位가 높아 질수록 이 圧力은 減少되기는커녕 오히려 增加된다. 完全한 共産主義者의 人間 形成이야말로 「레닌」主義 政党의 第1次 課業이며, 모든 것이 이에 달려 있는 最重要 課業이라고 現実的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訓練의 責任은 어떤 委員会나 部 또는 다른 機構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党의 全体 指導層 自体, 即 모든 級의 党에 存在하는 그 級에 相当하는 指導層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教育委員会나, 部 또는 局 같은 教育機構는 다만 総体的인 訓練計劃의 補助機関에 不過한 것이다.

---

* Frank S.Meyer : 「National Review」 紙 編輯長
「런던」 大学, 「시카고」 大学 修学

이 訓練에는 세가지의 広範한 範疇가 있다. 即 첫째, 特殊한 教育的 뒷받침으로서의 教育自体에 関한 党 組織과 둘째, 活動을 通한 党員의 訓練 및 세째 共産主義者들의 日常生活을 通한 訓練이 그것이다.

첫째로 教育 自体에 関한 党 組織에 対해서 살펴보면 教育을 遂行하는 여러 개의 機関들이 있는 바 먼저 各処의 各種 이름의 党 管理下의 公開的인 学校들이 있다. 公開的이란 것은 党員에게만 局限되지를 않고 一般에게 까지 開放되어 있으며, 党員을 為한 特定 形態의 理論 訓練을 위해 使用되는 外에도 非党員이나 党 同調者들을 為한 教育, 煽動, 宣伝 및 유혹을 위해서도 使用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党의 機構 自体를 보면 여러 가지 機関들이 있다. 먼저 新入党員班이 있으며 党의 모든 新入党員들은 먼저 여기 所属되어야 하며 여기서 그는 党 組織의 모든 要素들을 배우게 된다. 다음으로 特殊班이 있으며, 이는 여러가지 問題들이 提起될 때마다 全党員들을 위해 때에 따라 編成된다. 즉 1930年의 「스탈린·히틀러」条約締結 때와 같은 対外関係에 있어서 党이 危機에 処해있을 때나, 1930年代의 公判時처럼 党内의 危機가 있을 때, 또는 党의 立場에 関해 重要한 理論的 整理를 必要로 할때 등에 特別班이 編成된다.

세번째로 党의 定規 研修学校가 있다. 이 学校는 党内의 모든 過程 및 모든 級에서 実施되며 그 学科 時間과 期間 및 対象도 여러가지 이다. 어떤 隣接地区를 為한 것이라면 2日 乃至 3日間, 또는 1週日 過程의 党学校일수도 있고 어떤 区나 여러 聯邦内 共和国들을 相対로 한 全国的인 規模라면 6個月 또는 1年 過程으로 하여 少数의 選択된 指導者들을 対象으로 할 수도 있고, 国際級이라면 有名한 「레닌」学校등이 있다.

이 밖에 다른 方途들도 있으니, 党의 会議는 어느 때 모이더라도 그 나름의 教育的인 側面을 가지게 마련이다. 모든 単位党이나 支部党의 会議에는 会議 時間의 3分의 1 乃至 半을 차지하는 이른바 教養時間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大会, 委員会 또는 特別 集会에서는 이른바 報告書를 提出한다. 即 이러한 모임에서는 一般討論이 進行되는데 이것은 当時

의 論議의 対象이 되고 있는 実際的인 問題들과 함께 党員들의 理論的 発展이라는 問題를 함께 다루게 되는 것이다.

이때 報告書들은 全国 大会나 党의 国際会議등에서 朗読되고, 検討되며. 그 後 単位党이나 教養班에서의 討論 案件으로서 採択된다.

다음으로 두번째의 党活動을 通한 教育問題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 教育은 여러가지의 形式을 取한다. 一例로 어떤 주어진 課業이나 活動 또는 部署를 為한 人員選定에 있어서나, 또는 党의 여러 集団이나 地域의 活動을 選定할때 이 問題가 提起된다. 여기서 教育이나 訓練의 효과를 거두는 것은 어떤 個人의 弱点이 있을때, 그에게 어떤 새로운 任務를 주거나 또는 여러가지 活動을 통한 圓満한 経験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그의 弱点을 是正, 強化해 준다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運動이 個人의 弱点을 是正하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할 때인 것이다. 이 問題는 訓練対象者의 選定 및 訓練活動의 選択時에 提起된다.

다음 두번째로는 個人의 活動에 関한 不断한 討論과 評価가 있다. 活動이 遂行되는 것만으로는 充分치 않으며 追後에 그 活動이 成功的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가지고 討議에 부치게 되는데, 党의 見解로는 個人의 活動이 그의 共産主義를 어느만큼 어떻게 増進시키고 있는가에 関해 理論的인 面에서 討議되어야 한다는 것이 必須로 되어있다. 다음으로는 指導的인 共産主義者들이 下位級의 有望한 共産主義者 2~3名을 自己 摩下에 두고 그들에게 베푸는 個人的인 指導가 있다. 여기서는 活動에 있어서의 理論과 実践의 一致가 継続的으로 強調된다. 「프랑스」 共産党에는 "行動하기 위해서 工夫하며 工夫하면서 行動한다" 라는 口号가 있는데 이는, 다른 共産党들도 모두 採択하고 있는 것이다. 理論과 実践의 合一이라는 中心的인 理想은 訓練分野에서 特히 重点을 두고 遂行된다. 党의 定規研修学校는 時間制 訓練이 아니며 하루 終日 学科만을 工夫하기 때문에 研修生들은 1週日서 부터 2, 3年까지의 期間 동안 그의 日常生活의 活動과는 동떨어진 生活을 하게 된다.

여기서의 学校 生活은 活動에서 벗어난, 우리가 생각하는 바의 조용한 研究生活과는 다르다. 共產主義者들의 말처럼 이 学校는 階級闘争으로 부터의 休暇가 아니라 이 闘争을 보다 높은 次元에서 継続하고 있는 生活이다. 이 学校는 一般的인 意味의 研究生活과는 거리가 먼 어떤 다른 種類의 緊張感으로 充満해 있다. 모든 問題, 即 「캠페인」에 対해서 考慮해야할 모든 問題와 現在 일어나고 있는 問題에 対한 討論이 빠른 속도로 教授되며 가장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問題들은 教師와 学生間에 그리고 学生들 끼리 論争形式으로 맞부딪쳐 討議케 되며, 어느 때나 自己가 옳다고 責任을 지고 생각케하는 態度가 注入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는 理念은 곧 힘이며, 理念이 올바른 것이면 그것은 곧 善을 為한 힘이되며 理念이 틀린 것이면 그것은 곧 悪을 為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党의 나날의 活動에서의 誤謬는 単純한 잘못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即 判断의 過誤라고 생각되지 않고 어떤 理論的인 弱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이 弱点을 찾아내는 作業이 시작된다. 이같은 検討過程, 過誤의 보다 깊은 根因을 찾아 내려는 探索과 圧力과 審議는 党内의 位置가 높아질수록 아울러 더욱 深刻해진다.

세째로 共產主義者들의 個人生活은 매우 根本的인 重要한 것으로 看做되고 있다. 世界를 支配하려는 全体主義 社会의 原型으로 여겨지고 있는 党은 人生의 모든 瞬間을 世界支配를 위한 過程의 한 構成要素라고 看做하고 있다. 知性的이고 個人的인 習性에 対한 体系的인 観察, 分析, 批判이 継続된다. 무심코하는 말로 深刻한 말을 한 것으로 看做되어 深刻한 批判을 받게 된다. 모든 発言이 올바른 생각하에 発해져야 하며 무심코, 不適切한 마음으로 発言을 해서는 안된다. 家族이나 親友에 対한, 또는 마음속에 있는 問題들에 対한 態度가 깊이있게 그리고 厳格하게 観察되며 批判된다. 訓練의 이 세가지 段階는 모두가 党員에게 関聯되는 것이며 党의 見地로 보아 結局 問題는 人間의 全体 人格을 어떻게 하면 바꿔 놓을 수 있는가 하는 点이다. 이는 人間의 마음으로 하여금 理念을 받아

들일수 있도록 教育하는 問題가 아니라 共産主義者의 人格 全体를 어떻게 하면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이같은 結果를 얻기 위해 使用되는 方法의 하나는 첫째로 共産主義者는 存在하는 모든것에 対한 統制를 行使할 責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即 共産主義者들은 自己 周辺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責任을 져야 한다는 그리고 이 世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注意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個人的인 心情에서의 責任感을 注入시키고 있는 것이다. 新聞도 그저 훑어 보는 式으로 읽어서는 안되고 参与하는 마음으로, 技術者가 機械를 들여다 보는양 世界를 바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어떻게 統制해야할 것이냐를 念頭에 두고서 新聞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첫째로 責任性있는 態度를 注入시키고 있는데 共産主義者들이 항상 主張하듯이 現実의 性格을 科学的으로 파악할 수 있고 科学的으로 統制할 수 있는 것으로 理解한다면 이를 解決하는데 必要한 責任있는 行動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그 結果 統制와는 関聯이 없어 보였던 보다 많은 側面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関聯된 또 하나의 側面은 「마르크스·레닌」의 教義를 構成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古典에 関한 모든 冊들은 全体的으로 綜合, 一般化되어 있지를 않고 누가 어떤 冊을 쓴 境遇에라도 각기 特定 問題에 関해서만 取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各己 모여서 全体的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教義를 이루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綜合된 全体的인 一般論으로는 存在하지 않고 있다는 点이다.

두번째로 人間의 個性에 継続的으로 不断히 加해지는 圧力에 関한 것으로서, 즉 人間形成에 作用을 하는 圧力은 무엇이냐에 関한 것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로는 成就 不可能한 너무나 큰 課業을 주어 圧力을 加하는 方法이다. 이와 함께 必要 以上의 問責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訓練過程에서 共産主義者의 士気를 低下시키지

는 않는다. 왜냐하면 歷史의 要求가 너무 큰 것이어서 아무도 그 要求에 副応할 수 있다고 期待될 수는 없기 때문인데, 그러면서도 그 要求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要求에 副応하려는 모든 行動은 그런대로의 意義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 方法은 그러한 過程속에서 責任感의 姿勢를 補強해주고 또한 圧力을 더욱 增加시키게 된다. 이밖에 또하나의 圧力은 한 人間의 모든 位置는 党이 보는바에 알맞는 올바른 位置라야한다는 圧力이다. 이러한 路線으로 부터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不断한 危険意識이 継続해서 밀어 닥치게 된다. 路線으로 부터 離脱하지 않으려는 闘争이 모든 活動과 모든 理論的 思考를 支配하는 中心的인 問題로 化하게 된다.

党員은 이러한 状況下에서 継続的인 批判에 不断히 露出되어진다. 表面的인 態度로 까지 그 影響을 나타나게 하려는 이 같은 不断한 批判과, 入党前의 非共産主義的 生活로 부터 移越된 偏見으로 말미암아 党 研修学校에서는 温室과 같은 뜨거운 雰囲気가 造成되며, 이러한 雰囲気를 통해 党性에 맞지 않는 本性을 表面의 態度로 떠올리게 하기 위한 工作이 鋭角的으로 施行된다. 모든 過誤는 그 源泉까지 原因을 파고 들어가게 된다. 偶然한 発言이나 組織上의 過誤, 古典의 微妙한 意味를 잘못 解得하는 것같은 일들은 그 自体로서 批判을 받는 일은 드물지만, 表面으로까지 露出되어야 하는 깊은 뿌리를 가진 弱点의 한 徴候로 看做되어 진다.

行動과 研究 및 生活등 모든 것이 서로 相互 聯関지워져 있기 때문에 이같은 批判活動을 為한 対象은 끝없이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이 批判은 — 이것이 重要한 要点이지만 — 그 後 共産主義者들이 말하는 바 自我批判으로 옮겨가게 된다. 自我批判이란 自己의 잘못이 무엇이었던가를 스스로 캐묻는 過程이며, 자기가 저지른 잘못의 弱点, 自己 活動의 欠点 自己 態度의 잘못등의 原因을 自己 안의 外来的인 階級意識때문인 것으로 하여 이를 스스로 찾아 내려는 過程이다. 이러한 自我批判은 強力한 手段이 되고 있다.

이 自我批判은 처음에는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바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式으로 제대로 活用이 잘 안될지도 모르지만, 経歷을 쌓은 共產主義者들은 이것을 感情이나 反感을 품지 않고 해낼 수 있다. 이 方法은 事実上 人格을 発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무엇이나 党보다 앞세우려는 態度라고 共產主義者들이 非難하고 있는바의 主観性을 除去시키고, 이를 党에 대한 無条件的인 헌신을 뜻하는 客観性으로 代替시키는 主要 手段이 된다. 이 主観性이란 共產主義者에게는 으뜸가는 罪이며, 客観性은 으뜸가는 美德이 된다. 그 結果 経歷을 쌓은 共產主義者는 남들이 自己를 賛揚하는 拍手를 칠 때에 함께 自己도 拍手를 치는 習性을 体得하게 되고, 또한 体得하도록 期待된다. 이것이 바로 客観性이라는 것이다. 은근하게 점잖아 하는것은 批判에 反対하는 것에 못지 않은 重大한 罪로 看做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앞서까지는 知性的이었던 態度와 心的 感覚을 流動状態로 変動시키게 되는 圧力들이며 이 過程속에서 人間性이 再形成되는 것이다.

여기서 変形되는 것은 総体的인 人格이지 知性的 態度만은 아니다. 人格 再構成의 原則은 変形되는 것이 総体的인 人格이냐, 知性이냐, 意志냐, 또는 感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그 目的은 同一하며, 이 三者 모두가 相互 聯関되어 있는 것이다. 知性에 関한 限 이 変形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 政治教養의 注入과 비슷하다. 이는 아주 直線的인 過程이며 共產主義 外部의 世界에서 얻은 이른바 虛偽의 価値概念을 科学的이며, 客観的인 思考方式, 即 「프롤레타리아」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価値観으로 代替시키는 過程이다.

意志에 関한 問題는 좀더 복잡하다. 意志는 어떤 面에 있어서는 같은 意志일지라도 어떤 目的과 方向이 設定되어 있는 것이다. 意志란 「로보트」처럼 強制로 두드려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意志는 이를 強化시켜 주는 道理밖에 없다. 弱한 意志를 가진 「볼세비키」란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意志의 機能은 그 方向이 다시 定해져야 한다. 意志

는 精神的 判断을 내릴 수 있는 主体로 만들어져야 하며, 즉 党 指導層의 判断은 그 本質上 옳은 것으로, 그것은 党이란 共産主義者들이 成就하려는 目標인 歷史를 創造하는 者이기 때문이라는 意志를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意志는 힘이면서도 伸縮性은 없는, 그리고 이러한 精神的 判断을 내리도록만 方向지워진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偉大한 基盤이나 偉大한 決定없이는 精神的 判断이란 成立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意志는 強力하고 躍動的이나 個個의 共産主義者들은 個個의 情勢下에서 그의 精神的 判断이나 精神的 意志를 行使하는 것을 업수이 여기고 있다. 個別的인 情勢들은 그가 参与하고 있는 党 指導部의 集団的 知性에 依해 計算되고 있어야 할 性質의 것이지 그 스스로가 精神的 判断을 行使해야 할 対象은 못된다는 것이다.

意志는 強力하면서도 어느모로는 伸縮性이 없는 것이며 이 伸縮性이란 知性의 分野에서나 活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感情이나 情緒에 関한 問題는 「마르크스·레닌」 主義의 計算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問題이다. 感情에 対해서는 매우 実用主義的인 態度가 支配的이다. 感情이나 情緒는 党에 해로우면 抑圧되어야 한다. 党에 相関없이 独立的으로 사랑이나 友情등의 価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 깊은 愛着心을 수반하는 情緒는 党의 価値 方向에 알맞는 方向으로 調整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서 共産主義 人間型을 強化하는데 利用된다. 一例로 羞恥心 같은 感情은 難関이나 危険에 処하여 党에 제대로 奉仕하지 못했다는 式으로 이 수치심을 老練한 軍人의 義務感과 닮게하는 方向으로 誘導하는 方式으로서 利用된다. 그러나 党앞에서의 수치심이란 許容되지 않는다.

党에 否定的도 아니고 肯定的도 아닌 感情은 中立的이라고 看做된다. 가령 性은 個人的 愛着心으로 発展하여 妨害를 하지 않는限은 어느 정도 無妨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感情은 역시 問題点을 안고 있다. 많은 党 組織者들은 어떤 사람이 自己가 바라는대로 行動하고 있으나, 不幸히도

그는 個人的인 問題를 갖고 있는 境遇가 많다고 한숨 섞인 말을 할때가 자주 있다.

共産主義 訓練計劃의 方法論에 있어서의 主要한 要点들은 이렇게 要約될 수가 있다. 即 現実의 科学的 性格을 추호의 譲歩도 없이 主張할 것, 生活이 即 訓練이며 訓練이 即 生活이라는 責任感을 계속해서 強調할 것, 探索과 試錬이라는 圧力을 仮借없이 加할 것, 共産主義 幹部要員을 形成할 수 있는 決定的인 要素는 이같은 圧力과 自我批判을 스스로 賦課하는데 있다. 即 個人의 外部에 있는 党이 이같은 圧力을 加하는 것이 아니라, 党의 뼈대는 自己의 뼈대이며, 党의 피는 自己의 피라는 信念으로 自己가 스스로 自己에게 圧力을 加하는 主体가 되는데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이제 共産主義의 名誉의 讃辞인 真正한 「볼세비키」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人間形成의 過程은 完成된 것으로서, 그의 内部에 党이 깃들어 있게 되는 것이며 이는 다시 逆転시켜 놓을 수 없는 것으로, 그는 뼈속 깊이 共産主義의 使者가 되는 것이다.

4. 党의 外部紛争의 管理(「프로그람」 No. 46)

***「마 이 어」 博 士**

党의 活動方式을 理解하는 데 가장 좋은 著書로 「필립·셀니크」의 〈組織의 武器〉가 있다. 이 冊은 党의 活動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철저히 分析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共産党은 우리가 알고 있는 政党이라는 概念의 그런 類의 政党이 아니다. 共産党은 우리 社会에서 一般的으로 容認되어 있는 規則이나 어떤 範囲内에서 그의 政治的 活動을 制限하고 있지 않다는 点, 이것이 첫번째의 重要한 点이다. 共産党의 目的은 오히려 모든 階級에서 現存하는 社会秩序를 顚覆시키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共産党은 다른 集団들과 헌법적인 秩序속에서 함께 活動하는 것이 아니라 共産党과 함께 活動하는 社会의 餘他 모든 組織속에 침투하는 바 地方의 「클럽」이나 組織体, 労動組合, 모든 종류의 協会로부터 全国的인 組織体, 国家 全般과 国際機構 나아가서는 「유엔」에 까지도 침투하는 것이다. 共産党은 社会의 모든 権力을 共産党의 目的을 위해 集中시키는 것이 그들의 歴史的 使命이라고 스스로 自負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歴史의 手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全的으로 統制하고 支配하지 못하는 限 그들 目的에 어떠한 制限도 두려고 하지 않는다. 一例로 「후르시쵸프」가 "언제나 未来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은 모두 社会主義 世界에서 살게될 것이다." 또는 "우리는 너희 資本主義者들을 埋葬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主張하게 되는 것은 그들은 共産党이 歴史의 手段이라고 確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無制限의 権力追求가 모든 共産党의 行動様式을 規定짓게 된다. 그들의 行動方式은 本質的으로 파괴적인데, 그것은 아무런 憲法上의 制約도 없

---

* Frank S.Meyer : 「National Review」紙 編輯長
「런던」大学, 「시카고」大学 修学

고 또한 보편적인 그들의 目的에 의해서만 制約을 받는 手段을 가지고 權力追求를 위한 仮借없는 行動을 취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權力이 社会의 어디에나 存在하고 있다는 것과 이 權力은 政治的統制를 통해 実体化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權力은 社会의 모든 領域에 깔려 있으면서도 모든 形態의 行動을 취하는 가운데 発生되는 것이지 좁은 의미의 흔히 政治라는 過程에서만 発生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認識하고 있다. 이 權力은 모든 制度안에 잠재해 있으며, 最大限의 政治權力을 얻기위해 이러한 모든 것을 利用, 動員할 수 있다는 것을 共産主義者들은 또한 認識하고 있다. 더우기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全般的인 目的은 社会의 모든 制度에 政治的 意義를 賦与하게 되는 바, 社会의 総体的 変動을 꾀하려는 데 있다. 때문에 소련과 같은 党이 国家를 統制하고 있는 国家에서는 党은 소젖짜기大会로 부터 宇宙飛行에 이르기까지 모든 領域의 活動에 그 스스로를 参与시키게 된다. 그리고 党이 国家를 統制하고 있지 못하는 国家에서는 共産党은 그 目的을 実現시키는 발판을 얻기 위해서 社会内의 모든 種類의 活動을 利用하려들게 된다. 오늘날 政治라는 것은 이제까지 보통 非政治的이라고 생각되던 모든 종류의 社会組織 및 特殊目的을 為한 構関안에서도 行해지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처럼 共産主義者들의 權力追求는 破壊的인 것인데, 첫째로 그것은 一般的으로 政治權力을 얻을 수 있는 領域에 限界가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共産主義者들은 総体的인 統制權을 手中에 장악하지 않는 限 그들의 權力追求를 멈출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社会의 모든 面을 政治化시키려는 이같은 不絶, 無制限의 闘争은 全体主義의 基本的 性格을 이룬다. 党은 또한 国民大衆의 支持가 없이도, 또는 努力하지 않고도 可能한, 그리고 主要政治 勢力들이 忘却하고 있는 領域에서의 勢力의 源泉도 역시 모색 하고 있다. 現存社会에 対한 党의 態度는, 그들의 숨은 目的을 위해 되도록 社会를 操縦해보자는 것이다. 党은 社会를 操縦하고 이에 浸透하여 이를 顚覆시키려고 꾀하는 한편 党員들을 吸収하려고 努力하며, 党員들을 鍛練시

킴에 있어 說得의 方式을 使用하고, 宣伝, 教育의 手段을 行使하며, 主義, 理論을 가지고 그들을 共産主義로 끌어들이고는, 共産主義者들이 말하는바 大衆을 煽動하여 現存하는 経済的, 政治的, 社会的 秩序에 反対하는 闘争에 動員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宣伝과 煽動의 差異는 說得과 操縱의 差異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宣伝은 比較的 少数의 人間集団에게 一聯의 基本的 理念과 党의 総体的 計劃을 注入시켜주는 것이며, 煽動은 少数의 理念 내지는 다만 한가지의 理念을 多数의 人間에게 伝播시켜주는 活動으로, 이때의 理念이란 그 나름대로 体系잡힌 理念이 아니라 党의 目的을 위해 多数의 人間들을 행동으로 몰아 넣으려고 使用되는 単純化된 内容의 理念을 말한다. 一例로 소련革命은 「平和와 빵과 土地」라는 口号를 가지고 執權할 수 있었는데, 이 政治的 口号는 党의 基本理論에 関한限 모두가 거짓말이었으며 특히 平和란 말은 兵士들을 비롯한 戦争에 시달린 많은 国民들을 行動으로 몰아넣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빵과 食糧이라는 政治口号는 戦時状態에 신음하고 있던 労動階級이나 그밖의 社会階層들을 行動으로 몰아 넣을 수 있었으며, 또한 土地는 農民들을 行動속으로 몰아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平和와 빵과 土地」라는 口号를 基盤으로 하는 煽動으로 일단 權力을 장악하게 되자, 共産党은 平和의 가장 큰 敵으로, 20세기의 가장 큰 戦争挑発者로 変身했던 것이며, 빵과 食糧이라는 煽動口号로 權力을 쥐게 되자 소련共産党은 소련国民의 生活水準을 甚히 핍박했었다. 그들은 食糧을 大衆을 위해서 보다 權力追求라는 그들의 目的을 위해서 使用했었다. 土地에 関해서도 数年 後에 共産党은 集団化計劃을 통해 土地를 農民들로 부터 빼앗고 土地를 国家, 다시 말해서 共産党의 所有物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 外部의 国家에서 權力을 掌握하여 顚覆活動과 浸透로서 소련을 도우려는 活動을 하고 있는 共産党員들이 오늘날 내걸고 있는 「平和」와 「人種 平等權」이라는 政治口号도 그 自体가 벌써 거짓말인 것이다.

「平和」나 「平和共存」 또는 「軍備縮小」같은 政治口号들도 冷戰에서의 소련의 勝利를 위한 努力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다. 「人種平等」의 口号라는 것도 社会의 不滿勢力을 現存社会에 反対해서 싸우게 하려는 努力에 不過하며 그것은 共産党이 平和에 介意치 않는 것 못지않게 人種差別도 介意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共産党은 関聯있는 여러 組織속에 浸透해 들어가는 한편 그와 並行해서 이같은 政治口号를 만들어 냄으로써 操縱과煽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積極的인 操縱活動 以外에 또한 反共産主義的인 勢力들의 信賴性을 깍아 내리기 위한 소극적인 操縱, 소극적인 煽動活動이 있다. 美国下院의 「非美活動調査委員会」나, 美国 上院의 「国内安保委員会」, 또는 어떤 状況下에 있어서나 共産主義者들에게 危険을 주게 될 団体같은 것이 그러한 煽動工作의 対象이 된다.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이 전혀 信奉하고 있지 않는 言論自由에 対한 憲法保障을 利用하여 그들이 社会의 勢力 中心地帯에서 自由로히 活動하는것을 도와줄 어떤 公式機構라도 이를 支持하고 나선다. 이때의 党은 慣例的인 概念의 政党이 아니라 戰闘政党으로서 組織体의 潜在力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면서 継続的으로 権力의 征服을 要求하게 된다. 党의 影響力이 아무리 弱하더라도 그리고 組織体의 存在가 微弱한 것이라 할지라도 労動組合이나 青年団体, 人種団体 또는 平和運動 등의 主導権을 部分的으로 나마 掌握할 것을 언제나 꾀하고 있다. 왜냐하면 国家権力을 奪取할 수 있는 可能性이 아직도 멀기 때문에 눈앞에 당장에 征服할 수 있는 目標가 있다면 이를 征服하는 것이 언제나 權力征服에의 演習도 되고 経験도 쌓게 되므로써 将次의 国家権力征服에 対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共産主義의 幹部要員들을 訓練시키는데 있어서 行動과 活動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所謂 理論과 実践의 合致의 다른 한 側面인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共産主義活動의 初期段階에서 작은 目標를 위해서 라는 権力을 위한 闘争속에서 試練과 訓練을 쌓게 되는 것이다. 共産党指導層은 闘争의 対象이 될 어떤 集団이라

도 찾아내어 이에 対해 闘争을 할 수 있도록 党員들을 이끌어 나가야한다. 이는 労動組合이나 平和運動 등 모든 종류의 目標物을 앞에 提示해주고, 이를 破壊해야할 反対勢力으로 共産党員들에게 提示하는 끊임없는 政治的 戰闘와도 같다.

共産主義者들은 다른 組織体안에서 그 組織員으로서가 아니라 이 組織안에 浸透한 共産党의 工作員으로서 活動한다. 그들이 浸透하려는 対象의 크기에 相関없이 権力獲得을 위해 그들이 使用하고 있는 方法들은 어떤 것일까. 가장 小規模의 集団으로 부터 보다 큰 集団에 이르기 까지 手段은 大略 비슷하다.

첫째로 그들은 少数의 人員이라도 이 集団에 加入시켜 会員이 되게 하므로서 이 組織안에 核心的 共産主義分子들의 橋頭堡를 構築한다. 2, 3名의 이런 共産主義者들이 그들 끼리는 서로 알고 있으나 다른 組織員들은 모르는 主導権 獲得이라는 目標를 위해 서로 協同해서 活動하게 되며 그 成果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에 反해 이 集団 안에서 이런것도 모르고 그저 行動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行動에는 相互間의 凝集力이 欠乏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並行해서 단 한名의 共産主義者라도 戰略的인 位置를 占하게 되면 그 価値는 엄청난 것이다. 가령 어떤 組織体의 書記가 会員名単이나 住所録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으로 共産主義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些少한 行動에 이르기 까지 統制할 수 있고 또한 情報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세째로 그들의 힘이 強力해지면 政府의 어떤 部署에 다수의 共産主義者들이 들어가게 하여 그들의 位置를 利用해서 그들 同僚를 다른 部署에 配置하는 建議를 하거나, 그들 親旧들 또는 党의 同志들, 또는 党에 敵対的이 아닌 사람들이나 党員들의 昇進을 도와주게 하며, 한편 그들에게 敵이 되는 人物들의 이름을 깎아 내리거나 降等시키는 일을 꾀하게 된다.

네째로 党政策을 組織内의 形便이 許諾하는限 最大限度로 追求한다. 親越盟決議나 親「쿠바」決議 또는 그 当時 共産主義者들이 支持하고 있는 어

며한 政治運動과 같은것을 代身해 주는 活動을 取하며, 労動組合이나 隣近 地域의 組織体, 教会 등의 集団속에서 그들의 政策을 追求해 나간다. 끝으로 이런 組織体들에 存在하는 党員들은 「프락치」라는 特殊集団으로 組織되며, 「프락치」는 그들 나름대로 継続的으로 모여 各個 組織体内의行動統一을 위한 調整을 한다. 結局 「프락치」란 어떤 주어진 組織体나 制度内에 存在하는 緊密히 짜여진 集団으로서 어떤 特定 目的을 위해 行動統一을 하는 集団을 말한다. 이런 경우 이들은 그들이 있다는 事実을 모르고 있는 그 組織体의 善意의 다른 사람들은 利用하면서 活動하는 것이다. 이런 「프락치」組織의 効果는 国際的 協商에서 까지 明白히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서 共産主義者들은 妥協을 전혀 하지 않고도 그들의 目的을 기어이 達成할 수 있도록 하는 固定目標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組織을 조종하기 위한 자질구레한 策略들은 시골의 住民組織으로 부터 国際会議에 이르기 까지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가령 国際会議에서 며칠동안이나 議題를 놓고 싸운다거나 몇 시간씩 딴 問題로 時間을 질질 끌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쳐버리게하여 共産主義者들이 有利한 位置에 서게하는 手法이나, 議事進行을 조종하거나 会議参席者들의 気力을 지치게하는 手法, 또는 長期間 会議를 끌어 의사 妨害를 하므로써 딴 사람들이 다 退場하고 난 후 指令을 받은 共産主義者들만이 남아서 投票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등의 手法을 그들은 使用한다.

投票의 節次 같은 것이 없는 国際会議의 境遇에서는 「제네바」会談 때처럼 몇年間이나 아무런 措置도 取함이 없이 会談을 열어놓게 하여 会談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는 手法을 쓴다. 浸透나 権力争取의 手法과 対応되는 手法으로는 統一戰線의 手法이 있는데, 이 手法은 그런대로 그 内容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과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첫째는 党自身이 統一戰線의 看板組織을 만들어 내는 境遇이고, 두번째는 다른 組織에 浸透해 들어가는境遇이다.

統一戰線의 看板組織을 만드는 境遇에 있어서는 그 手法이 直線的 이며

서로 비슷하다. 먼저 発起人 中의 核心分子, 즉 믿을만한 一団의 同調者들이 함께 모여 臨時計劃을 起草하고 趣旨를 宣言한다. 이것이 첫 段階이다. 다음으로 보통으로는 党員이 臨時書記가 되어 文書를 取扱하며, 組織要員들이 任命된다. 이에 따라 発起人들은 이 組織을 合法的으로 承認하게 된다. 끝으로 名望있는 著名한 사람을 表面上의 議長으로 앉혀 놓고 党이 統制할 수 있는 人員들로 構成된 믿을 수 있는 理事会나 執行委員会로 議長을 둘러싸게 한다. 이 일이 끝나면 다음 段階는 国民大衆에게 호소를 하고 結成大会를 열며 総会를 召集해서 임시계획이나 組織案들을 認准받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組織을 結成함에 있어서 異例的인 方法은아니다. 共産党의 看板組織 構成의 主眼点은 全体를 党이 뒤에 숨어서 統制할 수 있도록 重要部署에 党의 統制를 扶植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実例는 수많이 存在한다.

「스페인」内乱時의 「스페인」援助委員会」나, 지난 20余年 동안에 存在했던 「緊急国民 自由委員会」, 오늘날 存在하고 있는 親越盟, 親「쿠바」団体, 美国 政党 중에 존재했던 여러 平和団体등이 이러한 看板組織들이었다. 그러나 党이 設立하는 이런 看板組織들은 그 正体를 보다 쉽게 알아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組織体들 속으로 共産党이 侵蝕해 들어 가서 実権을 掌握하는 것에 比하면 그 重要性이나 価値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統一戦線의 結成이나, 利用하기 위해 다른 集団들과 協力하는 따위의 共産党의 全般的인 政策은 全領域에 걸쳐서 그대로 進行되어 오고 있다. 統一戦線의 要点은 統一戦線을 통해 이루어지는 提携가 겉으로는 相互利害関係에 立脚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相互援助를 위한 直接的인 同盟関係는 아니라는데 있다. 中央이 政治舞台에서 나타나는 모든 統一戦線이나 同盟関係는 겉으로 내세우는 相互援助가 아니라 相対方을 利用하자는 데 그 基盤을 두고 있다.

勿論 모든 同盟이나 協力関係라는 것은 共同目的을 위한 것인 만큼 相互間의 自己 利益 追求를 어느 정도 그 基盤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共産主義者들에게는 権力 追求로서의 手段 및 共産党의 一方的 利益 追求만이 唯一한 目的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現在 나돌고 있는 「平和共存」과 같은 宣伝도 이러한 共産党 目的을 위한 手法의 一種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른바 統一戦線의 戦術이라는 것이 그런것인지만 共産主義者들에게는 永続的인 協力関係란 있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며, 여러 相異하는 勢力間의 共同 目的이란 内在的으로 矛盾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르시초프」는 이런 事実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는 소련共産党이나 共産党 国際機構 등에서 共産主義 指導者로서 報告하는 자리에서 그러하였다. 그는 相異한 勢力과의 協調란 共産主義者들이 世界를 힘으로 征服하기 위한 階級闘争의 또 다른 하나의 形式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平和共存」의 概念은 国内的으로나 国際的으로 지난 10年동안 活溌히 論議되면서 進展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概念은 統一戦線을 使用하는 戦術로서는 그 最高 水準에 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目的은 統一戦線의 다른 모든 目的이 그러했던 것처럼 分明히 共通的인 目的을 基盤으로 하는 것이며 이 境遇에는 核戦争을 저지시키고 平和를 維持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속여 利用해 보자는 計算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그들 目的達成의 進展을 위해 이런 戦術을 쓰면서도 그 真正한 궁극적인 目的은 世界征服에 있었던 것이니, 즉 共産世界의 軍備는 最大로 伸張시키면서 餘他 世界의 軍備는 最少限度로 이를 抑制시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統一戦線 戦術의 例는 1930年代 「유럽」에서 이른바 「人民戦線」의 時期에 나타났다. 오늘날 모든 大陸과 世界의 모든 곳에는 現存하는 組織 即, 一般的인 統一戦線에 浸透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看板組織을 만들어 내는 両者 並行의 混合手法이 使用되고 있다. 그 例는 東南亜에서 볼 수 있는 中立政府나 世界의 其他 地域에서 볼수 있는 中立政府들이며, 中国에서는, 中国共産党이 執権하기 前까지는 進歩的 国共合作의 形態를 取했었고, 이런

手法은 印度나 中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가장 最近의 例로서, 「카스트로」는 執權하기 前 「바티스타」 政權顚覆이라는 共通目的밑에서 여러 다른 勢力들을 共產主義者들이 조종하고 있는 숨은 指導力으로 利用하면서 共產主義者들이 이 組織들에 浸透하도록 하였고, 일단 「카스트로」가 執權하자 共產主義의 假面을 벗어던지면서 共產主義者들과 함께 「바티스타」 타도를 위해 같이 싸워온 다른 政治勢力들을 몰아낸 「카스트로」의 「쿠바」에서의 奪權方式을 볼 수 있다.

이런 手法은 오늘날 「카스트로」分子들과 共產主義者들의 統制下에 여러 이름의 運動으로 南美 全域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다른 組織들에의 浸透를 推進하고 있다. 그들의 궁극적 目的을 為한 마지막 革命的 狀況의 段階에서 볼 수 있는 実際的인 반란행동은 그들의 戰闘的 政党의 特性을 가장 잘 보여준다. 勿論 叛乱 以外의 다른 모든 措置들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目的을 指向하고 있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要約해 본다면 共產主義者들의 모든 活動은 어떤 水準에서 빚어지든 間에 權力을 위한 継続的인 闘争이며 이 闘争의 主要方式은 ① 浸透, ② 統一戦線, ③ 看板組織이다. 이 세가지의 手法들은 地域共同社会内의 団体로 부터 오늘날 国際的으로 世界의 到処에서 使用되는 顚覆活動의 戦略에 이르기 까지 共產主義의 最終的인 権力 征服을 為해 모든階層, 모든 水準에서 行使되고 있는 것이다.

5. 共産主義의 呼訴力(프로그람 No. 47)

*「마 이 어」博 士

대체로 共産党의 構成員은 充分히 訓練된 共産党員만으로 構成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侯補党員 즉 共産党員이 됨에 必要한 順応過程을 밟고 있는 者들로 構成된다. 이 順応過程에 첫발을 딛는 것은 곧 共産党員이 되기 위한 길에 들어섰음을 意味한다. 単純히 党의 한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共産党의 幹部가 되기 위한 길고도 먼 過程에 이제 겨우 入門한 것에 不過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 過程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은 한편으로는 그 自体가 한 転換点을 이루는 것이 된다. 어떻게 環境을 造成하기에 사람들을 共産主義의 影響에 感染되도록 만들까? 状況을 어떻게 配合하기에 한 人間의 内面을 改造하고 그가 처해 있는 環境을 改造하도록 만들까? 主観的인 要素와 客観的인 要素는 어떻게 結合되어 있을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直接的인 周囲環境이라는 意味와 国内的 또는 国際的으로 그의 世代와 그가 살고 있는 時代에 影響을 끼치는 客観的인 要素들이라는 두가지 意味 中에서 客観的 要素들. 즉 그를 둘러싸고 있는 周囲状況에 対해서 먼저 考察해 보기로 하자. 客観的 要因들은 党의 統制에 依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나 党은 그런 要因을 만들도록 분위기를 造成한다. 主観的 要素는 그의 主観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党의 主観 즉 党이 능히 할 수 있는 主観을 뜻한다. 여러 客観的 要因들 가운데서 먼저 政治的 要因과 그가 살고 있는 時代의 理念的인 状況에 対해서 우선 말해보기로 하자. 그 要因들은 主로 이런 저런 理由로 因해서 많든 적든 全世界나 혹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이나 혹은 그의

---

* Frank S. Meyer :「National Review」紙 編輯長
「런던」大学.「시카고」大学修学

그러한 環境과의 特殊한 어떤 関係에 影響을 미치는 하나의 물결과 같은 것이다. 現存하는 習慣, 態度, 특히 信念으로 부터 分離해 나가겠다는 어떤 분위기와, 希望的인 受容姿勢이든 絶望的인 受容姿勢이든간에 変化가 받아 들여지는 분위기인 것이다. 急激한 技術의 発展 및 革命 그리고 戦争, 그리고 무엇 보다도 従来의 社会가 그 基盤을 두어온 確固한 精神的 道徳的 信念의 崩壊 즉 伝統的 信念의 没落으로 特徴지워지는 20世紀는 이러한 変化의 분위기를 造成해 주어왔던 것이다. 지난 50年間의 西欧精神의 衰退에 対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中国이나 印度와 같은 文明의 発達速度가 느린 前近代的인 社会에서는 伝来의 思潮는 옳은 것이 었다. 이러한 伝統的 思想이 崩壊한 것은 変化에 対한 受容姿勢, 変化에 対한 예리한 関心, 現存하는 制度에 対한 의심, 平和롭고 安定된 19世紀에 対한 希望때문이다. 이 때에 共産党의 첫 成長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에 影響을 받은 労動者들이 생기고 30年代 中期에는 美国共産党이 関与해서 CIO(産業別労動組合会議)가 組織되고 労動者階級의 再編成이 이루어졌다. 知的인 理由와 職業的인 理由 그리고 経済的 不況 즉 経済的인 理由 뿐만 아니라 그 当時 存在하던 倒錯된 諸関係, 態度, 그리고 信念의 危機때문에 이러한 現象이 일어났던 것이다 西欧에서는 美国에서 보다도 知的인 文明의 問題가 더욱 심각하였다. 「히틀러」가 権力을 잡은 時期에 台頭한 「파시즘」에 対한 反対思想은 우리 政府와 西欧諸国의 諸政府를 초조하게 만들었으며 「스페인」의 愛国者들의 愛国心에 의해 「파시즘」에 対한 独特한 증오심이 고취되었다.

오늘날에 와서 이 두個의 要因은 反抗精神을 発展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効果的인 要素인 것처럼 보이며 各己 다른 生活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共産主義의 매력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門戸를 開放하는 体制에 対하여 批判을 加하는 것은 平和的인 問題로 되어있다. 民族問題와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世界的인 失敗가 오지 않을까 하는 恐怖 그리하여 民

族과 国民을 保全하지 못하고 그들을 도탄에 빠뜨리며 共産主義가 世界를 制覇하며 共産主義者들의 宣伝에 끌리리라는 생각따위도 역시 그렇다. 또는 民族問題에 있어서 現存 社会에 正義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과 本質的인 過程에 따르는 초조감—이런 것들이 政治的 理念的인 状況의 特別한 例이거니와 이런 状況은 西欧의 固有精神을 破壊하는 党으로서의 共産党이 存在하는 全期間을 通해서 힘을 発揮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一般的인 条件下에서는 다른 우연한 要因들이 個別的 人間에게 共産主義의 説得에 説服당하기 쉬운 機会를 提供해준다. 이러한 우연한 要因들이 左翼積極分子로 하여금 그들이 関係된 地域이나 職場이나 産業部門에서 強力한 影響力을 発揮하게 한다. 이러한 問題들은 自己를 소외시키는 社会的인 圧力에 逆襲을 加할만큼의 責任感을 그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한 文明人으로서 순간적으로 그의 信念으로 부터 그를 離脱케 하는 誘惑에 抵抗할 수 있을 程度로 그의 信念이 強한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순수하고 완전무결한 偶然的 要因이란 이런것 들이다. 즉 意気相通하는 親旧와의 交友, 한 사람의 生涯에서 어떤 契機를 주도록 그를 사로잡는 冊, 우연하게 나뭇잎 한 조각이 選択되는 때와 같이 確固한 方向을 向해 全力을 集中하고 있는 사람을 動揺케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더 나아가 考察하면 要因이라는 것은 一般的으로 政治 理念的인 状況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個別的 人間에게는 本質的인 것이다. 要因은 人間의 個別的인 状況을 決定해준다. 말하자면 이러한 要因들은 人間에게는 主観的이며 党의 立場에서는 党이 統制를 加할 수 없는 客観的인 것으로 된다. 党의 影響에 否定的으로 作用하는 것으로 생각컨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重要한 要因은 宗教的인 믿음에 굳건히 基礎를 둔 信仰이며 個人이 属해있는 民族과 文明의 道徳的 状況이 本質的으로 옳다고 強하게 믿는 信念인 것이다. 두번째 要因은 嫌悪와 몰이해 등을 反対하는 동안에 充分히 理解되고 証明된 従来의 政治的 理念的 知的인 信念과 態度인 것이다. 이런 形態의 또 다른 要人은 人間의 成熟의 程度이며 혹시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나 完全히 年令上의 機能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気質的이고 心理的인 問題로서 그가 지니고 있는 信念과 態度가 気質的으로 어느 程度 確固한가에 影響을 주는 것이다.

다음 이 모든 点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은 그의 気質的, 心理的인 性格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接近하는 方法을 찾는데 最初로 効果的인 方向을 提示해준다. 이것은 그를 사로잡으려는 党의 活動에 多様한 方法을 提供해주는 原因이 된다. 더 나아가 이것은 그가 党에 接近하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하게된다. 気質的이고 心理的인 要因들이 다른 어떤 要因들 보다도 党의 圧力에 抵抗하는 口実을 하게 된다는 생각은 나의 経験으로 보아서 「넌센스」이다. 共産主義者들이 사람에게 圧力을 加하고 세뇌하여 異質的인 心理를 갖는 型의 人間을 만드는것 外에 共産党員이 됨에 適性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誠実한 共産党員으로 変質될 可能性이 있는 心理的인 「타잎」의 사람들이 存在한다. 그러면 以上의 것을 要約해보자 党이 統制할 수 없는 客観的 要因들이 党에 대한 誘惑을 느끼도록 影響을 끼친다. 個人이 처하고 있는 時間的, 地域的, 政治的 理念的 状況이나 個別的 人間에게 있어서는 우연한 要因과 個人의 性格의 本質的 要因들이 모두 客観的 要因이다.

그러면 論題를 客観的 要因에서 主観的 要因으로 바꿔보기로 하자. 우리는 党의 観点에서 主観性을 取扱하고 있다. 이것은 党이 어떻게 状況을 調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党이 客観的 状況과 관련된 要因들을 党内에 사람을 끌어 들이도록 改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党은 여기에서 두개의 날카로운 攻撃을 加한다.

왜냐하면 党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에게 関心이 있는 単純한 問題를 提示하여 그를 党의 影響圏에 끌어 들이는 것. 充分한 教化를 하는 것은 教育과 宣伝이다. 党은 이 方法은 多様하며 그것 하나만으로는 不可能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을 끄는 団体에 의해서 遂行되는 方法을 말한다. 그러나 戦闘的인 党은 이 方法으로서 사람들에

대한 勝利를 争取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同時에 行動과 能業 또는 大衆的인 行動 또는 平和的인 示威만으로는 充分한 것이 못되고 共産党의 事業은 長期間에 걸친 遂行過程을 必要로 하는 것이라고 党은 말한다. 왜냐하면 共産主義者들은 理論的인 理解에 基礎한 行動에 의한 教化없이는 行動을 取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意識化된 労動組合의 運動 以上으로 좋은 것은 없으며 이런 労動組合은 成功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党의 立場에서는 이 두方法사이의 差異는 오직 分析的인데 있다고 본다. 사람이 따라오도록 사람을 行動과 教化속에 몰아 넣어야 한다. 単刀直入的으로 말하자면 煽動과 宣伝사이에는 差異가 存在하나 党의 綱令을 実践하기 위한 宣伝은 大衆的인 活動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이 宣伝은 첫째로 여러가지 形態의 大衆的인 行動을 通한 煽動에 大衆을 밀접히 끌어넣는데 確固한 基礎를 둬야한다. 다음에 사람을 그가 関係하는 작은 団体에 끌어넣어 宣伝을 한다. 위에서 言及한 대로 宣伝과 煽動間에는 問題가 있으며 이 両者는 結合되어 사람을 活動하도록 한다. 煽動에서 宣伝으로의 移動은 党과 党의 모든 教理를 向해서 行動을 統一시키는 問題이다 또 이 移動은 그가 従前에 그에 影響을 준 煽動과 行動때문에 지금은 그의 思考의 한 部分으로 남아있는 思考에 対한 感情的인 反応을 일으키는 過程이다. 煽動을 通해서 그에게 附与하기로 한 地位를 주어 党内의 地位를 모두가 받아 들이게 함으로서 党이 그로 하여금 従前의 態度와 観念을 破壊하도록 党이 創案한 混乱 대신에 固定観念을 対置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 党員을 増加시키는 方法이며 技巧이다

이것은 容易한 事業이 아니다. 왜냐하면 感情的인 要因들이 어떤때 일시적으로 激烈性을 나타내는 合理的인 態度밑에 깊숙히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行動段階로서 煽動과 宣伝의 期間에서 사람을 党에 끌어들여 党員을 増加시키는 말하자면 党이 党員増加라고 特別하게 부르는 特殊課業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理解하기는 힘들다. 이것이

정곡을 찌른 命題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 이 問題를 明確히 해보기로 하자. 이 課業은 党의 重要한 活動課業中의 하나이며 体系的인 方法으로 遂行되며 그가 課業을 遂行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個別的으로 各個人에게 命令을 내리는 方法을 取한다. 個人의 事業은 党機構를 利用한 組織的이고도 正規的인 方法으로 監督되며 모든 党內의 会合이 「체크」되며 이런 方法으로 課業은 遂行된다. 둘째로 이 過程이 遂行됨에 따라 党은 다음과 같은 事實을 알아야 한다. 즉 行動隊員으로의 適合性의 程度는 党이 제때에 機能을 発揮하는 方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社会에 総体的으로 適合한 位置에 있는가 아닌가는 이것이 聯合戰線의 時期와 같은 状況에서 遂行되고 있는가에 따라 決定되며 또 이것이 社会에 背反되는 闘争的 状況에 있는가의 与否는 이것을 禁止하고 있는 美口과 같은 나라에서 遂行되고 있는가에 따라 決定될 問題이다. 党의 構成員은 党이 不法化된 時期보다는 合法化된 時期에 보다 빨리 增加한다. 그들은 党이 不法化된 時期보다는 더 많이 活用될 것이며 幹部党員으로 될 것이다.

셋째로 党員이 增加하는 状況에서는 누구에게도 이런 可能性이 주어져 있다. 最終障碍가 빨리 形成되며 사람의 従前生活의 情的이고 知的인 資質이 表面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終局에 가서 障碍가 形成될 것이다.

이때 党은 絶対的인 危機에 直面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党에서 離脱할 뿐만 아니라 終局에 가서는 敵이 되거나 적어도 批判的인 同伴者가 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의 党은 非常手段에 呼訴하게 되며 党의 指導者들은 自己 個人을 為해 일을 하는 者들을 돕게된다. 어느 程度 非合法的인 集会에서의 그에 対한 信任을 보여주기 위하여 情的인 方法에 呼訴한다. 그의 切実한 不満은 자주 어떤 虛偽속에 묻혀 있다가 表面으로 나타나고야 만다. 그러한 感情的 変化는 継続 일어나고 그것들은 個人的이고 知的인 問題로 되며 재빠르게 状況에 適応하는 것을 몹시 꺼리게 된다. 充員을 위하여 消耗된 모든 精力과 時間은 다음 두가지의 条

件에 의해서 成功이 左右된다. 첫째로 그가 한 集団에서 어느程度 影響力과 潜在的 影響力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그의 潜在的 可能性이 幹部로서 成長하는데 適合한가. 共産主義者로 成長할 可能性을 充分히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事業을 推進하는 共産主義者들은 緊要한 方法을 써서 長期間에 걸쳐 용의주도하게 課業을 遂行한다. 그러나 効果的인 補充員의 획득은 数字的인 것이 아니며 個々 人間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나는 이렇게 強調한다. 그가 党에 加入한 것은 선동에 説服되어서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選択의 岐路에서 그가 단지 共産主義者가 되는 길을 選択한데 그 理由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党에 加入한 것은 결코 論争이나 어떤 선동 宣伝의 結果는 아니며 그가 共産主義가 되는 것을 원했으며 그가 共産主義者가 되려는 一般的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共産主義者는 그가 共産党에 加入하겠다는 決定이 制約된 좁은 動機에서가 아니라 人間 個性의 심층에 報答하는 넓은 動機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意味에서 新参党員이 党에 加入하는 일은 世界를 抛棄하고 또 다른 世界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党員으로 加入시키는 過程에서는 社会로부터 그를 소외시키는 作業이 集中된다. 특히 그의 個性을 破壊하므로서 理想的인 幹部共産主義者로 改造키 위하여 끊임없는 圧力이 加해지는 것이다.

6. 「라틴·아메리카」의 共産主義(프로그람 No. 48)

*「스 토 크」博 士

西半球에 있어서 自由世界의 우리 友邦国들에게 가장 重要한 問題中의 하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一般的인 혹은 特別한 方法으로 이것에 対하여 考察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西半球에 있어서의 共産主義의 威脅인 것이다. 이러한 状況에는 어떤 것들이 包含되어 있는가를 多少 分明하게 指摘하기 위하여 共産主義 指導者에 依하여 지금까지 発言된 것 中에서 가장 意味深長한 것중의 하나인 1961年 1月6日字 「후르시쵸프」首相의 演説文에 注意를 기울여 보기로 한다.

이 演説은 그들의 意図나 方法까지를 決定하려고 했던 1960年 11月 共産党의 高位 指導者会議에서 행한 것이다. 1961年의 이 演説은 이 題目에 関聯된 가장 重要한 単一의 政策声明인 것이다. 「알렌·덜레스」는 그의 著書 〈情報의 技術〉에서 그의 意見으로는 오늘날 共産主義의 信条가 바로 이렇게 構成되어 있다고 冊의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다.

「후르시쵸프」의 演説을 要約해 보면 첫째 国際共産主義가 앞으로도 従前과 같이 継続하여 存在할 것이라는 그의 生覚을 무엇보다 먼저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毛沢東과 「후르시쵸프」는 이 点에 関하여 完全히 意見이 一致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制度가 滅亡할 것이라는 不変의 歴史的인 法則을 믿고 있으며, 더욱이 그들은 代議政府, 또는 代議共和政 또는 自由経済体制 혹은 資本主義는 반드시 崩壊되리라고 믿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独裁主義와 社会主義가 그에 代替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

* William S·Stokes : 「클레어몬트」大学 比較政治論 教授
U.C.L.A.Ph.D 「라틴·아메리카」問題 専門家

全世界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声明에서 最初로 「후르시쵸프」는 共産主義의 全世界的 勝利에 대한 日程標를 밝혔다.

그의 計算에 따른다면 1974年이나 1975年 까지는 全世界에 共産主義만 남게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는 全世界를 美国, 西欧, 그리고 우리 友邦에 依하여 先導되는 소위 先進国들과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소위 活動的인 前進基地로 나누고 있다.

어떻게 그는 美国이라든가 其他 地球上의 開発된 国家들에 社会主義나 独裁主義를 뿌리박을 수 있을까

그의 말에 의하면 社会主義의 初期段階에서는 全面戦이나 局地戦 없이도 그것이 可能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理由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가 말하는 要点은 国際共産主義란 全面的인 暴力이나 世界大戦 혹은 制限戦이나 局地戦의 利用을 不許한다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첫째로 社会主義 理念에는 全面戦争을 利用하도록 強要할 만한 理由는 없다고 한다.

또한 그는 「레닌」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레닌」이 비록 全面戦이 不可避할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生覚했고 또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生覚으로는 全面戦이란 반드시 不可避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오늘날의 全面戦은 그 性格으로 보아서 共産党, 즉 前衛党 組織下에 있는 「프롤레타리아」가 너무나 큰 代価를 치루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것이 바로 戦争을 願치 않는 理由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지금 当場에 美国이나 西欧諸国들로 하여금 平和裡에 「프롤레타리아」独裁 및 社会主義에 손들고 말도록 만들거나 또는 説得할 수 있는 方法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平和的인 共存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들이 使用하는 方法을 가리켜서 「후르시쵸프」는

이를 「平和共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이것은 平和도 아니고, 그렇다고 共生하는 것도 아니라는 点을 分明히 하였다.
事実, 그것은 軍事力을 動員하지 않는 戰爭인 것이다.

그것은 心理的인, 政治的인 그리고 軍事的인 戰爭이며 闘争의 한 方式으로서 資本主義의 破滅을 재촉하고 資本主義의 敗北를 재촉하게금 되어 있다. 「후르시쵸프」는 이 点을 여러차례 거듭하여 말하였고 그가 우리의 体制를 破滅로 이끌어 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意志를 마비시키며 우리의 制度를 顚覆하기 위하여 浸透하고자 끊임없는 工作을 継続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強調해야 할 点은 그들이 全面戰이나 局地戰을 할 生覚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르시쵸프」가 말한 것에 따르면 局地戰은 拡戰되어 곧 核戰争으로 치닫는다는 것이다.

이에 対한 理由는 分明하다. 그것은 1961年 1月의 声明에서가 아니라, 1962年에 번역 出版된 〈蘇聯의 軍事戰略〉이라는 大端히 重要한 冊에서 明白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마리노프스키」 元帥가 著述한 章은 蘇聯의 戰争概念에 있어서 核과 在来式 武器 사이에는 아무런 差異도 없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蘇聯이 局地戰을 일으키겠다고 決心한다면 그들은 즉각 実質的인 正規戰을 適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美国의 最高司令官은 이를 願하든 않든간에 즉시에 이에 対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후르시쵸프」가 이야기한 局地戰은 核衝突로 拡大될 것이라는 얘기는 옳은 말이 되는 것이다.

中国共産主義者들과 蘇聯 共産主義者 間에 一致되지 않는 点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中国共産主義者들은 制限된 基礎 위에서 때때로 局地戰을 벌여야 한다고 하며 또 때로는 拡戰없이 그러한 作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根本的인 差異点이 있다는 事実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周辺地域에서 무엇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지에 対하여 살펴보자.

「후르시쵸프」는 地球上의 開発된 地域에서는 暴力을 使用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취하는데 反하여 地球上의 未開発地域에서는 暴力은 가장 우선적인 方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늘 거듭하여 使用하는 두가지의 語句는 「人民蜂起」와 「解放戦争」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그것을 発展시켜 単純한 戦争이 아니라 "神聖한 戦争" 으로 이 끌어 올린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蘇聯邦은 人民解放戦争에 임하고 있는 나라에서 社会主義의 成就를 為하여 모든 資源을 動員하여 이를 支持하고 援助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世界의 活動戦線(Active Front)에 社会主義와 「프롤레타리아」独裁를 심을 目的으로 共産主義 暴力 地下団体를 設立하였다. 그 暴力 地下団体는 밑바닥에서 부터 縱横으로 活動하고 있는데 그들 団員들은 政治的, 経済的, 心理的 戦争과 政府의 顚覆을 위한 訓練이 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組織技術에 訓練되여 있으며 또한 暴動을 일으키도록 訓練되여 있고, 結局에 가서는 새로운 하나의 共産主義 国家를 이룩하기 直前段階인 「게릴라」戦으로 誘導한다.

그런데 中国共産主義者들은 이런 觀点에서는 基本的으로 意見을 같이 한다. 그들은 自已의 国民은 自已 스스로가 訓練시켜야 하며 스스로 그들을 武装시켜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그들은 몇 個의 目標地域에서 그들의 活動을 進行하고 나서는 곧 게리라戦을 始作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対하여 蘇聯共産主義者들은 보다 慎重한 基礎위에서 目標地域을 選択하고 上述한 闘争을 始作하기 前에 아주 注意깊게 人選作業을 한다.

우리 周囲를 볼때 蘇聯共産主義의 理念的 位置에 対한 刮目할 만한 進出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例를 越南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別問題가

없다. 「아프리카」와 「콩고」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問題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러한 가장 代表的인 様相은 「큐바」의 경우이다. 「큐바」야 말로 西半球에서의 共産主義 威脅의 가장 顕著한 본보기인 것이다.

그들은「큐바」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1959年 1月 武力으로 政権을 잡은 「큐바」의 움직임은 기타 「라틴·아메리카」諸国에서의 共産主義 勢力의 成功的 扶植, 美国에 対한 威脅, 軍事基地의 建設 等과 같은 蘇聯 共産徒党의 計劃에 아주 가깝게 맞아 들어갔다. 不過 얼마 안되는 몇 달 동안에 그들은 1500만불 以上의 相当한 軍装備를 搬入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装備는 다른 어떤 「라틴·아메리카」国家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도 더 精密한 軍事装備인 것이다. 「큐바」가 어떤 美軍 偵察機도 떨어뜨릴 수 있는 威力을 가진 地対空 「미사일」로 武装되였다는 이야기는 전연 誇張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 位置하고 있는가를 注意하여야 한다. 즉 蘇聯 共産主義者들이 西半球의 国家들을 顚覆하려고 하고 있다는 点에 注意하여야 한다. 대개가 소위 開発途上国(活動戦線)들인 「라틴·아메리카」는 거리로 따진다면 다른 地域보다도 蘇聯으로 부터 먼 距離에 位置하고 있다. 東北「러시아」는 第一 가까운 곳에서 4500마일, 먼 곳에서는 8000마일이라는 먼 距離에 位置하고 있다. 그래서 西半球의 心臟部에 位置한 基地를 維持하기 위하여서라면 그 価値로 보아서 그들은 아무리 큰 代価라도 支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많은 量의 高度로 精密한 軍事武器를 「큐바」에다 가져다 놓았을 뿐 아니라 数 億弗에 該当하는 経済援助를 提供했다.

또 한가지는 「큐바」에서는 「후르시쵸프」共産主義者들 뿐만 아니라 中国共産主義者들도 活動中이라는 事実이다. 人民蜂起나 人民解放戦争의 暴力地下団体가 벌리는 政府 顚覆劃策 등의 活動을 늘이기 위하여 그들은 「큐바」에서 「라틴·아메리카」人들을 訓練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基地로 使用하려고 잘 計劃된 地域을 設定하였으며, 더구나 「프라그」, 北京, 「모스크바」에서도 그러한 訓練이 行하여 지고 있다. 中, 蘇 또는 그들의 衛星国 中 어느 하나도 対 「라틴·아메리카」宣伝放送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큐바」는 110時間 以上의 宣伝放送을 하는데 주로 「서반아」語로 放送하나 「폴투갈」語, 또는 其他 国語로도 한다. 中国은 220時間의 宣伝放送을 내보내고 있으며, 蘇聯共産主義者들 및 東欧衛星国들도 330時間 以上의 宣伝放送을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目標가 이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살펴보자. 그들의 優先的인 目標는 軍事的인 均衡을 깨뜨리는 데 있다. 여기에서 다시 앞에서 든 그 声明을 살펴 본다면 우리가 看過해서 안될 点은 「후르시쵸프」는 「프롤레타리아」独裁나 社会主義를 扶植함에 있어서 暴力의 使用을 절대로 禁하고 있지는 않다는 点인 것이다. 그는 특히 어떤 形態의 戦争의 性格을 規定함에 있어서 많은 選択의 餘地를 가지며, 따라서 「큐바」에 再発射 能力을 갖춘 42基의 長距離 혹은 中距離 誘導弾発射台를 搬入함으로서 軍事的인 均衡을 깨뜨리려고 試図하는 것은 바로 그런 範疇에 属하는 問題이다. 그들은 2200平方마일에 達하는 美国의 東海岸 地域을 언제라도 攻擊할 수 있는 距離 内에 두고 있으며, 또한 「라틴·아메리카」諸国의 모든 首都를 射程圏内에 두고 있다.

그들은 美国이 15分의 警報時間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단 5分으로 短縮시켰으며 그러한 結果로 美国의 全面的인 一次攻擊에 依하여 被害를 입지 않았을때 使用하는 2次攻擊의 能力을 甚히 弱化시킨 結果가 되었다. 이러한 事態進展의 結果로 前 美国 大統領 「케네디」는 이러한 軍事的인 威脅을 더 以上 참을 수 없다는 賢明한 判断을 내렸다. 그래서 그는 「후르시쵸프」로 하여금 「미사일」을 撤去하도록 必要한 軍事的, 外交的 威力을 発揮하여 効果的인 方法으로 終結을 지었다. 이러한 美国의 政策은 그 어느때 보다도 強力하였다. 海岸封鎖를 敢行한 것에 対하여 大部分의 사

람은 讚成을 보냈다. 그러나 몇 몇 理由때문에 撤収를 確認하기 前에 海岸封鎖를 풀었으므로 「큐바」섬 안에다 다른 武器들을 蘇聯이 搬入했던 것을 発見할 수 없었다. 그들은 前에 約 4千名에 達하는 蘇聯軍을 들여다 놓았었고, 高度로 精密한 武器를 들여다 놓음으로써 西半球의 바로 心臟部에다 基地를 構築하였던 것이다.

結果的으로 볼 때에, 그들은 軍事的인 均衡을 깨뜨리는데는 失敗하였으나 政治的 勢力均衡을 変化시키는 데는 어느 程度 成功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또 威脅에 直面하고 있다. 西半球에 加하여지는 이러한 威脅에 対処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資源을 大量 拡大시킬 必要가 切実하다.

蘇聯은 「큐바」에 大単位 精油工場을 세웠으며 또한 各種 海洋調査에 従事하는 船団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潜水艦들을 가지고 西部海岸, 「멕시코」만 등에서 지금도 自由로이 哨戒任務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公式記録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큐바」에다가 소위 漁港 (漁業前進基地)를 設置한다는 協定을 맺은 바 있다. 蘇聯의 潜水艦들은 「무르만스크」로 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作戦中인데, 그들이 美大陸의 西部海岸이나 멕시코만을 哨戒하려면 이것 저것 補給品을 받고 배를 수선하기 위하여서는 자주 母港에 들르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蘇聯이 「큐바」와 締結한 港口使用協定을 奇貨로 하여 이를 潜水艦 基地를 建設하는데 利用한다고 仮定하여 보자. 또한 그들의 潜水艦이 必要로 하는 補給品을 普及할 目的으로 그곳에 補給倉庫를 갖추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만약 그것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말할것도 없이 우리는 또 威脅에 直面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것은 일부분에 不過하다.

蘇聯이 「큐바」를 「게릴라」 訓練本部와, 宣伝放送을 내 보내는 拠点으로 利用하고 있다는 証拠는 참으로 많다. 이러한 것은 美洲機構(O·A·S)가 취한 措置와 関聯하여 이미 最高의 水準에서 公式的으로 그리고 合法的으로 論証된 바 있다.

앞에 말한 것과는 別途로 그들은 다른 目標地域을 選定하여 왔다. 우

리가 우선 아는 것은 「큐바」가— 結局은 全部 失敗하였지만—「카리브」海諸国이나 中美에서 政権顚覆을 꾀하는 蜂起를 試図하였다는 것이다. 最近 몇 年間 大端히 重大한 말썽이 일어난 其他 共産主義者들의 目標地域을 観察하여 본다면, 여러 証拠로 미루어 보아 「과테말라」가 그 目標였으나 多幸히도 「과테말라」政府는 무너지고 갈았으며 「혼두라스」 政府에도 浸透 하였으나 거기에서도 多幸이 政府는 무너졌으며,「도미니카」共和国 혹은 「에쿠아도르」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게릴라」型 戦法을 썼다. 즉 「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심지어는 「아르헨티나」에서 까지 앞에서 말한 政府顚覆段階에 한발 앞선 前段階로 暴力地下組織을 가지고 있었다. 「브라질」도 그들의 目標였으며 共産主義者들에 의해 掌握되기 直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明確히 알고 있다.

政府를 逐出한 3月31日과 4月1日의 「에피소드」는 救国的인 行動이었다. 왜냐하면 그 事件以後에 入手된 証拠에 나타난 바로는 政府指導者들의 名単이 完成되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共産主義를 浸透시킬 計劃을 가지고 있던 大統領自身의 行政官吏가 直接的으로 聯関되였었다는 事実이다. 「브라질」이 바로 그런 範疇에 属하는 나라이다.

1961年 1月6日 「후르시쵸프」가 그의 演説에서 言明한 西半球에 대한 理念的인 威脅에 対해서 살펴보자. 蘇聯의 指導的인 理論家인 「수슬로프」가 発表한 政策에 관한 声明은 1964年 4月14日 「뉴욕·타임스」에 실려 있는데 이 声明에서 「후르시쵸프」가 말한 政策路線으로 부터 方向을 바군 것이 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이 声明은 「프롤레타리아」独裁나 社会主義가 어떻게 하여 「아프리카」,「아시아」 또는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未開発 地域 또는 소위 "活動戦線" (Active Front)에서 뿌리를 박아 왔는가에 관한 分明한 理念的인 声明인 것이다.

그러한 것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의 코앞에 닥쳐 있으니 美国으로 부터

不過 90 마일 떨어진 곳에 共產主義 心臟部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잘 補給되어 있고 잘 武裝되여 있고, 또 온갖 나쁜 짓을 遂行할 設備를 갖추고 있다. 그들은 이미 엄청난 일을 저질을 準備가 되여 있다. 그런 結果는 西半球에서 일어난 일이며 특히 「큐바」와 아직 關係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理念的 根拠로서의 一面과 그들이 実際로 適用하는 政策으로서의 다른 一面과의 相互関係가 있다. 그리고 비록 中, 蘇間에 分争이 있고 資源面에서도 不足하지만 中共 역시 西半球에서 活動하고 있다. 中共은 「후르시쵸프」와는 意見을 달리 하지만 西半球에서 社会主義를 建設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즉 그들의 目的은 같은 것이다.

〈参　考　文　献〉

1. The New Frontier of War: Political Warfare, Present and Future
William R. Kintner and Joseph Z. Kornfeder. Chicago: Regnery, 1962

2. The War Called Peace: Khrushchev's Communism
Harry and Bonaro Overstreet. New York: Norton, 1961

3. From Lenin to Khrushchev. The History of World Communism
Hugh Seton-Watson. New York: Praeger, 1960

4. World Strength of the Communist Party Organizations
U. 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State, 1963.

5. World Communism. A History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Franz Borkenau.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6. International Communism and World Revolution. History and Methods
Gunther Nollau. New York: Praeger, 1961

7. The Strategy of Deception. A study in world-wide Communist tactics
Jeanne J. Kirkpatrick, ed. New York: Farrar, Straus 1963

8. World Communism. The Disintegration of a Secular Faith
Richard Lowenth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9. The Moulding of Communists: The Training of the Communist Cadre
Frank S. Meyer. New York: Harcourt, Brace, 1961

10. A Communist Party in Action
A. Ross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9.

11. The Invisible Writing: An Autobiography
Arthur Koestler. London, 1954

12. Mao's China: Party Reform Documents
Translated by Boyd Compt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1952.

13. The Communist Persuasion: A Personal Experience of Brainwashing
Eleutherius Winance, O. S. B. New York: Kenedy, 1959

14. The Organizational Weapon: A Study of Bolshevik Strategy and Tactics
Philip Selznick. New York: McGraw-Hill, 1952

15. The Front is Everywhere: Militant Communism in Action
William R. Kintner. Norman, Okl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50

16. The Techniques of Communism
Louis F. Budenz. Chicago: Regnery, 1954.

17. Wordsmanship--Semantics as a Communist Weapon
Stefan T. Possony. U. S. Congress, Senate, 87th Cong., 1st sess., Committee on the Judiciary.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18. Worldwide Communist Propaganda Activities
F. Bowen Evans. New York: Macmillan, 1955.

19. The Communist Mind
Gerhart Niemeyer. Philadelphia: Intercollegiate Society of Individualists, 1963

20. The Captive Mind
Czeslaw Milosz. New York: Knopf, 1953

21. I Believed
Douglas Hyde. New York: G. P. Putnam's Sons, 1950.

22. The Politburo
George K. Schull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1.

23. Communist Movements in Latin America
R. E. Poppino. New York, 1964.

24. International Communism and Latin America: Perspectives and Prospects
Dorothy Dillon. Gainesville, Florida, 1962.

25. Operation America: The Communist Conspiracy in Latin America
Jules Dubois. New York: Walker & Company, 1963

26. Communism in Latin America
Robert J. Alexander.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1957

27. Red Design for the Americas. Guatemalan Prelude
Daniel Jam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28. Cuba, Its People, Its Society, Its Culture
Wyatt MacGaffey and Clifford R. Barnett. New Haven: HRAF Press, 1962.

29. Cuba. The Economic and Social Revolution
Dudley Seers, Andres Bianchi, Richard Jolly, Max Nolff. Durham: North Carolina Press. 1964

30. Castroism: Theory and Practice
Theodore Draper. New York: Praeger, 1965

第五章　共産主義　批判

1. 共産主義와 科学的 方法(프로그람 No. 49)

* 「서　　한」博 士

共産主義의 가장 허황된 主張의 하나는 共産主義 原理가 科学에 基礎를 두고 있다는 主張이다. 그러나 우리는 共産主義 原理가 科学的 調査方法을 利用할 수 있는 범위에 対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共産主義에는 無神論과 唯物論이라는 基本観点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科学的인 問題는 아니다. 이 論争은 神이 存在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神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을 証明하기 위한 努力을 한 일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唯物論의 立場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은 無神論은 매우 害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唯物論的 立場에 도달하게 되는 唯物論的 思考의 基礎이다.

唯物論은 厳格한 観察的 意味에서 하나의 科学이라는 생각에 의하여 唯物論的 立場에 到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唯物論的 立場은 科学的 方法에 의하여 証明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神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事実을 科学에 의해서 立証할 수도 없는 것이다. 宗教는 平凡한 観察的 意味에서는 科学의 領域밖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神이 存在하느냐의 여부를 쉽게 거론할 수 없다는 事実을 깨닫게 될 것이다. 神 그 自体가 科学的 方法에 의하여 確証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神의 存在를 立証할 수도 反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観点에서 볼때 共産主義는 科学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 神의 存在를 科学的 方法에 依하여 立証할 수 없다면 神의 存在가 科学的으로 不当한 것이라고 証明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点이 共産主義를 攻撃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

* Ewing p. Shahan : 「베더빌트」大学 経済学教授
「콜럼비아」大学 Ph. D.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 研究所」所長

자기들의 理論이 科学的인 것이라고 主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人間의 本性과 欲望에 対한 「마르크스」의 分析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事実을 발견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人間은 労動者이고, 그의 欲望은 労動者로서의 자신과 本質로 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中止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立場은 緻密한 科学的 方法에 의해서 影響을 받을 수 있는 立場인 것이다.

「마르크스」主義는 無神論이나 唯物論과는 다른 것으로서 「마르크스」는 유럽의 伝統으로 부터 떨어져 나와 이와같은 人間의 分析위에서 19世紀의 環境으로 부터 「마르크스」主義를 抽出해 냈던 것이다.

全体 西欧 思想史를 通해 「마르크스」와 같이 人間을 分析한 다른 重要한 思想家는 거의 発見할 수 없다. 「마르크스」의 発見은 「마르크스」이래 発展하여 온 心理学과 같은 科学에 依해서 確証을 받지 못하여 왔다. 「마르크스」의 理論은 지나치게 피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理論的으로 疑問点이 있는 너무 莫然하고 거리가 먼 피상적인 思考에 지나지 않는다. 이 思想은 科学的 方法에 依한 継続的인 観察이나 経験에 依한 検出이 아닌 경솔한 思想일 뿐이다. 勿論 그것도 몇가지 基礎는 갖고 있다 그것은 그후의 思想家를 자극시킨 興味로운 理論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抽象的이고 人間에 関한 部分이 그의 論題의 거의 大部分을 차지하여 그 나머지 部分을 無視하고 있다.

歴史의 法則에 関해서 살펴본다면 「마르크스」는 歴史的인 面에 대한 適切한 調査를 한 적이 없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調査한 内容은 그 方法論이 科学的이지 못하다. 단지 그는 歴史를 슬적 훑어 보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抽象的이었다. 그는 歴史에서 一連의 그럴듯한 어떤 생각을 끄집어 내어서 이것을 歴史의 全体로 보고 그 나머지 일체를 無視해 버렸던 것이다. 이 분야에서도 그는 研究方法에 있어서 徹頭徹尾하고 科学的이지 못했다는 評을 短的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事実 歴史란 捕捉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事実을

알아야 하며 歷史는 거슬러 올라 갈수록 더욱 捕捉하기 어려운 것이다.

科学的인 方法으로 어떠한 歷史의 法則을 세운다는 것은 아마 不可能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両者 択一의 方法을 証明함으로써 「마르크스」를 꺾을 수 있다. 歷史에 전혀 法則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歷史의 両面中 「마르크스」의 생각과 다른 部分이 훨씬 더 比重이 크며 그가 使用한 科学的인 方法論이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틀렸다고 証明할 수는 없다.

資本主義 分析問題를 살펴보면 「마르크스」理論은 科学的으로 立証할 수 없는 많은 部分을 内包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역시 이점에서도 科学은 探求方法에 있어서의 가장 適切한 方法인 것이다. 우리는 歷史의 애매한 必然性을 말함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存在하는 어떤 問題, 즉 우리가 詳細히 検証할 수 있는 어떤 問題에 対해서 말할려고 한다. 첫째로 科学은 成功的으로 予言할 수 있다는 事実에서 妥当性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科学의 正確性에 対한 実験이라고 主張하기도 한다. 「마르크스」의 予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失敗했다. 이러한 事実은 그의 社会分析이 科学的이 아님을 明確히 지적해 주고 있다.

두번째로 「마르크스」의 基礎的 経済問題는 어느 것도 科学的이 아님이 最近에 検証되었다. 만약 西欧 経済学者들이 科学的이거나 科学的이기 위하여 努力했다는 事実을 認定한다면, 노동가치설이 交換価値理論을 説明하는데에는 不適当하며, 剰余価値理論은 無意味한 公理일 뿐인 것이다. 앞의 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資本論>은 그의 分析이 非科学的 이었다는 事実을 証明함에 있어서 必須不可決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共産主義 宣言中 그들이 가장 強調하였으나 가장 믿지 못할 部分은 「마르크스」教理中 <資本論>이라는 事実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予言된 革命에 関한 限 「마르크스」가 생각한 바와 같은 그

러한 「프롤레타리아」 階級은 形成되지 않았고 社会에 두개의 階級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떠한 産業「프롤레타리아」 階級도 「마르크스」타입의 革命을 시도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資本論>은 科学的인 調査의 標準을 세울 수가 없다. 그것은 몹시 感情的인 冊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搾取가 部分的으로 나마 옳은 일이라는 信念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의 理論이 옳든 그르든 間에 搾取란 事実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마르크스」理念에 対한 宣伝의 効果的인 部分이다.

窮極的으로 「마르크스」의 思想에 依한다면 未来는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이 問題에 있어서 우리는 科学의 領域을 떠나게 된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未来는 共産主義者들이 西欧思想의 普遍的 분위기에서 導出한 規範의 集積에 不過하다. 만약 우리가 이를 率直히 받아 들인다면, 우리는 그들이 西欧思想들 가운데 倫理的인 面에서의 特殊하고 좋은 点들의 상당한 分量을 集大成했다는 点을 認定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自体調査가 이 問題에 対해서 어떠한 강도를 보래지는 않았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未来에 있어서의 크나큰 决点은 極度의 人本主義이다. 그러므로 方法論的으로 말해서 이들 세련되지 못한 思想은 科学的인 것은 아니지만 相当한 根拠를 갖고 있으므로 知性的인 面에서의 攻擊은 쉬 받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 있다.

科学的인 理論面에서의 攻擊은 거의 받지 않으리라는 것이 밝혀진 그들의 教義를 다시 要約해 본다면, 그것은 唯物論的 無神論, 未来에 対한 理念, 그리고 党과 그 戦略에 対한 理論등임이 明白하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教義가 強烈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 基盤인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 事実들을 主張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觀察의 方法을 通한 科学으로써 그것의 非科学性을 証明할 수는 없으니 그 세가지 事実이란 첫째 唯物論的 無神論만이 가장 옳은 立場이며, 둘째 唯物論的이고 人本主義的인 基盤위에서만 人間은 栄光되고 매력있는 未来를 構想할 수 있으며, 셋째 그들의 理想이라는 이름밑에서의 党을 通한 權力

의 掌握과 調節이라는 세가지인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部門이 共産主義가 갖는 매력의 確固한 基盤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知的인 面에서 그러한 매력을 反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共産主義의 매력에 反対하는 行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매력은 共産主義者들은 方法論的으로 弱하다는 2가지의 不可避한 연계를 갖고 있다 共産主義者는 恒時 社会改革을 目標로 한다. 그러므로 世界的인 매력을 維持하기 위하여 共産主義는 現社会에 対한 批判을 持続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分析이 옳다면 共産主義는 가장 弱点이 많고 知的인 攻駁을 받기 쉬운 것이다. 둘째로 몇가지 点에서 無産階級의 独裁는 共産主義가 主張하는 바와 같이 빛나는 未来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共産党은 보여야만 된다. 現在까지는 이것이 바로 그런 境遇라고 할 수 있는 端緒는 없고, 이것이 그 境遇라는 것을 보여줄 理論을 가진 者는 없다. 共産主義 制度는 그들이 말하는 窮極的 理念을 実現할 展望이 있다는 観察上의 証拠는 하나도 없으며 당분간 그런 理念의 実現은 不可能할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理念은 共産国家보다 資本主義国家에서 더 広範囲하게 実現될 수 있다는 充分한 証拠는 있다. 또한 우리들은 恒時 그에 関한 継続的인 努力을 하고 있고 또 共産主義者들이 그것들을 実現하려고 努力하는것 보다는 資本主義国家에 더 좋은 機会가 주어져 있다. 例컨대 窮極的인 共産主義의 理念은 個別的인 自己決定이다. 만약 美国市民이 이 理念을 実現한 程度와 蘇聯에서 実現된 程度를 比較한다면, 즉 지난 50年 동안 美国市民이 이 理念을 成就해온 発展과 蘇聯에서 共産党이 執権하는 동안 이룩한 発展을 比較한다면 우리는 同一한 結果를 얻을 수 있다. 結局 共産主義者는 이들 두가지 点을 明確히 할 必要가 있다. 만약 우리들의 分析이 正確하다면 그들은 어떤 実践 可能한 調査方法에 依하여 確証될 수도 없으며 또 事実上 科学的 方法에 의하여서는 非難이 可能할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最大限의 機会가 주어진 領域이며 또한 共産主義에 対하여 가장 強力한 知的 攻撃을 할 수 있는 分野이기도 하다.

共産主義 教義의 不正確性에 関한 다른 두가지 例를 들어 보면, 두개의 共産主義 経済概念 즉 「労動価値説」과 「剰余価値説」을 더 詳細히 科学的으로 考察할 때 나타난다. 이 두가지 問題에 関하여 共産主義 教義는 科学的일 수 없다. 먼저 共産主義 教義는 反復的인 使用과 観察에 依한 分析道具의 概念을 明確히 밝히지 못한다. 다음으로 量的問題에 있어서 이 概念의 使用結果를 試験해 보려하지 않는다. 科学的으로 「労動価値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먼저 "労動"이란 말을 定義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定義된 労動이 実際로 価値를 説明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하여 그 価格이 어느 程度인가 調査해 볼 必要가 있다. 말하자면 労動이란 무엇인가에 関한 「마르크스」主義者의 理解는 不正確하다. 「마르크스」는 労動이란 生産에 기여하는 肉体的 精神的인 모든 人間의 努力이라는 말로부터 出発하고 있다. 이러한 出発은 좋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마르크스」主義에 貢献하지 못한다. 왜냐면 그것은 革命的인 힘이 없는 無政府状態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労動을 産業労動力, 즉 「프롤레타리아」로 結論지었다는 事実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은 潜在的으로는 労動에 対한 革命的 定義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労動에 対한 階級概念을 取한다면, 그리고 社会에 適用해 본다면 우리는 交換価値를 説明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마르크스」가 하지 않던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이 適用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社会에는 労動의 定義를 考慮치 않는 要素가 많고, 分明히 価格을 決定하는데 도움이 되고 労動価値説에 対한 革命勢力을 調節하는 要素들이 많이 있다. 「마르크스」가 認定치 않는 資本主義者들의 労動이란 어떤 것인가? 価値의 根原에 関한 「마르크스」主義者의 理解方法에 依하면 監督集団이나 管理集団은 어떻게 取及할 것인가?

専門家들 즉 医師, 弁護士, 教師, 牧師, 技師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労動者인가, 아닌가?

「마르크스」主義 革命理論에서 그들은 搾取階級이다.

農夫는 어떠한가? 農夫는 共産主義者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分析範疇에서는 農夫를 労動者로 分類하는 것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農夫는 労動者임에 틀림없다. 農夫들을 共産主義者들이 의미하는 労動者의 範疇에 넣기 위해서는 그들은 産業労動力의 一部分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勿論 이것이 共産主義者들이 追求하는 遼遠한 計劃이다.

事実上 共産主義者들은 労動이 모든 交換価値를 나타낸다는 点을 説明할 수 있도록 労動의 概念을 科学的으로 規定하지 못했다. 만약 그들이 그런 概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社会를 그들이 말하는 바 두개의 階級으로 区分하려는 시도를 抛棄해야할 것이다. 여기서의 失敗란 社会를 調査하기 위하여 使用될 수 있는 価格分析道具로서의 基本概念을 発展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觀察上의 그리고 科学的인 失敗이다. 만약 共産主義者들이 労動者만이 価値를 創造함으로 그들만이 보답을 받을 資格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科学的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労動者와 非労動者를 区別해야 하며 生産에 貢献하지 않는 非労動者란 어떤 것이며 또 그들은 財産을 몰수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明白히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革命的인 힘을 잃을 것이다. 「剰余価値説」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者의 資本主義에 対한 非難은 資本主義社会는 資本家에게 생기는 剰余価値를 높이려는 생각에 基礎하고 있다는 点이다. 「마르크스」가 主張한 剰余価値에 対한 基礎的인 根拠는 労動者가 毎日 받는 賃金보다 더 많은 価値를 生産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社会構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여분의 利益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事実에 同意한다. 그것을 다른 方法 即 科学的인 見地에서 説明하면 剰余価値説이 主張하는 바는 資本主義 社会의 大衆은 産業労動力이 아니면서 補償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産業労動力에 関한 定義에서 나오는 単純한 真理이다. 共産主義者들은 말하기를

非労動者階級 特히 資本家가 받는 이 補償은 徹底한 搾取의 結果이며 搾取의 程度는 剰余価値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剰余価値의 크기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 그것을 알때에만 우리는 共産主義者들이 바라는 革命의 不可避性을 測定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모델」에 있어서 剰余価値는 50 퍼센트 程度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모든 搾取에서 真実이라면 우리는 社会를 徹底히 修理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模型은 統計的 調査에 基礎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統計上 剰余価値의 一般的 크기를 알아 보자. 過去 約 10年間 美国에 있어서 雇傭主는 国民所得의 30 퍼센트를 받는다. 즉 経営者 11%, 資本家 19%이다. 이 事実은 剰余価値가 30%라는 것을 意味하는가? 「마르크스」主義者는 肯定的으로 対答할 것이다.

剰余価値는 資本家나 雇傭主에게 賃金으로서 支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実際로 社会를 観察할 때 11%가 経営者에게 가는데 여기에는 農夫, 医師, 弁護士, 小企業主 등이 包含된다.

우리 모두는 이 많은 分量이 労動力에 対한 보답이며 搾取의 結果가 아니라는 事実에 同意하게 될 것이다. 資本家에게 가는 나머지 19%는 어떠한가? 대충 말해서 여기에는 利子와 地代의 $\frac{1}{3}$이 包含되어 있다.

利子는 地代보다 더욱 重要하다. 나머지 $\frac{2}{3}$는 企業利益이다 이것은 「마르크스」主義的 意味에서는 分明히 「剰余価値」이다. 우리는 그것을 ($\frac{2}{3}$의 企業利潤) 除去하기를 願하는지 아닌지를 묻기 前에 그것이 어떤 性質의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除去할때 우리는 革命的 攻撃의 目標를 相当히 저하시킬 것이다. 例컨대 企業利潤은 조그마한 会社의 所有主에 依하여 運営된 配当金을 包含한다. 이것은 主로 그들의 努力에 対한 報答이다. 이런 計算에서 볼때 그의 労動이나 雇傭主의 労動에 対한 報答이 된다는 意味에서 地代는 순수한 地代는 아니다.

利子는 政府가 個人에 支給하는 利子를 包含한다. 約 半의 企業利潤은

税金으로 政府에 들어가며 나머지의 約 $\frac{1}{3}$은 投資로서 留保된다.

「마르크스」主義者는 모든 이런 것을 「剩余価值」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實際로 무엇을 意味하는가? 모든 社会에서 国民들은 반드시 投資해야 하고 税金을 支払해야 한다. 대충 말해서 순수한 財産所有에 対한 代価로 個人에게 支払되는 것은 国民所得의 10% 크기와 비슷하다.

이 10%중 어느程度 까지가 불로소득인 것일까? 이중 大部分은 投資로 돌아가는 利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株主에게 줄 会社 支払金을 그들의 돈에 対한 報酬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搾取의 問題가 아니며 「剩余価值」의 問題도 아니다. 「마르크스」主義者는 말하기를 利子収入은 正当化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見解의 正当性에 対하여 <資本論>에서는 하등의 論争도 없었다. 돈은 희귀하고 有用하다. 돈을 빌리므로서 돈을 벌 수 있다. 빌려줄 돈을 貯蓄하기 위하여서는 약간의 努力이 必要하다. 그러므로 빌린 돈에 対한 利子支払은 正当化된다. 더욱이 利子란 事実上 資本의 費用이며 資本은 희소하고 그래서 価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方法으로 結論을 내릴 수 있다. 이런 提案은 「러시아」 中国.「쿠바」의 경우에는 아주 우습게 들릴것이다.

共産党이 社会를 支配한지 얼마나 되었는가? 그리고 그 権力掌握의 衝撃에서 回復되기에는 얼마나한 時日이 걸렸는가 생각해 보자. 蘇聯서 共産党이 権力을 잡은 後, 40年이 지나고서야 蘇聯国民은 共産党 執権前의 生活水準을 回復할 수 있었다. 그러나 美国에서 生産의 自然増加를 継続하므로써 現経済体制를 지속한다면 国民所得을 10% 올리는데 5年이 걸릴 것이다 5年을 기다림으로서 収入의 面에서 利益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앞서 말한 그런 理由때문에 社会를 破壊해야 하겠는가?

共産主義는 참으로 非科学的이다.

共産主義란 追従者가 単独的으로 執着하고 있는 教理에 不過하다.

2. 経済秩序(프로그람 No. 50)

＊「서　　한」博　士

本章에서는 共産主義의 経済秩序와 우리의 그것과의 差異点과 이러한 基本的인 差異点에 対한 分析을 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本章을 세部分으로 나누어 考察해 보기로 한다. 즉 첫째, 우리가 보아온 共産主義 経済法則에 対한 再検討와 둘째 우리 自身의 経済観에 関한 反対討論 및 세째 이 両者에 対한 検討 등이다. 그럼 첫째로 共産主義 経済秩序의 原理와 特性을 간단히 要約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共産主義 経済法則의 힘의 根原은 経済的인 것보다 政治的인 思想에 그 根原을 두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経済理論의 大宗과 여러 共産主義 書籍들, 特히 「마르크스」의 〈資本論〉같은 그들의 経済関係 書籍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들은 資本主義를 分析하는데만 主力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의 〈資本論〉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마르크스」가 生覚하고 있었던 것 즉, 資本主義는 그 滅亡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観点에서의 諸般 法則들만을 列挙하고 있다. 共産主義 社会의 経済様相들은 経済社会에 対한 青写真 같은 것은 전혀 包含하고 있지 않은 「마르크스」의 〈資本論〉에 그 根原을 두고 있다. 오히려 共産主義의 経済的인 諸般 制度란 것은 経済部門까지를 包含한 모든 社会部門에 関한 그들의 미리 確定된 目標를 向해서 社会를 새로이 組織化하고 또한 그들의 統制力을 拡大하고 調節하기 위해서 그들이 当面해 왔던 여러 特定問題들을 解決해 나가는 과정에서 歳月을 通하여 発展 樹立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共産主義는

＊ Ewing P·Shahan ：「벤더빌트」大学 経済学教授
「콜럼비아」大学 Ph·D.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研究所」所長

그들의 理論을 갖고 있다. 허나 그것은 멀고 먼 未来에 대한 어떤 輪郭에 不過하며 이는 그후에 共産主義 思想家들에 의해서 脚色되고 推仰되어 人類의 빛나는 理想이라고 指摘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提案된 것이었으나, 그들은 다만 輪郭만을 이야기했을 뿐 細部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하지 못했었다. 그러면 이러한 아득한 未来의 経済体制의 特徵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生産의 問題가 完全히 解決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풍요하게 될 것이며

둘째로 모든 사람은 完全한 経済的 自由를 누릴 것이다. 萬事가 모두 豊富한 때문에 労動의 專門的 分業의 必要마저도 없을 것이다.

세째로 各者의 能力과 必要에 따르는 共産主義式의 分配方式이 施行될 것이다.

네째로 이 社会에는 새로운 倫理観을 가진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모두 자기가 願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갖게될 것이므로 生産問題는 별로 重要하지 않게 될 것이며 自己의 이웃과 다른 사람의 経済的 欲求를 위한다는 面에서 각자가 自発的으로 適応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社会哲学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곳엔 政府가 存在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見解에 依하면 政府란 階級의 하나의 道具에 不過하므로 더이상 必要가 없으며 따라서 저절로 시들어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모든 人民은 増産을 위한 労力을 遂行하기 위해서 自発的으로 어떠한 組合에 所属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共産主義者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위하여 奮闘하고 있는 所謂 理想社会라는 것이다. 萬若 우리가 어떻게 그 社会가 実現되리라는 것을 아느냐는 質問을 한다면 歴史의 継続的인 進行運動에 의하여 必然的으로 그러한 社会가 到来하게 된다고 그들은 対答할 것이다. 이러한 観点에서 그들이 指摘하고 있는 未来와 単純히 그 未来를 위하여 努力하는 것만

으로서가 아니라 現在를 破壞시켜 버림으로써 말하자면 그들의 未来란 現在의 屍灰위에 到来하리라는 것이다.

더구나 共産主義者들의 見解로는 党만이 이 모든 일을 理解할 수 있는 그리고 人民들이 争取하려고 하는 未来의 到来過程을 統轄할 수 있는 唯一한 組織인 것이다. 広義的으로 말한다면 共産主義 経済政策의 가장 一般的인 特性은 다음 세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로, 現在 既存의 것은 모조리 破壞해 버리는데 目標를 둔다. 勿論 世界의 모든 国家를 党의 統制下에 두게 함으로써 党이 権力을 掌握한 모든 곳에서는 「부르조아」나 反動的인 人民의 態度나 傾向에 대해서는 烙印을 찍어버리는 統轄権을 갖는다. 그래야만 그들의 찬란한 未来가 到来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絶対権力과 経済的인 基盤을 確保함으로서 社会의 全般을 그들 体制의 支配下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로, 그들이 말하는 未来에 일어날 特性을 漸次的으로 創造해 나가는 것, 즉 蘇聯의 生産高를 높이는 것으로서 그중에서도 特히 国際的 勢力関係에 対한 党의 分析에 基因하여 重工業과 機械工業에 力点을 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蘇聯의 経済는 그 経済的 目標가 弁証法과 歴史의 唯物論的 解釈과 結付된 党의 強力한 統制力에 의하여 決定되는 全体主義的인 性格을 띠고 있으며 모든 社会가 이러한 中央으로부터의 指令에 의한 그들의 窮極目標 達成이라는 目的下에 徹底히 組織化 되어 있다.

다음으로 우리 自由世界의 経済目標와 이의 実現을 위한 具体的인 方法을 比較 考察해 보기로 하자. 우리의 経済哲学은 거의 二百年 동안이나 存属하여 왔으며 이 期間동안에 公共政策의 面에 있어서는 서서히 主導権을 掌握하였으며 継続的으로 再評価되어 오기는 했으나 그 反面 매우 다듬어지고 닦여졌다. 1776年에 나온 現代 科学에 基礎를 둔 偉大한 著書인 「아담·스미스」의 <国富論>에서 처음으로 円熟한 形態로 우리의 経済哲学이 表現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에 대한 苗写나 精神에 대한 説

明은 그만두기로 한다. 이를 가장 重要한 두가지의 価値判断과 이러한 두개의 価値判断과 聯関된 経済分析 体制의 세 部分으로 나누어 보겠다.

첫째번 価値判断은 <国富論>에서 引用한 다음과 같은 말에 의하여 明瞭하게 提示되고 있다. "消費가 唯一한 目的이며 또한 모든 生産의 目的이다. 生産者의 利益은 消費者의 利益을 增進시키는데 必要한 範囲안에서만 追求되어야 한다" 이 名言은 너무나 完璧하게 自明한 것이므로 이것을 証明하려는 것은 우스운 일 일것이다. 그러나 市場組織에서는 消費者의 利益은 生産者의 利益에 의하여 恒常 犧牲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모든 産業이나 商業의 窮極의 目的이 生産만을 考慮하며, 消費는 전혀 考慮치 않고 있는것 같이 보이고 있다.

두번째 価値判断은 「아담・스미스」가 18世紀의 天賦의 自由権에 関해서 断言한 것으로 이것은 人間이란 마땅히 自己 스스로가 모든 것을 決定해야 한다는 思想으로서 이러한 状態가 가장 自然의 摂理에 맞고 正当한 것이며, 그 어떤 権力도 이것을 組織化 시키거나 人間을 監督하거나 自己의 目的 達成을 위한 手段으로서 人間을 利用할 権利가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것은 「아담・스미스」가 経済分析을 通해서 두번째의 原則이 適用된다면 첫번째 原則은 곧 最高度로 実現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즉 人間이 経済的 自由를 付与받는다면 消費者의 目的은 最大限度로 成取되리라는 것이다. 「아담・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合理性을 가진 論争으로 이것을 正当化시켰다. 우선 各者가 自己自身의 福利를 最大限度로 增進시키는 것이 各個人의 利益이 된다는 것이다. 国家의 富라는 것은 各個人의 富의 축적에 不過함으로 따라서 国民들을 하는대로 내버려두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利益을 推求하도록 한다면 国家의 富도 自然히 最大限度로 伸長될 것이라는 것이다. 「아담・스미스」는 또한 "모든 生産者는 각 地域的인 状況속에서 存在하고 있으며 成功 역시 이런 状況에 어떻게 맞추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고 主張했다. 「아담・스

미스」는 또한 生產者는 누구보다도 消費者의 要求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生產者는 天賦의 自由權이 保障되는 社会体制内에서는 특히 오늘날과 같은 複合的인 経済体制下에서는 꼭 必要한 代理나 補助의 役割을 해 줄 組織体로서 市場経済体制를 갖게된다는 점을 指摘하였다. 이러한 市場経済体制에 의하여 사람들은 規制를 받게되고 相互 調整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아담·스미스」의 見解에 대해서는 많은 論難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의 学説은 하나의 根本的인 経済哲学으로서 継続存続해 나갈 것이다. 西洋의 経済学者들은 「아담·스미스」의 두개의 理想을 同時에 実現시킬 수 있는 経済体制는 어떠한 特性을 갖고 있는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 많은 関心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経済体制가 存続하는 限, 이것에 対한 論争도 継続될 것이다. 아마도 다음에 말하는 것들은 広範하고도 希望的인 또 論難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理想的인 経済組織에 関한 原則을 提示해 줄 것이다.

첫째 生產은 小規模의 自律的인 経済単位에 의해서 遂行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한 小規模란 市場을 独占하고 쥐고 흔들만큼 巨大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自律的이란 各自의 目的에 따라 中央의 指示로부터 独立함을 意味한다.

둘째로, 이들 自律的 単位들은 経済活動을 主導的으로 遂行할 責任을 賦与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相互間 서로 競争해야 하며 成功的인 経済活動에 対해서는 自動的으로 報償받게 될 것이다. 셋째, 그들의 必須課題는 生產 遂行을 위하여 知能的이고도 効果的으로 資本市場을 規制하고 또한 成功的으로 商品市場에다 팔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市場経済가 그들의 活動을 規制하고 経済를 組織化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消費者는 資本市場과 商品市場에 同時에 参与함으로서 終局에는 消費者가 어떠한 것이 確固한 政策이 되어야 하는가. 特히 무엇을 生產해야 하며 그것은 어떤 方式으로 生產되어야 하는가 등을 決定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부터 伝受해 왔으며, 歳月이 감에 따라

그 発展이 明白해진 이러한 우리의 理想的인 理念들이 오랜 歳月동안 内包하고 있는 問題点은 무엇인가?

먼저, 앞서 말한 첫번째와 두번째 原則사이에는 一種의 緊張状態나 葛藤関係가 存在하고 있다는 点을 指摘할 수 있다. 消費者에게 最大의 利益을 保障해 주는 것은 生産者의 自律性과 自決権과는 반드시 一致하지는 않는다. 「아담·스미스」도 이것을 깨달았으며 이러한 潜在的 葛藤을 解消하는 方法으로서 競争의 重要性을 指摘한바 있다. 예를 들어서 専売制度를 確立하면 生産者에게는 利益이 될 것이다. 그의 生産高를 統制할 수 있고 좀더 높은 価格을 매길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明確하게 이것은 消費者의 利益을 위한 것은 되지 못한다. 「아담·스미스」는 専売制度란 事業家와 政府間의 同盟의 結果이며 本質的으로는 政府에 의해서 創設된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러므로 萬若에 政府가 이러한 種類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自然히 競争이 支配하게 될 것이고 아무런 問題될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生覚했다. 우리는 오늘날 独占을 規制하는 法律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分明히 生産者의 自決権을 妨害하는 것이며 또한 政府로부터의 法에 의한 継続的인 威脅에 対한 生産者들의 抵抗도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하게 適用만 된다면 이것 역시 消費者의 利益이 되는 것은 分明하다. 그동안 우리 経済体制의 많은 変遷이나 우리들의 経済体制에 対한 많은 論争들은 이러한 두가지의 原則사이에 存在하고 있는 緊張状態에서 縁由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緊張状態에 対해서 憂慮할 必要는 없다. 이런 긴장상태란 모든 社会哲学에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에도 基督教 精神에도 그리고 基督教 思想의 社会的 適用面에도 모두 이러한 緊張状態는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두번째로 우리들의 経済的 自由라는 目標에 있어서는 어느측의 自由가 더욱 強調되고 中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問題를 解決해야 할 必要가 있다. 그동안의 論争의 結果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企業과 그

經営者의 自由와 消費者인 市民의 自由中 어느 것을 選択해야 하는가의 問題이다. 政府 管掌分野를 서서히 拡張해 나갈려는 形態를 取해온 우리 体制에 対해서 어떤 変化를 主張해 온 사람들은 消費者市民들의 真情한 自由가 保障되어 왔지 않았다고 主張하고 있다. 예를들면 教育받지 못한 사람은 真正 自由로운 것이 아니며, 또 그가 만일 貧窮과 不幸속에서 산다면 진정으로 自由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労動者가 雇傭主에 対한 協商의 権利가 없다면 그는 결국 自由로운 사람이 아니다. 또한 不具인 사람은 自由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工場에다 安全装置를 갖추어야 한다. 最近에 와서는 特히 우리 自由企業体制에 存在하는 短期 不安定性과 莫大한 賃金 및 「디프레」로 因한 自由의 制限이 強調되고 있다. 그리고 隠退한 사람도 事実上 그들이 適切한 方途를 가지고 있지 않는한 진정 自由스럽지 못하다. 그동안 오랜 歳月을 通해서 우리는 生産者의 自由를 強調하는 立場에서 消費者의 自由를 強調하는 立場으로, 그리고 生産者의 利益에서 消費者의 利益을 重視하는 立場으로 変遷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生産者의 自律性에 対한 지나친 干涉은 生産自体의 低下를 招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事実때문에 恒常 주춤하여 왔었다. 이것에 関한 많은 論議가 있었지만 역시 以上의 것이 우리의 基本的인 理想이며 또한 近年의 経済政策에서 꾸준히 増加해온 가장 本質的이고도 中心的인 哲学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消費者가 経済行為의 目的이며 生産者의 自律性은 価格統制体制下에 두어야 한다는 生覚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生覚할 수 있는 理由를 들어보기로 하자.

聯邦政府나 州政府, 그리고 市政府등에 있어서 莫大한 資金이 주로 四個分野 즉 国防, 教育, 道路建設 및 地方事業에 投入되고 있다. 「스미스」自身도 이 네 範疇는 政府経費의 合法的인 것으로 인식했다. 비록 政府와는 関聯이 없는 方法도 模索했지만 勿論 이런 事業에 必要한 것도 그 時代에 있어서 보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状態보다는 훨씬 덜 緊急했

던 것도 事実이다. 오늘날의 政府는 大端한 統制的 活動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統制活動은 市場経済의 最善策이며 또한 理論上으로는 統制의 作用에 依하여 決定된 有益한 市場経済는 市場調節의 経済活動 強化를 위해서 決定을 내리게 한다. 이런 統制行為에 関하여 政府는 機先을 制禦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再検討하고 다른 経済活動에 対한 認可를 해주거나 抑制를 한다. 現代労動 運動까지도 市場経済의 両面의 勢力을 均等하게 하기 위한 法律의 規制를 받고 있다. 萬若 우리가 좀 더 넓은 領域에서 財政上의 調節과 이 分野에서 우리 聯邦政府가 가지는 모든 能力에 関해서 生覚해 본다면 우리는 間接的 努力에 있어서의 굉장한 難関에 逢着 할 것이다. 現在 우리는 市場経済의 伝統的 構造를 除外하고서도 많은 慣例와 手腕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는 T·V·A(「테네시」江 流域開発 協会), 農産物 価格維持案, 原子力 分野 聯邦政府에 의한 「미사일」 分野, 政府가 唯一한 顧客인 航空宇宙産業과 같은 伸長하는 工業 등이 包含될 것이다. 우리의 経済的 観点에 対해서 論難할 것이 많은 것도 否因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누구나 首肯할 만한 仔細한 要旨를 論한다는 것도 畢竟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理解만 한다면 共産主義에 対抗하여 우리 経済観念을 確固히 하고 우리가 그 立場을 擁護하는 바를 世上에 公布하도록 하는 것이 必須的이다. 좀 더 巨視的인 眼目으로 본다면 近二百年間 우리는 우리의 一般的인 観念을 実際的으로 다들 갖고 있었다. 그 期間을 通하여 우리의 体制를 特徵 지어온 人道主義에 対해서는 自負를 금치 못하겠다. 그 人道主義는 人類史上 아주 훌륭한 것이다. 그것을 움직이는 가장 効果的 方法이 우리의 目標로서 個個人의 価値있는 福祉라는 急先務를 아주 効果的으로 解決한다. 大部分 이런일은 聯邦政府에 의해서 된 것보다 個人機関에 依해서 이룩됐다. 이 経済体制의 이런 人道主義的인 性格을 바로 「마르크스」가 모두 欠如한 것으로서 그의 豫言을 한낱 아득한 白日夢으로 만든 것이다. 分明히 우리는 우리의 経済哲学과 目標를 더 좋아한다. 우리가 唱導하는 二元的 原則은

経済行為는 消費者의 目標에다 強調하고 経済選択의 自由는 正反対로 오늘 우리가 처한바와 같이 共産主義에 対置하고 있음을 強調한다. 우리들의 이런 두가지의 原則은 모두 한 根原에서 派生한 것이다. 즉 個人에 対한 配慮, 共産主義者들이 行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程度의 個人福祉에 対한 配慮를 받고 있는데 대한 防備는 무엇인가? 오랜 歲月 考証에 의한 根本은 역시 人間 그 自体이다. 이것이 人間이 願하는 바요 争取하고 있는 것이다. 経済学的으로 말한다면 安易한 生活이나 相当한 生活水準이란 自己自身의 経済活動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 좀더 添加해서 말할 수 있다면 経済分野에 있어서 人間의 오랜 熱望은 合法的인 것이다. 우리는 小数의 特殊한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지 모르는 判断에 関한 것이나 宗教에 対해서도 解答을 드릴 수 있다.
共産主義에서는 人間이란 現在의 것을 否認하여야 한다는 判断을 하게하는 特殊한 小数의 그룹을 代表한다. 즉 党이 있음이 그 理由이다.
党이 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人間自体를 否定하면서 小数의 精髓「그룹」이 人間이 真正으로 願하는 것을 判断할 権利가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共産主義가 標榜하는 바, 至毒한 合理主義와 人間에게 억지로 賦課시키고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強要시킬때 그 方策은 그것이 合理主義的인 方策일지언정 오래 持続할 수 없다는 歴史的 証言이 있다. 実験期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人間이란 그런 緊迫한 理性的인 計劃에는 뒤어나오기 마련이다. 宗教의 見地에서 본다면 神 自体는 人間에게 強要하지 않는다. 神은 自己를 反対하는 選択의 自由마저도 許容한다. 우리 社会의 主要宗教인 猶太教와 基督教 伝統의 核心도 이 個人 福祉에 対한 熱望이다. 共産主義를 反対하는 우리 態度의 더깊은 根原도 아마 共産主義者 自身들이 그들의 아득한 未来의 一部分을 보임으로써 証拠가 된 것이다. 窮極的으로 그들도 生産者를 위한 自決権을 願하고 消費者의 利益을 認識하기를 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点을 우리의 見地에서 본다면 그들도 무척 人間的이라는 것이다. 어떤 点에서는 그들과의 差異点은 目的에 있

다기 보다 方法에 있다. 다음 두가지에 관해 물어본다면 우선 그들의 方法으로 到達한 共産主義의 分析的 妥当性은 무엇인가? 共産主義者들은 마치 우리가 社会에 対한 그들의 破壊的 分析에 따라서 行動하고 歴史的 法則을 遵守하고 있다고 生覚한다. 그들이 스스로 뽑은 人民을 다스릴 「엘리트」들의 知能的 傲慢때문에 그렇게 行動한다고 生覚한다. 우리의 最終 「프로그램」에서 알았듯이 그들의 妥当性에 対하여 公開的이고도 科学的 分析에 反하여 持続될 思想은 아무것도 없다. 둘째, 共産主義 思想과 우리것과 둘다 共存할 理想을 깨달아 좀 더 큰 機会를 가질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 50年間 「러시아」를 統制하여온 그 期間을 돌아보자. 그간 우리의 生活水準은 굉장히 向上하였으나 「러시아」 人民은 거의 変化가 없었다. 그 사이에 経済自由의 程度도 共産主義 治下에서는 変化가 많지 않았던 反面에 우리 自由陣営에서는 많이 増加하였다. 그들이 共産主義 理想을 向하여 前進한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理想을 向하여 더빨리 움직였다. 共産主義 指導者로부터 共産主義 人民과 「러시아」 人民에게 強制로 賦課시키고 있는 어느 意味에서 生活水準을 大幅 끌어올릴 消費商品의 洪水에 到達할때 가서야 自已犠牲의 빚을 갚는 것이 될까? 그는 過去와 같이 다른 方法으로 紡錘를 돌릴 수는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싸게 生産되는 生産品이라는 멀쩌기 세워논 経済目的에서 消費品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 対答은 否定的인 것이다. 그것은 아주 簡単한 理由에서다. 다른 物品을 生産하기 위해서 세운 工場에서 消費者를 위한 物品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目的때문에 받은 訓練된 労動力도 얻을 수가 없고 全体主義 体制에서 自由따위는 엄두도 못낸다. 豊富한 消費品을 얻는다는 것은 필경 資本의 蓄積이 要請될 것이다. 勢力均衡을 넘어선 犠牲에서 共産主義는 이미 이룩되었다. 萬若 이런 目標가 다 이룩된다면 곧바로 前進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共産主義가 이렇게만 前進한다면 벌써 共産主義가 아닐 것이다. 萬若 共産主義가 그 目標를 向해 곧장 追跡한다면 앞으로 몇年間에 걸쳐 個人의 自決権의 増加, 좀더

높은 生活水準 등은 지금까지 追求해온 狀態보다 더 深刻한 일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도 共産主義者들과 共通的으로 더욱 그 以上을 向한 나은 進步를 해온것으로 生覚된다. 남아있는 좀 特殊한 問題는 社会主義의 有効性이다. 真正한 共産主義의 意図에 対한 評価는 恒常 어렵다. 만약 어떤 意見만을 본다면 社会的으로 組織化된 理想의 産物에다 周囲를 集中시키고 있으며 政府가 体系化시킨 理念이요, 政府가 経済를 管轄하는 理想은 成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過去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理想과 伝統的인 「마르크스」의 未来分析은 共産主義 実験에서 좀더 높은 生活水準에 目標를 세우는 高尙한 社会主義의 出現이 있다든가, 真正한 自決権이 初歩的으로 그들 目標를 向해서 経済를 組織한다든지, 또 그것의 재빠른 実現등이 可能할런지?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祈願한다.

確実히 그렇게 된다면 現在에 처한 성가신 形態의 反共主義에 対한 많은 難点을 해결해 줄 것이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그 共産主義를 우리가 認識해야 한다. 그런 意味에서 共産主義는 결코 社会主義는 아니었다.
앞서 指摘했듯이 社会主義는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와는 아주 形態가 다르며 社会主義는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와 아무 関係도 없다. 第2次的으로 社会主義에서 어떤 価値가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共産主義가 探究한 것보다 더욱 完璧하게 理論的으로 社会主義에 対해서 探究했다. 始初에서부터 社会主義에 우리를 위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共産主義者들 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낫게 成就시키는 方法을 알 것이다.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共産主義와 宗教를 対照해 보기로 한다.

3. 共産主義와 宗教(「프로그람」 No.51)

* 「서　　한」 博　士

먼저 共産主義者들의 態度에 対하여 살펴보자. 共産主義者들의 立場은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唯物論, 人本主義 그리고 無神論으로 規定지을 수 있다. 唯物論의 世界는 最終的으로는 物質以外에 아무 다른 것이 아니며 모든 真理는 物質世界를 감각을 통하여 관찰하므로서 発見할 수 있다는 観点에 根拠를 두고 있다. 이 立場은 事物에는 精神的인 측면이 있다는 전통적인 観念을 否定할 뿐만 아니라 神의 啓示 혹은 神과의 霊的 結合같은 사실이 있음을 否認한다. 唯物論에 있어서 人間은 넓은 物質世界에 있어서 無力하고 불행한 存在에 불과하다는 立場에서 人間에 대하여 否定的 立場을 취하거나, 아니면 人間은 栄光된 未来가 約束된 重要한 피조물이라는 立場을 계속 유지하거나 한다. 後者는 「마르크스」가 취한 共産主義의 立場이다. 人間은 최소한 지상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리고 歴史는 人間의 栄光스러운 장래를 運命지웠다. 人間은 人間이 必要로 하는 것을 스스로 発見해 내었다. 人間이 歴史의 前進過程에 의해서 解放된다면 人間의 運命은 人間 自身의 基準에 의하여 人間 自身의 方法으로서 自己達成된다. 이것이 「마르크스」主義와 共産主義에서 発見된 人本主義이다. 唯物論者와 人本主義者는 両者가 같이 神을 否定하고 無神論者도 물론 神을 否定한다. 둘째로 우리는 共産主義는 無神論의 연장도 아닐 뿐 아니라 無神論이 共産主義의 외곽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라는 点을 想起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闘争的인 無神論이며 아마 共産主義는 歴史가 아는 限 가장 잔인한 種類의 無神論이며, 無神論이 그 信念의 中心部에 位置하고 있는 것이다. 共産主義로 부터 無神論을 除去하면 이

---

* Ewing P. Shahan : 「벤더빌트」大学 経済学教授
「콜롬비아」大学 Ph. D.
「共産主義 및 立憲民主主義研究所」所長

미 共産主義는 存在하지 않는다. 共産主義者는 宗教는 有害하다고 믿고 있으며 人間의 自由를 위해서는 神에 대한 理念을 人間으로 부터 除去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宗教에 대한 共産主義의 立場을 다루는 거대한 課題를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이와같은 관점이 「마르크스」에 의하여 提示되지 않았다는 点을 理解하여야 한다. 이것은 19世紀를 풍미한 支配的인 風潮이며 오늘날 우리들 大部分도 아마 이것을 認定하려고 하는것 보다 部分的으로는 이것을 支持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레닌」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知性的인 風土로 부터 단순히 自己의 見解를 도출함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無神論은 18世紀의 知性的인 분위기로 부터 成長하였다.
아마 最初의 鬪争的이며 널리 影響力을 行使한 無神論者는 「P. H. 디트리히」(P. H. Dietrich)와 「바론·돌박」(Baron d'Holbach)으로서 「돌박」은 無神論의 立場과 結果를 明白히 하였으며 1789年에 死亡하였다.

仏蘭西革命 直前 그의 著書를 통한 「돌박」의 見解와 「마르크스」의 立場은 共通点이 많다. 「돌박」은 人道主義者이며, 無神論者이며, 唯物論者이다. 그는 神의 存在를 否定하려 하지는 않고 無神論에 대한 통상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행복하고 善한 社会가 어떻게 하면 이룩될 수 있는가를 자기는 알고 있다는 立場에서 出発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살고 있던 時期에 그 社会에서의 宗教는 이를 妨害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著書의 主要論旨는 既成宗教에 대한 組織的이고도 強力한 攻撃에 있었다. 그는 制度的으로 体系化된 宗教는 人間으로 부터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除去하며, 人間은 宗教때문에 이것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宗教는 폭력적인 권력에 의하여 人間에게 주어진 不幸을 조용히 감수하는 분위기로 人間을 誘導한다. 그는 宗教와 結合하지 않은 政権은 人間을 公衆道德의 領域으로 誘導하여 人間이 幸福하고 平和롭게 살 수 있는 현명한 세속적인 法律을 創造해 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또 宗教는 모든 잘

못된 態度를 유발한다고 믿었다. 例를 들어서 宗教가 人間으로 하여금 그가 生存하고 있는 세계로 부터 탈퇴하라고 가르칠 때 人間이 어떻게 이 世界를 維持하고 개선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는 말하였다. 宗教가 人間은 전면적으로 부패하였다고 말할 때 人間이 어떻게 좋은 社会를 建設할 수 있겠는가? 宗教가 人間은 神에게 奉仕하고 人間의 慾望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말라고 教育할 때 人間이 어떻게 人間自身의 慾望을 追求할 수 있겠는가? 그는 宗教를 人間으로 부터 除去시킬 때 비로소 人間은 人間自身의 책임을 알고 人間自身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充分한 能力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人間을 絶対視하고, 굴레를 벗어난 人本主義가 「돌박」의 無神論의 主流를 形成하고 있다. 그는 이상과 같은 立場에서 宗教의 고전적인 理論을 하나 하나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 당시 可能했던 모든 지식의 도구를 充分히 利用하고 있다. 그는 또 神의 概念을 도입하지 않고 唯物論으로써 우주에 관해 説明을 기도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그는 다시 그의 풍부한 科学的 資料를 利用하고 있다. 그러나 19世紀에 있어서 이와같은 見解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認定하였다. 「마르크스」가 많은 影響을 받았던 「헤겔」은 고전적인 形態로서의 宗教 概念을 自由 概念에 대한 自身의 理解로 부터 배제하였다. 물론 그의 自由 概念은 仏蘭西革命에서 導入하였던 것이다. 「헤겔」의 見解에 의하면 「旧約聖書」는 너무 前衛主義的이기 때문에 人間은 높은 곳으로 부터 統制를 받으므로써 真実로 自由스럽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또 「新約聖書」는 이 世上과 精神的인 世界間에 相互融和할 수 없는 긴장을 造成하여 宗教를 「生」自体로 부터 分離시켰으며 現地와 灵의 世界를 反目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 「헤겔」은 理性을 宗教의 上位에 놓고 있다. 그는 宗教는 人間이 真理를 追求하기 위한 中間段階라고 생각하며, 哲学 혹은 理性이 최종적이며 보다 높은 次元의 段階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우구스트·꽁트」는 「마르크스」보다 約 1世代 前에 살았던 사람으

로써 그의 当代의 知性的 혼란에 크게 당황하였던 사람이다. 그러한 知性的 혼란은 終局的인 立場에 対한 意見의 不一致와 一般的인 観点에 대한 최종적이며 보편적인 合意点의 결여로 社会의 붕괴 가능성이 存在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問題는 根本的으로 하나로서, 宗教와 科学間의 갈등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提案한 세가지의 可能한 과정은,

첫째로 宗教의 権威를 다시 主張하는 것이며,

둘째는 科学과 宗教와의 融和,

세째는 唯物論과 科学을 結合시켜 세속적이고 궁극적인 立場을 発展시키는 것이다. . 이것은 統合된 社会에서 人間에게 기여하게될 것이다. 그는 세째번 과정이 그 당시에 있어서 유일한 可能性이 있는 것이라고 結論을 내리고, 이를 達成하기 위하여 努力하였다.

「포이에르•바하」는 「마르크스」와 같이 젊은 「헤겔」主義者로서 「마르크스」에 대하여 지대한 影響을 끼쳤다. 「포이에르•바하」는 現在까지 主張된 것 中에서 가장 혁혁한 人本主義的 見解를 피력하였다. 그의 見解에 의하면 人間이 神에 대하여 主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人間 自身의 意識속에서 発見되며 이것이 神이 점유하는 유일한 実体인 것이다. 人間은 神에게로 돌렸던 위대한 理想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理想은 事実上 自己 自身속에서 発見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이것을 想像의 領域으로 돌리기 때문에 人間 自身을 위하여 利用할 可能性을 배제시키고 있다. 人間은 그의 最善의 力量을 想像의 世界이며 存在하지도 않은 神에게 돌리게 때문에 人間 自身을 疎外시키고 있다. 만일 人間이 이 力量을 자기 自身에게로 다시 찾아 온다면 人間은 일종의 完成段階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人間은 이 完成段階를 오직 「神」속에서만 可能하다고 생각하려 하였다.

끝으로 「엥겔스」를 통해서 오늘날의 共産主義에서 発見할 수 있는 一種의 完成된 無神論을 発見할 수 있다. 「엥겔스」는 無神論을 거의 自明한 事実이라고 宣言하였다. 「엥겔스」는 1874年 独逸 労動者에 대하

여 "独逸 社会民主主義 労動者들은 無神論的 立場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순수하게 否定的인 世界는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그들에 관한 限 그것은 믿음이나 神과는 反対가 된다. 그들은 理論을 必要로 하지 않고 다만 実際를 必要로 할 뿐이다. 그들은 神과의 관계를 完全히 청산하였다. 그들은 다만 現実世界만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唯物論者이다." 라고 저술하였다.

그러므로 共産主義者들의 無神論은 実際的 歴史運動의 結合이며 그것은 現在에도 影響力을 強力히 行使하고 있음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無神論은 唯物論의 結果이거나 혹은 人本主義의 結果이며, 이러한 唯物論과 人本主義는 오늘날의 思想과 一般的인 態度에 있어서 強力한 조류를 形成하고 있다. 이 점이 共産主義의 매력의 一部 要因이 되고 있다.

共産主義는 강력한 無神論의 立場을 취하고 있는 한편 그의 同調者에게는 一種의 宗教的인 機能을 수행하고 있음을 認識하여야 한다. 共産主義는 部分的으로 세속적인 宗教라고 説明될 수 있다. 共産党이 그 党員들을 철저히 휘어 잡고 維持해 나가는데 대해서 이를 理解할 수 있는 다른 方法이 없으며, 共産主義者들이 품고 있는 共産主義는 真理이며 人間이 추종하여야만 할 유일합당한 길이라는 信念을 널리 전파하려는 정열과 광신주의에 対해서는 달리 説明할 方法이 없다. 中共에서의 경우와 같이 共産党은 支配権을 確保하고 人民들의 現存行為 態度를 파괴하기 위한 組織的인 시도를 통하여 共産主義者들은 이 파괴된 人間行為에 対処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다른 무엇을 提示하려고 기도하였다. 共産主義者는 歴史的 運命의 法則을 신뢰하고 있다. 이것은 人間社会는 그 結果를 미리 알 수 있는 必然的인 道程을 가지고 있다는 信念인 것이다. 人間의 目的은 이 歴史의 과정을 理解하고 이에 적응하고 奉仕하는 것이며 이 점은 神의 意志에 따르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은 우주의 法則에 순응함을 意味하며 이의 結果는 善과 부합하게 된다. 다음으로 共産主義와 基督教는 다같이 낙원 혹은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 両者의 경우 낙원이 도래하는 시기와 그의 진정한 性格에 대하여서는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최종적인 人類의 解放과 최종적인 結実은 미리 豫定되어 있는 것이며 반드시 成就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人間의 完成은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자기 신뢰와 希望의 궁극적 기반이 되고 있다. 세째로 共産主義와 基督教의 전통은 다같이 人間의 고통에 관한 説明을 하고 있다. 基督教 教理에 있어서 人間은 神의 모양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人間의 고통은 人間自身의 선택에 의하여 神으로 부터 分離됨으로서 유발되었으며 이것이 죄악의 本質이다. 共産主義에 있어서는 人間은 本質的으로 物質世界와 聯関된 労動者인 것이며 人間의 고뇌와 곤란은 人間이 소외되고 착취를 당한다는 사실과 人間自身이 労動의 結実과 그에 対한 統制로부터 소외되므로서 発生한다. 共産主義에 있어서의 이 概念은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의 죄악의 힘과 같은 힘을 갖게 된다. 원칙적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적인 참여를 要求하고 있다. 기독교는 神에의 참여를 그리고 共産主義는 「마르크스」主義, 「레닌」主義 그리고 共産党에의 참여를 要求하고 있다. 両者에 있어서 일상 행동의 基本的 原則은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서 자기 自身을 発見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실한 共産主義者는 성실한 基督教人과 類似하다. 그들은 기본적인 哲学과 観点에 깊이 잠입되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모든 행동을 이 哲学에 基礎하여 行動하고 있다. 다음으로, 共産主義와 基督教는 다같이 그 理論의 基礎가 되고 있는 聖典이나 伝統을 所有하고 있으며 그들은 現世의 어떤 事件에 의하여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根本的인 原則에 根拠하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이를 否認하고 있지만 이것이 共産主義와 基督教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要素인 믿음이라는 단어의 意味의 一部分이다. 共産主義의 基本属性은 物質世界에 対한 마찰로 부터 到来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들의 人類歴史와 그들의 基本属性의 全過程에 관한 관찰은 20세기에 와서 発生한 어떤 事件에 의하여서도 変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이 「마르크스」의 豫言이 실패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共産主義가 存立

할 수 있는 理由中의 하나이다. 우리가 共産主義에 対하여 무엇이라고 評하던간에 共産主義는 종교가 그 신봉자에 대하여 提示하는 것과 類似한 것을 提示하고 있다. 共産主義는 人間의 本然에 대한 궁극적인 分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人間의 本然이란 人間에게 그의 生의 目的에 대한 理解를 하게 하고, 行動의 方向을 提示하여 주는 것이다. 共産主義는 人間의 意志를 人間보다 高次元이라는 原則 앞에 굴복시킨다. 共産主義는 人間의 希望과 期待를 事物의 本質로 몰입시켜서 最後의 勝利가 달성되리라는 確信을 불어넣는다. 共産主義는 宗教의 有力한 代用物로서 作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事実이 共産主義의 主된 勢力의 일부임을 理解하지 못할 境遇 共産主義의 세력을 잘못 判断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한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意味의 宗教는 共産主義者들의 見解와는 가장 날카롭게 完全한 対照를 이루고 있는 領域中의 하나임을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領域에 対하여 共産主義者들은 이것을 最小化하고 극복하려는 努力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와 다른 領域을 検討해 보면 共産主義者들은 한 例로서 戦争을 그들 政策遂行의 수단으로 利用하고 있다. 그러나 共産主義者 自身의 論理에 의하면 共産主義者들은 世界에서 共産主義만이 平和를 사랑하는 勢力이라고 자기 만족을 하고 있다. 共産主義는 잔인한 全体主義이다. 그러나 共産主義는 그들의 辨証法的 과정에서 그들은 民主主義的이라고 主張하고 歴史発展段階의 結果로서 一種의 民主主義를 指向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経済分野에 있어서 民主主義 経済와 共産主義 経済를 比較하여 본다면 우리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経済의 수행에 있어서 약간의 類似性을 発見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참된 차이점인가를 発見해 내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無神論 問題에 관한 限 疑問点이 없다. 共産主義者는 無神論을 우리 両側이 다 같이 理解할 수 있는 分明한 論調로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共産主義者들의 宗教에 대한 적대감은 잠시동안 戦略的인 理由로 위장하는 것을 빼고는 강력하고도 철저하다. 이 領域에서는 神이 存在하는가 存在하지 않

는가 하는 点이 問題를 모호하게 하지 않는다. 確実히 이 問題에 있어서는 共産主義者와 우리와는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基督教的 立場이 옳다는 観点에서 본다면 共産主義者의 立場은 그의 基本原則 自体에 있어서 誤謬를 犯하고 있다. 만일 神이 存在할 경우 共産主義者들의 唯物論, 無神論 기타 一聯의 그들 知識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모든 理念이나 計劃을 뒷받침하고 있는 中心思想 自体도 틀린 것이 되는 것이다. 共産主義者의 計劃은 完全한 存在가 아닌 人類가 만들어 놓은 歴史에 対한 分析에 그 基礎를 두고 있다. 共産主義는 스스로 選択한 「엘리트」즉, 党에 의존하고 있으며 党은 共産主義의 기준과 계산에 의해서 모든 人間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未来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択하여야 하는가를 決定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結論을 모든 人間에게 強要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共産主義는 共産主義 人間自身의 기준에 의하여 모든 人間을 改造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人間은 그를 위하여 運命지워진 未来를 所有하게 되며 이것은 人間으로 하여금 그의 判断과 立場을 最後의 절대적인 것에 맡겨 버리는 結果를 가져온다. 이것은 神만이 유일한 절대적 存在라는 基督教 伝統의 第一原則에 위배된다. 共産主義는 그 基本原則에 있어서 人間과 神과의 最後의 격리를 主張하고 있다. 共産主義는 神을 除去하고 人間을 神의 位置에 올려놓는다. 이것이 民主主義와 共産主義와의 終局的인 問題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基督教 伝統의 立場에서 볼때 共産主義는 罪悪의 基本性格을 잘못 判断하였다. 즉, 共産主義는 罪悪의 원천이 人間의 마음에 있음을 発見하지 못하였다. 反対로 共産主義는 罪悪의 원천을 人間周辺의 환경에서 発見하였던 것이다. 共産主義는 이 点에 関하여 基督教的 伝統에 의존하지 말것을 基本的으로 人間에게 要求한다. 反対로 共産主義는 人間에게 궐기하여 人間을 속박하고 있는 外部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라고 要求하고 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制度에 重大한 결함이 있음을 認定하고 있다. 이것은 部分的으로는 우리의 社会 內部에

存在하는 罪悪의 원인이다. 그러나 基督教는 최종적으로 人間의 마음과 그의 순결을 신뢰하고 있다.

세째로 基督教的 観点에서 볼때 共産主義는 人間의 慾望을 잘못 分析하였다. 分明히 진정한 自我完成에서 平和를 発見한 共産党員은 거의 存在하지 않는다. 共産国家의 人民 中에서 共産主義로 부터 発生된 人間의 完成을 느끼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人間은 神의 영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人間이 神으로부터의 分離를 극복함으로서만 人間의 完成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여하튼 神이 存在하고, 그리고 神이 基督教 伝統에서 이야기해온 그러한 存在라면 人間의 完成을 위한 이 公式은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数世紀의 歴史的 経験은 이를 証明하고 있다. 그리고 宗教는 이를 観察하여 立証하지 않는다면 無意味한 것이다. 数世紀에 걸친 基督教 伝統下의 많은 사람들의 証言에 의하면 참된 結実과 完成은 神의 支配下에서 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証明되고 있다. 支配的인 証拠에 의하면 人間은 疎外를 극복함으로서 解放될 수 있는 労動者가 아닌 것이다. 共産主義는 数世紀 동안에 걸쳐서 形成된 西欧社会의 宗教的, 哲学的, 神学的 伝統을 부정해 왔으나 成功하지 못하였으며 이 西欧的 伝統은 人間의 本性과 人間의 慾望에 대하여 가장 심오한 分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로 基督教 伝統의 観点에서 볼때 共産主義는 그들이 취한 行為 때문에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 비판은 民主主義와 共産主義의 두 理念의 見地에서 다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分明히 共産主義의 행위는 基督教 倫理를 全面的으로 否定하고 있다. 이 問題에 対하여서는 이 以上의 検討가 必要없다. 共産主義者들의 行為에서 宗教的 倫理를 全面的으로 否認함은 共産主義者들의 主要 課題이며, 그들은 이를 무력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는 基督教的 倫理는 無価値한 것이며 共産主義가 人間을 위하여 취하는 행동만이 人間의 장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基督教는 그 理念을 現世에서 実現하려 하고 있

으나 共産主義는 基督教의 理念을 現世에서 파괴하기 위하여 行動하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基督教 伝統은 自己決定이 不可能하고 求心点과 人間의 完成問題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한다. 共産主義는 人間을 재창조하고 이 再創造를 통해서 위에서 말한 것들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人間이 抑圧 속에서 自由를 어떻게 체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정당한 疑問이 제기된다. 그리고 独裁体制의 말발굽 밑에서 人間이 어떻게 共産主義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自意的인 規律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現在의 抑圧状態로 부터 栄光의 未来를 도출해 낼 수 있겠는가? 基督教는 이것이 不可能하다고 対答한다. 이러한 原則들이란 것은 現在에 作用하고 있을 때만이 未来에 実現될 수 있는 것이다. 共産主義者의 行為는 人間의 価値를 実現하려는 基督教의 熱望을 否定하고 있다. 共産主義的 오만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中国 共産主義의 경우에는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만 事態를 評価하려고 하고 자기자신의 命令 以外의 모든 原則을 否認하고 있다.

끝으로 共産主義者의 未来観은 어떤가? 自由陣営의 宗教的인 観点에서 볼때 그것은 真実인가? 머나먼 未来에 共産主義者는 自由로운 人間의 完成을 희구하고 있다. 問題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라는 点이다. 人間이 最終的 目標로서 真実로 所望하는 바가 「마르크스」가 例示한 바와 같이 아침에 음식물을 데우고 오후에 고기를 잡고 저녁 때 소를 몰며 저녁식사 후에 비판하는 것 뿐인가? 이것은 우리의 観点에서 보면 空虚한 自由에 불과하다. 自由는 비록 世俗的인 意味로 理解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그 自体가 目的이 아니고 다만 手段인 것이다. 自由陣営 社会의 基本原則에 의하면 人間은 外部의 強圧으로 부터의 自由라는 그것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人間自身의 目標를 決定하기 위하여 自由롭지 않으면 안된다. 自由에 관한 問題는 그 自由를 가지고 무엇을 할려는가의 問題인 것이다. 우리가 理解하는 바의 自由는 고집스러운 자기 決定權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問題에 관한 宗教的 立場은 人間의 目的은

神의 意志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人間이 自由를 所有하였을때 행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言語上의 가벼운 意味에서의 自由가 아닌 심오한 意味에서의 自由이다. 오늘날 共產党員이 그들 自身의 最終意思에 있어서의 自由를 所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기를 願하고 있지도 않다는 点을 관찰할 때 이것은 興味있는 事実이다. 共產党員의 党의 原則에 봉사하기 위하여 個人의 의지를 희생하는 경우, 이같은 党員의 意思의 大部分에는 共產党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莫大한 權力이 作用하고 있다. 이것은 宗教的 理想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물론 宗教人에 의한 봉사의 原則은 共產党員에 의한 봉사의 原則과는 기본적으로 相異한 것이다. 終局的인 共產主義 理念의 매력은 現在의 共產党員의 行態에 의한 매력이 아니다. 共產主義 理念은 虛空에 떠있는 과자와 같은 것이다. 反面에 宗教의 理念은 確固한 것이며 高度로 갈망되는 것으로서 人間의 本性과 慾望에 대한 具体的이며 現実的인 分析에 基礎를 두고 있다.
우리가 그 열쇠를 갖고 있는 種類의 自由는 中間的인 目標로서, 이것은 만일 우리의 機会를 利用한다면 宗教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自由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가 주장하는 自由는 共產主義가 無神論이기 때문에 宗教的 意味에 있어서의 自由에 比較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이 展望이 없는 自由에 불과하다. 宗教分野에 있어서의 共產主義와 自由陣営의 의 差異点은 대단히 큰 것이며 明白한 것이다.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基本이 確固한 共產主義 批判은 宗教的 觀点으로 부터의 批判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宗教的 側面에는 조금의 短点도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우리의 과제는 조심스러운 立場을 취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宗教上의 단점을 계속 認定하여야 하며 또 이것을 계속 改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共產主義가 数世紀에 걸친 우리의 宗教的 原則을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우리의 宗教的 短点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宗教에 대하여 회의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우리는 共產主義者에게 그들의 행동방식의 誤謬를 지적함에 있어서 자신을 가져야 하는 한편 우리는 이를 위하여 계속 努力하여야 한다.

4. 政治 秩序(프로그람 No. 52)

* 「니 마 이 어」博 士

共産主義 批判에는 많은 方法이 있는데 그 中 한方法은 共産主義의 実際에 対한 批判이다. 이러한 것은 政治 「테러」 낮은 生活 水準, 集団生活, 戦争準備 等과 그리고 共産主義者들과 그들의 本質이나 実際등에 関해서 普通 우리가 볼 수 있는 外部로 나타나는 様相에 対한 批判을 말한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는 이러한 実際가 果然 必要한 것인가? 共産主義者들은 이것을 変更 시킬 수 없는가? 生活 水準을 向上시킬 수 없는가? 「테러」行為를 中止할 수 없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改善할 것인가? 等等의 疑問이 恒常 提起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実際에 対한 批判은 決定的인것은 아니다.

筆者는 恒常 「체스터턴」(G.K Chesterten)教授의 主張을 回想한다. 그는 말하건데 〃萬若 내가 집主人이라 仮定 해 보자, 그리고 내가 집을 貰 놓으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訪問 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그가 틀림없는 사람인가를 알기를 願한다. 그럴때 나는 무어라고 물을 것인가? 내가 그에게 預金 関係에 対해 물을 것인가? 그것은 4時間 内에 引出할 수도 있다. 그에게 그의 職業에 関해서 물을 것인가? 그는 다음 주에 解雇될지도 모른다. 그의 家族에 対해서 물을 것인가? 아마도 그는 家族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에 関해 물을 것인가? 나는 그의 哲学에 対해서 묻겠다. 그것이 바로 그의 人格과 直結된 問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 人間 全体의 한部分인 것이다. 바로 그것이 行為를 支配하며 이에 関해서 나는 確信한다. 그러므로 共産主義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 政治学 教授
独逸胎生, 「마드리드」「프린스톤」「예일」大学教授 歴任

批判은 共産主義의 実際를 批判하는 것보다 共産主義의 理念을 批判하는 것이 제일 決定的인 方法인 것이다. 그러한 方法을 通해서 우리는 共産主義의 全貌를 더욱 잘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먼저 共産党에 対해 論해보자. 党(Party)은 Part라는 単語에서 파생한 単語이다. 即 国民中의 一部를 뜻하며 하나의 政治単位로서 国民들 속에서 全体的으로 하나의 分派役割을 함을 뜻한다. 그렇지만 共産党은 다른 政党이 意味하는 一部分이라는 概念과 区別되는 것이다.

첫째 共産党은 他政党이 가지고 있지않은 未来에 関한 知識이라는 概念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스스로를 전위당이라 부르며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포용할 수 있는 者들만이 享有할 수 있는 未来를 미리 予見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概念은 共産党만이 가지고 있는 真理이며 他政党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自由陣営 国民들과 마찬가지로 現世에 살고 있다고 仮定하고 있기 때문에 現世를 살고 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未来라는 時点에서 現在를 観察하는 척 하며 現世가 그럴듯한 状態에 있다는듯이 看做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現世가 무엇을 志向해야 하고 運命的으로 어디로 갈것인가에 関해서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現世에 살고 있는 普通사람들의 것과는 全혀 다른 見解이며 未来志向的인 見解이다.

党은 未来라는 観点에서 現世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全体 人民을 2大別하여 進歩的 階層과 反動的 階層으로 나눈다. 이것은 「나치」党이 全世界를 「아리안」(Arean)族과 「非아리안」(Non-Arean)族의 두가지로 区別하던 것과 恰似한 概念이다.

모든 人民을 2大別하는 이런 概念은 이것에서 多様한 形態의 結論을 유출하지 않을때는 별 問題가 없지만 그러나 共産党은 이로부터 反動派는 破滅되어야 하고 存在해서는 안된다는 必然的인 귀결과 進歩派는 오로지 存在해야 할 唯一한 階層이라는 結論을 流出해 낸다. 그리고 그들은 過去

란 그들의 理論에 있어서 別로 重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闘争하고 反抗하고 克服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反面에 未来에 対해서는 予示的인 理念을 갖고 있으면서 現世는 그들에게 教訓的인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있다.

反対로 그들은 모든 사물이 志向하고 있는 귀결점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意味에 있어서는 事実이다. 그러므로 現在의 教訓으로서는 矯正될 수가 없으며 그들은 実際를 通해서 行動하지만 実際는 具体的으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教示하지 못한다.

모든 部門에서 党은 人間사이의 役割을 確定하지만 이것은 実際的으로는 人間사이의 役割이 아니라 오히려 人間을 超越한 超人間的 役割인 것이다.

그들은 自身을 다른사람들의 위에 位置하는 特権階級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 自身을 為한 専制主義的인 権力을 要求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은 人民의 運命을 알고 있으며 모든 人民이 志向해야될 方向을 알고 있다고 믿고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大衆을 그들이 마음속에 構想하고 있는 人間形態로 두들겨 맞출 어떤 힘을 要求하고 있으며 同時에 그들이 構想하고 있는 機構와 環境을 형상화할 수 있는 権力을 要求하게 된다.

그들은 이와같은 知識을 다른사람과 共存할 수 없는 独断的인 特権이라고 主張하기 때문에 그들과 他人間의 어떤 共通性을 갖지 않으며 그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어떤 基本的인 共通性 即 価値의 共通性, 理解関係의 共通性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같이 自身과 他人間에 현격한 差異를 지닌 価値基準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에드먼드.버크」(Edmund Burk)가 말한 大衆과 自身間의 共通의 믿음을 否定한다. 이것은 特히 여러 政党이 같이 存在하는 国家들에 있어서의 共産党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들은 다른 政党이나 市民과 公共의 믿음関係를 갖지 않으며 그들은 마치 가면을 쓴 것과 같이 행동한다.

共産主義 体制란 共産主義者들에 依해 統治되는 政府를 意味한다. 政府

는 国民의 利益을 為해 統治하며 국민 全体의 共同利益을 為한 것 代身에 統治者 個人을 為한 政治는 暴君政治인 것이다. 換言하면 個人을 為해 政治権力을 利用하는 政権은 政府라기 보다는 暴君이라고 말할 수 있다. 共産主義者는 政治権力을 그들自身의 利益만을 為해 使用한다. 그 利益은 祝祭나 個人的인 特権을 為한 것은 아니며 그들의 理念의 利益을 為해서 政権을 利用하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다른 사람과 「이데올로기」를 共感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 自体의 目標이며, 立場인 것이다. 그들은 統治権力을 自体의 「이데올로기」 目標에 対한 大衆의 支持를 獲得하기 為해 利用한다. 이것은 個人의 蓄財를 為한 것은 아니지만 自身의 利益만을 為해 政治権力을 利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의 境遇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政府란 것은 政府라는 単語의 本然의 意味 即 共同利益을 為하여 公共権力을 行使하는 사람들의 集団이라는 意味에서 離脱한 것이다. 그것은 政府가 아니라 理念을 為主로 하는 企業(Ideological Enterprise)인 것이다. 그것은 共同의 利益을 為하는 政治가 아니며 事実上 蘇聯 人民의 利益을 為한 政治가 아니라 共産党 自体 「이데올로기」를 為한 政治이며, 共産党의 利益을 蘇聯 全体 国民의 利益인 양으로 行勢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 問題이지 核心問題가 아닌 것이다. 더우기 蘇聯 政権은 그들 人民中 大多数 人民과 恒久的인 闘争을 벌이고 있다는 意味에서 政府라고 할 수 없다.

어떤 다른 政府가 이런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政権이 그들 人民의 一部와라도 平和롭게 共存하지 않는 政権이 存在할 것인가? 그러나 原則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共産政権은 国家内의 大部分의 人民과 内的 闘争을 展開하며 同時에 外国의 敵과 外的인 闘争을 随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共産主義가 関係하고 있는 政権은 極断的인 분극화 状態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国内政治는 분극화되어서 進歩派, 反動派로 分離되어 同調者와 人民의 敵이나 또는 내재적 敵으로 分離되어 있다. 蘇聯 共産政権이 樹立된 直後부터 国際政治는 完全히 분극화되어 東欧圏, 西欧西

등으로 分離되고 있다. 国際政治엔 두개의 「블럭」이 存在하는바 우리는 지금껏 国際政治의 両極化 状態에서 闘争해 오고 있다. 蘇聯式 政権은 人民을 政治目標에 服従시키는 強制的 独裁政権인 것이며 人民은 政治目標를 充足시키는 手段以外의 어떠한 必要도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社会의 自動化 状態를 들수있다. 唯一한 権力의 中心으로서 군림하는 政権만이 存在할 뿐 社会의 如何한 形態의 圧力団体도 存在하지 않는다. 蘇聯에선 그들의 価値観의 結果로 大部分의 国民이 同意하는 가운데 모든일이 政府에 依해서 行해진다. 그런 結果로 国民 個人은 分散되어 無力해지고 疏外되어서 権力의 集中体인 共産党에 服従하게 되고 共産党만이 政治를 支配하게 되고 共産党 自体의 「이데올로기」를 為해 統治権力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共産政権의 批判에 있어서 軍隊의 集団化, 낮은 生活水準等 지금까지의 批判方式 보다는 좀더 基本的인 概念에 있어서 共産党과 共産政府에 対해서 批判해 보았다. 事実上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集団化된 軍隊가 漸次 사라지고 있다는 点은 事実인 것이다.

이제 「이데올로기」가 갖는 두가지 概念에 対해서 論해 보겠다.

첫째 権力概念과 둘째 共産主義의 歴史観에 対해서 論해 보겠다. 権力概念은 大端히 重要한 問題로서 「마르크스」의 〈資本論〉은 全体的으로 오늘날의 「부르죠아」社会에 있어서의 権力에 対한 分析이 그 主潮이다. 이러한 共産主義者의 分析을 綜合해 보면 圧力勢力, 不当한 権力 即 人民위에 군림하는 権力은 私有財産에 그 基盤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特定階級만이 生産手段을 独占함으로서 그들은 他階級을 支配하는 権力을 掌握하게 되고 이 階級이 唯一한 圧力勢力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勢力이 存在하는곳에 부당과 抑圧과 搾取 等이 存在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権力에 対한 分析은 많은 사람들에게 影響을 끼쳤다. 심지어 美国에서도 상당수가 企業勢力은 不当한 方法에 依해 成就되는 勢力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타세력은 実際的으로 搾取나 不

正이나 勢力拡張을 図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共產主義가 主張하고 있는 点과 一致하고 있다. 그러나 이 見解는 매우 不正確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權力에 関해 지나치게 좁은 見解를 지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財産은 權力을 낳는다. 事実 그렇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것들도 權力을 낳는다. 例로서 宗教団体에도 權力이 存在하며, 이것은 宗教的 權威의 基本이 되는 것이다. 労動組合의 組織에도 權力이 形成되며 組合 任員들은 상당히 巨大한 權力을 行使하는 것을 우리는 日常生活에서 볼 수 있다. 이같은 權力들은 企業에서 発生하는 權力으로 政治權力에 무관하여 同等한 權力構造를 形成하게 된다. 教育者들도 学生들의 成績과 学位授与에 関한 權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다른 形態의 權力이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行政手段을 가진 權力과 通信手段을 가진 權力, 強制手段을 가진 權力, 即 政府가 가지고 있는 權力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存在한다. 그리고 이것은 共產主義에 依해 完全하게 作用되는 權力이다. 数千年 동안 亜細亜 社会에서는 歷代의 政治權力을 政府官僚들이 完全히 수중에 掌握하고 있었다. 이 亜細亜 社会에서는 資本家는 行政官僚들의 機能을 돕는 程度에 불과 했으며 行政官僚들은 資本에 依해 支配되거나 예속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古代 中国의 例이며 印度의 境遇이다. 皇帝나 支配者는 그 社会의 政治權力을 完全支配했고 이 權力은 相当히 安定되었었다. 이같은 權力形態는 오랫동안 継続하였고 어떤 卓越한 執權者가 나타나거나 卓越한 武力革命家에 依해서 執權者가 바뀔지라도 이같은 政治形態는 不変하는 原則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亜細亜 歷史에 나타난 政治權力 形態는 本質的으로 行政的 權力 即 政府所有의 權力이었다.

「마르크스」는 이같은 分明한 事実을 無視하고 단지 企業의 權力에 対해서만 집착하였던 것이다. 資本에서 생기는 權力도 權力임에는 確実하지만 이 權力은 많은 權力中 하나에 불과하다. 事実上 이 財産으로부터의 權力은 몇몇 權力中의 하나라는 事実이다. 왜냐하면 이런 觀点에서는 財

産権은 自由権으로 認定되어 왔기 때문이다. 財産権이 없다면 人間이 他権力이나 政府権力에 対抗하여 生存할 수 없으므로 蘇聯에 있어서와 같이 私有財産 禁止는 国家権力의 지상화로 人民을 奴隷化하는 状態로 몰고 갈것이다. 共産主義는 権力에 対한 너무나 좁은 意味의 分析과 다른 権力의 分明한 存在를 無視함으로서 資本家 또는 지주라는 이름의 資本階級의 부패한 権力을 믿었으며 国家所有의 公共財産 国有財産制를 創造해내 그들은 抑圧勢力을 除去했다고 생각했다. 그 代身에 그들은 統制할 수 없는 그들 스스로의 独裁権力을 掌握했으니 이는 「스탈린」에 対한 「후르시쵸프」의 非難에서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바이다.

그들은 이러한 独裁政治를 資本階級의 搾取権力에 対抗하기 為해 나타나는 権力 概念으로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 独裁権力 自体가 抑圧勢力이며 모든 搾取勢力을 그 손아귀에 掌握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共産主義理念의 核心이며 또한 그것을 通해서 가장 効果的으로 共産主義를 특징지을 수 있고 批判할 수 있는 共産主義者들의 歴史観에 対해서 살펴 보았다.

進歩勢力과 反動勢力으로 分類한 共産主義의 社会分類方法을 살펴 보았으며 共産党이 未来에 그 基盤을 두고 現在를 이미 定해진 未来를 向한 過程에서의 한 段階에 不過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는 것도 説明하였다. 現在를 過度期로서 看做하는 이같은 態度는 다른 사람들과 共存하여 現在를 살아가야할 党에는 適合하지 않은것이다.

이러한 모든것은 歴史를 全体的으로 過去나 現在뿐 아니라 특히 未来까지도 이미 定해진 것이라고 主張하는 共産主義者들의 史観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共産主義者들의 史観은 모든 歴史의 過程은 自明한 것이며 歴史가 뜻하고 있는바나 앞으로의 歴史를 이끌고갈 歴史의 法則等이 전부 確定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에 関해 좀더 詳細히 説明해 보고 同時에 이같은 사관이 合理的인 思考方式에 基盤을 두고 있지 않다는 事実도 아울러 규명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史觀이 科学的인 것이라고 主張 함으로서 歷史를 하나의 資料 내지는 어떤 주어진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歷史는 資料가 될 수 없으며 歷史는 주어진 것이 아니다. 歷史는 우리가 記録으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過去의 全体 記録이 아니라 一部記録에 不過하며 未来에도 適用될 수 있는 어떤 公式이 될 수는 더우기 없는 것이다. 未来란 決定되어 있는것이 아니며 아무도 미리 알 수도 없는 것이다. 未来를 기왕에 주어진 어떤 知識에 依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라고 主張하는 사람은 주어진 与件에 対한 비합리적인 方法에서 얻은 知識을 미지의 状況에 適用시키려는 非合理的 態度를 지니게된다. 이것은 絶対的으로 不可能한 것이다.

두번째로 人間처럼 生存하고 있는 사물은 歷史에 내포된다고 말한 화란의 哲学家 「키엘케골」式의 批判方法을 살펴보자

実存主義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実存主義者들은 歷史에 包含되는 것은 実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는 개방될 可能性과 対決하고 있음을 意味하며 그 中에서 우리는 選択을 해야하며 未来에 나타날 問題에 基盤을 두어 現在 状況을 判別하는 것 같은 態度를 維持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은 우리가 時間과 空間을 超越한 境遇에 한하여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時間과 空間을 超越할 수는 없으며 歷史속에서 行動해야 하며 우리의 앞에는 開放되고 알려지지 않은 未来가 놓여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選択하고 決定해야 하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未来에 무엇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미리 안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人間은 時間과 空間을 超越한 位置에서 만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환언하면 신의 立場에서나 可能한 것이다. 共產主義에 있어서는 空間과 時間을 超越했을때의 位置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지 時間과 空間의 世界에서 가질 수 있는 位置는 알 수 없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거기다가 더 심한 主張을 하고 있다. 그들은 歷史中의 한기간 即 現在의 期間다음에 올 社会主義段階는 그들이 区分한 人類歷史의 다섯段階中 한段

階에 불과함에도 이를 絶対化 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人類歷史上 時間과 空間上의 여러 段階는 全部가 継続性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相互関係되어 있는 것이고 人間이 限界를 긋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共產主義者들은 이중에서 한段階만을 끄집어내어 이를 絶対化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時間과 空間上의 이 期間에서는 過去 모든 歷史가 完成되었다고 말하고 이 期間을 為해 過去의 모든 歷史가 存在했다고 主張한다. 이 期間은 人間의 숙명적인 時代이며 이 時代는 絶対的인 것이고 모든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時代라고 한다. 그러므로 共產主義者들은 여기에서 많은 問題에 있어 非合理的인 立場을 取하게 된다. 첫째로 모든 歷史는 주어진 것이라는 見解이다. 그들은 歷史속에 包含되어 있고 歷史속에서 存在하고 있으며 開放된 未来를 直面해야할 人間의 位置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回想하는 것처럼 現在에 関한 観察을 時間과 空間을 超越한 位置에서 보기를 고집한다. 그리고 結局에는 많은 歷史의 段階中 絶対的인 한段階를 끄집어내어 이를 絶対化 시킴으로서 이것으로서 모든것 특히 党이나 政権 人間의 慾求나 目標等을 재는 基準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모든 事実들이 共產主義의 심각한 非合理性의 基底가 된다. 共產主義者들은 歷史속에서 살고 있는 다른 人間들과 共存하고 있다는 것을 否認하며 神만이 가질 수 있는 地位와 知識을 主張한다. 그들은 神처럼 行動할려고 하며 이것은 모든 共產主義「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있고 이런 観点에서 共產主義 哲学에 根拠한 史観은 非合理的인 共產主義 行動의 要因이 되며 다른 사람에 対한 共產主義者들의 態度의 要因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5. 共産主義의 一般的인 前提 (「프로그람」 No. 53)

* 「니 마 이 어」 博 士

共産主義에 이끌리게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反問해보면 다음과 같이 많은 答辯이 나올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共産主義는 国民의 여러 意志를 滿足시켜주는데 必要한 合理的인 공식을 提供하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 예컨데 神을 믿는 것을 願하지 않고 神에 対한 信仰을 거부하면서도 人生의 意義와 方向과 責任感을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세계관을 제시해준다. 또한 어떠한 제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帝国主義를 증오하게 되었고 이 帝国主義에 대한 증오를 人生의 主要 意義로 삼는 者들에 대한 어떤 提示가 있다. 共産主義는 이들에게 모든 悪은 帝国主義에 起因한다는 定則을 提供하여, 이들을 帝国主義와의 闘争에서 共産主義의 背後에 참여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生活은 極히 미약하며, 無意味하다고 보고 共産主義에서 汎世界的인 大義, 世界의 重要 歴史的 運動을 찾아 이렇다 할만한 人物이 될려고 機会를 잡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이 心理的인 理由이며, 勿論 共産主義는 이러한 心理的인 性向을 가진 者들을 사로잡을 準備가 되어있는 것이다. 共産主義는 이들에게 어떤 種類의 滿足, 그들의 소망과 소원을 풀어줄 어떠한 突出口 비슷한 것을 제공할 準備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共産主義에 이끌리게 되는데는 보다 根本的인 原因이 많이 있다. 共産主義는 根本的인 問題, 즉 사람들을 没頭케하는 問題들을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問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느끼고, 묻고, 提起한 것들이다. 勿論 이러한 問題들은 이 問題에 봉착한 経験이 있는 사람들

---

* Gerhart Niemeyer : 「노틀담」大学 政治学教授. 独逸胎生, 「마드리드」「프린스톤」「예일」大学教授 歴任

에게 거듭거듭 提起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疎外의 問題 즉 사람은 서로가 他人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착취문제, 즉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利用되고 있다는 問題가 있다. 또한 새로운 生活에의 希望과 급격하고도 徹底한 変革에의 갈망이라는 問題가 있다. 共産主義가 提起한 이러한 問題들은 根本的인 解答을 마련하여 提供하고 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이러한 基本的인 哲学的인 理由, 또는 말하기에 따라서는 精神的인 理由 때문에 共産主義에 더욱더욱 이끌리게 된다.

먼저 疎外問題를 살펴보자 疎外는 人類가 겪는 영속적인 経験의 한가지이다. 우리는 도처에서 이 経験의 記録을 본다. 예컨데 聖書는 사람들이 서로간에 그리고 하느님으로 부터 얼마나 疎外되어 있으며 그들과 人生의 本質사이에는 무엇인가가 介入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잔뜩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오거스틴」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의 심장은 쉬지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種類의 経験에 대해 一種의 公式을 내놓고 있다. 즉 희랍의 비극은 잡다한 사람들의 徹底한 고립, 그것이 갖고있는 悲劇的인 誤解, 그리고 이러한 疎外를 느낄 때 人間의 孤独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것은 人類가 옛날부터 느껴온 経験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은 経験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戰争터에서 돌아온 軍人들로 부터 戰争経験을 相互 破壞할 수 없고, 不可分의 共同関係의 形態로 묶인 戰友愛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 서로를 위한 犧牲, 大義를 위한 犧牲에 関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심오한 友情을 나눌때 이와 비슷한 経験을 갖게되고 孤独으로 부터의 일시적인 解放이나 理解해주는 마음을 発見하게 된다. 勿論 우리가 고독의 두께를 깨고, 어느 누구를 사랑하여 갑자기 두사람이 한사람으로 되는 것보다 더 전형적인 高度의 脱皮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拡大되고 더욱 깊이 들어가서 심지어 信者들이 神과의 関係에서 発見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見地에까지 到達한다. 그러나 이러한 見地에 까지 이르지 못한 이밖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하느님과 生命의 神聖함과 그리고 우주와

하나가 될 可能性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自我는 감옥이긴하나 때로는 이 감옥으로 부터의 解放이 있을 수 있다.

「오거스틴」의 말을 또 한번 인용하면, 그는 두가지 觀念 即, 한편으로는 自己愛 다른 한편으로는 神에 대한 사랑의 概念을 통해서 인간과 人間 態度와의 関係를 分析했다. 이 두概念은 다같이 人間의 経驗이며, 同時에 存在하는 것이다. 이에 対해서는 이미 수많은 分析과 깊은 思考가 있었으며, 이에 関한 깊은 硏究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精神과 孤独, 当為와 그의 解放 等이 分析되어졌다.

그들은 무엇이 인간 存在의 진정한 秩序이며, 무엇이 거짓된 질서인가를 探究해 왔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 自信을 배신할 때 거짓 질서가 나타나고, 自信을 초월하여 사랑할 때 진정한 질서가 나타남을 알아냈다. 따라서 진정한 질서에는 疎外와 分離가 並存할지라도 解放 保留, 그리고 우리의 生活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구원 등이 存在한다. 「마르크스」는 人類 歷史上 여러賢人들에 의해 樹立된 이 모든 資料와 経驗을 무시한다. 그는 누적된 영혼의 온갖 分析들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좁은 見解를 펴 疎外는 物質的인 条件 때문에 存在하는 것이라고 簡単히 말했다. 즉 人間은 分業에 従事하고 있고 人間을 資本家와 労働者로 分離하는 私有財産이 있기때문에 人間은 서로 남남이라는 것이다.「마르크스」는 이어 人間와 人間사이의 疎外, 人間의 生活로 부터의 疎外, 神으로 부터의 疎外는 私有財産과 分業이라는 이 두 条件이 극복되면 사라질 것이라고 示唆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分析은 極히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人類가 갖고 있는 豊富한 여러 経驗들을 무시하였다.

끝으로 또하나의 欠点은 그것이 部分的인 真理라는데 있다. 部分的인 真理는 完全한 真理가 아닌 것이다. 実際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疎外는 소련에서도 좋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혼돈되고, 더욱 悪化되고 있다. 소련 사람들은 서로 심각하게 疎外되었으며, 分離되어 있다. 더군다나 共産主義者들은 生活에는 疎外만이 存在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疎外로 부터 脫皮하는데 成功하는 生活의 모든 양상을 못본 체 하거나, 사람이 서로 結合을 이루어 自信보다 더 큰 것을 공격하는 人生의 局面이 存在함을 무시한다.

共産主義者들은 疎外 때문에 社会 全体를 거짓된 것이라고 宣言하고, 또한 이 疎外 때문에 全体 社会를 파괴할 것을 促求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社会의 모든 것을 파괴하면, 모든 共産主義者들의 主張 中 착취보다 더 反応이 현저한 것은 없다. 심지어 많은 非「마르크스」主義者들이 이 착취문제로 因해 심각한 影響을 받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現 社会는 착취에 기반을 둔 것이며, 따라서 착취는 非人間的인 것이며 不正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우리 社会의 特徵이라고 生覚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資本主義에 対한 根本的인 고발은, 그것이 착취에 토대를 둔 착취로 構成된 社会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착취한 人間生活에 널리 퍼진 形態라고 말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고용주와 被雇傭人間의 関係에서 착취관계가 発生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搾取는 이보다도 더 範囲가 넓다. 가령 그것은 友情関係에서도 일어난다. 親旧를 搾取하는 親旧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것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家族間에서도 또한 発生한다. 어린이들은 부모로 부터 搾取当할 수 있으며, 또는 特히 現代 家庭에서는 父母가 그들의 子息들로 부터 搾取当하는 일이 흔히 있다. 搾取는 性関係에서 가장 頻繁히 일어난다. 즉 弱한 便이 強한 相対方에게 搾取되고 있다. 그것은 政治에서도 일어나며, 우리들은 누구나 우리가 처한 政府에 依存하는 種類의 搾取에 対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自己 나름의 生活의 어떤 基本的인 必要 때문에 어느 누구에 依存하게 될 때는 언제나 搾取가 생기며, 아니면 적어도 搾取의 可能性은 있는 것이라고 一般的으로 말할 수 있다. 自己 自信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이 힘은 搾取의 目的으로 使用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利用하기 위해 이 힘을 使用할 수 있는데 이는 結局 搾取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搾取 問題를 大局的인 面에서, 이러한 現象을 全体로서 다루지 않고, 이를 生産手段의 個人 所有問題에로만 人為的으로 못박았다. 그는 資本을 가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에게 雇傭될 때 搾取 関係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만이 唯一한 搾取라고 主張한다. 搾取는 오로지 이러한 関係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이러한 関係, 즉 資本所有者와 賃金 労動者 사이의 関係가 사라질 때, 모든 搾取는 끝장이 날 것이라고 約束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소련은 이 主張이 事実과는 全혀 다르다는 것을 証明하고 있다. 소련에서 搾取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소련 労動者들은 더 호되게 搾取当하고 있다. 그들은 労組를 통해서 파업도, 항의도 할 수 없고, 団体 交渉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적은 임금으로 搾取当하고 있으며, 그들이 創造한 価値의 大部分은 政府에 빼앗기고, 政府는 이를 그들의 目的을 위하여 使用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搾取行為이다. 그러나 搾取는 이것 뿐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必要와 自信의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依存하게될 때는 언제나 搾取関係가 発生한다.

그러므로, 疎外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搾取가 人間 経験의 全体는 아닌 것이다. 한가지에 搾取当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面에 있어서는 全国的인 尊敬과 배려를 받을 수도 있다. 例를 든다면, 군대에서는 軍人들이 国家의 目的을 위해 使用된다. 軍人들은 軍隊의 目的을 위해 使用되나 이는 말하자면 搾取当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同時에 軍人은 尊重되고 있다. 그는 権利를 가지고 있으며 基地를 떠나면 市民의 権利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個人的으로 依存하여 使用하기 위해서는 個人的으로 依存할 사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편 다른 面에 있어서는 自信의 見解를 밝히게 하고 尊敬하며, 品位를 지닌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搾取 때문에 사회 全般을 糾弾한다. 그는 搾取를 中和하는 다른 特徵들은 무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私有財産이 사라짐과 때를 같이하여 搾取関係도 없게 될 것이라는 非合理的인 約束을 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重要問題인 生活의 개혁에 대한 展望에 대해 살펴보자.

共産世界는 西方世界 보다 더 많은 希望이 있다고 主張한다. 共産主義가 賦課하는 가혹한 고통에도 不拘하고 共産主義에는 根本的으로 希望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共産主義가 새로운 生活에 걸고있는 展望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苦痛의 期間, 이러한 特徵의 期間을 겪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到来하는 것이라고 共産主義는 追従者들에게 가르치고있다. 이것이 주된 動機이며 特히 高位層의 共産主義者들로서 政策을 立案하는 者들이 그러하다. 이는 오늘날 共産軍에 入隊하는 者들에게도 主要 매력의 하나가 된다. 이는 또한 人間의 항구적인 希望이기도 하다.

人間의 歷史를 살펴보면 人類의 歷史가 始作된 以来 끊임없이 보다 새로운 生活을 바라는 希望, 特히 生活의 革新이란 希望이 継続 存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시카고」大学 教授인 「머시어·에어리어」(Musia Area)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研究結果인 많은 저서를 出版했다. 「에어리어」教授는 새로운 生의 希望이 多少 活潑하지 못한 모든 時代와 모든 人種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多樣한 관습을 説明해 주고있다. 例를들어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기원을 한다. 새해의 決心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원을 한다. 이것은 모든 관습의 改善 즉 새해를 맞이한 生活의 일신이다.

猶太人이 一年에 한번씩, 그들의 罪를 모두 씻어 贖罪羊을 바치는 것은 生의 一新을 위한 再生의 또 하나의 상징임은 말할 것도 없다. 基督教의 一新 概念은 特殊한 形態를 取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안의 새로운 被造物이라는 公式으로 이를 表現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恩寵과 神이며 사람인 「그리스도」와의 유대로 한 人間의 霊魂이 새

롭게되어, 그의 生命은 다시 始作되고, 처음부터 그에게는 없었던 숨은 힘 같은 것의 도움을 받아 그는 새로운 수준에서 出発하여 새로운 存在로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数世紀 동안의 基督教 文化에서의 基督教의 一新 概念은 人間 各自의 人格의 一新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었으며 또한 이러한 人格의 一新으로 이것이 霊魂(Soul)이 되며, 存在의 一新은 이러한 霊魂에 그 基礎를 두게 된다는 것이다. 勿論 사람들은 自己들의 生을 이처럼 一新하고 싶다는 希望과 함께 살고있다. 이들이 함께 生活하고 있으므로 個人 生活의 一新은 또한 새로운 社会的 存在가 된다. 우리는 中世 初期에 一群의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基督教의 生活을 하게 되었으며, 이들 中 一部는 社会的으로 至大한 結果를 낳은 충격을 일으켰다는 事実을 알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社会의 形態, 또는 制度를 갖고 始作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恩寵을 通해 各自의 人格을 一新하여 自己의 霊魂으로 부터 始作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크스」理論의 이 새로운 生活의 展望에 対한 매우 편협하고도 根本的으로 不合理한 属性을 다시 보게된다. 즉 「마르크스」는 全面的인 革命을 통해서 生活革新이 可能하다고 主張했던 것이다. 勿論 이러한 가정이란 現代의 世界는 完全히 破壊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全世界가 物質的으로 社会的으로 政治的으로 破壊되어, 새로운 무엇이 우리의 生活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生活은 現在의 世界가 破壊되고 이러한 破壊로 革新된 未来의 世界에 適合한 사람들에게만 可能한 것이며 現代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除外되고 未来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革新의 恵択을 보게 될 것임을 意味하는 것이다. 勿論 「마르크스」는 人間의 生活이 새로운 制度의 紹介를 通하여 革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째, 모든 制度를 破壊하고, 이어 새로운 制度의 紹介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는 우리 生活의 革新問題에 대해 우리의 現在 生活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不充分한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에

不満이 있기 때문에 生活의 革新을 바라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러한 不満의 原因을 그것이 根本的으로 悪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러한 悪에 대한 그의 分析을 主로 制度面에 대한 分析으로 局限시켰다.

그리고 그는 人間의 霊魂은 타락하기 쉽고, 아울러 霊魂의 一新과 정화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뚜렷한 証拠를 배제, 무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人間이 生活의 一新, 人格의 正化, 自己의 存在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提高하기 위한 記録이 생긴 以来 人間이 겪고있는 이런 대단히 심원한 経験과 소망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기만되었던 것이다.

現世界는 破壊되어야 하며 破壊된 폐허 위에서 새로운 制度가 생겨나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公式은 모두 不合理함을 알 수 있다. 疎外, 搾取 및 生活의 革新에의 希望 等 모든 面에서 이들 問題가 分析이 可能함에도 共産主義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들 問題는 歴代의 哲学者, 賢人, 聖人등의 심오한 思惟를 거쳐 分析이 되어있는 것이다. 共産主義는 이 모든 진지한 面에 対해서 歪曲된 解答을 하고있다. 여하튼 그들은 問題를 提起했으며 이 問題들은 진정한 問題인 것이다. 그러나 共産主義의 解答은 人為的인 것이다. 이 解答이 危険한 것은 사람들이 共産主義者가 되는 것이 이들 問題의 根本的인 特徴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実際로는 不合理하고도 歪曲된 解答만으로 가득찬 것이다.

이것은 共産主義의 가장 심각한 危険性인 同時에 共産主義가 갖는 큰 매력이 되는 것이다.

〈参　考　文　献〉

1.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Milovan Djilas. New York: Praeger, 1957

2. Land Without Justice
Milovan Djilas. New York, 1958.

3. Communism on the Decline
George C. Guin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6.

4. Communism and Man
Francis J. Sheed. New York:

5. "A Critique of Communism,"
Joseph M. Bochenski and Gerhart Niemeyer, eds., Handbook on Communism. New York: Praeger, 1962

6. Marxism: Is It Science?
Max Eastman. New York: Norton, 1940.

7. The Illusion of the Epoch: Marxism-Leninism as a Philosophical Creed
H. B. Acton. Boston: Beacon, 1957

8. Karl Marx and the Close of His System, 2d. ed., edited by Paul M. Sweezy
Eugen von Böhm-Bawerk. New York: Kelley, 1949.

9. The Road to Serfdom
F. A. von Hayek.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44

10. The Affluent Society
Kenneth Galbraith. Boston: Houghton-Mifflin, 1958

11. History of Economic Doctrines
Overton H. Taylor. New York: McGraw-Hill

12. Modern American Capitalism: Ideologies and Issues
Joseph R. Monsen, Jr. Boston: Houghton-Mifflin, 1963

13. The Russian Revolution
Nicholas Berdyaev. Ann Arbor: Michigan, 1961

14. Communism and Christ, 3d ed.
Charles W. Lowry. New York: Collier, 1962

15. Communism and the Theologians: Study of an Encounter
Charles C. West. Philadelphia: Westminister, 1958

16. Christianity and Communism Today
John C. Bennett.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4

17. Communism and the Conscience of the West
Fulton J. Sheen. New York: Bobbs-Merrill, 1948.

18. True Humanism
Jacques Maritain. New York: Scribner's, 1938

19. State Terrorism and Rational Terror
Albert Camus. New York: Vintage Books, 1956.

20. The Political Theory of Bolshevism: A Critical Analysis
Hans Kėlsen. Berkeley: California, 1948

21. The Struggle for the World
James Burnham. New York: John Day, 1947.

22. Political Patterns in Today's World
D. W. Borgan and Douglas V. Verney. New York: Harcourt, Brace, World, 1964

23. A Critical Examination of Marxist Philosophy
Kalyan Chandra-Gupta. Calcutta: Sri Ramranjan Das Srihari, 1962.

24. The Drama of Atheist Humanism
Henride Lubac. Cleveland and New York: Meridian Books, 1963.

25. The Tyranny of Concepts: A Critique of Marxism
Gordon Leff. London: Merlin, 1961

〈비 매 품〉

공산주의본질비판

1973년 10월 25일 인쇄
1973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처 : 국 토 통 일 원 교육홍보실
인쇄처 : 주식회사 배 문 사 ㉖ 0234 0235
㉗ 0234